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를 마무리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내용이 담긴 선거기사심의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간 바쁘신 와중에도 심의위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선거 결과는 국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심의하고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기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할 권한을 가진 기구입니다.

선거에 있어 언론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후보자들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유권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후보자를 접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 선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언론 보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보자별 보도 횟수, 지면상의 기사 배치, 사진의 크기, 심지어 사소한 오탈자까지도 표심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선거에 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보도를 할 책임이 있고, 공직선거법 제8조는 선거에 관하여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를 언론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체심의 55건과 시정요구심의 21건을 의결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선거기사를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제재대상 기사 가운데 중앙지에 게재된 기사보다 지역지에 게재된 기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자체심의를 통해 제재를 받은 기사 가운데 지역 신문 기사의 비중은 2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한 위 수**



자체심의 외에 후보자의 시정요구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한 신청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문제된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의 답변이나 해명을 요청했을 때 다수 지역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가 보도자료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보도가 많이 나갔을 뿐"이라거나, "취재인력이 부족하여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은 후보까지 취재할 여력이 없다" 또는 "위원회가 지역 언론사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선거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신문사가 별도의 취재 없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이 배포하는 홍보성 보도자료를 그대로 지면에 게재하여 일방적 의견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보도행태에 대한 개선 방안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등 제재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문으로 적시하여 법적 명확성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외에 3개로 분할되어 있는 선거기사심의기구를 통합하는 문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제재조치 효율성 제고방안 검토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들의 노고가 담긴 이 선거기사심의백서가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고생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님과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의위원장 인사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를 마무리하며 ... 04

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12**

제2장 심의·의결 절차 **17**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20**

제2부

심의·의결 현황

제1장 심의 운영 방침 **24**

제2장 심의·의결 현황 및 분석 **26**

I. 심의·의결 현황 개요

1. 자체심의 27
2. 시정요구심의 28

II. 자체 심의 분석

1. 위반유형별 분석 29
2. 결정유형별 분석 32
3. 매체유형별 분석 42

III. 시정요구 심의·의결 현황

1. 정정보도문 게재 45
2. 경고결정문 게재 46
3. 경고 47
4. 주의 47
5. 권고 48
6. 취하 49
7. 기각 50

제3부

종합평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54

제2장 결산 좌담 68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1. 경고 79
2. 주의 244
3. 권고 330

제2장 시정요구심의

1. 정정보도문 게재 333
2. 경고결정문 게재 340
3. 경고 360
4. 주의 368
5. 권고 390
6. 기각 402

부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420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427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39
4. 심의대상 매체 현황 456
5. 색 인 460

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의결 절차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제1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6년 4월 13일)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 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구 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 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2. 3.~ 2014. 7. 4.	2014. 6. 4.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5. 31. ~ 2014. 8. 29.	2014. 7. 30.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8. 30. ~ 2014. 11. 28.	2014. 10.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2. 28. ~ 2015. 5. 29.	2015. 4. 29.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8. 29. ~ 2015. 11. 27.	2015. 10.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12. 14. ~ 2016. 5. 13.	2016. 4. 13.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6. 2. 13. ~ 2016. 5. 13.	2016. 4. 13.	2015. 8. 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선이 없는 해에는 재보궐선거 연 1회로 축소

2. 구 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권자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언론인단체) 및 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단체) 등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16년 3월 18일 국민의당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2016년 3월 28일자로 국민의당 추천 위원 1인을 추가 위촉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이 력	추천단체
위 원 장	한 위 수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남 래 진	(현) 한서대 초빙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전 진 우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더불어민주당 (구 새정치민주연합)
	오 대 현	변호사,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새누리당
	신 용 진	(전) MBC 보도본부장	국민의당
	김 화 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한국신문협회(언론인단체)
	양 경 승	부장판사, (현) 사법연수원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윤 영 태	(현)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단체)
	강 신 업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 종 혁	(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사진 : 왼쪽부터 윤영태 위원, 이종혁 위원, 강신업 위원, 양경승 위원, 한위수 심의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 전진우 위원, 남래진 부위원장, 김화성 위원, 오대현 위원>

3. 기 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재조치 관련규정>

제재조치	관련법률	관련규칙
사과문 게재 ※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4	
경고결정문 게재	-	
주의사실 게재	-	
경고 또는 주의	-	
권고 등	-	

※ 사과문 게재조치는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3헌가8)으로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제2장
심의·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심의 담당 부서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로 판단하는 경우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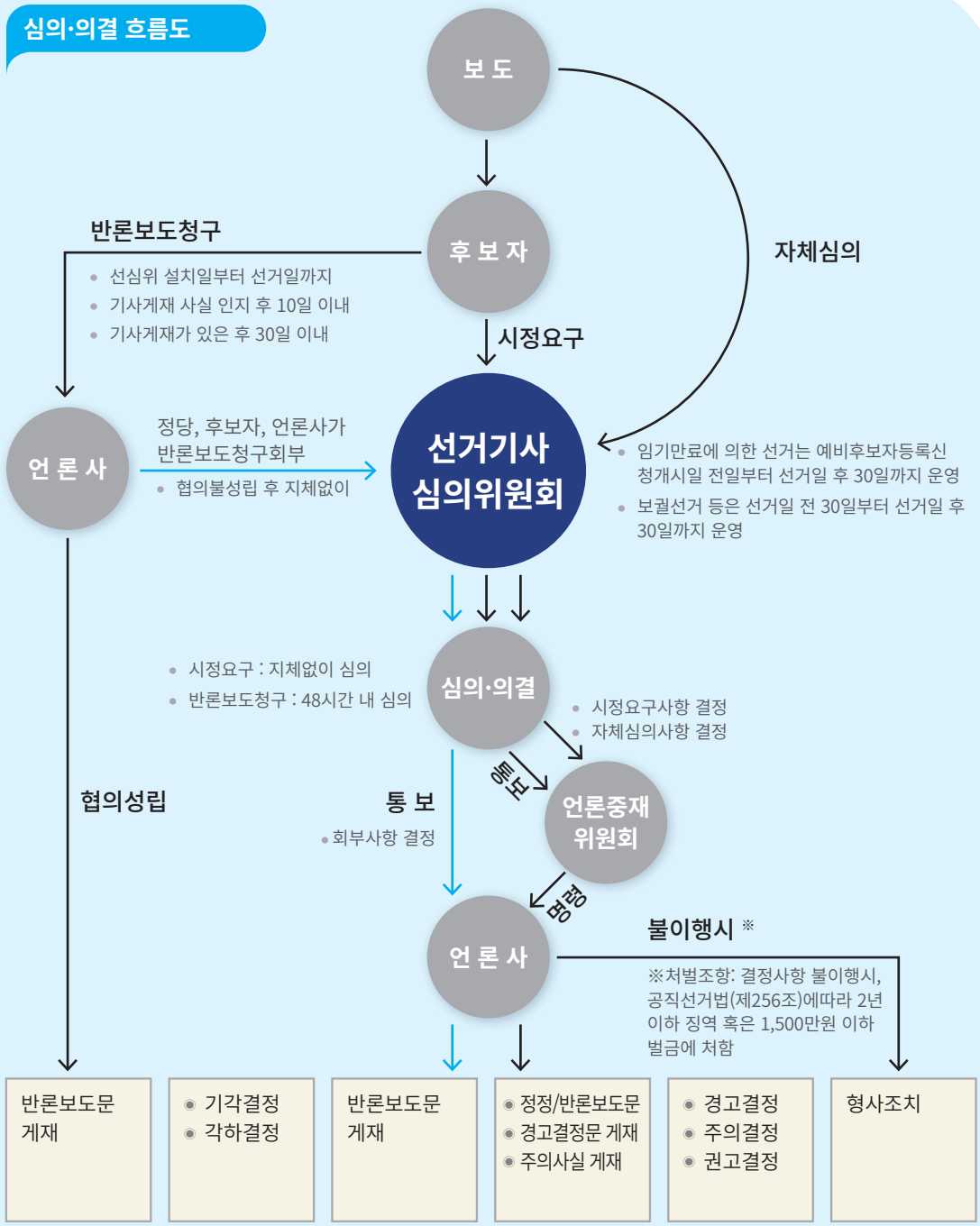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나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심의·의결 흐름도



• 청구 받은 때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게재

재심청구

•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공직선거법 개정(2015년 8월 13일, 2015년 12월 24일)

국회는 2015년 8월 13일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축소함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연 2회 실시되던 재·보궐선거를 1회로 축소(대선이 있는 해는 2회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또한 2015년 12월 24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2.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2016년 5월 3일)

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 2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의 내용을 심의기준에 추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서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 관련 심의를 개시함에 따라 중복제재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첫째,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규정에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기사'를 추가.

둘째, 여심위 소관인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여론조사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기준 위주로 조문 정비.

제2부

심의·의결현황

제1장 심의 운영방침

제2장 심의·의결현황 및 분석

제1장
심의 운영방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심의 운영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규정된 제재조치 가운데 '사과문 게재'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2015년 7월 30일 결정, 2013헌가8)됨에 따라 사과문 게재를 제재조치로써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정정보도문 게재 조치는 사실관계에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이 허위 사실이 보도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반론보도문 게재 조치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충분히 게재되지 못하여 반론게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기로 하였다.

●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고결정문 게재 및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일종의 변형결정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으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독자들에게 해당 언론사가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하기로 하였다.

● 그 밖에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결정을,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사의 내용에 의도성이 없고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제2장
심의·의결현황 및 분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는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심의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반론보도청구회부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I. 심의·의결현황 개요

1. 자체심의

심의실무를 담당하는 기사심의팀 직원 및 심의보조원 3인은 대상매체(중앙일간지 23개, 지역일간지 96개, 기타일간지 4개, 종합주간지 14개, 지역주간지 216개, 월간지 7개, 뉴스통신 6개 등 총 366개)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심의위원회는 총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55건의 자체심의 안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주의가 33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21건(38.2%), 권고 1건(1.8%) 순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39건(70.9%), 기고 등 게재금지 위반 9건(16.4%), 광고 제한 위반이 4건(7.3%),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3건(5.5%) 순이었다.

각 매체 유형별 의결현황을 보면, 일간지는 35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중앙일간지는 4건, 지역일간지는 31건의 제재를 받았다. 일간지 제재 35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7건(77.1%)으로 가장 많았고, 기고 게재 금지 위반이 4건(11.4%), 광고제한 위반이 3건(8.6%),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1건(2.9%)으로 나타났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가 18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의 결정이 17건(48.6%) 내려졌다.

주간지는 20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주간지에 대한 제재가 1건, 지역주간지 19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2건(60.0%), 기고 등 게재금지 위반 5건(25.0%),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2건(10.0%) 광고제한 위반 1건(5.0%) 순이다. 결정내용별로는 주의가 16건(80.0%)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3건(15.0%), 권고가 1건(5.0%)으로 나타났다.

자체심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1건으로 재심 결과 기각되었다.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의결현황>

간 별		계	위반 유형				결정 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기고 등	정정 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신문	중앙	4	1	1	2				4	
	지역	31	26		1	4		18	13	
종합주간지		1		1					1	
지역주간지		19	12	1	1	5		3	15	1
월간지		0								
뉴스통신		0								
총 계		55	39	3	4	9	0	21	33	1
		100.0%	70.9%	5.5%	7.3%	16.4%	0.0%	38.2%	60.0%	1.8%

2. 시정요구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21건으로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 3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12건, 뉴스통신 5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들은 후 안건을 심의, 결정했으며, 처리결과는 정정보도문 게재 2건, 경고결정문 게재 3건, 경고 1건, 주의 4건, 권고 2건, 취하 4건, 기각 5건이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3건으로 모두 기각되었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시정요구심의 매체유형별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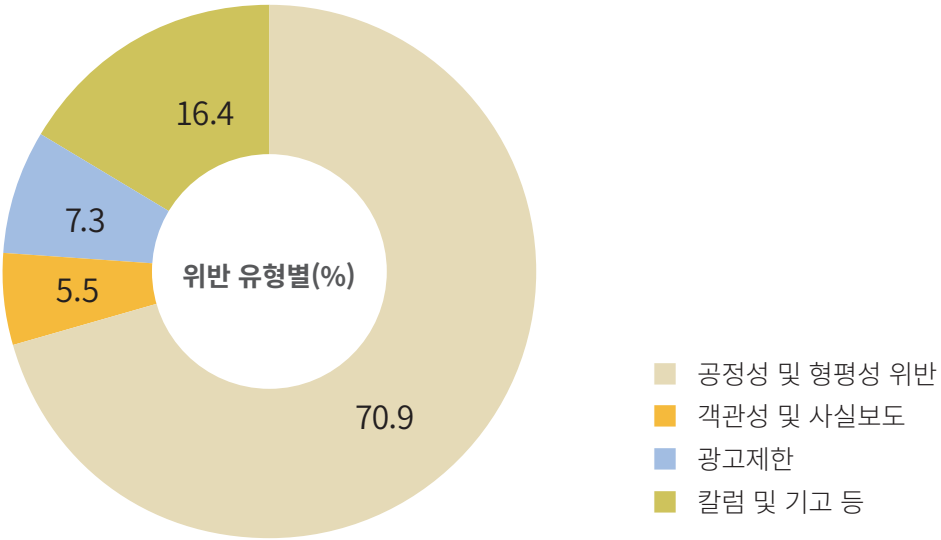
구 분		계	결정 내용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각하
일간신문	중앙	3						1	1	1	
	지역	0									
종합주간지		1			1						
지역주간지		12	2		2		3	1	1	3	
월간지		0									
뉴스통신		5				1	1		2	1	
총 계		21	2	0	3	1	4	2	4	5	0
		100%	9.5%	0.0%	14.3%	4.8%	19.0%	9.5%	19.0%	23.8%	0.0%

II. 자체심의 분석

1. 위반유형별 분석

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를 통해 제재조치를 결정한 선거기사 55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39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기고 등 게재 금지 위반 9건(16.4%), 광고 제한 위반이 4건(7.3%),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3건(5.5%)으로 집계되었다. 여론조사보도 요건 관련 심의가 여심위로 이관됨에 따라 자체심의 건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세부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자체심의 의결현황>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유형 중 대다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연속 게재한 것이었으며 특정 후보자의 출마선언문 또는 기자회견문 전문,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문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가 있었다.

(1) 특정 후보자 관련 기사 연속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경우 타 후보자에 비해 높은 빈도로 특정 후보자의 동정, 정견,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연속 게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전투데이의 경우 대전 중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은권 전 중구청장에 대한 기사를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10건 게재하면서 다른 후보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아 경고 조치되었다.

심의위원회는 강석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8건을 보도한 경북매일, 김태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8건을 보도한 경인매일 등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정견 등을 연속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경고 결정을 내렸다.

(2) 출마선언문, 기자회견문 전문 보도

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출마선언이나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출마선언문,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 경우에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다만 경쟁 후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중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류화선 후보의 출마 소식과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파주저널의 경우 주의 조치되었으며, 강석진 후보에 우호적인 2건의 기사와 더불어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 거창韓뉴스에 대해서도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3) 특정 후보자 부각 보도

다른 후보에 대한 보도 없이 특정 후보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사진과 함께 보도한 경우도 다수 적발되었다.

허숭 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사진과 함께 전면 게재한 반월신문, 최명길 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사진과 함께 전면 게재한 충남일보 등에 대해서도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선경일보는 다른 후보에 대해 보도하지 않으면서 정병국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 출정식 관련 기사를 사진과 함께 보도하여 주의 조치를 했다.

(4) 기타 특이사례

심의위원회는 박인균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그대로 지면에 게재한 현대일보에 대해서 주의 결정을 내렸다.

남해시대는 「'김두관' 국회입성 확실시」라는 제목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해당 매체의 배포지역이 김두관 후보의 선거구가 아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권고 조치 했다.

나. 칼럼 및 기고 등 게재금지 위반

선거기사 심의기준 중 칼럼 및 기고 등 게재금지 규정 위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선거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경우이다. 이번 선거에서 심의위원회가 칼럼 및 기고 게재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의결한 9건은 모두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경인매일과 아시아일보는 박인균 후보의 칼럼을 게재하여 각각 주의 조치되었으며 현직 국회의원의 기고문을 게재한 강서양천신문과 시민일보 등에 대해서도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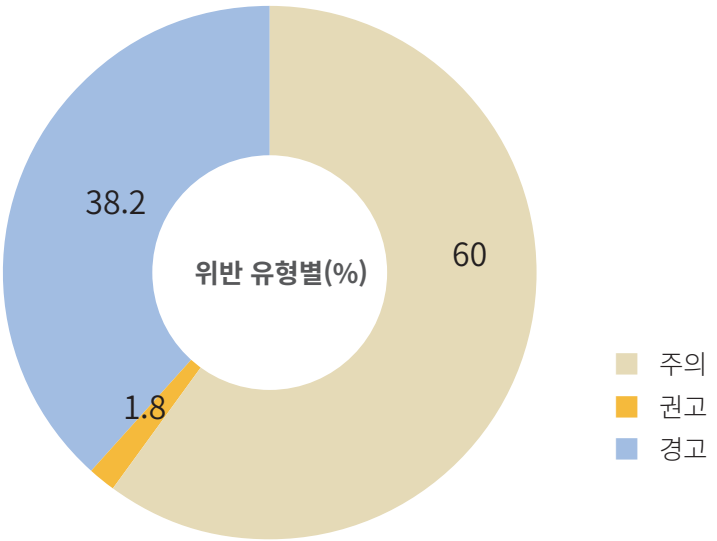
다. 광고제한

광고제한 위반 4건 중 3건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명의가 드러난 저서 광고였으며, 1건은 인터넷 배너에 실어야 할 후보 광고를 실수로 지면에 게재한 것으로서 과거와 같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타임즈는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표창원, 이철희씨의 저서 광고를 게재하여 주의 조치되었으며 연수송도신문은 인터넷 배너광고용으로 전달된 기사를 지면에 게재하여 주의 결정을 받았다.

2. 결정유형별 분석

<자체심의 의결현황>



가. 경고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제재조치를 의결한 55건 중 총 21건(38.2%)의 기사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지역일간지가 18건, 지역주간지가 3건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유형은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집계되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기사의 경우 일부 사진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게재금지 규정을 동시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기사의 내용, 특정 후보자 보도 횟수 및 경쟁 후보 보도 횟수, 기사의 크기, 사진 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선거기사가 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결정하였다.

<경고 결정 보도 목록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2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 국선 -자심5	경북 신문	12월 23일	1면	정수성 국회의원 9관왕의 위업, 의정활동 '명불허전'
		12월 28일	3면	정수성 의원, 경주지역 구석구석 의정보고 나섰다
		12월 30일	3면	정수성 의원, 주민 목소리에 '귀활짝'
		12월 31일	2면	정수성 의원, 천북면·월성동 주민과 대화
		1월 4일	2면	산업 융복합 통해 새로운 경주 건설
		1월 6일	3면	정수성 의원, 주민불편 해소에 발로 뛴다
		1월 7일	3면	정수성 의원, 주민숙원 귀담아 듣는다
		1월 11일	3면	정수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보상 법률안 발의
		1월 12일	3면	정수성 의원, 구석구석 주민 목소리 청취
		12월 29일	3면	김석기 경주지역 총선 예비후보 12박 13일 민생투어, 오늘 스타트
		12월 31일	2면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잘사는 경주건설' 12박 13일 민생투어
		1월 5일	3면	"현장 소통으로 현안 찾아낼 것"
		1월 7일	3면	김석기 경주 예비후보, 발로 뛰는 민생소통
2016 국선 -자심7	중부 일보	12월 30일	10면	"부시장때 느꼈던 문제들 직접 해결하기 위해 출마"
		12월 30일	17면	수원시정, 5년을 보내며
		1월 5일	4면	이재준 전 수원 제2 부시장 더민주 경기도당 입당
		1월 11일	4면	"시민의 힘으로 장안구 바꾼다"
		1월 12일	5면	이재준(수원갑) "수원시 광역시로 승격시킬 것"
		1월 18일	5면	이재준(수원갑)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스마트 기술 적용 필요"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 국선 -자심9	대경 일보	1월 5일	3면	“포항의 새로운 변화·발전 이끌겠다” 새누리당 이창균 예비후보
		1월 6일	2면	이창균 포항북 예비후보 (주)화인플랜택 방문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1월 7일	3면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겠다”
		1월 11일	3면	이창균, 민심 변화 감지 “서민경제 반드시 살린다”
		1월 12일	3면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정선거 촉구”
		1월 13일	2면	“시내버스 공공성과 효율성 충족해야”
		1월 14일	2면	“살기 좋은 두호동 건설 노력” 당부
		1월 15일	2면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적극 앞장” 약속
		1월 18일	2면	“재래시장 활성화…독특한 콘텐츠 개발 시급”
		12월 16일	2면	박승호 예비후보 본격 선거 홍보전
		12월 22일	2면	“TP2단지, 정치쟁점화 현실 안타깝다”
		12월 29일	2면	“깨끗한 정치 실현하겠다” 박승호 포항북 예비후보
		12월 30일	2면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 위해 앞장설 것”
		1월 5일	3면	“잃어버린 정치신뢰 회복하겠다”
		1월 6일	2면	새누리당 박승호 예비후보 흥해지역 민생탐방 나서 상인·농민들과 소통의 장
		1월 7일	3면	박승호 예비후보 “체육인이 지역발전 앞장”
		1월 8일	2면	“새로운 정치 실현 위해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
		1월 8일	3면	박승호 예비후보 “흥해 노정삼 애환 귀 기울여”
		1월 11일	3면	“멸사봉공의 자세로 열심히 발로 뛰겠다”
		1월 13일	3면	여성기업인 회장단 만나 현장애로 ‘경청’
		1월 14일	3면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 만들어야”
2016 국선 -자심11	경인 종합 일보	12월 15일	3면	前 남양주 시의원 남혜경, 국회의원 출마 선언
		12월 28일	3면	남혜경 예비후보 독특한 선거운동 화제
		1월 12일	2면	“행복한 남양주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1월 26일	2면	이제는 배우자의 외조를 보여줄 때
2016 국선 -자심13	일간 경기	12월 16일	13면	안산시민 염원 담아 발걸음 내딛어
		12월 30일	13면	“역사문제 일관된 원칙…” 지속 바란다
		1월 5일	13면	박순자 예비후보, “안산, 새로운 도약 필요…”
		1월 8일	3면	“10년 앞서가는 안산을 만들겠다”
		1월 15일	13면	박순자 예비후보 “신안산선 2017년 착공 불안”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 국선 -자심14	대구 신문	12월 21일	3면	이재만 “동구 보살필 봉사자 될 것”
		1월 20일	4면	동구을 이재만 ‘소음피해 보상’ 최우선 공약
		1월 21일	4면	청년 일자리 활성화 토론회
		1월 22일	4면	“동촌유원지 일대 옛 도로, 특화거리로 조성”
		1월 25일	4면	동구을 이재만, 어린이집 일일교사 활동
2016 국선 -자심15	포천 신문	1월 1일	6면	김영우 의원은 사퇴하라
		1월 10일	6면	지역 국회의원의 욕망과 반성
		1월 20일	6면	전철 7호선…양주서 포천까지 연장할 수 있나?
		1월 20일	6면	포천에는 전철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2016 국선 -자심26	경안 일보	12월 14일	2면	김희국 의원, 2015년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1월 11일	2면	김희국 의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8일 본회의 통과
		1월 27일	2면	김희국 의원, 서민잡는 건보료 즉시 개선 촉구
		1월 29일	2면	김희국 의원, 도심형 뉴스테이 추진
		2월 2일	2면	김희국 의원, 정치·경제·사회개혁 3대 과제 각각 제시
2016 국선 -자심27	대전 투데이	12월 15일	2면	이은권 전 중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청춘 중구 만들겠다”
		1월 5일	2면	새누리당 대전시당 “충청실리론으로 선거임할터”
		1월 8일	2면	“보문산에 대전랜드마크 보문타워 건립”
		1월 15일	2면	이은권 “서대전역 고속전철화 앞당기겠다”
		1월 22일	2면	이은권 예비후보 “창조관광으로 원도심 활성화”
		1월 27일	2면	이은권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7일 개소식
		1월 28일	3면	‘청춘중구’ 위한 힘찬 발걸음
		1월 29일	3면	“쇠락한 중구경제 반드시 살려내겠다”
		2월 5일	2면	“청춘의 열정 넘치는 따뜻한 중구 건설”
		2월 12일	2면	수서발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증편촉구 서명운동’ 호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 국선 -자심28	경북 매일	12월 15일	3면	울진 등 지역구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1월 21일	3면	강석호 의원, 농업인 실용교육 격려
		1월 22일	3면	울진~분천 경북순환철 건설 본격화
		2월 1일	3면	화재현장 찾은 강석호 의원 "郡과 신속한 복구 협의" 약속
		2월 3일	2면	영덕군 도·군의원들 강석호 의원 지지선언
		2월 3일	2면	강석호 의원 "더 많은 일 할 수 있게 기회 달라"
		2월 4일	2면	"울진SOC 마무리할 역량 갖춘 사람 필요"
		2월 11일	2면	강석호 "지역발전 위해 모든 능력 발휘할 것"
2016 국선 -자심29	현대 일보	12월 17일	2면	주대준 "일자리 넘치는 광명으로"
		1월 18일	14면	"공직·학자 경험 살려 최고 도시 만들 것"
		2월 3일	14면	'국가 사이버 안보 고등연구원' 설립 협조요청
		2월 4일	14면	주대준 예비후보,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 받아
		2월 11일	14면	주대준 예비후보, 설연휴 가족과 시장 방문
2016 국선 -자심30	경인 매일	1월 4일	6면	안산 시민 모두가 희망의 한해 되길
		1월 15일	6면	"우수소공인들 육성제도 마련해야"
		1월 29일	14면	소사원시선 문제해결 나섰다
		2월 1일	4면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 평판
		2월 4일	6면	"분열 아닌 포용·통합의 정치 실현"
2016 국선 -자심35	일간 경기	12월 30일	7면	퇴임 앞둔 수원시 제2부시장 "행복했습니다"
		1월 12일	3면	"정치를 시민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7면	"장안구 아파트 환경 바꾸겠다"
		2월 16일	7면	수원시 더민주당 시·도의원 성명
		2월 19일	3면	더민주 수원갑 이재준 예비후보 지지선언
2016 국선 -자심36	현대 일보	1월 13일	2면	김철민 출마선언, "믿음의 정치 하겠다"
		1월 19일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참배
		1월 20일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총선후보 자격심사 통과
		1월 27일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출근 인사로 지지 호소
		2월 2일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슬로건 "시민과 더불어, 상록乙 바꾸자"
		2월 4일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법제화 필요"
		2월 19일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로"
		2월 24일	2면	김철민 예비후보, '반월공단 활성화방안' 발표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 국선 -자심37	전국 매일	2월 4일	5면	“국세청장 경험 살려 기업 유치·예산확보 총력”
		2월 5일	5면	“서민층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
		2월 12일	5면	“기업유치·관광산업 진흥 통해 일자리 창출”
		2월 15일	5면	“전통시장 인근지역 주차공간 확보 시급”
		2월 17일	5면	한상율 예비후보, 출산장려 정책 허점 지적
2016 국선 -자심39	나주 신문	1월 25일	3면	“호남 민심은 야당 체질개선과 정치 혁신 통한 정권 교체”
		2월 15일	4면	신정훈 의원,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도보순례 돌입
		2월 22일	4면	신정훈 의원, 당내 농어민상생본부장 임명
2016 국선 -자심43	기호 일보	12월 31일	5면	박광온, “수원 망포동에 초교 신설 확정”
		1월 11일	6면	청명중 체육관 14억 건립 지원
		3월 4일	5면	박광온, 수원정 예비후보로 첫 일정 소화
		3월 7일	5면	박광온 연기금 투자정책 더민주 공약화
		3월 10일	5면	“삶의 격차 양산하는 경제정책 바로잡을 것”
		3월 14일	4면	박광온 “영통이 승리해야 수도권이 승리”
		3월 16일	5면	박광온, 광역교통청 등 7개 공약 발표
2016 국선 -자심44	서울 매일	12월 30일	3면	동수원 고가차도 소음 줄어
		1월 6일	3면	화서역 에스컬레이터 운행
		1월 7일	3면	‘찾아가는 동별 의정보고회’ 김용남 의원, 주민과의 소통
		2월 2일	3면	“설 준비는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3월 11일	3면	서호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 김용남, 보행 안전사고 예방
		3월 21일	3면	“출퇴근길에 만나요”
		2월 3일	3면	‘신구로 창조 3D’ 공약실현 제시
		2월 12일	3면	“남구로시장에서 설준비해요”
		2월 29일	3면	‘신구로창조 3D’ 비전 발표
		3월 4일	3면	험지로 간 강요식 ‘이색홍보’
		3월 21일	3면	험지공천, 킬러공천 넘어서!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 국선 -자심48	경인 매일	1월 19일	4면	“무책임한 정치행태는 법의 심판 받게 될 것”
		2월 4일	4면	19대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 “1등 덕양 만들 것”
		2월 5일	14면	창릉천 정비사업 ‘가속페달’
		2월 17일	4면	김태원 의원,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3월 14일	4면	김태원, 새누리 고양시을 공천 확정
		3월 28일	4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평가 받게 돼 기뻐”
		4월 1일	4면	“3선 큰 일꾼 되어 덕양발전 완성”
		4월 4일	4면	“교통, 일자리와 상권 상승 견인”
2016 국선 -자심49	강진 우리 신문	3월 9일	1면	황주홍 의원 지지선언 잇따라
		3월 9일	2면	황주홍 의원, 20대 총선 출마선언
		3월 9일	2면	황 의원, 강진지역 간담회가 열어 지역 현안 청취
		3월 16일	2면	황주홍 의원 저서 사인회 성황리 열려
		3월 16일	2면	황주홍 의원, 9일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 가져
		3월 23일	1면	황주홍 후보, 국민의당 공천 확정
		3월 23일	2면	황주홍 후보, 감사인사 고흥 방문
		3월 29일	1면	전직군의회 의장들, 황주홍 후보 지지선언
		3월 29일	2면	황주홍 후보,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민감 품목 가격 안정화 약속
		3월 29일	4면	“강진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늘 함께하길”
2016 국선 -자심50	도민 일보	2월18일	4면	황주홍, 19대 국회 환경베스트 의원 선정
		3월3일	4면	황주홍 의원, 20대 총선 출사표
		3월4일	4면	“소록도 치유의 섬으로 거듭나야”
		3월9일	4면	황주홍 의원, 선거체제 본격 돌입
		3월15일	4면	황주홍 대세론, 4개 군으로 확산

나. 주 의

자체심의 의결 건수 중 주의 결정은 33건(60.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4건, 지역일간지 13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15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칼럼 및 기고 금지 위반이 9건, 광고제한 위반이 4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3건이다.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에 대해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주의 결정을 내렸다.

<주의 결정 보도 목록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국선-자심1	파주저널	12월 16일	1면	“류화선이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3면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2016국선-자심2	반월신문	12월 16일	7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행정가의 기질도 필요합니다”
2016국선-자심3	충남일보	12월 18일	3면	“포용으로 정치불신 해소할 터” 최명길 총선 예비등록자, 유성 출마선언
2016국선-자심4	경기신문	12월 18일	20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앞장… 용인발전 10년 앞당겼다고 생각”
		12월 28일	20면	“용인 발전에 최선… 새해에도 성과로 보여주는 정치할 터”
2016국선-자심6	부천신문	12월 24일	4면	손숙미의 자신감 “여론조사해보니 좋은 조짐”
2016국선-자심8	현대일보	12월 30일	2면	박인균 예비후보 이색 선거명함
2016국선-자심10	대경일보	1월 8일	2면	이재만, 새누리 지지층서 유승민 앞서
2016국선-자심16	매일경제	1월 13일	5면	朴 “대구 달성에 나가달라” 추경호 총선 출마 직접 권유
2016국선-자심18	거창韓뉴스	1월 18일	1면	강석진 새누리당 복당 결정 선거전 요동
		1월 25일	1면	강석진 예비후보 ‘잰걸음’
		1월 25일	13면	제20대 총선 강석진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2016국선-자심19	전주일보	1월 18일	3면	이춘석, ‘올 들어 벌써 29억’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국선-자심20	전라일보	1월 20일	3면	임정엽 예비후보, '군수시절 성과' 눈길. 선거구도 '안갯속' 전망
2016국선-자심25	함양신문	1월 25일	4면	'강석진' 국회의원선거 출사표 던지다
2016국선-자심31	서대문자치신문	1월 30일	8면	서대문을지역 야권 통합을 위해 노력할 터
2016국선-자심34	서울동부신문	1월 27일	1면	안형환 예비후보 지지
2016국선-자심38	전라일보	2월 4일	3면	"설 명절 전 쌀 변동직불금 지불 바람직"
		2월 15일	3면	박민수 의원, 19대 국회 입법활동 왕성
		2월 18일	3면	박민수 의원, 19대 국회 의정활동 '17위'
		2월 23일	3면	"농업경영비 절감사업 예산 대폭 투입해야"
		2월 25일	3면	박민수 의원, "쌀값 안정 환영"
2016국선-자심45	영암신문	2월 26일	1면	"태어난 곳 영암 출마 권유받아"
		2월 26일	3면	"대한민국 개조하고 호남정신 재창조 하겠습니다."
		3월 4일	7면	박준영 전 지사, 구국기도회 특별강의
2016국선-자심51	선경일보	4월 4일	12면	여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출정식 열어

<주의 결정 보도 목록 – 광고 제한 위반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국선-자심17	한겨레	1월 14일	12면	표창원 정의의 적들
		1월 19일	14면	표창원 정의의 적들
2016국선-자심23	아시아타임즈	1월 20일	18면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2016국선-자심24	세계일보	1월 26일	2면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1월 29일	6면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2016국선-자심55	연수송도신문	3월 30일	8면	연수구(을) 새누리당 기호1번 민경욱 후보

<주의 결정 보도 목록 – 칼럼 및 기고 게재 금지 위반 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국선-자심12	경인종합일보	1월 25일	14면	국회의원 선거구 없는 현역의원은 무죄? 정치신인은 유죄?
2016국선-자심21	강서양천신문	1월 18일	11면	카드수수료 우대적용대상 5억원으로 확대해야
2016국선-자심22	철원신문	1월 19일	10면	찬란한 태양 바라보며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2016국선-자심32	시민일보	1월 29일	3면	국민을 위한 정치 선진화의 길
2016국선-자심33	경인매일	2월 16일	8면	전철 7호선 연장 의정부 구간은 재추진 되어야 한다!
2016국선-자심41	아시아일보	2월 17일	4면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의정부에 4개역은 추진되었어야 한다
2016국선-자심42	강남포스트	2월 17일	2면	성명서
2016국선-자심47	양천신문	2월 29일	2면	"조국 부름 받아 월남전 참전한 용사들 기리는 날 필요"
2016국선-자심54	종로신문	3월 30일	7면	복지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주의 결정 보도 목록 –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국선-자심40	울진신문	2월 21일	1면	전광삼, 강석호 맞대결 전 후보 우세
2016국선-자심46	일요서울	3월 7일	8면	'진박논란' 전승-전패 이번은 깨지나?
2016국선-자심53	문화일보	3월 30일	6면	사상 첫 '약사〉의사' 국회 되나

다. 권 고

자체심의 결과 권고 결정은 1건(1.8%)에 그쳤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에 위반되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권고 조치하였다.

<권고 결정 보도 목록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2016국선-자심52	남해시대	3월 15일	4면	'김두관' 국회입성 확실시

3. 매체유형별 분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일간지 123개(중앙지 23, 지역지 96, 기타 4), 주간지 230개(종합주간 14, 지역주간 216), 월간지 7개, 뉴스통신이 6개로 총 366개 매체였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4개, 지역일간지 23개, 종합주간지 1개, 지역주간지 19개 등 모두 47개 매체가 선거기사 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제재를 받았다. 심의대상 매체 대비 위반 매체 비율은 약 12.8%로 집계되었다.

자체심의대상 매체 중 중앙일간지에 대해서는 4개 매체에 대해 주의 4건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위반유형별로는 광고제한 위반이 2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각 1건이다.

지역일간지는 자체심의대상 매체 96개 가운데 23개 매체가 총 31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 18건, 주의 13건이 의결되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6건, 칼럼 및 기고 등 게재 금지 위반이 4건, 광고제한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다.

종합주간지 심의대상매체 14개 중 1개 매체에 대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으로 1건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역주간지의 경우 심의대상매체 216개 가운데 19개 매체가 19건의 제재를 받았다. 경고 3건, 주의가 15건, 권고 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2건, 칼럼 및 기고 게재 금지 위반이 5건, 광고제한과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심의대상 매체 중 가장 많은 횟수의 제재를 받은 언론사를 살펴보면, 지역일간지 경인매일(경고 2, 주의 1)과 현대일보(경고 2, 주의 1)가 각각 3건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역일간지인 경인종합일보(경고 1, 주의 1), 대경일보(경고 1, 주의 1), 일간경기(경고 2), 전라일보(주의 2)가 각각 2건씩의 제재조치를 받아 뒤를 이었다.

<매체별 위반현황(자체심의)>

간별	매체명	구분	위반유형				결정 내용			
		계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기고 등	정정 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중앙 일간지	매일경제	1	1						1	
	문화일보	1		1					1	
	세계일보	1			1				1	
	한겨레	1			1				1	
	소 계	4	1	1	2	0	0	0	4	0
지역 일간지	경기신문	1	1						1	
	경북신문	1	1					1		
	경안일보	1	1					1		
	경인매일	3	2			1		2	1	
	경인종합일보	2	1			1		1	1	
	경북신문	1	1					1		
	기호일보	1	1					1		
	도민일보	1	1					1		
	대경일보	2	2					1	1	
	대구신문	1	1					1		
	대전투데이	1	1					1		
	서울매일	1	1					1		
	선경일보	1	1						1	
	시민일보	1				1			1	
	아시아일보	1				1			1	
	아시아타임즈	1			1				1	
	일간경기	2	2					2		
	중부일보	1	1					1		
	전국매일	1	1					1		
	전주일보	1	1						1	
	전라일보	2	2						2	
	충남일보	1	1						1	
	현대일보	3	3					2	1	
	소 계	31	26	0	1	4	0	18	13	0

간별	매체명	구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계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기고 등	정정 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종합 주간지	일요서울	1		1					1	
	소 계	1	0	1	0	0	0	0	1	0
지역 주간지	강서양천신문	1				1			1	
	강진우리신문	1	1					1		
	강남포스트	1				1			1	
	거창韓뉴스	1	1						1	
	나주신문	1	1					1		
	남해시대	1	1							1
	반월신문	1	1						1	
	부천신문	1	1						1	
	서대문자치신문	1	1						1	
	서울동부신문	1	1						1	
	양천신문	1				1			1	
	영암신문	1	1						1	
	연수송도신문	1			1				1	
	울진신문	1		1					1	
	종로신문	1				1			1	
	파주저널	1	1						1	
	포천신문	1	1					1		
	철원신문	1				1			1	
	함양신문	1	1						1	
	소 계	19	12	1	1	5	0	3	15	1
총 계		55	39	3	4	9	0	21	33	1
		100.0%	70.9%	5.5%	7.3%	16.4%	0.0%	38.2%	60.0%	1.8%

III. 시정요구 심의·의결 현황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는 총 21건이다. 처리결과별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2건(9.5%),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 3건(14.3%), 경고 1건(4.8%), 주의 4건(19.0%), 권고 2건(9.5%), 취하 4건(19.0%), 기각 5건(23.8%)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3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12건, 뉴스통신이 5건이다.
재심청구는 3건이 제기되었으며 모두 기각되었다.

1. 정정보도문 게재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2건은 지역주간지인 주간 파주In과 성동신문에 대해 내려졌다.

주간 파주In이 2016년 4월 8일자 1면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황진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하여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황진하 후보는 본인이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없으며, 캠프 관계자가 시산제에 참석하여 돼지머리에 3만원을 꽂은 것에 불과하여 금품수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을 취하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황진하 후보가 고발당한 사실이 없는 점, 기사에 황 후보측 반론이 전혀 실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고 보도문에 황 후보측 반론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성동신문은 2016년 4월 6일자에 성동구 보훈 관련 단체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보도하면서 "새누리당의 김동성 후보와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 등 2명만이 관심을 갖고 답변을 보내왔다"며 홍익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답변만을 게재하였다. 이에 홍익표 후보는 성동신문측이 보낸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한에 맞추어 송부하였음에도 성동신문이 보도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성동신문은 홍익표 후보 측의 답변이 기한 내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답변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며 홍 후보의 답변 내용을 성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익표 후보측은 방문자가 거의 없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속 보도한 것은 적절한 후속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성동신문에 대해 보도 전에 후보자의 답변 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잘

못된 사실보도에 대한 정정은 지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2. 경고결정문 게재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은 총 3건이다.

지역주간신문 한길뉴스는 2016년 1월 4일자 지면에 경북 김천 선거구에 출마한 당시 현역 국회의원 이철우 후보가 사기꾼 조희팔이 투자한 김천삼애원의 시행사인 대상컨설팅의 고문을 맡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경쟁 후보를 부각하였으며, 이철우 후보 측이 의정보고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길뉴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다. 이철우 후보는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대상컨설팅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없고, 한길뉴스의 보도가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라며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한길뉴스의 주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결정 등이 없어 허위사실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점, 한길뉴스가 과거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을 게재한 점,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길뉴스의 보도가 현저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한길뉴스는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이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결정문 수령 후 신문을 발행하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였으나 자체종결 처리되었다.

지역주간신문 오산타임뉴스는 2015년 12월 29일자 3면과 4면에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안민석 후보가 국비 확보 내역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안민석 후보는 해당 기사가 시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사이며 반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 및 경고 결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심의대상 기사가 총 사업비 400억원 가운데 국비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에도 단지 국비 30억원만이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점, 안 의원 측 반론을 전혀 게재하지 않은 점, 타 후보 보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결정문 게재를 결정하였다. 오산타임뉴스는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신문 발행을 하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였으나 역시 자체종결 처리되었다.

종합주간지인 일요서울은 2016년 2월 15일자 1면과 2면에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원명부 일부를 입수하였다며 해당 명부가 '유령당원' 명부이고 이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대구시당 당협 위원장을 지낸 유승민 후보가 이 명부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유승민 후보 측

은 일요서울 측이 입수한 명부에는 실제 당원이 과거에 사용하던 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전화번호가 잘못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정상적인 당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들 모두를 유령당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유승민 후보가 유령당원을 관리했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실제 언론사가 전화 확인한 것은 20명에 불과함에도 "본지, 200명에 일일이 전화해 확인"하였다는 부제목을 사용한 점, 20명 중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음에도 모두 유령당원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90%가 유령당원인 셈"이라고 과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일요서울은 재심 청구 없이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경고결정문을 게재하였다.

3. 경 고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안건 가운데 1건에 대하여 경고 결정을 내렸다.

뉴스통신사인 국제뉴스는 2016년 2월 4일부터 3월 1일까지 정종섭 후보의 동정 등에 관한 기사를 18건 게재하면서 현역 의원이었던 류성걸 후보의 동정 관련 보도는 1건도 게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3월 2일자 기사에서 류성걸 후보의 2016년 의정보고서가 허구라는 내용의 비판적 성명서를 그대로 보도하였다. 류성걸 후보는 국제뉴스의 보도가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위배된다며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 관하여 우호적인 기사를 반복하여 보도하면서 경쟁 후보자에 관해서는 일방적 반대 성명서만을 보도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언론사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

4. 주 의

심의위원회가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내린 주의 결정은 총 4건이다.

거창군민신문은 2016년 1월 4일자 1면에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 감산점 때문에 강석진 후보의 새누리당 복당이 어려워 사실상 4.13 총선 출마가 어렵다고 보도한 후 강 후보가 복당한 뒤인 같은 달 18일자 지면에서는 강 후보가 과거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신성범 국회의원에게 '거창에서는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강석진 후보는 자신은 중도사퇴자 감산점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도 없어 이

러한 보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새누리당 사무처에 조회한 결과 해당 감산점 규정이 강 후보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확인한 후 해당 기사의 단정적인 표현, 후보자 감산점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점, 기사에 취재원이나 취재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후보자 측 반론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윤관석 후보는 뉴스통신사인 뉴시스가 2016년 2월 22일자 기사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전혁 후보가 윤관석 후보에 크게 앞섰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 후보의 출마의 변 및 주요 공약을 소개하자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문 게재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후보자 간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주의 조치하였다.

지역주간지인 의정부소식은 2016년 2월 4일자 1면에 김남성 후보가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이력을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하여 배포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경쟁 후보의 선거 출마 소식을 같은 지면에 나란히 보도하였다. 또한 3월 3일자 1면에도 김남성 후보가 당명 혼동 경력기재로 유권자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기사와 경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기사를 나란히 배치하였다. 이에 김남성 후보는 해당 보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사를 같은 지면, 유사한 위치에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안산 지역주간지 반월신문은 2016년 4월 6일자에 김명연 후보와 경쟁 후보에 대한 의혹 기사를 게재하고 선거 당일인 4월 13일자 1면에 김명연 후보가 투표 대가로 탈북주민에게 쌀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김명연 후보는 타 선거구에서도 고소고발 등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구의 의혹만을 보도한 것은 악의적인 행태이며, 후보자가 대응할 시간도 없이 선거 당일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등 부정하게 선거에 개입하였다며 심의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기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관련 사실을 객관적 근거 없이 보도한 것이며, 선거 당일 배포된 보도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충분한 취재나 반론 기회의 제공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하였다.

5. 권 고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2건의 권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내일신문이 2016년 3월 2일자 4면에서 인천시 계양구갑 선거구 야권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유동수 후보를 누락하여 보도하자 유동수 후보는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보도임을 이유로 보도시 후보자 간의 균형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포천신문은 2016년 3월 1일자에 김영우 후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총 4건의 기사 및 기자 칼럼을 게재하였다. 김영우 후보는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 심의 및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제목과 기사 본문에서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지 못한 채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심의기준 위반으로서,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여 보도할 것을 권고하였다.

6. 취 하

4건의 시정요구는 후보자 측의 요청에 의하여 취하되었다.

경기 수원시갑에 출마한 박종희 후보는 뉴시스가 2016년 2월 22자 기사에서 경쟁 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유권자의 인식과 판단을 호도하고 왜곡하였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으나 추후 취하하였다.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한 민경욱 후보는 인터넷 배너광고용으로 제공한 시안을 지면에 게재하여 후보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의혹에 휘말리게 한 연수송도신문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추후 취하하였다.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광고제한 규정 위반으로 자체심의를 통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 남동구을에 출마한 윤관석 후보는 문화일보가 2016년 4월 6일자 지면에서 후보의 공약이 과거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재탕한 것이라고 보도하자 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는 시정요구인의 반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문화일보 측 재심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그러나 윤관석 후보는 추후 시정요구를 취하하였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는 연합뉴스 2016년 4월 10일자 보도에서 경쟁 후보의 지원 유세에 특정 인사가 합류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임을 이유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추후 취하하였다.

7. 기 각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기각 결정은 5건이다.

영덕지역 주간지 포스트신문이 2016년 2월 19일자 1면에서 전광삼 후보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의견을 비판하자 전광삼 후보는 실제 인터뷰가 없었음에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폄하 보도하였다며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청하였다. 포스트신문 측은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왔으며, 심의위원회는 한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이후 반론보도문이 지면에 게재되었음이 확인되자 시정요구 기각을 확정하였다.

충남 홍성에 출마한 홍문표 후보는 지역 주간지 홍성신문의 4월 4일자 지면에 실린 선거운동 관련 사진에서 특정 후보의 포스터 등이 부각되게 촬영되었으나 다른 후보의 경우 후보자명과 기호, 정당 구분이 되지 않아 편파적인 기사라며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각 후보자들의 관련기사 크기·배치·형식 등이 균형 있게 보도된 점, 해당 기사의 내용이 특별히 편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요구를 기각하였다.

자치안성신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안성시 선거구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 내용을 지면에 게재하면서 이규민 후보의 답변 부분을 백지로 남겨두었다. 이규민 후보 측은 해당 언론사의 질문이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답변을 거부한 것인데 해당 지면을 백지로 남겨두어 후보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심의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질문 내용을 고려하면 편파적으로 질문이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후보자별로 동일한 크기의 지면을 제공하고 답변 내용이 짧은 타 후보의 경우에도 일부 공백을 두고 지면을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공정하거나 의도성이 있는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후보자의 시정요구를 기각하였다.

안산 단원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명연 후보는 뉴스통신사인 뉴시스에서 경쟁 후보를 2배 가까이 많이 보도하였으며 김명연 후보 측 보도자료는 늑장 보도하고 경쟁 후보의 보도자료 내용은 즉시 보도하는 등 편파보도하였다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보도횟수, 게재방식,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보도의 공정성, 형평성을 위배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후보자의 시정요구를 기각하였다.

동아일보가 2016년 4월 6일자 사설에서 박용진 후보 측 관계자들의 경쟁 후보 폭행 의혹을 거론하자 박용진 후보 측은 해당 사건과 후보자 측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해당 사설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을 게재한

점, 폭행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설이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기각하였다.

제3부

종합평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결산좌담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



이 종 혁 위원(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언론 보도는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과 동떨어진 예측 보도, 정책 보도의 실종, 현장 유권자 목소리 부재, 소수 정치인 말 받아쓰기, 비(非)객관적 판세 보도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한 신문은 선거 직후 〈총선 보도 반성합니다〉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정확한 민심 전달 실패와 정파적 보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현장 취재를 통해 밑바닥 민심을 확인하지 않았고, 데스크에서 엉터리 여론조사 자료만 정리했다는 것이다. 보수 언론은 야권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진보 언론은 야권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 또 다른 반성 포인트였다. 이번 총선에서 언론은 여전히 선거판에서 심판이 아닌 선수로 뛰려 했으며, 그 결과 신뢰도만 떨어뜨렸다고 이 칼럼은 비판했다. 이런 지적은 선거 기간 동안 언론에게 엄격하게 요구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언론은 이 같은 기본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전히 사과하거나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총선의 잘못을 모두 정치권에 돌릴 뿐,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언론의 선거 보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투표가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실시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 몫은 언론이 주로 맡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의 선거보도는 사회적 중요성과 유권자의 기대에 부합할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제8조)를 규정하고, 언론 기관의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를 제도화(제8조의2, 3, 5)하고 있는 이유이다. 구체적으로 선거 기사 심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의해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등 매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기사에 대해 폭넓은 심의를 벌이고 관련 제재 유형을 결정했다. 심의 기간 동안 전체 심의 건수는 80건이었으며, 시정요구 21건, 자체심의 55건, 재심청구심의 4건으로 나타났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37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어 경고 22건, 기각 9건, 취하 4건, 권고 3건, 경고 결정문 게재 3건, 정정보도문 게재 2건의 순이었다. 자체심의 의결 건수를 위반 유형으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항목 위반이 39건(7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고(16.4%), 광고 제한(7.3%), 객관성 및 사실보도(5.5%)의 순으로 위반 건수가 나타났다.

이번 심의 제재 결과를 이전 국회의원 선거보도 심의 때와 비교하면 전체 심의 건수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19대 총선 당시의 심의 건수는 130건이었다. 주요 선거보도 심의 항목이었던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논의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과 공천 지연으로 본격적인 후보 간 경쟁이 늦게 시작된 점도 심의 건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시정 요구 접수는 1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기사 심의를 담당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107건 심의)와 인터넷언론을 담당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246건 심의)와 비교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적은 편에 속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민원신청(86건)이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72건)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심의(21건)에 비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이는 선거 후보자 지원단체 또는 유권자들이 신문보다 방송이나 인터넷의 선거 보도에 더 민감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종이 신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종이 신문은 방송과 인터넷의 모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여전히 정치 분야에서 유의미한 의제설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 신문들의 영향력이 지방 방송국이나 지역 인터넷 언론에 비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의 범위를 넓히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중앙과 지역신문의 다양한 선거보도 기사를 심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의 선거보도 실태, 심의기준의 적용, 제재 결정과 실효성, 심의위원회 운영 등 심의와 관련된 몇 가지 측면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선거 보도 실태와 문제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언론사의 보도 태도는 선거 보도의 핵심 기준인 객관성, 형평성,

공정성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줬다. 구체적 보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경우이다. 이는 언론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따지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확성의 문제에 해당된다. J신문은 H후보가 금품선거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제목을 뽑았으나, 실제 이 후보는 검찰에 고발되지 않았다. 실제 고발은 후보 선거운동 관계자와 관련돼 있었다. 심의위는 허위 사실 보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O신문은 A의원이 국비 확보 내역을 허위로 부풀렸다고 기사화했다가 역시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충실한 검증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I신문은 Y의원이 지역구에서 수백명 유령당원을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제보로 입수된 일부 당원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유령당원을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해당 의원이 관리했다는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역시 충분한 사실 관계 검증이 없어 정확한 사실 전달에 실패한 경우로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둘째 유형은 무근거 추측 보도이다. 명확한 관찰, 관련 인물 인용, 근거 자료를 대지 않고 정황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자의 추측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 M신문은 C후보의 총선 출마를 대통령이 직접 권유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나타난 출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청와대 한 참모', '여권 관계자', '일각에서는' 등이다. 인용 내용에도 대통령이 해당 후보를 신임한다는 일반적 의견이 담겼을 뿐이었다. 실제 대통령의 직접 권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은 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불가능하다. 허위 사실은 아니더라도 이 기사의 내용과 형식은 명확한 근거가 제공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의 사례로 판단될 수 있다. 기사의 주제에 근거가 되는 내용과 취재원의 명시라는 형식이 선거보도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떤 지역 신문은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전달하며 '호사가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언론의 역할은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검증 보도하는 것이다.

객관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학계에서 언론의 사회적 현실 구성이라는 테마는 저널리즘 연구의 주요 의제로 여전히 논의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언론도 미디어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실 가운데 어느 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현실을 옮기는 과정과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어떤 지역구의 후보 간 경쟁을 어느 시각, 어느 장소, 어떤 관점에서 취재하느냐에 따라 다른 내용의 기사가 나올 수 있다. 언론 보도의 객관주의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신문이 정파지에서 대중 신문으로 전환하며 더 많은 독자를 끌기 위해 나타난 상업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다. 신문이 보수나 진보 가운데 하나의 관점을 표방하면 상대 진영의 독자를 잃어버리지만, 정파적 관점을 없애면 양쪽 진영의 독자 모두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 저널리즘 학자들은 객관 보도 이념 아래

에서 언론이 심층 탐사 보도의 역할을 줄인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사회 이슈에 대한 객관적 접근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비(非)개입 관찰자로서의 언론을 만들어냈고, 언론의 비개입은 압력 단체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분리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언론의 객관 보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언론의 객관성이 현실의 전달이 아니라 구성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근거에 기반한 사실 전달이라는 객관 보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언론의 객관성 유지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합의이자 전략이자 관행으로써 수행된다. 예를 들어, 근거 제시, 취재원의 명시, 직접 인용, 대립 의견 소개 등의 형식적 관행을 따름으로써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관행적 객관 보도 원칙의 차원에서 앞의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취재원을 밝힘으로써 전달 내용의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방식은 기사 쓰기의 기본 원칙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번 심의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할 정도로 기사와 사진의 양적 편파가 다수 언론사에서 나타났다. 후보자 관련 기사에서 특정 인물 관련 내용만 두드러지게 많이 포함시키거나, 특정 인물 사진을 더 많이 게재하는 방식이었다. K신문은 특정 후보자 관련 기사 18건을 며칠 사이에 연속으로 게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 제재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5건 이상 연속 게재한 경우에 적용됐다. 경쟁 후보자가 있음에도 특정 인물의 인터뷰만 전면으로 실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 기사에는 특정 후보의 개소식과 거리 선거 운동 등의 동정은 물론 후보의 출마 선언문까지 그대로 실렸다. 후보의 선언문이나 기고는 그 자체가 기사가 아닌 홍보지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언론사의 해명에서 나타났다. 언론사들은 특정 후보만 보도자료를 자주 보내왔으며, 보도자료는 모두 기사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후보 간 기사의 양적 차이가 보도자료 배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언론 관행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언론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 역할은 취재 대상의 뉴스 가치를 판단해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기사화할 때 의미를 갖는다. 후보자의 보도자료는 뉴스 가치와 선거 보도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보도자료가 독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게재되지 말아야 한다. 또,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고려해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후보도 별도 취재를 통해 함께 보도해야 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취재원 접촉과 현장 취재 대신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언론사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파악했으며, 이와 같은 취재 부실이 선거 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넷째, 심의 결과에서 특정 후보를 유/불리하게 만드는 기사 내용상의 질적 편파도 발견됐다. 예

를 들면, 제목에서 특정 후보의 업적을 칭찬하는 '위업', '명불허전', '염원', '발걸음' 등과 같은 표현들이 나타났다. N신문은 K후보에 대해 〈국회 입성 확실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우위를 점하는 후보라고 해도 이 제목의 표현은 도를 지나쳤다. 과장된 표현은 유권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게다가 대세에 편승하려는 심리(밴드웨건 효과, band-wagon effect)를 자극해 해당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언론이 선거보도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K신문은 H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지역의 전현직 군수들 상당수가 지지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틀린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일원인 군수들의 지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보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특정 후보가 가장 많은 유권자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다분하다. 내용 측면의 질적 편파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또, P신문은 K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칼럼을 3회 게재했다. 칼럼과 같은 의견 기사는 일반 기사와 달리 객관적 사실 전달이라는 책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칼럼에 나타나는 의견은 소재와 관점 선택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선거 보도에서만큼은 칼럼도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다섯째,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나 논란 이슈를 보도하며 당사자의 반론을 포함하지 않은 기사가 지적됐다.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기사화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공약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때 해당 후보의 의견이 지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례들이다. 언론의 공정성 논의는 대개 찬반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지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다. 언론 보도를 넘어 우리 사회 대부분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는 분배의 정도와 관련돼 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배가 정의에 가깝다. 물론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능력자가 더 많은 수혜를 가져가는 자유주의 원칙은 지켜진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하튼 이런 원칙은 분배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언론보도에서는 의견이 많이 반영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지만, 의견이 적게 반영된 집단이 과거에 비해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정 보도에 가깝다. 결국, 언론의 공정성은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집단의 의견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나타날 때 확보된다.

특별히 지켜져야 할 것은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론권 보장은 이러한 언론 공정성 원칙에서 바라보면 최소한의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로 인해 피해 볼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 보도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 조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반론이 포함되지 않는 보도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언론사의 해명은 후보자들에게 취재용 질문을 메일

이나 팩스로 보냈으나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론 보장을 위한 방문 취재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대한의 취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구하지 못했다면, 반론권 보장 시도에 대한 노력을 지면에 담아야 한다. 반론권 보장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우리나라 언론의 공정성 책무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이번 심의에서는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사도 자주 발견됐다. 언론은 매일 다양한 소재를 취재하고 이 가운데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기사화한다. 어떤 소재가 기사화되기 위해서는 뉴스 가치를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뉴스 가치에는 새로움, 사회적 중요도, 시의성, 근접성, 관련성, 인간적 흥미, 갈등성 등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 이 개념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소재의 기사화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선거보도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소재는 무엇일까? 독자가 국회의원을 제대로 선출하기 위한 정보 습득과 의견 형성에 도움되는 소재일 것이다. 후보자의 경력, 성품, 공약 등이다. 소속 정당의 성격이나 정책도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일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 주의나 경고 제재를 받은 많은 기사들은 대체로 특정 후보자의 사소한 일상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기사화한 경우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길거리 선거운동, 지역 모임 참석, 유세장 분위기 등 후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현장 중계하듯 기사화했다. 선거 기간 후보자의 활동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유권자들의 감시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에게 가장 필요한 (뉴스 가치가 있는) 내용은 후보의 일일 동정이 아니라 공약일 것이다.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은 의견 기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C신문은 특정 후보자의 기고를 〈찬란한 태양 바라보며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이란 제목으로 실었다. 선거 기간 동안 의견 기사에 나타나야 할 기사는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논란이 큰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일 것이다. 특정 후보자의 유권자에 대한 새해 인사는 뉴스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일부 지역 언론사는 보도자료가 들어오면 모두 기사화한다고 밝혀왔다. 언론의 기본 역할인 뉴스 가치 판단을 포기한 것이다.

일곱째, 심의에서 언론사의 선거 관련 보도 규정에 대한 무지가 드러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어긴 위반 사례가 13건(광고 제한 4건, 기고 9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16.25%에 달했다. 이 경우는 언론사가 규정을 알았다면 위반하지 않았을 사례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거 기사 규정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여덟째, 특정 후보자가 주관한 해당 지역구 여론조사를 기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현재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됐다면 조사 주체가 누구이든 언론에 기사화될 수 있다.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조사 대상인 후보자가 조사 주체가 된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심의기준의 적용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정치적 중립성의 3가지를 심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심의기준으로 공정성(제4조), 형평성(제5조), 객관성 및 사실보도(제6조), 정치적 중립성(제7조)에 대한 위반 사례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어 세부 심의기준으로 여론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기사, 사진 게재, 특집기획기사-칼럼-기고, 의견광고-상업광고의 제한 등 기사의 특정 요소에 대한 심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결정을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항목 위반이 70.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기고(16.4%), 광고 제한(7.3%), 객관성 및 사실보도(5.5%)의 순으로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실관계 판단과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에 대한 숙고를 통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위 심의 결정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기준의 과다 적용과 중복 적용,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적용에 대한 확인 능력 부족, 정치적 중립성 기준 적용의 비현실성, 기고 및 광고 제한 기준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심의 결정에서 70% 이상의 사례가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공정성 위반은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판단이 포함되거나 특정 후보에 유리한 의견 기사를 싣는 것도 문제다. 한편, 형평성 위반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거나 축소해 경쟁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에 나타난다. 이번 심의를 받은 상당수의 기사는 특정 후보에 대한 보도량이나 사진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적발된 경우가 많다. 후보들에 대한 균형 보도에 어긋난 점에서 형평성 위반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런 기사에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이나 감정과 편견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심의는 면밀한 관찰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 형평성의 문제는 양적인 불균형에서 쉽게 파악되지만, 공정성의 문제는 기사 내용에 대한 질적인 조사가 필요해 판단에 시간을 요한다. 문제는 상당수의 기사가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점이다. 적어도 공정성 위반에 대한 심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성과 형평성 기준 적용에 비해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적용 사례는 매우 적었다. 심

의 기준에 따르면, 객관성 위반은 허위 사실 보도, 사실 검증 없는 보도, 근거 없는 추측, 사실과 의견 비(非)구분, 다양한 의견 배제, 제목의 과장이나 축소 등의 사례로 나타난다.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보도의 사실 관계에 허위가 있으므로 보도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보도문 게재의 결정으로 대체로 이어진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매우 강도 높은 제재를 감수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자체심의에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적용한 사례 자체가 적었으며,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정정보도 요구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여부를 조사할 권한과 능력을 갖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 기사, 언론중재위의 조사 결과, 언론사의 해명서 등을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시정요구 심의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관련 상황을 물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허위 보도 가능성에 대해 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나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언론사의 해명에 거짓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출석한 관계자의 진술이 참인지 검증할 수 없다. 실제로 H신문은 L후보가 사기 사건 관련자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기사화했다. 해당 후보자의 시정요구 심의에 출석한 언론사 관계자는 자신의 기사가 사실임을 강변했다. 의혹 제보자도 있고, 녹취록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제보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녹취록은 검찰에 있어 제공이 어렵다고 했다. 심의위원회는 허위보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질문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실 관계 파악에는 역부족이었다. 제재 수위는 정정 보도문이 아닌 경고 결정문 게재로 결정됐다.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의 적용은 자유로운 언론 활동의 보장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고려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심의위원회가 수집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특정 기사를 허위 보도로 판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간섭과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 나더라도, 기자가 취재 시점에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언론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요컨대,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의 적용은 심의위원회의 조사 권한 부족과 언론의 자유라는 사회적 가치 고려의 이유로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학계, 법조계, 언론계의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항과 제도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셋째,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례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특정 후보자를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미화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기준에 근거한 제재 건수가 없는 이유는 해당 기준의 내용이 앞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기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형식 측면에서 근거 없는 사실 전달과 내용 측면에서 특정 인물에 편중된 표

현이다. 전자는 객관성 조항(제6조의 3~5항: 허위 근거, 관련성 없는 근거, 무(無)근거)과 유사하며, 후자는 공정성 조항(제4조의 1~2항: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 지지 또는 반대의 표현)과 관련된다. 또, 후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미화한다는 기준이 기사마다 심의위원마다 달라질 수 있다. 조항에 표기된 근거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비난이나 미화는 어느 정도 수위를 뜻하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심의에서도 의미가 애매한 정치적 중립성 적용은 쉽지 않았다. 이 기준보다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객관성과 공정성 기준을 적용해 명확한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정치적 중립성 기준이 보완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과 다른 차원의 선거 보도 규범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넷째, 후보자의 기고(16.4%)와 광고 제한(7.3%) 관련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음은 언론사가 선거 보도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심의기준 제12조(의견광고-상업광고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게재는 심의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이 규정을 포함해 선거 기사 심의기준 전체가 중앙과 지역 언론사에게 잘 알려져야 한다. 심의기준이 심의와 제재 용도를 넘어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활용의 폭이 넓혀져야 하겠다.

다섯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제8조 여론조사 보도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심의는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맡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에서도 여론조사 보도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보도의 구성 요건(조사 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 크기,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 내용 등) 구비 여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을 상실했다. 대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축소, 과장 해석(신설 2항)하는 경우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여론조사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심의는 할 수 없고, 내용적 측면에 대한 심의만 가능하도록 된 것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각종 여론조사를 등록하게 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관련 보도에 대한 일차적(형식적) 심의를 담당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보도가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양쪽을 함께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 표본오차를 밝히지 않고 특정 후보의 우세를 보도했다면, 해당 후보를 편들려는 의도가 형식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심의에서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 보도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감안해 적절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의 기사의 같은 요소를 서로 다른 심의기구에서 별도 심의하는 데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 3개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이 서로 다르고 해석과 적용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최근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4월 15일 이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회가 언론보도 판단의 핵심 기준인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의기준의 차이는 선거보도 심의기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의 차를 유발하고 심의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언론보도는 종이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보도 심의에 적용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원칙은 매체 차이를 넘어 보도 내용과 형식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경쟁 후보자에 대한 보도량의 균형은 종이, 화면, 컴퓨터의 차별적 매체에 대해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도 매체와 상관없이 기사 내용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요즘은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시대이다. 신문 기사가 방송으로 전송되고 인터넷으로 확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심의기구의 차이로 인해 차별적 심의와 제재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 3개 선거보도 심의기구는 심의기준에 대한 조율과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겠다.

제재 결정과 실효성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7가지 유형의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가 이에 해당된다(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본래 사과문 게재가 있었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심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에 대한 심의에서는 가장 제재 수위가 높은 정정 보도문 게재가 2건 있었다. 반론 보도문 결정은 1건이 진행 중이었으나, 선거 후 해당 후보자의 시정요구 취하로 마무리됐다. 그 밖에 경고 결정문 게재도 3건 있었다. 모두 시정요구심의에서 비롯됐으며, 충분한 검증 없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혹을 제기한 경우였다.

사실 심의 대상 기사의 대부분은 경고, 주의, 권고, 또는 기각 가운데 하나로 결정된다. 이번 자체심의에서는 경고 38.2%, 주의 60.0%, 권고 1.8%로 나타났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경고 10.3%, 주의 54.2%, 권고 30.8%의 결정을 내린 데 비하면 제재 수위가 다소 높아진 셈이다. 주의의 비율은 유사하지만, 권고 결정이 줄고 대신 경고 결정이 많아졌다. 주요 이유는 언론사가 복수의 기사나 사진(대략 5건 이상)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D신문은 경쟁 후보자 가운데 L후보에 대해 8건의 기사를, P후보에 대해 11건의 기사를 짧은 기간 동안 연속 게재했다. 위원들은 이 기사가 균형성과 공정성을 위반했음에 동의하고, 위반 기사의 건수가 많아 제재 수위를 주의에서 경고로 높였다. 심의기준 규정의 제3조(심의고려사항)에 따르면, 심의 결정은 선거기

사의 양적·질적 정도와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복수의 기사를 연속 게재한 경우는 단일 기사 게재의 경우와 구별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번 심의위원 간담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강도 높은 제재에 해당하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파악할 권한이 없어 사실상 실행하기 어렵다. 반론보도문은 언론사가 청구 받은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하지만, 실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과문 게재 결정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유효한 제재 결정이 아니다. 제재 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고나 주의 결정은 언론사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 해당 언론사의 선거보도 태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적다. 제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이미 선거가 끝난 뒤라면 별 의미가 없다.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벌칙 규정은 마련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에 따르면, 언론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벌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언론 자유의 위축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도 위반 언론사에 대해 결정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모니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벌칙 규정 이외에 제재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심의위원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우선 언론중재위원회 웹사이트나 공공 매체를 통해 제재 받은 언론사와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또 반복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 수위를 높여 언론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안도 나왔다. 위반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기금 등 언론사 지원 프로그램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기사로 피해를 본 후보자가 심의 결과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물론 기사 심의의 목적은 위반 언론사에 대한 제재에 있지 않다. 언론사가 기사 심의와 제재가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선거보도에 신경 쓰는 언론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제재 방식이 그런 효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심의 제재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심의위원회 운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특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기구이다.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모두 9명 이내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 운영 기간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선거일 전 120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해당된다. 심의는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개최되어야 하며, 반론보도 청구회부 건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밖에 자체심의를 위해 주기적으로 심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주에 한차례씩 심의를 가졌다. 물론 시정요구나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추가로 심의를 열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된 서면심의는 선거일에 임박해 청구되는 심의 건에 대해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메일로 심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들끼리 카카오톡으로 서면 의견을 나눈 뒤, 이메일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즉각적인 심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원들이 회의실에 모일 시간을 절약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해 신속한 의결이 가능했다. 반면, 심의 건에 대한 위원들 간 의견 교환과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심의위원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심의를 야간에 개최해 가능한 한 많은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상설화하고 위원 임기를 장기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선거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수시로 치러지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심의위원도 매번 바뀌게 하지 말고, 2~4년의 임기를 두자는 것이다. 실제 심의위원은 몇 달간 심의를 거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 판단에 지식과 노하우를 쌓게 된다. 이 전문성을 살리면 더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고민과 논의 결과가 다음 위원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위원회가 한시적 임시 조직인 점에 기인한다. 같은 기사 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된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약 다섯 달간 80건의 심의를 거치면서 선거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고민과 우리 언론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가장 적합한 심의기준을 적용하려 노력했으며, 언론사의 해명에도 신중하게 귀 기울였으며, 제재 결정에서도 언론사의 보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논의를 거듭했다. 무엇보다 기사 심의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하며, 후보자와 언론사에 일방적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모든 결정에 앞서 되새겼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우리나라 언론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기를 기대한다.

프로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학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석사)

Syracuse University (박사)

Central Michigan University 교수

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제2장
결산좌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일 시 : **2016. 5. 3.(화) 10:30**
장 소 : **위원회 심리실**

참석자 : **한위수** (심의위원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남래진 (부위원장, 한서대 초빙교수)
전진우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오대현 (변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신용진 (전 MBC 보도본부장)
김화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양경승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강신업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이종혁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권오근** 심리본부장, **이수종** 기사심의팀장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6년 5월 3일 결산좌담회를 개최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성과를 최종 평가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재 유형이 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 제재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법에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



한위수 심의위원장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사항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결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심의건수는 19대나 20대나 큰 차이가 없으나 자체심의건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심위 발족이나 종료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을 지적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보도자료가 없어서 보도를 안 했다’는 등 전형적인 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제재 자체의 실효성은 크지 않지만, 시정요구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흡하나마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재 유형이 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시 제재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법에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의 임기를 적어도
2년이나 3년으로 늘리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남래진 부위원장

저는 30년 이상 선거관리 현장에서 있다가 작년부터 선심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선거 현장에서 보면 한국은 선거 때만 되면 폴리널리스트가 극성입니다. 언론사가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플레이어나 심판인 양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데, 위원의 임기가 기본적으로 선거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업무를 알만 하면 다른 위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를 적어도 2년이나 3년으로 늘리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렵다면 사무처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처에서 안건을 보고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심의 내용이나 규정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전문가들이 모여 갑론을박하다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사무처가 전문성을 갖추고 직원으로서 오래 복무하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선심위에서 제재조치를 하였을 때 형식에 그친다면 선심위의 역할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



전진우 위원

그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고, 권고, 주의 조치들이 누적되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들이 쌓여가면서 간접적으로 교육이 되고,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적발되어 문제가 되면 당장 손해가 온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패널티를 강화시키면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선심위에서 제재조치를 하였을 때 형식에 그친다면 선심위의 역할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문제… 선거 직전에 심의기준을 위반하면 사실상 제재의 효력 없어”



오대현 위원

저는 선심위원으로 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기사들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추고 기사를 쓰고, 형평에 반하는 기사도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다만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결정에 대해 실효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선거 직전에 심의기준을 위반해 버리면 사실상 제재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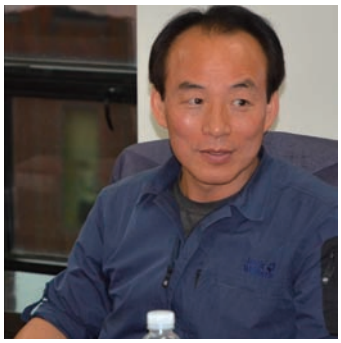
“언론의 자유 측면이 규제보다 우선해야… 선심위 결정이 누적되면 충분히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신용진 위원

처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결정에 언론사에서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제재조치는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인데 선거 전일 재심청구를 해서 제재조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선심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론의 자유 측면이 규제보다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심위의 결정이 누적되면 충분히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선심위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심위… 추후 법을 개정할 때 제재조치는 개선할 필요 있어”



김화성 위원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과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심위입니다. 선거법에 정해진 제재수단에 맞추다 보니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추후 법을 개정할 때 제재조치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선심위에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면 위원회 활동이 무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지방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연락을 취하면 ‘보도자료를 안 줘서 보도를 안 했다’, ‘취재할 사람이 없어 보도를 안 했다’라고 하거나 반론취재도 없이 보도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선거 전에 각 지방 언론에 공지하여 예방을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나 권고 조치의
효과가 별로 없어…
정정·반론보도에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양경승 위원

제재조치 가운데 주의나 권고 조치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을 내릴 경우에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떤 경우가 심의기준 위반인지를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과태료는 형사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 같은 형사벌에 비해 반발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에서 먼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지만, 법 개정시 선관위나 정개특위에서 의견을 요청해 오면 이러한 견해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
언론의 자유는 어떤 형태로도
건드려서는 안 돼"



강신업 위원

선거제도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어떤 형태로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지역에 영향력있는 세력들과 지역 언론이 결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언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세력이 견제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크게 문제없이 진행된 것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세한 지역 신문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바로잡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권고나 주의 조치가 가진 효력이 부족… 가능하다면 누적된 적발 건까지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높여야”



이종혁 위원

저 역시 위원으로서 느낀 점 중 하나가 권고나 주의 조치가 가진 효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언론사에 대해 이번 선심위에서 누적된 적발 건을 고려하여 다음 선심위에서 추가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부

심의·의결사례

제1장 자체심의

제2장 시정요구심의

제1장
자체심의



1. 경고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5**
언 론 사	**주식회사 경북신문사** 경북 경주시 황성동 1053-12 미림빌딩 5층 경북신문사 대표이사 박준현
심의대상기사	경북신문 2015년 12월 23일자 1면 「정수성 국회의원 9관왕의 위업, 의정활동 '명불허전'」, 2015년 12월 28일자 3면 「정수성 의원, 경주지역 구석구석 의정보고 나섰다」, 2015년 12월 30일자 3면 「정수성 의원, 주민 목소리에 '귀 활짝'」, 2015년 12월 31일자 2면 「정수성 의원, 천북면·월성동 주민과 대화」, 2016년 1월 4일자 2면 「산업 융복합 통해 새로운 경주 건설」, 2016년 1월 6일자 3면 「정수성 의원, 주민불편 해소에 발로 뛴다」, 2016년 1월 7일자 3면 「정수성 의원, 주민숙원 귀담아 듣는다」, 2016년 1월 11일자 3면 「정수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보상 법률안 발의」, 2016년 1월 12일자 3면 「정수성 의원, 구석구석 주민 목소리 청취」 2015년 12월 29일자 3면 「김석기 경주지역 총선 예비후보 12박 13일 민생투어, 오늘 스타트」, 2015년 12월 31일자 2면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잘 사는 경주 건설' 12박 13일 민생투어」, 2016년 1월 5일자 3면 「"현장 소통으로 현안 찾아낼 것"」, 2016년 1월 7일자 3면 「김석기 경주 예비후보, 발로 뛰는 민생소통」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현직 국회의원 1명과 예비후보자 1명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015 을미년을 빛낸 인물

정수성 국회의원 9관왕 위업, 의정활동 '명불허전'

'모범국회의원대상'에 선정
새누리당 의원 중 최다 수상

경주지역 주요 숙원사업 예산
601억원 신규 또는 증액 반영
지역발전 예산확보 뚝심 발휘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 윤리특별위원장)에게 2015년은 어느 해보다 보람 있는 뜻 깊은 해가 되었다. 재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 의정활동 평가 9관왕을 달성한 데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경주지역 주요 숙원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601억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정 의원의 노력은 지난 2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국언론기자협회와 서경일보가 주최한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대상' 시상식에서 특별대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2015년 의정활동 평가 9관왕이란 점뿐만 아니라 특히 새누리당 전체 15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 수상의 영예도 함께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정 의원은 "올해 여러 번 우수의원 상을 받았는데 이번 모범국회의원 대상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실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끝없이 노력하여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계속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는 등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지난 3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에 경주지역 주요 숙원사업의 국비 확보액이 당초 정부안보다 601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서 기쁘며, 국회 의정활동상 9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지만 절대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초심을 지키겠다"며,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천년고도 경주와 국민을 위한 정책 발굴과 입법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2015 을미년을 빛낸 인물

정수성 국회의원

9관왕 위업, 의정활동 '명불허전'

'모범국회의원대상'에 선정
새누리당 의원 중 최다 수상
경주 주요 숙원사업 관련 예산
601억원 신규 또는 증액 반영
지역발전 국비확보 뚝심 발휘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 윤리특별위원장)에게 2015년은 어느 해보다 보람있는 뜻 깊은 해가 되었다. 재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 의정활동 평가 9관왕을 달성 한데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경주지역 주요 숙원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601억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정 의원의 노력은 지난 2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국언론기자협회와 서경일보가 주최한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시상식에서 특별대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2015년 의정활동 평가 9관왕이란 점 뿐만 아니라 특히 새누리당 전체 15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 수상의 영예도 함께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정 의원은 "올해 여러번 우수의원 상을 받았는데 이번 모범국회의원 대상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실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끝없이 노력하여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계속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는 등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지난 3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에 경주지역 주요 숙원사업의 국비 확보액이 당초 정부안보다 601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서 기쁘며, 국회 의정활동상 9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지만 절대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초심을 지키겠다"며,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천년고도 경주와 국민을 위한 정책 발굴과 입법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최병화 기자

<경북신문> 2015년 12월 23일자 1면

정수성 의원,
경주지역 구석구석 의정보고 나섰다

강동면·안강읍서 연이어 개최
국비확보현황·주요현안 설명

지난 26일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은 지역민 소통강화를 위한 강동면과 안강읍 의정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15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강동면 의정보고회에서는 강동~안강 간(국지도68) 도로건설, 안계~다산 간(군도12호선) 도로 확포장, 형산강 정비사업 등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00여명의 안강읍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안강 사격장 이전, 칠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안강 육통교 개보수 사업, 안강공설시장 지원확대 방안 등에 대한 성과 및 설명이 있었다.

정 의원은 "임기 최초부터 매년 지역 주민들을 찾아뵙고 의정보고회를 실시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준비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는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와 내년도 경주지역 국비확보현황과 더불어 각 읍면동 사업과 건의 사항, 주요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사됐다.

29일 오후 2시에는 불국동(동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복덕동(문화엑스포 대회의실) 의정보고회가 차례로 개최한다. 앞서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의 소통강화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읍·면·동별 순회 의정보고회를 지난 24일 내남면을 시작으로 3주간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의정활동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지난 7년간 늘 함께 해주시는 경주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이다. 더욱 발전하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 유치와 예산확보를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수성 의원, 경주지역 구석구석 의정보고 나섰다

강동면·안강읍서 연이어 개최
국비확보현황·주요현안 설명

지난 26일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은 지역민 소통강화를 위한 강동면과 안강읍 의정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15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강동면 의정보고회에서는 강동~안강 간(국지도68) 도로건설, 안계~다산 간(군도12호선) 도로 확포장, 형산강 정비사업 등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00여명의 안강읍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안강 사격장 이전, 칠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안강 육통교 개보수 사업, 안강공설시장 지원확대 방안 등에 대한 성과 및 설명이 있었다.

정 의원은 "임기 최초부터 매년 지역 주민들을 찾아뵙고 의정보고회를 실시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준비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는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와 내년도 경주지역 국비확보현황과 더불어 각 읍면동 사업과 건의 사항, 주요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사됐다.

29일 오후 2시에는 불국동(동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복덕동(문화엑스포 대회의실) 의정보고회가 차례로 개최한다. 앞서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의 소통강화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읍·면·동별 순회 의정보고회를 지난 24일 내남면을 시작으로 3주간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의정활동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지난 7년간 늘 함께 해주시는 경주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이다. 더욱 발전하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 유치와 예산확보를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화 기자

정수성(새누리당 경주·윤리특별위원장)의원이 26일 오후 안강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민들과의 소통강화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읍·면·동별 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지역 청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북신문> 2015년 12월 28일자 3면

정수성 의원, 주민 목소리에 '귀 활짝'

경주 불국동·보덕동 의정보고회 지역 주요현안 설명·의견 수렴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지역민 소통강화를 위한 불국동과 보덕동 의정보고회를 29일 연이어 개최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12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불국동 의정보고회에서는 도시가스보급률 향상과 주민숙원사업인 보문단지에서 불국사역까지의 보정로 도로개설 및 한수원 사택 500세대 건설 등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50여명의 보덕동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건립과 보정로 도로개설 및 손곡에서 보문까지의 보행자도로 건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정 의원은 "임기 최초부터 매년 지역 주민들을 찾아 뵙고 의정보고회를 실시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준비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는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와 내년도 경주지역 국비확보현황과 더불어, 각 읍·면·동 사업과 건의 사항, 주요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사됐다.

한편, 정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천북면(면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월성동(동사무소)에서 각각 의정보고회가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수성 의원, 주민 목소리에 '귀 활짝'

경주 불국동·보덕동 의정보고회
지역 주요현안 설명·의견 수렴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지역민 소통강화를 위한 불국동과 보덕동 의정보고회를 29일 연이어 개최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12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불국동 의정보고회에서는 도시가스보급률 향상과 주민숙원사업인 보문단지에서 불국사역까지의 보정로 도로개설 및 한수원 사택 500세대 건설 등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50여명의 보덕동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건립과 보정로 도로개설 및 손곡에서 보문까지의 보행자도로 건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정 의원은 "임기 최초부터 매년 지역 주민들을 찾아 뵙고 의정보고회를 실시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준비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는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와 내년도 경주지역 국비확보현황과 더불어, 각 읍·면·동 사업과 건의 사항, 주요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사됐다.

한편, 정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천북면(면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월성동(동사무소)에서 각각 의정보고회가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병화 기자

<경북신문> 2015년 12월 30일자 3면

정수성 의원,
천북면·월성동 주민과 대화

주요현안 설명·의견 청취
주민 숙원사업 해결 '다짐'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30일 천북면과 월성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먼저, 12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천북면 의정보고회에서는 희망촌 이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더불어 화산~모아간 도로개설과 신당리~천북면소재지간 도로 확장 공사 등 지역 관심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00여명의 월성동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쪽샘지구, 경주읍성, 신라왕궁(월성) 발굴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전선지중화 및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탑동정수지 설치와 배반네거리~구황교간 도로 확장 등에 대해 자세한 현황을 보고했다.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지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는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와 내년도 경주지역 국비 확보 현황과 더불어 각 읍·면·동 사업과 건의 사항, 주요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사된 것이다.

한편, 새해 1월 5일 오후 2시 황성동(동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용강동(동사무소)에서 각각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정수성 의원, 천북면·월성동 주민과 대화

주요현안 설명·의견 청취
주민 숙원사업 해결 '다짐'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30일 천북면과 월성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먼저, 12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천북면 의정보고회에서는 희망촌 이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더불어 화산~모아간 도로개설과 신당리~천북면소재지간 도로 확장 공사 등 지역 관심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00여명의 월성동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쪽샘지구, 경주읍성, 신라왕궁(월성) 발굴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전선지중화 및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탑동정수지 설치와 배반네거리~구황교간 도로 확장 등에 대해 자세한 현황을 보고했다.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지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는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와 내년도 경주지역 국비 확보 현황과 더불어 각 읍·면·동 사업과 건의 사항, 주요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사된 것이다.

한편, 새해 1월 5일 오후 2시 황성동(동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용강동(동사무소)에서 각각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최병화 기자

<경북신문> 2015년 12월 31일자 2면

산업 융복합 통해 새로운 경주 건설

2016년 원숭이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주 시민 모두에게 붉은 원숭이처럼 지혜롭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었으며 경주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3년 연속 국비 확보액이 1조원을 넘었고, 국내 최초로 원자력 교육기관인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을 경주에 유치하는 등 앞으로 원전 관련 기관들이 경주에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첫발을 내딛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신사옥이 지난해 12월에 완공되어 올해 3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아울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신사옥 건설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면서 원자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천년고도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는 경주 발전 계획은 故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된 이후, 당시 영애로서 경주를 함께 방문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실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8개 사업에 국비 453억원을 확보했으며, 김유신 장군 옛집 복원, 고도이미지 찾기, 읍성 복원·정비 등 3개 추가 사업도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경주는 '원자력'과 '문화재 복원'이라는 두 기둥을 기반으로 역사와 문화, 과학과 에너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경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주 국회의원으로서, 올해도 역시 우리 경주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해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업 융복합 통해 새로운 경주 건설

정 수 성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2016년 원숭이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주 시민 모두에게 붉은 원숭이처럼 지혜롭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었으며 경주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3년 연속 국비 확보액이 1조원을 넘었고, 국내 최초로 원자력 교육기관인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을 경주에 유치하는 등 앞으로 원전 관련 기관들이 경주에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첫발을 내딛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신사옥이 지난해 12월에 완공되어 올해 3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아울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신사옥 건설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면서 원자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천년고도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는 경주 발전 계획은 故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된 이후, 당시 영애로서 경주를 함께 방문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실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8개 사업에 국비 453억원을 확보했으며, 김유신 장군 옛집 복원, 고도이미지찾기, 읍성 복원?정비 등 3개 추가 사업도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경주는 '원자력'과 '문화재 복원'이라는 두 기둥을 기반으로 역사와 문화, 과학과 에너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경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주 국회의원으로써, 올해도 역시 우리 경주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해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북신문> 2016년 1월 4일자 2면

정수성 의원,
주민불편 해소에 발로 뛴다

경주 황성동·용강동 주민 대상
의정보고회 갖고 주요현안 설명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5일 황성동과 용강동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읍·면·동별 현안과 관련, 유림(황성)대교 설치 계획과 황성동 철로 및 화훼단지 활용과 서천 강변로 개설공사, 배반네거리와 구황교 구간 도로확장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국가하천인 정비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황성동은 120명, 용강동은 150명의 주민이 각각 참석했다.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면서,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지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는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와 내년도 경주지역 국비확보현황과 더불어 각 읍면동 사업과 건의 사항, 주요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사됐다.

한편, 정 의원은 6일 오후 2시 동천동(동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현곡면(면사무소)에서 각각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수성 의원, 주민불편 해소에 발로 뛴다

경주 황성동·용강동 주민 대상
의정보고회 갖고 주요현안 설명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5일 황성동과 용강동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읍·면·동별 현안과 관련, 유림(황성)대교 설치 계획과 황성동 철로 및 화훼단지 활용과 서천 강변로 개설공사, 배반네거리와 구황교 구간 도로확장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국가하천인 정비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황성동은 120명, 용강동은 150명의 주민이 각각 참석했다.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면서,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지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는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와 내년도 경주지역 국비확보현황과 더불어 각 읍면동 사업과 건의 사항, 주요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사됐다.

한편, 정 의원은 6일 오후 2시 동천동(동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현곡면(면사무소)에서 각각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병화기자

<경북신문> 2016년 1월 6일자 3면

정수성 의원, 주민숙원 귀담아 듣는다

경주 동천동·현곡면 의정보고 지역 주요현안 설명, 의견 수렴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6일 동천동과 현곡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읍면동별 현안과 관련하여 12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동천동 의정보고회에서는 한수원 사택부지와 형산강 서천 강변로 개설공사, 유림(황성)대교 설치 계획 및 배반네거리와 구황교 구간 도로확장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국가하천 정비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와 경주 변전소 옥내화, 북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20여명의 현곡면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과 유림(황성)대교 설치 계획 및 국가하천 정비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 설명에 이어 문화중고~금장리 군도, 동대병원~현곡 도시계획도로, 금장~하구 지방도 904호선 등 면내 주요 도로 확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수성 의원, 주민숙원 귀담아 듣는다

경주 동천동·현곡면 의정보고
지역 주요현안 설명, 의견 수렴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6일 동천동과 현곡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읍면동별 현안과 관련하여 12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동천동 의정보고회에서는 한수원 사택부지와 형산강 서천 강변로 개설공사, 유림(황성)대교 설치 계획 및 배반네거리와 구황교 구간 도로확장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국가하천 정비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와 경주 변전소 옥내화, 북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20여명의 현곡면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과 유림(황성)대교 설치 계획 및 국가하천 정비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 설명에 이어 문화중고~금장리 군도, 동대병원~현곡 도시계획도로, 금장~하구 지방도 904호선 등 면내 주요 도로 확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화 기자

<경북신문> 2016년 1월 7일자 3면

정수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보상 법률안 발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각종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지난 8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국내에서는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군인, 경찰, 또는 미합중국 군인 등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국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는 등 화해와 상생의 기초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굴한 유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위원회 활동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실정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에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한 민간인 유해발굴사업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동 제정안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고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나아가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보상 법률안 발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각종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지난 8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국내에서는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군인, 경찰, 또는 미합중국 군인 등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국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는 등 화해와 상생의 기초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굴한 유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위원회 활동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실정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에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한 민간인 유해발굴사업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동 제정안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고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나아가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화 기자

<경북신문> 2016년 1월 11일자 3면

정수성 의원, 구석구석 주민 목소리 청취

경주 산내면·황남동·외동읍서 지역 주요현안 설명, 의견 수렴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11일 산내면과 황남동 및 외동읍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이날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읍·면·동별 현안과 관련, 100명의 주민이 참석한 산내면 의정보고회에서는 신원~우라간 도로개설, 외칠~일부간 도로 확포장과 산내~박달 임도신설과 더불어 대현2리 서편교 교체 현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150여명의 황남동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쪽샘지구, 신라왕궁(월성) 발굴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예산 및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탑동정수지 설치 및 형산강 서천 강변로 개설공사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외동읍은 상구~모화 국대도 건설현황,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과 외동~양남~양북 2차로 확장 및 지방도 904호선 선형개량, 외동~농소간 국도 신설, 경주~감포간 국도4차로 확장 등 주요 도로 확충과 대리교 노후교량 신축 및 문산공단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수 있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2시에는 황오동(동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선도동(동사무소)에서 각각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가 차례로 개최된다.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은 앞서 주말에도 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정수성 의원, 구석구석 주민 목소리 청취

경주 산내면·황남동·외동읍서 지역 주요현안 설명, 의견 수렴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11일 산내면과 황남동 및 외동읍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이날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읍·면·동별 현안과 관련, 100명의 주민이 참석한 산내면 의정보고회에서는 신원~우라간 도로개설, 외칠~일부간 도로 확포장과 산내~박달 임도신설과 더불어 대현2리 서편교 교체 현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150여명의 황남동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쪽샘지구, 신라왕궁(월성) 발굴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예산 및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탑동정수지 설치 및 형산강 서천 강변로 개설공사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외동읍은 상구~모화 국대도 건설현황,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과 외동~양남~양북 2차로 확장 및 지방도 904호선 선형개량, 외동~농소간 국도 신설, 경주~감포간 국도4차로 확장 등 주요 도로 확충과 대리교 노후교량 신축 및 문산공단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수 있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2시에는 황오동(동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선도동(동사무소)에서 각각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가 차례로 개최된다.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은 앞서 주말에도 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최병화 기자

<경북신문> 2016년 1월 12일자 3면

김석기 경주지역 총선 예비후보

12박 13일 민생투어, 오늘 스타트

안강읍 시작으로 12개 읍면방문

20대 총선 경주지역 김석기 예비후보가 발로 뛰는 선거를 위해 12박 13일간의 일정으로 민생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자신의 출생지인 안강읍에서 출발해 내달 12일까지 민생투어를 이어간다. 이날 안강읍 안강4리 319번지에서 민생투어 성공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갖고, 경주지역 12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숙식도 해결하며 민생 속에 들어가 경주시민의 요구를 듣고 경주 새천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안강읍과 외동읍에서 자서전인 '엘리트 경찰에서 1등 CEO로'에 대한 북소리(북콘서트)도 가질 계획이다. 지역민들과 만나 책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고, 직접 사인회도 갖는다.



김석기 예비후보가 지난 25, 26일 경주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석기 경주지역 총선 예비후보

12박 13일 민생투어, 오늘 스타트

안강읍 시작으로 12개 읍면 방문

20대 총선 경주지역 김석기 예비후보가 발로 뛰는 선거를 위해 12박 13일간의 일정으로 민생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자신의 출생지인 안강읍에서 출발해 내달 12일까지 민생투어를 이어간다. 이날 안강읍 안강4리 319번지에서 민생투어 성공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갖고, 경주지역 12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숙식도 해결하며 민생 속에 들어가 경주시민의 요구를 듣고 경주 새천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안강읍과 외동읍에서 자서전인 '엘리트 경찰에서 1등 CEO로'에 대한 북소리(북콘서트)도 가질 계획이다. 지역민들과 만나 책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고, 직접 사인회도 갖는다.

김 예비후보는 "민생투어를 통해 지역상황에 맞는 맞춤식 현안 해결책을 찾아 경주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경북신문> 2015년 12월 29일자 3면

김 예비후보는 "민생투어를 통해 지역상황에 맞는 맞춤식 현안 해결책을 찾아 경주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잘 사는 경주 건설'
12박 13일간 민생투어

안강읍부터 찾아 주민 대화
북소리 행사에 청중들 북적

경주 선거 역사상 처음인 후보자의 각 지역 민생투어에 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읍·면 단위의 작은 마을까지 후보자가 직접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들의 민원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그 주인공.

김 후보는 29일부터 경주시 안강읍을 시작으로 12박 13일간의 민생탐방에 나서고 있다.

서민들의 애환,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의 정치 철학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9일 자신이 태어난 경주시 안강읍을 시작으로, 안강읍 사무소와 인근의 새마을 금고 및 농협 등지를 차례로 찾았다.

그는 이어 장날인 안강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상인 이모씨(65)는 "안강이 경주와 포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대다수 주민들이 이들 도시로 쇼핑을 나간다"며 "이런 문제들이 안강 경제가 침체되고 이 지역이 낙후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지방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김석기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서울 용산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은 "이 사건으로 김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우려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답변에 나서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김석기 후보의 민생탐방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석기의 북소리(북 콘서트)'. 주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겁다는 평가다.

29일 오후 안강읍에서 시작된 북소리 행사에는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고 일부는 장소가 좁아 바깥에서 기다리다 돌아가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의 자서전 '엘리트 경찰에서 1등 CEO로'에 대한 영상 설명에 이어 책 내용 일부에 대한 설명 중 김 후보가 갑자기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자 청중들의 격려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지역 민생투어에 나선 김석기 예비후보가 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잘 사는 경주 건설' 12박13일간 민생투어

안강읍부터 찾아 주민 대화
북소리 행사에 청중들 북적

경주 선거 역사상 처음인 후보자의 각 지역 민생투어에 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읍·면 단위의 작은 마을까지 후보자가 직접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들의 민원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그 주인공.

김 후보는 29일부터 경주시 안강읍을 시작으로 12박13일간의 민생탐방에 나서고 있다.

서민들의 애환,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의 정치 철학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9일 자신이 태어난 경주시 안강읍을 시작으로, 안강읍 사무소와 인근의 새마을 금고 및 농협 등지를 차례로 찾았다.

그는 이어 장날인 안강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상인 이모씨(65)는 "안강이 경주와 포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대다수 주민들이 이들 도시로 쇼핑을 나간다"며 "이런 문제들이 안강 경제가 침체되고 이 지역이 낙후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지방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김석기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서울 용산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은 "이 사건으로 김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우려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답변에 나서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김석기 후보의 민생탐방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석기의 북소리(북 콘서트)'. 주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겁다는 평가다.

29일 오후 안강읍에서 시작된 북소리 행사에는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고 일부는 장소가 좁아 바깥에서 기다리다 돌아가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의 자서전 '엘리트 경찰에서 1등 CEO로'에 대한 영상 설명에 이어 책 내용 일부에 대한 설명 중 김 후보가 갑자기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자 청중들의 격려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최병화 기자

<경북신문> 2015년 12월 31일자 2면

“현장 소통으로 현안 찾아낼 것”

김석기 후보, 민생투어 계속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새해 1일 아침 7시부터 건천읍의 한 목욕탕에서 주민들과 만나 새해 덕담을 나누는 등 병신년 새해를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날 오전 단석산에 올라 건천읍 체육회가 주관하는 ‘단석산 신년 고유제’에 참석한 주민들과 신년 인사를 나눈 뒤, 체육회 회원들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떡국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0일과 31일 이틀간 감포읍과 산내면, 건천읍 등 세 곳을 잇따라 방문해 이 지역 주민들과 한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했다.

구랍 31일 오전 5시 감포 어판장을 찾은 김석기 예비후보는 어민들의 고충을 들은 뒤 의견을 나누고, “현장 소통으로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찾아내 해결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중앙 정부와 잘 협력해서 경주 발전에 한몫을 해내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우며, 경주시장과 밀접하게 협력해 경주의 중장기적인 다양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경주지역 총선 현장을 가다

“현장 소통으로 현안 찾아낼 것”

김석기 후보, 민생투어 계속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새해 1일 아침 7시부터 건천읍의 한 목욕탕에서 주민들과 만나 새해 덕담을 나누는 등 병신년 새해를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날 오전 단석산에 올라 건천읍 체육회가 주관하는 '단석산 신년 고유제'에 참석한 주민들과 신년 인사를 나눈 뒤, 체육회 회원들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떡국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0일과 31일 이틀간 감포읍과 산내면, 건천읍 등 세 곳을 잇따라 방문해 이 지역 주민들과 한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했다.

구랍 31일 오전 5시 감포 어판장을 찾은 김석기 예비후보는 어민들의 고충을 들은 뒤 의견을 나누고, “현장 소통으로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찾아내 해결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중앙 정부와 잘 협력해서 경주 발전에 한몫을 해내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우며, 경주시장과 밀접하게 협력해 경주의 중장기적인 다양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최병화 기자

연말 연시를 맞아 민생투어 중인 김석기 예비후보가 감포읍에서 지지자들과 덕담을 나누고 있다.

<경북신문> 2016년 1월 5일자 3면

김석기 경주 예비후보, 발로 뛰는 민생소통

내남면서 주민과 대화 나눠
농가 경쟁력 확보방안 논의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병신년 새해 벽두부터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다.

김 후보는 5일 경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주지역 각계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한데 이어 내남면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허물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최근 수년째 쌀 소비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특히, 내남지역은 공장보다 농경지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이후 발걸음을 줄이는 등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쌀 소비 증가에 앞서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한우 사육농가가 많은 곳이 경주다. 대체농업도 고려해봐야 한다. 경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서울 신세계 백화점 납품 추진 등 수도권 상권으로 직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말 바꾸기나 공약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난 경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노조의 반대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출근하지 못하고 열흘간 야전침대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 만에 그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고, 퇴임 시에는 노조위원장이 나가지 말라고 농성해



세해 벽두부터 자랑스런 경주만들기에 앞장서는 김석기 예비후보가 내남면을 찾아 농민들과 허물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석기 경주 예비후보, 발로 뛰는 민생소통

내남면서 주민과 대화 나눠
농가 경쟁력 확보방안 논의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병신년 새해 벽두부터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다.

김 후보는 5일 경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주지역 각계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한데 이어 내남면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허물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최근 수년째 쌀 소비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특히, 내남지역은 공장 보다 농경지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이후 발걸음을 줄이는 등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쌀 소비 증가에 앞서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한우 사육농가가 많은 곳이 경주다. 대체농업도 고려해봐야 한다. 경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서울 신세계 백화점 납품 추진 등 수도권 상권으로 직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말 바꾸기나 공약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난 경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노조의 반대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출근하지 못하고 열흘간 야전침대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 만에 그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고, 퇴임 시에는 노조위원장이 나가지 말라고 농성해 야겠다는 농담까지 던졌다. 이것은 제가 처음 한 약속을 지켰고, 강성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로부터도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했던 말은 이행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병화 기자

<경북신문> 2016년 1월 7일자 3면

야겠다는 농담까지 던졌다. 이것은 제가 처음 한 약속을 지켰고, 강성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로부터도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했던 말은 이행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7
언 론 사	**주식회사 중부일보**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인계동) 중부일보 대표이사 임재율
심의대상기사	중부일보 2015년 12월 30일자 10면 「"부시장 때 느꼈던 문제들 직접 해결하기 위해 출마"」, 2015년 12월 30일자 17면 「수원시정, 5년을 보내며」, 2016년 1월 5일자 4면 「이재준 전 수원 제2부시장 더민주 경기도당 입당」, 2016년 1월 11일자 4면 「"시민의 힘으로 장안구 바꾼다"」, 2016년 1월 12일자 5면 「이재준(수원갑) "수원시 광역시로 승격시킬 것"」, 2016년 1월 18일자 5면 「이재준(수원갑)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스마트 기술 적용 필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전직 부시장 출신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부시장 때 느꼈던 문제들 직접 해결하기 위해 출마"

이재준 제2부시장, 수원갑 출마
"염 시장 시정철학에 보탬 보람"

내년 총선에서 수원갑(장안구) 지역에 출마의사를 밝힌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 미래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퇴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염태영 시장의 시정철학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보람이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는 전국 최대, 최고의 도시로 도시정책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회고한 이 부시장은 "이 같은 도시 프로젝트를 수원시의 헌신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시정을 통해 배운 경험과 역량을 또 다른 봉사의 길에 쏟아 붓고자 한다"며 "수원시정을 떠나지만 수원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등 퇴임 뒤 행로를 시사하기도 했다.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을 경험하면서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공무원 신분으로 제한적라고 느껴 문제를 본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용기를 냈다"

고 답했다.

또 출마 소속을 묻는 질문에 "전통적 민주당"이라고 답해 창당 예정인 안철수 신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부시장 재직 성과로는 군공항 이전 확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계획 수립, 마을만들기·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분쟁상담센터 설립 등을 꼽았다.

이 부시장은 다음 달 4일 퇴임 이후 같은 달 10일 수원시정 경험과 비전 등을 담은 저서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의 출판기념회로 퇴임 후 첫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시공학 박사 출신인 이 부시장은 협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염태영 수원시장의 요청을 받아 2011년 2월부터 수원시 제2부시장직을 수행해왔다.



"부시장때 느꼈던 문제들 직접 해결하기 위해 출마"

이재준 제2부시장 수원갑 출마
"염 시장 시정철학에 보탬 보람"

내년 총선에서 수원갑(장안구)지역에 출마의사를 밝힌 이재준(사진)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 미래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퇴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염태영 시장의 시정철학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보람이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는 전국 최대, 최고의 도시로 도시정책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회고한 이 부시장은 "이같은 도시 프로젝트를 수원시의 헌신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시정을 통해 배운 경험과 역량을 또 다른 봉사의 길에 쏟아 붓고자 한다"며 "수원시정을 떠나지만 수원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등 퇴임 뒤 행로를 시사하기도 했다.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을 경험하면서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공무원 신분으로 제한적이라고 느껴 문제를 본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용기를 냈다"고 답했다.

또 출마 소속을 묻는 질문에 "전통적 민주당"이라고 답해 창당 예정인 안철수 신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부시장 재직 성과로는 군공항 이전 확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계획 수립, 마을만들기·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분쟁상담센터 설립 등을 꼽았다.

이 부시장은 다음달 4일 퇴임 이후 같은달 10일 수원시정 경험과 비전 등을 담은 저서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의 출판기념회로 퇴임 후 첫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시공학 박사 출신인 이 부시장은 협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염태영 수원시장의 요청을 받아 2011년 2월부터 수원시 제2부시장직을 수행해왔다.

박종대기자

<중부일보> 2015년 12월 30일자 10면

수원시정, 5년을 보내며

자치시대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벌써 5년이 지났다. 퇴임을 며칠 앞둔 지금 제2부시장으로 취임하던 날의 설렘이 생각난다.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술행정을 총괄하는 제2부시장 직을 맡게 돼 큰 영광이었다. 기초 지자체 최초의 2부시장 제도에 대한 시민들과 공무원의 기대를 잘 알기에 부담감도 적잖이 느꼈다. 그러나 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도시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것들을 직접 행정으로 실현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지고 자신 있게 시작했다.

우선 기술행정의 미흡한 제도를 확립하고, 그 토대 위에 거버넌스 행정을 접목하고자 노력했다. 알리고 설득하는 이해의 과정,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시간들을 시민과 함께 보냈다. 그렇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공무원들의 노력 등이 잘 결합돼 수원시 거버넌스 행정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수원형 마을만들기는 국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많은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고 있다. 도시계획시민계획단도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등재됨과 동시에 UN 해비타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낳았다. 수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군 공항 이전 사업,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R&D 사이언스 파크와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등도 시민들의 집단지성에 힘입어 지금까지 순항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필자는 거버넌스 행정의 파괴력을 실감했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자'는 학자시절의 소신을 현장에서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자부심도 느꼈다.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연구하고 행정가로서 경험한 소중한 자산을 지역·국가 위해 사용하는 것이 소임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를

수원시정, 5년을 보내며

지치시대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벌써 5년이 지났다. 퇴임을 며칠 앞둔 지금 제2부시장으로 취임하던 날의 설렘이 생각난다.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술행정을 총괄하는 제2부시장 직을 맡게 돼 큰 영광이었다. 기초 지자체 최초의 2부시장 제도에 대한 시민들과 공무원의 기대를 잘 알기에 부담감도 적잖이 느꼈다. 그러나 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도시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것들을 직접 행정으로 실현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지고 자신있게 시작했다.

우선 기술행정의 미흡한 제도를 확립하고, 그 토대 위에 거버넌스 행정을 접목하고자 노력했다. 알리고 설득하는 이해의 과정,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시간들을 시민과 함께 보냈다. 그렇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공무원들의 노력 등이 잘 결합돼 수원시 거버넌스 행정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수원형 마을만들기는 국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많은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고 있다. 도시계획시민계획단도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등재됨과 동시에 UN 해비타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낳았다. 수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군 공항 이전 사업,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R&D 사이언스 파크와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등도 시민들의 집단지성에 힘입어 지금까지 순항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필자는 거버넌스 행정의 파괴력을 실감했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자'는 학자시절의 소신을 현장에서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자부심도 느꼈다.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연구하고 행정가로서 경험한 소중한 자산을 지역·국가 위해 사용하는 것이 소임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를 수원시가 보여줬다는 생각도 든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 노면전차 도입 등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들도 남아 있다. 신중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들이다.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를 경험한 공무원들의 역량, 수원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리라 믿는다.

좋은 기회가 주어져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자랑스러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염태영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8년 전 맺어진 인연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의 일치가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돼 줬다. 공직자가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튼튼한 뿌리를 내렸으니, 이제 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5기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버넌스 행정의 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민선6기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해왔던 대형 사업에 착수한 시기다. 수원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들이 순조로이 진행돼서, 수원이라는 도시가 천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초석을 닦길 바란다. 후임으로 올 부시장님과 공무원들이 그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하리라 믿는다. 행정주도 시민동원의 관(官)치에서 벗어나 시민주도 행정지원의 참여형 자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길 기원한다.

지난 5년, 참 행복했다. 이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생활 속에서 그들과 부대끼며 살고자 한다. 아울러 학자로서 연구하고 행정가로서 경험한 소중한 자산을 지역을 위해 국가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맡겨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중부일보> 2015년 12월 30일자 17면

수원시가 보여줬다는 생각도 든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 노면전차 도입 등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들도 남아 있다. 신중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들이다.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를 경험한 공무원들의 역량, 수원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리라 믿는다.

좋은 기회가 주어져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자랑스러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염태영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8년 전 맺어진 인연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의 일치가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돼 줬다. 공직자가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튼튼한 뿌리를 내렸으니, 이제 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5기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버넌스 행정의 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민선6기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해왔던 대형 사업에 착수한 시기다. 수원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들이 순조로이 진행돼서, 수원이라는 도시가 천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초석을 닦길 바란다. 후임으로 올 부시장님과 공무원들이 그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하리라 믿는다. 행정주도 시민동원의 관(官)치에서 벗어나 시민주도 행정지원의 참여형 자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길 기원한다.

지난 5년, 참 행복했다. 이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생활 속에서 그들과 부대끼며 살고자 한다. 아울러 학자로서 연구하고 행정가로서 경험한 소중한 자산을 지역을 위해 국가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맡겨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준 前 수원 제2부시장, 더민주 경기도당 입당

"시민참여 새 정치문화 만들 것" 수원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방문해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31일 수원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이 전 부시장은 "몇몇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새누리당과 맞서 싸울 진짜 야당의 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며 입당의 변을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시장은 오는 10일 수원시 장안구 갤럭시웨딩홀에서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 출판 기념회 겸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준 前 수원 제2부시장, 더민주 경기도당 입당

"시민참여 새 정치문화 만들 것"
수원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방문해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31일 수원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이 전 부시장은 "몇몇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새누리당과 맞서 싸울 진짜 야당의 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며 입당의 변을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시장은 오는 10일 수원시 장안구 갤럭시웨딩홀에서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 출판 기념회 겸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진영기자

<중부일보> 2016년 1월 5일자 4면

“시민의 힘으로 장안구 바꾼다”

이재준 수원갑 더민주 예비후보
‘나는 서울보다…’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갑(장안구) 예비후보는 10일 “지난 5년 수원을 바꾼 시민의 힘으로 장안구를 바꿔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수원 갤럭시 웨딩홀에서 열린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 출판기념회에서다.

이 예비후보는 “이 책의 진정한 저자는 수원시민”이라며 “지난 1천800일간 수원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시민참여형 도시로 만들어낸 건 수원시민의 힘이었다. 도시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그는 290쪽 분량의 책에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5년 동안 펼친 시민참여 도시정책의 경험과 이론을 담았다.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박광온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을 서울과 맞먹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첫번째 무기가 이재준 부시장을 선택한 것”이라며 “책 내용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이재준 부시장이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꽃피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서울보다 수원이 더 좋다는 제목은 이 전 부시장이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수원에 쌓인 애정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도시공학 박사 출신으로 협성대학교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녹색환경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고, 2011년 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수원시 제2부시장직으로 재직했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예비후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10일 수원 갤럭시 웨딩홀에서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 출판기념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준예비후보사무소

“시민의 힘으로 장안구 바꾼다”

이재준 수원갑 더민주 예비후보
‘나는 서울보다…’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갑(장안구) 예비후보는 10일 “지난 5년 수원을 바꾼 시민의 힘으로 장안구를 바꿔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수원 갤럭시 웨딩홀에서 열린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 출판기념회에서다.

이 예비후보는 “이 책의 진정한 저자는 수원시민”이라며 “지난 1천800일간 수원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시민참여형 도시로 만들어낸 건 수원시민의 힘이었다. 도시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그는 290쪽 분량의 책에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5년동안 펼친 시민참여 도시정책의 경험과 이론을 담았다.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박광온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을 서울과 맞먹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첫번째 무기가 이재준 부시장을 선택한 것”이라며 “책 내용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이재준 부시장이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꽃피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서울보다 수원이 더 좋다는 제목은 이 전 부시장이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수원에 쌓인 애정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도시공학 박사 출신으로 협성대학교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녹색환경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고, 2011년 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수원시 제2부시장직으로 재직했다. 양진영기자

<중부일보> 2016년 1월 11일자 4면

이재준(수원갑)
“수원시 광역시로 승격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갑(장안)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에서 20대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주는 일이 정보화시대의 시대정신”이라며 “20대 총선은 무책임과 무지와 무능의 3무 정치를 청산하는 정치개혁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수원시 부시장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혁신을 추진하고 2017년 정권창출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펼쳐보이겠다”면서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고 수원의 정치 1번지였던 장안이 수원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의 질 1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수원갑) “수원시 광역시로 승격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갑(장안)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에서 20대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주는 일이 정보화시대의 시대정신”이라며 “20대 총선은 무책임과 무지와 무능의 3무 정치를 청산하는 정치개혁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수원시 부시장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혁신을 추진하고 2017년 정권창출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펼쳐보이겠다”면서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고 수원의 정치 1번지였던 장안이 수원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의 질 1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양진영기자

<중부일보> 2016년 1월 12일자 5면

이재준(수원갑)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스마트 기술 적용 필요”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전통스마트마켓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4·13총선 수원시갑(수원시 장안구)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조원, 연무, 정자, 거북, 파장시장 등 전통시장들을 방문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예비후보는 장안구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안구 지역 5개 시장은 장안구민들의 삶을 함께한 동반자”라며 “하지만 최근 전통시장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대화에 성공한 전통시장들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안구에 위치한 5개 전통시장의 이름을 딴 ‘조무정거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또 공약실천방안으로 “가깝고 편리한 스마트 마켓 조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주민접근성 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를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준(수원갑)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스마트 기술 적용 필요”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전통스마트마켓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4·13총선 수원시갑(수원시 장안구)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조원, 연무, 정자, 거북, 파장시장 등 전통시장들을 방문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예비후보는 장안구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안구 지역 5개 시장은 장안구민들의 삶을 함께한 동반자”라며 “하지만 최근 전통시장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대화에 성공한 전통시장들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안구에 위치한 5개 전통시장의 이름을 딴 ‘조무정거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또 공약실천방안으로 “가깝고 편리한 스마트 마켓 조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주민접근성 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를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의현기자

<중부일보> 2016년 1월 18일자 5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9**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경신문(대경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41 대경일보사 대표이사 이익재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6년 1월 5일자 3면 「“포항의 새로운 변화·발전 이끌겠다” 새누리당 이창균 예비후보」, 2016년 1월 6일자 2면 「이창균 포항북 예비후보 (주)화인플랜택 방문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2016년 1월 7일자 2면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겠다”」, 2016년 1월 11일자 2면 「이창균, 민심 변화 감지 “서민경제 반드시 살린다”」, 2016년 1월 12일자 3면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정선거 촉구”」, 2016년 1월 13일자 2면 「“시내버스 공공성과 효율성 충족해야”」, 2016년 1월 14일자 2면 「“살기 좋은 두호동 건설 노력” 당부」, 2016년 1월 15일자 2면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적극 앞장” 약속」, 2016년 1월 18일자 2면 「“재래시장 활성화…독특한 콘텐츠 개발 시급”」 2015년 12월 16일자 2면 「박승호 예비후보 본격 선거 홍보전」, 2015년 12월 22일자 2면 「“TP2단지, 정치쟁점화 현실 안타깝다”」, 2015년 12월 29일자 2면 「“깨끗한 정치 실현하겠다” 박승호 포항북 예비후보」, 2015년 12월 30일자 2면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 위해 앞장설 것”」, 2016년 1월 5일자 3면 「“잃어버린 정치신뢰 회복하겠다”」, 2016년 1월 6일자 2면 「새누리당 박승호 예비후보 흥해지역 민생탐방 나서 상인·농민들과 소통의 장」, 2016년 1월 7일자 3면 「박승호 예비후보 “체육인이 지역발전 앞장”」, 2016년 1월 8일자 2면 「“새로운 정치 실현 위해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 2016년 1월 8일자 3면 「박승호 예비후보 “흥해 노정삼 애환 귀 기울여”」, 2016년 1월 11일자 3면 「“멸사봉공의 자세로 열심히 발로 뛰겠다”」, 2016년 1월 13일자 3면 「여성기업인 회장단 만나 현장애로 ‘경청’」, 2016년 1월 14일자 3면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 만들어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포항시북구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후보자 2명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포항의 새로운 변화·발전 이끌겠다”

새누리당 이창균 예비후보

최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포항 정치변혁 바람의 중심’에 선 이창균〈사진〉 예비후보의 행복가 시민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죽도시장과 새벽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어 오전에는 선거사무실에서의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인근상가를 돌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예비후보는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포항을 설계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 세계적인 경제전문가인 자신이 당선되어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포항고와 일본 교토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실무위원장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 TF위원을 경제통으로 현재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항의 새로운 변화·발전 이끌겠다"

새누리당 이창균 예비후보

최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포항 정치변혁 바람의 중심'에 선 이창균<사진> 예비후보의 행복가 시민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죽도시장과 새벽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어 오전에는 선거사무실에서의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인근상가를 돌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창균 예비후보는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포항을 설계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 세계적인 경제전문가인 자

신이 당선되어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포항고와 일본 교토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실무위원장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 TF위원을 경제통으로 현재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경태 기자 gjrshstnf@naver.com

<대경일보> 2016년 1월 5일자 3면

이창균 포항북 예비후보 (주)화인플랜택 방문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이창균(사진) 포항북 국회의원예비후보는 4일 오후 흥해에 위치한 ㈜화인플랜택을 방문해 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경기부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화인플랜택은 강구조물 전문건설업체로 빌딩, 공장, 교량 등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체다.

이 자리에서 이 예비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한다는 말을했"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창균 포항북 예비후보 (주)화인플랜택 방문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이창균<사진> 포항북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오후 흥해에 위치한 (주)화인플랜택을 방문해 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경기부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화인플랜택은 강구조물 전문건설업체로 빌딩, 공장, 교량 등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체다.

이 자리에서 이 예비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한다는 말을 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허경태 기자 gjshstnf@naver.com

<대경일보> 2016년 1월 6일자 2면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겠다”

이창균(포항·북) 새누리당 예비후보 인터뷰

■ 출마동기 및 소감 한 마디

저는 작년 포항시장에 출마하기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선거후 지금까지 포항시민과 함께하며 구석구석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소중하고 뜻 깊은 경험이었으며 새로운 많은 것을 깨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포항과 포항시민은 지금 처절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살려 제가 포항을 살리고 바꾸어보겠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포항을 부활시키고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설계하는 것이 저 이창균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학박사 경제전문가인 저 이창균이 포항 북구의 국회의원이 되어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포항을 바꿔보겠습니다.

■ 당선돼야 하는 당위성은

포항과 포항시민은 지금 처절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시민의 민심은 새로운 변화와 참신한 인물을 갈망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은 그리고 포항시민은 지금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제발 먹고 좀 삽시다’, ‘부끄러운 정치! 이제 제발 그만하라’ 하십니다.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새로운 인물에 맡겨야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발상과 민심을 읽어야 만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가능합니다. 저 이창균이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당선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포항은 이제 새로운 식견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포항에 사람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와야 택시를 타고 특산품을 사고 음식을 먹고 숙박을 하고 기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항에 사람이 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항에 ‘살러오는 사람’과 또 하나는 포항에 ‘놀러오는 사람’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은 기본입니다. 포항은 이제 이 단계를 지나쳐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포항의 경제위기를 살리고 민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충격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전문성을 쏟아 붓겠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사회구조상 지위가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과연 지위와 특권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 저도 선뜻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저는 국익을 우선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얽매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소속 상임위를 재정경제위나 행정자치위에서 저의 전문성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

선에 앞장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깨끗한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제가 포항시장에 출마하여 시민 여러분의 크나 큰 호응을 받아 20%를 득표했습니다. 이는 포항시민 여러분들의 처절함과 아픔을 가슴으로 동감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포항시장 선거 때 새로운 포항의 민심을 보았고 지금은 새로운 포항건설의 희망과 요구를 민심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26.87%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6년 현직의 국회의원도, 8년의 시장을 역임한 분도 20% 초, 중반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정치인으로 안 된다는 포항시민의 민심을 보여준 준엄한 결과입니다.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새로운 인물에 맡겨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인물이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깨끗한 인물, 저 이창균이라 생각하며 그 같은 시민의 민심이 저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경쟁대상 상대후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재임 중 공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모두들 포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이며 포항이 낳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진정 새로운 포항!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재목인지 시민들의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 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진정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을 받드는 소통과 화합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항시의 장기적인 미래 구상에 대해

포항은 이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차원을 넘어 도시회복(urban resilience, 도시 리질리언스)를 이룩해야 합니다.

진정 포항의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역량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포항의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양적 팽창(expansion)에서 질적 번영(prosperity)로 도농복합도시인 포항을 도시는 도시대로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동반성장할 수 있고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저는 지난 포항시장 선거시 이미 제시한 정책공약은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포항을 새롭게 설계하여 향후 '100년의 포항 먹거리'와 '인구 100만의 포항'을 다지겠습니다.

포항 북구 권역을 동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역, 항만과 KTX 중심의 해안지역과 흥해읍 권역, 면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권역, 포항전체를 총괄하는 행정개혁 권역 등 큰 권역별로 포항의 발전방향을 이미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시내 동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역은 경북도청 제2청사 유치, 구역사 대규모 주민복합 시민광장과 지하주차장 건설, 포항운하 개발,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 등 활성화입니다. 둘째, 해안지역과 흥해읍 권역은 신항만활성화, 해양관광 스포츠 개발과 국내 및 국제 크루즈선 시설 등입니다. 셋째, 면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권역은 대규모 국제적 위락시설을 유치하여 서비스와 관광과 창조적 혁신과 거버넌스를 접목한 고차원의 새로운 산업(가칭, 10차산업)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새로운 농어촌 발전 모델로

개발하여 포항의 도농간 유기적인 동반성장을 유인하겠습니다. 넷째, 포항의 자족도시를 위하고 성장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주, 영천, 영덕 등 인근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포항의 획기적 성장을 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소 자신의 철학이나 좌우명은

不爲胡成(불위호성),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書經 태갑편에 나오는 말로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서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개혁되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공천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포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포항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심에 의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고 유권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날로 기억될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겠다"



이창균(포항·북) 새누리당 예비후보 인터뷰

포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포항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심에 의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고 유권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날로 기억될 수 있기를 포항시민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 저 이창균에게 힘을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항상 민심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시민 여러분의 명을 받들어 포항을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창균 예비후보 약력

- 현)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현)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포항시장 후보(2014년)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장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TF 위원
- 박근혜 대통령후보 직능총괄본부 중앙대책자문위원
- 日本文部省국비장학생유학시험 합격, 日本京都大學졸업(경제학박사제19호)
- 현)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 현)사단법인 신지역창조포럼 대표
- 현)한국지방자치연구원 원장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日本京都大學(교토대학)
- 현)한국총동창회 부회장
- 현)포항고등학교총동창회 부회장
- 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소장

• 학력

- 국강초(흥해), 중앙초(포항), 포항중, 포항고, 건국대, 日本 교토대학(京都大學,경제학박사)

• 상훈

- 대한민국 국민포장(2011년)

허경태 기자 qjshstnf@naver.com

■ 출마동기·소감 한 마디

저는 작년 포항시장에 출마하기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선거후 지금까지 포항시민과 함께하며 구석구석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소중하고 뜻 깊은 경험이었으며 새로운 많은 것을 깨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포항과 포항시민은 지금 처절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살려 제가 포항을 살리고 바꾸어보겠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포항을 부활시키고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설계하는 것이 저 이창균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학박사 경제전문가인 저 이창균이 포항 북구의 국회의원이 되어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포항을 바꿔보겠습니다.

■ 당선돼야 하는 당위성은

포항과 포항시민은 지금 처절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시민의 민심은 새로운 변화와 참신한 인물을 갈망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은 그리고 포항시민은 지금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제발 먹고 좀 삽시다', '부끄러운 정치! 이제 제발 그만하라'하십니다.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새로운 인물에 맡겨야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발상과 민심을 읽어야 만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가능합니다. 저 이창균이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 당선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포항은 이제 새로운 식견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포항에 사람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와야 택시를 타고 특산품을 사고 음식을 먹고 숙박을 하고 기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항에 사람이 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항에 '살러오는 사람'과 또 하나는 포항에 '놀러오는 사람'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은 기본입니다. 포항은 이제 이 단계를 지나쳐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포항의 경제위기를 살리고 민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충격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전문성을 쏟아 붓겠습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사회구조상 지위가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과연 지위와 특권에 걸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 저도 선뜻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저는 국익을 우선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얽매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소속 상임위를 재정경제위나 행정자치위에서 저의 전문성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깨끗한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제가 포항시장에 출마하여 시민 여러분의 크나 큰 호응을 받아 20%를 득표했습니다. 이는 포항시민 여러분들의 처절함과 아픔을 가슴으로 동감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포항시장 선거 때 새로운 포항의 민심을 보았고 지금은 새로운 포항건설의 희망과 요구를 민심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26.87%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6년 현직의 국회의원도, 8년의 시장을 역임한 본도 20% 초, 중반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정치인으로 안 된다는 포항시민의 민심을 보여준 준엄한 결과입니다.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새로운 인물에 맡겨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인물이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깨끗한 인물, 저 이창균이라 생각하며 그 같은 시민의 민심이 저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 경쟁대상 상대후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재임 중 공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모두들 포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이며 포항이 낳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진정 새로운 포항!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재목인지 시민들의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 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진정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을 받드는 소통과 화합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포항시의 장기적인 미래 구상에 대해

포항은 이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차원을 넘어 도시회복(urban resilience, 도시 리질리언스)를 이룩해야 합니다.

진정 포항의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역량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포항의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양적 팽창(expansion)에서 질적 번영(prosperity)로 도농복합도시인 포항을 도시는 도시대로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동반성장할 수 있고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저는 지난 포항시장 선거시 이미 제시한 정책공약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포항을 새롭게 설계하여 향후 '100년의 포항 먹거리'와 '인구 100만의 포항'을 디지겠습니다.

포항 북구 권역을 동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역, 항만과 KTX 중심의 해안지역과 흥해읍 권역, 면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권역, 포항전체를 총괄하는 행정개혁 권역 등 큰 권역별로 포항의 발전방향을 이미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시내 동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역은 경북도청 제2청사 유치, 구여사 대규모 주민복합 시민광장과 지하주차장 건설, 포항운하 개발,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 등 활성화입니다. 둘째, 해안지역과 흥해읍 권역은 신항만활성화, 해양관광 스포츠 개발과 국내 및 국제 크루즈선 시설 등입니다. 셋째, 면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권역은 대규모 국제적 위락시설을 유치하여 서비스와 관광과 창조적 혁신과 거버넌스를 접목한 고차원의 새로운 산업(가칭, 10차산업)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새로운 농어촌 발전 모델로 개발하여 포항의 도농간 유기적인 동반성장을 유인하겠습니다. 넷째, 포항의 자족도시를 위하고 성장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주, 영천, 영덕 등 인근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포항의 획기적 성장을 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평소 자신의 철학이나 좌우명은

不爲胡成(불위호성),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書經 태갑편에 나오는 말로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서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개혁되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공천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대경일보> 2016년 1월 7일자 2면

수 있기를 포항시민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 저 이창균에게 힘을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항상 민심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시민 여러분의 명을 받들어 포항을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균 예비후보 약력

- 현)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현)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포항시장 후보(2014년)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장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TF 위원
- 박근혜 대통령후보 직능총괄본부 중앙대책자문위원
- 日本文部省국비장학생유학시험 합격,
  日本 京都大學졸업(경제학박사제19호)
- 현)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 현)사단법인 신지역창조포럼 대표
- 현)한국지방자치연구원 원장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 日本京都大學(교토대학) 한국총동창회 부회장
- 현)한국총동창회 부회장
- 현)포항고등학교총동창회 부회장
- 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소장

• 학력

- 곡강초(흥해), 중앙초(포항), 포항중, 포항고, 건국대,
  日本 교토대학(京都大學, 경제학박사)

• 상훈

- 대한민국 국민포장(2011년)

이창균, 민심 변화 감지 “서민경제 반드시 살린다”

이창균〈사진〉 예비후보 측은 지난 22일,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포항북구 예비후보 등록 이후 20일이 지난 지금, 이창균 예비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지역 정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는 새누리당 복당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만큼 광폭행보를 보인 것도 있지만 경제학 박사다운 공약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창균 예비후보 공약의 핵심은 ‘경제’이다. 이 예비후보는 포항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개혁 권역 등 큰 권역별 발전방향을 지난 출마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죽도시장을 찾아 “서민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포항경제는 반드시 경제학 박사인 저가 살려 보겠다”고 민심 얻기 행보를 이어갔다.

이창균, 민심 변화 감지
“서민경제 반드시 살린다”



이창균〈사진〉 예비후보 측은 지난 22일,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포항북구 예비후보 등록 이후 20일이 지난 지금, 이창균 예비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지역 정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는 새누리당 복당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만큼 광폭행보를 보인 것도 있지만 경제학 박사다운 공약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창균 예비후보 공약의 핵심은 ‘경제’이다. 이 예비후보는 포항전체를 총괄하는 행정개혁 권역 등 큰 권역별 발전방향을 지난 출마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죽도시장을 찾아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포항경제는 반드시 경제학 박사인 저가 살려 보겠다”고 민심 얻기 행보를 이어갔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

<대경일보> 2016년 1월 11일자 2면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정선거 촉구”

이창균 새누리당 예비후보

이창균(사진) 예비후보(포항북구)가 1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정선거를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심과 함께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해 12월 31일 자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6.87%로 1위를 차지했다”밝혔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장을 역임한 예비후보를 제치고 포항의 새로운 인물의 대세로 자리매김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심에 의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동안 불철주야 포항시민의 아픔을 가슴으로 실감하고 민심과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이 여론조사결과를 두고 모 후보 측에서 음해하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내용을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저의 명예를 현격히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측은 3번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했다”며 “여론조사는 사전과 사후 모두 공정하게 검증된 절차에 의해 실시됐다”고 밝히고 “선거관련 기관에서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민심 왜곡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창균 예비후보는 “모 후보 측의 저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문자발송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즉각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불이행시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정선거 촉구”

이창균 새누리당 예비후보

이창균(포항북구 · 사진) 예비후보가 1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정선거를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심과 함께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12월 31일 자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6.87%로 1위를 차지했다”밝혔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장을 역임한 예비후보를 제치고 포항의 새로운 인물



의 대세로 자리매김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심에 의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동안 불철주야 포항시민의 아픔을 가슴으로 실감하고 민심과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이 여론조사결과를 두고 모 후보 측에서 음해하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내용을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저의 명예를 현격히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측은 3번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했다”며 “여론조사는 사전과 사후 모두 공정하게 검증된 절차에 의해 실시됐다”고 밝히고 “선거관련 기관에서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민심 왜곡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창균 예비후보는 “모 후보 측의 저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문자발송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즉각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손주락 기자 thswnfkr2004@daum.net

<대경일보> 2016년 1월 12일자 3면

“시내버스 공공성과 효율성 충족해야”

포항 북구 이창균 예비후보 버스운전자들과 대화의 시간

새누리당 포항북구 이창균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12일 새벽 신안여객 양덕차고지를 찾아 배차 대기중인 버스운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포항시가 시내버스 운영 적자 보전금으로 연간 10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준공영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통제를 결합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충족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공공성과 효율성 충족해야”

포항 북구 이창균 예비후보 버스운전자들과 대화의 시간

새누리당 포항북구 이창균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12일 새벽 신안여객 양덕차고지를 찾아 배차 대기중인 버스운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포항시가 시내버스 운영 적자보전금으로 연간 10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준공영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통제를 결합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충족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규 기자

<대경일보> 2016년 1월 13일자 2면

“살기 좋은 두호동 건설 노력” 당부

포항 북구 이창균 예비후보

새누리당 포항 북구 이창균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13일 새벽, 어제에 이어 신안여객 양덕차고지를 찾아 배차 대기중인 버스운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 창포 4거리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두호동주민센터에서 열린 2016년도 두호동 신년교례회에 참석, 16개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의 가정에 행복과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공동체 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자생단체가 구심점 역할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봉사와 사랑을 실천해 살기 좋은 두호동 건설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살기 좋은 두호동 건설 노력” 당부

포항 북구 이창균 예비후보

새누리당 포항 북구 이창균 예비후보<사진>는 13일 새벽, 어제에 이어 신안여객 양덕차고지를 찾아 배차 대기 중인 버스운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 창포 4거리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두호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16년도 두호동 신년교례회에 참석, 16개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의 가정에 행복과 소망하

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위해 “지역공동체 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자생단체가 구심점 역할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봉사와 사랑을 실천해 살기 좋은 두호동 건설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규 기자

<대경일보> 2016년 1월 14일자 2면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적극 앞장” 약속

포항 북구 이창균 예비후보 청과직판장 찾아 상인들과 담소

새누리당 포항북구 이창균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14일 포항청과직판장을 찾아 청과물 경매현황을 살펴보고 상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농어촌 발전방안을 경청했다.

이창균 예비후보는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은데 외부의 개방화 물결과 내부의 소득 감소, 일손부족, 고령화 등 다양한 위협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의 현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도농 간 유기적 동반성장을 유인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생산자단체의 확대와 규모화를 통해 농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박근혜정부 농업부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적극 앞장” 약속

포항 북구 이창균 예비후보
청과직판장 찾아 상인들과 담소

새누리당 포항북구 이창균<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일 포항청과직판장을 찾아 청과물 경매현황을 살펴보고 상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농어촌 발전방안을 경청했다.

이창균 예비후보는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은데 외부의 개방화 물결과 내부의 소득 감소, 일손부족, 고령화 등 다양한 위협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의 현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도농 간 유기적 동반성장을 유인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생산자단체의 확대와 규모화를 통해 농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박근혜정부 농업부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

<대경일보> 2016년 1월 15일자 2면

“재래시장 활성화… 독특한 콘텐츠 개발 시급”

이창균 포항북구 예비후보

이창균 새누리당 포항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살려오고’ ‘놀러오는’ 포항경제 회생의 큰 밑그림과 세부적인 공약이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의 현장 탐방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후보등록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포항 서민 가계 경제의 바로미타라 할 수 있는 죽도시장을 찾아 체감 경기를 살펴온 이 후보는 주말인 17일에도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인들의 한결같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이 후보는 “SSM 등 대형마트의 확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전통 재래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독특하고 고유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활성화…독특한 콘텐츠 개발 시급”

이창균 포항 북구 예비후보

이창균<사진> 새누리당 포항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살려오고’, ‘놀러오는’ 포항경제 회생의 큰 밑그림과 세부적인 공약이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의 현장 탐방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후보등록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포항 서민 가계 경제의 바로미타라 할 수 있는 죽도시장을 찾아 체감 경기를 살펴온 이 후보는 주말인 17일에도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인들의 한결같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이 후보는 “SSM 등 대형마트의 확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전통 재래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독특하고 고유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인규 기자

<대경일보> 2016년 1월 18일자 2면

박승호 예비후보 본격 선거 홍보전

선관위에 후보 등록
“더 살기 좋은 포항 만들 터”

박승호 새누리당 포항 북 예비후보(57·전 포항시장·사진)는 15일 오전 9시 가장 먼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홍보에 돌입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시장으로 재직한 8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항운하, KTX 포항직결 노선, 영일만 대교 등 포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큰 대과 없이 이뤄낸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8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이어 “포항 시민이 기성정치인의 어떤 모습에 실망하고, 왜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잘 알고 있다”며 “겸손과 열정을 겸비한 깨끗하고 반듯한 정치인, 일만하는 일꾼으로 포항시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박승호 후보는 후보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시청을 찾아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위로 격려했다.

박 예비후보는 “공무원들의 봉사와 헌신이 없었다면 수많은 일들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8년 동안 함께 고생하고 묵묵히 따라줬던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늦게나마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승호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에 앞서 8시 15분 선거대책위원들과 함께 충혼탑을 방문 참배했다.

박승호 예비후보 본격 선거 홍보전

선관위에 후보 등록
“더 살기 좋은 포항 만들 터”

박승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포항 북 예비후보(57 · 전 포항시장 · 사진)는 15일 오전 9시 가장 먼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홍보에 돌입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시장으로 재직한 8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항운하, KTX 포항직결 노선, 영일만 대교 등 포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큰 대과 없이 이뤄낸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8년전 초심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이어 “포항 시민이 기성정치인의 어떤 모습에 실망하고, 왜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잘 알고 있다”며 “겸손과 열정을 겸비한 깨끗하고 반듯한 정치인, 일만하는 일꾼으로 포항시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박승호 후보는 후보등록을 마친뒤 곧바로 시청을 찾아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위로 격려했다.

박 예비후보는 “공무원들의 봉사와 헌신이 없었다면 수 많은 일들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8년 동안 함께 고생하고 묵묵히 따라줬던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늦게나마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승호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에 앞서 8시 15분 선거대책위원들과 함께 충혼탑을 방문 참배했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

<대경일보> 2015년 12월 16일자 2면

“TP2단지, 정치쟁점화 현실 안타깝다”

박승호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승호〈사진〉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시장시절 평가, 국회의원 출마 배경,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 포항 발전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지역사회 최대 관심 상황인 테크노파크 2단지 문제와 관련해 박승호 예비후보는 “비리문제가 아닌 것을 정치쟁점화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못 쓰인 예산이 있다면 받아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박승호 후보는 또한 초선과 5선의 능력 차이론에 대해 “영일만대교 변경노선 확정을 시장시절 제가 했고 자칫 사장될 뻔한 것을 초선의원인 박명재 의원이 예산 20억을 확보하는 동안 4선의원이 무엇을 했나”고 반문한 뒤 “국회의원 선수가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TP 2단지, 정치쟁점화 현실 안타깝다”

박승호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승호〈사진〉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시절 평가, 국회의원 출마 배경,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 포항 발전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지역사회 최대 관심 상황인 테크노파크 2단지 문제와 관련해 박승호 예비후보는 “비리문제가 아닌 것을 정치쟁점화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못 쓰인 예산이 있다면 받아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박승호 후보는 또한 초선과 5선의 능력 차이론에 대해 “영일만대교 변경노선 확정을 시장시절 제가 했고 자칫 사장될 뻔한 것을 초선의원인 박명재 의원이 예산 20억을 확보하는 동안 4선의원이 무엇을 했나”고 반문한 뒤 “국회의원 선수가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인규 기자

<대경일보> 2015년 12월 22일자 2면

“깨끗한 정치 실현하겠다”

박승호 포항북 예비후보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 사진) 예비후보는 29일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후원회의 출범과 함께 현판식을 갖는다.

이날 오후 2시 육거리 삼성빌딩 1층에서 하은수(전 부장검사·변호사), 이동옥(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동후원회장과 후원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승호 예비후보에게 ‘1만원의 행복으로, 반듯한 희망의 정치 실현 박승호’라고 적힌 후원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1만원 행복 후원회’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염원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깨끗한 정치,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깨끗한 정치 실현하겠다”

박승호 포항북 예비후보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 · 사진) 예비후보는 29일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후원회의 출범과 함께 현판식을 갖는다.

이날 오후 2시 육거리 삼성빌딩 1층에서 하은수(전 부장검사 · 변호사), 이동옥(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동후원회장과 후원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승호 예비후보에게 ‘1만 원의 행복으로, 반듯한 희망의 정치 실현 박승호’라고 적힌 후원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1만 원 행복 후원회’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달라는 지역민들의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로써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염원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깨끗한 정치,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경태 기자 gjrshstnf@naver.com

<대경일보> 2015년 12월 29일자 2면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 위해 앞장설 것”

박승호 포항북 예비후보 후원회 출범 현판식 가져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포항시민들의 열망이 매서운 한겨울 추위도 녹였다.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 예비후보는 29일 오후 육거리 삼성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현판식에는 최영우(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하은수(전 부장검사·변호사), 이동옥(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동후원회장을 비롯한 후원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승호 예비후보에게 ‘1만원 행복, 반듯한 희망의 정치 실현 박승호’라고 적힌 후원 증서를 전달하며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만원의 소액 기부로 법정모금한도액 1억5000만원을 달성해 낡은 정치관행들을 타파하고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겠다는 포부다.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 위해 앞장설 것”

박승호 포항북 예비후보
후원회 출범 현판식 가져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포항시민들의 열망이 매서운 한겨울 추위도 녹였다.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 예비후보는 29일 오후 육거리 삼성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현판식에는 최영우(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하은수(전 부장검사·변호사), 이동옥(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동후원회장을 비롯한 후원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승호 예비후보에게 ‘1만원 행복, 반듯한 희망의 정치 실현 박승호’라고 적힌 후원 증서를 전달하며 청렴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만원의 소액 기부로 법정모금한도액 1억5000만 원을 달성해 낡은 정치관행들을 타파하고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겠다는 포부다.

허경태 기자
gjrshstnf@naver.com

<대경일보> 2015년 12월 30일자 2면

“잃어버린 정치신뢰 회복하겠다”

새누리당 박승호 예비후보 총선 D-100일 기자간담회

새누리당 박승호〈사진〉 예비후보는 4일 “바닥에 떨어진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4.13 총선부터 깨끗하게 치러야 한다”며 “상대 예비후보 비방을 자제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자”고 제안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총선 D-100일을 맞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 모두 위법적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서야 하며, 새로운 정치 리더십으로 나라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역 곳곳을 돌면서 만나는 시민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정치인을 원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부터 포항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포항테크노파크2단지(TP2단지) 조성사업 무산과 관련, “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서 '포항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났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이 이 문제를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희망찬 새해도 밝았고, 새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예비후보는 "지난달 22일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전제가 되는 상수원보호구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가) 능력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사업 무산이 포항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감사원도 '포항시장은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는 불문 취지의 조치사항을 포항시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상수원보호구역 이설과 용수체계변경 등 사업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무산돼 안타까웠다"면서 "감사원과 법원에서 결론 내린 사안을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정치신뢰 회복하겠다"

새누리당 박승호 예비후보
총선 D-100일 기자간담회



새누리당 박승호<사진> 예비후보는 4일 "바닥에 떨어진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4.13 총선부터 깨끗하게 치러야 한다"며 "상대 예비후보 비방을 자제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자"고 제안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총선 D-100일을 맞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 모두 위법적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서야 하며, 새로운 정치 리더십으로 나라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역 곳곳을 돌면서 만나는 시민들 마다 이구동성으로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정치인을 원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부터 포함에 빠를 묻는다는 각오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솔선수범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포항테크노파크2단지(TP2단지) 조성사업 무산과 관련, "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포항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났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이 이 문제를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희망찬 새해도 밝았고, 새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예비후보는 "지난달 22일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전제가 되는 상수원보호구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가) 능력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사업 무산이 포항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감사원도 '포항시장은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는 불문 취지의 조치사항을 포항시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상수원보호구역 이설과 용수체계변경 등 사업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무산돼 안타까웠다"면서 "감사원과 법원에서 결론 내린 사안을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인규 기자

<대경일보> 2016년 1월 5일자 3면

새누리당 박승호 예비후보 흥해지역 민생탐방 나서 상인·농민들과 소통의 장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사진) 예비후보는 5일 북구 흥해읍 상가 등을 돌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생탐방에 나섰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흥해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북포항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를 찾아 회원들과 인사한 뒤 곧바로 흥해읍 일대 상가와 농민단체 등을 순회하며 상인, 농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박 예비후보는 "새해가 밝았지만 만나는 상인들마다 장사가 안 된다며 다들 울상이다"며 "현장에서 정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내는 시민들을 대할 때마다 민생을 보듬기 위해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경일보> 2016년 1월 6일자 2면

새누리당 박승호 예비후보
흥해지역 민생탐방 나서
상인·농민들과 소통의 장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사진) 예비후보는 5일 북구 흥해읍 상가 등을 돌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생탐방에 나섰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흥해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북포항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를 찾아 회원들과 인사한 뒤 곧바로 흥해읍 일대 상가와 농민단체 등을 순회하며 상인, 농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박 예비후보는 "새해가 밝았지만 만나는 상인들 마다 장사가 안 된다며 다들 울상이다"며 "현장에서 정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내는 시민들을 대할 때마다 민생을 보듬기 위해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

박승호 예비후보 "체육인이 지역발전 앞장"

체육회 전무이사협서 지지 호소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사진) 예비후보는 6일 오후 육거리 선거사무소(삼성전자빌딩)를 방문한 포항시체육회 전무이사협의회 임원진들과 포항시 체육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8년 동안 포항시체육회장을 지낸 인연을 내세우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체육인 화합과 체육 장학생 육성에 헌신해 온 전무이사협 임원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체육인들이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합리적 목소리를 내야 체육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체육인들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무이사협 임원진들은 "시장 재임시절 각종 체육행사에 빠지지 않고 열성적으로 참석해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인 것은 물론이고, 프로경기가 가능한 야구장 등 체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포항이 선진 스포츠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승호 예비후보 "체육인이 지역발전 앞장"

체육회 전무이사협서 지지 호소

새누리당 박승호(포항 북·사진) 예비후보는 6일 오후 육거리 선거사무소(삼성전자빌딩)를 방문한 포항시체육회 전무이사협의회 임원진들과 포항시 체육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8년 동안 포항시체육회장을 지낸 인연을 내세우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체육인 화합과 체육 장학생 육성에 헌신해 온 전무이사협 임원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체육인들이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합리적 목소리를 내야 체육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체육인들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무이사협 임원진들은 "시장 재임시절 각종 체육 행사에 빠지지 않고 열성적으로 참석해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인 것은 물론이고, 프로경기가 가능한 야구장 등 체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포항이 선진 스포츠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인규 기자

<대경일보> 2016년 1월 7일자 3면

"새로운 정치 실현 위해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

박승호(포항북) 새누리당 예비후보 인터뷰

■출마 동기 및 소감 한 마디

포항을 성장 발전시키겠다는 저의 열정을 시민 여러분들이 믿어주셨기에 포항시장으로서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었다. 지난 8년간 포항발전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포항의 지도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사심 없는 일꾼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개인의 영광일지 몰라도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의 정치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오로지 국민들을 보고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당선돼야 하는 당위성은

어떤 일을 하려면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포항시장 8년 동안 이 점을 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일했다. 지난해 포스코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 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철강도시' 포항의 이미지가 흐려지지나 않을까 걱정됐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을 어기는 정치인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국

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땅에 떨어진 이때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국민들은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일꾼을 원하고 있다. 감히 박승호가 적임자라고 자신한다.

■당선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초선 시장 때 구상한 영일만대교의 노선이 2011년 12월 30일 확정됐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이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 동해안고속도로가 놓이면 포항은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이 될 것이다.

또한 포항, 경주를 통합해 양 도시가 가진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광역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포항은 일본, 러시아, 중국을 아우르는 환동해 중심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포항의 미래 먹거리인 R&D(연구개발)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교육과 복지도 강화하겠다. 농업과 어업의 어려움을 늘 살피겠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법을 만들고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한 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어떠했는가. 여야가 대립과 갈등으로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5년째 2%대의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선진국 문 앞에서 얼씬거리다 주저앉을지도 모른다.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요구된다. 여야가 국정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추진력이 있다는 평을 듣는다. 어느 시장도 엄두를 내지 못한 오염의 대명사인 동빈내항을 총사업비의 10% 남짓한 시비 154억 원을 들여 친환경 관광지로 살려냈다. 포항시장학회 300억 원 모금, KTX 포항직결노선 유치 등 '박승호에게 맡기면 틀림없다'는 이야기는 저에겐 큰 힘이 된다. 또 지역살림을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이것이 강점일 것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지역 발전에 온힘을 다 쏟겠다.

■상대후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모두가 훌륭하신 분들이고, 제가 평가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지만 땅에 떨어진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깨끗한 선거로 뽑은 성실한 일꾼을 국회에 보내야 한다.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말고 페어플레이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협조를 바란다. 포항은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예가 없다. 지역에 뼈를 묻는다면 책임정치를 할 것이다. 이것도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리라 본다.

■포항시의 장기적인 미래 구상에 대해

포스코 한 기업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갔다. 물론 포항경제의 중요한 축인 포스코가 잘 돼야 실물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10년 후, 나아가 100년 후 포항이 무엇을 먹고 살지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포항은 세계적인 대

학인 포스텍과 RIST, 방사광가속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R&D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포항이 세계에서 각광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포항을 환동해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대구와 울산, 부산이 포항의 배후도시가 되도록 만들겠다.

■자신의 철학이나 좌우명은

평소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를 되새기며 생활한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고,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 것도 거둘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총선이 코앞인데 가장 기본인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 못한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지금처럼 한국의 정치 엘리트 집단이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채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만 보이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하다.

4월 총선에서는 나라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깨끗하고 일 잘하는 일꾼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다.

경제와 행정은 사회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선진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정치가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톨의 밀알이 되겠다.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새로운 정치 실현 위해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



박승호(포항북) 새누리당 예비후보 인터뷰

■ 출마 동기 및 소감 한 마디

포항을 성장 발전시키겠다는 저의 열정을 시민 여러분들이 믿어주셨기에 포항시장으로서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었다. 지난 8년간 포항발전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포항의 지도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사심 없는 일꾼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개인의 영광일지 몰라도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의 정치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오로지 국민들을 보고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 당선돼야 하는 당위성은

어떤 일을 하려면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포항시장 8년 동안 이 점을 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일했다. 지난해 포스코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 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철강도시' 포항의 이미지가 흐려지지나 않을까 걱정됐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을 어기는 정치인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땅에 떨어진 이때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국민들은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일꾼을 원하고 있다. 감히 박승호가 적임자라고 자신한다.

■ 당선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초선 시장 때 구상한 영일만대교의 노선이 2011년 12월 30일 확정됐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이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 동해안고속도로가 놓이면 포항은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이 될 것이다.

또한 포항, 경주를 통합해 양 도시가 가진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광역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포항은 일본, 러시아, 중국을 아우르는 환동해 중심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포항의 미래 먹거리인 R&D(연구개발)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교육과 복지도 강화하겠다. 농업과 어업의 어려움을 늘 살피겠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법을 만들고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한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어떠했는가. 여야가 대립과 갈등으로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5년째 2%대의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선진국 문 앞에서 엄진거리다 주저앉을지도 모른다.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요구된다. 여야가 국정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자신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추진력이 있다는 평을 듣는다. 어느 시장도 엄두를 내지 못한 오염의 대명사인 동빈 내항을 총사업비의 10% 남짓한 시비 154억 원을 들여 친환경 관광지로 살려냈다.

포항시장하회 300억 원 모금, KTX 포항 직결노선 유치 등 '박승호에게 맡기면 틀림없다'는 이야기는 저에겐 큰 힘이 된다.

또 지역살림을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이것이 강점일 것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지역 발전에 온힘을 다 쏟겠다.

■ 상대후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모두가 훌륭하신 분들이고, 제가 평가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지만 땅에 떨어진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깨끗한 선거로 뽑은 성실한 일꾼을 국회에 보내야 한다.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말고 페어플레이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협조를 바란다. 포항은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예가 없다. 지역에 뼈를 묻는다면 책임정치를 할 것이다. 이것도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리라 본다.

■ 포항시의 장기적인 미래 구상에 대해

포스코 한 기업에만 의존하면 시대는 갔다. 물론 포항경제의 중요한 축인 포스코가 잘 돼야 실물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10년 후, 나아가 100년 후 포항이 무엇을 먹고 살지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포항은 세계적인 대학인 포스텍과 RIST, 방사광가속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R&D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포항이 세계에서 각광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포항을 환동해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대구와 울산, 부산이 포항의 배후도시가 되도록 만들겠다.

■ 자신의 철학이나 좌우명은

평소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를 되새기며 생활한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고,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 것도 거둘 수 없다.

■ 예비후보자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총선이 코앞인데 가장 기본인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 못한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지금처럼 한국의 정치 엘리트 집단이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채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만 보이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하다.

4월 총선에서는 나라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깨끗하고 일 잘하는 일꾼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다. 경제와 행정은 사회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선진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정치가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톨의 밀알이 되겠다.

■ 박승호 예비후보 약력

- 달전초/동지중/포항고/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학교)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한국체육대 대학원(이학박사)
- 중국사회과학원(법학박사)
- 서울올림픽조직위 공채합격
- 국가공무원 시험합격(총무처)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역)
- 경상북도 봉화군수(36세)(역)
- 경상북도 국장 · 공무원교육원장(역)
- 내무부 과장,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역)
-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중국 북경사무소장(역)
- 민선 4기, 5기 포항시장(역)
- 홍조근정훈장(2004)/대통령 표창(1992)
- 대한민국글로벌CEO선정
-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역)
- 한국실업유도연맹 회장(현)

허경태 기자 qjshstnf@naver.com

<대경일보> 2016년 1월 8일자 2면

■박승호 예비후보 약력

- 달전초/동지중/포항고/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학교)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한국체육대 대학원(이학박사)
- 중국사회과학원(법학박사)
- 서울올림픽조직위 공채합격
- 국가공무원 시험합격(총무처)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역)
- 경상북도 봉화군수(36세)(역)
- 경상북도 국장·공무원교육원장(역)
- 내무부 과장,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역)
-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중국 북경사무소장(역)
- 민선 4기, 5기 포항시장(역)
- 홍조근정훈장(2004)/대통령 표창(1992)
- 대한민국글로벌CEO선정
-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역)
- 한국실업유도연맹 회장(현)

박승호 예비후보 "흥해 노점삼 애환 귀 기울여"

새해 폭발적인 민생탐방 벌여 노점상인 손 붙잡고 안부 물어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 예비후보가 더욱 낮은 자세로 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7일 흥해 장날을 맞아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텃밭에서 애써 가꾼 농산물을 들고 새벽부터 자리를 잡은 노점상들의 손을 붙잡고 일일이 안부를 물었다.

박 예비후보는 "새벽부터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어르신들로부터 '장사가 안 되고,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다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정치인들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서민들의 삶에 온기가 돌고 희망 바이러스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생생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민생탐방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은 교회지도자 초청 신년교례회를 시작으로 아침출근 인사, 재래시장 방문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박승호(왼쪽)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7일 흥해 5일장에 들러 노점상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안부를 묻고 있다.

박승호 예비후보 "흥해 노점상 애환 귀 기울여"

새해 폭발적인 민생탐방 벌여
노점상인 손 붙잡고 안부 물어

새누리당 박승호(포항 북) 예비후보가 더욱 낮은 자세로 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7일 흥해 장날을 맞아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텃밭에서 애써 가꾼 농산물을 들고 새벽부터 자리를 잡은 노점상들의 손을 붙잡고 일일이 안부를 물었다.

박 예비후보는 "새벽부터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어르신들로부터 '장사가 안 되고,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다 마음이 무거웠다"며 "정치인들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서민들의 삶에 온기가 돌고 희망 바이러스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생생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민생탐방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은 교회지도자 초청 신년교례회를 시작으로 아침출근 인사, 재래시장 방문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손주락 기자

<대경일보> 2016년 1월 8일자 3면

“멸사봉공의 자세로 열심히 발로 뛰겠다”

박승호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승호(포항북·사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멸사봉공(滅私奉公·사심을 버리고 나라나 공공을 위해 힘써 일함)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포항 육거리 삼성전자빌딩 선거사무소 벽면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5월 20일 휘호로 남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란 글귀의 현수막을 내걸어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전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시작으로 봉화군수, 경북도 국장,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 민선 4기, 5기 포항시장 등 청와대와 중앙부처, 경북도, 포항시에서 30년 넘게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다.



“멸사봉공의 자세로 열심히 발로 뛰겠다”

박승호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승호(포항 북·사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멸사봉공(滅私奉公·사심을 버리고 나라나 공공을 위해 힘써 일함)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포항 육거리 삼성전자빌딩 선거사무소 벽면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5월 20일 휘호로 남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란 글귀의 현수막을 내걸어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전하고있다.

박 예비후보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시작으로 봉화군수, 경북도 국장,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 민선 4기, 5기 포항시장 등 청와대와 중앙부처, 경북도, 포항시에서 30년 넘게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

<대경일보> 2016년 1월 11일자 3면

여성기업인 회장단 만나 현장애로 ‘경청’

박승호 새누리당 예비후보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여성기업인들과 만나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육거리 삼성전자빌딩 선거사무소를 찾은 여성기업인 회장단과의 대화 자리에서 여성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환에 귀를 기울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 여성기업인은 “업체 등록 시 가산점 부여 등 여성기업인 우대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포항시나 포스코가 여성 기업인들을 우대하기는커녕 거대한 장벽을 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했다. 박승호 후보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잘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성기업인들이 신바람 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강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경제의 밑바탕이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여성기업인 회장단 만나 현장애로 ‘경청’

박승호 새누리당 예비후보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여성기업인들과 만나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육거리 삼성전자빌딩 선거사무소를 찾은 여성기업인 회장단과의 대화 자리에서 여성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환에 귀를 기울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 여성기업인은 “업체 등록 시 가산점 부여 등 여성기업인 우대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포항시나 포스코가 여성 기업인들을 우대하기는커녕 거대한 장벽을 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했다. 박승호 후보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잘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성기업인들이 신바람 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강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경제의 밑바탕이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

<대경일보> 2016년 1월 13일자 3면

지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포항시나 포스코가 여성 기업인들을 우대하기는커녕 거대한 장벽을 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했다. 박승호 후보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잘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성기업인들이 신바람 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강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경제의 밑바탕이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 만들어야"

박승호 새누리당 예비후보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육거리 선거사무소를 찾은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의 대화에서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장단은 박승호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포항어린이타운 개관, 친환경급식 제공, 교사처우개선비 상향조정 및 명절 수당 지급, 보육인 행사 적극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환경을 조성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회장단은 "박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때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친환경급식 제공 등 포항의 보육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 만들어야"

박승호 새누리당 예비후보

새누리당 박승호(포항북 · 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육거리 선거사무소를 찾은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의 대화에서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장단은 박승호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포항어린이타운 개관, 친환경급식 제공, 교사처우개선비 상향조정 및 명절 수당 지급, 보육인 행사 적극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환경을 조성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회장단은 "박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때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친환경급식 제공 등 포항의 보육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인규 기자

<대경일보> 2016년 1월 14일자 3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11
언 론 사	**종합일보 주식회사(경인종합일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29 우성빌딩 402호 대표이사 신현각
심의대상기사	경인종합일보 2015년 12월 15일자 3면 「前 남양주시의원 남혜경, 국회의원 출마선언」, 2015년 12월 28일자 3면 「남혜경 예비후보 독특한 선거운동 화제」, 2016년 1월 12일자 2면 「"행복한 남양주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2016년 1월 26일자 2면 「이제는 배우자의 외조를 보여줄 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남혜경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게재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前남양주시의원 남혜경, 국회의원 출마선언

남혜경(정치학박사) 前남양주시의원이 14일 남양주시청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남 前의원은 "남양주시는 2020년 인구 100만의 슈퍼도시를 꿈꾸며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를 대표하던 유명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건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은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한 공적이 더 많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힘들게 쌓아올린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 상황은 어떠한 핑계로도 해명할 수 없다. 현재 시민들은 새로운 인물과 개혁적 인사의 발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수구 세력을 견제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총선 때마다 남양주는 야당의 텃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며, 국정안정과 새누리당 깃발로 남양주 국회의원을 교체해 주길 갈망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을 숙명으로 여기며 출마결심을 했다고 한다. 또한 남 前의원은 국가안전보장에 크게 이바지해 보국포장을 받은 예비역 대령의 아내로 국가방위와 군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육군참모총장의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제6대 남양주시의원으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 신념으로 정치개혁을 위해 거침없는 개혁성향 행보로 '왕따의원 남혜경'이라는 닉네임을 달았다. 보육개혁 기고문으로 A원장에게 민·형사로 1년 6개월 동안 피소됐지만 변호사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보육개혁과 엄마들이 살기 좋은 남양주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남 前의원은 "'왕따의원 남혜경'으로 고군분투하며 의정활동 임무완수 한 혁신적인 준비된 여성국회의원으로 반드시 새누리당 깃발을 꽂겠다. 혁신 정치전문가로서 민생안정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피고 보살피겠다"라고 했다.

또한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남양주시의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청와대, 국회, 경기도 등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매진해 기필코 성공을 시키겠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남양주시의 미래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맹활약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 前의원은 교육·보육 전문가답게 "보육으로 키우고 교육으로 완성하는 행복한 남양주시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세 딸의 엄마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들에게 우리 엄마들의 삶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고 싶은 꿈과 희망을 남양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큰 포부도 밝혔다.

前남양주시의원 남혜경, 국회의원 출마선언



남혜경(정치학박사)前남양주시의원이 14일 남양주시청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남 前의원은 "남양주시는 2020년 인구 100만의 슈퍼도시를 꿈꾸며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를 대표하던 유명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건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은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한 공적이 더 많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힘들게 쌓아올린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 상황은 어떠한 핑계로도 해명할 수 없다. 현재 시민들은 새로운 인물과 개혁적 인사의 발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수구 세력을 견제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총선 때마다 남양주는 야당의 텃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며, 국정안정과 새누리당 깃발로 남양주 국회의원을 교체해주길 갈망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을 숙명으로 여기며 출마결심을 했다고 한다. 또한 남 前의원은 국가안전보장에 크게 이바지해 보국포장을 받은 예비역 대령의 아내로 국가방위와 군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육군참모총장의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제6대 남양주시의원으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 신념으로 정치개혁을 위해 거침없는 개혁성향 행보로 '왕따의원 남혜경'이 라는 닉네임을 달았다. 보육개혁 기고문으로 A원장에게 민 · 형사로 1년6개월 동안 피소 됐지만 변호사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보육개혁과 엄마들이 살기 좋은 남양주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남 前의원은 "'왕따의원 남혜경'으로 고군분투하며 의정활동 임무완수 한 혁신적인 준비된 여성국회의원으로 반드시 새누리당 깃발을 꽂겠다. 혁신 정치전문가로서 민생안정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피고 보살피겠다."라고 했다.

또한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남양주시의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청와대, 국회, 경기도 등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매진해 기필코 성공을 시키겠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남양주시의 미래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맹활약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 前의원은 교육 · 보육 전문가답게 "보육으로 키우고 교육으로 완성하는 행복한 남양주시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세 딸의 엄마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들에게 우리 엄마들의 삶 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꿈과 희망을 남양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큰 포부도 밝혔다.

이진호 기자/jonghapnews.com

<경인종합일보> 2015년 12월 15일자 3면

남혜경 예비후보 독특한 선거운동 화제

제6대 남양주시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왕따의원'으로 친숙한 남혜경 새누리당 남양주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생행보를 시작으로 독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혜경 예비후보는 아직 선거구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15일에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16일에는 선거구 사무실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는 평내호평역에 산타복장으로 나타나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하루되라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또한 비가 내리는 화도 장터에서도 비를 맞으면서도 상인들과 시민들을 반갑게 만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남혜경 예비후보는 자신의 명함을 돌리기보다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생기발랄한 미소로 인사하고 시민들의 말에 경청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남혜경 예비후보자는 동분서주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활동지역에서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도읍 5일장터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남혜경 국회의원 예비후보!

남혜경 예비후보 독특한 선거운동 화제

제6대 남양주시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왕따의원'으로 친숙한 남혜경 새누리당 남양주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생행보를 시작으로 독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혜경 예비후보는 아직 선거구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15일에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16일에는 선거구 사무실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17일부터는 평내호평역에 산타복장으로 나타나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하루되라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또한 비가 내리는 화도 장터에서도 비를 맞으면서도 상인들과 시민들을 반갑게 만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남혜경 예비후보는 자신의 명함을 돌리기 보다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생기발랄한 미소로 인사하고 시민들의 말에 경청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남혜경 예비후보자는 동분서주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활동지역에서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호 기자/jonghapnews.com

<경인종합일보> 2015년 12월 28일자 3면

"행복한 남양주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남양주 새누리당 남혜경(정치학박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남양주시의원 당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왕따의원'으로 남양주시민들에게 친숙해서인지 친서민 민생행보에 주력하면서 시민들과 정감있는 미소로 만나고 있다. 예비역대령인 군인의 아내답게 태극기를 부착한 톡톡 튀는 모습으로 선거운동 지역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100만 슈퍼도시를 꿈꾸는 남양주시에 2016년 희망찬 새해에도 남혜경 예비후보는 민생현장을 동분서주하며 남양주시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고 한다.

남혜경 예비후보는 "평내호평역에서 매서운 강추위에도 바쁘게 출근하는 남양주시민들께 아침 출근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작년 12월 17일부터 출근인사를 하다 보니 용산방면 ITX-청춘열차의 배차 간격이 평일 아침 7시 출근시간 대에는 2번만 있어서 급하게 정신없이 뛰어오는 시민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어느덧 먼저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를 위해 경춘선 용산 연장운행 사업과 출퇴근 시간의 배차 확대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첫

번째 소망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소망은 "남양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형종합병원 유치 및 건립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시의 중증환자들은 의료혜택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서울 또는 타도시의 대형종합병원을 전전하면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대형종합병원 유치 및 건립은 의료혜택 사각지대라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남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남양주시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 남양주시 백봉지구(호평동 산 37-1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대형종합병원이 유치 및 건립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혜경 예비후보는 서민들을 위해서 할 말을 하는 '왕따의원 남혜경'이 되겠다면서 행복한 남양주시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

남혜경(새누리당·남양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행복한 남양주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남양주 새누리당 남혜경(정치학박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남양주시의원 당시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왕따의원'으로 남양주시민들에게 친숙해서인지 친서민 민생행보에 주력하면서 시민들과 정감있는 미소로 만나고 있다. 예비역대령인 군인의 아내답게 태극기를 부착한 톡톡 튀는 모습으로 선거운동 지역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100만 슈퍼도시를 꿈꾸는 남양주시에 2016년 희망찬 새해에도 남혜경 예비후보는 민생현장을 동분서주하며 남양주시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고 한다.

남혜경 예비후보는 "평내호평역에서 매서운 강추위에도 바쁘게 출근하는 남양주시민들께 아침 출근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작년 12월17일부터 출근인사를 하다 보니 용산방면 ITX-청춘열차의 배차 간격이 평일 아침 7시 출근시간 대에는 2번만 있어서 급하게 정신없이 뛰어오는 시민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어느덧 먼저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를위해 경춘선 용산연장운행 사업과 출퇴근 시간의 배차 확대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첫 번째 소망이라고 남예비후보는 말했다." 두 번째 소망은 "남양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형종합병원 유치 및 건립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시의 중증환자들은 의료혜택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서울 또



는 타도시의 대형종합병원을 전전하면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대형종합병원 유치 및 건립은 의료혜택 사각지대라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남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남양주시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 남양주시 백봉지구(호평동 산 37-1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대형종합병원이 유치 및 건립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혜경 예비후보는 서민들을 위해서 할 말을 하는 '왕따의원 남혜경'이 되겠다면서 행복한 남양주시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진호 기자 /jonghapnews.com

<경인종합일보> 2016년 1월 12일자 2면

'이제는 배우자의 외조를 보여줄 때'

남양주시는 선거구 공백 사태와 분구 예상지역으로 더욱 오리무중이다. 야당성향이 강한 평내동과 호평동을 기반으로 남혜경(정치학박사) 새누리당 남양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한파경보가 발령된 혹한 추위에도 가족들과 함께 친서민 민생행보에 매진하고 있다.

남혜경 예비후보의 큰 딸 민정빈(24세)은 "남양주시의원 당시 '왕따의원'이 될 정도로 소신과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엄마가 남양주를 위해 발로 뛰고 많은 정책들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이 커졌다. 행복한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엄마에게 당연히 하려고 한다. 성경에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구절처럼 평범한 가족의 작은 움직임이 남양주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매일 엄마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빈 양은 남양주시 대학생 모임 플래너즈에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으로 독거노인 무료급식 등에서 엄마를 따라 불철주야 묵묵히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다. 남혜경 예비후보는 작년 12월 17일부터 딸들과 함께 평내호평역에서 아침 7시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남혜경 예비후보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올 겨울 최강 한파로 체감온도는 더 추웠지만 엄마를 도와준다면서 새벽부터 함께 나오는 딸들 때문에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관이 투철한 예비역대령의 아내로 태극기를 달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남혜경 예비후보의 남편은 조상대대로 남양주에 살고 있으며 30년간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안전보장에 크게 이바지하여 보국포장을 받았다. 또한 남혜경 예비후보는 내조를 훌륭히 하여 국가방위와 군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육군참모총장의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일반적으로 선거 때면 배우자의 내조(內助)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남편 예비역 대령 민운기는 "이제는 배우자의 외조(外助)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하면서 선거사무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77

남혜경(새누리당·남양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제는 배우자의 외조를 보여줄 때'

남양주시는 선거구 공백 사태와 분구 예상지역으로 더욱 오리무중이다. 야당성향이 강한 평내동과 호평동을 기반으로 남혜경(정치학박사) 새누리당 남양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한파경보가 발령된 혹한 추위에도 가족들과 함께 친서민 민생행보에 매진하고 있다.

남혜경 예비후보의 큰 딸 민정빈(24세)은 "남양주시의원 당시 '왕따의원'이 될 정도로 소신과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엄마가 남양주를 위해 발로 뛰고 많은 정책들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이 커졌다. 행복한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엄마에게 당연히 하려고 한다. 성경에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구절처럼 평범한 가족의 작은 움직임이 남양주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매일 엄마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빈양은 남양주시 대학생 모임 플래너즈에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으로 독거노인 무료급식 등에서 엄마를 따라 불철주야 묵묵히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다. 남혜경 예비후보는 작년 12월17일부터 딸들과 함께 평내호평역에서 아침 7시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남혜경 예비후보는 영하2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올 겨울 최강 한파로 체감온도는 더 추웠지만 엄마를 도와준다면서 새벽부터 함께 나오는 딸들 때문에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관이 투철한 예비역대령의 아내로 태극기를 달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남혜경 예비후보의 남편은 조상대대로 남양주에 살고 있으며 30년간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안전보장에 크게 이바지하여 보국포장을 받았다. 또한 남혜경 예비후보는 내조를 훌륭히 하여 국가방위와 군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육군참모총장의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일반적으로 선거 때면 배우자의 내조(內助)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남편 예비역 대령 민운기는 "이제는 배우자의 외조(外助)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하면서 선거사무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이진호 기자 /jonghapnews.com

<경인종합일보 > 2016년 1월 26일자 2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13
언 론 사	**주식회사 일간경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A-510(청천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발행인 김상옥
심의대상기사	일간경기 2015년 12월 16일 13면 「안산시민 염원 담아 발걸음 내딛어」, 2015년 12월 30일자 13면 「"역사문제 일관된 원칙…" 지속 바란다」, 2016년 1월 5일자 13면 「박순자 예비후보, "안산, 새로운 도약 필요…"」, 2016년 1월 8일자 3면 「"10년 앞서가는 안산을 만들겠다"」, 2016년 1월 15일 13면 「박순자 예비후보 "신안산선 2017년 착공 불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박순자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산시민 염원 담아 발걸음 내딛어

박순자 예비후보, 선거운동 시작

박순자 예비후보(안산 단원을)는 안산시민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15일 오전 9시 안산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첫 번째로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순자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난 4년 안산시는 날로 어려워져가는 경제 여건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안산시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순자 예비후보는 "안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신인으로는 안 된다"면서, 지난 17~18대 국정활동을 통해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순자 예비후보는 제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새누리당 최고의원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새누리당 당원들로부터 정치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18대 국회에서 안산지역 유일의 공약 이행율 100%를 달성했다. 안산시민을 위한 예산 또한 7조 5천여 억을 가져와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박순자 예비후보는 "지난 4년 추가 예산은커녕 본인이 가져온 예산마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해 안산시와 안산시민이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 안산시 발전과 안산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가져올 능력을 가진 후보는 본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산시민 염원 담아 발걸음 내딛어

박순자 예비후보, 선거운동 시작



박순자 예비후보(새누리당 안산단원을)가 안산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박순자 예비후보(안산 단원을)는 안산시민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지난 15일 오전 9시 안산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첫 번째로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순자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난 4년 안산시는 날로 어려워져가는 경제 여건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안산시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예비후보는 "안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신인으로는 안 된다."면서, 지난 17~18대 국정활동을 통해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 예비후보는 제 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새누리당 최고의원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새누리당 당원들로부터 정치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18대 국회에서 안산지역 유일의 공약 이행율 100%를 달성했다.

안산시민을 위한 예산 또한 7조 5천여 억을 가져와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4년 추가 예산은 커녕 본인이 가져온 예산마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해 안산시와 안산시민이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 안산시 발전과 안산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가져올 능력을 가진 후보는 본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kdy@1gan.co.kr

<일간경기> 2015년 12월 16일자 13면

"역사문제 일관된 원칙…" 지속 바란다

박순자 예비후보, 아베 총리 사과 아쉬워…

박순자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베 총리의 위반부 관련

"역사문제 일관된 원칙…"지속 바란다

박순자 예비후보, 아베 총리 사과 아쉬워…



박순자 국회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해 격려하고 있다.

박순자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베 총리의 위반부 관련 사과에 대한 느낌을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순자 후보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공식사과가 있었던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수요집회는 1992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1,210회차까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의 집회가 종료되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타협이 이뤄졌으나, 법적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담고 있다.

이어 박순자 후보는 "아쉽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나 위안부 문제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전환점이 되길. 그리고 역사문제에 있어 단호하고 일관된 원칙, 당당한 입장이 계속 지켜지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dy@1gan.co.kr

<일간경기> 2015년 12월 30일자 13면

사과에 대한 느낌을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순자 후보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공식사과가 있었던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수요집회는 1992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1210회차까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의 집회가 종료되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타협이 이뤄졌으나, 법적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담고 있다.

이어 박순자 후보는 "아쉽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나 위안부 문제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전환점이 되길, 그리고 역사문제에 있어 단호하고 일관된 원칙, 당당한 입장이 계속 지켜지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박순자 예비후보, "안산, 새로운 도약 필요…"

광덕산 해돋이로 2016년 희망 발걸음 시작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안산경제의 희망을 도모하기 위한 박순자 예비후보(새누리당 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의 2016년 첫 발걸음은 광덕산 해돋이로부터 시작된다.

박순자 예비후보는 안산의 정기를 품은 광덕산 정상에서 새누리당 단원을 당원협의회 당원 등 300여 명과 함께 2016년을 안산경제의 부활을 통한 안산시민의 희망이 이뤄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현재 안산시는 반월 시화스마트허브는 주력사업인 전자, 자동차사업의 퇴조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인근 도시의 낮은 아파트 가격 또한 안산시 재건축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활성화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안산시와 제종길 안산시장의 무분별한 90블



박순자 예비후보, "안산, 새로운 도약 필요…"

광덕산 해돋이 2016년 희망 발걸음 시작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안산경제의 희망을 도모하기 위한 박순자 예비후보(새누리당 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의 2016년 첫 발걸음은 광덕산 해돋이로부터 시작된다.

박순자 예비후보는 안산의 정기를 품은 광덕산 정상에서 새누리당 단원을 당원협의회 당원 등 300여 명과 함께 2016년을 안산경제의 부활을 통한 안산시민의 희망이 이뤄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현재 안산시는 반월 · 시화스마트허브는 주력사업인 전자, 자동차사업의 퇴조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인근 도시의 낮은 아파트 가격 또한 안산시 재건축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활성화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안산시와 제종길 안산시장의 무분별한 90블럭 6,600세대 대규모 아파트 건축 추진은 안산시 재건축조합의 파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함께 광덕산 해돋이에 참여한 새누리당 당원 및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보듯이 일 잘하고 힘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역 챙기기가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에서도 믿음직한 힘 있는 국회의원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박순자 후보는 "재선 의원으로 새누리당 최고의원을 역임한 본인이 3선으로 다시 국회에 입성해야만 안산

을 박순자 예비후보

박순자 예비후보와 새누리당 단원을 당원협의회 당원 등 300여 명이 광덕산 해돋이를 보며 새해를 맞이했다.

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며,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순자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우학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함께하며, "대부도는 안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현재 안산은 새로운 도약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당시 시민들과의 공약 이행율 100%로 '일 잘하는 능력 있는 박순자'라는 애칭을 얻는 바 있는 박순자 예비후보의 '섬김의 정치, 희망의 정치'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김대영 기자 kdy@1gan.co.kr

<일간경기> 2016년 1월 5일자 13면

럭 6,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 추진은 안산시 재건축조합의 파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함께 광덕산 해돋이에 참여한 새누리당 당원 및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보듯이 일 잘하고 힘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역 챙기기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에서도 믿음직한 힘 있는 국회의원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박순자 후보는 "재선 의원으로 새누리당 최고의원을 역임한 본인이 3선으로 다시 국회에 입성해야만 안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며,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순자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우학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함께하며, "대부도는 안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현재 안산은 새로운 도약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당시 시민들과의 공약 이행율 100%로 '일 잘하는 능력 있는 박순자'라는 애칭을 얻은 바 있는 박순자 예비후보의 '섬김의 정치, 희망의 정치'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10년 앞서가는 안산을 만들겠다"

박순자, 새누리·안산 단원을

제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순자(한양대 특임교수)〈사진〉 새누리당 안산 단원을당협위원장은 지난 6일 오후 3시 단원구 소재 예비후보사무실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금 안산은 존재감 없는 야당 국회의원이 이끄는 4년 동안 경제규모도, 인구도, 브랜드도 위축되었고 현역 의원이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신안산선 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멈춘 안산을 다시 뛰게 하는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자신이 안산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힘있는 여당의 3선 국회의원이 되어 10년 앞서가는 안산을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재선시절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예산 약 7조 5천억 원을 끌어와 공단도시 안산을 '첨단산업도시',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바꾸는 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4·13 총선 D-9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10년 앞서가는 안산을 만들겠다"

박순자, 새누리·안산단원(을)

제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순자(한양대 특임교수)〈사진〉 새누리당 안산 단원을당협위원장은 지난 6일 오후 3시 단원구 소재 예비후보사무실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금 안산은 존재감 없는 야당 국회의원이 이끄는 4년 동안 경제규모도, 인구도, 브랜드도 위축되었고 현역 의원이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신안산선 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멈춘 안산을 다시 뛰게 하는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자신이 안산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힘있는 여당의 3선 국회의원이 되어 10년 앞서가는 안산을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재선시절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예산 약 7조 5천억 원을 끌어와 공단도시 안산을 '첨단산업도시',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바꾸는 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김대영 기자
kdy@1gan.co.kr

<일간경기> 2016년 1월 8일자 3면

박순자 예비후보, “신안산선 2017년 착공 불안”

안산시 무능력함에 사업이 ‘지지부진’ 상태

박순자 예비후보〈사진〉(새누리당. 안산단원을)는 “본인이 17~18대 의원시절 안산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다한 사업으로, 이미 공사 중이어야 할 사업이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어, 박순자 후보는 “하지만, 지난 4년 신안산선의 중심이었던 본인이 없는 사이, 인근 지자체의 노선변경을 위한 총력전과 안산의 무능력함이 더해져 계속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안산선의 노선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흥시에 밀려 난항을 겪다 광명역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신안산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으며, 개통 또한 불투명해졌다는 것.

박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8년 당시, 안산 중앙역과 서울 여의도역을 잇는 신안산선 1단계 구간 사업비 1,000억 원 가운데 600억 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미리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안양시가 석수동 통과구간 우회 등을 정부에 본격적으로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양시는 신안산선 노선이 서울과 안양 경계에 있는 경부선(1호선) 석수역과 교차 환승하면서 안양시 석수2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연현마을 일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돼 있어, 아파트지역 우회와 환승편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중이라고 박 후보측은 밝혔다.

지난 시흥시 경우처럼 논란이 커질 경우 신안산선 착공은 또 다시 미궁 속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

박 후보는 “신안산선과 중앙역 역세권을 개발하면 1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등 수조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생긴다. 특히, 중앙역이 수도권 광역전철의 중심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박순자 예비후보 “신안산선 2017년 착공 불안”

안산시 무능력함에 사업 ‘지지부진’ 상태

박순자 예비후보〈사진〉(새누리당. 안산단원을)는 “본인이 17~18대 의원시절 안산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다한 사업으로, 이미 공사 중이어야 할 사업이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하지만, 지난 4년 신안산선의 중심이었던 본인이 없는 사이, 인근 지자체의 노선변경을 위한 총력전과 안산의 무능력함이 더해져 계속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안산선의 노선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흥시에 밀려 난항을 겪다 광명역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신안산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으며, 개통 또한 불투명해졌다는 것.

박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8년 당시, 안산 중앙역과 서울 여의도역을 잇는 신안산선 1단계 구간 사업비 1,000억 원 가운데 600억 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미리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안양시가 석수동 통과구간 우회 등을 정부에 본격적으로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양시는 신안산선 노선이 서울과 안양 경계에 있는 경부선(1호선) 석수역과 교차 환승하면서 안양시 석수2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연현마을 일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돼 있어, 아파트지역 우회와 환승편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중이라고 박 후보측은 밝혔다.

박 후보는 “신안산선과 중앙역 역세권을 개발하면 1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등 수조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생긴다. 특히, 중앙역이 수도권 광역전철의 중심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희삼 기자 khs@1gan.co.kr

<일간경기> 2016년 1월 15일자 13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14
언 론 사	**일간대구신문 주식회사(대구신문)** 대구 동구 동부로 94(신천 3동 283-8) 대표이사 김상섭
심의대상기사	대구신문 2015년 12월 21일자 3면 「이재만 "동구 보살필 봉사자 될 것"」, 2016년 1월 20일자 4면 「동구을 이재만 '소음 피해보상' 최우선 공약」, 2016년 1월 21일자 4면 「청년 일자리 활성화 토론회」, 2016년 1월 22일자 4면 「"동촌유원지 일대 옛도로, 특화거리로 조성"」, 2016년 1월 25일자 4면 「동구을 이재만, 어린이집 일일교사 활동」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이재만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재만 "동구 보살필 봉사자 될 것"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이재만 예비후보가 19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 김철기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 강신성일 전 의원,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 대표적인 친박 의원들과 전·현직 기관단체장, 학계·정계·재계인사·지지자 등 2천여명이 몰렸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을 제치고 여론조사 1위, 전체 2위의 선전을 해 대구 선거사(史)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기세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의 친대구 지역일꾼, 진짜 친박 여부의 두 가지



이재만 "동구 보살필 봉사자될 것"

새누리당 대구 동구 을 이재만 예비후보가 19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 김철기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 강신성일 전 의원,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 대표적인 친박 의원들과 전·현직 기관단체장, 학계·정계·재계인사·지지자 등 2천여명이 몰렸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을 제치고 여론조사 1위, 전체 2위의 선전을 해 대구 선거사(史)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기세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의 친대구 지역일꾼, 진짜 친박 여부의 두 가지 논란은 이날 개소식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출마선언 당시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겠다며 유승민 의원과 정면대결을 예고했던 이 후보자는 동구의 숙원사업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K2이전의 강력한 추진, 창조경제를 통한 동구의 新미래 조성, SOC 지역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35가지의 대표공약을 내걸고 "동구 구민의 삶을 보살필 봉사자로써 동구와 대구의 미래를 열어갈 진실한 일꾼이 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또 "의리와 뚝심, 동구와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대구신문> 2015년 12월 21일자 3면

논란은 이날 개소식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출마선언 당시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겠다며 유승민 의원과 정면대결을 예고했던 이 후보자는 동구의 숙원사업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K2이전의 강력한 추진, 창조경제를 통한 동구의 新미래 조성, SOC 지역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35가지의 대표공약을 내걸고 "동구 구민의 삶을 보살필 봉사자로써 동구와 대구의 미래를 열어갈 진실한 일꾼이 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또 "의리와 뚝심, 동구와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동구을 이재만 '소음 피해보상' 최우선 공약

국가차원 보상 지급안 마련… K-2 이전 강력추진도

이재만(사진)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대표공약을 공개하면서 구청장 8년을 거치며 '동구를 가장 잘 아는 준비된 지역일꾼'이라는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7가지의 주제로 총 36가지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전투기소음피해보상과 관련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K-2 이전의 강력한 추진을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K-2 이전에 앞서 민간항공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따라 변호사를 통한 소송으로만 가능한 불평등한 소음피해 보상체계에 대해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소음피해보상 문제를 동구을 지역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공평한 기준에 근거한 국가차원의 피해보상 지급방안 마련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K-2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독소조항인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에 대해 실제 이전 가능한 내용을 필두로 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K-2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심연료단지 폐쇄 후 후적지 개발과 관련



동구을 이재만 '소음 피해보상' 최우선 공약

국가차원 보상 지급안 마련…K-2 이전 강력추진도

이재만(사진)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대구 동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대표공약을 공개하면서 구청장 8년을 거치며 '동구를 가장 잘 아는 준비된 지역일꾼'이라는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7가지의 주제로 총 36가지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전투기소음피해보상과 관련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K-2이전의 강력한 추진을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K-2 이전에 앞서 민간항공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따라 변호사를 통한 소송으로만 가능한 불평등한 소음피해 보상체계에 대해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소음피해보상 문제를 동구을 지역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공평한 기준에 근거한 국가차원의 피해보상 지급방안 마련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K-2이전과 관련해서는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독소조항인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에 대해 실제 이전 가능한 내용을 필두로 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K-2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심연료단지 폐쇄 후 후적지 개발과 관련 '연료여사바물관 건립', '초등학교 신설' 등의 내용이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주거지와 상가 중심으로만 짜여있는 후적지 개발계획 수정을 통해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등 신도시 내 복합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하겠다"며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한다면 지역에 사람과 돈이 모이고, 경기는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대구신문> 2016년 1월 20일자 4면

'연료역사박물관 건립', '초등학교 신설' 등의 내용이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주거지와 상가 중심으로만 짜여있는 후적지 개발계획 수정을 통해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등 신도시 내 복합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하겠다"며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한다면 지역에 사람과 돈이 모이고, 경기는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활성화 토론회

동구을 이재만 후보

이재만(사진) 제20대 총선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2030세대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오랫동안 대구의 청년 고용율과 월급수준, 소득증가율 등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청년세대들의 지역 이탈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재만 예비후보가 CEO 출신의 경영인 입장, 구청장출신의 전문 행정가 입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준비하는 정치인 입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으며 2030세대의 고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토론회에서 '대구에서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타지역으로 가야만 하느냐', '지역발전의 미래희망과 대구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나' 등과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기업이 유치되면 괜찮아 지는지',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복지와 취업문제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등 20~30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안인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하고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이재만 예비후보는 "지역 청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활성화 토론회

동구을 이재만 후보

이재만(사진) 제20대 총선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2030세대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오랫동안 대구의 청년 고용율과 월급수준, 소득증가율 등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청년세대들의 지역 이탈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재만 예비후보가 CEO 출신의 경영인 입장, 구청장출신의 전문 행정가 입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준비하는 정치인 입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으며 2030세대의 고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토론회에서 '대구에서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타지역으로 가야만 하느냐', '지역발전의 미래희망과 대구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나' 등과 '대구



시가 추진하는 대기업이유치되면 괜찮아 지는지',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복지와취업문제의 어려움은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등 20~30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안인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하고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이재만 예비후보는 "지역 청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대구신문> 2016년 1월 21일자 4면

“동촌유원지 일대 옛도로, 특화거리로 조성”

동구을 이재만 예비후보

이재만(사진)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대구 동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역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선거구 권역별(동구 라 선거구인 동촌동·방촌동·지저동) 맞춤공약을 제시했다.

동구 주민이자 구청장으로 함께 살아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일꾼’을 강점으로 내세운 이재만 예비후보의 권역별 주요공약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 공약을 모아서 볼 수 있어서 한눈에 쏙 들어온다”, “동구에 안 살면 모르는 것들인데,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안다”는 반응이다.

동구을 지역의 4개 선거구 중 ‘라 선거구’인 동촌동·방촌동·지저동에 맞춤 공약에는 대표적으로 군용전투기 소음에 따른 불평등한 피해보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시작으로 한때 대구의 대표관광지로 손꼽히던 동촌유원지 일대 구도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동촌 구도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저동 아양기찻길에서 출발해 동촌동 구도로 일대가 문화관광 특화거리로 조성될 계획이다.



“동촌유원지 일대 옛도로, 특화거리로 조성”

동구을 이재만 예비후보

이재만(사진)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대구 동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역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선거구 권역별(동구 라 선거구인 동촌동·방촌동·지저동) 맞춤공약을 제시했다.

동구 주민이자 구청장으로 함께 살아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일꾼'을 강점으로 내세운 이재만 예비후보의 권역별 주요공약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 공약을 모아서 볼 수 있어서 한눈에 쏙 들어온다", "동구에 안 살면 모르는 것들인데,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안다"는 반응이다.

동구을 지역의 4개 선거구 중 '라 선거구'인 동촌동·방촌동·지저동에 맞춤 공약에는 대표적으로 군용전투기 소음에 따른 불평등한 피해보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시작으로 한때 대구의 대표관광지로 손꼽히던 동촌유원지 일대 구도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동촌 구도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저동 아양기찻길에서 출발해 동촌동 구도로 일대가 문화관광 특화거리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주오기자 km-yns@kdaegu.co.kr

<대구신문> 2016년 1월 22일자 4면

동구을 이재만, 어린이집 일일교사 활동

이재만(사진)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이 발표한 공약에 따른 행보를 보이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준비된 일꾼’의 이미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복지공동체-지역과 함께 살아간다’는 주제 아래 세부 공약인 ‘보육복지사업 지원’을 내걸고 지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접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일일교사로 참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보육관계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보육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했다.

‘왔데이 이재만’ 프로젝트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공약 중심의 행보들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생활을 통한 고민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일꾼’이라는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비춰지고 있다.



동구을 이재만, 어린이집 일일교사 활동

이재만(사진)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대구 동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이 발표한 공약에 따른 행보를 보이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준비된 일꾼'의 이미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복지공동체-지역과 함께 살아간다'는 주제 아래 세부 공약인 '보육복지사업 지원'을 내걸고 지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접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일일교사로 참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보육관계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보육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했다.

'왔데이 이재만' 프로젝트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공약 중심의 행보들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생활을 통한 고민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일꾼'이라는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비춰지고 있다.

김주오기자 km-yns@kdaegu.co.kr

<대구신문> 2016년 1월 25일자 4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15
언 론 사	**주식회사 포천신문사** 경기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326번길 28(구읍리 505-1) 민헌빌딩 대표이사 이중희
심의대상기사	포천신문 2016년 1월 1일자 6면 「김영우 의원은 사퇴하라」, 2016년 1월 10일자 6면 「지역 국회의원의 욕망과 반성」, 2016년 1월 20일자 6면 「포천에는 전철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및 「전철 7호선… 양주서 포천까지 연장할 수 있나?」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국회의원 김영우에 대해 비판적 내용이 담긴 칼럼을 연속적으로 게재하여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영우 의원은 사퇴하라

우리 포천은 이제 끝도 없는 나락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우리 포천, 우리가 사랑하는 포천에 대한 김영우 의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요약해 보자.

김영우 의원의 실책

① 신북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② 군내면 용정리에 건설 중인 용정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③ 영평사격장 건 해결 능력 상실

④ 주변 타 시, 군에 비해 포천의 상대적 낙후성에 대한 무정책, 무대책, 무비전

⑤ 포천 사회의 도덕적 타락 문제에 대한 책임

⑥ 서장원시장에 대한 공동책임회피

① 신북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 문제

김영우 의원의 가장 큰 실책 중 첫째는 신북 석탄발전소 건설을 유치한 문제이다.

석탄발전소가 건설 되고나면 앞으로 최소 30년~50년까지는 석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천 주민들이 자자손손 피해를 보게 된다. 건강을 조금 해치는 정도면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나만 후세들 중에서 기형아가 많이 나온다면 이를 어떻게 하며, 폐암환자가 많이 나오면 이를 어떻게 하나? 그 공해 찌꺼기가 농산물, 원예, 채소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포천 주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그 농산물은 누가 사가겠나?

타 지역에서 사다먹어야 하나? 이것은 못난 국회의

원 한사람으로 인해 16만 주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지하라. 못 하겠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640억 원 빚보증까지 해줘가면서 하지 말라. 할 수 없다면 석탄발전소 측과 결탁 관계의심을 피할 수 없다.

② 군내면 용정리에 건설 중인 용정산업단지 유치 문제

지형적으로 용정산업단지는 포천의 알짜배기 미래의 시가지가 될 장소이지 산업단지로 개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이다. 평야인데다 정사각형에 가까워 신시가지 개발에 최적이다. 또한 현 포천시내와 근접해 있고 소흘읍과도 불과 직선거리로는 인근지역이다. 이런 요충지에 변두리에 만들어도 될 산업단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안 팔리고 있는데도 억지로 무리해서 1,800억 원이나 빚보증까지 해줘가면서 분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북 석탄발전소와 용정산업단지 양쪽에서 나오는 공해 물질의 공격을 받을 텐데 왕방산으로 가야 하나? 아니 수원산 꼭대기로 이주를 해야 되나?

선견지명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까지 두지는 않을 것이다.

책임지고 중지시켜라. 할 능력이 없으면 즉각 사퇴하라.

빚보증까지 해줘가면서 추진하지 말라. 할 수 없다면 건설사측과 모종의 결탁관계가 있을 가능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북 석탄발전소와 용정산업단지 양쪽에서 나오는 공해 물질의 공격을 받을 텐데 왕방산으로 가야 하나? 아니 수원산 꼭대기로 이주를 해야 되나? 선견지명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까지 두지는 않을 것이다."

③ 영평사격장 건 해결 능력 상실 문제

지난 8월인가 새누리당 정책위 원유철(현 원내대표) 의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각 해당 부처 국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줌마투어" 1호로 포천 영평사격장 문제 해결차원에서, 영중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고, 김영우의원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마치 즉시 해결 할 것 같이 큰 소리를 쳤다. "태산명동서일필" "태산을 울리는 큰소리 뒤에 나오는 것은 생쥐새끼 한 마리"였다.

우리 포천주민들은 또 속았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보고서 한 장 없다.

우리 포천 주민을 무엇으로 아나. 천진 순진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 재미있나?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지난 8년간 해 놓은 일이 무엇이 있나?

④ 주변 타 시, 군에 비해 포천의 상대적 낙후성에 대한 무정책, 무대책

10년 전 만해도 우리 포천과 상황이 비슷하여 어려워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지 하고 옆 시, 군과 힐끗힐끗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자위했었다.

그러더니 10년이 지난 지금 파주시는 일약 대도시로 탈바꿈하고 인구는 매년 대폭 늘어나 우리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들에게는 황진하의원(육군 중장 출신/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서 파주는 급성장을 맞게 된다. 모든 형식적인 허례허식을 벗어버리고 밀어붙인 결과는 찬란하다 못해 빛이 나고 있다.

철원은 어떤가? 과거에는 철원시민들의 희망은 철원에서 살만하면 포천이나 의정부 또는 더 크게 서울로 이사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년 동안

특별기고

김영우 의원은 사퇴하라



이 각 모
남북접경지역
경제개발협의회장

우리 포천은 이제 끝도 없는 나락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우리포천, 우리가 사랑하는 포천에 대한 김영우의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요약해 보자.

김영우의원의 실책

① 신북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② 군내면 용정리에 건설 중인 용정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③ 영평사격장 건 해결 능력 상실

④ 주변 타 시,군에 비해 포천의 상대적 낙후성에 대한 무정책, 무대책, 무비전

⑤ 포천 사회의 도덕적 타락 문제에 대한 책임

⑥ 서장원시장에 대한 공동책임회피

① 신북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 문제

김영우의원의 가장 큰 실책 중 첫째는 신북 석탄발전소 건설을 유치한 문제이다.

석탄발전소가 건설 되고나면 앞으로 최소 30년~50년까지는 석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천 주민들이 자자손손 피해를 보게 된다. 건강을 조금 해치는 정도면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냐만 후세들 중에서 기형아가 많이 나온다면 이를 어떻게 하며, 폐암환자가 많이 나오면 이를 어떻게 하나? 그 공해 찌꺼기가 농산물, 원예, 채소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포천 주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그 농산물은 누가 사가겠나?

타 지역에서 사다먹어야 하나? 이것은 못난 국회의원 한사람으로 인해 16만 주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지하라. 못하겠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640억원 빚보증까지 해줘가면서 하지 말라. 할 수 없다면 석탄발전소 측과 결탁 관계의심을 피할 수 없다.

② 군내면 용정리에 건설 중인 용정산업단지 유치문제

지형적으로 용정산업단지는 포천의 알짜배기 미래의 시가지가 될 장소이지 산업단지로 개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이다. 평야인데다 정사각형에 가까워 신시가지 개발에 최적이다. 또한 현 포천시내와 근접해 있고 소흘읍과도 붙과 직선거리로는 인근지역이다. 이런 요충지에 변두리에 만들어도 될 산업단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안 팔리고 있는데도 억지로 우리해서 1,800억 원이나 빚보증까지 해줘가면서 분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북 석탄발전소와 용정산업단지 양쪽에서 나오는 공해 물질의 공격을 받을 텐데 왕방산으로 가야하나? 아니 수원산 꼭대기로 이주를 해야 되나?

선견지명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까지 두지는 않을 것이다.

책임지고 중지시켜라. 할 능력이 없으면 즉각 사퇴하라.

빚보증까지 해줘가면서 추진하지 말라. 할 수 없다면 건설사측과 모종의 결탁관계가 있을 가능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신북 석탄발전소와 용정산업단지 양쪽에서 나오는 공해 물질의 공격을 받을 텐데 왕방산으로 가야하나? 아니 수원산 꼭대기로 이주를 해야 되나? 선견지명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까지 두지는 않을 것이다."**

③ 영평사격장 건 해결 능력 상실 문제

지난 8월인가 새누리당 정책위 원유철(현 원내대표)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각 해당 부처 국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줌마투어"1호로 포천 영평사격장 문제 해결차원에서, 영중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고, 김영우의원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마치 즉시 해결 할 것같이 큰 소리를 쳤다. "태산명동서일필" "태산을 울리는 큰소리 뒤에 나오는 것은 생쥐새끼 한 마리" 였다.

우리 포천주민들은 또 속았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보고서 한 장 없다.

우리 포천 주민을 무엇으로 아나. 천진 순진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 재미있나?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지난 8년간 해 놓은 일이 무엇이 있나?

④ 주변 타 시,군에 비해 포천의 상대적 낙후성에 대한 무정책, 무대책

10년 전만해도 우리 포천과 상황이 비슷하여 어려워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지 하고 옆 시,군과 힐끗힐끗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자위했었다.

그러더니 10년이 지난 지금 파주시는 일약 대도시로 탈바꿈하고 인구는 매년 대폭 늘어나 우리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 들에게는 황진하의원(육군 중장출신/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서 파주는 급성장을 맞게 된다. 모든 형식적인 허례허식을 벗어버리고 밀어붙인 결과는 찬란하다 못해 빛이 나고 있다.

철원은 어떤가? 과거에는 철원시민들의 희망은 철원에서 살만하면 포천이나 의정부 또는 더 크게 서울로 이사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년 동안 한기호의원(육군중장 출신)을 선출하고서는 우리와 같이 고통 받는 사격장을 이전시키며 문제를 거뜬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철원사람들은 말한다. 공해도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포천에서 살지 말고 철원으로 이사 오라고....

이러한 실증사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⑤ 포천 사회의 도덕적 타락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은 것이 포천 사회문제이다.

도덕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큰 기침만 하시는 어른들은 왜 가만히들 계시는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포천주민들을 매우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결론 :

첫째. 지난 8년간 포천에 해놓은 실적이 없고

둘째.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고

셋째. 포천에 대한 열정이 없고

넷째. 포천주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김영우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남자답게 서 시장과 함께 용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포천신문> 2016년 1월 1일자 6면

한기호 의원(육군중장 출신)을 선출하고서는 우리와 같이 고통 받는 사격장을 이전시키며 문제를 거뜬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철원사람들은 말한다. 공해도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포천에서 살지 말고 철원으로 이사 오라고....

이러한 실증사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⑤ 포천 사회의 도덕적 타락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은 것이 포천 사회문제이다.

도덕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큰 기침만 하시는 어른들은 왜 가만히들 계시는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포천주민들을 매우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결론 :

첫째. 지난 8년간 포천에 해놓은 실적이 없고

둘째.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고

셋째. 포천에 대한 열정이 없고

넷째. 포천주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김영우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남자답게 서시장과 함께 용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지역 국회의원의 욕망과 반성

며칠 전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이각모 회장(사실은 사장인데)이 쓰고 있는 칼럼을 읽다가 문뜩 생각이 나서 "국회의원들의 책무가 무엇인가?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때만 되면 야단법석들인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유혹하는가?"라는 화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다는 것이다.

그분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지역 국회의원의 1차 본분은 지역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 그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 즉 입법 활동이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법은 있으나 적절치 않아서 또는 악법이므로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없어서 등의 이유로 모두에게 새로운 그리고 이로운 법을 입법해야 되는 것이다.

즉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널리 펴서 국민과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입법 활동에 대해 국민들은 어느 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나, 안 하였나를 기준으로 다음 선거에 마음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김영우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는 놀라웠다.

조사결과 지난 8년간 입법 활동은 한 건도 없었다.

단 하나 있던 것은 법안이 아닌 "2013년 12월 31일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김영우 의원 등 11인)"이었다. 이마저도 법안이 아니고 수정안이었다.

순간 나는 정신이 멍해졌다. 법안을 8년 동안 하나도 못 만들었다 – 이를 어쩌나 – 무어라 판단해야 되나 –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나?

국회의원이 1년간 쓰는 유지비용이 최소한 8억 원이라 한다. 재선 8년을 했으면 64억원을 쓰고도 법안 한건도 못 만들었다? 또 보좌관들은 무엇을 했나? 이건 헌정사에 남을 일이 아닌가? 초선, 재선의원도 입법활동을 왕성히 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타 지

역 의원들과 비교하면 머리가 아파온다. 이러고도 더 시켜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포천지역 주민들이 믿어주겠나?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첫째 : 국회의원 개인 능력부족과 자질부족은 아닌가?

둘째 : 지역에 대한 열정과 관심부족은 아닌가?

셋째 : 사회경험이나 경력이 없이 어린나이(43세) 때 쉽게 국회의원이 되다보니 상식부족, 인적네트워크 부족은 아닌가?

"지역에는 관심을 안 두다 보니 경제는 낙후되고 지역사회는 불안해졌고 하지 말아야 할 공해 공장은 끌어들이고, 무엇 하나 좋은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넷째 : 개인의 인간관계의 부족함은 아닌가?

다섯째 : 8년간 포천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핵심 권력만 따라 다니지 않았는지? 친이→친박→친이→친김→ 다음은 또 친 반기문→ ? → ? 은 아닌가?

여섯째 : 너무 잦은 해외 출장 탓은 아닌가?

이중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보면 독자들의 판단이 각기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섯째 거론한 너무 잦은 해외 출장을 살펴보자.

2014년 포천일고 총 동문회 망년회에서 축사를 하였는데 – "본인이 해외를 지난 6년간 55회 정도 나가보았는데 그 나라 공항에서 시내호텔로 들어가다 보면 그 나라의 발전상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년(72개월) 동안 55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면 재선 8년(96개월) 동안에는 73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96개월 동안에 73회 해외 출장이라면 96개월 동안에 16개월(511일=7일1회당×73회)을 해외에 머물며 국민 세금을 썼다는 결과이다.

1회에 평균 7일 정도 대사관, 외국정부, 외국국회 등을 방문하고 외교 통일분과위원회 일을 보았다고 해도 관광은 필수일 테고 향응접대는 기본이고 여기저기서 조그만 선물이나 어려운 의원 생활에 보태 쓰라고 용돈도 조금씩 준다고 하니 해외에 나가는 것이 대단히 즐거웠으리라 생각된다. 그중 삼분의 일만이라도 포천지역을 위해 힘썼다면 이다지 성적표가 초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에는 관심을 안 두다 보니 경제는 낙후되고 지역사회는 불안해졌고 하지 말아야 할 공해 공장은 끌어들이고, 무엇 하나 좋은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젊은 국회의원이라야 더 잘한다고 주장한단다. 그러면 우리 포천지역의 17대/18대/19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나이가 들어 못 했나? 너무 젊어서 못 했나? 아니다. 이제는 부족한 이는 자제해야 되고 갖춘 이는 나서야 된다. 그래야 우리 포천, 어려운 포천, 불쌍한 포천의 장래가 보일 테니까.

특별기고

지역 국회의원의 욕망과 반성



이 각 모
남북접경지역
경제개발협의회장

며칠 전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이각모 회장(사실은 사장인데)이 쓰고 있는 칼럼을 읽다가 문뜩 생각이 나서 "국회의원들의 책무가 무엇인가?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때만 되면 야단법석들인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유혹하는가…?"

라는 화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다는 것이다.

그 분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지역 국회의원의 1차 본분은 지역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 그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 즉 입법 활동이다. 그 동안 법이 없어서, 법은 있으나 적절치 않아서 또는 악법이므로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없어서 등의 이유로 모두에게 새로운 그리고 이로운 법을 입법해야 되는 것이다.

즉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널리 펴서 국민과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입법 활동에 대해 국민들은 어느 의원이 얼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나, 안하였나를 기준으로 다음 선거에 마음을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김영우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는 놀라웠다.

조사결과 지난 8년간 입법 활동은 한 건도 없었다.

단하나 있던 것은 법안이 아닌 "2013년 12월 31일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김영우의원 등 11인)"이었다. 이마저도 법안이 아니고 수정안이었다.

순간 나는 정신이 멍해졌다. 법안을 8년 동안 하나도 못 만들었다 - 이를 어쩌나 - 무어라 판단해야 되나 -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 그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나?

국회의원이 1년간 쓰는 유지비용이 최소한 8억 원이라 한다. 재선 8년을 했으면 64억원을 쓰고도 법안한건도 못 만들었다? 또 보좌관들은 무엇을 했나? 이건 현정사에 남을 일이 아닌가? 초선, 재선의원도 입법 활동을 왕성히 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타 지역 의원들과 비교하면 머리가 아파온다. 이러고도 더 시켜주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포천지역 주민들이 믿어주겠나?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첫째 : 국회의원 개인 능력부족과 자질부족은 아닌가?

둘째 : 지역에 대한 열정과 관심부족은 아닌가?

셋째 : 사회경험이나 경력이 없이 어린나이(43세) 때 쉽게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 상식부족, 인적네트워크 부족은 아닌가?

> **"지역에는 관심을 안두다 보니 경제는 낙후되고 지역사회는 불안해졌고 하지 말아야 할 공해 공장은 끌어드리고, 무엇하나 좋은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넷째 : 개인의 인간관계의 부족함은 아닌가?

다섯째 : 8년간 포천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핵심권력만 따라 다니지 않았는지? 친이→친박→친이→친김→ 다음은 또 친 반기문→ ? → ?은 아닌가?

여섯째 : 너무 잦은 해외 출장 탓은 아닌가?

이중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보면 독자들의 판단이 각기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섯째 거론한 너무 잦은 해외 출장을 살펴보자.

2014년 포천일고 총 동문회 망년회에서 축사를 하였는데 - "본인이 해외를 지난 6년간 55회 정도 나가 보았는데 그 나라 공항에서 시내호텔로 들어 가다보면 그 나라의 발전상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년(72개월)동안 55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면 재선 8년(96개월)동안에는 73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96개월 동안에 73회 해외 출장이라면 96개월 동안에 16개월(511일=7일 1회당×73회)을 해외에 머물며 국민 세금을 썼다는 결과이다.

1회에 평균 7일 정도 대사관, 외국정부, 외국국회 등을 방문하고 외교 통일 분과위원회 일을 보았다고 해도 관광은 필수 일 테고 향응접대는 기본이고 여기저기서 조그만 선물이나 어려운 의원생활에 보태 쓰라고 용돈도 조금씩 준다고 하니 해외에 나가는 것이, 대단히 즐거웠으리라 생각된다. 그 중 삼분의 일만이라도 포천지역을 위해 힘썼다면 이다지 성적표가 초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에는 관심을 안두다 보니 경제는 낙후되고 지역사회는 불안해졌고 하지 말아야 할 공해 공장은 끌어드리고, 무엇하나 좋은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젊은 국회의원이라야 더 잘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 포천지역의 17대/18대/19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나이가 들어 못했나? 너무 젊어서 못했나? 아니다. 이제는 부족한 이는 자제해야 되고 갖춘 이는 나서야 된다. 그래야 우리 포천, 어려운 포천, 불쌍한 포천의 장래가 보일테니까.

<포천신문> 2016년 1월 10일자 6면

포천에는 전철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창동 차량기지이전을 전제로 포천으로 이전하겠다던 지하철 4호선이, 남양주 진접읍으로 연장되는 기공식이 2014년 12월 10일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 지하철 노선은 지하철 4호선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진접읍까지 이어지는 14.8㎞의 신설 구간이다. 오는 2019년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이 철로가 들어서면 현재 진접에서 서울역까지의 2시간 20분에서 불과 50분대로 좁혀진다고 한다.

그동안 남양주 진접읍은 서울외곽택지지구지만, 서울과는 불암산 등 자연경계로 가로막혀 별개 생활권이었고, 당고개로 들어가는 길은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덕릉고개를 굽이굽이 돌아가는 왕복 2차선 산길이 전부여서, 겨울철 폭설이라도 내리면 도로가 차단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연장거리 14.8㎞인 지하철 진접선에 드는 비용은 총 1조3323억 원의 막대한 돈이 인구 9만6천 명의 진접읍 일대에 뿌려지고, 구간 대부분을 지하로 건설하게 되어 14.8㎞ 중 지상구간은 2.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접선 구간에 투입되는 전동차는 10량 1편성의 중(重)전철이다. 서울 여의도와 강남을 관통하는 지하철 9호선은 4량 1편성,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도 6량 1편성에 불과하다. 서울 도심 지하철은 콩나물시루인데 면과 읍을 통과하는 전동차가 10량 1편성으로 '쾌적하게' 달리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접읍은 포천과 별로 다른 바 없이 전철이나 지하철은 물론 철도노선도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역량을 발휘하여 상전벽해를 만들었으니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도 야당 소속의 의원이었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전철은커녕, 지역의 숙원과제인 사격장피해와 환경재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는 전국은 물론 온 전치 못한 그의 행위가 국제적인 뉴스가 되어 시민의 마음을 짓누르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비교된다.

그런데 우리 포천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국방위에 들어가 군사시설과 안보피해에 대한 주민의 애로를 피력한다 싶더니, 불과 2년 만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갈아타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고장은 군사지역이라는 특수함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 왔으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가족과 현역장병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한시라도 빨리 고향을 찾겠다며 이곳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수많은 규제와 차별을 참아가며 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외여행을 50회를 갔느니 55회를 갔느니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구 주민의 지붕위로 포탄이 날아들고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업무상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50번을 해외로 나간 우리 지역의 대표는, 지역현안과 무관한 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법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이라는 온전한 입법을,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사람이 우리

이희용 칼럼

포천에는 전철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이 희 용

철학박사
경복중학교 운영위원장

창동 차량기지이전을 전제로 포천으로 이전하겠다던 지하철 4호선이, 남양주 진접읍으로 연장되는 기공식이 2014년 12월 10일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 지하철 노선은 지하철 4호선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진접읍까지 이어지는 14.8㎞의 신설 구간이다. 오는 2019년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이 철로가 들어서면 현재 진접에서 서울역까지의 2시간20분에서 불과 50분대로 좁혀진다고 한다.

그동안 남양주 진접읍은 서울외곽택지지구지만, 서울과는 불암산 등 자연경계로 가로막혀 별개 생활권이었고, 당고개로 들어가는 길은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덕릉고개를 굽이굽이 돌아가는 왕복 2차선 산길이 전부여서, 겨울철 폭설이라도 내리면 도로가 차단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연장거리 14.8㎞인 지하철 진접선에 드는 비용은 총 1조3323억원의 막대한 돈이 인구 9만6천명의 진접읍 일대에 뿌려지고, 구간 대부분을 지하로 건설하게 되어 14.8㎞ 중 지상구간은 2.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접선 구간에 투입되는 전동차는 10량 1편성의 중(重)전철이다. 서울 여의도와 강남을 관통하는 지하철 9호선은 4량 1편성,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도 6량 1편성에 불과하다. 서울 도심 지하철은 콩나물시루인데 면과 읍을 통과하는 전동차가 10량 1편성으로 '쾌적하게' 달리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접읍은 포천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전철이나 지하철은 물론 철도노선도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역량을 발휘하여 상전벽해를 만들었으니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도 야당 소속의 의원이었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전철은커녕, 지역의 숙원과제인 사격장피해와 환경재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는 전국은 물론 온전치 못한 그의 행위가 국제적인 뉴스가 되어 시민의 마음을 짓누르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비교된다.

그런데 우리 포천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국방위에 들어가 군사시설과 안보피해에 대한 주민의 애로를 피력한다 싶더니, 불과 2년 만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갈아타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

> **"우리고장은 군사지역이라는 특수함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왔으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가족과 현역장병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한시라도 빨리 고향을 찾겠다며 이곳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수많은 규제와 차별을 참아가며 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외여행을 50회를 갔느니 55회를 갔느니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구 주민의 지붕위로 포탄이 날아들고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업무상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50번을 해외로 나간 우리지역의 대표는, 지역현안과 무관한 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뒤돌아봐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법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이라는 온전한 입법을,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사람이 우리지역 대표였다니 말 그대로 실망스럽다. 거기다가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시민논객의 지적에, '대안반영폐기'도 입법이라고 반박을 하는 모습은 떳떳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2014년 11월 4일 '바른사회 의정모니터단'이 발표한 「19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 현황」자료에 의하면,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2014년 6월 24일 기준, '19대 국회 상반기 법안처리비율 하위 순위 15위'로 발표되어,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입법 활동이 285위라는 것을 본 순간, 믿었던 인물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야당의원은 철도가 없던 자기 지역구에, 지하철 3개를 유치하여 총액 2조 6300억 원을 끌어오는 동안에, 지하철 진접선이 종료되는 진접읍 광릉초등학교에서 내촌면사무소까지는 7.7㎞이고, 소흘읍사무소까지는 15.9㎞의 근거리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표가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도 연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우리고장은 군사지역이라는 특수함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왔으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가족과 현역장병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한시라도 빨리 고향을 찾겠다며 이곳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수많은 규제와 차별을 참아가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인고의 63년에 대한 위로와 현역장병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전철이 유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할 인물도 동력도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요컨대 이번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인물인지, 군사지역이라는 특수한 위기상황을 희망으로 만들어 낼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포천신문> 2016년 1월 20일자 6면

지역 대표였다니 말 그대로 실망스럽다. 거기다가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시민논객의 지적에, '대안반영 폐기'도 입법이라고 반박을 하는 모습은 떳떳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2014년 11월 4일 '바른사회 의정모니터단'이 발표한 「19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 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2014년 6월 24일 기준, '19대 국회 상반기 법안처리비율 하위 순위 15위'로 발표되어,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입법 활동이 285위라는 것을 본 순간, 믿었던 인물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야당의원은 철도가 없던 자기 지역구에, 지하철 3개를 유치하여 총액 2조 6300억 원을 끌어오는 동안에, 지하철 진접선이 종료되는 진접읍 광릉초등학교에서 내촌면사무소까지는 7.7㎞이고, 소흘읍사무소까지는 15.9㎞의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표가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도 연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우리 고장은 군사지역이라는 특수함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 왔으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가족과 현역장병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한시라도 빨리 고향을 찾겠다며 이곳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수많은 규제와 차별을 참아가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인고의 63년에 대한 위로와 현역장병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전철이 유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할 인물도 동력도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요컨대 이번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인물인지, 군사지역이라는 특수한 위기상황을 희망으로 만들어낼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전철 7호선…
양주서 포천까지 연장할 수 있나?

현재까지 농촌의 발전단계를 보면 농촌에서 도농도시를 거쳐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일본의 예를 보면 정부가 거미줄 같은 전철노선을 우선 발표하고 전철 용지를 싼값에 충분히 구입한 후 상세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 후 중반경에 도시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전철과 도시가 건설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도시가 이미 형성된 후 전철을 깔자니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민간으로부터 매입하자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어진 건축물을 헐어야 하고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전철공사기간이 늘어져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하여 주민들과 정부는 불화를 조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철(광역철도)과 철도(국철)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 아시다시피 전철은 도시 전체를 거미줄 같이 연결하고 좁은 지역 또는 지하와 지상을 드나들며 연결시켜줌으로써 상가와 골목까지도 인접하게 해주는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즉 단거리는 물론 장거리까지도 짧은 간격으로 연결시켜주니 개인승용차 없이도 국민 생활이 편리해진다.

전철역 주변은 각종 상가들로 붐비게 되고 지가와 아파트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없던 사람도 일약 부자대열에 끼게 해주는 마력같은 존재이다.

그런 반면 그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시·군이 적정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어 서로 협업 체계를 이루게 된다.

반면 국철(국가철도=도시철도)은 대도시와 대도시 또는 장거리 노선이 되고 운행 횟수가 전철보다 적다보니 손님이 많지 않고 국민생활에 단점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하다 보니 지방정부나 해당 시·군에서는 이용만 하면 된다. 철도건설은 국가 대형건설 프로젝트에 속한다. 이것은 어느 지역 또는 정치인들의 역량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 포천의 상황은 어떤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고 낙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전철유치는 국회의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남양주시와 파주시가 그 대표적인 모범 사례이다. 양주시민단체에서는 김영우 의원에게 전철 7호선을 함께 유치하자고 제안했으나 김영우 의원은 7호선보다는 철원선인 국철을 원했다.

그런데 의정부와 양주는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강남노선인 전철 7호선 유치에 전력투구하여 지난해 8월경 도봉산-의정부-양주 7호선 노선이 전철(광역철도)로 지정될 것임을 알고 그때서야 김영우 의원은 국토부 장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포천에도 7호선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늦었다.

"국철보다는 전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국철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지만 국철이 들어선 후 또 이중으로 전철을 놓기가 쉽지 않다. 즉 국철(도시철도) 전에 전철(광역철도)을 놓는 것이 필수이다."

강남노선인 7호선은 포천에서 강남까지 1시간대에 불과하다. 7호선이 포천에 유치된다면 포천이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되겠는가?

교통이 좋아서 신도시가 생길 수도 있고 지역이 크게 발전하여 세수가 많이 걷혀 포천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포천시민들은 모두 7호선이 포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유독 김영우 의원은 7호선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은 무슨 이유인가?

전철 7호선 유치는 양주의 정성호 의원이 주도하고 의정부의 홍문종 의원이 도와주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 양주, 포천(5%만 부담가능)이 함께 진행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전철유치가 보다 용이한데 앞으로 포천이 독자적으로 유치하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비용부담이 크다. 의정부, 양주는 지난 10년간 7호선 유치를 위해 투쟁해 왔다.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의 열정적인 노력 특히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국가철도(도시철도)는 이미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10여 년 전부터 정부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의정부-포천-철원선이 계획되어 있어 금년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철이 포천에 건설되어도 연천에 철도가 들어왔으나 그 후 연천은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국철보다는 전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국철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지만 국철이 들어선 후 또 이중으로 전철을 놓기가 쉽지 않다. 즉 국철(도시철도) 전에 전철(광역철도)을 놓는 것이 필수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주 옥정역에서 한 정거장이면 송우리까지 전철을 놓을 수 있다. 의정부/양주/포천이 함께하면 총 비용의 5% 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포천 혼자하면 15%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그것도 국철 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우리 포천시민 모두 함께 구두끈을 졸라매고 뛰자.

이 또한 필수적인 과정은 있다. 즉 경제성을 따져야 하고 정책을 세워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사해야 된다.

그러나 다행이도 약 3주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의정부-포천-철원에 국철을 깔 것이고 드넓은 들판에 각종 공단을 조성 할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주장해 온 동서고속도로(강릉-인천) 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신 포천주민들께 부탁드린다. 땅 팔지 마세요.



특별기고

전철 7호선…양주서 포천까지 연장할 수 있나?

이 각 모
남북접경지역
경제개발협의회장

현재까지 농촌의 발전단계를 보면 농촌에서 도농도시를 거쳐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일본의 예를 보면 정부가 거미줄 같은 전철노선을 우선 발표하고 전철 용지를 싼값에 충분히 구입한 후 상세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 후 중반 경에 도시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전철과 도시가 건설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도시가 이미 형성된 후 전철을 깔자니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민간으로부터 매입하자니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어진 건축물을 헐어야하고 더 비싼값을 지불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전철공사기간이 늘어져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하여 주민들과 정부는 분화를 조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철(광역철도)과 철도(국철)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 알다시피 전철은 도시 전체를 거미줄 같이 연결하고 좁은 지역 또는 지하와 지상을 드나들며 연결시켜줌으로서 상가와 골목까지도 안전하게 해주는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즉 단거리는 물론 장거리까지도 짧은 간격으로 연결시켜주니 개인승용차 없이도 국민생활이 편리해 진다.

전철역 주변은 각종 상가들로 붐비게 되고 지가와 아파트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없던 사람도 일약 부자대열에 끼게 해주는 마력같은 존재이다.

그런 반면 그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시,군이 적정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어 서로 협업 체계를 이루게 된다.

반면 국철(국가철도=도시철도)은 대도시와 대도시 또는 장거리 노선이 되고 운행회수가 전철보다 적다보니 손님이 많지 않고 국민생활에 단점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하다보니 지방정부나 해당시·군에서는 이용만 하면 된다. 철도건설은 국가 대형건설 프로젝트에 속한다. 이것은 어느 지역 또는 정치인들의 역량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 포천의 상황은 어떤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고 낙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전철유치는 국회의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남양주시와 파주시가 그 대표적인 모범 사례이다. 양주시민단체에서는 김영우 의원에게 전철 7호선을 함께 유치하자고 제안했으나 김영우 의원은 7호선보다는 철원선인 국철을 원했다.

그런데 의정부와 양주는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강남노선인 전철 7호선유치에 전력투구하여 지난해 8월경 도봉산-의정부-양주 7호선 노선이 전철(광역철도)로 지정될 것임을 알고 그때서야 김영우 의원은 국토부 장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포천에도 7호선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늦었다.

> **국철보다는 전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국철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지만 국철이 들어선 후 또 이중으로 전철을 놓기가 쉽지 않다. 즉 국철(도시철도)전에 전철(광역철도)을 놓는 것이 필수이다.**

강남노선인 7호선은 포천에서 강남까지 1시간대에 불과하다. 7호선이 포천에 유치된다면 포천이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되겠는가?

교통이 좋아서 신도시가 생길 수도 있고 지역이 크게 발전하여 세수가 많이 걷혀 포천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그런데 포천시민들은 모두 7호선이 포천에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유독 김영우 의원은 7호선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은 무슨 이유인가?

전철 7호선유치는 양주의 정성호 의원이 주도하고 의정부의 홍문종 의원이 도와주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 양주, 포천(5%만 부담가능)이 함께 진행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전철유치가 보다 용이한데 앞으로 포천이 독자적으로 유치하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비용부담이 크다. 의정부, 양주는 지난 10년간 7호선유치를 위해 부정해 왔다.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의 열정적인 노력 특히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국가철도(도시철도)는 이미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10여 년 전부터 정부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의정부-포천-철원 선이 계획되어 있어 금년 상반기에 발표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철이 포천에 건설되어도 연천에 철도가 들어왔으나 그 후 연천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국철보다는 전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국철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지만 국철이 들어선 후 또 이중으로 전철을 놓기가 쉽지 않다. 즉 국철(도시철도)전에 전철(광역철도)을 놓는 것이 필수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주 옥정역에서 한 정거장이면 송우리까지 전철을 놓을 수 있다. 의정부/양주/포천이 함께하면 총 비용의 5%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포천 혼자하면 15%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그 것도 국철 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우리 포천시민 모두 함께 구두끈을 졸라매고 뛰자.

이 또한 필수적인 과정은 있다. 즉 경제성을 따져야 하고 정책을 세워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사해야 된다.

그러나 다행이도 약 3주전 박근혜대통령은 앞으로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의정부-포천-철원에 국철을 깔 것이고 드넓은 들판에 각종 공단을 조성 할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주장해온 동서고속도로(강릉-인천)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그 동안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신 포천주민들께 부탁드린다.

땅 팔지 마세요.

<포천신문> 2016년 1월 20일자 6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26
언 론 사	**주식회사 경안일보** 경북 안동시 용상동 1436-5 대표이사 강병주
심의대상기사	경안일보 2015년 12월 14일자 2면 「김희국 의원, 2015년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2016년 1월 11일자 2면 「김희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일 본회의 통과」, 2016년 1월 27일자 2면 「김희국 의원, 서민 잡는 건보료 즉시 개선 촉구」, 2016년 1월 29일자 2면 「김희국 의원, 도심형 뉴스테이 추진」, 2016년 2월 2일자 2면 「김희국 의원, 정치·경제·사회개혁 3대과제 각각 제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희국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희국 의원,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민본국감(民本國監)'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목소리 듣겠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0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 본원의 기능회복 및 활성화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을 선정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의원은 '주민과 함께 하는 國監'을 키워드로,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우선 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업계약'에 대한 철저한 적발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분양권 프리미엄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업체 및 지역인력 활용 확대 ▲재개발 재건축 시 오피스텔 허용으로 도심개발 활로 개척 ▲대구 범안로 등 민자사업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혈세낭비 등을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탁상공론, 공허한 폭로보다는, 꾸준히 지역을 돌면서 만난 어르신, 어머님, 청년의 바램과

호소를 질의와 보도자료의 형태로 제기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에 매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생활에 밀착된 국감, '민본국감(民本國監)'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희국 의원은 새누리당이 선정한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김희국 의원,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민본국감(民本國監)'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목소리 듣겠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0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 본원의 기능회복 및 활성화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을 선정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의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國監'을 키워드로,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우선 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업계약'에 대한 철저한 적발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분양권 프리미엄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업체 및 지역인력 활용 확대 ▲재개발 재건축 시 오피스텔 허용으로 도심개발 활로 개척 ▲대구 범안로 등 민자사업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혈세낭비 등을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탁상공론, 공허한 폭로보다는, 꾸준히 지역을 돌면서 만난 어르신, 어머님, 청년의 바램과 호소를 질의와 보도자료의 형태로 제기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에 매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생활에 밀착된 국감, '민본국감(民本國監)'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희국 의원은 새누리당이 선정한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bo.com

김희국 의원

<경안일보> 2015년 12월 14일자 2면

김희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일 본회의 통과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오피스텔도 건립 가능

이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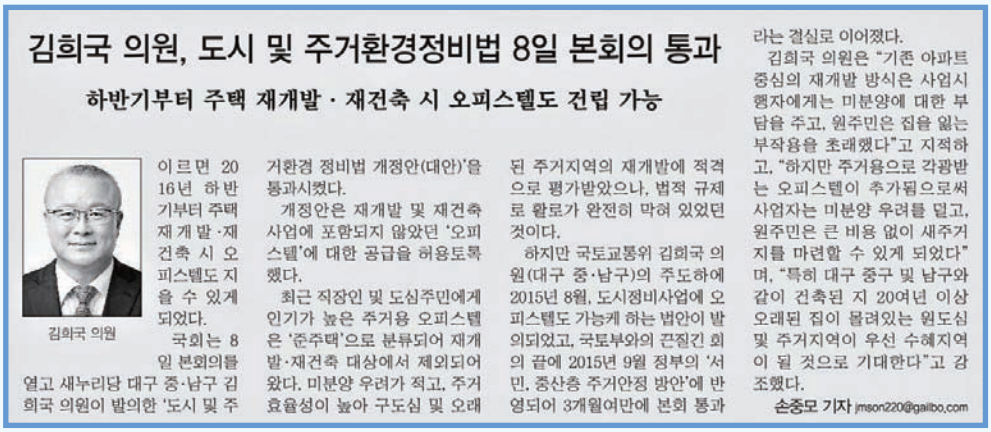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을 허용토록 했다.

최근 직장인 및 도심주민에게 인기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미분양 우려가 적고, 주거효율성이 높아 구도심 및 오래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에 적격으로 평가받았으나, 법적 규제로 활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의 주도하에 2015년 8월, 도시정비사업에 오피스텔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토부와의 끈질긴 회의 끝에 2015년 9월 정부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반영되어 3개월여 만에 본회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김희국 의원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방식은 사업시행자에게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주고, 원주민은 집을 잃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주거용으로 각광받는 오피스텔이 추가됨으로써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를 덜고, 원주민은 큰 비용 없이 새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대구 중구 및 남구와 같이 건축된 지 20여년 이상 오래된 집이 몰려 있는 원도심 및 주거지역이 우선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일 본회의 통과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시 오피스텔도 건립 가능

김희국 의원

이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을 허용토록 했다.

최근 직장인 및 도심주민에게 인기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미분양 우려가 적고, 주거 효율성이 높아 구도심 및 오래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에 적격으로 평가받았으나, 법적 규제로 활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의 주도하에 2015년 8월, 도시정비사업에 오피스텔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토부와의 끈질긴 회의 끝에 2015년 9월 정부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반영되어 3개월여만에 본회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김희국 의원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방식은 사업시행자에게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주고, 원주민은 집을 잃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주거용으로 각광받는 오피스텔이 추가됨으로써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를 덜고, 원주민은 큰 비용 없이 새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대구 중구 및 남구와 같이 건축된 지 20여년 이상 오래된 집이 몰려있는 원도심 및 주거지역이 우선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경안일보> 2016년 1월 11일자 2면

김희국 의원, 서민 잡는 건보료 즉시 개선 촉구

3년여 간 진행된 '건보료 개편안' 보고 누락 사실 비판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김희국 의원이 서민에게 불리한 건강보험료(건보료) 체계의 즉각적 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년여간 진행된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부는 서민에게 불리한 현 건보료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즉시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현 건보료 부과기준은 무려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직장인은 '소득'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독거 및 저소득 노인, 일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집 한 칸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반대로 막대한 재산을 갖고도 지인의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꾸미거나, 자녀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거의 건보료를 내지 않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014년, 2015년 연이어 개편안 추진을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업무보고에서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대답만을 반복하며 사실상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



김희국 의원, 서민 잡는 건보료 즉시 개선 촉구

3년여 간 진행된 ' 건보료 개편안' 보고 누락 사실 비판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김희국 의원이 서민에게 불리한 건강보험료(건보료) 체계의 즉각적 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년여간 진행된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부는 서민에게 불리한 현 건보료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즉시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현 건보료 부과기준은 무려 30여년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직장인은 '소득'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독거 및 저소득 노인, 일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집 한 칸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반대로 막대한 재산을 갖고도 지인의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꾸미거나, 자녀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거의 건보료를 내지 않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014년, 2015년 연이어 개편안 추진을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업무보고에서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대답만을 반복하며 사실상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시켰다"고 지적하고, "2012, 2013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014년 대정부 질문에서는 물론이고, 2015년 새누리당 민생정책위 부위원장으로서 질의할 때도 당시 장관은 2015년 안으로 개편안 공개를 공언했지만,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금번 총선에서 즉각적인 건보료 개편안 마련 및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며,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에도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경안일보> 2016년 1월 27일자 2면

화시켰다"고 지적하고, "2012, 2013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014년 대정부 질문에서는 물론이고, 2015년 새누리당 민생정책위 부위원장으로서 질의할 때도 당시 장관은 2015년 안으로 개편안 공개를 공언했지만,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금번 총선에서 즉각적인 건보료 개편안 마련 및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며,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에도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희국 의원, 도심형 뉴스테이 추진

중구·남구에 추가 마련
주거안정 강화대책 일환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김희국 의원이 남구 대명동 뉴스테이 외에도 추가로 중구 포정동과 남구 대명동에도 도심형 뉴스테이가 마련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주거안정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4개 지구(부산 2, 대구 2) 700호 규모의 '도심형 뉴스테이'를 추진한다.

도심형 뉴스테이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심 은행 지점 등을 재건축해 활용하는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대구 중구 포정동에 들어설 도심형 뉴스테이는 총 287호 규모(1,652㎡, 499평)로, 중앙로역 4번 출구앞 KEB하나은행 대구기업금융센터지점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가 매입해 재건축한 후 10여년간 임대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뉴스테이 또한 KEB하나은행 건물을 재건축하며, 총 96호, 1,028㎡(310평) 규모로 건설된다.

이 또한 리츠가 매입하고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도심형 뉴스테이는 도심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사회초년생, 인근지역 대학생 및 1~2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맞춤형 임대주택 모델"이라며, "15일 발표된 남구 대명동 뉴스테이에 이어 이번 도심형 공급 모두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단,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핵심인 만큼 적정 임대료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 도심형 뉴스테이 추진

중구·남구에 추가 마련
주거안정 강화대책 일환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김희국 의원이 남구 대명동 뉴스테이 외에도 추가로 중구 포정동과 남구 대명동에 도 도심형 뉴스테이가 마련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주거안정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4개 지구(부산 2, 대구 2) 700호 규모의 '도심형 뉴스테이'를 추진한다.

도심형 뉴스테이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심 은행 지점 등을 재건축해 활용하는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대구 중구 포정동에 들어설 도심형 뉴스테이는 총 287호 규모(1,652㎡, 499평)로, 중앙로역 4번 출구앞 KEB하나은행 대구기업금융센터지점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가 매입해 재건축한 후 10여년간 임대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뉴스테이 또한 KEB하나은행 건물을 재건축하며, 총 96호, 1,028㎡(310평) 규모로 건설된다.

이 또한 리츠가 매입하고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도심형 뉴스테이는 도심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사회초년생, 인근지역 대학생 및 1~2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맞춤형 임대주택 모델"이라며, "15일 발표된 남구 대명동 뉴스테이에 이어 이번 도심형 공급 모두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단,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핵심인 만큼 적정 임대료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bo.com

<경안일보> 2016년 1월 29일자 2면

김희국 의원, 정치·경제·사회개혁 3대과제 각각 제시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 절실"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김희국 의원은 1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가칭)국회선진화법의 전향적 개정을 포함하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3대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김희국 의원은 우선, 정치개혁과제로 '성실한 국회 만들기'를 제안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국회를 끝내고 합의에 의한 법안통과라는 풍토도 만들어냈지만,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가 반대당의 발목이 잡혀 무능국회가 되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헌법 및 국회법이 부여하고 있는 예산안 심의·확정, 입법 활동, 국정조사 및 감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시 및 정기국회 회기 중 평일 지역구 및 국외 방문활동을 제한하고, 기관 현장방문감사를 지양하고 국회에서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구속 중에도 세비를 수령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구속 후 판결확정 전까지 세비지급 정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며, 보좌진 급여를 상납 받는 행위 등 소위 갑질을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개혁 과제로 '상생경제 만들기'를 제안했다.

▲대기업 진입금지 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고(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대기업 횡포 근절)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부동산, 주식, 금융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익이 실현될시 시중은행 금리 이상의 이익에 대한 중과세) ▲돈을 가진 법인이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 법인 영업비용(법인세법 개정해 접대비 용어 개선) 상향(현행 수입금액별로 0.03~0.2% 이내인 것을 100억 이하는 1% 이내로, 그 이상은 0.5%로 상향) ▲현금결제 유도를 통한 세금포탈 신고시 결제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제도 마련 ▲법인카드 1인 1일 사용한도(50만원) 폐지, 영세사업자 카드결제 거부 기준금액(예: 1만원 이하) 마련 및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사회개혁 과제로는 '희망사회 만들기'를 제안했다.

▲수십년 된 비효율적인 학제 개편(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등 12년을 초등 5년, 중고등 5년 등 10년으로 축소, 유치원 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입하는 문제 검토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소득중심 일원화) ▲공적헌신에 대한 국가보상 및 예우체계 강화 제도 마련(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적헌신에 대한 보상 강화, 예우 상향, 공적희생자에 대한 기념탑 건립 의무화 등)을 각각 제안했다.

김희국 의원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당 차원의 총선공약화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지지로 재선되면 의정활동 목표의 하나로 삼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희국 의원은 조만간 중·남구 발전과 관련한 공약을 순차적, 집중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희국 의원, 정치 · 경제 · 사회개혁 3대과제 각각 제시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 절실"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김희국 의원은 1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가칭)국회선진화법의 전향적 개정을 포함하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3대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김희국 의원은 우선, 정치개혁 과제로 '성실한 국회 만들기'를 제안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국회를 끝내고 합의에 의한 법안통과라는 풍토도 만들어냈지만,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가 반대당의 발목이 잡혀 무능국회가 되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헌법 및 국회법이 부여하고 있는 예산안 심의·확정, 입법 활동, 국정조사 및 감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시 및 정기국회 회기 중 평일 지역구 및 국외 방문활동을 제한하고, 기관 현장방문감사를 지양하고 국회에서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구속 중에도 세비를 수령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구속 후 판결확정 전까지 세비지급 정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며, 보좌진 급여를 상납 받는 행위 등 소위 갑질을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개혁 과제로 '상생경제 만들기'를 제안했다.

▲대기업 진입금지 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고(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대기업 횡포 근절)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부동산, 주식, 금융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익이 실현될시 시중은행 금리 이상의 이익에 대한 중과세) ▲돈을 가진 법인이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 법인 영업비용(법인세법 개정해 접대비 용어 개선) 상향(현행 수입금액별로 0.03~0.2% 이내인 것을 100억 이하는 1% 이내로, 그 이상은 0.5%로 상향) ▲현금결제 유도를 통한 세금포탈 신고시 결제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제도 마련 ▲법인카드 1인1일 사용한도(50만원) 폐지, 영세사업자 카드결제 거부 기준금액(예:1만원 이하) 마련 및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사회개혁 과제로는 '희망사회 만들기'를 제안했다.

▲수십년된 비효율적인 학제 개편(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등 12년을 초등 5년, 중고등 5년 등 10년으로 축소, 유치원 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입하는 문제 검토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소득중심 일원화) ▲공적헌신에 대한 국가보상 및 예우체계 강화 제도 마련(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적헌신에 대한 보상 강화, 예우 상향, 공적희생자에 대한 기념탑 건립 의무화 등)을 각각 제안했다.

김희국 의원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당 차원의 총선공약화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지지로 재선되면 의정활동 목표의 하나로 삼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희국 의원은 조만간 중·남구 발전과 관련한 공약을 순차적, 집중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경안일보> 2016년 2월 2일자 2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27
언 론 사	**대전투데이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대표이사 김현정
심의대상기사	대전투데이 2015년 12월 15일자 2면 「이은권 전 중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청춘 중구 만들겠다”」, 2016년 1월 5일자 2면 「새누리당 대전시당 “충청실리론으로 선거 임할 터”」, 2016년 1월 8일자 2면 「“보문산에 대전랜드마크 보문타워 건립”」, 2016년 1월 15일자 2면 「이은권 “서대전역 고속전철화 앞당기겠다”」, 2016년 1월 22일자 2면 「이은권 예비후보 “창조관광으로 원도심 활성화”」, 2016년 1월 27일자 2면 「이은권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7일 개소식」, 2016년 1월 28일자 3면 「‘청춘중구’ 위한 힘찬 발걸음」, 2016년 1월 29일자 3면 「“쇠락한 중구경제 반드시 살려내겠다”」, 2016년 2월 5일자 2면 「“청춘의 열정 넘치는 따뜻한 중구건설”」, 2016년 2월 12일자 2면 「수서발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증편 촉구 서명운동’ 호응」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이은권 예비후보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은권 전 중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청춘 중구 만들겠다”

체류형 관광명소화 추진 등 ‘청춘 프로젝트’ 공약 제시

이은권(57) 전 중구청장(새누리당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이 20대 총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청장은 14일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춘 중구를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출마의 변에서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오직 한 길, 중구를 지키면서 중구발전을 위해 살아왔다, 쇠퇴해 가는 중구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이어 “저는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희망한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는 나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를 꿈꾼다”면서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사회 안전망이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몸을 던지겠다”고 포부를 밝혔

다. 이은권 전 처장은 또 "'살맛나는 중구, 살고 싶은 중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청춘 중구'라는 슬로건을 정했다면서 6가지 '청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처장은 "옛 충남도청 부지에서 중앙로 1.1km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 상업과 문화가 융합된 혁신공간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구의 큰 자산인 역사와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여 중구부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청장은 '청춘 프로젝트'에 대해 ▲대흥동 대전예술창작센터와 관사촌 중심 '예술의 거리조성' ▲보문산과 오월드·뿌리공원·안영동 스포츠과학단지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명소화 추진' ▲퇴미길과 선화로·대전 천변길·유등 천변길 등 '상습교통 정체구간 해소'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배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춘도시', 청년일자리가 많은 '젊은 중구'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은권 전 중구청장은 "변화를 이끌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갈 뚝심 있는 사람,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저 이은권과 함께 해 달라"며 "반드시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중구의 참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은권 전 중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청춘 중구 만들겠다"

체류형 관광명소화 추진 등 '청춘 프로젝트' 공약 제시



이은권(57) 전 중구청장(새누리당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이 20대 총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청장은 14일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춘 중구를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출마의 변에서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오직 한 길, 중구를 지키면서 중구발전을 위해 살아왔다, 쇠퇴해 가는 중구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이어 "저는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희망한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는 나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를 꿈꾼다"면서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사회 안전망이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몸을 던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은권 전 처장은 또 "살맛나는 중구, 살고 싶은 중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청춘 중구'라는 슬로건을 정했다면서 6가지 '청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처장은 "옛 충남도청 부지에서 중앙로 1.1km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 상업과 문화가 융합된 혁신공간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구의 큰 자산인 역사와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여 중구부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청장은 '청춘 프로젝트'에 대해 ▲대흥동 대전예술창작센터와 관사촌 중심 '예술의 거리조성' ▲보문산과 오월드·뿌리공원·안영동 스포츠과학단지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명소화 추진' ▲퇴미길과 선화로·대전 천변길·유등 천변길 등 '상습교통 정체구간 해소'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배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춘도시', 청년일자리가 많은 '젊은 중구'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은권 전 중구청장은 "변화를 이끌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갈 뚝심 있는 사람,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저 이은권과 함께 해 달라"며 "반드시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중구의 참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2015년 12월 15일자 2면

새누리당 대전시당 “충청실리론으로 선거 임할 터”

순국선열들 뜻 기리고자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참배… 새누리당 대전시당 신년교례회 개최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정용기)은 4일 오전, 2016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자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또, 참배 후에는 수통골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대전시당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신년교례회는 정용기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시당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용기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 묶여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특히, 승리를 위해서는 선진당 출신 등 새누리당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화합을 강조했다. 또, 정용기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에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총선과 대선의 모든 공약을 100%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총선은 ‘충청실리론’, ‘대전발전론’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이장우 국회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또, 승리의 중심에 충청권이 있어야 하고, 대전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충청권이 새누리당의 중심적 역할을 통해 중앙정치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협

새누리당 대전시당“충청실리론으로 선거 임할 터”

순국선열들 뜻 기리고자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참배… 새누리당 대전시당 신년교례회 개최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정용기)은 4일 오전, 2016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자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또, 참배 후에는 수통골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대전시당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신년교례회는 정용기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시당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용기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 묶여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 해야 한다. 특히, 승리를 위해서는 선진당 출신 등 새누리당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화합을 강조했다. 또, 정용기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에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총선과 대선의 모든 공약을 100%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총선은 ‘충청실리론’, ‘대전발전론’으로 선거에 임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이장우 국회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또, 승리의 중심에 충청권이 있어야 하고, 대전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충청권이 새누리당의 중심적 역할을 통해 중앙정치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며, 충청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병주 국회의원은 “2016년 병신년에는 새누리 당 당직자 모두 하나되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으며, 이에리사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대전충청 지역에서 가장 높다. 집권 4년차 들어서는 박근혜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대전충청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염홍철 위즈덤위원회 의장은 “건전한 보수, 개혁적 보수 세력이 결집하자는 정용기 위원장의 당직 제안에 따라 위즈덤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민의 뜻을 헤아려, 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효 지역발전특별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에 위즈덤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큰 힘이 된다. 염홍철 의장님을 필두로 한 위즈덤위원회가 새누리당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하며, “다 같이 단결된 모습으로 지방선거 패배를 설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2016년 1월 5일자 2면

조 바란다."며, 충청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병주 국회의원은 "2016년 병신년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모두 하나되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으며, 이에리사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대전충청 지역에서 가장 높다. 집권 4년차 들어서는 박근혜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대전충청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염홍철 위즈덤위원회 의장은 "건전한 보수, 개혁적 보수 세력이 결집하자는 정용기 위원장의 당직 제안에 따라 위즈덤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민의 뜻을 헤아려, 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효 지역발전특별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에 위즈덤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큰 힘이 된다. 염홍철 의장님을 필두로 한 위즈덤위원회가 새누리당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하며, "다 같이 단결된 모습으로 지방선거 패배를 설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은권 대전 중구 예비후보,
중구 경제활성화 정책 대안

"보문산에 대전랜드마크 보문타워 건립"

새누리당 이은권(57) 대전 중구 예비후보는 7일 "보문산에 대전의 랜드마크를 조성해 쇠락한 중구경제에 청춘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구의 경제활성화 정책 대안으로 보문산 프로젝트를 꺼내 들었다.

사실 보문산 관광벨트 프로젝트는 이 예비후보가 지난 민선4기 대전 중구청장 재직당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 예비후보는 보문산 관광벨트를 중부권 최대의 관광거점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보문산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상징탑 조성 ▲체류형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도입 ▲관광자원간의 연계를 구축 시너지 창출을 위한 신규 관광교통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문산 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전의 랜드마크로 생태관광 전망타워인 보문타워(가칭)를 건립하고, 현재 보운대 전망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서울의 남산타워나 부산의 용두산 타워 같은 상징타워를 만들어 전망대의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하여 시민의 휴식처와,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보문산을 더욱 친근하고 가까운 장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을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물로 만들어 대전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보문산이 대전의 관광명소만이 아닌 전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당일이나 경유 코스로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하여 숙박을 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규모 단체행사나 가족단위의 관광객, 해외

관광객 등을 유치하여 관광활동의 소비를 통한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문산 내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설치하여 행평, 사정지구의 테마시설과 보문산 입구의 대사지구를 연결, 각 관광자원의 연계 이용을 활성화시켜 보문산권 관광벨트화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은권 대전 중구 예비후보, 중구 경제활성화 정책 대안

"보문산에 대전랜드마크 보문타워 건립"

새누리당 이은권(57) 대전 중구 예비후보는 7일 "보문산에 대전의 랜드마크를 조성해 쇠락한 중구경제에 청춘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구의 경제활성화 정책 대안으로 보문산 프로젝트를 꺼내들었다.

사실 보문산 관광벨트 프로젝트는 이 예비후보가 지난 민선4기 대전 중구청장 재직당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 예비후보는 보문산 관광벨트를 중부권 최대의 관광거점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보문산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상징탑 조성 ▲체류형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도입 ▲관광자원간의 연계를 구축 시너지 창출을 위한 신규 관광교통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문산 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전의 랜드마크로 생태관광 전망타워인 보문타워(가칭)를 건립하고, 현재 보운대 전망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서울의 남산타워나 부산의 용두산타워 같은 상징타워를 만들어 전망대의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하여 시민의 휴식처와,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만들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보문산을 더욱 친근하고 가까운 장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을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물로 만들어 대전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면보문산이 대전의 관광명소만이 아닌 전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당일이나 경유 코스로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하여 숙박을 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규모 단체행사나 가족단위의 관광객, 해외관광객 등을 유치하여 관광활동의 소비를 통한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문산 내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설치하여 행평, 사정지구의 테마시설과 보문산 입구의 대사지구를 연결, 각 관광자원의 연계 이용을 활성화 시켜 보문산권 관광벨트화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2016년 1월 8일자 2면

이은권
"서대전역 고속전철화 앞당기겠다"

중구 유천동 선거사무실에서
목요정책 간담회 열고…발표

제20대 총선 대전 중구 이은권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14일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주변 소음과 도심 환경 저해 등 주거상 낙후지역인 호남선 철로변 재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중구 유천동 선거사무실에서 목요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통분야 공약 발표회로 이 예비후보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사업 구상 7년여 만에 우여곡절 끝에 예타는 통과됐지만 중장기 사업으로 국비확보가 관건인 만큼 우선순위 국책사업으로 국가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호남선 서대전-논산구간 직선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서대전역 고속전철화를 앞당기겠다”면서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대전-논산구간 약 50㎞에 대한 직선화 사업을 반영해 고속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장이 바뀌면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면서 “동서축으로 운영하는 도시철도 1호선과, 남북축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망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구지역 상습교통정체구간인 퇴미길, 호수돈여고길, 대전 천변길 등의 도로구조 변경과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이 예비후보는 강조했다.

또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되었던 안영, 유천동, 오정동 농수산시장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의 ‘유등천 우안도로’를 개설”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은권 “서대전역 고속전철화 앞당기겠다”

중구 유천동 선거사무실에서 목요정책 간담회 열고…발표



제20대 총선 대전 중구 이은권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14일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주변 소음과 도심환경 저해 등 주거상 낙후지역인 호남선 철로변 재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중구 유천동 선거사무실에서 목요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통분야 공약 발표회로 이 예비후보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사업 구상 7년여만에 우여곡절 끝에 예타는 통과됐지만 중장기 사업으로 국비확보가 관건인만큼 우선순위 국책사업으로 국가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호남선 서대전-논산구간 직선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서대전역 고속전철화를 앞당기겠다"면서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대전-논산구간 약 50㎞에 대한 직선화 사업을 반영해 고속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시장이 바뀌면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면서 "동서축으로 운영하는 도시철도 1호선과, 남북축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망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구지역 상습교통정체구간인 퇴미길, 호수돈여고길, 대전 천변길 등의 도로구조 변경과 신호체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이 예비후보는 강조했다.

또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되었던 안영, 유천동, 오정동 농수산시장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의 ‘유등천 우안도로’를 개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2016년 1월 15일자 2면

이은권 예비후보 “창조관광으로 원도심 활성화”

이은권 새누리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선거사무소에서 목요정책 기자간담회 ‘청춘중구프로젝트’ 세 번째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중구가 지니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공간 창조와 관련기관 간의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소비만이 아닌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창조관광 등 원도심의 문제를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도시 고유의 정서와 정체성 확립하는 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충남도청사부지를 문화예술창조집적단지로 조성하여 원도심 부활의 전기를 마련하고, 도청 담벼락을 철거하고 도로를 재정비하여 인사동처럼 골동품들과 현대물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 도지사 관사에서 테미예술창작센터 구간을 문화 예술 창작의 산실로 조성하여 체험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숨 쉬는 도로, 사람이 넘치는 거리,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듯이 옛 추억을 회상하며 웃고 즐길 수 있도록 대전극장통을 70~80년대 추억의 거리로 조성을 통하여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어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지역마다 지닌 쇠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형 도심재생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원도심 학교 활성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안 등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침체한 도심은 물론 그 주변까지 사업효과가 확산되리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며,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 곁에서 살맛나는 중구, 살고 싶은 중구, 청춘중구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은권 예비후보 “창조관광으로 원도심 활성화”



이은권 새누리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선거사무소에서 목요정책 기자간담회 ‘청춘중구프로젝트’ 세번째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중구가 지니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공간 창조와 관련기관 간의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소비만이 아닌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창조관광 등 원도심의 문제를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도시 고유의 정서와 정체성 확립하는 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 충남도청사부지를 문화예술창조 집적단지로 조성하여 원도심 부활의 전기를 마련하고, 도청 담벼락을 철거하고 도로를 재정비하여 인사동처럼 골동품들과 현대물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 도지사관사에서 테미예술창작센터 구간을 문화 예술 창작의 산실로 조성하여 체험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숨 쉬는 도로, 사람이 넘치는 거리,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듯이 옛 추억을 회상하며 웃고 즐길 수 있도록 대전극장통을 70~80년대 추억의 거리로 조성을 통하여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어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지역마다 지닌 쇠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형 도심재생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원도심 학교 활성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안 등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침체한 도심은 물론 그 주변까지 사업효과가 확산되리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며,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 곁에서 살맛나는 중구, 살고 싶은 중구, 청춘중구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2016년 1월 22일자 2면

이은권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7일 개소식

본격적인 공천 경선체제 전환과 총선승리 향한 힘찬 발걸음

이은권 새누리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7일 오후 3시 유천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에 나섰다.

이은권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12월15일 등록 직후부터 매일 새벽 7시경에 지역 내 주요 사거리에서 아침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시장, 경로당 등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선거운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1월 7일(목)부터 매주 목요정책 기자간담회 및 활발한 SNS활동을 하는 등 여타 후보와는 다른 전략과 발 빠른 행보로 구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날 개소식 축사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구민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할 예정이며,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비전과 지역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정치권, 정당관계자, 당원, 지인 등 이은권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은권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7일 개소식

본격적 공천 경선체제 전환과 총선승리 향한 힘찬 발걸음



이은권 새누리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7일 오후 3시 유천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에 나섰다.

이은권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12월15일 등록 직후부터 매일 새벽 7시경에 지역 내 주요 사거리에서 아침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시장, 경로당 등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선거운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1월 7일(목)부터 매주 목요정책 기자간담회 및 활발한 SNS활동을 하는 등 여타 후보와는 다른 전략과 발 빠른 행보로 구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 날 개소식 축사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구민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할 예정이며,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비전과 지역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 날 개소식에는 지역정치권, 정당관계자, 당원, 지인 등 이은권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2016년 1월 27일자 2면

'청춘중구' 위한 힘찬 발걸음

이은권 선거사무소 개소식…"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며 정 넘치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은권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7일 오후 3시 지역 정치계 인사, 당원, 지지자 등 1,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용기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장우, 민병주,정우택 국회의원과 이재선(서을 당협위원장), 이영규(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성효(전 대전광역시장), 이인상(중구 노인회장), 김홍만(전 국회의원), 박강수(전 배재대학교 총장), 김성기(전 중구청장), 남충희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육동일 충남대 교수, 곽영교·신진·강영환·김신호 등이 참석해 격려와 성원을 보냈으며,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인제(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태호(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진석(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축전을 보내며 이은권 예비후보를 지원했다.

이은권 예비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에서 "중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중구에 뼈를 묻을 저, 이은권에게 꼭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승리로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남김없이 중구에 쏟아 부어 대전의 중심, 중구의 영광, 청춘중구를 되찾아 오겠으며, 귀를 크게 열고 시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며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은권 예비후보는 또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소위 '갑질'과 같은 특권을 거부하며, 북한과 그 추종세력의 준동에는 준엄하게 대처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룰 속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서로 상생하는 그런 나라, 법과 질서가 바로 선 나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나라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라며 개소식을 마무리하였다.

'청춘중구' 위한 힘찬 발걸음

이은권 선거사무소 개소식… "낮은 자세로 구민 섬기며 정 넘치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은권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7일 오후 3시 지역 정치계 인사, 당원, 지지자 등 1,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용기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장우, 민병주,정우택 국회의원과 이재선(서을 당협위원장), 이영규(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성효(전 대전광역시장), 이인상(중구 노인회장), 김홍만(전 국회의원), 박강수(전 배재대학교 총장), 김성기(전 중구청장), 남충희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육동일 충남대 교수, 곽영교 · 신진 · 강영환 · 김신호 등이 참석해 격려와 성원을 보냈으며,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인제(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태호(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진석(전 국회 사무총장)등이 축전을 보내며 이은권 예비후보를 지원했다.

이은권 예비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에서 "중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중구에 뼈를 묻을 저, 이은권에게 꼭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승리로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모든 열정을 남김없이 중구에 쏟아 부어 대전의 중심, 중구의 영광, 청춘중구를 되찾아 오겠으며, 귀를 크게 열고 시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며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은권 예비후보는 또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소위 '갑질'과 같은 특권을 거부하며, 북한과 그 추종세력의 준동에는 준엄하게 대처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룰 속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서로 상생하는 그런 나라, 법과 질서가 바로 선 나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나라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라며 개소식을 마무리 하였다.

김정환 기자

<대전투데이> 2016년 1월 28일자 3면

"쇠락한 중구경제 반드시 살려내겠다"

(4.13 총선을 뛰는 사람들)
이은권 대전 중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대전 중구는 충남도청 등 공공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도심이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특히 서대전역이 호남고속철도에서 배제되면서 도심공동화가 더욱 심각하다. 이은권 예비후보는 중구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도심재생사업이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권 예비후보를 만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20대 총선에 출마의 이유를 듣고 싶다.

이은권은 중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평생 중구를 지키며 살 것이다. 선화초, 보문중, 서대전고를 다녔고 30여년을 중구민과 동고동락하며 중구의 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중구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중구발전의 적임자라고 자부하고 있다.

25년간 쇠퇴를 길을 걷는 중구에 변곡점을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야겠다는 소명이 생겼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을 볼 때마다 삶이 고단한 시장 상인들과 청년들의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중구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밤을 지샌 날이 적지 않다.

더 이상 쇠락하는 중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중구청장을 지낸 풍부한 행정경험과 폭넓은 중앙정치 인맥을 바탕으로 대전의 중심도시 중구의 영광을 되찾아 오겠다. 뚝심과 의리로 지켜온 중구사랑 30년의 열정으로 골목골목 살맛나게, 구석구석 활력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중구민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구민과 함께 뚝심의 열정을 쏟아 '청춘중구'를 만들어 내겠다.

▲그동안 총선출마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본인은 누구보다도 중구를 잘 안다. 30년 넘게 우직하게 지역을 살펴 왔고, 중구민의 아픔을 함께 하며 지내왔다.

중구는 현재 낡은 프레임에 갇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옛 명성과 영광을 중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요구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낮은 자세로 주민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함께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 믿고 중구 구석구석 열심히 돌아다녔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본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중구민들과 당원을 믿는다. 중구민의 결집이 곧 이은권의 승리이고 박근혜 정부의 승리라 확신한다. 신뢰와 의리의 정치로 우리 중구민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주요 공약에 대해 알고 싶다.

첫째, 활력 넘치는 "경제중심도시 청춘중구"를 만들겠다.

보문산에 대전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쇠락한 중구경제에 청춘을 돌려 드리겠다. 지금 전망대(보운대) 부근에 서울 남산타워나 부산 용두산 타워 같은 시설을 유치하여 보문산의 상징만이 아닌 대전의 상징탑

을 세워 보문산 개발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려 생각하고 있다.

둘째, 행복여성, 100%공감복지 완성하겠다.

정치의 최우선 가치인 민생복지부분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여성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임신·출산과 보육,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문제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

중구 종합복지지원센터(문화동 일원)를 건립하여 어르신·여성·어린이 모두가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민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근래에 들어서 급작스런 노인인구의 증가, 공적연금제도의 강화 등을 통한 빈곤율을 낮추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직업교육시설 확충,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 청년 실업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청년이 대한민국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구축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활기찬 원도심, 사람이 넘쳐나는 중구를 만들겠다.

원도심 활성화와 사람이 넘쳐나는 청춘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전 중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와 대안?

첫 번째로 구 충남도청사 활용과 중앙로 활성화 방안이라 생각한다.

충남도청사 활용은 중구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이다. 2015년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활용방안이나 매입 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연간 약 60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뿐만 아니라, 일대 상권이 침체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높다.

나는 기본적으로 충남도청사는 첫째 도청이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영구임대나 무상양여를 받아 대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 할 역사적·문화적 공간이라는 대원칙 수립, 둘째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여론 수렴 및 관련정보 공개, 셋째 부지 매입주체를 빠른 시기에 정해 정부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넷째 충남도청이전부지 및 경찰청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대전 원도심 중심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다양한 원도심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어 왔는데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중구는 지난 25~6년간 쇠퇴기를 걸어 왔다. 주민들 원성도 많다.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땜질처방으로는 어떤 터닝포인트를 찾아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재개발이 돼서 중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다른 도시가 한다고 해서 그대로 쫓아가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찾아야 한다. 도시가 오래됐다. 옛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옛 중구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장점

을 살려서 문화 예술 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좋은 보문산을 가지고 있다. 이 보문산을 잘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여기서 경제적인 측면을 살려보자라는 것이 중구가 앞으로 염두에 두고 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예비후보자의 장점은?

부끄럽다. 굳이 장점을 말하자면 '의리', '뚝심', '경험'으로 말할 수 있다. 30여 년을 한결 같이 중구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중구를 지켜왔고,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한 번도 정당을 바꿔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이다. 또한 중구발전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뚝심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다. 끝으로 민선 4기 중구청장으로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폭넓은 중앙 정치인맥은 중구발전에 작은 밀알이 될 것이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한때 정치에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따뜻하게 손잡아주시는 당원동지들과 주민들이 있었고 당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지난날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구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정치불신에 따른 방안?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지금의 정치상황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여 그런 것 같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들만의 위한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행태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정답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통한 새로운 인재들이 저산의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는 각 정당들의 개혁과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인 개개인이 자신을 선택해 준 국민들의 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낮은 자세로 봉사를 한다면 차츰 그 얼었던 마음도 풀어지리라 본다.

이번 총선은 새로운 정치와 낡은 정치의 대결이자 패권정치에 분열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정치혐오 때문에 정치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또다시 국민에게 돌아올 뿐이기 때문에 이번 4.13총선에서 국민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학벨트, 엑스포재창조, 도시철도2호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만큼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충청권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린다.

▲정치철학은?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대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그 자체가 갈등의 원천이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절망과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본다.

지방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뼛속까지 중구사람으로서 대전과 중구발전을 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 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소신과 반대되는 법안에 거수기 노릇은 결코 하지 않겠다

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다만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가의 이익과 민생에 반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지방발전을 우선시하는 입법 활동에 혼신을 다하겠다.

또한, 소통하는 정치, 생활정치, 함께하는 정치로 같이 웃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당장 내 앞의 표만을 의식하고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해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미래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말은?

"청춘 중구"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청



"쇠락한 중구경제 반드시 살려내겠다"

4 · 13 총선을 뛰는 사람들

이은권 대전 중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대전 중구는 충남도청 등 공공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도심의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특히 서대전역이 호남고속철도에서 배제되면서 도심공동화가 더욱 심각하다. 이은권 예비후보는 중구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도심재생사업이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권 예비후보를 만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20대 총선에 출마의 이유를 듣고 싶다.

이은권은 중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평생 중구를 지키며 살 것이다. 선화초, 보문중, 서대전고를 다녔고 30여년을 중구민과 동고동락하며 중구의 발전을 위해 투박투박 걸어왔다. 중구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중구발전의 적임자라고 자부하고 있다.

25년간 쇠퇴를 겪을 걷는 중구에 변곡점을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야 겠다는 소명이 생겼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을 볼 때마다 삶이 고단한 시장 상인들과 청년들의 한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중구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범을 지른 날이 적지 않다.

더 이상 쇠락하는 중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박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중구청장을 지낸 풍부한 행정경험과 폭넓은 중앙정치 인맥을 바탕으로 대전의 중심도시 중구의 영광을 되찾아 오겠다. 특히 과 의리보 지켜온 중구 사랑 30년의 열정으로 골목골목 살핏나게, 구석구석 함께일게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중구민과 국민을 섬기는 지세로 구민과 함께 특심의 열정을 쏟아 '청춘 중구'를 만들어 내겠다.

▲그 동안 총선출마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본인은 누구보다도 중구를 잘 안다. 30년 넘게 우직하게 지역을 심며 왔고, 중구민의 아픔을 함께 하며 지내왔다.

중구는 현재 낡은 프레임에 갇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옛 명성과 영광을 중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요구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낡은 자세로 주민의 맘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함께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일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여다니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 믿고 중구 구석구석 열심히 뛰어다녔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본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중구민들과 당원을 믿는다. 중구민의 결정이 곧 이은권의 승리이고 바로에 정부의 승리라 확신한다. 신뢰와 의리의 정치로 우리 중구민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 낼 것이다.

▲주요 공약에 대해 말고 싶다.

첫째, 함박 넘치는 '경제중심도시 청춘중구'를 만들겠다.

보문산에 대전의 랜드마크 조성하여 쇠락한 중구경제에 청춘을 불러 드리겠다. 지금 전망대(보문대)부근에 서울 남산타워나 부산 용두산 타워 같은 시설을 유치하여 보문산의 상징만이 아닌 대전의 상징탑을 세워 보문산 개발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려 생각하고 있다.

둘째, 행복여성, 100%공감복지 완성하겠다.

정치의 최우선 가치인 민생복지부분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여성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임신 · 출산과 보육,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문제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임과 가정이 양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

중구 종합복지지원센터(문화동 임원)를 건립하여 어르신 · 여성 · 어린이 모두가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민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근본에 들어서 급작스런 노인인구의 증가, 공적연금제도의 강화 등을 통한 빈곤율을 낮추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직업교육 시설 확충,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 청년 삼껏의 고집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청년이 대한민국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수있도록 범적제도를 구축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활기찬 원도심, 사람이 넘쳐나는 중구를 만들겠다.

원도심 활성화와 사람이 넘쳐나는 청춘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원근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전 중구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와 대안?

첫 번째로 구 충남도청사 활용과 중앙로 활성화 방안이라 생각한다.

충남도청사 활용은 중구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이다. 2015년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활용방안이나 매입 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연간 약 60억 원에 달하는 유지 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뿐만 아니라, 입대 상권이 침체되고 이에 따른 지역침체이 원성이 높다.

나는 기본적으로 충남도청사는 첫째 도청이 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법법이 조속히 통과 되어 영구임대나 무상양여를 받아 대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함유해야 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대원칙 수립, 둘째 민 · 관 · 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여론 수렴 및 관련정보 공개, 셋째 부지 매입주체를 빠른 시기에 정해 정부예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넷째 충남도청이전부지 및 경찰청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대전 원도심 중심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다양한 원도심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어 왔는데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중구는 지난 25~6년간 쇠퇴기를 겪어 왔다. 주민들 원성도 많다. 눈에 보이는 한 두 가지 땜질처방으로는 어떤 터닝포인트를 찾아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재개발이 되서 중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다른 도시가 한다고 해서 그대로 좇아가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찾아야 한다. 도시가 오래됐다. 옛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옛 중구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좋은 보문산을 가지고 있다. 이 보문산을 잘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여기서 경제적인 측면을 살려보자라는 것이 중구가 앞으로 옛두에 두고 가야할 방향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정치불신에 따른 방안?

됩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됩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지금의 정치상황이 국민들에게 됩음을 주지 못하여 그런 것 같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들만의 위한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행태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엎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게 가장 시급하고 정답이다. 부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통한 새로운 인재들이 저산의 소신대로 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는 각 정당들의 개혁과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인 개개인이 자신을 선택해 준 국민들의 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낡은 지세로 정사를 한다면 차츰 그 영엎여 마음도 돌어지리라 본다.

이번 총선은 새로운 정치와 낡은 정치의 대결이지 과권정치에 변명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정점이 될 것이다.

정치혐오 때문에 정치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에 돌아올 뿐이기 때문에 이번 4.13총선에서 국민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전광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학벨트, 엑스포재창조, 도시철도2호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점심한 만큼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총통권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린다.

▲정치철학은?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대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그지혀가 갈등의 원천이요, 야아 할 것 없이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됩망과 불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본다.

지방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뼛속까지 중구사람으로서 대전과 중구발전을 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 담의 담론이기 때문에 소신과 반대되는 법안에 거수기 노릇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다만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가의 이익과 민생에 반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지방발전을 우선시하는 입법 활동에 혼신을 다하겠다.

또한, 소통하는 정치, 생활정치, 함께하는 정치로 같이 웃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당장 내 앞의 표만을 의식하고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해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미래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말은?

'청춘 중구'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청춘이라는 말에는 도전과 용기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쇠락한 중구에 활력을 불어넣어 꿈과 희망이 있는 중구, 삼맛나는 중구, 역동적인 중구를 만들겠다.

그래나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은권에게 힘을 모아 달라. 특심과 의리로 지켜온 오직 한길 중구사랑 30년, 더 낡은 지세로 중구민을 섬기고 모든 것을 바쳐 골목골목 살핏나게 구석구석 함기차게 중구에 청춘을 불러 드리겠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대전투데이> 2016년 1월 29일자 3면

춘이라는 말에는 도전과 용기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쇠락한 중구에 활력을 불어넣어 꿈과 희망이 있는 중구, 살맛나는 중구, 역동적인 중구를 만들겠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은권에게 힘을 모아 달라. 뚝심과 의리로 지켜온 오직 한길 중구사랑 30년, 더 낮은 자세로 중구민을 섬기고 모든 것을 바쳐 골목골목 살맛나게 구석구석 활기차게 중구에 청춘을 돌려 드리겠다.

"청춘의 열정 넘치는 따뜻한 중구건설"

이은권, 네 번째 '청춘중구프로젝트'로 사회복지정책 발표

4일 이은권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유천동 선거사무소에서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민생복지 정책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은권 후보는 민생복지 분야 정책으로 〔맞춤형 복지 확대, 여성이 행복한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로 중구 구민과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 준비에 최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은권 후보님, 우리 장애인들에게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신 장애인 한 분과 대화를 소개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다.

사후조차적인 복지 정책이 아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차단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대한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청춘의 열정 넘치는 따뜻한 중구건설"

이은권, 네 번째 '청춘중구프로젝트'로 사회복지정책 발표



4일 이은권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유천동 선거사무소에서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민생복지 정책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은권 후보는 민생복지 분야 정책으로 〔맞춤형 복지 확대, 여성이 행복한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선진복지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로 중구구민과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 준비에 최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은권 후보님, 우리 장애인들에게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신 장애인 한 분과 대화를 소개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다.

사후조차적인 복지 정책이 아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차단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대한 수혜자들이 만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2016년 2월 5일자 2면

수서발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증편 촉구 서명운동’ 호응

이은권 새누리당 대전중구당원협의회장, 설 연휴 4일 동안 서대전역서 전개

새누리당 중구당원협의회(위원장 이은권)는 서대전역 광장에서 지난 6일(토)~10일(수)까지 연휴 기간 동안 서대전역 KTX 증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왔다.

지난 4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호남선 KTX의 운행의 걸림돌로 지적된 서대전~논산 간 직선화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장기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반기 확정 고시 전에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새누리당 중구당원협의회(위원장 이은권)은 유인물을 직접 나누어 주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고,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냐는 질책도 듣고, 그래도 조그마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라는 격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중구당원협의회(위원장 이은권)은 현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치권을 포함한 대전시, 시민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여론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전했다.

수서발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증편 촉구 서명운동’ 호응

이은권 새누리당 대전중구당원협의회장, 설 연휴 4일동안 서대전역서 전개



새누리당 중구당원협의회(위원장 이은권)는 서대전역 광장에서 지난 6일(토)~10일(수)까지 연휴 기간 동안 서대전역 KTX 증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왔다.

지난 4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호남선 KTX의 운행의 걸림돌로 지적된 서대전 ~ 논산 간 직선화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장기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반기 확정 고시 전에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새누리당 중구당원협의회(위원장 이은권)은 유인물을 직접 나누어 주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고,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냐는 질책도 듣고, 그래도 조그마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라는 격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중구당원협의회(위원장 이은권)은 현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치권을 포함한 대전시, 시민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여론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2016년 2월 12일자 2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28
언 론 사	**주식회사 경북매일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대표이사 최윤채
심의대상기사	경북매일 2015년 12월 15일자 3면 「울진 등 지역구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2016년 1월 21일자 3면 「강석호 의원, 농업인 실용교육 격려」, 2016년 1월 22일자 3면 「울진~분천 경북순환철건설 본격화」, 2016년 2월 1일자 3면 「화재 현장 찾은 강석호 의원 "郡과 신속한 복구 협의" 약속」, 2016년 2월 3일자 2면「영덕군 도·군의원들 강석호 의원 지지선언」 및 「강석호 의원 "더 많은 일할 수 있게 기회 달라"」, 2016년 2월 4일자 2면 「"울진 SOC 마무리 할 역량 갖춘 사람 필요"」, 2016년 2월 11일자 2면 「강석호 "지역발전 위해 모든 능력 발휘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석호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울진 등 지역구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강석호 의원, 4개 현안사업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 의원은 14일 울진 등 지역구의 4개 현안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선 영양군 시가지 복개구조물 보수를 위해 3억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황용천 복개구조물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430m 구간에서 포장과 방수를 새로 하



울진 등 지역구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강석호 의원, 4개 현안사업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의원은 14일 울진 등 지역구의 4개 현안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선 영양군 시가지 복개구조물 보수를 위해 3억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황용천 복개구조물이 준공된지 20년이 지나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430m 구간에서 포장과 방수를 새로 하기 위해 총 사업비 15억원이 책정됐다. 봉화군 연화교 재가설을 위해서도 3억원이 지원된다.

강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가 형편이 어려운 군재정에 보탬이 돼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소규모 현안사업들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경북매일> 2015년 12월 15일자 3면

기 위해 총 사업비 15억원이 책정됐다. 봉화군 연화교 재가설을 위해서도 3억원이 지원된다.

강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가 형편이 어려운 군재정에 보탬이 돼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소규모 현안사업들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의원, 농업인 실용교육 격려

영덕 영농교육현장 찾아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이 영덕 지역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교육현장을 찾아 한파 속에서도 새로운 농법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부농의 희망을 전했다.

강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 복숭아 실용교육장을 방문,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과 신품종, 신기술, 기후변화, 농업인력감소 등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농업교육은 농가소득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실용교육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영덕농업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설계하고 우리 농업을 강한 체질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면서 "강풍과 한파로 피해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가자"고 격려했다.



강석호 의원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생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석호의원실 제공

강석호 의원, 농업인 실용교육 격려

영덕 영농교육현장 찾아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이 영덕 지역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교육현장을 찾아 한파속에서도 새로운 농법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부농의 희망을 전했다.

강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 복숭아 실용교육장을 방문,"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과 신품종, 신기술, 기후변화, 농업인력감소 등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농업교육은 농가소득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실용교육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영덕농업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설계하고 우리농업을 강한체질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면서 "강풍과 한파로 피해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가자"고 격려했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경북매일> 2016년 1월 21일자 3면

울진~분천 경북순환철 건설 본격화

강석호 의원 28일 대토론회

울진~분천 경북순환철도 건설이 본격화된다.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북순환철도 조기구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계명대학교 김기혁 공과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철도전문대학원장과 조남건 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김향자 한국문화과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이 발제를 한다.

또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와 철도가 하나도 없는 울진에 건설 중인 동해중부선 철도와 연계하여 울진과 봉화(분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놓여진다면 경북 내륙과 해안을 완주하는 경북순환철도가 완성될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울진~분천 경북순환철 건설 본격화

강석호 의원 28일 대토론회

울진~분천 경북순환철도 건설이 본격화된다.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북순환철도 조기구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계명대학교 김기혁 공과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철도전문대학원장과 조남건 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김향자 한국문화과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이 발제를 한다.
또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와 철도가 하나도 없는 울진에 건설 중인 동해중부선 철도와 연계하여 울진과 봉화(분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놓여진다면 경북 내륙과 해안을 완주하는 경북순환철도가 완성될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경북매일> 2016년 1월 22일자 3면

화재 현장 찾은 강석호 의원 "郡과 신속한 복구 협의"약속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31일 오전 울진어시장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현장을 돌아보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강 의원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군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진군은 상인들과 구정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군민들을 위해 임시로 몽골텐트를 설치, 오후부터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영업을 위해 청소를 마치고 건물보수에 들어갔다.



화재 현장 찾은 강석호 의원 "郡과 신속한 복구 협의" 약속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31일 오전 울진어시장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현장을 돌아보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강 의원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군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진군은 상인들과 구정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군민들을 위해 임시로 몽골텐트를 설치, 오후부터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영업을 위해 청소를 마치고 건물보수에 들어갔다. 울진/주현석기자 hsjoo@kbmaeil.com

31일 오전 울진어시장 화재현장을 찾은 강석호(앞줄 오른쪽 세번째) 의원이 화재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강석호의원실 제공

<경북매일> 2016년 2월 1일자 3면

영덕군 도·군의원들 강석호 의원 지지선언

"8년간 영덕 발전에 큰 기여"

경북도의회 영덕군 현직 도의원과 영덕군의회 현직 군의원들이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황재철·조주홍 경북도의원과 손달희·하병두·박기조·김성호·최재열·김은희 의원 등 영덕군의회 의원들은 2일 오후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덕군을 위한 변화의 마무리와 미래를 위해 강석호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뜻을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년간 우리 영덕은 골목 구석구석에서 항만의 모습까지 바뀌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변화를 목격했다"면서 "그 중심에 강석호 의원이 함께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을 비롯해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지금 우리 지역은 변화의 토대를 마무리할 수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이제 분노와 증오가 아닌 상생과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는 오직 강석호 국회의원만이 해낼 수 있으며, 이처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온 국회의원은 일찍이 없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영덕군 도·군의원들 강석호 의원 지지선언

"8년간 영덕 발전에 큰 기여"

경북도의회 영덕군 현직 도의원과 영덕군의회 현직 군의원들이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황재철·조주홍 경북도의원과 손달희·하병두·박기조·김성호·최재열·김은희 의원 등 영덕군의회 의원들은 2일 오후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덕군을 위한 변화의 마무리와 미래를 위해 강석호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뜻을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년간 우리 영덕은 골목 구석구석에서 항만의 모습까지 바뀌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변화를 목격했다"면서 "그 중심에 강석호 의원이 함께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을 비롯해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면서 "지금 우리 지역은 변화의 토대를 마무리할 수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이제 분노와 증오가 아닌 상생과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는 오직 강석호 국회의원만이 해낼 수 있으며, 이처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온 국회의원은 일찍이 없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경북매일> 2016년 2월 3일자 2면

강석호 의원 "더 많은 일할 수 있게 기회 달라"

봉화군서 기자간담회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일 봉화군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비후보 등록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봉화군청에서 지역 기자들을 만나 "봉화군은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와 백두대간수목원의 시범운영, 봉화 산촌빌리지 조성사업은 물론 울진~분천간 경북순환철도 등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3선으로 만들어 '더 힘 있는 일꾼'으로 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이어 봉화신용협동조합 제39회 정기총회와 봉화군 농업경영인회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 현장을 지키는 농업경영인들이 자랑스럽다"며 "연이은 FTA 타결 등 어려운 농업 환경에 대국민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자신이 보유한 지식, 기술, 경영 노하우를 이웃 농업인에게 전해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강구하자"고 강조했다.



강석호 의원 "더 많은 일할 수 있게 기회 달라"

봉화군서 기자간담회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일 봉화군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비후보 등록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봉화군청에서 지역 기자들을 만나 "봉화군은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와 백두대간수목원의 시범운영, 봉화 산촌뉴딜리지 조성사업은 물론 울진~분천간 경

북순환철도 등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3선으로 만들어 "더 힘 있는 일꾼"으로 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이어 봉화신용협동조합 제39회 정기총회와 봉화군 농업경영인회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 현장을 지키는 농업경영인들이 자랑스럽다"며 "연이은 FTA 타결 등 어려운 농업 환경에 대국민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자신이 보유한 지식, 기술, 경영 노하우를 이웃 농업인에게 전해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강구하자"고 강조했다. /박종희기자 /박순원기자

2일 강석호 의원이 봉화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장을 찾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매일> 2016년 2월 3일자 2면

"울진 SOC 마무리할 역량 갖춘 사람 필요"

강석호 의원 울진서 선거운동

지난 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일 울진 죽변시장과 후포시장 등을 방문, 주민들과 현안에 대한 즉석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죽변면 경로회관과 죽변면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 및 관공서, 죽변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울진군민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죽변시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시장에 사람이 넘쳐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길 소망한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앞서, 울진군청에서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다면, 36번 도로와 동해중부선 등 SOC 분야를 마무리짓고 농어업과



"울진 SOC 마무리 할 역량 갖춘 사람 필요"

강석호 의원 울진서 선거운동

지난 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일 울진 죽변시장과 후포시장 등을 방문, 주민들과 현안에 대한 즉석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죽변면 경로회관과 죽변면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 및 관공서, 죽변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울진군민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죽변시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시장에 사람이 넘쳐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길 소망한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앞서, 울진군청에서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다면, 36번 도로와 동해중부선 등 SOC 분야를 마무리짓고 농어업과 관광 등 비SOC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해 군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일 울진 죽변시장과 후포시장 등을 방문,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후포마리나항 사업과 금강송에코리움, 죽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등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경북매일> 2016년 2월 4일자 2면

관광 등 비SOC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해 군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포마리나항 사업과 금강송에코리움, 죽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등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지역발전 위해 모든 능력 발휘할 것"

"3선의 힘있는 일꾼 기회달라" 영덕서 '출마의 변' 기자회견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은 지난 5일 영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강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지난 8년간 지역구 발전을 위해 영덕·영양·봉화·울진군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다"며 "교통오지 오명을 들어왔던 경북 북부 및 동해안의 지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SOC 성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진행 중인 각종 도로, 철도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 지역은 더 이상 '오지'로 불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울창한 백두대간과 푸른 동해바다를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해 사통팔달의 산림생태문화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원전 문제와 관련해 "영덕군은 경제적 효과를 원하는 군민들과 청정 영덕을 지키자는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영덕군과 정부가 잘 봉합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적 역할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경북 동해안이 힘차게 웅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한 이때, 3선의 '더 힘 있는 일꾼'이 되어 모든 역량과 능력을 발휘해서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과 울진군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호 "지역발전 위해 모든 능력 발휘할 것"

"3선의 힘있는 일꾼 기회달라" 영덕서 '출마의 변' 기자회견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지난 5일 영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강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지난 8년간 지역구 발전을 위해 영덕·영양·봉화·울진군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다"며 "교통오지 오명을 들어왔던 경북 북부 및 동해안의 지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SOC 성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진행 중인 각종 도로, 철도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 지역은 더 이상 '오지'로 불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울창한 백두대간과 푸른 동해바다를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해 사통팔달의 산림생태문화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원전 문제와 관련해 "영덕군은 경제적 효과를 원하는 군민들과 청정 영덕을 지키자는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영덕군과 정부가 잘 봉합해 나갈수 있도록 가교적 역할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경북 동해안이 힘차게 웅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한 이때, 3선의 '더 힘 있는 일꾼'이 되어 모든 역량과 능력을 발휘해서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과 울진군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덕/이동구기자

<경북매일> 2016년 2월 11일자 2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29
언 론 사	**현대일보 주식회사** 경기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 SK 테크노파크 D동 1214호 대표이사 권오륜
심의대상기사	현대일보 2015년 12월 17일자 2면 「주대준 "일자리 넘치는 광명으로"」, 2016년 1월 18일자 14면 「"공직·학자 경험살려 최고 도시 만들 것"」, 2016년 2월 3일자 14면 「'국가 사이버안보 고등연구원' 설립 협조 요청」, 2016년 2월 4일자 14면 「주대준 예비후보, 적십자 '희망나눔명패' 받아」, 2016년 2월 11일자 14면 「주대준 예비후보, 설 연휴 가족과 시장 방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주대준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주대준 "일자리 넘치는 광명으로"

주대준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서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5일 등록을 마쳤다.

주대준 예비후보는 카이스트 공학박사로 보금자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하여 4만불 시대를 여는 부자광명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와 굳은 신념으로 광명 시민을 섬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광명이 잘 살면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며 일자리 넘치는 광명으로 바꿔 놓겠다는 포부를 밝

주대준 "일자리 넘치는 광명으로"



주대준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서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5일 등록을 마쳤다.

주대준 예비후보는 카이스트 공학박사로 보금자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하여 4만불 시대를 여는 부자광명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와 굳은 신념으로 광명 시민을 섬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광명이 잘 살면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며 일자리 넘치는 광명으로 바꿔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광명시를 가슴에 품고 충성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며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지역 주민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 예비후보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 고려대 경영학사 졸업, 미국NPS(정보시스템)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박사, 카이스트 부총장, 선린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사이버보안 학회장을 맡고 있다.

김용주 기자 kyj@hyundaiilbo.com

<현대일보> 2015년 12월 17일자 2면

혔다. 또 "광명시를 가슴에 품고 충성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며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지역 주민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 예비후보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 고려대 경영학사 졸업, 미국NPS(정보시스템)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박사, 카이스트 부총장, 선린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사이버보안학회장을 맡고 있다.

"공직·학자 경험살려 최고 도시 만들 것"

주대준 새누리 광명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주대준 새누리당 광명을 예비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 14일 오후 3시 소하동 가리대 사거리 대교빌딩 304호에서 열렸다.

이날 사무실 개소식에는 주대준 예비후보를 비롯, 홍문종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전재희 전 국회의원, 정은숙·이정만·이홍균 광명(갑) 예비후보, 진선수 구로(갑) 예비후보, 권태진 경기도의원 및 7백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홍문종 의원은 축사에서 "주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아주 뛰어난 분이셨다"면서 "여기에 정보통신 등 IT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남다른 능력으로 카이스트에서 공학박사로 교수와 부총장, 선린대학교 총장을 지내는 등 훌륭한 분으로 이번 국회의원 당선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우택 의원도 축사에서 "손인춘 의원과 가리대를 방문할 정도로 광명발전에 관심이 많고, 윤항열 차관 밑에서 일을 배워 광명에 애정이 넘친다며 힘 있는 새누리당 후보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 예비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달라"며 "말로만 공약을 하는 후보가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대준 예비후보는 "이렇게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드린다"며 "공직자와 학자의 경험을 살려 광명지역을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주대준 새누리당 광명을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 14일 광명시 소하동에서 열렸다. 오른쪽 부터 주대준 예비후보, 정우택 국회의원, 홍문종 국회의원, 전재희 전 국회의원

"공직·학자 경험살려 최고 도시 만들것"

주대준 새누리 광명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주대준 새누리당 광명을 예비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 14일 오후 3시 소하동 가리대 사거리 대교빌딩 304호에서 열렸다.

이날 사무실 개소식에는 주대준 예비후보를 비롯, 홍문종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전재희 전 국회의원, 정은숙·이정만·이홍균 광명(갑) 예비후보, 진선수 구로(갑) 예비후보, 권태진 경기도의원 및 7백여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홍문종의원은 축사에서 "주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아주 뛰어난 분이셨다"면서 "여기에 정보통신 등 IT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남다른 능력으로 카이스트에서 공학박사로 교수와 부총장, 선린대학교 총장을 지내는 등 훌륭한 분으로 이번 국회의원 당선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우택의원도 축사에서 "손인춘 의원과 가리대를 방문할 정도로 광명발전에 관심이 많고, 윤항열 차관 밑에서 일을 배워 광명에 애정이 넘친다며 힘 있는 새누리당 후보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 예비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달라"며 "말로만 공약을 하는 후보가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대준 예비후보는 "이렇게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드린다"며 "공직자와 학자의 경험을 살려 광명지역을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일류광명을 향한 발을 내딛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다. 광명의 무한한 잠재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지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의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한다"며 "이번 국회의원 당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기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광명/김재환 기자 ggkh@nate.com

<현대일보> 2016년 1월 18일자 14면

"일류광명을 향한 발을 내딛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다. 광명의 무한한 잠재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지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의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한다"며 "이번 국회의원 당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기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고등연구원' 설립 협조 요청

주대준 새누리 광명을 예비후보, 남경필 지사 면담

새누리당 주대준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경기도청을 찾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주 예비후보는 남 지사와의 면담에서 광명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 예비후보는 남 지사에게 국가 사이버안보 고등연구원 설립계획을 밝히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주 예비후보는 광명지역에 "국가 사이버안보 고등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광명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모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예비후보는 "사이버보안은 IT산업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며 이를 광명시가 선점한다면 활기 넘치는 광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덧붙여 주 예비후보는 "광명에 설립하게 될 국가 사이버안보 고등연구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구축되는 스타트업 중심의 정보보안산업 육성과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목표로 하는 융합보안지원센터(가칭)과는 차별화되며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전문조직"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와 광명의 국가 사이버보안 고등연구원을 양대 축으로 하여 사이버안보와 IT를 국가 핵심전략과 정부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남 지사는 국가 사이버보안 고등연구원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와의 차별점이 부각된 점을 잘 이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사이버보안 고등연구원이 광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하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의 실·국장과의 회의를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광명시 소식 이모저모

'국가 사이버안보 고등연구원' 설립 협조 요청

주대준 새누리 광명을 예비후보, 남경필지사 면담

새누리당 주대준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경기도청을 찾아 남경필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주 예비후보는 남 지사와의 면담에서 광명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 예비후보는 남 지사에게 국가 사이버안보 고등연구원 설립계획을 밝히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주 예비후보는 광명지역에 "국가 사이버안보 고등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광명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모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예비후보는 "사이버보안은 IT산업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며 이를 광명시가 선점한다면 활기 넘치는 광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덧붙여 주 예비후보는 "광명에 설립하게 될 국가 사이버안보 고등연구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구축되는 스타트업 중심의 정보보안산업 육성과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목표로 하는 융합보안지원센터(가칭)과는 차별화되며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전문조직"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와 광명의 국가 사이버보안 고등연구원을 양대 축으로 하여 사이버안보와 IT를 국가 핵심전략과 정부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남 지사는 국가 사이버보안 고등연구원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와의 차별점이 부각된 점을 잘 이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사이버보안 고등연구원이 광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하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의 실·국장과의 회의를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광명시재환 기자 ggch@nate.com

<현대일보> 2016년 2월 3일자 14면

주대준(광명을) 예비후보, 적십자 '희망나눔명패' 받아

"고아 시절 믿었던 나눔의 가치, 그 마음 잃지 않겠다"

주대준 새누리당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총회에 방문했다.

광명시지구협의회는 1979년 광명봉사회를 결성을 시작으로 2001년 정식으로 지구협의회를 결성한 단체이다. 이후 광명시지구협의회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결산보고와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또한 축하 케이크 절단식과 단체 기념사진 촬영, 다과회도 같이 진행하며 봉사로 수고하는 단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주 예비후보는 희망나눔명패를 수여받았다.

희망나눔명패란 적십자가 희망풍차 명패를 달아 작은 나눔을 확산시키려 적십자 희망풍차 명패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정기후원을 통해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과 인사에게 적십자 희망풍차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임을 인증하기 위해 수여하는 명패다.

그렇기에 고아로 자라면서도 항상 나눔의 가치를 잃지 않았던 주 예비후보에게는 더욱 뜻 깊을 수밖에 없었던 명패였다.

주 예비후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성공한 후 이웃과 나누고자 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박수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광명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소식 이모저모

주대준 예비후보, 적십자 '희망나눔명패' 받아

〈광명 을〉

"고아 시절 믿었던 나눔의 가치, 그 마음 잃지 않겠다"

주대준 새누리당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총회에 방문했다.

광명시지구협의회는 1979년 광명봉사회를 결성을 시작으로 2001년 정식으로 지구협의회를 결성한 단체이다. 이후 광명시지구협의회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결산보고와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또한 축하 케이크 절단식과 단체 기념사진 촬영, 다과회도 같이 진행하며 봉사로 수고하는 단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주 예비후보는 희망나눔명패를 수여받았다.

희망나눔명패란 적십자가 희망 풍차 명패를 달아 작은 나눔을 확산시키려 적십자 희망풍차 명패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정기후원을 통해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과 인사에게 적십자 희망풍차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임을 인증하기 위해 수여하는 명패다.

그렇기에 고아로 자라면서도 항상 나눔의 가치를 잃지 않았던 주 예비후보에게는 더욱 뜻 깊을 수밖에 없었던 명패였다.

주 예비후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성공한 후 이웃과 나누고자 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박수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광명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재환 기자 ggcjh@nate.com

<현대일보> 2016년 2월 4일자 14면

주대준(광명을) 예비후보, 설 연휴 가족과 시장 방문

광명전통시장·하안동 골목시장 찾아

새누리당 주대준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설날 연휴를 맞아 광명전통시장과 하안동 골목시장을 방문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렇게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다보면 명절 물가는 물론, 광명의 민심과 경제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면서 시장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주 예비후보도 이날은 손녀와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가 꼼꼼히 장을 보기도 했다.

시장을 둘러보며 주 예비후보는 "결국 지역경제활성화는 시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예비후보는 "경쟁력과 잠재력이 가득한 광명의 전통시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하안동에는 여러 맛집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광명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자부심'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웹이나 투어맵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며 공식블로그를 통해 오는 길과 주차를 안내하기도 한다.



광명시 소식 이모저모

주대준 예비후보, 설 연휴 가족과 시장 방문

〈광명 을〉

광명전통시장·하안동 골목시장 찾아

새누리당 주대준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설날 연휴를 맞아 광명전통시장과 하안동 골목시장을 방문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렇게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다보면 명절 물가는 물론, 광명의 민심과 경제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면서 시장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주 예비후보도 이날은 손녀와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가 꼼꼼히 장을 보기도 했다.

시장을 둘러보며 주 예비후보는 "결국 지역경제활성화는 시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예비후보는 "경쟁력과 잠재력이 가득한 광명의 전통시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하안동에는 여러 맛집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광명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자부심'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웹이나 투어맵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며 공식블로그를 통해 오는 길과 주차를 안내하기도 한다.

광명/김재환 기자 ggcjh@nate.com

<현대일보> 2016년 2월 11일자 14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30
언 론 사	**주식회사 경인매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안산법조타운 8층 대표이사 김형근
심의대상기사	경인매일 2016년 1월 4일자 6면 「안산시민 모두가 희망의 한해 되길」, 2016년 1월 15일자 6면 「“우수 소공인들 육성 제도 마련해야”」, 2016년 1월 29일자 14면 「소사원시선 문제해결 나섰다」, 2016년 2월 1일자 4면 「‘야무지고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 평판」, 2016년 2월 4일자 6면 「“분열 아닌 포용•통합의 정치 실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산시민 모두가 희망의 한해 되길

존경하는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언론발전을 위해 지난 24년간 타협 없는 정론직필로 일관한 경인매일 애독자 여러분. ‘국민과 더불어’, ‘민생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 인사드립니다.

희망의 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움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6년은 안산시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한 해입니다. 안산시는 무한한


안산시민 모두가 희망의 한해 되길

존경하는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언론발전을 위해 지난 24년간 타협없는 정론직필로 일관한 경인매일 애독자 여러분.
'국민과 더불어', '민생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 인사드립니다.
희망의 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안산시민 여러분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움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6년은 안산시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한 해입니다. 안산시는 무한한 기회와 잠재력을 가진 도시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수와 특히 젊은층의 이탈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산시의 미래가 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곧 안산시의 쇠락을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2016년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젊고 역동찬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산스마트허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행운이 안산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깃들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가 형통하는 한 해로 만드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김현
국회의원

<경인매일> 2016년 1월 4일자 6면

기회와 잠재력을 가진 도시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수와 특히 젊은 층의 이탈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산시의 미래가 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곧 안산시의 쇠락을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2016년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젊고 역동찬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산스마트허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행운이 안산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깃들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가 형통하는 한 해로 만드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수 소공인들 육성 제도 마련해야"

사단법인 경기소공인진흥회 한연순 회장 취임식·C.I 선포식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축사·공로자들 표창… 지원 등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1월 13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경기소공인진흥회 한연순 회장 취임식 및 C.I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공로자들을 표창했다.

김현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소공인 여러분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중심사회를 만드는 데 전폭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소공인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우선이며 앞으로 소공인들의 특성에 맞는 경력발전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 의원은 그동안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 상품개발에 공로가 있는 시민과 학생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각종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사업 아이템 개발 또는 창업 사업체를 운영중인 소공인 또는 예비 소공인들로 그 동안의 성과와 공로를 인정해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날 열린 사단법인 경기소공인진흥회장 취임식 및 C.I 선포식에는 김현 의원을 비롯해 부좌현 의원과 김철민 전 안산시장 최동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수 소공인들 육성 제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1월 13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경기소공인진흥회 한연순 회장 취임식 및 C.I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공로자들을 표창했다.

김현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소공인 여러분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중심사회를 만드는 데 전폭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소공인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체계적인 제도마련이 우선이며 앞으로 소공인들의 특성에 맞는 경력발전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 의원은 그동안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 상품개발에 공로가 있는 시민과 학생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각종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사업 아이템 개발 또는 창업 사업체를 운영중인 소공인 또는 예비 소공인들로 그 동안의 성과와 공로를 인정해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날 열린 사단법인 경기소

사단법인 경기소공인진흥회 한연순회장 취임식·C.I 선포식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축사·공로자들 표창…지원 등 강조

공인진흥회장 취임식 및 C.I 선포식에는 김현 의원을 비롯해 부좌현 의원과 김철민 전 안산시장 최동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산=윤성민 기자

<경인매일> 2016년 1월 15일자 6면

소사원시선 문제해결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공사지연 등 선부역 건설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1월 28일 오전 10시 소사원시복선전철의 선부역사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진행상황을 둘러보고,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소사원시복선전철(이하 소사원시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도록 촉구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선부역사 광장조성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는 2016년까지 소사원시선 완공을 공언했지만, 2015년 말 현재 소사원시선 공정률은 54.4%에 불과하며, 국토교통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2018년 상반기 준공이 예상된다'며 완공시점이 2년 가까이 늦춰졌다.

이에 김현 의원은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사원시선의 조기완공을 위해 직접 선부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석찬 이레일주식회사 상무, 최대식 ㈜유신 단장 및 공사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2년 가까이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김석찬 상무는 "타 지역에서 등지에서 공사를 위해 매입해야 할 사유지의 매입과정이 늦어져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석수골역과 선부역은 교통으로 불편을 겪는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조기완공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조기완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고,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현 의원은 "추운 날씨로 인해 공사관계자들이 각종 사고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반을 기해주길 바라며, 소사원시선에 대한 안산시민들의 기대를 꼭 충족시켜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소사원시선 문제해결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공사 지연 등 선부역 건설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1월 28일 오전 10시 소사원시복선전철의 선부역사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진행상황을 둘러보고,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소사원시복선전철(이하 소사원시선) 사업이 제대로 될 수도록 촉구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선부역사 광장조성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는 2016년까지 소사원시선 완공을 공언했지만, 2015년 말 현재 소사원시선 공정률은 54.4%에 불과하며, 국토교통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2018년 상반기 준공이 예상된다'며 완공시점이 2년 가까이 늦춰졌다.

이에 김현 의원은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사원시선의 조기완공을 위해 직접 선부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석찬 이레일주식회사 상무, 최대식 ㈜유신 단장 및 공사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2년 가까이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김석찬 상무는 "타 지역에서 공사를 위해 매입해야 할 사유지의 매입과정이 늦어져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석수골역과 선부역은 교통으로 불편을 겪는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조기완공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며, 조기완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고,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현 의원은 "추운 날씨로 인해 공사관계자들이 각종 사고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반을 기해주길 바라며, 소사원시선에 대한 안산시민들의 기대를 꼭 충족시켜주길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김도윤 기자

<경인매일> 2016년 1월 29일자 14면

‘야무지고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 평판

본사손님 스토리 /더민주당 김현 예비후보(안산단원갑)

★김현 의원은?

김현 국회의원은 1965년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사학과(84학번)를 졸업했다. 정치입문계기는 1988년 재야인사 98인과 함께 학생대표로 평민당에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8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낸 정치인이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여성 최초이자 최장수 춘추관장을 역임했으며, 제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6개 상임위(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당직인 민주통합당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을 맡아 전방위적인 의정활동과 당무활동을 전개해왔다.

★두 번째로 본보를 찾은 손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안산 단원갑 지역구에서 고영인 단원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예상되는 인물이다.

최연소·최장수 춘추관장 역임…
19대 비례대표로 입성
6개 상임위·18개 특위 거치며
왕성한 의정활동 펼쳐

김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후 “깨끗하고 멋진 경선과정을 통해 안산시민 여러분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재야인사 98인과 함께 학생대표로 평민당에 입당하면서 김현의원의 28년에 걸친 정치인생은 시작됐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부장, 부국장을 거쳐,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실 행정관, 춘추관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당, 언론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김현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춘추관장이자 최연소, 최장수 춘추관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2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 의원은 풍부한 국정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인 역할을 했으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6개 상임위 위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평창올림픽 및 국제경기 지원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세월호 특별대책위원회, 보육특별위원회 등 18개에 달하는 당내 특위 및 진상조사단 활동에 참가하는 등 ‘야무지고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김현 의원은 20대 총선 출마이유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천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피폐해진 서민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며, 안산단원갑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풍부한 일자리 창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 복잡한 주차문제 등을 해결한 주거환경 개선, 신안선

산을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조성, 공평하고 평등한 복지체계 구축 등 단원갑 지역 내 산재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제2의 도약을 책임질 수 있는 야무진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며,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반드시 현실화시켜 안전한 안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산, 안정된 좋은 일자리가 많아 이사오고 싶은 명품도시 안산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또한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이 감내했어야 할 아픔과 슬픔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며, 여성정치인만이 지닌 특유의 섬세함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원갑에서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을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무지고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 평판

본사손님 스토리 / 더민주당 김 현 예비후보(안산단원갑)

★김현의원은?

김현 국회의원은 1965년 강원도 강릉출신으로 한양대학교 사학과(84학번)를 졸업했다.

정치입문계기는 1988년 제야인사 98인과 함께 학생대표로 평민당에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8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낸 정치인이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내 여성최초이자 최장수 춘추관장을 역임했으며, 제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6개 상임위(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광장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당직인 민주통합당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을 맡아 정방위적인 의정활동과 당무활동을 전개해왔다.

★두 번째로 본보를 찾은 손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안산 단원갑 지역구에서 고정인 단원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예상되는 인물이다.

김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후 "예곳하고 멋

최연소 · 최장수 춘추관장 역임…19대 비례대표로 입성

6개 상임위 · 18개 특위 거치며 왕성한 의정활동 펼쳐

진 경선과정을 통해 안산시민 여러분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제야인사 98인과 함께 학생대표로 평민당에 입당한뒤서 김현의원의 28년에 걸친 정치인생은 시작됐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부장, 부국장을 거쳐, 2003년 노무현대통령 참여내 보도지원비서관실 행정관, 춘추관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당, 언론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김현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춘추관장이자 최연소, 최장수 춘추관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2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 의원은 풍부한 국정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인 역할을 했으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6개 상임위 위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광장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세월호 특별대책위원회, 보육특별위원회 등 18개에 달하는 당내 특위 및 진상조사단 활동에 참가하는 등 '야무지고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김현 의원은 20대 총선 출마이유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천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피폐해진 서민경제와 안생을 되살리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며,

안산단원갑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풍부한 일자리 창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 복잡한 주차문제 등을 해결한 주거환경 개선, 신안산선을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조성, 공평하고 평등한 복지체계 구축 등 단원갑 지역 내 산재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제2의 도약을 책임질 수 있는 야무진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며,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반드시 현실화시켜 안전한 안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산, 안정된 좋은 일자리가 많아 이사오고 싶은 명품도시 안산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또한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이 감내했어야 할 아픔과 슬픔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며, 여성정치인만이 지닌 특유의 섬세함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원갑에서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을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민기자

<경인매일> 2016년 2월 1일자 4면

"분열 아닌 포용·통합의 정치 실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출마 선언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 살려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3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20대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현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드림안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새누리당 보수정권 8년 동안 후퇴한 민주주의와 무너진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불평등 심화와 역사왜곡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지난 1988년 2월 3일 재야인사 98인과 함께 평민당에 입당하여 근 30여년 동안 더불어민주

당을 지켜온 지킴이로서, 분열이 아닌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안산단원갑에 출마하게 된 배경으로 "안산단원갑의 멈춰버린 발전성장동력을 되살려 안전한 단원갑,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단원갑,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환경으로 이사 오고 싶은 명품 도시 단원갑을 만들어 달라는 안산단원갑 시민들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풍부한 국정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야무지고 똑 부러진 의정활동을 토대삼아 청년층 유입을 위한 풍부한 일자리 창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 복잡한 주차문제 등을 해결한 주거환경 개선, 신안선산을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환경 조성, 공평하고 평등한 복지체계 구축 등 지역 내 산적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은 안산단원갑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같은 정치인이며, 지역내 현안은 야무지게 해결하고 시민의 아픔은 따뜻하게 감싸주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 전인 오전 8시 30분에 원곡동 현충원을, 8시 50분에는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참배를 통해 총선필승을 다짐했으며, 오전 9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떡국나눔행사에 참석하고 오전 10시 선부고등학교 졸업식을 찾아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월 2일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단원구 선부동 서울프라자 709호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다.

"분열 아닌 포용 · 통합의 정치 실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출마 선언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 살려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3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20대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현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드림안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새누리당 보수정권 8년 동안 후퇴한 민주주의와 무너진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불평등 심화와 역사왜곡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의원은 지난 1988년 2월 3일 재야인사 98인과 함께 평민당에 입당하여 근 30여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온 지킴이로서, 분열이 아닌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안산단원갑에 출마하게 된 배경으로 "안산단원갑의 멈춰버린 발전성장동력을 되살려 안전한 단원갑,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단원갑,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환경으로 이사오고 싶은 명품 도시 단원갑을 만들어 달라는 안산단원갑 시민들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풍부한 국정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야무지고 똑부러진 의정활동을 토대삼아 청년층 유입을 위한 풍부한 일자리 창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 복잡한 주차문제 등을 해결한 주거환경 개선, 신안선산을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환경 조성, 공평하고 평등한 복지체계 구축 등 지역 내 산적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은 안산단원갑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같은 정치인이며, 지역내 현안은 야무지게 해결하고 시민의 아픔은 따뜻하게 감싸주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 전인 오전 8시 30분에 원곡동 현충원을, 8시 50분에는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참배를 통해 총선필승을 다짐했으며, 오전 9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떡국나눔행사에 참석하고 오전 10시 선부고등학교 졸업식을 찾아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월 2일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단원구 선부동 서울프라자 709호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다.

안산=윤성민 기자

<경인매일> 2016년 2월 4일자 6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35
언 론 사	**주식회사 일간경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A-510(청천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대표이사 김상옥
심의대상기사	일간경기 2015년 12월 30일자 7면 「퇴임 앞둔 수원시 제2부시장 "행복했습니다"」, 2016년 1월 12일자 3면 「"정치를 시민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0일자 7면 「"장안구 아파트 환경 바꾸겠다"」, 2016년 2월 16일자 7면 「수원시 더민주당 시·도의원 성명」, 2016년 2월 19일자 3면 「더민주 수원갑 이재준 예비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퇴임 앞둔 수원시 제2부시장 "행복했습니다"

내년 총선 장안지역 출마 준비 중

"수원시에서 일한 지난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헌신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난 2011년 초대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해 만 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재준(50)〈사진〉 부시장의 소회다.

이 부시장은 29일 오전 시 브리핑룸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시의 도시정책·안전교통·환경·공원녹지·기술행정 총괄 업무를 맡았다"며 "땀을 흘린 5년간의 시간이 인생에 있어 행복했고 뒤에서 말없이 도와준 공직자들의 지도 및 시민들의 참여가 수원의 미래를 그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거버넌스(governance, 시민참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부시장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거버넌스 정책이 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 사업과 군 공항 이전 및 광교신도시 조성 등 미래 수원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데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공직자들의 청렴과 헌신에 따라 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말했다.

이 부시장은 "시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을 위해 달려

왔다"며 "시가 많이 깨끗하고 투명해졌다는 시민들의 칭찬이 이를 증명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암시했다.

그는 "수원시정을 떠나지만 수원을 떠나는 것 아니며 더 큰 이재준으로 돌아오겠다"며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시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와 현장에서 거버넌스 정책을 펼치고 싶다"며 퇴임 후 행로를 시사했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 신분으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지난 5년간 많은 문제점들을 봤다. 문제를 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소명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시장은 경북 포항(1965년생)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을 거쳐 1999년부터 협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1998년 신설된 수원시 제2부시장에 영입돼 민선 5기와 6기 5년 동안 수원시 도시정책 분야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이 부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수원 장안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내년 1월 초 공식 퇴임하며 별도의 퇴임식은 갖지 않기로 했다.

퇴임 앞둔 수원시 제2부시장 "행복했습니다"

내년 총선 장안지역 출마 준비 중

"수원시에서 일한 지난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헌신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난 2011년 초대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해 만 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재준(50)<사진>부시장의 소회다.



이 부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 브리핑룸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시의 도시정책 · 안전교통 · 환경 · 공원녹지 · 기술행정 총괄 업무를 맡았다"며 "땀을 흘린 5년간의 시간이 인생에 있어 행복했고 뒤에서 말없이 도와준 공직자들의 지도 및 시민들의 참여가 수원의 미래를 그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거버넌스(governance, 시민참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부시장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거버넌스 정책이 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 사업과 군 공항 이전 및 광교신도시 조성 등 미래 수원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데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공직자들의 청렴과 헌신에 따라 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말했다.

이 부시장은 "시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을 위해 달려왔다"며 "시가 많이 깨끗하고 투명해졌다는 시민들의 칭찬이 이를 증명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암시했다.

그는 "수원시정을 떠나지만 수원을 떠나는 것 아니며 더 큰 이재준으로 돌아오겠다"며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시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와 현장에서 거버넌스 정책을 펼치고 싶다"며 퇴임 후 행로를 시사했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 신분으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지난 5년간 많은 문제점들을 봤다. 문제를 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소명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시장은 경북 포항(1965년생)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을 거쳐 1999년부터 협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1998년 신설된 수원시 제2부시장에 영입돼 민선 5기와 6기 5년 동안 수원시 도시정책 분야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이 부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수원 장안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내년 1월 초 공식 퇴임하며 별도의 퇴임식은 갖지 않기로 했다.

권영복 기자
kyb@1gan.co.kr

<일간경기> 2015년 12월 30일자 7면

"정치를 시민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준 더민주당, 수원갑(장안)

"수원광역시 승격을 통해 광역시의 중심 장안구를 만들어내겠다."

4.13총선 수원시갑(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예

비후보(전 수원시 부시장)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경기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의원선거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재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주는 일이 정보화시대의 시대정신이다"라고 언급한 후 "20대 총선은 무책임과 무지와 무능의 3무정치를 청산하는 정치개혁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참여의 통로를 만들고 전달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등의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수원시의 미래를 토의하고 계획하고 추진한 지난 5년간 수원시 부시장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혁신을 추진하고 2017년 정권창출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펼쳐보이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드리겠다며,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일입니다", "장안구를 삶의 질 1번지로 만드는 일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의 정치 1번지였던 장안이 수원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의 질 1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민선 5기와 6기 수원시 제2부시장에 영입돼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5년 동안 수원시 도시정책 분야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했었다.

이 후보는 이후 장안구 각 지역에 대한 세부 정책 발표와 함께 당 내 경선에 대비한 지역 행보를 이어가겠



4·13 총선 D-9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정치를 시민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준, 더민주당, 수원 갑(장안)

"수원광역시 승격을 통해 광역시의 중심 장안구를 만들어내겠다"

4.13총선 수원시갑(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예비후보(전 수원시 부시장)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의원선거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재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주는 일이 정보화시대의 시대정신이다"라고 언급한 후 "20대 총선은 무책임과 무지와 무능의 3무 정치를 청산하는 정치개혁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참여의 통로를 만들고 전달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등의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수원시의 미래를 토의하고 계획하고 추진"한 지난 5년간 수원시 부시장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혁신을 추진하고 2017년 정권창출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펼쳐 보이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주겠다며,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일입니다.", "장안구를 삶의 질 1번지로 만드는 일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의 정치 1번지였던 장안이 수원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의 질 1등 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민선 5기와 6기 수원시 제2부시장에 영입돼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5년 동안 수원시 도시정책 분야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했었다.

이 후보는 이후 장안구 각 지역에 대한 세부 정책 발표와 함께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역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수원 갤럭시 웨딩홀에서 열린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 출판기념회에 참석, "지난 수원시 5년의 행정혁신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면서 "장안구에서 시민참여로 새로운 도시혁신을 이뤄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약 2,000여 명의 수원지역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전 교수의 사회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곁들여진 1부와 염태영 수원시장, 서왕진 서울시 정책특보가 게스트로 참여한 북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2부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안민석, 박광온 국회의원 및 수원지역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새로운 길에 나선 이재준 후보의 성공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 인사말과 함께 수원시 5년의 성공을 함께한 각계각층의 수원시민 축하 동영상이 눈길을 끌었다.

수원시 부시장 재직 5년 동안 시민과 함께 진행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의 성공을 담은 책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1,800일간 수원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시민참여형 도시로 만들어낸 건 수원시민의 힘이었다"라면서 "도시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지난 5년 수원을 바꾼 시민의 힘으로 장안구를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

권영복 기자 kyb@1gan.co.kr

<일간경기> 2016년 1월 12일자 3면

다고 밝혔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수원 갤럭시 웨딩홀에서 열린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 출판기념회에 참석, "지난 수원시 5년의 행정혁신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면서 "장안구에서 시민참여로 새로운 도시혁신을 이뤄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약 2,000여 명의 수원지역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전 교수의 사회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곁들여진 1부와 염태영 수원시장, 서왕진 서울시 정책특보가 게스트로 참여해 북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2부로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안민석, 박광온 국회의원 및 수원지역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새로운 길에 나선 이재준 후보의 성공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하인사말과 함께 수원시 5년의 성공을 함께한 각계각층의 수원시민 축하동영상이 눈길을 끌었다.

수원시 부시장 재직 5년 동안 시민과 함께 진행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의 성공을 담은 책 '나는 서울보다 수원이 좋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1,800일간 수원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시민참여형 도시로 만들어낸 건 수원시민의 힘이였다"라면서 "도시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지난 5년 수원을 바꾼 시민의 힘으로 장안구를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

"장안구 아파트 환경 바꾸겠다"

이재준 예비후보, 안부인사 프로젝트 밝혀

4.13총선 수원시갑(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재준 예비후보와 이찬열 예비후보 간의 각축으로 치열한 가운데 이재준 예비후보(전 수원시 부시장)가 19일 오후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를 방문하고 장안구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구상인 안·부·인·사(안전하고, 부담없고, 인기있는, 사람중심의) 프로젝트를 밝히고 정책을 통한 후보 간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정자동 동신아파트를 방문한 후 언론사를 통해 배포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장안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고, 이미 20여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노후아파트가 수원시 내 타 지역보다 많이 존재한다"라고 장안구의 상황을 언급한 후 "현재 총 92개 단지, 29,551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으로서 장안구 전체 세대의 1/4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2025년에는 137개 단지, 48,060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결국 장안구민이 사는 10집 중 4곳은 리모델링 대상이다"라며 장안구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이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준 후보는 "안전하고, 부담없고, 인기있는 사람 중심의" 리모델링 정책인 '안부인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준 후보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안정성을 담보하는 안전보장, 노령화 및 주택시세 등을 고려한 부담 없는 가격, 최근 주택 트렌드의 인기를 반영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 거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단지설계 등 4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재준 후보는 "동신아파트에 대한 '안·부·인·사'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와 더불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비용/융자 지원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구체적인 행정/재정에 대한 방법론을 언급했다.

이재준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특히 민선 5기와 6기 수원시 제2부시장에 영입돼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5년 동안 수원시 도시정책 분야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한 경력을 통해 도시재생 및 도시 리모델링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재준 후보는 시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공약 개발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안구 아파트 환경 바꾸겠다"

이재준 예비후보, 안부인사 프로젝트 밝혀

4.13총선 수원시갑(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재준 예비후보와 이찬열 예비후보 간의 각축으로 치열한 가운데 이재준 예비후보(전 수원시 부시장)가 지난 19일 오후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를 방문하고 장안구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구상인 안·부·인·사(안전하고,부담없고, 인기있는,사람중심의) 프로젝트를 밝히고 정책을 통한 후보 간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정자동 동신아파트를 방문한 후 언론사를 통해 배포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장안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고, 이미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노후아파트가 수원시 내 타 지역보다 많이 존재한다"라고 장안구의 상황을 언급한 후 "현재 총 92개 단지, 29,551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으로서 장안구 전체 세대의 1/4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2025년에는 137개 단지, 48,060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결국 장안구민이 사는 10집 중 4곳은 리모델링 대상이다"라며 장안구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이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준 후보는 "안전하고, 부담없고, 인기있는 사람 중심의" 리모델링 정책인 '안부인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준 후보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안정성을 담보하는 안전보장, 노령화 및 주택시세 등을 고려한 부담 없는 가격, 최근 주택 트렌드의 인기를 반영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 거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단지설계 등 4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재준 후보는 "동신아파트에 대한 '안·부·인·사'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와 더불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비용/융자 지원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구체적인 행정/재정에 대한 방법론을 언급했다.

이재준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특히 민선 5기와 6기 수원시 제2부시장에 영입돼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5년 동안 수원시 도시정책 분야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한 경력을 통해 도시재생 및 도시 리모델링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재준 후보는 시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공약 개발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영복 기자 kyb@kgan.co.kr

<일간경기> 2016년 1월 20일자 7면

수원시 더민주당 시·도의원 성명

이재준 예비후보 정체성 맞는 후보 지지선언

수원갑(장안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이재준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해 경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옥분 현 경기도 도의원과 김상회 전 도의원, 장정희, 최영옥, 백종헌, 양진하, 이철승 현직 수원시 시의원 강장봉(전 수원시의회 의장), 최강귀, 김명욱 등의 전직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현직 시도의원들은 14일 이재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 지지성명서를 전달하고 이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막아낼 제대로 된 야당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힌 후 "각자 개인의 유리한 길을 계산하고 정치적인 셈법에 골몰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라고 지지선언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진짜 필요한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고민 끝에 "첫째, 선명한 야당에

적합한 인물인가? 둘째,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정당에 도움이 되는가? 셋째, 생활정치 혁신을 위한 소통에 적극적인가?"라는 세 가지 조건에 가장 걸맞은 후보로 이재준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지지선언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속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후 "국민의 지지를 되찾아 정권교체의 꿈을 이룰 유일한 수단은 혁신입니다. 오늘의 지지 선언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의 디딤돌이 되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이재준 예비후보에게 당부했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이들의 지지선언서를 받은 뒤 "수원시를 이끌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들이 지지선언을 해준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지지선언서에 담긴 내용처럼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수원시 더민주당 시·도의원 성명

이재준 예비후보 정체성 맞는 후보 지지선언

수원갑(장안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시도의원들이 이재준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해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옥분 현 경기도 도의원과 김상회 전 도의원, 장정희, 최영옥, 백종헌, 양진하, 이철승 등 현직 수원시 시의원 및 강장봉(전 수원시의회 의장), 최강귀, 김명욱 등의 전직 시의원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현직 시도의원들은 지난 14일 이재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 지지성명서를 전달하고 이재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막아낼 제대로 된 야당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힌 후 "각자 개인의 유리한 길을 계산하고 정치적인 셈법에 골몰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라고 지지선언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진짜 필요한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고민 끝에 "첫째, 선명한 야당에 적합한 인물인가? 둘째,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정당에 도움이 되는가? 셋째, 생활정치 혁신을 위한 소통에 적극적인가?"라는 세 가지 조건에 가장 걸맞는



(왼쪽) 이재준 예비후보.

후보로 이재준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지지선언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속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후 "국민의 지지를 되찾아 정권교체의 꿈을 이룰 유일한 수단은 혁신입니다. 오늘의 지지 선언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의 디딤돌이 되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이재준 예비후보에게 당부했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이들의 지지선언서를 받는 후 "수원시를 이끌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들이 지지선언을 해준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지지선언서에 담긴 내용처럼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권영복 기자 kyb@1gan.co.kr

<일간경기> 2016년 2월 16일자 7면

수도권 국토, 도시정책 관련학과 교수일동

더민주당 수원갑 이재준 예비후보 지지선언

수원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치열한 가운데 허재완 중앙대 교수(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정책 관련학과 교수들이 지난 18일 이재준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해 경선 구도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성종상, 유근배 서울대 교수, 이제선 연세대 교수, 김

세용 고려대 교수 등 수도권 도시정책 관련학과 교수 27명은 18일 오전 11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재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내 도시정책 학계의 대표주자로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중략)

이들은 특히 "대학교수로서의 탁월한 연구업적뿐 아니라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 활동 및 도시 관련 분야의 각종 위원회에서 해온 경험과 더불어 일반적인 학자가 경험하기 어려운 지난 5년간 수원시 부시장의 경험과 성과는 누구보다 더 이재준 후보가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적임자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수도권 대학 주요 도시정책 관련 학과 교수들이 이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 도시정책 전문가로서 이 후보의 입지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인 이찬열 예비후보와 수원시 부시장 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 이재준 예비후보 간의 당 내 경선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민선 5기와 6기 수원시 제2부시장에 영입돼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5년 동안 수원시 도시정책 분야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이 후보 측은 '백가지 상상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주민참여형 공약캠페인과 더불어 앞으로 다양한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공약발표와 함께 정책경선에 매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국토, 도시정책 관련학과 교수일동

더민주 수원갑 이재준 예비후보 지지선언

수원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치열한 가운데 허재완 중앙대 교수(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정책 관련학과 교수들이 지난 18일 이재준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해 경선 구도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성종상, 유근배 서울대 교수, 이제선 연세대 교수, 김세용 고려대 교수 등 수도권 도시정책 관련학과 교수 27명은 18일 오전 11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내 도시정책 학계의 대표주자로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90%를 넘고 수도권은 세계 4대 도시권으로 불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 어떤 나라보다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도시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밝힌 후 "국회의원의 30%에 육박한다는 법조인, 관료, 기업인은 많지만 실제 국민의 90% 이상이 살아가는 도시정책 관련 전문가는 없었다"라고 현재 도시정책 관련 전문가가 없는 국회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과거 80~90년대 서울, 수도권에 수백만 호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생긴 재개발, 재건축 문제, 낙후된 구도심문제,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 이런 현실을 타개할 전문가로서 수원갑 예비후보인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지난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재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내 도시정책 학계의 대표주자로서 이재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은 권용우 교수(왼쪽) 와 이재준 후보.

이들은 특히 "대학교수로서의 탁월한 연구업적뿐 아니라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 활동 및 도시 관련 분야의 각종 위원회에서 해온 경험과 더불어 일반적인 학자가 경험하기 어려운 지난 5년간 수원시 부시장의 경험과 성과는 누구보다 더 이 후보가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적임자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수도권 대학 주요 도시정책 관련 학과 교수들이 이 후보를 지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 도시정책 전문가로서 이 후보의 입지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인 이찬열 예비후보와 수원시 부시장 5년의 성과 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 이재준 예비후보간의 당 내 경선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민선 5기와 6기 수원시 제2부시장에 영입돼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5년 동안 수원시 도시정책 분야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이 후보 측은 '백가지 상상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주민참여형 공약캠페인과 더불어 앞으로 다양한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공약발표와 함께 정책경선에 매진할 예정이다.

권영복 기자 kyb@1gan.co.kr

<일간경기> 2016년 2월 19일자 3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36
언 론 사	**현대일보 주식회사** 경기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SK테크노파크 D동 1214호 현대일보사 대표이사 이상근
심의대상기사	현대일보 2016년 1월 13일자 2면 「김철민 출마선언, “믿음의 정치하겠다”」, 2016년 1월 19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 참배」, 2016년 1월 20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총선 후보자격 심사 통과」, 2016년 1월 27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출근인사로 지지호소」, 2016년 2월 2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슬로건 “시민과 더불어, 상록乙 바꾸자”」, 2016년 2월 4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법제화 필요”」, 2016년 2월 19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로”」, 2016년 2월 24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반월공단 활성화 방안’ 발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예비후보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철민 출마선언, “믿음의 정치하겠다”

김철민 전 안산시장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시장은 12일 안산시청에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상록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전시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믿음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시장경력을 토대로 안산발전에 힘

김철민 출마선언, “믿음의 정치하겠다”



김철민 전 안산시장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시장은 12일 안산시청에서 브리핑룸에서 자회견을 열고 안산상록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전시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믿음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시장경력을 토대로 안산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전시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전제하고 “시장 시절 기업을 유치하고, 이동시장실을 운영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안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시장은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물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민선 안산시장 가운에 유일하게 검찰에 의해 기소당하지 않은 깨끗한 시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현대일보> 2016년 1월 13일자 2면

쓰겠다고 말했다.

김 전시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전제하고 "시장 시절 기업을 유치하고, 이동시장실을 운영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안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시장은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물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민선 안산시장 가운에 유일하게 검찰에 의해 기소당하지 않은 깨끗한 시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예비후보,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 참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상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원곡동 현충탑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당직자 및 지지자 50여명과 함께 참배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참배를 마친 후 "저와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시민의 뜻 받들어 총선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실천하는 믿음의 정치로 안산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현충탑 참배를 마친 김철민 예비후보는 곧바로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하면서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예비후보는 안산시상록구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상록구 성포동 593-16 성포타운 3층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했다.



김철민 예비후보,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 참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상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원곡동 현충탑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당직자 및 지지자 50여명과 함께 참배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참배를 마친 후 "저와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시민의 뜻 받들어 총선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실천하는 믿음의 정치로 안산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현충탑 참배를 마친 김철민 예비후보는 곧바로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하면서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예비후보는 안산시상록구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상록구 성포동 593-16 성포타운 3층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현대일보> 2016년 1월 19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총선 후보자격 심사 통과

더불어민주당 상록을 김철민 예비후보가 중앙당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0대 국회위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공모에 참여한 안산상록을 김철민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여부를 심사, 적격판정을 내렸다.

총선 출마 희망자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자격여부 심사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를 비롯해 당적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공직후보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중앙당 검증위를 통과한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김철민 예비후보, 총선 후보자격 심사 통과

더불어민주당 상록을 김철민 예비후보가 중앙당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0대 국회위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공모에 참여한 안산상록을 김철민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여부를 심사, 적격판정을 내렸다. 총선 출마 희망자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자격여부 심사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를 비롯해 당적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공직후보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중앙당 검증위를 통과한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현대일보> 2016년 1월 20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출근인사로 지지호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상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새벽 출근길 거리인사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철민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6시 40분부터 한 시간가량 상록수역 앞에서 아침 출근인사로 지역주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철민 예비후보는 "최근 연이은 기록적인 한파로 추운 날씨지만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지역주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출근 거리인사를 드렸다"며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다가와 격려의 악수를 건네고, 인사에 화답하는 등 지지와 응원의 말을 건네 와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매일 지역구 구석구석을 돌며 11일째 유권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일 아침 상록수역 앞에서 출근인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철민 예비후보, 출근인사로 지지호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상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새벽 출근길 거리인사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철민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6시 40분부터 한 시간가량 상록수역 앞에서 아침 출근인사로 지역주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철민 예비후보는 "최근 연이은 기록적인 한파로 추운 날씨지만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지역주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출근 거리인사를 드렸다"며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다가와 격려의 악수를 건네고, 인사에 화답하는 등 지지와 응원의 말을 건네와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매일 지역구 구석구석을 돌며 11일째 유권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일 아침 상록수역앞에서 출근인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현대일보> 2016년 1월 27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슬로건 “시민과 더불어, 상록乙 바꾸자”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김철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시민과 더불어, 상록乙 바꾸자”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또 총선 선거캠프의 명칭을 ‘희망캠프’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은 “김철민 예비후보는 시장재임 시절 ‘희망’을 늘 강조해왔다. 앞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는 안산을 희망의 도시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민생정책들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캠프이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의 실천의지를 담은 ‘약속을 지킨 사람’을 인물 슬로건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물 슬로건은 김철민 후보가 지난 민선5기 안산시장 출마 당시 제시했던 선거공약들을 재임시절 약속대로 실천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재임 시절 약속했던 공약들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이같은 결과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74개 기초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SA)등급을 수상한 바 있다.



김철민 예비후보, 슬로건 “시민과 더불어, 상록乙 바꾸자”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김철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시민과 더불어, 상록乙 바꾸자”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또 총선 선거캠프의 명칭을 ‘희망캠프’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측은 “김철민 예비후보는 시장재임 시절 ‘희망’을 늘 강조해왔다. 앞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는 안산을 희망의 도시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민생정책들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캠프이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예비후보의 실천의지를 담은 ‘약속을 지킨 사람’을 인물 슬로건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물 슬로건은 김철민 후보가 지난 민선5기 안산시장 출마 당시 제시했던 선거공약들을 재임시절 약속대로 실천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재임 시절 약속했던 공약들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이같은 결과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74개 기초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SA)등급을 수상한 바 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현대일보> 2016년 2월 2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법제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상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담보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성포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10여명과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정부가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 150만원을 보장토록 하면서도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비 지원



김철민 예비후보,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법제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상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담보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성포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10여명과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정부가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 150만원을 보장토록 하면서도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비 지원은 환대하지 않아 센터마다 운영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안산시가 올해 그룹홈, 어린이집 등 다른 복지기관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편성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후순위로 넘겨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김 예비후보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현대일보> 2016년 2월 4일자 2면

은 확대하지 않아 센터마다 운영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안산시가 올해 그룹홈, 어린이집 등 다른 복지기관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편성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후순위로 넘겨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김 예비후보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철민 예비후보,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로"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김철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의롭고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국가실현을 공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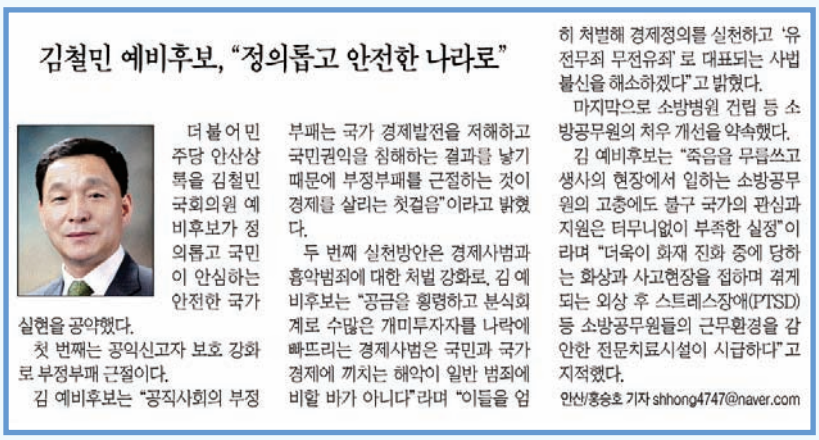
첫 번째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부정부패 근절이다.

김 예비후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실천방안은 경제사범과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김 예비후보는 "공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를 나락에 빠뜨리는 경제사범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일반 범죄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며 "이들을 엄히 처벌해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방병원 건립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사의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고충에도 불구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화재진화 중에 당하는 화상과 사고현장을 접하며 겪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감안한 전문치료시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예비후보,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로"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김철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의롭고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국가실현을 공약했다.

첫 번째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부정부패 근절이다.

김 예비후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실천방안은 경제사범과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김 예비후보는 "공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를 나락에 빠뜨리는 경제사범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일반 범죄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며 "이들을 엄히 처벌해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방병원 건립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사의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고충에도 불구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화재진화 중에 당하는 화상과 사고현장을 접하며 겪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감안한 전문치료시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현대일보> 2016년 2월 19일자 2면

김철민 예비후보, '반월공단 활성화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안산상록을 김철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총선공약으로 반월시화공단을 중소기업 메카로 육성해 안산시가 재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 반월시화공단을 중소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의원·단체장·부처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이어 두 번째 총선공약으로 반월시화공단 관련 정책을 제시한 김철민 예비후보는 "안산시장 재임시절 기업SOS 이동시장실을 통해 중소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구조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공정한 거래환경이 여전히 존재해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반월시화공단을 중소기업의 메카로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기반 확충과 공단 내 네트워킹 강화 △반월시화공단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편익 향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 사업의 제도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철민 예비후보, '반월공단 활성화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안산상록을 김철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총선공약으로 반월시화공단을 중소기업 메카로 육성해 안산시가 재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 반월시화공단을 중소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의원 · 단체장 · 부처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이어 두 번째 총선공약으로 반월시화공단 관련 정책을 제시한 김철민 예비후보는 "안산시장 재임시절 기업SOS 이동시장실을 통해 중소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구조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공정한 거래환경이 여전히 존재해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반월시화공단을 중소기업의 메카로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 개혁과 대기업 ·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조성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기반 확충과 공단 내 네트워킹 강화 △반월시화공단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편익 향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 사업의 제도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현대일보> 2016년 2월 24일자 2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37
언 론 사	**주식회사 전국매일신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농B/D) 대표이사 박종문
심의대상기사	전국매일신문 2016년 2월 4일자 5면 「"국세청장 경험 살려 기업유치·예산 확보 총력"」, 2016년 2월 5일자 5면 「"서민층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 2016년 2월 12일자 5면 「"기업유치·관광산업 진흥 통해 일자리 창출"」, 2016년 2월 15일자 5면 「"전통시장 인근지역 주차공간 확보 시급"」, 2016년 2월 17일자 5면 「한상율 예비후보, 출산장려 정책 허점 지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한상율 예비후보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국세청장 경험 살려 기업유치·예산확보 총력"

한상율 서산·태안 예비후보 기자간담회… 국민 위한 정치 표명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산·태안지역선거구에 출마 선언한 전 국세청장 출신 새누리당 한상율 예비후보는 3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의 변을 밝히는 제1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상율 후보는 "제17대 국세청장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와 꽃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도와 꽃 축제를 열며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중 농업, 농촌, 농업인의 열악한 현실이 제 눈에 들어 왔다. 젊은이 없는 마을의 미래가 걱정스러웠다"면서 "10년, 20년 후 우리 고향의 암담한 미래가 제 머리 속에 그려졌다. 하루빨리 낙후된 우리 고향을 발전시키고 어려운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활기찬 고향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상율 후보는 이어 "편을 갈라 싸우는 정치, 이제 확 바꾸어야 한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힘줘 말하면서 고향발전, 공생발전, 정치발전 세 가지를 자신이 정치를 함에 있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한상율 후보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정치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려는 갑질정치,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금권정치, 되지도 않는 일을 내세우는 허풍정치, 하는 일 없이 인사만 하는 악수정치, 편을

갈라 서로 싸우는 편가르기 정치는 절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상율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들을 가리켜 "모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다.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다. 다만 국세청장으로서 나라살림을 해본 경험이 있고 기업을 잘 아는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고장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할 자신이 있다. 고향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며칠 전 모 일간지 인터넷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후원자인 박연차 씨의 회사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표적조사의 단서가 돼 검찰 수사로 이어져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보도에 대한 진실을 듣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한 후보는 "이 부분은 최근 본인이 출판한 '참회의 증언'이란 에세이집에서도 밝혔고 검찰수사에서도 이미 무혐의, 무죄로 입증돼 종결됐다"면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참여정부 5년 동안 740억 원의 엄청난 금액을 탈세한 대통령 측근기업에 대한 불가피한 세무조사였다. 당시 대통령 측근기업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진 민정수석이 태광실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까지 된 바 있다. 태광실업의 탈세는 권력의 비호하에 이뤄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당시 참여정부 초기에 태광실업과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철저히 이뤄졌더라면 태광실업의 탈세를 미리 막을 수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탈세를 방치해둔 탓에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 세무조사를 피해갈 길이 없었다. 700억 원이 넘는 탈세기업을 전직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덮어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비리이기 때문이다.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은 태광실업의 탈세를 비호한 사람들이 져야 한다. 엄청난 규모의 탈세를 어쩔 수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한 사람에게 칭찬을 못할망정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페이스북과 카톡으로 확산시켜 이를 선거에 악용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밝힌 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며 반론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모 일간지의 잘못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기사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장 경험 살려 기업유치·예산확보 총력"

한상율 서산·태안 예비후보, 기자간담회…국민 위한 정치 표명

제3대 국회의원선거 서산·태안 지역선거구에 출마 선언한 전 국세청장 출신 새누리당 한상율 예비후보는 3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의 변을 밝히는 제1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상율 후보는 "제17대 국세청장을 마지막 고향으로 내려와 꽃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도와 꽃 축제를 열며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중 농업, 농촌, 농업인의 열악한 현실이 제 눈에 들어 왔다. 물은이 없는 마음의 미래가 걱정스러웠다"면서 "10년, 20년 후 우리 고향의 암담한 미래가 제 머리 속에 그려졌다. 하루빨리 낙후된 우리 고향을 발전시키고 어제은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젊은이가 찾아오는 활기찬 고향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상율 후보는 이어 "편을 갈라 싸우는 정치, 이제 확 바꾸어야 한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꿔야야 한다"고 함께 말하면서 고향발전, 공생발전, 정치발전 세 가지를 자신이 정치를 함에 있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한상율후보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조정치(고집)도 사람을 누르려는 감정정치,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금권정치, 되지도 않는 일을 내세우는 해봉정치, 하는 일 없이 인사만 하는 악수정치, 편을 갈라 서로 싸우는 편가르기 정치는 결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상율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들을 가리켜 "모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다.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다. 다만 국세청장으로서 나라살림을 해본 경험이 있고 기업을 잘 아는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고장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있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작성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은 태광실업의 탈세를 비호한 사람들이 져야 한다. 엄청난 규모의 탈세를 어쩔 수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한 사람에게 칭찬을 못할망정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페이스북과 카톡으로 확산시켜 이를 선거에 악용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밝힌 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며 반론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모 일간지의 잘못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기사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gg@jeonmae.co.kr>

<전국매일> 2016년 2월 4일자 5면

“서민층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

한상율 서산·태안 예비후보 보도자료 통해 공생발전 강조

충남 서산·태안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전 국세청장 한상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극화는 이 시대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면서 “세계화, 개방화가 불러온 무한 경쟁은 경제적 약자들의 설 자리를 앗아가 버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세계화 개방화를 피해 갈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있기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세계화, 개방화는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할 유일한 방안은 공생발전(共生發展)”이라고 강조 했다.

이 공생발전을 현실경제에서 구체화시키려면 “공생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태안 꽃축제’는 화훼농가와 농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축제장의 수입이 1만 원일 때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쓰고 가는 돈은 약 7만 원으로 조사된바 꽃 축제장에 입장객이 많이 오면 꽃 축제장만 좋은 것이 아니라 펜션, 음식점 등 다른 사업도 잘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생발전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다. 서민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을 많이 끌어들여 이윤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1만여 개를 육성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그러려면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민간기업도 여기에 참여시켜야 하며 민간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 협약’을 체결해, 우선 소득 30% 하위계층 10만 명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이들 기업에게 인건비의 30%(년간 소요예산 6500억 원)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서산·태안 지역에 1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면서 1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세농, 영세상인, 영세어민 등 각 분야의 여세업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현행의 강소농 육성정책과 함께 영세농 지원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한상율)은 되지도 않는 일을 내세우는 허풍정치는 싫어한다. 그 대신 주민과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민층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

한상율 서산·태안 예비후보 보도자료 통해 공생발전 강조

충남 서산·태안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전 국세청장 한상율은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양극화는 이 시대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면서 “세계화, 개방화가 불러온 무한 경쟁은 경제적 약자들의 설 자리를 앗아가 버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세계화 개방화를 피해 갈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있기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세계화, 개방화는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할 유일한 방안은 공생발전(共生發展)”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생발전을 현실경제에서 구체화시키려면 “공생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태안 꽃축제’는 화훼농가와 농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축제장의 수입이 1만 원 일 때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쓰고 가는 돈은 약 7만 원으로 조사된바 꽃 축제장에 입장객이 많이 오면 꽃 축제장만 좋은 것이 아니라 펜션, 음식점 등 다른 사업도 잘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생발전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다. 서민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을 많이 끌어 들여 이윤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1만 여개를 육성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그러려면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민간기업도 여기에 참여시켜야 하며 민간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 협약’을 체결해, 우선 소득 30%하위계층 10만 명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이들 기업에게 인건비의 30%(년간 소요예산 6500억 원)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 하면서 “서산·태안 지역에 1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면서 1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세농, 영세상인, 영세어민 등 각 분야의 영세업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현행의 강소농 육성정책과 함께 영세농 지원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한상율)은 되지도 않는 일을 내세우는 허풍정치는 싫어한다. 그 대신 주민과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전국매일> 2016년 2월 5일자 5면

“기업유치·관광산업 진흥 통해 일자리 창출”

한상율 예비후보 핵심공약

충남 서산·태안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전 국세청장 한상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서산·태안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관광산업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경제발전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한상율 후보는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해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항만, 비행장 등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가 우선이다. 항구와 항만을 잘 만든다고 관광객이 넘치지는 않는다. 화훼관광 벨트와 같이 연간 최대 500만 명을 불러들일 수 있는 관광의 허브(Hub), 즉 구심체가 중요하다. 천수만 시화원(詩畵苑·시인과 화가들의 정원)을 중심으로 고북 국화축제, 남면 연꽃축제, 빛 축제, 안면도 튤립박람회, 천리포수목원과 함께 해미 장미정원, 부석 모란공원 등을 조성하면 천수만 화훼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이다. 아울러 해미읍성, 한중역사 교역루트, 닷개문화축제, 지곡역사문화관, 안흥 수중박물관등 역사적 문화관광콘텐츠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는 “태안반도해수욕장, 천수만 요트장, 마검포 해양레져스포츠, 고북 아시아타운, 운산 체험형 관광농장, 천수만 철새도래지 등을 연계한 레져 위락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이 레져·위락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미니 관광열차 노선 개설 등을 한데 묶어 서산·태안지역에 역사 레져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10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완성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업유치·관광산업 진흥 통해 일자리 창출”

한상율 예비후보 핵심공약 발표

충남 서산,태안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전 국세청장 한상율은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 서산. 태안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관광산업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경제발전 핵심 공약을 발표 했다.

한상율 후보는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해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항만, 비행장 등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가 우선이다. 항구와 항만을 잘 만든다고 관광객이 넘치지는 않는다. 화훼관광 벨트와 같이 년 간 최대 500만 명을 불러들일 수 있는 관광의 허브(Hub), 즉 구심체가 중요하다. 천수만 시화원(詩畵苑·시인과 화가들의 정원)을 중심으로 고북 국화축제, 남면 연꽃축제, 빛 축제, 안면도 튤립박람회, 천리포수목원과 함께 해미 장미정원, 부석 모란공원 등을 조성하면 천수만 화훼관광벨트가 조성 될 것이다. 아울러 해미읍성, 한중역사 교역루트, 닷개문화축제, 지곡역사문화관, 안흥 수중 박물관등 역사적 문화관광콘텐츠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한 후보는 “태안반도해수욕장, 천수만 요트장, 마검포 해양레져스포츠, 고북 아시아타운, 운산 체험형 관광농장, 천수만 철새도래지 등을 연계한 레져 위락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이 레져. 위락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미니 관광열차 노선 개설 등을 한데 묶어 서산. 태안지역에 역사 레져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10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완성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전국매일> 2016년 2월 12일자 5면

“전통시장 인근지역 주차공간 확보 시급”

한상율 예비후보, 상인과 대화

새누리당 한상율 후보는 지난 13일에 휴일을 맞아 서산동부시장과 태안 재래시장 등을 방문, 특산물전통시장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눈 뒤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 후보는 시장 상인들에게 “이번 설 대목 수입은 예년에 비해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 상인 A모(57세 여)씨는 “전 년도, 아니 지난 추석 때에 비해서도 매출이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우리 전통재래시장도 이제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대형마트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면서 “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후보는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시장 인근 지역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주차장부터 마련한 뒤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품질 좋고 싱싱한 농수산물을 싼 값에 사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밝힌 뒤 “인근지역 관광지, 축제장 등과 연계한 전통재래시장 할인쿠폰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누리당 한상율 후보는 최근 태안 재래시장 등을 방문,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

“전통시장 인근지역 주차공간 확보 시급”

한상율 예비후보, 상인과 대화

새누리당 한상율 후보는 지난 13일 휴일을 맞아 서산동부시장과 태안 재래시장 등을 방문, 특산물전통시장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과의 인사를 나눈 뒤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 후보는 시장 상인들에게 “이번 설 대목 수입은 예년에 비해 어땠는지?”묻는 질문에 상인 A모(57세 여)씨는 “전 년도, 아니 지난 추석 때에 비해서도 매출이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우리 전통재래시장도 이제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대형마트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면서 “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후보는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우선 시장 인근 지역에 대형버스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주차장부터 마련한 뒤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품질 좋고 싱싱한 농수산물을 싼 값에 사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밝힌 뒤 “인근지역 관광지, 축제장 등과 연계한 전통재래시장 할인 쿠폰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전국매일> 2016년 2월 15일자 5면

한상율 예비후보, 출산장려 정책 허점 지적

생활밀착형 보완대책 제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산·태안지역인 새누리당 한상율 예비후보는 16일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면서 생활밀착형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한상율 후보는 “저출산은 경제적 측면 말고도 교육·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위기의식을 불러 올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치밀해야 한다. 부모들이 정부를 믿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출산장려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부처 간의 정책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부처마다 제 각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다 보니 정책 공백, 정책 중복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들에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아이돌보미 제도). 이 제도는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업무는 시 군에서 담당하고 해당부처는 여성가족부인 반면 경제적 사정으로 산후조리원에 갈 수 없거나 산후 뒷바라지를 해줄 가족이 없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제공되는 업무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해당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생후 2개월까지만 제공된다. 그것도 10일간만 제공된다. 또 정부지원금 60만 원을 제외한 22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두 제도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두 제도를 산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허점이 보인다. 생후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한 달간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부모가 없고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는 부모는 별도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생후 61일에서 90일 사이의 신생아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 정책의 공백 기간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역설했다.

한 후보는 "그 대안으로 산후 돌보미 서비스를 3개월로 연장하고 서비스 기간도 10일에서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 또 그 비용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소득 하위계층 20%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 5400억 원)소득하위계층 20%에 대해 적어도 출산 후 90일간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돌봐줘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고, 또한 정책 공백에 따른 불신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율 예비후보, 출산장려 정책 허점 지적

생활밀착형 보완대책 제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산·태안지역인 새누리당 한상율 예비후보(**사진**)는 16일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면서 생활밀착형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한상율 후보는 "저출산은 경제적 측면 말고도 교육·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위기의식을 불러 올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치밀해야 한다. 부모들이 정부를 믿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출산장려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부처 간의 정책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부처마다 제 각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다 보니 정책 공백, 정책 중복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만3개월이상~만12세 이하)들에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아이돌보미 제도) 이 제도는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업무는 시 군에서 담당하고 해당부처는 여성가족부인 반면 경제적 사정으로 산후조리원에 갈 수 없거나 산후 뒷바라지를 해줄 가족이 없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제공되는 업무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해당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생후 2개월까지만 제공된다. 그것도 10일간만 제공된다. 또 정부지원금 60만 원을 제외한 22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두 제도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두 제도를 산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허점이 보인다. 생후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한 달간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부모가 없고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는 부모는 별도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생후 61일에서 90일 사이의 신생아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 정책의 공백 기간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며 역설했다.

한 후보는 "그 대안으로 산후 돌보미 서비스를 3개월로 연장하고 서비스 기간도 10일에서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 또 그 비용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소득 하위계층 20%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 5400억 원)소득하위계층 20%에 대해 적어도 출산 후 90일간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돌봐줘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고, 또한 정책 공백에 따른 불신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전국매일> 2016년 2월 17일자 5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39
언 론 사	**주식회사 빛가람나주신문사(나주신문)**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그린로 369(화정프라자 3층) 대표이사 박선재
심의대상기사	나주신문 2016년 1월 25일자 3면 「"호남민심은 야당체질 개선과 정치혁신 통한 정권교체"」, 2016년 2월 15일자 4면 「신정훈 의원,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도보순례 돌입」, 2016년 2월 22일자 4면 「신정훈 의원, 당내 농어민상생본부장 임명」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정훈에 대한 인터뷰 기사 및 동정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터뷰 기사를 전혀 게재하지 않았거나, 동정기사 역시 현저히 낮은 빈도로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호남민심은 야당체질 개선과 정치혁신 통한 정권교체"

신년특집 - 신정훈 의원 인터뷰

안철수 의원의 탈당, 국민의 당 창당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호남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수파로 분류되는 신정훈 의원의 최근 동향과 정치행보, 그리고 그의 향후 생각에 대해 취재했다.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진행됐고, 가능한 답변의 내용을 첨삭하지 않음으로서 신정훈 의원의 생각을 온전히 보도키로 했다.〈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탈당할 때 더불어민주당에 남았다. 어떤 생각이었나?

국회에 입성한 지 1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인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탈당을 권유했다. 중앙정치 초년생을 아끼는 애정 어린 충고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식의 대응은 올바르지도 않고 민심에 부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으로 기운 것으로 보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민심이반은 두 가지 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는 야권 분열에 대한 당대표 책임론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현안이나 민생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노출

된 무능함과 무기력증이다. 이에 대한 질책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하지만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고 봤다. 그리고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체질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혁신해 강한 야당이 되어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당에 남아 더불어민주당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이었다. 그것이 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지금까지 여야가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의 이름을 바꾸고 대표도 바꿨지만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방식으로는 당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정치를 혁신할 수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30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 입성한 뒤 당내 정치혁신위원회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입당한 지 1년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년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을 바꾸고 정치를 혁신하는 데 앞장설 생각이다.

그동안 당과 국회에서 정치혁신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는?

정당과 정치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바로 세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고의 정치혁신은 서민의 불편과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1995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민생정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회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성과는 전국농어민위원회 신설이다.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당헌과 당규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다.

노동위원회나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은 있는데 농어민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에서 농민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농업정책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12일 활동을 마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다.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율과 의정활동, 지역위원회 운영, 지지율 등에 대해 평가해 하위 20%를 물갈이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실 이번 탈당 사태는 상당부분 이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시·도의원들도 더 이상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다.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전라도당을 만들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라도당으로는 결코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없다. 역대 선거 결과가 증명하듯 야당은 연대와 외연 확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당을 만들자는 것은 정권교체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금배지나 지켜주자는 위험하고 불순한 선동에 불과하다. 전라도당은 결국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자민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문재인 대표에게 하루빨리 물러나라고 요구해왔는데 신 의원은 어떤 입장이었나?

호남의 성난 민심을 달래고 땅바닥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봤다. 이것만이 60년 전통의 유일 야당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지상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호남지역 의원들과 교감하면서 문 대표 측에게 이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약간 늦어졌지만 외부 인사 영입과 김종인 선대위원장 중심의 선대위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퇴한 것은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앞으로 총선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적어도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을 할 것이다. 과거 민주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던 독주체제가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면 경쟁구도는 야당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총선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되 대선 승리를 위해 다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다면 다시 합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평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좀 소개해 달라.

국회에 등원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과분할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다. 실력이 출중한 국회의원들이 아주 많은데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270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국감 우수 의원 Best20 등 국정감사 평가기관 5곳으로부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동료국회의원, 국회 보좌진, 기자들이 뽑은 다면평가에서 상위 10%에 선정되기도 했다.

소속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거둔 주요성과를 꼽는다면?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피해대책으로 1조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서도 국회에 피해액을 분석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설득을 통해 정부용역보고서 공개를 이끌어냈고 피해액이 의도적으로 축소된 정황을 밝혀냈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도 요구했다. 그 결과 여야정 협의체에서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회에 등원한 이후 끊임없이 지적한 것이 농수산유통공사가 중국산과 태국산 쌀을 수입해서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방출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문제였다. 수입 쌀 2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

세월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선체 인양사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비전문가들로 채워진 문제점과 인양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 특조위의 활동기간 축소 등을 지적했다. 관심 밖으로 밀려난 세월호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성과는?

무엇보다 나주시가 도시재생 사업비 100억 원과 금

성산 나눔숲체원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했다.

아울러 KTX의 나주역 정차 횟수를 28회로 대폭 증차시킨 데 이어 나주역을 명실상부한 전남의 허브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주역사 증축예산 245억을 확보했다. 더불어 호남고속철(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의 시설물 개량, 방음벽 울타리 설치 등 2단계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진했던 나주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주시와 함께 구도심 재생을 위한 '지명유래 고도 전통문화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나주시에 각각 국비 500억 원이 지원돼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주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할 수 있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호혜원 악취 관련 예산 120억 원과 체감형 게임센터 구축 및 운영비 150억 원, 빛가람파출소 신축비 12억 원, 혁신도시 주차장 특별교부세 5억 등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총선은 두 야당의 경쟁구도에서 유권자들이 선택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간판정치와 패거리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인물과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선거를 해주실 거라 믿는다.



"호남민심은 야당체질 개선과 정치혁신 통한 정권교체"

신년특집
신정훈 의원
특별 인터뷰

안철수 의원의 탈당, 국민의당 창당 등으로 인해 그어느 때보다 호남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수파로 분류되는 신정훈 의원의 최근 동향과 정치행보, 그리고 그의 향후 생각에 대해 취재했다.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진행됐고, 가능한 답변의 내용을 절삭하지 않음으로서 신정훈 의원의 생각을 온전히 보도키로 했다.
〈편집자 주〉

더 민주당 창역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탈당할 때 더불어 민주당에 남았다. 이런 생각이었나?

국회에 입성한지 1년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인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탈당을 권유했다. 정당정치 초년생을 이끄는 예우 어른 출고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식의 대응은 올바르지도 않고 민심에 부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호남 민심이 더불어 민주당보다 국민의 당으로 기운 것으로 보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민심이반은 두 가지 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는 야권 분열에 대한 당 대표 책임론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평가이나 민생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노출된 무능함과 무기력증이다. 이에 대한 질책이 아는 매보다 심각했다. 하지만 민심이 더 돌아 민주당을 원천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고 봤다. 그리고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체질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혁신해 경쟁 야당이 되어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당에 남아 더불어 민주당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이었다. 그것이 당의 분열을 방지하는 당선된 한에 국회의원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민주당에 남아 있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지금까지 어야가 정치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의 이름을 바꾸고 대표도 바꿨지만 달라진 것이 3번 무엇인가? 그런 방식으로는 답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정치를 혁신할 수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 오한 것은 7.30 선 거에서 시민 여러분께 대한 민국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 입성한 뒤 당내 정치혁신위원회의 국정장자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입당한지 1년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초년병이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체질을 바꾸고 정치를 혁신하는데 일정 세 생각이다.

그동안 당과 국회에서 정치혁신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는?

정당과 정치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통해 세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고의 정치혁신은 서민의 절박과 아픔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19대로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민생정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회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성과는 전국농어민위원회 신설이다.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당헌과 당규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다. 노동위원회나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을 갖는데 농어민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에서 농민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농어장부의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1.2일 환동을 하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평가에 관여 20%를 끝감이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상 이번 탈당 사태는 성당부분 이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출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시·도의원 필도 대 여성 분야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다. 입거 동안 최선을 다해지 않으면 다음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전라도당을 만들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라도당으로는 결코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없다. 역대 선거 결과가 경쟁하듯 야당은 연대와 외연 확대를 통해서 일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도당을 만들자는 것은 정권 교체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변하고 배지나 지켜주자는 무책임하고 젊은 한 선동에 불과하다. 전라도당은 결국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지언정 전 전혀을 발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문재인 대표에게 하루빨리 물러나라고 요구하겠는데 신 의원은 어떤 입장이인나?

호남의 상나 민심을 담에고 정부 다도모 주력한 신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봤다. 이것만이 6석 전통의 유일 야당으로 김려든 국정원과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더불어 민주당이 총선 승리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최고의 정치혁신은 서민의 절박과 아픔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19대로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민생정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회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성과는 전국농어민위원회 신설이다.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당헌과 당규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다. 노동위원회나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을 갖는데 농어민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에서 농민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농어장부의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1.2일 환동을 하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평가에 관여 20%를 끝감이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상 이번 탈당 사태는 성당부분 이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출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시·도의원 필도 대 여성 분야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다. 입거 동안 최선을 다해지 않으면 다음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전라도당을 만들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라도당으로는 결코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없다. 역대 선거 결과가 경쟁하듯 야당은 연대와 외연 확대를 통해서 일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도당을 만들자는 것은 정권 교체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변하고 배지나 지켜주자는 무책임하고 젊은 한 선동에 불과하다. 전라도당은 결국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지언정 전 전혀을 발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문재인 대표에게 하루빨리 물러나라고 요구하겠는데 신 의원은 어떤 입장이인나?

호남의 상나 민심을 담에고 정부 다도모 주력한 신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봤다. 이것만이 6석 전통의 유일 야당으로 김려든 국정원과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더불어 민주당이 총선 승리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최고의 정치혁신은 서민의 절박과 아픔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퇴한 것은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앞으로 총선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적어도 호남에서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경쟁을 할 것이다. 과거 민주당이 맥대개한 정이도 당선되던 특주체제가 행체의 위기를 불러왔다면 경쟁구도는 야당의 책임투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총선에서는 천경하게 경쟁하되 대선 승리를 위해 다시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처럼 서로에게 감은 상처를 입힌다면 다시 합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평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좀 소개해 달라.

국회에 등원한지 햐 1년 5개월만에 과분할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다. 심하이 출중한 국회의원들이 아주 많은데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2016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NGO센터단 국감 우수의원, 한국에너넥스협회로부터 국감우수 의원 Best5 및 국정감사 평가기관 도넛으로부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통합국회의원, 국회 보좌진, 기자들이 뽑은 다면분 개세서 상위10%에 선정되기도 했다.

소속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거둔 주요성과를 끝는다면?

개정 큰 성과는 한·중 FTA 피해대책으로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추진하면서도 국회에 피해액을 분석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결임없는 문제제기와 설득을 통해 정부용역보고서 권개를 이끌어 냈고 피해액이 외도적으로 축소된 점을 밝혀냈다. 무에이무글유제의 도입도 요구했다. 그 결과 이아장 협의해에서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정에 등원한 이후 결임없이 지적한 것이 농수산유통공사가 중국산과 태국산 쌀을 수입해서 낸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방출해 쌀값 하락을 부채질 하는 문제였다. 수입 쌀 2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

세월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선박 안정사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비전문가들로 해줘진 문제점과 인양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참 복조적이 될 듯기간 촉소 음을 지적했다. 관심 밖으로 밀려난 세월호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성과는?

작엊보다 나주시가 도시새생 사업비 100억 원과 유성산 나눔숲체원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했다.

아울러 KTX의 나주역 정차 횟수를 28회로 대폭 증차시킨데 이어 나주역을 명실상부한 전남의 허브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주역사 증축예산 245억을 확보했다. 더불어 호남고속철(광주송정~고막원구간의 시설물 개량, 방음벽 울타리 설치 등 2단계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진했던 나주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주시와 함께 구도심 재생을 위한 '지명유래 고도 전통문화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나주시에 각각 국비 500억 원이 지원돼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주의 미래가 걸려 있다할 수 있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위해 호혜원 악취 관련 예산 120억원과 체감형 게임센터 구축 및 운영비 150억원, 빛가람파출소 신축비 12억원, 혁신도시 주차장 특별교부세 5억 등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위해 공공기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총선은 두 야당의 경쟁구도에서 유권자들이 선택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간판정치와 패거리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인물과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선거를 해주실 거라 믿는다.

/정동안 기자

<나주신문> 2016년 1월 25일자 3면

신정훈 의원,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도보순례 돌입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백남기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월 경찰의 폭력적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17일간의 도보순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알리는 출정식이 오늘(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전남 보성역에서 열렸다.

출정식에는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신정훈 의원은 "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 불법적 폭력진압으로 대응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싸워왔다"면서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2월 4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백남기농민 사건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농민의 불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문책, 검찰 관련자에 대한 엄처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보성을 출발한 백남기 회복 기원 도보 순례단은 화순-광주-장성-고창-정읍-김제-전주-익산-논산-대전-공주-천안-평택-수원-안산-안양을 거쳐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제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도보순례 돌입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백남기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월 경찰의 폭력적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17일간의 도보순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알리는 출정식이 오늘(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전남 보성역에서 열렸다.

출정식에는 신정훈의원을 비롯해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신정훈 의원은 "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 불법적 폭력진압으로 대응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싸워왔다"면서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2월 4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백남기농민 사건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농민의 불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문책, 검찰 관련자에 대한 엄처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바 있다.

이날 보성을 출발한 백남기 회복 기원 도보 순례단은 화순-광주-장성-고창-정읍-김제-전주-익산-논산-대전-공주-천안-평택-수원-안산-안양을 거쳐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제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임태영 기자

<나주신문> 2016년 2월 15일자 4면

신정훈 의원, 당내 농어민상생본부장 임명

더민주당 당내 정책공약단 산하로 신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선대위 정책공약단 농어민상생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총선정책공약단 산하에 농어민상생본부 등 6개 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들을 선임했다.

6개 본부는 ▲농어민상생본부를 비롯해 ▲더불어성장본부 ▲더불어민생교육복지본부 ▲불평등해소본부 ▲인권민주주의본부 ▲한반도 평화본부 등이다. 신정훈 의원이 본부장인 농어민상생본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복지대책, 농업·농촌에 대한 각종 공약을 마련하게 된다.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의 농어민위원장도 맡고 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정책공약단은 18일 국회에서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총선공약 목표로 제시하며 3대 비전, 7대 약속을 발표하였다.

공약단이 제시한 3대 비전으로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제시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을 7대 정책과제로 꼽았다.

신정훈 의원, 당내 농어민상생본부장 임명

더민주당 당내 정책공약단 산하로 신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선대위 정책공약단 농어민상생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총선정책공약단 산하에 농어민상생본부 등 6개 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들을 선임했다.

6개 본부는 ▲농어민상생본부를 비롯해 ▲더불어성장본부 ▲더불어민생교육복지본부 ▲불평등해소본부 ▲인권민주주의본부 ▲한반도 평화본부 등이다. 신정훈 의원이 본부장인 농어민상생본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걸 맞는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복지대책, 농업·농촌에 대한 각종 공약을 마련하게 된다.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의 농어민위원장도 맡고 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정책공약단은 18일 국회에서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총선공약 목표로 제시하며 3대 비전, 7대 약속을 발표하였다.

공약단이 제시한 3대 비전으로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제시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을 7대 정책과제로 꼽았다.



<나주신문> 2016년 2월 22일자 4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43
언 론 사	**주식회사 기호일보** 인천 남구 인중로5 정산빌딩 9층 대표이사 서강훈
심의대상기사	기호일보 2015년 12월 31일자 5면 「박광온, "수원 망포동에 초교 신설 확정"」, 2016년 1월 11일자 6면 「청명중 체육관 14억 건립지원」, 2016년 3월 4일자 5면 「박광온, 수원정 예비후보로 첫 일정 소화」, 2016년 3월 7일자 5면 「박광온 연기금 투자정책 더민주 공약화」, 2016년 3월 10일자 5면 「"삶의 격차 양산하는 경제정책 바로잡을 것"」, 2016년 3월 14일자 4면 「박광온 "영통이 승리해야 수도권이 승리"」, 2016년 3월 16일자 5면 「박광온, 광역교통청 등 7개 공약 발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광온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광온 "수원 망포동에 초교 신설 확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국회의원은 그동안 교육부의 승인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1초등학교'(가칭) 설립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학교 신설을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망포1초는 48학급 규모로 총 사업비 337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8년 3월 개교할 전망이다. 망포동 일대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1천200여 명 이상의 초등학생 유입이 전망돼 초



박광온 "수원 망포동에 초교 신설 확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국회의원은 그동안 교육부의 승인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1초등학교'(가칭) 설립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학교 신설을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망포1초는 48학급 규모로 총 사업비 337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8년 3월 개교할 전망이다. 망포동 일대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1천200여 명 이상의 초등학생 유입이 전망돼 초등학교 설립이 절실했으나 교육부는 아파트 개발계획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올해 1월과 4월, 9월 3차례 학교 신설을 보류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찾아가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황우여 교육부총리에게도 학교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2015년 12월 31일자 5면

등학교 설립이 절실했으나 교육부는 아파트 개발계획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올해 1월과 4월, 9월 3차례 학교 신설을 보류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찾아가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황우여 교육부총리에게도 학교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청명중 체육관 14억 건립지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국회의원은 10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청명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4억7천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청명중에는 지상 1층 총면적 1천127㎡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올해 5억8천800만 원, 2017년 8억8천400만 원으로 배정된다.

1997년 개교한 청명중은 22학급, 75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도심 속에 위치해 운동장 면적이 협소하고, 기상 악화 시 학생들의 체육활동 제약과 교내 행사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 체육관 건립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 청명중 체육관 신설의 당위성과 긴급성을 피력하는 한편, 특별교부금 지원을 지속 요청해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청명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학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청명중 체육관 14억 건립지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국회의원은 10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청명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4억7천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청명중에는 지상 1층 총면적 1천127㎡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올해 5억8천800만 원, 2017년 8억8천400만 원으로 배정된다.

1997년 개교한 청명중은 22학급, 75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도심 속에 위치해 운동장 면적이 협소하고, 기상 악화 시 학생들의 체육활동 제약과 교내 행사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 체육관 건립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 청명중 체육관 신설의 당위성과 긴급성을 피력하는 한편, 특별교부금 지원을 지속 요청해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청명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학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2016년 1월 11일자 6면

박광온, 수원정 예비후보로 첫 일정 소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3일 4·13 총선 수원정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 예비후보는 매탄1·2·3·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2동을 포함하는 수원정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첫 일정으로 영통구 노인지회와 수원여성인력센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박광온, 수원정 예비후보로 첫 일정 소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의원은 3일 4·13 총선 수원정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 예비후보는 매탄1·2·3·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2동을 포함하는 수원정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첫 일정으로 영통구노인지회와수원여성인력센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2016년 3월 4일자 5면

박광온 연기금 투자정책 더민주 공약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이 4·13 총선 더민주 대표 공약으로 채택됐다.

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몇 달간 진행해 본 경험이 드물었다"며 "이번만큼은 늦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약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실물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박광온 연기금 투자정책 더민주 공약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이 4·13 총선 더민주 대표 공약으로 채택됐다.

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몇 달간 진행해 본 경험이 드물었다"며 "이번만큼은 늦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약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실물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2016년 3월 7일자 5면

“삶의 격차 양산하는 경제정책 바로잡을 것”

박광온, 수원정 출마 공식선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예비후보가 4·13 총선 수원정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9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 영통주민들께서 저를 야당 후보 중 유일한 수도권 당선인으로 만들어 줬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삶의 격차를 양산하는 경제정책, 조세정책을 바로잡아 영통 주민들이 웃을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영통구를 ‘더불어성장 특별구’로 만들겠다는 정책 비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통구에 ‘바이오밸리’를 구축해 ‘바이오벤처 특별구’를 만들고, 영통구를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사람 특별구’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MBC 보도국장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 임기 중 더민주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가계부채 TF 위원으로 활동했다.

“삶의 격차 양산하는 경제정책 바로잡을 것”

박광온, 수원정 출마 공식선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예비후보가 4·13 총선 수원정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9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 영통주민들께서 저를 야당 후보 중 유일한 수도권 당선인으로 만들어 줬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삶의 격차를 양산하는 경제정책, 조세정책을 바로잡아 영통 주민들이 웃을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영통구를 ‘더불어성장 특별구’로 만들겠다는 정책 비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통구에 ‘바이오밸리’를 구축해 ‘바이오벤처 특별구’를 만들고, 영통구를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사람 특별구’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MBC 보도국장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 임기 중 더민주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가계부채 TF 위원으로 활동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2016년 3월 10일자 5면

박광온 “영통이 승리해야 수도권이 승리”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박광온〈사진〉 후보가 13일 ‘웃어요 캠프’라는 이름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원혜영·안민석·이원욱 국회의원과 수원지역 더민주 예비후보인 김진표·이찬열·김영진·백혜련 예비후보, 엄홍길 휴먼재단의 엄홍길 대장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남들이 4년이 돼도 못한 일을 박 의원은 1년 만에 뚝딱 해낸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영통이 승리해야 수도권이 승리하고, 나아가 의회권력을 바꿀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박광온 “영통이 승리해야 수도권이 승리”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박광온<사진> 후보가 13일 ‘웃어요 캠프’라는 이름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원혜영·안민석·이원욱 국회의원과 수원지역 더민주 예비후보인 김진표·이찬열·김영진·백혜련 예비후보, 엄홍길 휴먼재단의 엄홍길 대장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남들이 4년이 돼도 못한 일을 박 의원은 1년 만에 뚝딱 해낸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영통이 승리해야 수도권이 승리하고, 나아가 의회권력을 바꿀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2016년 3월 14일자 4면

박광온, 광역교통청 등 7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박광온 후보가 ‘수도권 광역교통·물류청 신설’ 및 ‘신분당선 요금 인하’ 등 7가지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15일 첫 번째 공약 발표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물류청(가칭) 신설 추진 ▶신분당선 요금 인하 ▶M버스 개선 및 경기M버스 신설 ▶출근형 급행버스 확대 ▶심야버스 운행시간 연장·확대 ▶대중교통과 연계한 무인 공영자전거 추진 ▶인덕원~수원선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등 7개 교통 관련 공약을 밝혔다.

박광온, 광역교통청 등 7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박광온 후보가 ‘수도권 광역교통·물류청 신설’ 및 ‘신분당선 요금 인하’ 등 7가지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15일 첫 번째 공약 발표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물류청(가칭) 신설 추진 ▶신분당선 요금 인하 ▶M버스 개선 및 경기M버스 신설 ▶출근형 급행버스 확대 ▶심야버스 운행시간 연장·확대 ▶대중교통과 연계한 무인 공영자전거 추진 ▶인덕원~수원선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등 7개 교통 관련 공약을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2016년 3월 16일자 5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44**
언 론 사	**주식회사 미디어서울매일(서울매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17 202호(연지동 대호빌딩) 대표이사 김은주
심의대상기사	서울매일 2015년 12월 30일자 3면 「동수원고가차도 소음 줄어」, 2016년 1월 6일자 3면 「화서역 에스컬레이터 운행 」, 2016년 1월 7일자 3면 「'찾아가는 동별 의정 보고회' 김용남 의원, 주민과의 소통」, 2016년 2월 2일자 3면 「"설 준비는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2016년 3월 11일자 3면 「서호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 김용남, 보행 안전사고 예방」, 2016년 3월 21일자 3면 「"출퇴근길에 만나요"」, 2016년 2월 3일자 3면 「'신구로 창조 3D' 공약 실현 제시」, 2016년 2월 12일자 3면 「"남구로시장에서 설준비 해요"」, 2016년 2월 29일자 3면 「'신구로창조 3D' 비전 발표」, 2016년 3월 4일자 3면 「험지로 간 강요식 '이색 홍보'」, 2016년 3월 21일자 3면 「험지공천, 킬러공천 넘어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용남의 동정 관련 기사 등을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며, 새누리당 강요식 예비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 및 정견 관련 기사 등을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동수원고가차도 소음 줄어

김용남 의원,
소음저감 포장사업 위한 5억원 확보

지난 29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팔달구 동수원고가차도 주변의 소음저감 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과 인계동 등을 지나는 동수원고가차도는 하루 평균 45,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동수원고가차도 소음저감 포장은 김용남 의원이 확보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극동클래스아파트 165세대 △신반포아파트 1,185세대 △CJ빌리지 211세대 등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용남 의원은 이외에도 '숙지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원(교육부), '방범용 고화질 CCTV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국민안전처), '남수문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행정자치부), '수원천과 서호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국민안전처) 등 올해 특별교부금만도 35억원을 확보하며 지역사업 예산확보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교통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수원고가차도 소음 줄어

김용남 의원, 소음저감 포장사업 위한 5억원 확보

오순석 기자 / 지난 29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팔달구 동수원고가차도 주변의 소음저감 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과 인계동 등을 지나는 동수원고가차도는 하루 평균 45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동수원고가차도 소음저감 포장은 김용남 의원이 확보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 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극동클래스아파트 165세대 △신반포아파트 1,185세대 △CJ빌리지 211세대 등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용남 의원은 이외에도 '숙지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원(교육부), '방범용 고화질 CCTV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국민안전처), '남수문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행정자치부), '수원천과 서호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국민안전처) 등 올해 특별교부금만도 35억원을 확보하며 지역사업 예산확보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교통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매일> 2015년 12월 30일자 3면

화서역 에스컬레이터 운행

김용남 의원, 끈질긴 설득끝에 얻어진 '새해 선물'

지난 5일 오전 7시부터 화서역 에스컬레이터가 운행을 시작했다.

이제 화서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던 불편 없이 편안하게 화서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서역이 생긴 이래 지난 40여년간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시도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김용남 의원은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던 화서역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말부터 코레일 최연혜 사장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해 7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화서역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6개월의 설치 공사 끝에 최종 완성검사까지 마쳐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화서역 1번, 2



화서역 에스컬레이터 운행

김용남 의원, 끈질긴 설득끝에 얻어진 '새해 선물'

박경국 기자 / 지난 5일 오전 7시부터 화서역 에스컬레이터가 운행을 시작했다.

이제 화서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던 불편 없이 편안하게 화서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서역이 생긴 이래 지난 40여년간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시도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김용남 의원은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던 화서역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말부터 코레일 최연혜 사장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해 7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화서역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6개월의 설치 공사 끝에 최종 완성검사까지 마쳐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화서역 1번, 2번 출구에 설치돼 주민들의 화서역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김용남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개통 첫날 새벽부터 화서역 이용 주민들에게 새해인사와 함께 화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과정을 보고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김용남 의원은 "2016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께 에스컬레이터를 선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도 꼼꼼하게 살펴 편안한 수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매일> 2016년 1월 6일자 3면

번 출구에 설치돼 주민들의 화서역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김용남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개통 첫날 새벽부터 화서역 이용 주민들에게 새해인사와 함께 화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과정을 보고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김용남 의원은 "2016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께 에스컬레이터를 선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도 꼼꼼하게 살펴 편안한 수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찾아가는 동별 의정 보고회'

김용남 의원, 주민과의 소통

김용남 의원은 5일 오전, 오후 각각 화서1동, 화서2동 주민센터에서 새해 첫 의정보고를 가졌다. 김용남 의원은 새해 첫 의정활동의 시작을 주민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부터 6일간 팔달구 관내 각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동(洞)별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용남 의원은 '찾아가는 동별 의정보고회'를 통해 동(洞)별 지난해 사업성과를 주민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새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용남 의원은 "지난해 고시공부 하듯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해 얻은 성과에 대해 주민여러분이 만족해 하셔서 기쁘다"밝혔다.

'찾아가는 동별 의정 보고회'

김용남 의원, 주민과의 소통

유주형 기자 / 김용남 의원은 5일 오전, 오후 각각 화서1동, 화서2동 주민 센터에서 새해 첫 의정보고를 가졌다. 김용남 의원은 새해 첫 의정활동의 시작을 주민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부터 6일간 팔달구 관내 각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동(洞)별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용남 의원은 '찾아가는 동별 의정보고회'를 통해 동(洞)별 지난해 사업성과를 주민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 드리고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새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용남 의원은 "지난해 고시공부 하듯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해 얻은 성과에 대해 주민여러분이 만족해 하셔서 기쁘다"고 밝혔다.

<서울매일> 2016년 1월 7일자 3면

"설 준비는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與 김용남 의원, 수원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전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병)은 지난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역전시장, 매산시장, 화서시장 등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특산물과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시장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김용남 의원에게 "설 대목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체감경기도 안 좋은데 다음 주부터 날씨도 더 추워진다고 하니 손님이 없을까 걱정"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민생에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용남 의원은 "이번 주말은 한파가 풀려 그래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늘어난 것 같아 다행"이라며, "하지만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가 무산되는 등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용남 의원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분들이 중심이 되는 튼튼한 지역경제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시장별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설 준비는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與 김용남 의원, 수원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전개

오순석·박경국 기자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 병)은 지난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역전시장, 매산시장, 화서시장 등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특산물과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시장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김용남 의원에게 "설 대목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체감경기도 안 좋은데 다음 주부터 날씨도 더 추워진다고 하니 손님이 없을까 걱정"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민생에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용남 의원은 "이번 주말은 한파가 풀려 그래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늘어난 것 같아 다행"이라며, "하지만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가 무산되는 등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용남 의원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분들이 중심이 되는 튼튼한 지역경제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시장별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매일> 2016년 2월 2일자 3면

서호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

김용남, 보행 안전사고 예방

김용남 의원(수원 팔달구,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팔달구 관내 서호천 산책로 전 구간에 가로등 설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구간에 가로등이 없어 이용이 불편했던 서호천 산책로는 이번 가로등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호천 산책로는 평소에도 인근 화서동 주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곳이지만, 일부 산책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시설개선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용남 의원은 주민들과 가로등 설치를 비롯한 산책로 개선을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가로

서호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

김용남, 보행 안전사고 예방

오순석 · 박경국 기자 / 김용남 의원(수원 팔달구,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팔달구 관내 서호천 산책로 전 구간에 가로등 설치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구간에 가로등이 없어 이용이 불편했던 서호천 산책로는 이번 가로등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호천 산책로는 평소에도 인근 화서동 주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곳이지만, 일부 산책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시설개선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용남 의원은 주민들과 가로등 설치를 비롯한 산책로 개선을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가로등 설치공사는 팔달구 화서동 천천교부터 화상교 앞까지 약 512m 거리에 약 7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월 공사착공에 들어가 약 한 달여의 공사를 거쳐 마무리됐다. 특히 김용남 의원은 지난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수원천-서호천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편의에 밀접한 시설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왔다.

<서울매일> 2016년 3월 11일자 3면

등 설치공사는 팔달구 화서동 천천교부터 화상교 앞까지 약 512m거리에 약 7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월 공사착공에 들어가 약 한 달여의 공사를 거쳐 마무리됐다. 특히 김용남 의원은 지난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수원천-서호천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편의에 밀접한 시설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왔다.

"출퇴근길에 만나요"

김용남, 주민들과 친밀 교류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수원 팔달구)의 출근인사와 퇴근인사 선거운동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이어온 출퇴근인사 선거운동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팔달구 내 수원역과 화서역, 못골시장, 동수원사거리 등의 지역에서 출·퇴근길 인사는 물론, 일대 상가와 정류장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친밀감을 높이는 선거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팔달경찰서와 농업체험관 유치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저는, 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김 의원의 슬로건에 많은 팔달구민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지난 18일 아침도 어김없이 팔달구 인계동 사거리에서 시민들께 아침인사를 드린 김용남 의원은 선거 이후에도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출퇴근 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출퇴근길에 만나요"

김용남, 주민들과 친밀 교류

오순석 · 박경국 기자 /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수원 팔달구)의 출근인사와 퇴근인사 선거운동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후부터 이어온 출퇴근인사 선거운동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팔달구 내 수원역과 화서역, 못골시장, 동수원사거리 등의 지역에서 출 · 퇴근길 인사는 물론, 일대 상가와 정류장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친밀감을 높이는 선거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팔달경찰서와 농업체험관 유치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저는, 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김 의원의 슬로건에 많은 팔달구민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지난 18일 아침도 어김없이 팔달구 인계동 사거리에서 시민들께 아침인사를 드린 김용남 의원은 선거 이후에도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출퇴근 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매일> 2016년 3월 21일자 3면

‘신구로 창조 3D’ 공약 실현 제시

與 구로을 강요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는 4월 20대 총선 구로(을)에 출사표를 던진 강요식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구로을, 전 당협위원장)가 지난 달 23일 구로구 구로동로 세일빌딩 701호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서는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 김근태 예비역 육군대장, 이계명 구로구 평통협의회장, 임향순 전국호남향우회 회장, 홍춘표 구로문인협회 회장, 서호연 구로구의회 부의장, 최숙자·박종녀 구로구의원 등 500여 명의 지지자 및 당원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개소식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창준 미국 연방하원의원과 김근태 예비역 육군대장 등의 축사, 후보자 인사말, 이강철 한국시낭송선교회 회장의 시낭송, 승리의 완주를 다짐하는 빨간운동화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의원과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강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디자인, 디지털, 디벨로프먼트 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이를 현실화할 ‘신구로 창조 3D’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구로 창조 3D’ 공약 실현 제시

與 구로을 강요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순석 박경국 기자 / 오는 4월 20대 총선 구로(을)에 출사표를 던진 강요식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구로을, 전 당협위원장)가 지난달 23일 구로구 구로동로 세일빌딩 701호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서는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 김근태 예비역 육군대장, 이계명 구로구 평통협의회장, 임향순 전국호남향우회 회장, 홍춘표 구로문인협회 회장, 서호연 구로구의회 부의장, 최숙자·박종녀 구로구의원 등 500여 명의 지지자 및 당원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개소식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창준 미국 연방하원의원과 김근태 예비역 육군대장 등의 축사, 후보자 인사말, 이강철 한국시낭송선교회 회장의 시낭송, 승리의 완주를 다짐하는 빨간운동화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의원과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강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디자인, 디지털, 디벨로프먼트 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이를 현실화할 ‘신구로 창조 3D’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매일> 2016년 2월 3일자 3면

“남구로시장에서 설준비 해요”

강요식 구로을 예비후보, 상인·주민과 현장의 소리 청취

강요식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구로을, 전 당협위원장)는 지난 3일 설 명절을 맞아 구로구 전통시장인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 살리기 행사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시장 내 가게 등을 들러 설맞이 차례상에 올릴 여러 가지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민생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침체와 한파로 여러 어려움이 많았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구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을 개발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요식 예비후보는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실시하고 디자인, 디지털, 디벨로프먼트 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구로를 만들기 위한 ‘신구로 창조 3D’ 공약을 발표했다.

육사를 졸업(41기)했으며, 정치학 박사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강 예비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구로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다시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다.

그동안 야당세가 강했던 구로을 지역에서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20대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구로시장에서 설준비 해요"

강요식 구로을 예비후보, 상인·주민과 현장의 소리 청취

오순석·박경국 기자 / 강요식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구로을,전 당협위원장)는 지난 3일 설 명절을 맞아 구로구 전통시장인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 살리기 행사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시장 내 가게 등을 들러 설맞이 차례 상에 올릴 여러 가지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민생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강 예비후보는 이 날 "경기침체와 한파로 여러 어려움이 많았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고 구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을 개발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요식 예비후보는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실시하고 디자인, 디지털, 디벨로프먼트 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구로를 만들기 위한 '신구로 창조 3D' 공약을 발표했다.

육사를 졸업(41기)했으며, 정치학 박사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강 예비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구로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다시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다.

그동안 야당세가 강했던 구로을 지역에서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20대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매일> 2016년 2월 12일자 3면

'신구로창조 3D' 비전 발표

강요식 예비후보, "낙후된 구로 재설계하겠다"

새누리당 강요식 예비후보(전 구로을 당협위원장)는 24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구로창조 3D' 정책비전을 1차로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먼저 공약인 '신구로 창조 3D'를 통해서 "낙후된 구로를 재설계하고, 편향된 구로의 정치문화를 개혁해 자랑스런 신구로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당선되면 "구로도 확 바꾸고, 정치도 더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구로 창조 3D는 디자인(Design), 디지털(Digital), 디벨로프먼트(Development)가 핵심이다. 낙후된 이미지 개선과 서남권 중심의 미래 구로발전을 위해 설계를 다시하고, 디지털단지의 특성을 살려 첨단 IT 기업육성과 품격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각 동별 차별화된 맞춤형 개발을 한다는 내용이다.

강 예비후보는 정책비전 발표에서 구로구(을) 지역의 인구변화표를 보여주며 "구로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어 더 많은 구로주민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구로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낙후된 구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고인 물은 썩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정치를 싹 바꾸어야만 가능할 것이다."며 구로를 바꿀 수 있는 공약으로 '5대 진품약속'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가 말하는 '5대 진품약속'은 ▲품격구로 ▲복지구로 ▲교육구로 ▲문화구로 ▲소통구로로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첫째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해 구로공단의 굴뚝 이미지를 벗어나 특화된 구로의 브랜드를 만들어

서남권 신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둘째 구로주민이 원하는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현해 최고의 복지인 품격있는 일자리 창출로 복지구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셋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좋은 교육환경 조성과 정책을 잘 만들어 맞춤형 명품교육을 통해 일류 교육구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넷째 구로인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이질적인 동별 문화코드를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고품격 문화구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다섯째 갑(甲)이 아닌 을(乙)의 입장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민과 늘 호흡하는 소통구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세부공약으로는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10여 년간 미진한 구로의 숙원사업,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사업개요 ▲추진경과 ▲향후계획을 밝히며 상세내용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반드시 조기에 해결해야할 구로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끝장토론이라도 벌여 조기에 해결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강 예비후보는 끝으로 구로에 필요한 일꾼은 왜 강요식 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강요식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더민주 박영선과 선거를 치른 강력한 후보로 상대를 잘 아는 후보가 돼야만 하며, 대선/총선/지방선거를 출마했던 다양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 창조적 리더십으로 진정한 주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밝혀 이번 20대 총선에 대한 다짐을 보였다.

강요식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강요식 예비후보 지지도는 41.2%,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 지지도는 40.0%로 집계돼 1.2% 차이로 오차범위 내 앞섰다.



'신구로창조 3D' 비전 발표

강요식 예비후보, "낙후된 구로 재설계하겠다"

오순석 · 박경국 기자 / 새누리당 강요식 예비후보(전 구로을 당협위원장)는 24일 오후3시 서울 구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구로창조 3D' 정책비전을 1차로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먼저 공약인 '신구로 창조 3D'를 통해서 "낙후된 구로를 재설계 하고, 편향된 구로의 정치문화를 개혁해 자랑스런 신구로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당선되면 "구로도 확 바꾸고, 정치도 더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구로 창조 3D는 디자인(Design), 디지털(Digital), 디벨로프먼트(Development)가 핵심이다. 낙후된 이미지 개선과 서남권 중심의 미래 구로발전을 위해 설계를 다시 하고, 디지털단지의 특성을 살려 첨단 IT 기업육성과 품격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각 동별 차별화된 맞춤형 개발을 한다는 내용이다.

강 예비후보는 정책비전 발표에서 구로구(을) 지역의 인구변화표를 보여주며 "구로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어 더 많은 구로주민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구로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낙후된 구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고인 물은 썩는것과 같이 기존의 정치를 싹 바꾸어야만 가능할 것이다."며 구로를 바꿀 수 있는 공약으로 '5대 진품약속'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가 말하는 '5대 진품약속'은 ▲품격구로▲복지구로▲교육구로▲문화구로▲소통구로로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첫째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해 구로공단의 굴뚝 이미지를 벗어나 특화된 구로의 브랜드를 만들어 서남권 신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둘째 구로주민이 원하는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현해 최고의 복지인 품격있는 일자리 창출로 복지구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셋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좋은 교육환경 조성과 정책을 잘 만들어 맞춤형 명품교육을 통해 일류 교육구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넷째 구로인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이질적인 동별 문화코드를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고품격 문화구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다섯째 갑(甲)이 아닌 을(乙)의 입장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민과 늘 호흡하는 소통구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세부공약으로는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10여 년간 미진한 구로의 숙원사업,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사업개요▲추진경과▲향후계획을 밝히며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반드시 조기에 해결해야할 구로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끝장토론이라도 벌여 조기에 해결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강 예비후보는 끝으로 구로에 필요한 일꾼은 왜 강요식 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강요식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더민주 박영선과 선거를 치른 강력한 후보로 상대를 잘 아는 후보가 돼야만 하며, 대선/총선/지방선거를 출마했던 다양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 창조적 리더십으로 진정한 주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밝혀 이번 20대 총선에 대한 다짐을 보였다.

강요식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강요식 예비후보 지지도는 41.2%,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 지지도는 40.0%로 집계돼 1.2% 차이로 오차범위내 앞섰다.

전통적으로 야권세가 강해 여권의 험지로도 불리우며 오세훈 출마설도 나돌았던 구로을을 지역에서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박영선 예비후보는 강요식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20대 총선에서 리턴매치를 펼치게 돼 구로을을 지역의 새인물 교체가 실현될지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여론조사는 2월 15일 시사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구로을 거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됐고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 이다.

<서울매일> 2016년 2월 29일자 3면

전통적으로 야권세가 강해 여권의 험지로도 불리우며 오세훈 출마설도 나돌았던 구로을 지역에서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박영선 예비후보는 강요식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20대 총선에서 리턴매치를 펼치게 돼 구로을 지역의 새인물 교체가 실현될지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여론조사는 2월 15일 시사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구로을 거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됐고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이다.

험지로 간 강요식 '이색 홍보'

새누리 구로을 예비후보, 이색선거운동 '눈길'

새누리당에서 험지라고도 불리우는 구로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과 리턴매치를 펼치는 강요식 예비후보(전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의 다채로운 이색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3.1절을 맞아 아침 일찍 구로구청 사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구로구민에게 인사를 나누며 "3.1절은 만국에 한국의 독립을 알린 날로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해준 순국선열들을 잊지 말아야할 기념일이다. 하지만 점점 쉬는 날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뜻깊은 3.1절을 더욱 알리고 기념해 보고자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강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드라마 '야인시대'에 출연했던 배우 박영록 씨와 함께 구로시장을 방문해 구로시장 상인과 시장을 방문한 구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었다.

또한 폭설에 가까운 함박눈이 내렸던 주말에는 영

험지로 간 강요식 '이색 홍보'

새누리 구로을 예비후보, 이색선거운동 '눈길'

오순석 · 박경국 기자 / 새누리당에서 험지라고도 불리우는 구로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과 리턴매치를 펼치는 강요식 예비후보(전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의 다채로운 이색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3.1절을 맞아 아침 일찍 구로구청 사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구로구민에게 인사를 나누며 "3.1절은 만국에 한국의 독립을 알린 날로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해준 순국선열들을 잊지 말아야할 기념일이다. 하지만 점점 쉬는 날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뜻깊은 3.1절을 더욱 알리고 기념해 보고자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강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드라마 '야인시대'에 출연했던 배우 박영록씨와 함께 구로시장을 방문해 구로시장 상인과 시장을 방문한 구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었다.

또한 폭설에 가까운 함박눈이 내렸던 주말에는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를 패러디한 '누구냐...넌?' 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목에 걸고 이색선거운동을 펼쳐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강요식 예비후보는 지난달



15일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강요식 예비후보 지지도는 41.2%,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 지지도는 40.0%로 집계돼 1.2% 차이로 오차범위내 앞섰다.

전통적으로 야권세가 강해 여권의 험지로도 불리우며 오세훈 출마설도 나돌았던 구로을 지역에서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박영선 예비후보는 강요식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20대 총선에서 리턴매치를 펼치게 돼 구로을 지역의 새인물 교체가 실현될지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여론조사는 2월 15일 시사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구로을 거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됐고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 이다.

이번 조사의 최초 공표, 보도 일시는 2016년 2월 15일 15시 00분이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매일> 2016년 3월 4일자 3면

화 '올드보이'의 대사를 패러디한 '누구냐...넌?'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목에 걸고 이색선거운동을 펼쳐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강요식 예비후보는 지난달 15일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강요식 예비후보 지지도는 41.2%,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 지지도는 40.0%로 집계돼 1.2% 차이로 오차범위내 앞섰다.

전통적으로 야권세가 강해 여권의 험지로도 불리우며 오세훈 출마설도 나돌았던 구로을 지역에서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박영선 예비후보는 강요식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20대 총선에서 리턴매치를 펼치게 돼 구로을 지역의 새인물 교체가 실현될지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여론조사는 2월 15일 시사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구로을 거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됐고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이다.

이번 조사의 최초 공표, 보도 일시는 2016년 2월 15일 15시 00분이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terview] 새누리당 구로을 강요식 후보

험지공천, 킬러공천 넘어서!

지금까지 야당세가 강해 여당의 험지라고도 불리던 구로을 지역에 19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진 강요식 예비후보(새누리당, 구로을, 전 당협위원장)는 새누리당 4.13 총선 여론조사 경선 결과 16일 공천이 확정돼 19대 총선 '강요식 vs 박영선'에 이어 20대 총선에서 리턴매치를 펼치게 됐다.

"오직 구로만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라며 지역사랑의 마음을 강하게 내보인 강요식 후보와의 1문 1답 인터뷰를 통해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Q) 4.13총선 새누리당 구로을 지역 공천에 확정됐다. 소감이 어떠신지?

-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에 의한 이번 경선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구로주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로을 지역은 오세훈 험지 출마설, 킬러공천 등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상향식 공천에 통과했다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며, 이번 경선을 통해 다져진 경쟁력으로 반드시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20대에 펼쳐질 리턴매치에서 반드시 역전승을 거둘 것입니다. 민심과 새로운 변화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 이제 강요식이 있습니다.

Q) 본인 소개와 출마를 결심한 이유

- 구로바꿀 통큰남자, 새누리당 구로을 국회의원 후보 강요식입니다. 육사졸업(41기), 정치학 박사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국방부 장관(김장수) 정책보좌관을 거쳐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SNS소통자문위원장,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누

리당 공천을 받고 구로을에 출마했습니다. 시인, 수필문학가로 '소셜리더십', '박근혜, 한국최초 여성대통령', '뿌리깊은 구로나무' 등 총 10권의 저서를 펴냈습니다.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 열정적인 추진력이 강점인 진정한 구로인입니다.

Q) 구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은 무엇인가요?

– 슬로건은 '구로바꿀 통큰남자 강요식'입니다. 구로를 꼭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으며 공약으로는 '신구로 창조 3D(디자인, 디지털, 디벨로프먼트)'입니다. '신구로 창조 3D'는 디자인(Design), 디지털(Digital), 디벨로프먼트(Development)를 말합니다. 구로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로를 서남권의 허브로 재편하기 위해 전격적인 도시 재설계에 들어가며, 디지털 단지의 특성을 살려 첨단 IT 기업 육성과 품격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각 동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개발을 시행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신구로 창조 3D' 실현을 위한 '5대 진품약속'이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Q) 만약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 세종대왕은 열정있고 부지런하며 삼가는 사람을 재능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보다 높이 평가 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육사출신 강요식의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정말 구로를 위해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저의 열정을 온전히 주민 위해 쏟을 것이며 갑(甲)이 아닌 을(乙)의 입장에서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막걸리 한 잔 편하게 할 수 있는 구로의 참머슴이 되겠습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강요식은 어떤 야당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혁신, 지역발전, 국민봉사를 소위 '강요식 리더십'을 통해 갑(甲)의 입장이 아닌 을(乙)의 입장에서서 지역주민과 활발히 소통하며 함께하는 구로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Interview 새누리당 구로을 강요식 후보

험지공천, 킬러공천 넘어서!

오순석 · 박경국 기자 / 지금까지 야당세가 강해 여당의 험지라고도 불리던 구로을 지역에 19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진 강요식 예비후보(새누리당, 구로을, 전 당협위원장)는 새누리당 4.13 총선 여론조사 경선 결과 16일 공천이 확정 돼 19대 총선 '강요식 vs 박영선'에 이어 20대 총선에서 리턴매치를 펼치게 됐다.

"오직 구로만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라며 지역사랑의 마음을 강하게 내보인 강요식 후보와의 1문 1답 인터뷰를 통해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Q) 4.13총선 새누리당 구로을 지역 공천에 확정됐다. 소감이 어떠신지?

–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에 의한 이번 경선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구로주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로을 지역은 오세훈 험지 출마설, 킬러공천 등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상향식 공천에 통과했다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며, 이번 경선을 통해 다져진 경쟁력으로 반드시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20대에 펼쳐질 리턴매치에서 반드시 역전승을 거둘 것입니다. 민심과 새로운 변화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 이제 강요식이 있습니다.

Q) 본인 소개와 출마를 결심한 이유

– 구로바꿀 통큰남자, 새누리당 구로을 국회의원 후보 강요식입니다. 육사졸업(41기), 정치학 박사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국방부 장관(김장수) 정책보좌관을 거쳐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SNS소통자문위원장,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구로을에 출마했습니다. 시인, 수필문학가로 '소셜리더십', '박근혜, 한국최초 여성대통령', '뿌리깊은 구로나무' 등 총 10권의 저서를 펴냈습니다.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 열정적인 추진력이 강점인 진정한 구로인입니다.

Q) 구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은 무엇인가요?

– "슬로건은 '구로바꿀 통큰남자 강요식'입니다. 구로를 꼭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으며 공약으로는 '신구로 창조 3D(디자인, 디지털, 디벨로프먼트)'입니다. '신구로 창조 3D'는 디자인(Design), 디지털(Digital), 디벨로프먼트(Development)를 말합니다. 구로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로를 서남권의 허브로 재편하기 위해 전격적인 도시 재설계에 들어가며, 디지털 단지의 특성을 살려 첨단 IT' 기업 육성과 품격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각 동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개발을 시행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신구로 창조 3D' 실현을 위한 '5대 진품약속'이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Q)만약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 "세종대왕은 열정있고 부지런하며 삼가는 사람이 재능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보다 높이 평가 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육사출신 강요식의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정말 구로를 위해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저의 열정을 온전히 주민 위해 쏟을 것 이며 갑(甲)이 아닌 을(乙)의 입장에서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막걸리 한 잔 편하게 할 수 있는 구로의 참머슴이 되겠습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강요식은 어떤 야당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혁신, 지역발전, 국민봉사를 소위 '강요식 리더십'을 통해 갑(甲)의 입장이 아닌 을(乙)의 입장에 서서 지역주민과 활발히 소통하며 함께하는 구로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서울매일> 2016년 3월 21일자 3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48
언 론 사	**주식회사 경인매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안산법조타운 8층 대표이사 김형근
심의대상기사	경인매일 2016년 1월 19일자 4면 「"무책임한 정치행태는 법의 심판 받게 될 것"」, 2016년 2월 4일자 4면 「19대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1등 덕양 만들 것"」, 2016년 2월 5일자 14면 「창릉천 정비사업 '가속페달'」, 2016년 2월 17일자 4면 「김태원 의원,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2016년 3월 14일자 4면 「김태원, 새누리 고양시을 공천 확정」, 2016년 3월 28일자 4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평가 받게 돼 기뻐"」, 2016년 4월 1일자 4면 「"3선 큰 일꾼 되어 덕양발전 완성"」, 2016년 4월 4일자 4면 「"교통, 일자리와 상권 상승 견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원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무책임한 정치행태는 법의 심판 받게 될 것"

<파워인터뷰>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국회의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길목에는 반드시 도로가 중요한 수단이라는 뜻이다. 한강의 기적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도로 건설의 시작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반대로 통일한국을 위한 도로에는 약하다 못해 전시에 사용될 것이 두려워 최근까지 주요도로에는 방어벽을 쌓았다 군사적 자신감에 따라 다시 허물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건설은 님비현상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예비후보가 김태원 의원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수용 예정 땅주인 4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14일 진행된 파워인터뷰에서 김태원 의원이 강 예비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20대 총선의 서막이 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15일 김태원 의원은 14일 파워인터뷰가 끝나

자마자 법률 검토에 들어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본보 18일자 1면 톱기사 보도). 이에 따라 20대 총선 격전지로 떠오른 고양 덕양을의 김태원 의원과의 파워 인터뷰를 싣는다.

Q.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고양시에서 일부 문제제기에 대한 생각은?

A.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익산부터 서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로 보아야 한다. 통일이 될 경우,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사통팔달(四通八達) 주요도로망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앞으로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강매원흥간 고속도로에서 방화대교를 당초 계획에는 운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되었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계속 운행하도록 했다.

서정마을 4단지와 가까워서 이격시켜 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또 국사봉 지하화 문제는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며 성토로 해서 고속도로로 이웃간의 단절현상을 통로박스형태의 통로를 더 만들어 해결하도록 시공사와 협의중이다.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생각. 난전마을에서 고양시의 도로계획에 있어서 어려움 있었지만 시공사에서 보완대책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Q. 이와 관련,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예비후보가 김 의원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수용 예정 땅주인 4명으로부터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총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후원하신 분이 2012년 이후 2009년부터 합법적으로 매년 후원금을 납부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와 전혀 상관없이 후원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구간에 그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몰랐고,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도 없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토부의 시급히 사업을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을 편성할 때 상을 통로박스형태의 통로를 더 만들어 해결하도록 시공사와 협의중이다.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생각. 난전마을에서 고양시의 도로계획에 있어서 어려움 있었지만 시공사에서 보완대책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Q. 이와 관련,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예비후보가 김 의원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수용 예정 땅주인 4명으로부터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총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후원하신 분이 2012년 이후 2009년부터 합법적으로 매년 후원금을 납부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와 전혀 상관없이 후원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구간에 그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몰랐고,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도 없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토부의 시급히 사업을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을 편성할 때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

허위사실을 재탕삼탕하는 것도 모자라 법의 판단에 맡긴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대해 강동기 후보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받기로 결심한 정치인이라면 응당 컨텐츠와 정사진을 제시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옳을 것으로, 무책임한 정치행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일(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낼 것이다.

Q. 고양시가 102만이 넘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은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 단계 발전 방향은?

A.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 자족도시 기능이 약화 되었다.문화예술 관련 K컬쳐 등 발전방향은 있지만 첨단산업단지가 고양시에 들어와야 자족기능이 살 것이다.

Q. 고양덕양을이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상당히 낙후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A. 덕양을은 일산과 달리 계획도시가 아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어 만든 도시다. 덕양구는 사실상 오래된 노후화 된 주거환경이 제대로 정비 되지 않아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앞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양=김정운기자

"무책임한 정치행태는 법의 심판 받게 될것"

〈파워인터뷰〉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국회의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길목에는 반드시 도로가 중요한 수단이라는 뜻이다. 한강의 기적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도로 건설의 시작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반대로 볼일 한국을 위한 도로에는 약해다 못해 전시에 사용될 것이 두려워 최근까지 주요도로에는 방어책을 쌓았다 군사적 자신감에 따라 다시 허물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건설은 남비현상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예비후보가 김태원 의원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수용 예정 땅주인 4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14일 예정된 파워인터뷰에서 김태원 의원이 강 예비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20대 총선의 서막이 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15일 김태원 의원은 14일 파워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법률 검토에 들어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본보 18일자 1면 톱기사 보도). 이에 따라 20대 총선의 격전지로 떠오른 고양덕양을의 김태원 의원과의 파워인터뷰를 싣는다.

Q.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고양시에서 일부 문제제기에 대한 생각은?

A.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익산부터 서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로 보아야 한다. 통일이 될 경우,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사통팔달(四通八達) 주요도로망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앞으로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강매원흥간고속도로에서 방화대교를 당초 계획에는 운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되었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계속 운행하도록 했다.

서정마을 4단지와 가까워서 이격시켜 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또 국사봉 지하화 문제는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며 성토로 해서 고속도로로 이웃간의 단절현상은 통로박스형태의 통로를 더 만들어 해결하도록 시공사와 협의중이다.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생각. 난전마을에서 고양시의 도로계획에 있어서 어려움 있었지만 시공사에서 보완대책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Q. 이와 관련,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예비후보가 김 의원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수용 예정 땅주인 4명으로부터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총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후원하신 분이 2012년 이후 2009년부터 합법적으로 매년 후원금을 납부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와 전혀 상관없이 후원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구간에 그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몰랐고,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도 없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토부의 시급히 사업을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을 편성할 때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

허위사실을 재탕삼탕하는 것도 모자라 법의 판단에 맡긴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대해 강동기 후보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받기로 결심한 정치인이라면 응당 컨텐츠와 정사진을 제시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옳을 것으로, 무책임한 정치행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일(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낼 것이다.

Q. 고양시가 102만이 넘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은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 단계 발전 방향은?

"덕양을 도시환경 개선해 나가겠다"

A.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 자족도시 기능이 약화 되었다.문화예술 관련 K컬쳐 등 발전방향은 있지만 첨단산업단지가 고양시에 들어와야 자족기능이 살 것이다.

Q. 고양덕양을이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상당히 낙후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A. 덕양을은 일산과 달리 계획도시가 아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어 만든 도시다. 덕양구는 사실상 오래된 노후화 된 주거환경이 제대로 정비 되지 않아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앞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양=김정운기자

<경인매일> 2016년 1월 19일자 4면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

허위사실을 재탕삼탕하는 것도 모자라 법의 판단에 맡긴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에 대해 강동기 후보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받기로 결심한 정치인이라면 응당 컨텐츠와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으로, 무책임한 정치행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일(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낼 것이다.

Q. 고양시가 102만이 넘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은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 단계 발전 방향은?

A.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 자족도시 기능이 약화되었다. 문화예술 관련 K컬쳐 등 발전방향은 있지만 첨단산업단지가 고양시에 들어와야 자족기능이 살 것이다.

Q. 고양덕양을이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상당히 낙후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A. 덕양을은 일산과 달리 계획도시가 아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어 만든 도시다. 덕양구는 사실상 오래된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앞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 "1등 덕양 만들 것"

새누리당 덕양을 김태원 의원, 3선 도전 출마선언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이 "1등 덕양을 만들겠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20대 총선 출마를 2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8년간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덕양을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덕양의 미래를 그리는 데 온 힘을 다했다"며 "그러한 노력이 하나 둘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그려온 덕양발전의 청사진을 제대로 꽃 피우기 위해 20대 국회의원에 도전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는 신뢰가 생명이다"며 "GTX(킨텍스~대곡~삼성역) 우선추진, 덕양출발 M버스 신설확정, 경의선 용산역까지 완전개통, 대곡~소사 복선전철 착공, 강매역 설치 등 교통 불편해소와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화장실과 운동장 개보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린벨트 규제완화, 행주산성 역사공원화 추진, 창릉천 정비를 위한 국비확보, 항공대 비행소음 해결, 난지물재생센터 주민친화공간 조성추진 등 19대 총선 때 주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며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177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이 중 76건(42.9%)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역사상 8년간 단 한 차례도 국회 본회의에 빠지지 않는 등(출석률 100%) 실력 있고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은 최근 언론(머니투데이 &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이투데이)에서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로부터 '8년 연속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유권자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김 의원은 "덕양발전을 완성할 적임자는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민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며 "각종 현안을 능숙하게 주도하는 경륜과 막힐 곳을 뚫을 수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 직책을 수행하며 서민주거안정과 경기북부 규제완화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에 앞장섰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 국민안전특위간사, 교육과학기술위원, 행정안전위원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국정경험을 쌓았다"며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준비운동 없이 곧바로 1등 덕양을 만들기 위해 전속력으로 뛸 수 있다"며 출마의 각오를 다졌다.

19대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1등 덕양 만들것"

새누리당 덕양을 김태원 의원, 3선 도전 출마선언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이 "1등 덕양을 만들겠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20대 총선 출마를 2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8년간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덕양을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덕양의 미래를 그리는데 온 힘을 다했다"며 "그러한 노력이 하나 둘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그려온 덕양발전의 청사진을 제대로 꽃 피우기 위해 20대 국회의원에 도전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정치는 신뢰가 생명이다"며 "GTX(킨텍스~대곡~삼성역) 우선추진, 덕양출발 M버스 신설확정, 경의선 용산역까지 완전개통, 대곡~소사 복선전철 착공, 강매역 설치 등 교통불편해소와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화장실과 운동장 개보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린벨트 규제완화, 행주산성 역사공원화 추진, 창릉천 정비를 위한 국비확보, 항공대 비행소음 해결, 난지물재생센터 주민친화공간 조성추진 등 19대 총선 때 주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며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177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이 중 76건(42.9%)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역사상 8년간 단 한 차례도 국회본회의에 빠지지 않는 등(출석율 100%) 실력 있고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은 최근 언론(머니투데이 &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이투데이)에서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로부터 '8년 연속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유권자대상'등을 수상하였다.

김 의원은 "덕양발전을 완성할 적임자는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민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며 "각종 현안을 능숙하게 주도하는 경륜과 막힐 곳을 뚫을 수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 직책을 수행하며 서민주거안정과 경기북부 규제완화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에 앞장섰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 국민안전특위간사, 교육과학기술위원, 행정안전위원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국정경험을 쌓았다"며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준비운동 없이 곧바로 1등 덕양을 만들기 위해 전속력으로 뛸 수 있다"며 출마의 각오를 다졌다.

고양=김장운기자

<경인매일> 2016년 2월 4일자 4면

창릉천 정비사업 '가속페달'

김태원 의원, 국비 4억원 확보…
2018년 사업 완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고양시 덕양구 내 창릉천 정비를 위한 국비(실시설계 발주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84억원을 투입, 강매·원흥지구 구간의 창릉천 정비가 추진된다.

북한산에서 발원해 은평뉴타운~삼송신도시~원흥지구를 지나 행신동을 거쳐 행주산성, 한강으로 이어지는 창릉천이 정비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등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본래의 기능 확보와 수변공원,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창릉천 정비사업은 당초 정부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김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당위성을 설명한 끝에 국비 확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김 의원은 "마침내 덕양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창릉천 정비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기쁘다"며"올해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창릉천은 일산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주민 쉼터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속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창릉천 정비사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창릉천 정비사업 '가속페달'

김태원의원, 국비 4억원 확보…2018년 사업 완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고양시 덕양구 내 창릉천 정비를 위한 국비(실시설계 발주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84억원을 투입, 강매·원흥지구 구간의 창릉천 정비가 추진된다.

북한산에서 발원해 은평뉴타운~삼송신도시~원흥지구를 지나 행신동을 거쳐 행주산성, 한강으로 이어지는 창릉천이 정비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등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본래의 기능 확보와 수변공원,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창릉천 정비사업은 당초 정부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김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당위성을 설명한 끝에 국비 확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김 의원은 "마침내 덕양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창릉천 정비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창릉천은 일산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주민 쉼터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속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창릉천 정비사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장운기자

<경인매일> 2016년 2월 5일자 14면

김태원 의원,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토교통위)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실시한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2015년에 이어 네 번째다.

한편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19대 국회 의정활동을 13개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상위 25%인 75명을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본회의에 빠지지 않고 모두 출석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78개의 법안을 대표발의(78개 본회의 통과)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으로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8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김태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민생활 속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를 아껴드리기 위해 민생법안을 만들어 내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토교통위)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실시한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2015년에 이어 네 번째다.

한편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19대 국회 의정활동을 13개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상위 25%인 75명을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본회의에 빠지지 않고 모두 출석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78개의 법안을 대표발의(78개 본회의 통과)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으로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8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김태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민생활 속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를 아껴드리기 위해 민생법안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장운기자

<경인매일> 2016년 2월 17일자 4면

김태원, 새누리 고양시을 공천 확정

“덕양 발전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시환경 개선에 최선”

김태원 의원(고양시을 2선 국회의원)이 12일 새누리당 4차 공천에서 고양시을 단수 후보로 공천됨에 따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고양시가 인구 103만이 되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은 어려움이 있었다.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 자족도시 기능이 약화되었다. 문화예술 관련 K컬쳐 개발 등 발전방향은 있지만 첨단산업단지가 고양시에 들어와야 자족기능이 살 것”이라며 “고양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자동차 클러스트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허가로 건설되는 만큼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상당히 낙후된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행주산성 앞 자동차 클러스터와 행신역을 잇는 간선도로를 건설하면 행주산성 둘레길과 생신역 주변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덕양의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덕양 발전을 완성할 적임자는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민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며 “각종 현안을 능숙하게 주도하는 경륜과 막힐 곳을 뚫을 수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 직책을 수행하며 서민주거안정과 경기북부 규제완화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에 앞장섰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 국민안전특위간사, 교육과학기술위원, 행정안전위원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국정경험을 쌓았다”며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준비운동 없이 곧바로 1등 덕양을 만들기 위해 전속력으로 뛸 수 있다”고 20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더민주는 문용식, 송두영, 정재호 예비후보가 경선에 나섰으며, 지난 11일 무소속 진보당 출신 송영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고양시을, 무소속)가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대명프라자(송영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김태원, 새누리 고양시을 공천 확정

“덕양 발전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시환경 개선에 최선”

김태원 의원(고양시을 2선 국회의원)이 12일 새누리당 4차 공천에서 고양시을 단수 후보로 공천됨에 따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고양시가 인구 103만이 되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은 어려움이 있었다.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 자족도시 기능이 약화 되었다. 문화예술 관련 K컬쳐 개발 등 발전방향은 있지만 첨단산업단지가 고양시에 들어와야 자족기능이 살 것”이라며 “고양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자동차 클러스트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허가로 건설되는 만큼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상당히 낙후된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행주산성 앞 자동차 클러스터와 행신역을 잇는 간선도로를 건설하면 행주산성 둘레길과 생신역 주변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덕양의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덕양 발전을 완성할 적임자는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민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며 “각종 현안을 능숙하게 주도하는 경륜과 막힐 곳을 뚫을 수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 직책을 수행하며 서민주거안정과 경기북부 규제완화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에 앞장섰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 국민안전특위간사, 교육과학기술위원, 행정안전위원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국정경험을 쌓았다”며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준비운동 없이 곧바로 1등 덕양을 만들기 위해 전속력으로 뛸 수 있다”고 20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더민주는 문용식, 송두영, 정재호 예비후보가 경선에 나섰으며, 지난 11일 무소속 진보당 출신 송영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고양시을, 무소속)가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대명프라자(송영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고양=김장운기자

<경인매일> 2016년 3월 14일자 4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평가 받게 돼 기뻐”

김태원 의원,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

20대 총선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자로 24일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4일 제19대 국회 출범이후 4년 동안(2012.6~2016.3) 유권자와의 약속인 선거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평가하여 김 의원을 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지역주민에게 약속드린 ‘덕양발전 프로젝트33’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이 모든 것은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가르침 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더욱 중요시하고 실천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생각하며,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지역발전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시상식은 오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평가 받게 돼 기뻐”

김태원 의원,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

20대 총선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자로 24일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4일 제19대 국회 출범이후 4년 동안(2012.6~2016.3) 유권자와의 약속인 선거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평가하여 김 의원을 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지역주민에게 약속드린 ‘덕양발전 프로젝트33’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이 모든 것은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가르침 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더욱 중요시하고 실천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생각하며,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지역발전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시상식은 오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고양=김장운기자



<경인매일> 2016년 3월 28일자 4면

“3선 큰 일꾼 되어 덕양발전 완성”

김태원 고양시을 새누리당 후보, ‘희망덕양 15大 실천공약’ 발표

20대 4.13 총선 경기 고양시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가 31일 오후 3시 행신동 햇빛마을 23단지 입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희망덕양 15大 실천공약’을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지난 8년 동안 말이 아닌 일로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으로 덕양의 미래를 위해 뛰었다”면서 “덕양구를 확실히 변화시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교통과 교육, 문화, 체육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경기도 대표 도시로 도약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어 “희망덕양 15大 실천공약은 지난 8년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꼼꼼히 기록한 결과”라며 “3선 큰 일꾼 되어 주민들과 약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희망덕양 15大 실천공약’은 ▲행신역 광역환승센터~강매 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행주산성 역사공원 연계개발(수영장 등 체육시설, 영화관 등 복합시설 설치) ▲대곡역세권 개발 성공적 추진(종합병원, 문화체육시설 유치) ▲GTX, 대곡소사 복선전철, 신분당선 고양연장 조속추진 ▲행주산성역, 덕은미디어밸리역, 현천역사 설치 ▲M버스, 공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 신증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고양 잡랜드(Job Land, 일자리체험시설) 유치 ▲능곡·화전·삼송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화전 30사단 군부대 이전 및 개발추진 ▲수영장, 실내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삼송신도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창릉천, 한강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기능상실 그린벨트 전면해제 및 해제지역 개발·주거환경개선 추진 ▲초중고 다목적체육관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이다.

한편 재선 의원인 김태원 후보는 임기 8년간 국회본회의를 100% 출석한 유일한 의원, 19대 국회 의정활동평가 여야 1위, 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에서 보듯이 실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은 검증된 후보라는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3선 큰 일꾼 되어 덕양발전 완성”

김태원 고양시을 새누리당 후보, ‘희망덕양 15大 실천공약’ 발표

20대 4.13 총선 경기 고양시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가 31일 오후 3시 행신동 햇빛마을 23단지 입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희망덕양 15大 실천공약’을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지난 8년 동안 말이 아닌 일로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으로 덕양의 미래를 위해 뛰었다”면서 “덕양구를 확실히 변화시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교통과 교육, 문화, 체육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경기도 대표 도시로 도약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어 “희망덕양 15大 실천공약은 지난 8년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꼼꼼히 기록한 결과”라며“3선 큰 일꾼 되어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희망덕양 15大 실천공약’은 ▲행신역 광역환승센터~강매 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행주산성 역사공원 연계개발(수영장 등 체육시설, 영화관 등 복합시설 설치) ▲대곡역세권 개발 성공적 추진(종합병원, 문화체육시설 유치) ▲GTX, 대곡소사 복선전철, 신분당선 고양연장 조속추진 ▲행주산성역, 덕은미디어밸리역, 현천역사 설치 ▲M버스, 공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 신증설 ▲경기북부테크노밸리, 고양 잡랜드(Job Land, 일자리체험시설) 유치 ▲능곡·화전·삼송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화전 30사단 군부대 이전 및 개발추진 ▲수영장, 실내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삼송신도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창릉천, 한강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기능상실 그린벨트 전면해제 및 해제지역 개발·주거환경개선 추진 ▲초중고 다목적체육관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이다.

한편 재선 의원인 김태원 후보는 임기 8년간 국회본회의를 100% 출석한 유일한 의원, 19대 국회 의정활동평가 여야 1위, 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에서 보듯이 실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은 검증된 후보라는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양=김장운기자

<경인매일> 2016년 4월 1일자 4면

“교통, 일자리와 상권 상승 견인”

고양시을 김태원, 지역경제활성화 공약 발표

새누리당 고양시을 김태원 후보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을 3일 발표했다.

3일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 무엇보다 실현가능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행신역세권~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행주산성 역사공원 연계개발 ▲대곡역세권 개발 성공적 추진(의료, 문화, 체육) ▲덕은미디어밸리, 한류문화미디어 명품클러스터로 육성 ▲화전 30사단 군부대 이전 및 주변지 개발 ▲경기북부테크노밸리·고양 잡랜드(Job Land, 일자리체험시설) 유치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덕은미디어밸리, 한류문화미디어 명품 클러스터로 조성 ▲능곡시장을 전통있는 명가(名家)로 육성 등 ‘덕양경제 활성화 공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중 핵심공약으로 뽑히는 ‘행신역세권~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행주산성 역사공원 연계개발’과 관련 김 후보는 “제가 제안하고 고양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행신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최근 마쳤다”며 “올해 행신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을 확보한 만큼, 조속히 행신역에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 문화(영화관), 주거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광역환승센터를 건립하고, 행신역과 행주산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면 일대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대곡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대곡역세권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과 문화,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인프라가 집중된 고양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덕은지구를 한류문화미디어 명품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화전 30사단 군부대를 이전해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게 하겠다”며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덕양구에 유치하고, 분당 한국잡월드에 버금가는 고양 잡랜드 일자리체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매 자동차클러스터는 친환경으로 조성하고 클러스터 내 수영장 등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이 모든 개발 사업에서 주민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일정비율 이상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교통, 일자리와 상권 상승 견인”
고양시을 김태원, 지역경제활성화 공약 발표



새누리당 고양시을 김태원 후보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을 3일 발표했다.
3일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 무엇보다 실현가능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행신역세권~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행주산성 역사공원 연계개발 ▲대곡역세권 개발 성공적 추진(의료, 문화, 체육) ▲덕은미디어밸리, 한류문화미디어 명품클러스터로 육성 ▲화전 30사단 군부대 이전 및 주변지 개발 ▲경기북부테크노밸리·고양 잡랜드(Job Land, 일자리체험시설) 유치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덕은미디어밸리, 한류문화미디어 명품 클러스터로 조성 ▲능곡시장을 전통있는 명가(名家)로 육성 등 ‘덕양경제 활성화 공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중 핵심공약으로 뽑히는 ‘행신역세권~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행주산성 역사공원 연계개발’과 관련 김 후보는 “제가 제안하고 고양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행신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최근 마쳤다”며 “올해 행신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을 확보한 만큼, 조속히 행신역에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 문화(영화관), 주거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광역환승센터를 건립하고, 행신역과 행주산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면 일대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대곡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대곡역세권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과 문화,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인프라가 집중된 고양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덕은지구를 한류문화미디어 명품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화전 30사단 군부대를 이전해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게 하겠다”며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덕양구에 유치하고, 분당 한국잡월드에 버금가는 고양 잡랜드 일자리체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매 자동차클러스터는 친환경으로 조성하고 클러스터 내 수영장 등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이 모든 개발 사업에서 주민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일정비율 이상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고양=김장운기자

<경인매일> 2016년 4월 4일자 4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49
언 론 사	**주식회사 강진우리신문**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50 대표이사 박종민
심의대상기사	강진우리신문 2016년 3월 9일자 1면 「황주홍의원 지지선언 잇따라」, 2면 「황주홍 의원, 20대 총선 출마 선언」 및 「황 의원, 강진지역 간담회가 열어 지역현안 청취」, 2016년 3월 16일자 2면 「황주홍 의원 저서 사인회 성황리 열려」 및 「황주홍 의원, 9일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가져」, 2016년 3월 23일자 1면 「황주홍 후보, 국민의당 공천 확정」 및 2면 「황주홍 후보, 감사인사 고흥 방문」, 2016년 3월 29일자 1면 「전직군의회 의장들, 황주홍 후보 지지선언」, 2면 「황주홍 후보,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민감 품목 가격 안정화 약속」, 4면 「"강진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늘 함께하길"」 제하의 기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황주홍에 대한 기사 및 기고 등을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황주홍의원 지지선언 잇따라

국민의당 경선 여론조사로 이뤄진다

4.13 총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진 군의원들이 제20대 총선에서 황주홍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강진의 현역 군의원인 김상윤·윤재남·강승주·위성식·배홍준·정중섭 의원은 8일 오후 2시, 강진 농협 파머스마켓 2층에서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강진군 의원 8명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 2명을 제외한 6명 전원이 황주홍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은 지지선언을 통해 "황주홍 후보는 강진에서 군수만 3번을 역임했고, 임기 내내 강진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어 수많은 성과와 함께 강진 발전을 견인한 강진군이 낳은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국민의당 전국 농어민 위원장, 두 번에 걸친 전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힘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라면서 "우리는 황 후보와 함께 강진 지역 발전과 호남의 열망인 정권교체의 불씨가 되고자 한다. 그

러기 위해 황주홍 후보가 20대 총선에서 꼭 당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장흥·강진군의 현직 도의원들이 20대 총선 후보로 황주홍 국회의원을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여론조사 경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진·장흥·고흥·보성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이는 황주홍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의원,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 김범태 득량만 환경보존회 회장 등 모두 4명으로 집계됐다. 면적으로 보면 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선거구가 된 강진·장흥·고흥·보성은 현 의원들의 맞대결이 현실화된 가운데 18일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주홍의원 지지선언 잇따라

국민의당 경선 여론조사로 이뤄진다

4.13 총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진군의원들이 제20대 총선에서 황주홍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강진의 현역 군의원인 김상윤·윤재남·강승주·위성식·배홍준·정중섭 의원은 8일 오후 2시, 강진 농협 파머스마켓 2층에서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강진군의원 8명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 2명을 제외한 6명 전원이 황주홍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은 지지선언을 통해 "황주홍 후보는 강진에서 군수만 3번을 역임했고, 임기 내내 강진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어 수많은 성과와 함께 강진 발전을 견인한 강진군이 낳은 인물"이라고 김조했다.

황 후보는 "국민의당 전국 농어민 위원장, 두 번에 걸친 전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서 "우리는 황 후보와 함께 강진 지역 발전과 호남의 열망인 정권교체의 불씨가 되고자 한다. 그리기 위해 황

주홍 후보가 20대 총선에서 꼭 당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장흥·강진군의 현직 도의원들이 20대 총선 후보로 황주홍 국회의원을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여론조사 경선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진·장흥·고흥·보성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이는 황주홍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의원,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 김범태 득량만 환경보존회 회장 등 모두 4명으로 집계됐다. 면적으로 보면 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선거구가 된 강진·장흥·고흥·보성은 현 의원들이 맞대결이 현실화 된 가운데 18일 있을것으로 보이는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창식 기자

<강진우리신문> 2016년 3월 9일자 1면

황주홍 의원, 20대 총선 출마 선언

"호남 다시 일으키고, 정권교체 이끌 것"

황주홍 예비후보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국민의당 황주홍(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의원은 지난 6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곽영체, 김광준, 김연일, 윤도현, 이충식 도의원, 유상호, 윤재남 부의장, 강찬원, 고화자, 김복실, 배홍준, 왕윤채, 위등, 정중섭, 채은아 군의원, 오명준 재경장흥군향우회장과 지역 언론기자단, 농·수·축·임·협 조합장, 지역사회단체장을 비롯한 군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제 이름은 '주홍', 색깔이다. 이름처럼 자기 색깔을 갖춰, 자기 목소리를 내며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4년이었다"며, "저는 스스로를 별 볼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국민만이 벼슬자리인 나라를 세워야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주홍 예비후보는 "저에겐 오랜 꿈이 있다. 패

자부활전이 있는 나라,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세상, 지역의 분열과 차별을 없애고, 낙후된 호남을 일으켜 세우려는 꿈"이라고 말한 뒤, "호남의 현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우리의 적은 상대적 가난이다. 호남이 발전하기 위해선 우리끼리 덜 싸우고, 더 일해야 하며, 정권교체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저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탈당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최근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황주홍 예비후보는 "정권교체, 호남발전, 정치쇄신을 위한 선한 싸움의 최선두에 서겠다.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면 당대표에 도전하여, 호남을 일으켜 세우겠다.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말처럼, 오늘은 잿더미이지만, 이 부족한 황주홍이 내일을 향해 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황 의원, 강진지역 간담회가 열어 지역현안 청취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예비후보는 5일 저녁,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회의실에서 '지역현안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영체, 윤도현 도의원, 윤재남 부의장, 강승주, 김명희, 배홍준, 정중섭 군의원 및 정옥태 강진농협 조합장, 박종필 강진·완도 축협조합장을 비롯하여 군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질문을 하면, 황주홍 예비후보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경배 강진쌀 판매협의회 회장은 "우리 지역엔 농축산어민이 많다. 다시 당선돼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할 것인지, 활동한다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주홍 예비후보는 "농해수위에서 계속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쌀 문제가 중요하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선 직불금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



예의도 드러남

황주홍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 20대 총선 출마 선언
"호남 다시 일으키고, 정권교체 이끌 것"

황주홍 예비후보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국민의당 황주홍(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의원은 지난 6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곽영체, 김광준, 김연일, 윤도현, 이충식 도의원, 유상호, 윤재남 부의장, 강찬원, 고화자, 김복실, 배홍준, 왕윤채, 위동, 정중섭, 채은아 군의원, 오명준 재경장흥군향우회장과 지역 언론기자단, 농·수·축·임·협 조합장, 지역사회단체장을 비롯한 군민300여명이 참석했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제 이름은 '주홍', 색깔이다. 이름처럼 자기 색깔을 갖춰, 자기 목소리를 내며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4년이었다"며, "저는 스스로를 별 볼 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국민만이 변습자리인 나라를 세워야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주홍 예비후보는 "저에겐 오랜 꿈이 있다.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세상, 지역의 분열과 차별을 없애고, 낙후된 호남을 일으켜 세우려는 꿈"이라고 말한 뒤, "호남의 현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우리의 적은 상대적 가난이다. 호남이 발전하기 위해선 우리끼리 덜 싸우고, 더 일해야 하며, 정권교체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저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탈당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최근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황주홍 예비후보는 "정권교체, 호남발전, 정치쇄신을 위한 선한 싸움의 최선두에 서겠다.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면 당대표에 도전하여, 호남을 일으켜 세우겠다.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말처럼, 오늘은 잿더미이지만, 이 부족한 황주홍이 내일을 향해 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황 의원, 강진지역 간담회가 열어 지역현안 청취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예비후보는 5일 저녁,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회의실에서 '지역현안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영체, 윤도현 도의원, 윤재남 부의장, 강승주, 김명희, 배홍준, 정중섭 군의원 및 정옥태 강진농협 조합장, 박종필 강진·완도 축협조합장을 비롯하여 군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질문을 하면, 황주홍 예비후보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경배 강진쌀 판매협의회 회장은 "우리 지역엔 농축산어민이 많다. 다시 당선돼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할 것인지, 활동한다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주홍 예비후보는 "농해수위에서 계속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쌀 문제가 중요하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선 직불금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 농협 수매시 전국 동일가에 매입토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중 강진 목리 이장은 "제가 어릴적, 강진은 육지와 바다의 중심이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강진~마량 국도 23호선을 조기 완공하여, 늘토시장을 더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황주홍 예비후보는 "광주~강진 구간이 2020년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강진~마량간 2차선 선형개량 사업을 조속히 마쳐, 시간을 단축하고 군민들이 국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강진우리신문> 2016년 3월 9일자 2면

원조를 늘리고 쌀 사료화를 위해 국비를 적극 투입하는 등 구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한다. 또한 품질이 같아도 헐값에 팔리는 전남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 수매시 전국 동일가에 매입토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중 강진 목리 이장은 "제가 어릴 적, 강진은 육지와 바다의 중심이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강진~마량 국도 23호선을 조기 완공하여, 놀토시장을 더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황주홍 예비후보는 "광주~강진 구간이 2020년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강진~마량간 2차선 선형개량 사업을 조속히 마쳐, 시간을 단축하고 군민들이 국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황주홍 의원 저서 사인회 성황리 열려

황주홍 의원의 저서 『한국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저자 사인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벌교읍 동아서림에서 지난 4년간 자신의 '초선일지'에 실었던 글을 다듬어 최근 출간한 『한국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저서의 저자 사인회를 개최했다. 저자 사인회에는 임명규 전남 도의원과 김판선 보성군의회 의장, 곽태수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200여 분의 벌교 읍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사인회는 저자인 황주홍 의원이 책을 구입한 읍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책의 속지에 사인을 하고, 기념촬영 등을 가지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저자 사인회는 지난 1월 13일, 강진실내체육관에서 열렸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독자들과 지역민들의 요청에 따라 출판사의 주관 아래 개최됐다.

황주홍 의원은 "매서운 꽃샘추위에도 많은 읍민들께서 사인회를 찾아 주셨다. 또 책 제목이 제목인 만큼, 저서의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았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출간한 『한국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는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 그래서 정치가



4·13 총선 현장

황주홍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 저서 사인회 성황리 열려

황주홍 의원의 저서 『한국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저자 사인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벌교읍 동아서림에서 지난 4년간 자신의 '초선일지'에 실었던 글을 다듬어 최근 출간한 『한국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저서의 저자 사인회를 개최했다. 저자 사인회에는 임명규 전남 도의원과 김판선 보성군의회 의장, 곽태수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200여 분의 벌교 읍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사인회는 저자인 황주홍 의원이 책을 구입한 읍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책의 속지에 사인을 하고, 기념촬영 등을 가지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저자 사인회는 지난 1월 13일, 강진실내체육관에서 열렸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독자들과 지역민들의 요청에 따라 출판사의 주관 아래 개최됐다.

황주홍 의원은 "매서운 꽃샘추위에도 많은 읍민들께서 사인회를 찾아 주셨다. 또 책 제목이 제목인만큼, 저서의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았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출간한 『한국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는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 그래서 정치가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야권이 잃어버린 유권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극한적인 이념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제3의 합리적 개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황주홍 의원의 소신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 9일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가져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9일 고흥 후원회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엔 1천여 명이 넘는 군민이 함께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개소식은 고흥 군민인 김은영 한국청년회의소(JC) 특우회원이 사회를 맡아, 외부 유력인사와 영상 축사 없이 황주홍 의원의 지난 행보와 소신을 지역민들께 진솔하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 의원은 "우선 김감수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후원회를 흔들히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한 뒤, "저는 스스로를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국민만이 벼슬자리인 나라를 세워야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열릴 것이다. 호남의 현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우리의 적은 상대적 가난이다. 호남이 발전하기 위해선 우리끼리 밀 싸우고, 더 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 '지역균형 생산제' 로 5대 민감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의 가격안정을 이루고, 농협 수매시 전국 동일가에 매입토록 법제화하여 전남 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우리신문> 2016년 3월 16일자 2면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야권이 잃어버린 유권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극한적인 이념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제3의 합리적 개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황주홍 의원의 소신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 9일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가져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9일 고흥 후원회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엔 1천여 명이 넘는 군민이 함께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개소식은 고흥 군민인 김은영 한국청년회의소(JC) 특우회원이 사회를 맡아, 외부 유력인사와 영상 축사 없이 황주홍 의원의 지난 행보와 소신을 지역민들께 진솔하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 의원은 "우선 김갑수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후원회를 훌륭히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한 뒤, "저는 스스로를 별 볼 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국민만이 벼슬자리인 나라를 세워야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열릴 것이다. 호남의 현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우리의 적은 상대적 가난이다. 호남이 발전하기 위해선 우리끼리 덜 싸우고, 더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역균형 생산제'로 5대 민감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의 가격안정을 이루고, 농협 수매시 전국 동일가에 매입토록 법제화하여 전남 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후보, 국민의당 공천 확정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4.13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황주홍 후보가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국민의당 공천을 받았다.

지난 20일 저녁,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황주홍 후보를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의 공천자로 발표했다.

황 후보는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에 감사드린다. 제게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4.13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이어 "경선을 치르면서, 호남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군민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고 정권교체를 향한 깊은 열망을 느꼈다. 제 유일한 꿈은 더 잘 사는 호남을 만드는 것이다. 뚜렷한 소신과 뜨거운 추진력으로 호남의 새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민들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이 한 몸 다 바치겠다. 또한 정치의 한 귀퉁이로 소외된 국민을 다시 중앙으로 모시는 정치쇄신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후보는 "경선에 함께하신 김승남, 김철근 두 분 후보님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 거듭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정치학석사), 미국 미주리대(정치학 석사&정치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및 전국 농어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주연 기자

<강진우리신문> 2016년 3월 23일자 1면

워야 한다는 군민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고 정권교체를 향한 깊은 열망을 느꼈다. 제 유일한 꿈은 더 잘사는 호남을 만드는 것이다. 뚜렷한 소신과 뜨거운 추진력으로 호남의 새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민들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이 한몸 다 바치겠다. 또한 정치의 한 귀퉁이로 소외된 국민을 다시 중앙으로 모시는 정치쇄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후보는 "경선에 함께하신 김승남, 김철근 두 분 후보님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 거듭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정치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정치학 석사&정치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및 전국 농어민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주홍 후보, 감사인사 고흥 방문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이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경선에서 승리해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황주홍 의원이 감사 인사차 고흥을 방문했다.

황 의원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때문에 미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도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흥에서 경쟁 상대 이셨던 김승남, 김철근 두 후보는 고흥의 큰 인적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해 주신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앞으로 자신은 고흥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만이 군민들의 사랑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지역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정치학을 전공한 제 사전에 불공정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다가오는 4월 13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배제하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판단하셔서 참된 일꾼을 뽑는 것이야 말로 이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며 "공명정대한 준법선거에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4·13 총선 현장

황주홍 후보, 감사인사 고흥 방문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이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경선에서 승리해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황주홍 의원이 감사 인사차 고흥을 방문했다.

황 의원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때문에 미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도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흥에서 경쟁 상대 이셨던 김승남, 김철근 두 후보는 고흥의 큰 인적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해 주신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앞으로 자신은 고흥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만이 군민들의 사랑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지역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황주홍 국회의원

황 의원은 "정치학을 전공한 제 사전에 불공정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다가오는 4월 13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배제하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판단하셔서 참된 일꾼을 뽑는 것이야 말로 이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며 "공명정대한 준법선거에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하기 도 했다.

<강진우리신문> 2016년 3월 23일자 2면

전직 군의회 의장들, 황주홍 후보 지지선언

다시 한 번 확인된 황주홍의 압도적 대세론

28일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회 역대 의장 28명이 황주홍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년간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쉬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듯, 황주홍 후보는 20대 국회에서도 지역과 군민만 바라보며 한눈을 팔지 않고, 우리 지역에 더 큰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4개 군 의장 출신들의 이 선언은 황주홍 후보가 선거구 전역에서 지지 여론을 고르게 확보함으로써, 본선 행보의 중대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회 1대부터 6대에 걸친 전 의장 39명 가운데 70%가 훨씬 넘는 전직 의장들이 대거 황주홍 후보를 지지 선언함으로써 지역 정가에서는 황주홍 후보의 대세론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황주홍 국회의원은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정치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정치학 석사&정치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건국대 교수,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강진 군수(3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어 현재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및 전국 농어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4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했다.



전직 군의회 의장들, 황주홍 후보 지지선언

다시 한 번 확인된 황주홍의 압도적 대세론

28일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회 역대 의장 28명이 황주홍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년간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쉬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듯, 황주홍 후보는 20대 국회에서도 지역과 군민만 바라보며 한 눈을 팔지 않고, 우리 지역에 더 큰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4개 군 의장 출신들의 이 선언은 황주홍 후보가 선거구 전역에서 지지 여론을 고르게 확보함으로써, 본선 행보의 중대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회 1대부터 6대에 걸친 전 의장 39명 가운데 70%가 훨씬 넘는 전직 의장들이 대거 황주홍 후보를 지지 선언함으로써 지역 정가에서는 황주홍 후보의 대세론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황주홍 국회의원은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정치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정치학 석사&정치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건국대 교수,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강진 군수(3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어 현재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및 전국 농어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4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했다.

<강진우리신문> 2016년 3월 29일자 1면

황주홍 후보,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민감품목 가격 안정화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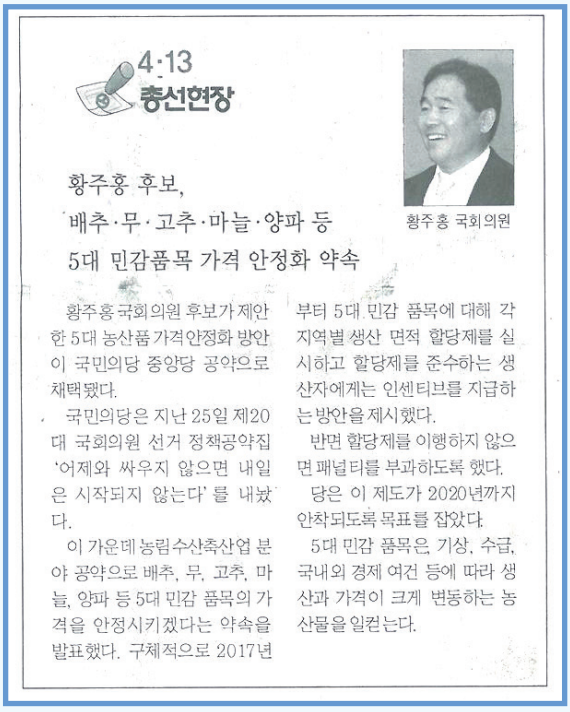
황주홍 국회의원 후보가 제안한 5대 농산품 가격안정화 방안이 국민의당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됐다.

국민의당은 지난 25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를 내놨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축산업 분야 공약으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5대 민감 품목에 대해 각 지역별 생산 면적 할당제를 실시하고 할당제를 준수하는 생산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당은 이 제도가 2020년까지 안착되도록 목표를 잡았다.

5대 민감 품목은, 기상, 수급, 국내외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생산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농산물을 일컫는다.



4·13 총선현장

황주홍 후보,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민감품목 가격 안정화 약속

황주홍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후보가 제안한 5대 농산품 가격안정화 방안이 국민의당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됐다.

국민의당은 지난 25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를 내놨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축산업 분야 공약으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5대 민감 품목에 대해 각 지역별 생산 면적 할당제를 실시하고 할당제를 준수하는 생산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당은 이 제도가 2020년까지 안착되도록 목표를 잡았다.

5대 민감 품목은, 기상, 수급, 국내외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생산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농산물을 일컫는다.

<강진우리신문> 2016년 3월 29일자 2면

"강진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늘 함께하길"

안녕하세요, 강진우리신문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황주홍입니다.

강진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강진우리신문이 어느덧 창간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우리 강진 군민과 출향 향우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오선옥 회장님을 비롯한 박종민 대표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진우리신문 애독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때 지역신문은 지역 내 정보교류와 문화생활의 창구로서 군민의 신뢰와 사랑을얻고 이를 바탕으로 무한한 생명력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우리신문은 '군민과 함께하며, 지역을 밝게 하고, 문화를 선도하며, 정론직필을 펴는 신문'을 지향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크고 작은 지역 현안에 대해 보도하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진지역의 여론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진우리신문이 지역사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바탕으로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강진우리신문이 우리 강진의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강진 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늘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지역민의 대변자로 강진우리신문이 큰 몫을 담당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진우리신문을 아끼는 애독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진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늘 함께하길"

황주홍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강진우리신문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황주홍입니다.

강진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강진우리신문이 어느덧 창간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우리 강진 군민과 출향 향우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오선옥 회장님을 비롯한 박종민 대표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진우리신문 애독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때 지역신문은 지역 내 정보교류와 문화생활의 창구로서 군민의 신뢰와 사랑을얻고 이를 바탕으로 무한한 생명력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우리신문은 '군민과 함께하며, 지역을 밝게 하고, 문화를 선도하며, 정론직필을 펴는 신문'을 지향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크고 작은 지역 현안에 대해 보도하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진지역의 여론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진우리신문이 지역사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바탕으로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강진우리신문이 우리 강진의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강진 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늘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지역민의 대변자로 강진우리신문이 큰 몫을 담당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진우리신문을 아끼는 애독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진우리신문> 2016년 3월 29일자 4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50
언 론 사	**디엠코리아 주식회사(도민일보)**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대표이사 현재오
심의대상기사	도민일보 2016년 2월 18일자 4면 「황주홍, 19대 국회 환경베스트의원 선정」, 2016년 3월 3일자 4면 「황주홍 의원, 20대 총선 출사표」, 2016년 3월 4일자 4면 「"소록도 치유의 섬으로 거듭나야"」, 2016년 3월 9일자 4면 「황주홍 의원, 선거체제 본격 돌입」, 2016년 3월 15일자 4면 「황주홍 대세론, 4개 군으로 확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황주홍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황주홍, 19대 국회 환경베스트의원 선정

4년간의 의정활동 친환경 활동 평가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 결과 '19대 국회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황 의원실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에서 친환경 활동을 왕성하게 벌인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국회의원이 작성 배포한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질의자료 등을 통해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를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협의의 개념의 환경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 물, 에너지, 건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환경개념을 적용해 평가했다고도 밝혔다. 연구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각 의원실의 보도자료와 정책자료 등을 분석해 친환경 활동이 뛰어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해왔다. 황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단체가 선정한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1등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목재제품의 유통을 지적하고, 산림청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지적 3일 만에 총 50개 유통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기준을 어긴 제품을 수거하는 성과를 내 인정받았다.

또 인천·부산항만공사, 수협·농협 등의 석면노출을 지적, 해당기관이 석면해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19대 국회 환경베스트의원 선정

4년간의 의정활동 친환경 활동 평가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 결과 '19대 국회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황 의원실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에서 친환경 활동을 왕성하게 벌인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국회의원이 작성 배포한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질의자료 등을 통해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를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협의의 개념의 환경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 물, 에너지, 건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환경개념을 적용해 평가했다고도 밝혔다. 연구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각 의원실의 보도자료와 정책자료 등을 분석해 친환경 활동이 뛰어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해왔다. 황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단체가 선정한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1등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목재제품의 유통을 지적하고, 산림청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지적 3일만에 총 50개 유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기준을 어긴 제품을 수거하는 성과를 내 인정 받았다.

또 인천·부산항만공사, 수협·농협 등의 석면노출을 지적, 해당기관이 석면해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수 기자

<도민일보> 2016년 2월 18일자 4면

황주홍 의원, 20대 총선 출사표

황주홍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의원은 2일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9일 황 후보는 선거구가 조정된 영암을 찾아, 지역민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나라와 호남의 미래가 위태롭다. 제 유일한 소망이자 꿈은 더 잘 사는 호남을 만드는 것이다. 뚜렷한 소신과 뜨거운 추진력으로 호남의 새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황 후보는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선도 탈당으로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제3 정치세력의 출범을 이끌었다. 지역민들의 염원인 야권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고, 낙후된 호남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또한 정치의 한 귀퉁이로 소외된 국민을 다시 중앙으로 모시는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어민의 든든한 대변인으로 일하며, 먹고 살기 힘들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국민공천제 법제화 ▲고향세 신설 및 고향투표제 관철 ▲전남쌀 제값 받기 ▲직불금 인상 ▲5대 민감품목 '지역생산 할당제'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실시 ▲축산, 어업소득 비과세 기준 변경 등도 내세웠다.



황주홍 의원, 20대 총선 출사표

황주홍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의원은 2일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9일 황 후보는 선거구가 조정된 영암을 찾아, 지역민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나라와 호남의 미래가 위태롭다. 제 유일한 소망이자 꿈은 더 잘 사는 호남을 만드는 것이다. 뚜렷한 소신과 뜨거운 추진력으로 호남의 새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황 후보는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선도 탈당으로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제3 정치세력의 출범을 이끌었다. 지역민들의 염원인 야권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고, 낙후된 호남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또한 정치의 한 귀퉁이로 소외된 국민을 다시 중앙으로 모시는 정치개혁에 앞장 서겠다" 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어민의 든든한 대변인으로 일하며, 먹고 살기 힘들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국민공천제 법제화 ▲고향세 신설 및 고향투표제 관철 ▲전남쌀 제값 받기 ▲직불금 인상 ▲5대 민감품목 '지역생산 할당제'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실시 ▲축산, 어업소득 비과세 기준 변경 등도 내세웠다. /안성수 기자

<도민일보> 2016년 3월 3일자 4면

“소록도 치유의 섬으로 거듭나야”

황주홍 예비후보, 첫 일정으로 국립소록도병원 방문

황주홍 예비후보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일정으로 고흥 소록도를 방문했다.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예비후보는 2일(어제) 오후, 국립 소록도 병원을 방문하여, 박형철 원장 및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만났다. 또한 병원 원생 자치회를 방문하여 박승주 원우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의료인들의 투철한 박애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환자들을 반갑게 껴안으며 애정 어린 인사를 나눴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소록도의 주민 평균 연령이 73세에 달한다. 고립의 역사로 인해, 생활 기반이 취약한 만큼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또한 소록도에 대한 오랜 편견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소록도가 박애·인권·봉사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예비후보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2015년 한센역사자료관건립비 예산 5억을 증액하여 총 18억9700만원의 예산을 최종 통과시킨 바 있다. 소록도 병원 박형철 원장은 이 같은 황주홍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에 대하여 “병원 가족들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앞으로도 한센인 가족들의 복지와 의료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소록도 치유의 섬으로 거듭나야”

황주홍 예비후보, 첫 일정으로 국립소록도병원 방문

황주홍 예비후보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일정으로 고흥 소록도를 방문했다.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예비후보는 2일(어제) 오후, 국립 소록도 병원을 방문하여, 박형철 원장 및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만났다. 또한 병원 원생 자치회를 방문하여 박승주 원우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의료인들의 투철한 박애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환자들을 반갑게 껴안으며 애정 어린 인사를 나눴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소록도의 주민 평균 연령이 73세에 달한다. 고립의 역사로 인해, 생활 기반이 취약한 만큼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또한 소록도에 대한 오랜 편견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소록도가 박애·인권·봉사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예비후보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2015년 한센역사자료관건립비 예산 5억을 증액하여 총 18억9700만원의 예산을 최종 통과시킨 바 있다. 소록도 병원 박형철 원장은 이 같은 황주홍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에 대하여 “병원 가족들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앞으로도 한센인 가족들의 복지와 의료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성수 기자

<도민일보> 2016년 3월 4일자 4면

황주홍 의원, 선거체제 본격 돌입

황주홍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예비후보는 7일 보성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동율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임명규 전남도의원, 김판선 보성군의회 의장, 함채규 고흥군의회 전 의장, 정순열 고흥군의원, 한동근 전 보성군의원, 김성숙 전 광주시의원, 박호배 보성군 장학재단 이사장, 안병희 전 보성 파출소장 및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군의 전·현직 군의원을 비롯한 군민 60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이유나 보성아리랑 예술단 단장이 사회를 맡아, 외부 유력인사와 영상 축사 없이 황주홍 의원의 이야기와 꿈을 지역민과 진솔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지역민의 지지를 받아 재선이 되면, 호남의 변화를 위해 최선두에서 분전하겠다. 덜 싸우고, 더 일하며 낙후된 호남을 일으켜 세우고, 당대표

에 도전하여 국민이 주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정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한 뒤, "어머니는 늘 제게 부탁받을 때가 좋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다.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심부름을 할 때가 제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지역민들과 함께 정권교체, 호남발전, 정치쇄신을 이루고 새로운 호남,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황주홍 의원, 선거체제 본격 돌입

황주홍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예비후보는 7일 보성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동을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임명규 전남도의원, 김란선 보성군의회 의장, 함채규 고흥군의회 전 의장, 정순열 고흥군의원, 한동근 전 보성군의원, 김성숙 전 광주시의원, 박호배 보성군 장학재단 이사장, 안병희 전 보성 파출소장 및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군의 전·현직 군의원을 비롯한 군민 60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이유나 보성아리랑 예술단 단장이 사회를 맡아, 외부 유력인사와 영상 축사 없이 황주홍의원의 이야기와 꿈을 지역민과 진솔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지역민의 지지를 받아 재선이 되면, 호남의 변화를 위해 최선두에서 분전하겠다. 밥 싸우고, 더 일하며 낙후된 호남을 일으켜 세우고, 당대표에 도전하여 국민이 주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정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고 말한 뒤, "어머니는 늘 제게 부탁받을 때가 좋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다.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심부름을 할 때가 제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지역민들과 함께 정권교체, 호남발전, 정치쇄신을 이루고 새로운 호남,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안성수 기자

<도민일보> 2016년 3월 9일자 4면

황주홍 대세론, 4개 군으로 확산

고흥·보성·장흥·강진 도의원·군의원 22명 지지선언

14일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도의원과 군의원 22명이 국회의원 황주홍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 선언으로 황주홍 후보는 4개 군 전역에서 지지 의원들을 확보함으로써 지지여론 확산에 중대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도의원·군의원의 거의 60%에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대거 황주홍 후보를 지지 선언함으로써 지역 정가에서는 황주홍 후보의 대세론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황주홍 후보는 "오늘 4개 군 선거구 현역 도의원·군의원들이 대거 지지 입장을 표명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여의도 최정예 첨병의 역할을 힘있게 해내서 오늘의 이 지지선언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더욱 성실하게 분발하고 노력해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소득증대와 낙후된 호남발전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황주홍 국회의원은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정치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정치학 석사&정치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건국대 교수,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강진 군수(3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어 현재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및 전국 농어민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주홍 대세론, 4개 군으로 확산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도의원 · 군의원 22명 지지선언

14일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선거구 도의원과 군의원 22명이 국회의원 황주홍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 선언으로 황주홍 후보는 4개 군 전역에서 지지 의원들을 확보함으로써 지지여론 확산에 중대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선거구도의원 · 군의원의 거의 60%에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대거 황주홍 후보를 지지 선언함으로써 지역 정가에서는 황주홍 후보의 대세론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황주홍 후보는 "오늘 4개 군 선거구 현역 도의원 · 군의원들이 대거 지지 입장을 표명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의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여의도 최정예 첨병의 역할을 힘있게 해내서 오늘의 이 지지선언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더욱 성실하게 분발하고 노력해서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의 소득증대와 낙후된 호남발전에 사력을 다하겠다." 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황주홍 국회의원은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정치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정치학 석사&정치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건국대 교수,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강진 군수(3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어 현재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및 전국 농어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성수 기자

<도민일보> 2016년 3월 15일자 4면

2. 주의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1
언 론 사	**파주저널** 경북 김천시 시청2길 30번지 지하
심의대상기사	파주저널 2015년 12월 16일자 1면 「"류화선이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3면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하의 기자회견 전문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 내용 및 기자회견문 전문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으나 다른 후보자의 기자회견문 전문은 게재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류화선 예비후보 출마 공식선언,
기자간담회 개최

"류화선이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뛰는 파주'를 화두로 표심잡기에 나서

"류화선이 돌아왔습니다. 자세는 더 낮아졌지만 경륜은 더 높아져서 돌아왔습니다. 태도는 더 부드러워졌지만 의지는 더 견고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판(?)을 떠나 있던 류화선 예비후보(전 시장)이 15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0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류화선 예비후보는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출마의 변을 통해 "시장 퇴임 후 지난 5년여 동안 저는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뼈저린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며 "공기업 사장과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도 항상 파주발전과 시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눈으로 파주를 똑똑히 봐 왔다. 두 귀로는 파주의 소리를 열심히 들었다. 두 발로는 파주의 구석구석 삶의 현장을 찾았다"며 그동안의 심경을 피력했다.

류 예비후보는 "지역발전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감과 권태감, 실망감이 그래서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지역 정치인의 한계를 신랄하

게 비판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되어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다"면서 "그동안 파주에서 본 것은 본대로, 파주에서 들은 것은 들은 대로, 파주에서 생각한 것은 생각한 대로 주장하고 실천하고 싸우겠다. 선거구는 개발여력과 기대감이 크고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파주을선거구를 택했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류 후보는 "파주에서 마지막 봉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다"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일 하나만큼은 잘 해낼 자신이 있으며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삶도 파주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파주는 더 발전해야 합니다. 더 잘 살아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아침, 여유가 있는 저녁의 도시가 돼야 합니다. '다시 뛰는 파주'를 화두로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고 힘주어 밝혔다.

류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총선은) 을의 입장에서 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슈퍼 갑을 상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민심과 여론을 믿고 끝까지 뛰겠다"고 완주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 200여명이 사무소를 가득 메워 성황을 이뤘다.



류화선 예비후보 출마 공식선언, 기자간담회 개최

"류화선이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뛰는 파주'를 화두로 표심잡기에 나서

"류화선이 돌아왔습니다. 자세는 더 낮아졌지만 경륜은 더 높아져서 돌아왔습니다. 태도는 더 부드러워졌지만 의지는 더 견고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이후 선거 판을 떠나 있던 류화선 예비후보(전 시장)이 15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0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류화선 예비후보는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출마의 변을 통해 '시장 퇴임 후 지난 5년여 동안 저는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뼈저린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며 '공기업 사장과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도 항상 파주발전과 파주시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눈으로 파주를 똑똑히 봐 왔다. 두 귀로는 파주의 소리를 열심히 들었다. 두 발로는 파주의 구석구석 삶의 현장을 찾았다.'며 그 동안의 심경을 피력했다.

류 후보는 '지역발전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감과 권태감, 심봉감이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함께 봤다.'며 지역 정치인의 한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되어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다.'면서 "그 동안 파주에서 본 것은 본대로, 파주에서 들은 것은 들은 대로, 파주에서 생각한 것은 생각한 대로 주장하고 실천하고 싸우겠다. 선거구는 개발여력과 기대감이 크고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파주을선거구를 택했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류 후보는 '파주에서 마지막 봉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다'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일 하나만큼은 잘 해낼 자신이 있으며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삶도 파주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파주는 더 발전해야 합니다. 더 잘 살아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아침, 여유가 있는 저녁의 도시가 돼야 합니다. '다시 뛰는 파주'를 화두로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고 힘주어 밝혔다.

류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총선은) 을의 입장에서 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슈퍼 갑을 상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민심과 여론을 믿고 끝까지 뛰겠다"고 완주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 200여명이 사무소를 가득 메워 성황을 이뤘다.

(기자회견 전문 3면)

권희경 기자
round58@hanmail.net

<파주저널> 2015년 12월 16일자 1면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화선 전 파주시장 출사표

파주시민 여러분, 류화선이 돌아왔습니다. 터미네이터의 명대사 'I'll be Back'처럼 류화선이 돌아왔습니다. 자세는 더 낮아졌지만 경륜은 더 높아져서 돌아왔습니다. 태도는 더 부드러워졌지만 의지는 더 견고해져서 돌아왔습니다.

파주시장 퇴임 후 지난 5년여 동안 저는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뼈저린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기업 사장과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도 항상 파주발전과 파주시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파주를 똑똑히 봐 왔습니다. 두 귀로는 파주의 소리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두 발로는 파주의 구석구석 삶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지연으로 엉망이 되어가는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부지하세월 지지부진한 도로 건설사업, 수준 높은 자녀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타 도시로 떠나가는 시민을 볼 때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학 유치를 비롯한 대단위 숙원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는 걸 볼 땐 정말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60여년 동안

우리 파주가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입은 물적·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아직도 수도권 정비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이란 2중 족쇄가 채워져 역차별 받고 홀대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선 분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레저를 아우르는 대단위 복합단지를 갖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염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비전에 목말라 하는 시민 여러분의 열망도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쌓여만 가는 쌀 재고를 한 숨 짓고, 도시가스 혜택 하나 못 받는 파주 농촌의 현실은 답답함 그대로였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과 외롭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깨끗한 파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 멀리에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포크레인 소리가 들리며, 흙차와 레미콘이 뻔질나게 다니던 지난날 역동적 개발 현장이 자취를 감추고, 여기저기 빈 상가와 빈 사무실이 널려 있는 걸 보면 침체된 파주경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감과 권태감, 실망감이 그래서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 류화선은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되어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파주에서 본 것은 본 대로, 파주에서 들은 것은 들은 대로, 파주에서 생각한 것은 생각한 대로 주장하고 실천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를 위한 무대는 국회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선거구는 개발여력과 개발기대감이 크고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파주을지역을 택했습니다.

저는 기업의 말단 사원과 간부로서, 경제신문의 편집국장과 이사, 경제방송의 CEO, 파주시장, 공기업 사장, 대학교 총장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경륜을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화선 전 파주시장 출사표

파주시민 여러분, 류화선이 돌아왔습니다. 터미네이터의 명대사 'I'll be Back'처럼 류화선이 돌아왔습니다. 자세는 더 낮아졌지만 경륜은 더 높아져서 돌아왔습니다. 태도는 더 부드러워졌지만 의지는 더 견고해져서 돌아왔습니다.

파주시장 퇴임 후 지난 5년여 동안 저는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뼈저린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기업 사장과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도 항상 파주 발전과 파주시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파주를 똑똑히 봐 왔습니다. 두 귀로는 파주의 소리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두 발로는 파주의 구석구석 삶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지연으로 영망이 되어가는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부지하세월 지지부진한 도로 건설사업, 수준 높은 자녀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타 도시로 떠나가는 시민을 볼 때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학유치를 비롯한 대단위 숙원사업들이 흐지부지 무산되는 걸 참 뭔 정말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60여 년 동안 우리 파주가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입은 물적·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아직도 수도권 정비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이란 2중 족쇄가 채워져 역차별 받고 홀대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선 분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레저를 아우르는 대단위 복합단지를 갖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염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비전에 목말라 하는 시민 여러분의 열망도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쌓여만 가는 쌀 재고를 한 숨 짓고, 도시가스 혜택 하나 못 받는 파주 농촌의 현실은 답답함 그대로였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과 외롭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깨끗한 파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 멀리에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포크레인 소리가 들리며, 흙차와 레미콘이 뻔질나게 다니던 지난날 역동적 개발 현장이 자취를 감추고, 여기저기 빈 상가와 빈 사무실이 널려 있는 걸 보면 침체된 파주경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감과 권태감, 실망감이 그래서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 류화선은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되어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파주에서 본 것은 본 대로, 파주에서 들은 것은 들은 대로, 파주에서 생각한 것은 생각한 대로 주장하고 실천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를 위한 무대는 국회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선거구는 개발여력과 개발기대감이 크고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파주을지역을 택했습니다.

저는 기업의 말단 사원과 간부로서, 경제신문의 편집국장과 이사, 경제방송의 CEO, 파주시장, 공기업 사장, 대학교 총장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경륜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나름 큰 성과를 올렸고 실적도 냈습니다. 파주에서 마지막 봉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처럼 오랜 기간 여러 분야에서 준비를 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일 하나만큼은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저의 삶도 파주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파주는 더 발전해야 합니다. 더 잘 살아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아침, 여유가 있는 저녁의 도시가 돼야 합니다. '다시 뛰는 파주'를 화두로 저 류화선이 제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파주시민 모든 분들이 저를 믿어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란히 함께 멀리 걸어가는 정직한 동행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저널> 2015년 12월 16일자 3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2
언 론 사	**반월신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1 대우빌딩 305호 반월신문사
심의대상기사	반월신문 2015년 12월 16일자 7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행정가의 기질도 필요합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의 인터뷰 내용은 게재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행정가의 기질도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허숭 부실장은 지난해 새누리당 안산시장에 도전했으나 후보과정에서 낙천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중앙당의 방침과 달라 후보자체가 되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허숭 부실장은 생각했다. 당시 비전안산 포럼을 통해 안산을 공부하고, 안산을 알리고, 안산시민들과 많은 교감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중앙과 연결고리가 약해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안산에서 포럼의 지평을 열고 있다는 언론의 찬사는 뒤로하고라도 지역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올인해서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켰고 당대표 선거에도 올인해서 지지하던 김무성 대표를 당선시켰다. 그 후 현재까지 당대표최고위원실 부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허숭 부실장은 "이제 중앙당에서도 명함정도는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안산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하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왕성하게 지역을 누비고 있다. 빠르면 올해 안으로 지역구를 결정하고 내년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최근 활동상황과 정치인으로서 허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내용이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난해 안산시장선거에서 낙천했다. 그 후 경기도지사 선거를 도왔고 당선시켰다. 경기도에서 일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거절했다. 중앙일을 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 당시 서청원 캠프와 김무성 캠프에서 도

와달라고 연락이 왔다. 노선이 같은 김무성 캠프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캠프 대변인과 부실장,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있었다. 그 후 대변인직을 그만두고 두 가지 일로 바쁘게 지내다가 최근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위원직도 그만두고 김무성 대표 부실장직만 가지고 있는 채 안산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참고로 당대표 부실장은 당대표실의 전략을 분석하고 기획을 세우는 일을 하는 곳이다. 지금은 내년선거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어느 곳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다. 최근 서울에서 정치연대 플러스 대표직을 맡았다. 보수혁신과 정권재창출이 목적이다. 내년 총선 후에는 전당대회가 있다. 그 후 당대표 경선이 있고 대통령 후보 선출로 이어진다. 정치연대 플러스는 당을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가치 중심으로 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얼마 전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답답함을 토로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선거는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현역이 유리한 선거다. 선거구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다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전국구로 일하고 있다. 서울에서 하던 일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였나.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에 도전했으나 낙천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움을 주었고 또 당대표 선거가 시작되자 서울 중앙당에 들어가 김무성 캠프에서 일했다. 결국 김무성 대표가 당선됐다. 현재 김무성 대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치연대 플러스 대표직을 맡고 있다."

-내년 총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구를 생각하고 있고 사무실은 구했나.

"지역구는 선거구획정이 안 돼 고민이다. 아직 안산이 네 곳이냐, 세 곳이냐도 정해지지 않았다. 결정이 되는대로 지역구를 정하고 사무실을 낼 것이다. 그리고 지역구를 결정하는 시기는 머지않아 결정할 것이다. 올해 안으로는 결정할 것이다."

-이미 총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시장에도 도전한 경험이 있다. 내년 총선에 도전한다면 남다른 각오가 있을 텐데.

"난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이다. 2008년 단원갑에서 총선으로 시작했다. 2010년 시장선거에도 나갔다. 정치인은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 성장한다. 도지사는 행정가로서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정치인이 도전하는 것이다. 나 역시 정치를 잘하기 위해 행정가인 시장선거에 도전했다. 중앙정치는 합의가 안 되는 정치다. 항상 대립과 반목이 있는 곳이어서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안산시장이 되면 화합하고 성과를 내는 합의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도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시장선거 후보 자체가 되지 못했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왕성하게 포럼활동을 해왔다. 안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포럼활동이었다. 그러다가 선거에서 시장후보가 되지 못하면서 포럼활동이 중단됐다.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산에서 포럼을 계속했으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많다. 또 상처도 컸다. 지방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천천히 하자는 의미로 중앙정치에 매진했다. 중앙의 역할과 입지를 튼튼하게 만든 다음 안산으로 내려가 지방역할을 하자고 다짐했다. 이제는 중앙에도 많은 관계들을 만들었다. 제대로 명함을 내밀 만큼 일을 만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남경필 도지사를 도왔고 김무성 당대표를 도왔다."

-당시 허숭 이사장이 이끌던 비전안산 포럼 사무국장이 현재 제종길 시장 캠프에 합류돼 있다.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원래도 제종길 시장과 친했다. 내가 안 되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종길 시장을 택한 것인데 그 친구의 판단을 존중한다. 내가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다. 무슨 서운함 같은 것은 없다."

-안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무엇인가.

"내가 안산에서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우리당의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서다. 두 번째는 시·도의원 공천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고쳐보기 위함이다. 정치문화 개선은, 정치가 계파는 있을 수 있으므로 계파는 인정하되 계보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 국가, 안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시·도의원 공천문제는 비전안산에서 포럼을 할 때 여러 차례 지적한 사안들이다. 정치지도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공천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부터 변해보기 위한 몸부림이다.

또 하나는 도시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산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다문화사회로 어려움이 있는 도시다. 대기업이 있는 도시는 사장도 잘 살고 노동자도 잘 사는 구조인데 안산은 사장도 어렵고, 노동자도 어렵게 사는 구조다. 정치인이 나서서 중소기업 천국인 안산시가 잘 사는 도시가 되도록 일해야 한다. 단순히 공단에 얼마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을 고치는 샘플로 삼아서 풀어야 한다.

안산은 수자원공사가 있을 때 잘 나갔다. 수자원공사가 뜬 다음부터 안산이 죽어가고 있다. 다른 도시에는 있는 비전이 안산에는 없다. 이것은 안산 전체 리더쉽의 문제다. 다른 지역은 수공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데 안산은 그렇지가 않다. 정치인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근본에서 다시 짚어야 할 사안이다."

-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앞에서 얘기한바 있다. 단순히 안산에 예산 얼마 가져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안산의 근본을 고쳐야 하는 문제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서서 안산을 전국의 샘플로 삼고 근본을 고치는 일을 해야 한다.

안산이 2020계획에는 재건축바람이 불어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인구가 줄고 있다. 이유를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급하다."

-안산시 지역구 축소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허숭 부실장은 어떤 입장인가.

"근본적인 현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구 축소가 답이 될 수 없다. 답답한 것은 이달 15일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아직도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더 이상 말하기가 싫다."

-내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은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당원과 일반시민 5대 5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둔다고 하지만 중앙당에서 제시하는 룰이 중요하다. 경선준비도 하고 있다. 경선방식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앙당의 룰이 중요하고 그 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안산시민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시민들이 정치를 포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끝까지 체념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거를 해야 하고 정치를 통해서 살아가는 만큼 선거에 참여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인물을 뽑아달라고 주문한다. 다 포기하면 또 엉뚱한 사람이 선출되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단원고 교실 10개교 존치문제로 뜨겁다. 왜 닥치니까 고민하느냐이다. 이미 리더는 이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벌써 해결했어야 했다. 그것이 참다운 리더가 할 일이다. 시민들이 선거를 포기하면 제대로 된 리더가 나오지 않는다. 다 똑같다고 하지 말고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올 한해 힘겨운 삶을 살면서 마음 고생이 많았다. 내년에는 더 나은 안산시를 만드는 데 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수요초대석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허 숭 부실장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행정가의 기질도 필요합니다"

<반월신문> 2015년 12월 16일자 7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3
언 론 사	**주식회사 충남일보** 대전 중구 계룡로 816번길 32-4 충남일보사 대표이사 신수용
심 의 대 상 기 사	충남일보 2015년 12월 18일자 3면 「"포용으로 정치 불신 해소할 터" 최명길 총선 예비등록자, 유성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전면 게재하면서 해당지역구의 다른 후보자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포용으로 정치 불신 해소할 터"

최명길 총선 예비등록자, 유성출마 선언

최명길(54) 전 MBC 부국장이 지난 15일 20대 국회의원 유성구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그가 정치에 첫 도전하는 곳은 선거구 증설이 유력시되는 대전 유성구다. 곧 선거구 획정돼 분구가 되면 첫 국회의원을 뽑는 유성갑을 선택한 것이다.

최 전 부국장은 1961년 생으로 논산 반월초, 한밭중, 대전고를 나와 서울대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8년간 외길 언론의 길을 걸으며 워싱턴 특파원을 마쳤다. 공영방송 확립을 위해 MBC 사장 자리에 두 차례 도전했다 결국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연거푸 실패를 맛봤다.

최 전 부국장은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은 탓으로 17대 국회부터 정치권의 스카우트 제의를 많았다고 전했다.

당시 MBC 사장 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후배들을 뒤로하고 정치에 입문할 수 없어 한때 망설였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사장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직장을 떠나 가벼운 마음으로 정치권에서 몸을 담았다.

그는 첫 행보로 지난해 7월 치러진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마 권유를 받아들인 그는 당의 지원 약속도 받고 선거준비에 임했으나 잡음이 발생하자 자진 하차했다.

이후 박영선과 문희상으로 이어진 비대위에서 당 대

표 공보특보와 정무특보를 맡아 정치 감각을 익혔다.

지난 4월부터는 선거구 증설되는 유성 출마를 결심하고 유성에 터를 잡았다.

그는 새로운 정치, 한 차원 높은 정치를 요구하는 대전시민, 유성구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객관적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또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외교, 안보분야의 특파원 등 국제 감각의 이점을 내세웠다. 무엇보다 유성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출사의 변을 대신했다.

다음은 최 전 부국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 정치에서 신선함을 보여드리고 싶다.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새로움이 무엇인가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 유성의 행복특파원이 되길 희망한다.

- 대덕구에서 유성으로 출마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 후보로 등록을 하든지, 최소한 경선에라도 나선 경우에 출마를 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출마지역을 바꿨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유성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대덕구 출마를 부탁하는 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어 고사하다가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섰던 것인데 정치적 상식에 맞지 않아 출마의사를 철회했던 것이다.

- 공천 경쟁에 승산과 선거 전략은.

▲ 아직 경쟁 후보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말하기 어렵다.

공천경쟁은 본질적으로 누가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기 때문에 각오나 전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전 시민, 유성의 유권자가 선호할 인물임을 보여드리고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소양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할 뿐이다.

이번 총선은 대전 충청권 정치의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지역정서에 기대온 제3당이 없이 치르는 선거이고 변화를 갈망하는 대전 시민의 표심이 표출될 선거이기 때문이다.

변화시킬 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다. 당선된다면 포용의 정치로 작동불능의 정치를 고쳐 보겠다.

- 20대 총선의 주요 공약이라면.

▲ 몇 개의 갈래가 있으나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대전시민 유성주민들이 '그래! 바로 이런 정치를 원했어'라고 칭찬받는 정치다. 대전정치, 유성정치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4년 임기 내에 달성해 낼 공약도 준비했다. 우선 재정자립도 1위인 유성구에 실내체육관, 공연장 하나 없는 문화 불모를 해소해 나가겠다.

그 대안으로 구암동복합터미널의 층수를 한 층 더 높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또 관광특구라는 말이 무색하리만치 제대로 된 스파 하나 없는 유성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

인근 세종시는 대전의 경쟁도시가 아니다. 세종으로 일부 인구유출이 있는 현실이나 유성과 세종, 공주 등을 하나로 묶는 메트로폴리탄 광영구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반석과 세종을 지상전

철로 잇는 사업도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야권분열 속의 총선의 쟁점이라면.

▲ 내년 총선은 새로움을 보여주는 쪽이 승리하는 선거라고 본다.

안철수 현상은 자체는 많이 사그라졌지만 새 정치를 희구하는 국민의 마음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결국 양당은 전국적으로 새로움을 보여주는 경쟁을 할 것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쪽이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쟁점은 대전 지역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새롭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정치적으로 깬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이 지역 정치가 좋은 정치였다고 생각하면, 그 연장선에 있는 인물을 뽑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내년 총선의 쟁점은 단순하다.

옛 것을 택할 것인지 새로움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다. 고질의 야권 분열은 내년 4월쯤 정리가 될 것이다.

실망스럽고 비난을 받고 있으나 야권이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면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성급하지만 총선 결과를 예상하다면.

▲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다. 전국



4·13 총선 인물

"포용으로 정치 불신 해소할 터"

최명길 총선 예비등록자, 유성출마 선언

최명길(54) 전 MBC 부국장이 지난 15일 20대 국회의원 유성구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그가 정치에 첫 도전하는 곳은 선거구 증설이 유력시되는 대전 유성구다. 갑 선거구 확정돼 분구가 되면 첫 국회의원을 뽑는 유성갑을 선택한 것이다.

최 전 부국장은 1961년 생으로 논산 반월초, 한밭중, 대전고를 나와 서울대 외교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8년간 외길 언론의 길을 걸으며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공영방송 확립을 위해 MBC사장 자리에 두 차례 도전했다 결국 최종 면담에 이름을 올렸으나 연거푸 실패를 맛봤다.

최 전 부국장은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은 탓으로 17대 국회부터 정치권의 스카우트 제의를 많았다고 전했다.

당시 MBC 사장 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후배들을 뒤로하고 정치에 입문할 수 없어 한 때 방실였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사장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직장을 떠나 가벼운 마음으로 정치권에서 봄을 맞았다.

그는 첫 행보로 지난해 7월 치러진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마 권유를 받아들인 그는 당의 지원 약속도 받고 선거준비에 임했으나 잡음이 발생하자 자진 하차했다.

이후 박영선과 분희상으로 이어진 비대위에서 당 대표 공보특보와 정무특보를 맡아 정치감각을 익혔다.

지난 4월부터는 선거구 증설되는 유성 출마를 결심하고 유성에 터를 잡았다.

그는 새로운 정치, 한 차원 높은 정치를 요구하는 대전시민, 유성구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객관적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또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외교, 안보분야의 특파원 등 국제 감각의 이점을 내세웠다. 무엇보다 유성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출사의 변을 대신했다.

다음은 최 전 부국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정치에서 신선함을 보여드리고 싶다.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새로움이 무엇인가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 유성의 행복특파원이 되길 희망한다.

- 대덕구에서 유성으로 출마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후보로 등록을 하든지, 최소한 경선에라도 나선 경우에 출마를 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출마지역을 바꿨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유성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대덕구 출마를 부탁하는 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어 고사하다가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섰던 것인데 정치적 상식에 맞지 않아 출사의사를 철회했던 것이다.

- 공천 경쟁에 승산과 선거 전략은.

▲아직 경쟁 후보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말하기 이렵다.

공천경쟁은 본질적으로 누가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기 때문에 각오나 전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전 시민, 유성의 유권자가 선호할 인물임을 보여드리고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소양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할 뿐이다.

이번 총선은 대전 충청권 정치의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지역정서에 기대온 세월이 엷어 처트는 선거이고 변화를 갈망하는 대전 시민의 표심이 표출될 선거이기 때문이다.

변화 시킬 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염오다. 당선된다면 포용의 정치로 적폐청산의 정치를 고쳐 보겠다.

- 20대 총선의 주요 공약이라면.

▲몇 개의 골격가 있으나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대전시민 유성주민들이 '그래! 바로 이런 정치를 원했어'라고 환한 받는 정치다. 대전정치, 유성정치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4년 임기 내에 달성해 낼 공속약도 준비했다. 우선 재정자립도 1위인 유성구에 실내체육관, 광연장 하나 없는 분회 불모를 해소해 나가겠다.

그 대안으로 구암동복합터미널의 층수를 한 층 더 높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또 콘광북구라는 말이 부쩍하리만치 제대로 된 스파 하나 없는 유성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

인근 세종시는 대전의 경쟁도시가 아니다. 세종으로 일부 인구유출이 있는 현실이나 유성과 세종, 공주 등을 하나로 묶는 메트로폴리탄 공영구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반석과 세종을 지상전철로 잇는 사업도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야권분열 속의 총선의 쟁점이라면.

▲내년 총선은 새로움을 보여주는 쪽이 승리하는 선거라고 본다.

안철수 현상은 자체는 많이 사그라졌지만 새 정치를 희구하는 국민의 마음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결국 양당은 전국적으로 새로움을 보여주는 경쟁을 할 것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쪽이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쟁점은 대전 지역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새롭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정치적으로 깬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이 지역 정치가 좋은 정치였다고 생각하면, 그 연장선에 있는 인물을 뽑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내년 총선의 쟁점은 단순하다.

옛 것을 택할 것인지 새로움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다. 고질의 야권 분열은 내년 4월쯤 정리가 될 것이다.

실망스럽고 비난을 받고 있으나 야권이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면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성급하지만 총선 결과를 예상하다면.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다. 전국 250여 개의 지역구 출마인사, 500여 명의 비례대표 명단이 확정됐을 때 어느 쪽이 국민의 마음을 잡느냐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는 쪽이 이길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 정권이 잘 하는 것이 있다면 남 탓뿐이다.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갈등조장 정책을 거침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당이 총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치에 맞지 않는다.

또 야당도 이런 정치여론의 상식적 흐름을 극복하지 못해 우려가 크다.

해가 바뀌면 국민의 민심을 희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정권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본다.

-끝으로 정치적 목표와 가치관이 있다면.

▲일서 지적한 정치혐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 큰 목표이다.

불신을 지나 혐오로 이어지는 정치는 현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조장한 측면과 야권의 분열도 원인이 될 것이다.

불 다 바람직한 현상은아니다.

지난 2007년 집권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피트리고 확산시켜온 현상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 정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정치가 존재하지 않은 역사는 한 순간도 없었다. 아무리 미워도 멀리하면 내 손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배분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멀리하면 그 가치 있는 것들은 여당 기득권자가 누릴 뿐이다.

정치적 가치관은 '포용'이다. 이 포용은 '배제'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경쟁만을 강조해 승자들만 뒤게 하면 처음에는 빨리 가는데, 이것으로 오래갈 수는 없다.

사회와 나라는 선대에게서 얻고, 내가 뛰고 또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배제하면 빨리 갈수 있지만 후대에 가년 쇠락할 수밖에 없다.

김강중 기자
kim001@hanmail.net

<충남일보> 2015년 12월 18일자 3면

250여 개의 지역구 출마인사, 50여 명의 비례대표 명단이 펼쳐졌을 때 어느 쪽이 국민의 마음을 잡느냐에 승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는 쪽이 이길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 정권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남 탓뿐이다.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갈등조장 정책을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당이 총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 야당도 이런 정치여론의 상식적 흐름을 극복하지 못해 우려가 크다.

해가 바뀌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공천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본다.

-끝으로 정치적 목표와 가치관이 있다면.

▲ 앞서 지적한 정치혐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 큰 목표이다.

불신을 지나 혐오로 이어지는 정치는 현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조장한 측면과 야권의 분열도 원인이 될 것이다.

둘 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지난 2007년 집권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퍼트리고 확산시켜온 현상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 정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정치가 존재하지 않은 역사는 한순간도 없었다. 아무리 미워도 멀리하면 내 손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배분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멀리하면 그 가치 있는 것들은 여당 기득권자가 누릴 뿐이다.

정치적 가치관은 '포용'이다. 이 포용은 '배제'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경쟁만을 강조해 승자들만 뛰게 하면 처음에는 빨리 가는데, 이것으로 오래갈 수는 없다.

사회와 나라는 선대에게서 왔고, 내가 뛰고 또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배제하면 빨리 갈수 있지만 후대에 가면 쇠락할 수밖에 없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4
언 론 사	**주식회사 경기신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경기신문사 대표이사 이상원
심의대상기사	경기신문 2015년 12월 18일자 20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앞장… 용인발전 10년 앞당겼다고 생각"」, 2015년 12월 28일자 20면 「"용인발전에 최선…새해에도 성과로 보여주는 정치 할 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특정 정당 현직 국회의원 2명의 인터뷰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전면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구의 다른 후보자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수도권 규제완화 등 앞장… 용인발전 10년 앞당겼다고 생각"

'초선같지 않은 초선'. 풀뿌리 의정활동에서 시작해 국회의원이 된 이우현(새누리·용인갑) 의원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다. 여의도 입성 후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 리더십,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지역구뿐만 아니라 '용인'과 관계된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일을 찾아다니는 이 의원은 참 바쁘다.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계획에 '흥덕역' 신설을 관철한 일이 대표적이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 무시할 법도 한데, 동료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거듭되는 요청과 '용인발전'의 일념으로 국회 예결위와 국감에서 기재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흥덕역 설치를 요구해 결국 확정했다. 용인지역 최초의 시의회 의장 출신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와 용인시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이우현 국회의원을 만났다.

'용인의 미래' 위해 종횡무진

서울~세종 고속道 조기건설 서명운동 5만명 동참

내년 착공 결실… 교통·물류·관광 중심지로 부상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계획에 '흥덕역' 신설 관철

팔당수계 규제완화·항공대 이전 등 대책수립 촉구

위례~용인 지하철 유치 노력… 국토부 긍정적 답변

반납위기 예산 260억원 지켜낸 것 가장 기억에 남아

‘용인 제2도약’ 열쇠는 처인구

매주 금요일 ‘민원의 날’마다 50명 이상 의견청취
처인구 발전에 따라 300만~400만 도시로 발돋움
앞으로도 규제철폐 끝까지 앞장설 것을 약속

- 19대 국회 동안의 의정 성과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용인발전 10년을 앞당겼다고 생각한다. 용인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세일즈 의정활동과 용인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2012년부터 매년 수도권 규제완화와 팔당수계 규제완화, 항공대 이전 정부차원 대책마련 촉구, 자본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등 모두 용인지역 현안과 연관된 내용을 대정부질문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소신을 갖고 강하게 요구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와 진행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팔당수계 규제에 대한 정부 지원도 증가추세고, 항공대 이전에 대한 국방부 분위기도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용인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위원으로 국·도비 6천500억원을 확보했다. 또 내년 서울~용인~세종고속도로가 착공되고, 국지도 84호선(동탄~천리~가남)이 12월 용인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개통되면 천리에서 용인까지 10분 소요된다. 시·도의원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여야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며 얻은 성과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 착공 및 IC건설.

우선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건설과 포곡읍, 원삼면 IC설치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고, 가장 먼저 용인에서 새누리당 당원들과 서명운동에 나서 용인에서만 무려 5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지난달 18일 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안성간 71Km를 2016년 우선 착공, 2022년 개통예정이고, 안성~세종간 58Km는 2025년 완공 목표로 2단계로 진행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용인시와 처인구가 교통·물류·관광의 중심지로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충청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위례~성남~광주~용인 지하철건설 추진 상황은.

지난 12월 1일 국회에서 송파위례~성남~광주~용인 지하철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우 철도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2016년 초에 발표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해당 철도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파 위례역, 성남 을지대역, 신구대역, 공단역, 상대원역, 하대원역, 도촌역, 광주 삼동역을 지나 용인 에버랜드역에 이르는 지하철을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유치하겠다. 경전철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민원의 날’에 대한 주민반응이 폭발적이다.

매주 금요일에 지역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사항과 현안사항 등 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진행한다. ‘민원의 날’은 지역 곳곳의 민생문제와 다수의 민원에도 법과 제도, 행정 시스템 등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주민 민원을 직접 접수해 신속한 처리와 함께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 등을 통한 해결지원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 매번 50명 이상이 방문하셔서 깜짝 놀랐다. 주민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일이다. 접수된 민원은 시·도 의원들과 함께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처리하고 있다.

- 용인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용인이 제2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최우선이다. 용인시는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팔당유역특별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수도권 규제로 발전을 방해받고 있다. 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 재조정과 포곡·모현·이동면 하수처리 미지정 구역편입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항공대 이전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인시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와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용인지역을 비롯한 경기남부권역을 테마형 관광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문제도 해결 과제다.

-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성과는.

무엇보다 반납위기에 놓였던 예산을 지켜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난 6월에 있던 일인데, 당시 감사원은 용인시가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운영비인 '대수선비'로 사용했다"며 260억원의 반납을 요구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당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에게 용인시 상황과 국비 환수의 불합리성을 설명해 막아냈다. 당시 큰 도움을 준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상일 국회의원 등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건넨다. 용인전통시장 주차장(구 경찰서 부지) 매각과 관련해 도시공사에서 상인회와 낙찰자가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협의계약 공증을 이끌어낸 것도 기억에 남는다.

- 시민들께 한마디.

제2의 용인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한 해를 기치로 시작한 2015년이 어느새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중순이다. '용인 제2의 발전'은 처인구가 중심에 없으면 이뤄낼 수 없는 사안이다. 용인은 서울의 98%에 달하는 면적에 100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다. 그러나 용인은 이미 개발이 마무리된 1천만 서울시와 달리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로, 처인구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300만, 400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동안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처인구 발전을 위한 규제철폐에 끝까지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도 처인구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가라는 곳, 시키는 일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시민여러분과 함께 용인시의 내일을 만들겠다.



인터뷰 **이우현 국회의원**

'초선같지 않은 초선'. 풀뿌리 의정활동에서 시작해 국회의원이 된 이우현(새누리·용인갑) 의원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다. 여의도 입성 후 넘다른 열정과 사명감, 리더십, 번득이는 아이디어에 지역구뿐만 아니라 '용인'과 관계된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일을 찾아 다니는 이 의원은 참 바쁘다.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계획에 '흥덕역' 신설을 관철한 일이 대표적이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 무시할 법도 한데, 동료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거듭되는 요청과 '용인발전'의 일념으로 국회 예결위와 국감에서 기재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흥덕역 설치를 요구해 결국 확정했다. 용인지역 최초의 시의회 의장 출신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와 용인시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이우현 국회의원을 만났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 앞장… 용인발전 10년 앞당겼다고 생각"

'용인의 미래' 위해 총횡무진

서울~세종 고속道 조기건설 서명운동 5만명 동참

내년 착공 결실… 교통·물류·관광 중심지로 부상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계획에 '흥덕역' 신설 관철

광당수계 규제완화·항공대 이전 등 대책수립 촉구

위례~용인 지하철 유치 노력… 국토부 긍정적 답변

반납위기 예산 260억원 지켜낸 것 가장 기억에 남아

'용인 제2도약' 열쇠는 처인구

매주 금요일 '민원의 날'마다 50명 이상 의견청취

처인구 발전에 따라 300만~400만 도시로 발돋움

앞으로도 규제철폐 끝까지 앞장 설 것을 약속



- 19대 국회 동안의 의정 성과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용인발전 10년을 앞당겼다고 생각한다. 용인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세일즈 의정활동과 용인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2012년부터 매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당수계 규제완화, 항공대 이전 정부차원 대책마련 촉구, 자본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등 모두 용인지역 현안과 연관된 내용을 대정부질문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소신을 갖고 강하게 요구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와 진행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광당수계 규제에 대한 정부 지원도 증가추세고, 항공대 이전에 대한 국방부 분위기도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용인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위원으로 국·도비 6천500억원을 확보했다. 또 내년 서울~용인~세종고속도로가 착공되고, 국지도 84호선(동탄~천리~가남)이 12월 용인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개통되면 천리에서 용인까지 10분 소요된다. 시·도의원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여야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며 얻은 성과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 착공 및 IC건설.

우선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건설과 포곡읍, 원삼면 IC설치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고, 가장 먼저 용인에서 새누리당 당원들과 서명운동에 나서 용인에서만 무려 5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지난달 18일 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안성간 71Km를 2016년 우선 착공, 2022년 개통예정이고, 안성~세종간 58Km는 2025년 완공 목표로 2단계로 진행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용인시와 처인구가 교통·물류·관광의 중심지로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충청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위례~성남~광주~용인 지하철건설 추진 상황은.

지난 12월 1일 국회에서 송파위례~성남~광주~용인 지하철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우 철도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2016년 초에 발표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해당 철도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파 위례역, 성남 을지대역, 신구대역, 공단역, 상대원역, 하대원역, 도촌역, 광주 삼동역을 지나 용인 에버랜드역에 이르는 지하철을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유치하겠다. 경전철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민원의 날'에 대한 주민반응이 폭발적이다.

매주 금요일에 지역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사항과 현안사항 등 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진행한다. '민원의 날'은 지역 곳곳의 민생문제와 다수의 민원에도 법과 제도, 행정 시스템 등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주민 민원을 직접 접수해 신속한 처리와 함께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 등을 통한 해결지원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 매번 50명 이상이 방문하셔서 깜짝 놀랐다. 주민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일이다. 접수된 민원은 시·도 의원들과 함께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처리하고 있다.

- 용인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용인이 제2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최우선이다. 용인시는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광당유역특별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수도권 규제로 발전을 방해받고 있다. 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 재조정과 포곡·모현·이동면 하수처리 미지정 구역편입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항공대 이전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인시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와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용인지역을 비롯한 경기남부권역을 테마형 관광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는 문제도 해결 과제다.

-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성과는.

무엇보다 반납위기에 놓였던 예산을 지켜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난 6월에 있던 임인데, 당시 감사원은 용인시가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운영비인 '대수선비'로 사용했다"며 260억원의 반납을 요구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당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에게 용인시 상황과 국비 환수의 불합리성을 설명해 막아냈다. 당시 큰 도움을 준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상일 국회의원 등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건넨다. 용인전통시장 주차장(구 경찰서 부지) 매각과 관련해 도시공사에서 상인회와 낙찰자가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협의계약 공증을 이끌어 낸 것도 기억에 남는다.

- 시민들께 한마디.

제2의 용인발전을 위한 제도약의 한 해를 기치로 시작한 2015년이 어느새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중순이다. '용인 제2의 발전'은 처인구가 중심에 없으면 이뤄낼 수 없는 사안이다. 용인은 서울의 98%에 달하는 면적에 100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다. 그러나 용인은 이미 개발이 마무리된 1천만 서울시와 달리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로, 처인구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300만, 400만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동안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처인구 발전을 위한 규제철폐에 끝까지 앞장 설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도 처인구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가라는 곳, 시키는 일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시민여러분과 함께 용인시의 내일을 만들겠다.

/대담·정리=최영재 사회부장 cyj@







1 이우현 국회의원이 용인경전철에서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 이우현 국회의원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3 이우현 의원이 어르신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경기신문> 2015년 12월 18일자 20면

“용인발전에 최선…
새해에도 성과로 보여주는 정치 할 터”

‘국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과 용인을 위하여’. 잘나가던 언론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상일 국회의원(54·새누리·용인을)이 늘 가슴에 묻고 스스로에게 되묻는다는 말이다. 새누리당이 절대 과반을 넘어 압승한 19대 총선에서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선거전략 수립에 직접 참여해 총선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의원은 이후 당 대변인, 박근혜 행복캠프 대변인을 맡아 야당과의 공중전 일선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소위 ‘박근혜 시대 파워엘리트’ 중 대표적인 한 명이다. 호남 출신으로 부친인 이진연 신민당 의원에 이은 정치인 2세로 벌써부터 굵직굵직한 성과를 올리며 제2의 고향 용인에 뿌리를 묻겠다는 이상일 국회의원을 만났다.

말이 아닌 일 잘하는 정치인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3년 연속 수상 등 의정활동 관련 상 12개 ‘영예’

용인 숙원사업 해결사 자처
작년 ‘수원신갈IC’ 명칭 변경… 권리 찾아 보람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10% 인하 요구 관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 흥덕지구 경유
국토부장관 설득 결실… 개통 때까지 공사 주목
주민센터 건립 등 기흥구 위한 예산확보에도 힘써

-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3년 연속 수상 등 올해에만 의정활동과 관련한 12개의 상을 받았는데 주요성과를 소개한다면.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 말이 아닌 보여주는 정치의 초심으로 의정생활에 임했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감사의 각오로 첫날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교육부 국감 첫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 속에서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학교노후 책걸상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많은 분이 공감을 보내주셨고, 학교 석면 부실조사와 산업단지 인근 학교의 유사 시 안전대책 미흡에 대한 추궁에 성원을 주셨다. 또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 교사 채용과 음원시장의 공정성 및 추천제 폐지, 야구장 안전대책 부실 등의 지적과 함께 지난 2012년 정부가 중국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내용의 자료를 미 의회조사국에 보낸 것을 찾아내 시정을 요구했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한 결과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3년 연속 선정됐고, 친환경베스트의원상, 새누리당 국감우수의원상, 올해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등 상복이 터졌다. 감사한 일이다.

-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10% 인하로 기흥구민과 용인시민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됐다.

지난 10월 29일부터 흥덕~헌릉 1종차량 기준 통행료가 2천원에서 1천800원으로 인하됐다. 보좌진 및 전문가들과의 회의와 분석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도로 건설 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통행료에 반영하는 것을 확인, 최근의 저금리를 반영하자고 수차례 유일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관철됐다. 실제 용서고속도로 건설 당시 7%

대 금리는 현재 4%대로 낮아졌고, 일일 이용차량은 2009년 8만대에서 지난해 15만5천대로 증가해 통행료를 200원 인하해도 사업자는 앞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회수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인하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0여만원의 통행료 절감의 혜택을 용인, 수원 시민들뿐 아니라 서울, 성남, 오산, 화성 등의 많은 국민들이 함께 보게 됐다.

- 용인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부고속도로 '수원IC' 명칭을 '수원신갈IC'로 바꾼 주역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수원IC'가 '수원신갈IC'로 바뀌었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을 다니면서 '수원IC'가 용인땅임에도 수원이란 이름만 붙어 있고, 여러 번의 명칭변경 시도도 번번이 좌절돼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우선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먼저 지난해 8월 5일 '수원으로 가는 차가 많아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도로공사의 논리를 깨기 위해 '수원IC를 이용해 용인과 수원으로 가는 차량의 통계'를 요구했고, 도로공사는 '숫자를 알 수 없다'며 그간의 불가 이유가 근거가 없다는 걸 자인했다. 이후 친분이 두터운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에게 서신과 전화로 수원신갈IC 변경이유를 자세히 설명했고, 김 사장은 제 주장이 타당하다며 다음날 간부회의에서 긍정검토를 지시해 작년 12월 15일 명칭변경이 확정됐다. 또 지난 2월 남경필 도지사에게 용인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IC표지판 변경 필요예산 지원을 요청, 남 지사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지원해주셨다. '수원신갈IC'란 명칭이 용인시민 입장에선 100% 만족할 게 못 되지만 어느 정도 용인의 권리를 찾았다고 격려하는 분들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

-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노선 용인 흥덕지구 경유하도록 큰 역할을 했다는데.

4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흥덕지구는 당초 수원 광교~오산 '동탄 1호선 전철'이 추진되었는데 이 노선이 흥덕을 경유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이 추진되면서 노선 일부가 겹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탄 1호선 전철' 계획이 백지화됐고, 흥덕주민들은 갑자기 붕 뜨게 됐다. 흥덕 주민들은 지금도 버스에만 의존, 배차간격이 길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동탄 1호선 전철' 취소로 흥덕 경유는 반드시 필요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9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의 용인시 흥덕지구 경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설득하고, 이후 여형구 제2차관(교통담당)과 흥덕지구입주자대표연합회의 면담을 주선해 재차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침내 10월 6일 국토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이 흥덕지구를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2022년 개통 때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

- 각 주민센터와 흥덕지구 초등학교 신설 등 용인과 기흥구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가 돋보인다.

보정동주민센터는 2005년부터 상가건물을 임대·사용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시의 예산부족으로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어 정종섭 당시 행자부 장관에게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해 5억원을 확보, 10월 완공에 보탬이 됐다. 또 구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행자부 특별교부금 4억원 확보에 이어 남경필 지사에게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 지원을 요청했고, 보정동 용인도시계획도로와 서천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쓰일 20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

했다. 2015년 국비예산에서 마북천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6억원 증액해 총 31억원을 확보했고, 용인종합운동장 시설보수에 사용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11억5천만원을 얻는 성과가 있었다. 학교가 부족한 흥덕지구에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1곳의 신설을 확정했고, 청덕동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려는 것을 막고 학교부지를 지켜내기도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또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을 만나 용인시 학교들의 시설 개선 필요예산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해 10억원이 넘는 지원을 결정지었다. 이밖에 용인시가 기흥구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국토부에서 허가해 주지 않아 전현직 차관에서 도움을 청해 산업단지 허가의 좋은 결실을 맺었다.



한나라 이상일 국회의원

"용인발전에 최선… 새해에도 성과로 보여주는 정치 할 터"

<경기신문> 2015년 12월 28일자 20면

-시민들께 한마디.

2015년 용인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지난 1월 '한류스타 연예인 농구대회'를 유치했고, 10월에는 용인지역 고교생과 학부모들의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보정고에서 'EBS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12월에도 '전국장애인합창대회'와 '2015 김중만 독도사진, 독도 자료·고지도 전'을 유치하는 등 부지런히 일했다. 또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확장공사' 연내 완공을 위해 지난 7월 추경예산편성 때 95억을 증액했고,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내년예산 391억원, '보정동 고분군 주변정비' 7억원, '마북천 수해상습지 개선' 16억원, '기흥저수지 수질 개선 준설' 20억원 등도 확보했다. 새해에도 일로써 보여주는 정치를 통해 우리 용인의 발전과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6
언 론 사	**부천신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84번길 28 씨티원빌딩 3층 부천신문 대표이사 권순호
심의대상기사	부천신문 2015년 12월 24일 4면 「손숙미의 자신감 "여론조사해보니 좋은 조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체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에 10% 이상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손숙미의 자신감, "여론조사해보니 좋은 조짐"

새누리 원미을당협 송년회서 '필승다짐'

손숙미 새누리당 원미을당협 위원장이 내년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감의 원천이다.

지난 21일 오후 7시 송내역 인근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미을당협 송년회에는 당원 400여명이 운집했다. 황중식 영남향우회 회장 등 외빈들도 다수 참여했다.

공천권을 두고 경쟁하는 이사철 변호사와 서영석 한국청소년미래연맹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온데 반해, 손숙미 위원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상황이었다. 이날 송년회가 출마선언인 셈이었다.

경쟁자들의 기자회견 이후 손 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사철 위원장의 '정치경력 일천' 발언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피력하기도 했었다.

그간 설훈 의원과의 리턴매치를 준비해 온 손숙미 위원장은 이날 "총선 유리할 것",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 피부로 느껴진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해보니 좋은 조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손숙미 위원장의 자신감은 그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자체 비공개 여론조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설훈 국회의원간의 리턴매치를 상정한 여론조사에서 10%가량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손 위원장은 그간 공천권 획득을 자신하며 새정연과의 2차 대결 구도만을 상정한 여론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날 손숙미 위원장은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매번 새누리당이 10%를 앞섰지만 막상 선거를 해보면 20%가량의 부동층이 새정연으로 이동했다"는 것. 이는 새누리당 지지층들의 결집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됐다.

한편, 이날 손숙미 위원장은 무산된 중동특구 통합개발과 관련 "당원들이 끈끈한 동지애로 난개발을 막았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으로 '통진당 해산'을 들었다. 자신에 대해서는 "중동특구 투쟁 과정에서 강성 이미지가 생긴 것 같다"며 "알고 보면 속은 부드러운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타 지역위원회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사 출마가 예상되는 이재진 전 도의원이 참여해 손숙미 위원장을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언론사 기자들 다수도 모였다. 기자들 대부분 원미을당협이 아닌 민맹호 시의원의 연락을 받고 모인 것으로 알려져 민맹호 의원의 역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숙미의 자신감 "여론조사해보니 좋은 조짐"

새누리 원미을당협 송년회서 '필승 다짐'

손숙미 새누리당 원미을당협 위원장(사진)이 내년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감의 원천이다.

지난 21일 오후 7시 송내역 인근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미을당협 송년회에는 당원 400여명이 운집했다. 그간 공천권을 두고 경쟁하는 이사철 변호사와 서영석 한국청소년미래연맹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온데 반해, 손숙미 위원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상황이었다. 이날 송년회가 출마선언인 셈이었다.



경쟁자들의 기자회견 이후 손 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사철 위원장의 '정치경력 일천' 발언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피력하기도 했었다.

그간 설훈 의원과의 리턴매치를 준비해 온 손숙미 위원장은 이날 "총선 유리할 것", "(유권자들이)새누리당에 한근감을 느끼고 있다. 괴부로 느껴진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해보니 좋은 조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손숙미 위원장의 자신감은 그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자체 비공개 여론조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삼둔 국회의원간의 리턴매치를 상정한 여론조사에서 10% 가량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 위원장은 그간 공천권 획득을 자신하며 새정연과의 2차 대결 구도만을 상정한 여론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날 손숙미 위원장은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매번 새누리당이 10%를 앞섰지만 막상 선거를 해보면 20%가량의 부동층이 새정연으로 이동했다"는 것. 이는 새누리당 지지층들의 결집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됐다.

한편, 이날 손숙미 위원장은 무산된 중동특구 통합개발과 관련 "당원들이 끈끈한 동지애로 난개발을 막았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으로 '통진당 해산'을 들었다. 자신에 대해서는 "중동특구 투쟁 과정에서 강성 이미지가 생긴 것 같다"며 "알고 보면 속은 부드러운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타 지역위원회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사 출마가 예상되는 이재진 전 도의원이 참여해 손숙미 위원장을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언론사 기자들 다수도 모였다. 기자들 대부분 원미을당협이 아닌 민맹호 시의원의 연락을 받고 모인 것으로 알려져 민맹호 의원의 역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기남 기자 smykn@hanmail.net

<부천신문> 2015년 12월 24일자 4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8
언 론 사	**현대일보 주식회사** 경기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SK테크노파크 D동 1214호 현대일보사 대표이사 이상근
심의대상기사	현대일보 2015년 12월 30일자 2면 「박인균 예비후보 이색 선거명함」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사진이 포함된 이색 명함을 함께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인균 예비후보 이색 선거 명함

근하신년 세배명함이 공약위주 일반명함보다 어르신들과 젊은 층 모두에게 인기가 좋다고 밝히는 의정부시(을) 새누리 박인균 예비후보는 연말연시 세배명함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시(을) 선거구 새누리당 박인균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송년모임 등 각종 공식행사와 경로당 등을 찾아 이색선거명함을 돌리며, 표밭갈이에 매진하고 있다.



박인균 예비후보
이색 선거 명함

근하신년 세배명함이 공약위주 일반명함보다 어르신들과 젊은 층 모두에게 인기가 좋다고 밝히는 의정부시(을)새누리 박인균 예비후보는 연말연시 세배명함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시(을) 선거구 새누리당 박인균 예비후보는 지난 12월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후, 송년모임 등 각종 공식행사와 경로당 등을 찾아 이색선거명함을 돌리며, 표밭갈이에 매진하고 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현대일보> 2015년 12월 30일자 2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10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경신문(대경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41 대경일보사 대표이사 이익재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6년 1월 8일자 2면 「이재만, 새누리 지지층서 유승민 앞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이재만 예비후보자가 여론조사에서 같은 당 유승민 국회의원을 앞섰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문 내용 중 표본오차 이내에서 4.5%p의 차이가 벌어진 것을 이재만 후보자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표현한 부분, 마찬가지로 표본오차 이내에서 3.1%p 차이를 두고 "확실하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모두 특정 후보자 측에 유리하게 과장 해석한 것이다. 또한 제목에서 표본오차 내의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재만, 새누리 지지층서 유승민 앞서" 라고 부각하여 보도한 것은 객관적 근거 없이 유권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재만, 새누리 지지층서 유승민 앞서

대구동구을 예비후보 언론사별 여론조사 결과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 이재만 예비후보(사진)는 최근 언론사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자 층에서 유승민 의원을 앞섰다고 7일 밝혔다.

각 언론사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9일 일요신문에서 신년특집 '여권심장부' 대구 동구을 유승민 대 이재만이 46.9%와 46.7%의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음을 발표했다(조원씨앤아이, 성인남녀 1천33명, 95%신뢰수준, 표본오차 ±3.0%).

이어 지난 1일자로 발표한 영남일보와 대구MBC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공천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새누리당 지지자 층에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유승민 의원을 49.4%와 44.9%로 4.5%p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 성인남녀 559명, 95% 신뢰수준, 표본오차±4.1%).

이를 통해 이재만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일 대구일보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44.7%, 이재만 전동구청장이 41.2%의 지지율을 보이며, 표본오차 내 박빙의 결과표를 내보였다(모노리서치, 성인

남녀 600명,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0%).

마지막으로 지난 4일 매일신문과 TBC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48.1%)에 대한 지지도가 유승민 의원(45%)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나 당내 경선에서 새누리당 조직과 지지층에서 이재만 전동구청장이 확실하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의 기준이 될 당내지지층에서 이재만 예비후보가 유승민 의원을 앞서고 있다는 점, 유승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지지층의 지지를 높게 받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이재만, 새누리 지지층서 유승민 앞서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 언론사별 여론조사 결과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 이재만 예비후보<사진>는 최근 언론사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자 층에서 유승민 의원을 앞섰다고 7일 밝혔다.

각 언론사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9일 일요신문에서 신년특집 '여권심장부' 대구 동구을 유승민 대 이재만이 46.9%와 46.7%의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음을 발표했다.(조원씨앤아이, 성인남녀 1033명, 95%신뢰수준, 표본오차 ±3.0%)

이어 지난 1일자로 발표한 영남일보와 대구MBC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공천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새누리당 지지자 층에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유승민 의원을 49.4%와 44.9%로 4.5%p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 성인남녀 559명, 95% 신뢰수준, 표본오차±4.1%)

이를 통해 이재만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일 대구일보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44.7%, 이재만 전동구청장이 41.2%의 지지율을 보이며, 표본오차 내 박빙의 결과표를 내보였다.(모노리서치, 성인남녀 600명,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0%)

마지막으로 지난 4일 매일신문과 TBC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48.1%)에 대한 지지도가 유승민의원(45%)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나 당내 경선에서 새누리당 조직과 지지층에서 이재만 전동구청장이 확실하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의 기준이 될 당내지지층에서 이재만 예비후보가 유승민 의원을 앞서고 있다는 점, 유승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지지층의 지지를 높게 받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대경일보> 2016년 1월 8일자 2면

의결번호	2016국선-자심12
언론사	**종합일보 주식회사(경인종합일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29 우성빌딩 402호 대표이사 신현각
심의대상기사	경인종합일보 2016년 1월 25일자 14면 「국회의원 선거구 없는 현역의원은 무죄? 정치신인은 유죄?」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자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국회의원 선거구 없는 현역의원은 무죄? 정치신인은 유죄?

19대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을 남겼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후 선거구가 실종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6·25 전쟁 중인 1952년에도 제2대 대선이 치러졌고, 전쟁 직후인 1954년 제3대 총선을 실시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경제위기였던 IMF 체제시절 실시된 1997년 제15대 대선과 2000년 제16대 총선도 무사히 마쳤던 정상적인 나라였다.

2016년은 전쟁도 없었고, IMF 체제도 아니다. 그러나 19대 국회, 특히 국회선진화법 인한 야당의 기득권 챙기기를 위한 불공정한 현역 프리미엄 행사로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실종됐다. 제20대 총선이 두 달여 남아 코앞에 다가왔는데, 선거구는 없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가 없어도 의정보고서집회, 각종 사업예산 확보 문자발송, 의정명함 배포 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들은 중앙선관위의 선처로 근근이 눈치껏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수년을 국가에 일꾼이 되겠다고 준비하고 노력해왔다.

정치는 원칙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선거구가 없으니 제대로 선 '원칙'이 없는 것이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실종이라는 초헌법적인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러 놓고도 태연하게 자신들만의 선거운동을 만끽하고 있으니 '신뢰'가 없는 것이다.

원칙과 신뢰가 사라진 정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우리 예비후보들이 무슨 죄를 졌기에 중앙선관위의 선처만 바라봐야 한단 말인가? 선거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원칙이 민주주의 선거이다.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는 화합의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19대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실종'이라는 헌법파괴행위를 통해 현 총선구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의 선거운동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치졸한 기득권 지키기가 정치신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분노가 앞선다.

그들이 저지른 초헌법적인 선거구 실종사태를 보더라도 정치권은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다. 이번 4월 총선은 파렴치한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른 무능한 정치꾼들을 퇴출시켜야 할 골든타임이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오늘과 같은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를 것은 자명하다.

정치신인들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보장되지 않은 한, 사상 최악이라는 제19대 국회 기득권만을 쫓는 불공정한 선거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미사여구로 잘 포장된 언어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국회로 돌아와 '선거구 실종'이라는 초헌법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원칙이 바로 선 진실한 대한민국 정치의 복원은 정상적인 '선거구 획정'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가?

기자시평

국회의원 선거구 없는 현역의원은 무죄? 정치신인은 유죄?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19대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을 남겼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후 선거구가 실종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6·25 전쟁 중인 1952년 에도 제2대 대선이 치러졌고, 전쟁 직후인 1954년 제3대 총선을 실시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경제위기였던 IMF체제시절 실시된 1997년 제15대 대선과 2000년 제16대 총선도 무사히 마쳤던 정상적인 나라였다.

2016년은 전쟁도 없었고, IMF 체제도 아니다. 그러나 19대 국회, 특히 국회선진화법인한 야당의 기득권 챙기기를 위한 불공정한 현역 프리미엄 행사로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실종됐다. 제20대 총선이 두 달여 남아 코앞에 다가왔는데, 선거구는 없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가 없어도 의정보고서집회, 각종 사업예산 확보 문자발송, 의정명함 배포 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들은 중앙선관위의 선처로 근근이 눈치껏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수년을 국가에 일꾼이 되겠다고 준비하고 노력해왔다.

정치는 원칙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선거구가 없으니 제대로 선 '원칙'이 없는 것이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실종이라는 초헌법적인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러 놓고도 태연하게 자신들만의 선거운동을 만끽하고 있으니 '신뢰'가 없는 것이다.

원칙과 신뢰가 사라진 정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우리 예비후보들이 무슨 죄를 졌기에 중앙선관위의 선처만 바라봐야 한 단 말인가? 선거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원칙이 민주주의 선거 이다.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는 화합의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19대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실종'이라는 헌법파괴행위를 통해 현 총선구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의 선거운동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치졸한 기득권 지키기가 정치 신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분노가 앞선다.

그들이 저지른 초헌법적인 선거구 실종사태를 보더라도 정치권은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다. 이번 4월 총선은 파렴치한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른 무능한 정치꾼들을 퇴출시켜야 할 골든타임이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오늘과 같은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를 것은 자명하다.

정치신인들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보장되지 않은 한, 사상 최악이라는 제19대 국회 기득권만을 쫓는 불공정한 선거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미사여구로 잘 포장된 언어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아젠다' 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국회로 돌아와 '선거구 실종'이라는 초헌법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원칙이 바로 선 진실한 대한민국 정치의 복원은 정상적인 '선거구 획정'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가?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종합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인종합일보> 2016년 1월 25일자 14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16
언 론 사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서울 중구 퇴계로 190(필동1가, 매경미디어센터) 대표이사 장대환
심의대상기사	매일경제 2016년 1월 13일자 5면 「朴 "대구 달성에 나가달라" 추경호 총선 출마 직접 권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너무 일을 잘해도 문제", "박 대통령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추 실장을 신임하고 있다", "박 대통령 신임은 매우 이례적일 정도", "박 대통령이 추 실장에게 직접 대구 달성 출마를 권유"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그 출처로 "청와대 한 참모",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여권 관계자", "일각에선" 등을 제시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朴 "대구달성에 나가달라" 추경호 총선출마 직접권유

이임식후 출사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하고 퇴임했다. 추 실장은 "경제를 살리고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정치에 경제 마인드를 접목시켜 정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의 총선 행선지는 대구 달성이다.

당초 추 실장은 총선 출마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말 개각 때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순위 후보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 실장을 산업부 장관으로 강력히 천거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장관 제청 과정에서 "추 실장이 좀 더 국무조정실에 남아줘야 한다"며 반대했다는 등 갖가지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한 참모는 "너무 일을 잘해도 문제"라는 언급을 했다. 이런 가운데 추 실장을 대구 달성 총선 후보로 내세운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 얘기는 12일 현실이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구 달성이 어떤 지역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아니냐"며 "박 대통령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추 실장을 신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 신임은 매우 이례적일 정도"라는 말도 덧붙였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추 실장에게 직접 대구 달성 출마를 권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 한 참모는 "단순한 소문은 아닐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긴 만큼 추 실장 본인은 물론이고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들 모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한 참모는 "지난해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신이 없을 때 국무총리실 중심을 잡아 공백을 잘 메웠고, 황교안 총리가 새로 취임했을 때도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원활히 협조해 가면서 일각의 불협화음을 절묘하게 잘 풀어갔다"고 전했다.



朴 "대구달성에 나가달라" 추경호 총선출마 직접권유

이임식후 출사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하고 퇴임했다. 추 실장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강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정치에 경제 마인드를 접목시켜 정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의 총선 행선지는 대구 달성이다.

당초 추 실장은 총선 출마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말 개각 때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순위 후보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 실장을 산업부 장관으로 강력히 천거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장관 제청 과정에서 "추 실장이 좀 더 국무조정실에 남아줘야 한다"며 반대했다는 등 갖가지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한 참모는 "너무 일을 잘해도 문제"라는 언급을 했다. 이런 가운데 추 실장을 대구 달성 총선 후보로 내세운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 얘기는 12일 현실이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구 달성이 어떤 지역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아니냐"며 "박 대통령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추 실장을 신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 신임은 매우 이례적일 정도"라는 말도 덧붙였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추 실장에게 직접 대구 달성 출마를 권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 한 참모는 "단순한 소문은 아닐 것"이라고 귀띔했다.

추경호 전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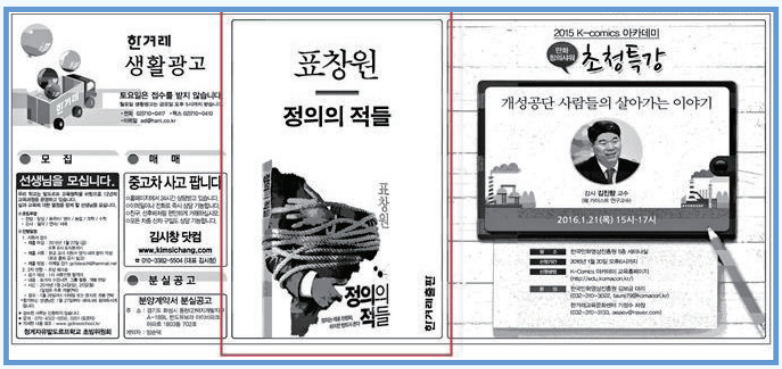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긴 만큼 추 실장 본인은 물론이고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들 모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한 참모는 "지난해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신이 없을 때 국무총리실 중심을 잡아 공백을 잘 메웠고, 황교안 총리가 새로 취임했을 때도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원활히 협조해 가면서 일각의 불협화음을 절묘하게 잘 풀어갔다"고 전했다.

남기현 기자

<매일경제> 2016년 1월 13일자 5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17
언 론 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공덕동,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정영무
심의대상기사	한겨레신문 2016년 1월 14일자 12면「표창원 정의의 적들」 제하의 광고 및 2016년 1월 19일자 14면「표창원 정의의 적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비상대책위원의 저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2016년 1월 14일자 12면



<한겨레신문> 2016년 1월 19일자 14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18
언 론 사	**주식회사 거창한신문(거창韓뉴스)** 경남 거창군 시장1길 26(3층) 발행인 백강희
심의대상기사	거창韓뉴스 2016년 1월 18일자 1면 「강석진 새누리당 복당결정 선거전 요동」, 2016년 1월 25일자 1면 「강석진 예비후보 '잰걸음'」, 제하의 기사 및 2016년 1월 25일자 13면 「제20대 총선 강석진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제하의 기자회견문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강석진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사 및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하면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현저히 낮은 빈도로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석진 새누리당 복당결정 선거전 요동

선거구 안갯속, 유력주자들 출마채비 본격화
불붙은 새누리당 공천전쟁, 전략공천설도 솔~ 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87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력주자들을 중심으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들의 면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이렇다 할 주자가 나타나질 않아 한때 무임승차론도 조심스럽게 점쳐졌던 거함산 선거구가 강석진(57) 전 거창군수의 복당결정에다, 김경수(56)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총선출마 보도까지 겹치면서 이번총선 선거전이 요동치고 있다.

지역정서상 새누리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거함산 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만약 전략공천이 단행될 경우, 과연 그 대상자가 누가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거함산 선거구에는 신성범 현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가운데, 강석진 전 거창군수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 가세하면서 일약 전국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현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는 신 현 국회의원과 강 전 거창군수, 김 전 대구고검장, 권문상(50) 더불어민주당 거함산 지역위원장과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홍업 (주)비엔에프전자 다카법인 부회장 등이다.

신 현 의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거함산 지역을 돌며 의정활동보고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 전망이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신 현 의원에 맞서 선전을 펼친 바 있는 강 전 군수는 이번 새누리당 복당을 계기로 곧장 지역에 내려와 지난 14일(목)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며 외연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돌연공직을 사퇴하면서 총선 출마설에 무게가 실린 김 전 대구고검장도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총선 출마설이 연일 보도되면서 그의 총선출마는 기정사실화돼가는 분위기다.

특히, 김 전 고검장은 총선출마를 염두에 두고 최근 비공식적으로 함양을 수차례 방문, 지역여론을 청취해온 것으로 알려져 그의 총선출마에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전 고검장이 강 전 군수와 연세대 선후배 지간이어서 선배인 강전 군수를 위해 출마를 포기하고 차기검찰총장을 노려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자신의 거취와 관련,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 전 고검장의 출마여부가 이번선거의 최대변수로 떠오르면서 김 전 고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현재 선거구획정 지연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거함산 선거구가 인구하한선 기준미달로 선거구획정 결과에 따라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거구획정 역시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4.13총선 거함산선거구 선거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총선, D-87

강석진 새누리당 복당결정 선거전 요동

선거구 안갯속, 유력주자들 출마채비 본격화
불붙은 새누리당 공천전쟁, 전략공천설도 솔~ 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87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력주자들을 중심으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들의 면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이렇다 할 주자가 나타나지 않아 한때 무임승차론도 조심스럽게 점쳐졌던 거함산 선거구가 강석진(57) 전 거창군수의 복당결정에다, 김경수(56)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총선출마 보도까지 겹치면서 이번총선 선거전이 요동치고 있다.

지역정서상 새누리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거함산 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만약 전략공천이 단행될 경우, 과연 그 대상자가 누가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거함산 선거구에는 신성범 현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가운데, 강석진 전 거창군수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 가세하면서 입악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현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는 신 현 국회의원과 강 전 거창군수, 김 전 대구고검장, 권분상(50)더불어민주당 거함산 지역위원장과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홍엽(주)비엔에프전자 다카법인 부회장 등이다.

신 현 의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거함산 지역을 돌며 의정활동보고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 전망이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신 현 의원에 맞서 선전을 펼친바 있는 강 전 군수는 이번 새누리당 복당을 계기로 곧장 지역에 내려와 지난14일(목)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며 외연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돌연공직을 사퇴하면서 총선 출마설에 무게가 실린 김 전 대구고검장도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총선 출마설이 연일 보도되면서 그의 총선출마는 기정사실화 돼가는 분위기다.

특히, 김 전 고검장은 총선출마를 염두에 두고 최근 비공식적으로 함양을 수차례방문, 지역여론을 청취해온 것으로 알려져 그의 총선출마에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전 고검장이 강 전 군수와 연세대 선후배 지간이어서 선배인 강전 군수를 위해 출마를 포기하고 차기검찰총장을 노려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자신의 거취와 관련,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 전 고검장의 출마여부가 이번선거의 최대변수로 떠오르면서 김 전 고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현재 선거구획정 지연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거함산 선거구가 인구하한선 기준미달로 선거구획정 결과에 따라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거구획정 역시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4.13총선 거함산선거구 선거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선거전이 스스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구정) 연휴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형진 기자
koreanews@hanmail.net

정정합니다.

부산일보 5일자 3면에 보도된 "현역 물갈이 여론 경남, 울산 더 높아" 제목의 1단 기사가 조사 통계상의 문제로 취소됨에 따라 이 기사를 인용, 본지 11일자 1면에 보도된 "경남 국회의원 '바꿔'열풍 거세"라는 제하의 기사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거창韓뉴스> 2016년 1월 18일자 1면

강석진 예비후보 '잰걸음'

출마기자회견 열고 총선행보 가속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거함산 만들 것 다짐

새누리당 복당과 함께 총선출마를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강석진(57)후보가 지난19일(화)오전11시 거창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3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더불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전진하는 새누리당의 미래에 동참하고, 국가에도 헌신하며 거, 함, 산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본질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가 국민의 일에 앞장서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자신은 이를 위해 거함산 지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반드시 실현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정치권이 개혁에 앞장서서 변해야 하며, 새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기본이 바로선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지신도 거함산을 기본이 바로선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인간다움이 가득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거함산, 정의가 살아있고 올바름과 반듯함이 존중받는 거함산, 양보, 배려, 공경의 미덕으로 행복이 넘치는 거함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거함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 등으로 인해 농산물가격하락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 즉 모든 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면 잘된다는 말과 같이 이를 명심하여 10년, 20년 뒤까지 예측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거함산의 발전과 미래를 창조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거함산에도 변화와 개혁, 그리고 혁신이 필요하며, 거함산 군민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을 받는 정치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고 "거함산 군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힘찬 도약의 발판을 창조하고 경제적 풍요와 행복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모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거함산으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모 지역신문에서 자신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데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할 것을 정식 요청했다.

한편, 중앙정치무대에서의 폭 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마당발로 통하는 강 예비후보는 이날 총선 출마를 계기로 향후 자신의 총선가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총선 D- 80

강석진 예비후보 '잰걸음'

출마기자회견 열고 총선행보 가속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거함산 만들것 다짐

새누리당 복당과 함께 총선출마를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강석진(57)후보가 지난19일(화)오전11시 거창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3총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예비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더불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전진하는 새누리당의 미래에 동참하고, 국가에도 헌신하며 거, 함, 산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고 출마배경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본질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하고 상호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가 국민의 일에 앞장서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하는 만큼, 자신은 이를 위해 거함산 지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반드시 실현 시키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정치권이 개혁에 앞장서서 변해야하며, 새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기본이 바로선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박근혜대통령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지신도 거함산을 기본이 바로선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고 역설했다.

또한, "인간다움이 가득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거함산, 정의가 살아있고 올바름과 반듯함이 존중받는 거함산, 양보, 배려, 공경의 미덕으로 행복이 넘치는 거함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가운데, "현재 거함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등으로 인해 농산물가격하락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 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 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 즉 모든 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면 잘된다는 말과 같이 이를 명심하여 10년, 20년 뒤까지 예측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거함산의 발전과 미래를 창조해 나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거함산에도 변화와 개혁, 그리고 혁신이 필요하며, 거함산 군민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을 받는 정치를 통해 살고싶은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하고 거함산 군민모두가 잘살 수 있는 힘찬 도약의 발판을 창조하고 경제적 풍요와 행복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모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거함산으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모 지역신문에서 자신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데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할 것을 정식 요청했다.

한편, 중앙정치무대에서의 폭 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미당발로 통하는 강 예비후보는 이날 총선 출마를 계기로 향후 자신의 총선가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형진기자
koreanws@hanmail.net

<거창韓뉴스> 2016년 1월 25일자 1면

제20대 총선 강석진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제20대 산청·함양·거창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 석 진

존경하는 함양·산청·거창 군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 강석진은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전직 군수였고, 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었던 저는, 이미 여러분들과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전진하는 새누리당의 미래에 동참하고 국가에도 헌신하며 함양·산청·거창도 변화와 개혁, 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일에 앞장서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함양·산청·거창에서 군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소통과 화합,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서 변해야 한다. 새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하고 공직자들은 부패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서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강석진도 함양·산청·거창을 기본이 바로 선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인간다움이 가득한, 사람을 중시하는 함양·산청·거창, 정의가 살아 있는 함양·산청·거창, 올바름과 반듯함이 존중받는 함양·산청·거창, 양보와 배려, 공경의 미덕으로 행복이 넘치는 함양·산청·거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함양·산청·거창은 인구 감소, 고령화, FTA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함양·산청·거창의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 즉 모든 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면 잘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범사예즉립을 명심해서 10년, 20년 뒤까지 멀리 예측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함양·산청·거창의 발전과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함양·산청·거창에도 변화와 개혁, 혁신이 필요합니다.

함양·산청·거창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을 받는 정치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양·산청·거창 군민들이 잘살 수 있는 힘찬 도약의 발판을 창조하고 경제적 풍요와 행복함의 결실을 군민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함양·산청·거창으로 만들어 갑시다.

함양·산청·거창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총선 강석진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제20대 산청 · 함양 · 거창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 석 진



존경하는 함양 · 산청 · 거창 군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 강 석진은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전직 군수였고, 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었던 저는, 이미 여러분들과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은 박 근혜 정부의 성공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전진하는 새누리당의 미래에 동참하고 국가에도 헌신하며 함양 · 산청 · 거창도 변화와 개혁, 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일에 앞장서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함양 · 산청 · 거창에서 군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소통과 화합,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서 변해야 한다.

새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하고 공직자들은 부패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서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강석진도 함양 · 산청 · 거창을 기본이 바로 선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인간다움이 가득한, 사람을 중시하는 함양 · 산청 · 거창 정의가 살아있는 함양 · 산청 · 거창, 올바름과 반듯함이 존중받는 함양 · 산청 · 거창 양보, 배려, 공경의 미덕으로 행복이 넘치는 함양 · 산청 · 거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함양 · 산청 · 거창은 인구 감소, 고령화, FTA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함양 · 산청 · 거창의 10년, 20년 뒤에는 이런 상황이 올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 즉 모든 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면 잘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 저는 범사예즉립을 명심해서 10년, 20년 뒤까지 멀리 예측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함양 · 산청 · 거창의 발전과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함양 · 산청 · 거창에도 변화와 개혁, 혁신이 필요합니다.

함양 · 산청 · 거창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을 받는 정치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양 · 산청 · 거창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힘찬 도약의 발판을 창조하고 경제적 풍요와 행복함의 결실을 군민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함양 · 산청 · 거창으로 만들어 갑시다.

함양 · 산청 · 거창 군민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제 20대 산청함양거창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 석 진

<거창韓뉴스> 2016년 1월 25일자 13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19
언 론 사	**주식회사 전주신문(전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40 대표이사 신영배
심의대상기사	전주일보 2016년 1월 18일자 3면 「이춘석, '올 들어 벌써 29억'」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특별교부금에 도로확장사업 특교세 확보
이춘석, '올 들어 벌써 29억'

국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사진)이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한 데에 이어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 확장 사업 특교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추가로 요청, 막바지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아 올해 총 29억의 특교를 확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실 김제시에서 익산시로 진입하는 관문도로인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는 보행로가 없는 탓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인도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로 확장을 위해 2014년 착공했으나 재원부족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교 확보로 인해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특별교부금에 도로확장사업 특교세 확보

이춘석, '올 들어 벌써 29억'

국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사진)이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한 데에 이어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 확장 사업 특교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추가로 요청, 막바지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아 올해 총 29억의 특교를 확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실 김제시에서 익산시로 진입하는 관문도로인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는 보행로가 없는 탓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인도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로 확장을 위해 2014년 착공했으나 재원부족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교 확보로 인해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이춘석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시급한 공사들이 표류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은 최대한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전주일보> 2016년 1월 18일자 3면

이춘석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시급한 공사들이 표류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은 최대한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결번호	2016국선-자심20
언론사	**주식회사 전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대표이사 유춘택
심의대상기사	전라일보 2016년 1월 20일자 3면 「임정엽 예비후보, '군수시절 성과' 눈길… 선거구도 '안갯속' 전망」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전직 군수 출신 예비후보자의 군수 재직시절 치적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사는 게재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임정엽 예비후보 '군수시절 성과' 눈길… 선거구도 '안갯속' 전망

로컬푸드 성공·예산확보 등 지방선거서 악조건 속 선전도 지역정치권, 총선 앞두고 이목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는 슬로건으로 오는 4.13총선에 출마한 임정엽 예비후보에 대한 평가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완주군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로컬 1번지로 만들어 낸 만큼, 그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임 예비후보의 또 다른 도전(총선)을 놓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임 예비후보가 군수당시 일궈낸 굵직한 성과들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거듭 평가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임 예비후보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로컬푸드'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로컬푸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들을 보기 좋게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것.

국가예산 확보 면에서도 임 예비후보는 탁월한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완주군수 취임 당시 2,000억대에 불과한 예산을 2014년에는 5,600억대로 늘리면서, 전국 84개 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군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여기에 완주군을 복지행정의 메카로, 또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내 총생산(GRDP) 분야에서 완주군을 도내 1위로 올려놓는 등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임 예비후보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로 중앙부처를 설득

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쌓아놓은 인맥 등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이라는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린 임 예비후보의 저력이 더욱 진화되어 이번 총선으로도 이어질 경우 이 지역의 선거구도는 예측하기 힘든 안갯속 국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임정엽 예비후보 '군수시절 성과' 눈길… 선거구도 '안갯속' 전망

로컬푸드 성공 · 예산 확보 등
지방선거서 악조건속 선전도
지역정치권, 총선 앞두고 이목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는 슬로건으로 오는 4·13총선에 출마한 임정엽 예비후보에 대한 평가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완주군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로컬 1번지로 만들어 낸 만큼, 그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임 예비후보의 또 다른 도전(총선)을 놓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임 예비후보가 군수당시 일궈낸 굵직한 성과들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거듭 평가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임 예비후보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로컬푸드'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로컬푸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들을 보기 좋게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것.

국가예산 확보 면에서도 임 예비후보는 탁월한 능력을 증명해보이기도. 완주군수 취임 당시 2,000억대에 불과한 예산을 2014년에는 5,600억대로 늘리면서, 전국 84개 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군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여기에 완주군을 복지행정으로 메카로, 또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내 총생산(GRDP) 분야에서 완주군을 도내 1위로 올려놓는 등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임 예비후보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로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쌓아놓은 인맥 등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이라는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린 임 예비후보의 저력이 더욱 진화되어 이번 총선으로도 이어질 경우 이 지역의 선거구도는 예측하기 힘든 안개속 국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김형민기자 · bvlgari@

<전라일보> 2016년 1월 20일자 3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21
언 론 사	**강서양천신문** 서울 강서구 화곡로 60길 26 대동빌딩 4층 대표이사 송문균
심의대상기사	강서양천신문 2016년 1월 18일자 11면 「카드 수수료 우대적용대상 5억원으로 확대해야」 제하의 기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현직 국회의원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카드 수수료 우대적용대상 5억원으로 확대해야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카드사로부터 카드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은 가맹점은 25~3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30여만 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인상의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전체의 10%나 된다. 전체 가맹점 개수를 240~260만 개로 추정하면, 25~30만 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은 것이다.

일례로 BC카드 한 군데에서만 26만 개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이렇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배제된 15만 개가량의 영세·중소가맹점이다.

이전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주거나 2년여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 그러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카드사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해버렸다.

현재 매출액 3억 원을 기준으로 1.3%와 2.5%로 수수료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카드매출액이 3억 원일 경우, 수수료 1.2%p 차이는 소득으로 360만 원이나 된다. 매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10만 개 가량의 일반가맹점이다.

정부는 3~10억 원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0.3%p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3~10억 원 구간 28만 개 일반가맹점 중 30%가 넘는 9만여 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밴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인상을 통보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수수료 인하 방안 당시, 3~10억 원 구간에서 금리조달 비용과 마케팅 비용 하락으로 0.3%p 원가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야 한다. 연매출 3~5억 원 가맹점을 국세청의 단순경비율(음식업점 90%)을 적용하면 연소득은 3,000~5,000만 원에 불과하다. 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또한 여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한 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철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카드 수수료 우대적용대상 5억원으로 확대해야

의원발언대

김기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25~3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30여만 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인상의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전체의 10%나 된다. 전체 가맹점 개수를 240~260만 개로 추정하면, 25~30만 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은 것이다.

일례로 BC카드 한군데에서만 26만 개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이렇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배제된 15만 개 가량의 영세 · 중소가맹점이다.

이전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주거나 2년여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 그러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카드사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해 버렸다.

현재 매출액 3억 원을 기준으로 1.3%와 2.5%로 수수료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카드매출액이 3억 원일 경우, 수수료 1.2%p 차이는 소득으로 360만 원이나 된다. 매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10만 개가량의 일반가맹점이다.

정부는 3~10억 원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0.3%p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3~10억 원 구간 28만 개 일반가맹점 중 30%가 넘는 9만여 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밴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인상을 통보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수수료 인하 방안 당시, 3~10억 원 구간에서 금리조달 비용과 마케팅 비용 하락으로 0.3%p 원가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야 한다. 연매출 3~5억 원 가맹점을 국세청의 단순경비율(음식업점 90%)를 적용하면 연소득은 3000~5000만 원에 불과하다. 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또한 여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한 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철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社外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서양천신문> 2016년 1월 18일자 11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22
언 론 사	**철원신문**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58번길 24 대표이사 변영수
심의대상기사	철원신문 2016년 1월 19일자 10면 「찬란한 태양 바라보며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찬란한 태양 바라보며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힘들고 고단했지만 꿋꿋이 이겨내신 군민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군수님과 군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한겨울 살을 에는 듯한 최전방 추위 속에서 국가 안위를 책임지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국군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은 지혜의 상징이자 부지런하기로 잘 알려진 원숭이의 해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지혜와 힘을 모으고 열심히 노력하여 철원지역이 보다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민 여러분, 올해도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침체와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대외적 경제환경은 심상치 않고, 내수부족과 부채누적, FTA로 인한 농촌경제 위기 심화 등 대내적 경제 상황도 결코 녹녹치 않습니다. 교육은 물론 도농간 격차심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치는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고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에게 희

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에 신선한 새바람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사로운 햇살을 비추며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웅크린 허리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변화의 힘찬 기운이 요구된다고 하십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이러한 변화의 기운이 한반도의 중심 철원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고향 철원에서는 민관군이 힘을 하나로 모은 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원선 복원사업, 철원학사 건립, 인구늘리기 사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크고 작은 숙원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철원연장 관철, 고석정 훈련장 이전사업비 철원군 부담철회 및 상사리지역 피해보상,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일, 군과 민이 하나 되어 경제를 살리는 일, 함께 나누며 따듯한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일, 무엇보다 다가올 통일시대 중심지로 우리 철원을 우뚝 세우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쉼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새아침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 나라와 철원의 힘찬 미래를 펼치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풀어진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및 국군장병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칼럼 -

정 해 용(룡)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찬란한 태양 바라보며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힘들고 고단했지만 굿굿이 이겨내신 군민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군수님과 군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한 겨울 삼을 에이는 듯한 최전방 추위속에서 국가 안위를 책임지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오신 국군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은 지혜의 상징이자 부지런하기로 잘 알려진 원숭이의 '해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지혜와 힘을 모으고 열심히 노력하여 철원지역이 보다 활력넘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번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민여러분, 올 해도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 침체와 미국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대외적 경제 환경은 심상치 않고, 내수부족과 부채누적, FTA로 인한 농촌경제 위기 심화 등 대내적 경제 상황도 결코 녹녹치 않습니다. 교육은 물론 도농간 격차심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치는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에 신선한 새바람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사로운 햇살을 비추며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웅크린 허리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변화의 힘찬 기운이 요구된다고 하십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이러한 변화의 기운이 한반도의 중심 철원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고향 철원에서는 민관군이 힘을 하나로 모은 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원선 복원사업, 철원학사 건립, 인구늘리기 사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크고 작은 숙원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철원연장 관철, 고석정 훈련장 이전사업비 철원군 부담철회 및 상사리지역 피해보상,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일, 군과 민이 하나되어 경제를 살리는 일, 함께 나누며 따듯한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일, 무엇보다 다가올 통일시대 중심지로 우리 철원을 우뚝 세우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쉼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군민여러분, 새해 새아침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 나라와 철원의 힘찬 미래를 펼치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풀어진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손을 꼭잡고 함께 나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및 국군장병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신문> 2016년 1월 19일자 10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23
언 론 사	**주식회사 아시아타임즈** 서울 중구 퇴계로 31길 27 프라임빌딩 8층 아시아타임즈 대표이사 최회봉
심의대상기사	아시아타임즈 2016년 1월 20일자 18면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의 저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출간 즉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정치사회 베스트셀러!

이철희의 정치썰전

보수와 진보를 향한 촌철살인 돌직구

최장집, 강준만, 조국, 정희진 추천

한국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진영 논리에 따라 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2010~2013년 세계가치관조사 결과 정치권(국회)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퍼센트에 불과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보수와 진보, 즉 여당과 야당에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정치가 힘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를 죽이는 온갖 허상이나 오해, 또는 의도적인 왜곡을 바로잡아야 정치가 비로 설 수 있다. 지금처럼 정치든 다원고, 나쁘고,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정치 혐오나 정치 불신을 끝장내야 한다.

복잡한 정치 문제를 대화하듯이 쉬운 말로 흥미 있게 풀어나간다.
–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나는 이철희의 글은 무조건 믿독하는 편이 되었다.
–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6년 총선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힐러 리프먼'의 출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정희진 여성학 연구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이철희 소장의 새 책이 무척 반갑다.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정치를 통한 삶의 전화. 이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은 손을 내민다.
– 김미화 방송인

이철희 소장은 따뜻하면서 차갑다. 그는 냉철한 휴머니스트다.
– 김구라 방송인, 대한민 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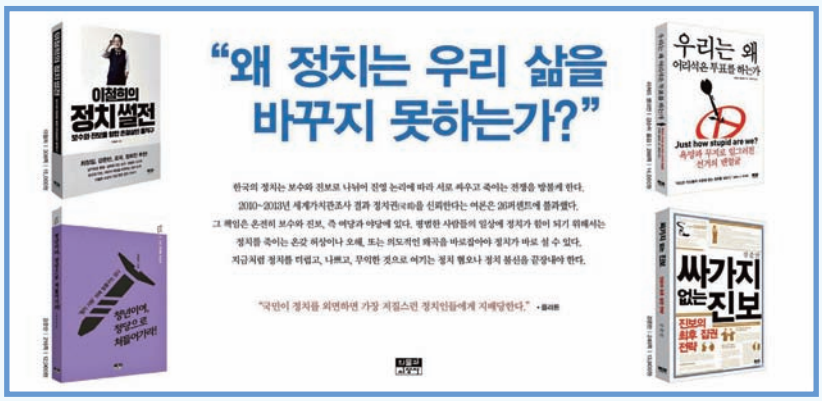
이철희 소장의 지유로운 철학은 이 책을 전문적인 경작으로 완성시켰다.
– 최진기 아이디스쿨 대표

이철희 소장과의 논쟁이 즐거운 것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학생위원장, 클라세스홀딩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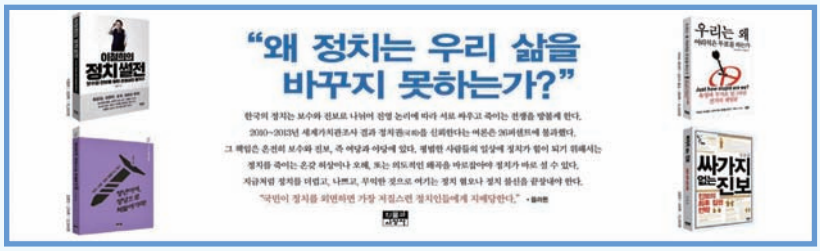
<아시아타임즈> 2016년 1월 20일자 18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24
언 론 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26 대표이사 차준영
심의대상기사	세계일보 2016년 1월 26일자 2면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2016년 1월 29일자 6면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의 저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계일보> 2016년 1월 26일자 2면



<세계일보> 2016년 1월 29일자 6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25
언 론 사	**함양신문 주식회사**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 3길 9-8 대표이사 임형섭
심의대상기사	함양신문 2016년 1월 25일자 4면 「'강석진' 국회의원선거 출사표 던지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강석진 예비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역내 정치호사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객관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예비후보에 우호적인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재심2(원심결정 : 2016국선-자심25)
언 론 사	**함양신문 주식회사**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 3길 9-8 대표이사 임형섭
심의대상기사	함양신문 2016년 1월 25일자 4면 「'강석진' 국회의원선거 출사표 던지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주의 결정(2016국선-자심25)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대상기사가 게재된 지면이 발간된 이후 다음 호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범 국회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재심청구대상기사와 비슷한 비중으로 게재하였고, '정치호사가들의 발언'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후보나 지지당원들의 발언으로 지역사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재심청구인이 후보자 또는 지지당원의 발언을 제3자인 정치호사가의 발언처럼 보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소문을 보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객관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후 다른 후보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를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강석진’ 국회의원선거 출사표 던지다

최경환 전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거창군수 역임 “국회의원 참모습 보여주겠다, 신성범 의원 이길 히든카드 있다!”

D-96 4월 총선의 열기가 뜨겁다. 문재인 저격수 더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전격적으로 새누리당에 입당, 파란을 일으켰으며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이른바 ‘이승만 국부론’을 제기, 보수층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거창함양산청 지역도 요즘 정치대목에 접어들었다. 현역의원 신성범 저격수를 자처하는 강석진이 돌아왔다. 함양, 거창, 산청에서 그동안 잘보이지 않았던 국회의원의 참모습을 보이겠다는 강한 자신 감으로 “신성범 의원을 이길 히든카드가 있다”는 구호로 뛰어 들고 있다. 강석진(58)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오전11시 거창군청, 지난 20일 함양군청, 지난 21일 산청군청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 거창·함양·산청 지역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전 군수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한국정치포럼 연구위원, 제37·38대 거창군수를 역임했고,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복당을 신청해 지난 1월 11일 복당이 결정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직을 사퇴하고 14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후 19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강 전 군수는 “박근혜 정부의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 거창·함양·산청을 기본이 바로 선 지역으로 바꾸겠다”며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소통과 화합·상생의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면 잘 된다는 ‘범사예즉림(凡事豫則立)’을 명심해서 10년, 20년 뒤까지 멀리 예측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거창·함양·산청의 발전과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경환이가 김영삼이라면 강석진은 김동영 비유

거창·함양·산청은 전통적인 새누리당 텃밭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 번도 야권에 여의도행 티켓을 허락하지 않았던 보수 철옹성이다. 강석진 예비후보의 출마선언이 있자 지역 내 정치호사가들은 강(姜)의 출현에 대해 각각 한마디씩 논평을 했다.

“2선 현역의원 신성범이 바짝 긴장하겠구먼, 모름지기 선거란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당선을 예측할 수 없는 법, 신성범이 우세할 거라고 예단한다면 큰 오산일쎄. 인지도야 현역의원이니까 높겠지만 그게 지지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유권자들은 새바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姜)이 거창·함양·산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 신선한 공약을 던지면 강 쪽으로 표가 쏠리는 법이거든.”

“강(姜) 뒤에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친박 최고실세)이가 있다는구먼.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데 약 20여년 동안 절친한 사이라며, 최경환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강이 그 양반 비서실장을 맡았잖아, 최경환이가 김영삼이라면 강은 옛날 김동영(거창출신 YS계 2인자) 격이지, 만일 강이 여의도 티켓(국회의원 당선)을 따내면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가져올 거

야! 흐흐흐 정치판은 모름지기 거물과 끈이 있는 사람이 유권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법이야, 큰 빽이 있어야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이야!"

강석진 예비후보는 친박에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그 스스로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변화, 혁신을 통해 새롭게 전진하는 새누리당의 미래에 동참하고 함양·산청·거창이 변화와 개혁, 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군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됐다"고 총선 출마이유를 밝혔다.

강석진 예비후보는 1959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당동마을에서 농사꾼 부 강신학 모 오계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가조초, 가조중, 영남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다. 새누리당 전신인 민주정의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국장,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보좌역, 한나라당 상근 부대변인,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담당관,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국회정책연구위원,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제18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 조직총괄본부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거창군수(민선 3, 4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1월 20일 함양을 찾은 강 후보를 만나 그의 정치관과 최경환 전부총리와의 관계, 거창함양산청을 부흥시킬 히든카드가 뭔지를 물어봤다.

– 강 후보가 지향하는 정치는 어떤것인가?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일에 앞장서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청·함양·거창에서 군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소통과 화합,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겠습니다.

– 출마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몇 번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강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나는 친박입니다'를 각인시키는 듯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강 후보의 정치철학이 같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서 변해야 한다. 새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하고 공직자들은 부패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서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이 되면 거창함양산청 군민들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돌보는 참된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저, 강석진도 산청·함양·거창을 기본이 바로 선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인간다움이 가득한, 군민을 중시하는 산청·함양·거창 정의가 살아있는 산청·함양·거창 올바름과 반듯함이 존중받는 양보, 배려, 공경의 미덕으로 행복이 넘치는 산청·함양·거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강 후보는 또 출마선언문을 통해 산청·함양·거창에도 변화와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라이벌 신성범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신성범 의원을 이길 수 있는 복안은?

▲신성범 의원과 새누리당 공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제가 참신한 정책과 진정성 있는 비전을 제시해 함양·산청·거창군민들로부

터 지지를 받아 중앙당에 그 뜻이 전달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의 결과가 나온다면 깨끗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 그는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지역의 우려와 루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된 출마 포기 약속이나 공천 감산점 관련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고, 오해받을 이유도 없다"고 해명하며 "거창·함양·산청의 지역 현안과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석진' 국회의원 선거 출사표 던지다

최경환 전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 거창군수 역임
"국회의원 참모습 보여 주겠다, 신성범 의원 이길 히든카드 있다!"

D-96 4월 총선의 열기가 뜨겁다. 문재인 저격수 더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전격적으로 새누리당에 입당, 파란을 일으켰으며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이른바 '이승만 국부론'을 제기, 보수층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거창함양산청 지역도 요즘 정치대목에 접어들었다. 현역의원 신성범 저격수를 자처하는 강석진이 돌아왔다. 함양·거창·산청에서 그동안 잘보이지 않았던 국회의원의 참모습을 보이겠다는 강한 자신 감으로 "신성범 의원을 이길 히든 카드가 있다"는 구호로 뛰어 듭고 있다. 강석진(58)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오전11시 거창군청, 지난 20일 함양군청, 지난 21일 산청군청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 거창·함양·산청 지역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전 군수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한국정치포럼 연구위원, 제37·38대 거창군수를 역임했고,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복당을 신청해 지난 1월 11일 복당이 결정되자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직을 사퇴하고 14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후 19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강 전 군수는 "박근혜 정부의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 거창·함양·산청을 기본이 바로 선 지역으로 바꾸겠다"며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소통과 화합·상생의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면 잘 된다는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을 명심해서 10년, 20년 뒤까지 멀리 예측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거창·함양·산청의 발전과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이가 강영상이라면 강석진은 김동영 바유

거창·함양·산청은 전통적인 새누리당 텃밭이다. 지난 20여년동안 한번도 야권에 여의도행 티켓을 허락하지 않았던 보수 철옹성이다. 강석진 예비후보의 출마선언이 있자 지역내 정치호사가들은 강(姜)의 출현에 대해 각각 한마디씩 논평을 했다.

"2선 현역의원 신성범이 바짝 긴장하겠구먼. 모름지기 선거란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당선을 예측할 수 없는 법. 신성범이 우세할 거라고 예단한다면 큰 오산일세. 인지도야 현역의원이니까 높겠지만 그게 지지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유권자들은 새바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姜)이 거창함양산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 산선한 공약을 던지면 강 쪽으로 표가 쏠리는 법이거든."

"강(姜) 뒤에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친박 최고실세)이가 있다는구먼.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데 약 20여년동안 절친한 사이라며, 최경환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할 때 강이 그 양반 비서실장을 맡았잖아. 최경환이가 김영삼이라면 강은 옛날 김동영(거창출신 YS계 2인자) 격이지, 만일 강이 여의도 티켓(국회의원 당선)을 따내면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가져올거야! 효효호 정치판은 모름지기 거물과 끈이 있는 사람이 유권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법이야. 큰 뽁이 있어야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이야!"

강석진 예비후보는 친박에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그 스스로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변화, 혁신을 통해 새롭게 전진하는 새누리당의 미래에 동참하고 함양·산청·거창이 변화와 개혁, 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군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됐다"고 총선 출마이유를 밝혔다.

강석진 예비후보는 1959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당동마을에서 농삿꾼 부 강신학 모 오계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게 가조초, 가조중, 영남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다. 새누리당 전신인 민주정의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국장,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보좌역, 한나라당 상근 부대변인,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담당팀,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국회정책연구위원,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제18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선거 조직총괄본부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거창군수(민선 3, 4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1월 20일 함양을 찾은 강 후보를 만나 그의 정치관과 최경환 전 부총리와의 관계, 거창함양산청을 부흥시킬 히든카드가 뭔지를 물어봤다.

-강 후보가 지향하는 정치는 어떤것인가?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일에 앞장서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청·함양·거창에서 군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소통과 화합,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겠습니다.

-출마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몇 번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강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나는 친박입니다'를 각인시키는 듯 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강후보의 정치철학이 같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서 변해야 한다. 새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하고 공직자들은 부패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서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역시 국회의원이 되면 거창함양산청 군민들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돌보는 참된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저, 강석진도 산청·함양·거창을 기본이 바로 선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인간다움이 가득한, 군민을 중시하는 산청·함양·거창 정의가 살아있는 산청·함양·거창 올바름과 반듯함이 존중받는 양보, 배려, 공경의 미덕으로 행복이 넘치는 산청·함양·거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 후보는 또 출마선언문을 통해 산청·함양·거창에도 변화와 개혁, 혁신이 필요합니다고 말했다. 이는 라이벌 신성범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것 같다. 신성범 의원을 이길 수는 있는 복안은?

▲신성범 의원과 새누리당 공천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린다면, 제가 참신한 정책과 진정성 있는 비전을 제시해 함양·산청·거창군민들부터 지지를 받아 중앙당에 그 뜻이 전달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의 결과가 나온다면 깨끗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 그는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지역의 우려와 루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된 출마 포기 약속이나 공천 감산점 관련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고, 오해받을 이유도 없다"고 해명하며 "거창·함양·산청의 지역 현안과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본지 사무실에서 정상목 기자와 강석진 후보 인터뷰

창원지사장 정상목 mogsang113@hanmail.net

<함양신문> 2016년 1월 25일자 4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31
언 론 사	**주식회사 서은로정보(주간 서대문자치신문)**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2-19 대표이사 황일용
심의대상기사	서대문자치신문 2016년 1월 30일자 8면 「서대문을지역 야권 통합을 위해 노력할 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강래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

서대문을지역 야권 통합을 위해 노력할 터

이강래 예비후보는 3선의원으로 명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로 제20대 총선에 서대문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8일 지역신문 기자간담회에서 서대문구 을지역의 야권 통합이 최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강래 예비후보는 이제는 현실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를 재개하면서 원래의 지역구였던 남원·순창에서 출마하는 대신 새로운 지역구를 선택하게 되었다. 세 번씩이나 당선시켜 준 고향의 주민들께는 너무나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나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신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서대문은 역사적으로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가 상징하듯이 독립정신의 발원지였다. 나는 앞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서대문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새기며 새로운 가치로 승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서대문을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지역이었다. 과거 평민당 시절인 1988년 13대 총선에서 임춘원 전 의원이 당선된 이후 연이어 장재식 전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2004년 17대 총선 이후부터는 야당 후보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게 연거푸 세 번 패배했다.

이와 같이 정두언 의원이 야당세가 강한 서대문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쟁력이 출중한 측면도 있지만 야권의 분열과 약체 후보를 만나 행운이 겹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두언 의원에게 4연패를 당하는 수모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야권을 통합해 내고 그보다 경쟁력이 우위인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번에 도전했다.

현재 이 지역 야권 지지층 사이에는 정두언 의원에게 세 번씩이나 연패를 당했는데 내년 총선에 또다시 패배하여 야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지나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들은 경험 있는 중진 인사가 와서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된 야권을 통합해 내고 그 바탕 위에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서대문을 지역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에서 출마하고자 한다.

첫째,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며 젊은 날의 꿈을 키웠으며,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거주하며 세 아이를 키웠다. 세 딸 모두 이곳에서 초·중·고를 마쳤다. 이 지역이 우리 가족의 생활터전이고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다.

둘째, 우리 당이 세 번씩이나 패배한 지역에서 당선되어 당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대 총선 이래 이 지역에서 연패한 이유는 야권의 분열과 후보의 경쟁력 열세 때문이었다. 그동안 야권세력 내부의 반목과 갈등이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권의 화합과 단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공천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두언 의원은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정치 감각도 탁월하며 여당 내의 야당을 자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기려면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살아 온 인생역정이 정두언 의원보다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셋째, 중앙정치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남원·순창을 떠나 서대문을 지역에 출마할 결심을 하였다.

세 번씩이나 당선되어 조직이 완비된 고향에서 출마하면 쉽게 당선될 터인데 왜 어려운 서울지역을 선택하느냐는 질문을 그동안 많이 받아 왔다. 고향에서 출마하면 당선은 쉽지만 당선된 후에 지역구 관리와 중앙정치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지역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도부가 헤매고 있다. 정부 여당이 죽을 쑤고 있어서 우리 당이 조금만 잘 하면 반사이익은 물론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커져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나는 당선되어 국회에 복귀하면 무엇보다 우리당을 바로 일으켜 세우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일에 앞장설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강래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

서대문을지역 야권 통합을 위해 노력할 터



이강래 예비후보는 3선의원으로 명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로 제20대 총선에 서대문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8일 지역신문 기자간담회에서 서대문구 을지역의 야권통합이 최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강래 예비후보는 이제는 현실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를 재개하면서 원래의 지역구였던 남원.순창에서 출마하는 대신 새로운 지역구를 선택하게 되었다. 세 번씩이나 당선시켜준 고향의 주민들께는 너무나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나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소신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서대문은 역사적으로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가 상징하듯이 독립정신의 발원지였다. 나는 앞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서대문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새기며 새로운 가치로 승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서대문을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지역이었다. 과거 평민당 시절인 1988년 13대 총선에서 임춘원 전의원이 당선된 이후 연이어 장재식 전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2004년 17대 총선 이후부터는 야당 후보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게 연거푸 세 번 패배했다.

이와 같이 정두언 의원이 야당세가 강한 서대문 을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쟁력이 출중한 측면도 있지만 야권의 분열과 약체 후보를 만나 행운이 겹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두언 의원에게 4연패를 당하는 수모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야권을 통합해 내고 그보다 경쟁력이 우위인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번에 도전했다.

현재 이 지역 야권 지지층 사이에는 정두언 의원에게 세 번씩이나 연패를 당했는데 내년 총선에 또 다시 패배하여 야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지나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들은 경험 있는 중진 인사가 와서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된 야권을 통합해 내고 그 바탕위에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서대문을 지역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에서 출마 하고자 한다.

첫째, 제 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며 젊은 날의 꿈을 키웠으며,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거주하며 세 아이를 키웠다. 세 딸 모두 이곳에서 초.중.고를 마쳤다. 이 지역이 우리가족의 생활터전이고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다.

둘째, 우리 당이 세 번씩이나 패배한 지역에서 당선되어 당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대 총선 이래 이 지역에서 연패한 이유는 야권의 분열과 후보의 경쟁력 열세 때문이었다. 그동안 야권세력 내부의 반목과 갈등이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권의 화합과 단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공천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두언 의원은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정치 감각도 탁월하며 여당내의 야당을 자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기려면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살아 온 인생역정이 정두언 의원보다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셋째, 중앙정치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남원. 순창을 떠나 서대문을 지역에 출마할 결심을 하였다.

세 번씩이나 당선되어 조직이 완비된 고향에서 출마하면 쉽게 당선될 터인데 왜 어려운 서울지역을 선택하느냐는 질문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다. 고향에서 출마하면 당선은 쉽지만 당선된 후에 지역구 관리와 중앙정치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지역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도부가 헤메고 있다. 정부 여당이 죽을 쑤고 있어서 우리당이 조금만 잘하면 반사이익은 물론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커져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나는 당선되어 국회에 복귀하면 무엇보다 우리당을 바로 일으켜 세우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일에 앞장설 각오를 다지고 있다.

<서대문자치신문> 2016년 1월 30일자 8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32
언 론 사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703 대표이사 최정호
심의대상기사	시민일보 2016년 1월 29일자 3면 「국민을 위한 정치 선진화의 길」 제하의 기고문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재철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국민을 위한 정치 선진화의 길

2012년 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실제 법 이름은 '국회법')에 반대하는 극소수였던 저는 4년 만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선진화법의 패악에 대해 국민여론이 걱정하는 상황을 맞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만큼 잘못된 법은 없습니다.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가 앞장섰고 N, K, H 의원 등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이라고 이름 붙인 일부 의원들이 지원군 역할을 했습니다. 취지는 몸싸움 국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 같은 폭력 국회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는데 실제 이 같은 법으로는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발목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의총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법의 부당성을 피력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회 선진화니 몸싸움 방지니 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18대 국회의 마지막 날,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폭력국회만도 못한 식물국회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선진화'라는 미명을 붙인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나면 민주주의의 원리인 과반수 의결이 아닌 5분의 3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쟁점법안의 통과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월 27일 현재 의석수는 새누리당 157석, 더불어민주당 109석, 정의당 5석, 무소속 22석으로 5분의 3인 180석은 어떤 조합이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기본 원리로 과반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60%

또는 3분의 2 등의 특별 의결정족수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보편적인 과반수 원칙을 5분의 3이라는 가중다수결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특별사항을 기본 원칙인 양 내세우며 국회의 모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왜 다수당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이 법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 다수당을 아무런 의미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몸싸움을 방지한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몸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법은 통과되어 나라는 그래도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아예 법이 통과되지 않아 나라가 마비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법이란 취지대로 착하게만 사용되지는 않으며 때론 법조문대로라며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선의(善意)를 기대하지만 악용되는 경우를 늘 생각하며 조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입법의 상식입니다.

법이 통과된 후인 2013년 11월 저는 모든 의사일정을 자신들의 뜻에 맞는 것만 골라서 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선진화법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임을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개발의 편자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저는 야당을 슈퍼 갑으로 만들어 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대책 마련을 역설하고 불임국회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2012년 법 통과 때 진두지휘한 지도부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4월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폭력 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 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면서 "국회 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단 '그린라이트 법'으로 정해 본회의까지 특급 열차를 태우자면서 조만간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후 1년 반 만에 이른바 선진화법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4년간의 온갖 부작용을 겪은 다음에야 악법을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당시 찬성하셨던 분들은 이제라도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것이 미래를 위한 솔직담대한 출발일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선진화의 길

단 상

심재철
국회의원

2012년 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실제 법 이름은 '국회법')에 반대하는 국소수였던 저는 4년만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선진화법의 폐악에 대해 국민여론이 격정하는 상황을 맞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만큼 잘못된 법은 없습니다. 당시 환우여 원내대표가 앞장섰고 N, K, H 의원 등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이라고 이름 붙인 일부 의원들이 지원군 역할을 했습니다. 취지는 몸싸움 국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 같은 폭력 국회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는데 실제 이같은 법으로는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발목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의총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법의 부당성을 피력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회선진화니 몸싸움 방지니 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18대 국회의 마지막 날,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폭력국회만도 못한 식물국회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선진화'라는 미명을 붙인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나면 민주주의 원리인 과반수 의결이 아닌 5분의3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쟁점법안의 통과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월27일 현재 의석수는 새누리당 157석, 더불어민주당 109석, 정의당 5석, 무소속 22석으로 5분의 3인 180석은 어떤 조합이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기본 원리로 과반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60% 또는 3분의2 등의 특별 의결정족수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보편적인 과반수 원칙을 5분의3이라는 가중다수결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특별사항을 기본 원칙인양 내세우며 국회의 모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왜 다수당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이 법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 다수당을 아무런 의미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몸싸움을 방지한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몸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법은 통과되어 나라는 그래도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아예 법이 통과되지 않아 나라가 마비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법이란 취지대로 착하게만 사용되지는 않으며 때론 법조문대로라며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선의(善意)를 기대하지만 악용되는 경우를 늘 생각하며 조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입법의 상식입니다.

법이 통과된 후인 2013년 11월 저는 모든 의사일정을 자신들의 뜻에 맞는 것만 골라서 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선진화법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임을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개발의 편자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저는 야당을 슈퍼 갑으로 만들어 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대책 마련을 역설하고 불임국회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2012년 법 통과 때 진두지휘한 지도부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4월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폭력 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 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면서 "국회 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단 '그린라이트 법'으로 정해 본회의까지 특급 열차를 태우자면서 조만간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후 1년 반만에 이른바 선진화법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4년간의 온갖 부작용을 겪은 다음에야 악법을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당시 찬성하셨던 분들은 이제라도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것이 미래를 위한 솔직담대한 출발일 것입니다.

<시민일보> 2016년 1월 29일자 3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33
언 론 사	**주식회사 경인매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안산법조타운 8층 대표이사 김형근
심의대상기사	경인매일 2016년 2월 16일자 8면 「전철 7호선 연장 의정부 구간은 재추진 되어야 한다!」 제하의 기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누리당 박인균 예비후보자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철 7호선 연장 의정부 구간은 재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로 전철 7호선 양주 유치가 가시화된 데 대해 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하지만 이번 일을 예견하고 본인이 이미 지난해 11월 26일 언론을 통해 밝혔다시피 이번에 예타 통과된 사업은 명백히 양주노선이며 의정부시민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선이다.

이러한 점은 첨부 노선도를 보면 삼척동자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으로, 양주로 가는 전철이 어쩔 수 없이 의정부를 지나니 시혜 베풀 듯 역 하나 챙겨 준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본인이 오랫동안 기회 날 때마다 밝혀 왔다시피, 적어도 수도서울의 한수이북 핵심 위성도시이자 도시화가 성숙된 인구 44만의 중견도시인 의정부의 전철은 한수이남 여러 도시에서 그러하듯 철도가 아니라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2001년에 인터넷청원서명운동으로 시작되어 8년 전에는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을 만큼 의정부 지역 연장을 위해 의정부 지역에서 시발된 본 사업은 당연히 의정부 시민의 바람과 의정부 지역의 필요성을 우선시하여 적어도 4개역(장암주공4거리, 탑석, 민락2지구, 성모병원 등)은 추진되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정부을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일이 이렇게 되도록 그동안 뭘 했는지, 본인이 꾸준히 귀띔해 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

사 면제조항을 적용해 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 보았는지 정말 궁금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특례조항으로 선정된 사업은 착수도 공사도 훨씬 빨라, 본인이 지난 11월 보도자료 말미에 언급한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의 경우 당시에 바로 착공하여 벌써 완공하였고 내일 준공, 통수식을 하기로 했다가 북한의 핵도발로 22일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본인은 이번 20대 국회에 꼭 입성하여, 의정부와 양주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반드시, 그리고 더 신속하게 실현하고자 한다.

끝으로 앞으로 차차 노선을 바꾸고 역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노선과 의정부 노선은 사실상 완전히 별개로, 전례도 없고 현실을 도외시한 순진한 생각이며, 전철노선은 시외버스노선도 마을버스노선도 아니라는 점을 말해 주고 싶다.

자숙을 해야 할 사안을 놓고 나날이 부담이 될 자화자찬 현수막을 당의 이름으로 지역 곳곳에 게첩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핵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기 고

전철 7호선 연장 의정부 구간은 재추진 되어야 한다!



박인균
의정부을 새누리당 예비후보

우선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로 전철 7호선 양주 유치가 가시화된 데 대해 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하지만 이번 일을 예견하고 본인이 이미 지난해 11월 26일 언론을 통해 밝혔다시피 이번에 예타 통과된 사업은 명백히 양주노선이며 의정부시민으로서는 정말 받아드리기 어려운 노선이다.

이러한 점은 첨부 노선도를 보면 삼척동자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으로, 양주로 가는 전철이 어쩔 수 없이 의정부를 지나니 시혜 베풀듯 역 하나 챙겨 준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본인이 오랫동안 기회 날 때마다 밝혀 왔다시피, 적어도 수도서울의 한수이북 핵심 위성도시이자 도시화가 성숙된 인구 44만의 중견도시인 의정부의 전철은 한수이남 여러 도시에서 그러하듯 철도가 아니라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2001년에 인터넷청원서명운동으로 시작되어 8년 전에는 '10만시민 서명운동'을 벌였을 만큼 의정부 지역 연장을 위해 의정부 지역에서 시발된 본 사업은 당연히 의정부시민의 바람과 의정부 지역의 필요성을 우선시하여 적어도 4개역(장암주공4거리, 탑석, 민락2지구, 성모병원 등)은 추진되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정부을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일이 이렇게 되도록 그동안 뭘 했는지, 본인이 꾸준히 귀띔해 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적용해 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 보았는지 정말 궁금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특례조항으로 선정된 사업은 착수도 공사도 훨씬 빨라, 본인이 지난 11월 보도자료 말미에 언급한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의 경우 당시에 바로 착공하여 벌써 완공하였고 내일 준공,통수식을 하기로 했다가 북한의 핵도발로 22일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본인은 이번 20대 국회에 꼭 입성하여, 의정부와 양주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반드시, 그리고 더 신속하게 실현하고자 한다.

끝으로 앞으로 차차 노선을 바꾸고 역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노선과 의정부 노선은 사실상 완전히 별개로, 전례도 없고 현실을 도외시한 순진한 생각이며, 전철노선은 시외버스노선도 마을버스노선도 아니라는 점을 말해 주고 싶다.

자숙을 해야 할 사안을 놓고 나날이 부담이 될 자화자찬 현수막을 당의 이름으로 지역 곳곳에 게첩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핵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인매일> 2016년 2월 16일자 8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34
언 론 사	**디앤비커뮤니티 주식회사(서울동부신문)**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27-3 엘크루 402호 대표이사 박문규
심의대상기사	서울동부신문 2016년 1월 27일자 1면 「안형환 예비후보 지지」 제하의 기사 및 2016년 1월 27일자 2면 지지성명서 요약문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안형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관련 기사 및 지지성명서를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미래가 있는 젊은 정치인

안형환 예비후보 지지

주찬식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송파1)과 송파갑 주요 당직자들이 23일 안형환 송파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무한한 열정과 책임을 다하며 헌신할 '젊은 일꾼' 안형환 예비후보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다"며 지지선언을 했다.

이날 새누리당 송파갑 안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주 시의원, 이정운 고문, 정태산 고문, 최일경 부위원장, 조칠성 자문단 부위원장, 신정섭 자문위원, 최장덕 협의회장, 김정숙 여성회장, 박말례, 유근숙, 김성진, 조명숙 등 주요당직자들이 지지선언을 했다.

주 시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지지선언에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질타의 대상을 넘어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며 19대 국회를 비판하며 "이제는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송파는 88올림픽이 열렸던 잠실운동장과 올림픽공원, 롯데 월드타워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이제까지 강남이나 종로가 서울의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서울에서는 송파가 그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뜨거운 열정과 능력이 넘치고 미래가 있는 젊은 정치인, 안형환 예비후보의 활약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지지성명서를 요약했다.

이정운 고문, 정태산 고문, 최일경 부위원장, 주찬식 시의원, 조칠성 자문단 부위원장, 신정섭 자문위원, 최장덕 협의회장, 김정숙 여성회장, 박말례, 유근숙, 김성진, 조명숙 등 주요당직자는 안형환 송파갑 예비후보의 4·13 20대 총선 출마선언을 환영하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송파구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지고 일궈낼 안형환 예비후보의 꿈과 열정에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이제는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 소모적인 과거지향적 정쟁은 타파하고 건설적인 미래지향적 정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정치인, 안형환 예비후보가 그 해답이다. 진정으로 우리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 바로 안형환 예비후보이다.

그리고 동시에, 송파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형환 예비후보가 필요하다.

우리 송파는 88올림픽이 열렸던 잠실운동장과 올림픽공원, 롯데 월드타워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우리 송파가 앞으로 빛나는 한류문화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문화와 상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과 능력이 넘치고 미래가 있는 젊은 정치인, 안형환 예비후보의 활약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 큰 송파, 더 따뜻한 송파, 더 행복한 송파 구민, 더 큰 대한민국, 더 따뜻한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책임을 다하며 헌신할 '젊은 일꾼' 안형환 예비후보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다.



미래가 있는 젊은 정치인

안형환 예비후보 지지

안형환 예비후보 지지선언

주찬식 시의원 및 당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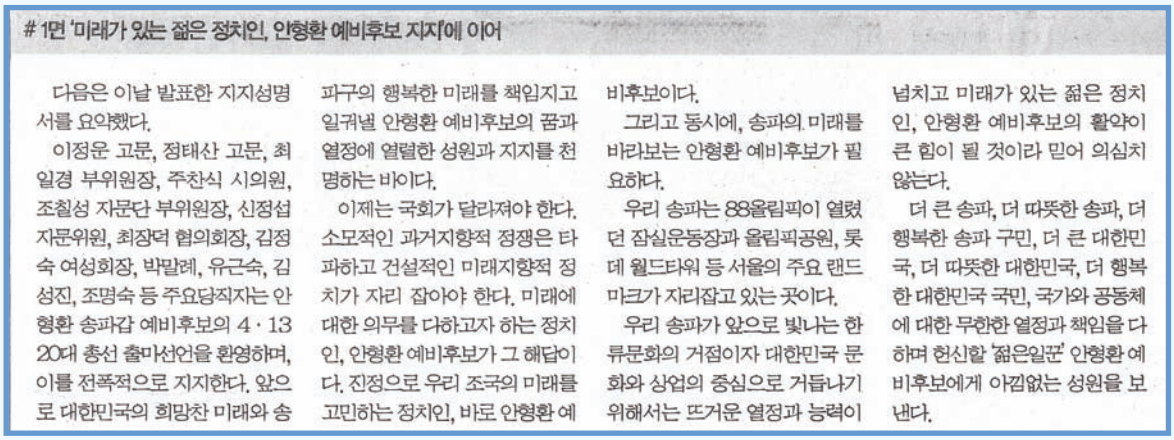
주찬식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송파1)과 송파갑 주요 당직자들이 23일 안형환 송파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무한한 열정과 책임을 다하며 헌신할 '젊은일꾼' 안 예비후보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다"며 지지선언을 했다.

이 날 새누리당 송파갑 안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주 시의원, 이정운 고문, 정태산 고문, 최일경 부위원장, 조칠성 자문단 부위원장, 신정섭 자문위원, 최장덕 협의회장, 김정숙 여성회장, 박말례, 유근숙, 김성진, 조명숙 등 주요당직자들이 지지선언을 했다.

주 시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지지선언에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질타의 대상을 넘어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며 19대 국회를 비판하며 "이제는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송파는 88올림픽이 열렸던 잠실운동장과 올림픽공원, 롯데 월드타워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이제까지 강남이나 종로가 서울의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서울에서는 송파가 그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뜨거운 열정과 능력이 넘치고 미래가 있는 젊은 정치인, 안형환 예비후보의 활약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지지선언문은 2면에 계속>

<서울동부신문> 2016년 1월 27일자 1면



1면 '미래가 있는 젊은 정치인, 안형환 예비후보 지지'에 이어

다음은 이날 발표한 지지성명서를 요약했다.

이정운 고문, 정태산 고문, 최일경 부위원장, 주찬식 시의원, 조칠성 자문단 부위원장, 신정섭 자문위원, 최장덕 협의회장, 김정숙 여성회장, 박말례, 유근숙, 김성진, 조명숙 등 주요당직자는 안형환 송파갑 예비후보의 4·13 20대 총선 출마선언을 환영하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송파구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지고 일궈낼 안형환 예비후보의 꿈과 열정에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이제는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 소모적인 과거지향적 정쟁은 타파하고 건설적인 미래지향적 정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정치인, 안형환 예비후보가 그 해답이다. 진정으로 우리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 바로 안형환 예비후보이다.

그리고 동시에, 송파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형환 예비후보가 필요하다.

우리 송파는 88올림픽이 열렸던 잠실운동장과 올림픽공원, 롯데 월드타워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우리 송파가 앞으로 빛나는 한류문화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문화와 상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과 능력이 넘치고 미래가 있는 젊은 정치인, 안형환 예비후보의 활약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 큰 송파, 더 따뜻한 송파, 더 행복한 송파 구민, 더 큰 대한민국, 더 따뜻한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책임을 다하며 헌신할 '젊은일꾼' 안형환 예비후보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다.

<서울동부신문> 2016년 1월 27일자 1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38
언 론 사	**주식회사 전라일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대표이사 유춘택
심의대상기사	전라일보 2016년 2월 4일자 3면 「"설 명절 전 쌀 변동직불금 지불 바람직"」, 2016년 2월 15일자 3면 「박민수 의원, 19대 국회 입법활동 왕성」, 2016년 2월 18일자 3면 「박민수 의원, 19대 국회 의정활동 '17위'」, 2016년 2월 23일자 3면 「"농업경영비 절감사업 예산 대폭 투입해야"」, 2016년 2월 25일자 3면 「박민수 의원, "쌀값 안정 환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예비후보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연속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는 낮은 빈도로 보도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설명절 전 쌀 변동직불금 지급 바람직

박민수 의원 "쌀 수입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의원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 명절 전에 쌀 변동직불금을 우선 지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쌀값 하락이 계속됨에도 쌀 수입 등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수확기 평균 쌀값은 2014년산 16만6,198원(80kg)에서 2015년산 15만659원으로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조수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8만4,730원에서 18만2,399원으로 하락했다는 것.

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작년 말 수확기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변동직불금이 지급되기 전에 적극적인 수매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2014년산과 비교해 변동직불금 규모가 3배 이상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은 80kg당 15,867원(ha당 999,621원)을 지원하고 있다. 총 68만5,000명의 72만6천ha에 약 7,257억원가량 지급하고 있는 것.

또 수확기에 적극적으로 수매해 비축했다면 정부에

서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농가는 쌀값 안정으로 수입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2년 19대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고정직불금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변동직불금 기준가격 역시 17만83원(80kg 기준)에서 18만8,000원으로 올렸지만 정부의 쌀수입 및 수매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쌀 수입 중단 및 수확기 적극적인 수매 및 비축, 수매 단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 명절 전 쌀 변동직불금 지급 바람직"

박민수 의원 "쌀 수입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의원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 명절 전에 쌀 변동직불금을 우선 지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쌀값 하락이 계속됨에도 쌀 수입 등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수확기 평균 쌀값은 2014년산 16만6198원(80kg)에서 2015년산 15만659원으로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조수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8만4730원에서 18만2399원으로 하락했다는 것.

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작년 말 수확기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변동직불금이 지급되기 전에 적극적인 수매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2014년산과 비교해 변동직불금 규모가 3배 이상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은 80kg당 15,867원(ha당 999,621원)을 지원하고 있다. 총 68만 5,000명의 72만 6000ha에 약 7,257억원 가량 지급하고 있는 것.

또 수확기에 적극적으로 수매해 비축했다면 정부에서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농가는 쌀값 안정으로 수입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2년 19대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고정직불금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변동직불금 기준가격 역시 17만83원(80kg 기준)에서 18만8000원으로 올렸지만 정부의 쌀 수입 및 수매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쌀 수입 중단 및 수확기 적극적인 수매 및 비축, 수매 단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형민기자 · bvlgari@

<전라일보> 2016년 2월 4일자 3면

박민수 의원, 19대 국회 입법활동 왕성

법안 대표발의 순위 현역의원 293명 중 20위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진, 무, 장, 임실)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12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현역의원 293명 중 대표발의 순위 20위에 오르는 우수한 성적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12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19대 국회의원 293명에 대한 법안 대표발의 건수를 조사해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의원 293명이 대표발의한 전체 법안 건수는 총 7,266건으로 1인당 평균 건수는 25건 꼴이다. 해당 자료의 건수로 볼 때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124건은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대표발의 순위에서 현역의원 293명 중 20위를 차지해 상위 7%에 들었다.

법안의 발의 건수로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박 의원은 법안 통과에서도 높은 성과를 나타내 초선의원임에도 명실상부 왕성한 입법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8일 아시아뉴스통신이 발표한 입정성적 분석에서도 10건의 제정법을 발의해 제정법 발의 건수에서 현역 국회의원 중 세 번째를 차지했으며, 이 중 3건을 통과시켜 제정법 통과 순위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실제, 한국입법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까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정안은 총 958건이었으며, 제정안을 1건 이상 대표발의 한 현역 국회의원은 269명으로 박 의원은 이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특히 박 의원이 통과시킨 제정법들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컬푸드법)'을 비롯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차산업법)', '우리 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모두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발전에 관계된 것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박민수 의원, 19대 국회 입법활동 왕성

법안 대표발의 순위 현역의원 293명 중 20위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진·무·장,임실)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12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현역의원 293명 중 대표발의 순위 20위에 오르는 우수한 성적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12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19대 국회의원 293명에 대한 법안 대표발의 건수를 조사해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의원 293명이 대표발의 한 전체 법안 건수는 총 7,266건으로 1인당 평균 건수는 25건 꼴이다. 해당 자료의 건수로 볼 때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124건은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대표발의 순위에서 현역의원 293명 중 20위를 차지해 상위 7%에 들었다.

법안의 발의 건수로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박 의원은 법안 통과에서도 높은 성과를 나타내 초선의원임에도 명실상부 왕성한 입법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8



일 아시아뉴스통신이 발표한 입정성적 분석에서도 10건의 제정법을 발의해 제정법 발의 건수에서 현역 국회의원 중 세 번째를 차지했으며, 이 중 3건을 통과시켜 제정법 통과 순위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실제, 한국입법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까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정안은 총 958건이었으며, 제정안을 1건 이상 대표발의 한 현역 국회의원은 269명으로 박 의원은 이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특히 박 의원이 통과시킨 제정법들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컬푸드법)'을 비롯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차산업법)', '우리 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모두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발전에 관계된 것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전라일보> 2016년 2월 15일자 3면

박민수 의원, 19대 국회 의정활동 '17위'

법률소비자연맹, 4년 활동 평가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진.무.장, 임실)의원이 19대 국회 의정활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법률소비자연맹와 박 의원실에 따르면, 19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박 의원이 17위를 기록했으며, 전북 지역의원 11명 중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

법률소비자연맹은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대상은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3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처치된 법안률,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률, 법안표결참여 등을 기준으로 했다.

그동안 박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으며, 한 번도 빠짐없이 헌정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을 기록했으며 한국 소비자협회에서 수여하는 '201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 입법부분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돼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본분을 잊지 않고 지역현안 해결과 입법 및 예산심의 등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이 있는 것 같아 감사하며 송구스럽다"면서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을 해주신 지역 여러분께 이 영광과 감사함을 돌리고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의원, 19대 국회 의정활동 '17위'

법률소비자연맹, 4년 활동 평가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진.무.장, 임실) 의원이 19대 국회 의정활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법률소비자연맹와 박 의원실에 따르면, 19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박 의원이 17위를 기록했으며, 전북 지역의원 11명 중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

법률소비자연맹은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대상은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3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처치된 법안률,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률, 법안표결참여 등을 기준으로 했다.

그동안 박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으며, 한 번도 빠짐없이 헌



정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을 기록했으며 한국 소비자협회에서 수여하는 '201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 입법부분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돼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본분을 잊지 않고 지역현안 해결과 입법 및 예산심의 등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이 있는 것 같아 감사하며 송구스럽다"면서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을 해주신 지역 여러분께 이 영광과 감사함을 돌리고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 · bvlgari@

<전라일보> 2016년 2월 18일자 3면

농업경영비 절감사업 예산 대폭 투입해야

박수민 의원, 정부 대책 촉구

국회 농식품위 간사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진무장, 임실) 의원이 농업경영비 절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2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비 절감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면서 "농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료·농약 등 농자재 비용과 사료비, 난방비 등은 농업경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농가당 평균 경영비는 지난 2011년 1,770만원에서 2014년 2,187만원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인 것. 특히 겨울철 시설원예 농가의 평균 난방비 비중은 30~50%에 달해 농가들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농식품부에 농업경영비 절감 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최근에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것이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2015년 국정과제 추진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정책금리 인하,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들녘공동체 육성과 함께 에너지 절감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지원 대상 및 요건을 개선해 2014년 7,926ha였던 지원면적을 2015년에는 9,187ha로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농식품부에 농업경영비 절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난방비나 사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추궁해왔다"며 "농업경영비 절감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예산 투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경영비 절감사업 예산 대폭 투입해야"

박민수의원,정부대책 촉구

국회 농식품위 간사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진무장·임실) 의원이 농업경영비 절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2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비 절감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면서 "농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료·농약 등 농자재 비용과 사료비, 난방비 등은 농업경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농가당 평균 경영비는 지난 2011년 1770만원에서 2014년 2187만원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인 것. 특히 겨울철 시설원예 농가의 평균 난방비 비중은 30~50%에 달해 농가들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농식품부에 농업경영비 절감 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최근에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것이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2015년 국정과제 추진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정책금리 인하,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들녘공동체 육성과 함께 에너지 절감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지원 대상 및 요건을 개선해 2014년 7926ha였던 지원면적을 2015년에는 9187ha로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농식품부에 농업경영비 절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난방비나 사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추궁해왔다"며 "농업경영비 절감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예산 투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 · bvlgari@

<전라일보> 2016년 2월 23일자 3면

박수민 의원 “쌀값 안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진무장, 임실) 의원은 24일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으로 쌀 15만 7,000톤을 추가 격리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매한 쌀은 철저하게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늦게라도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며 부족하지만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풍년과 소비감소로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실제, 2월 15일자 쌀값은 145,524원/8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낮은 수준이며, 전회(2.5)보다 0.2%(340원) 하락하는 등 계속 하락하고 있다. 또한 작년 쌀 생산량이 432만7000톤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으나, 쌀 소비량은 2.5%p씩 준데다 기존 재고량(135만톤)까지 쌓여 쌀값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박민수 의원 “쌀값 안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진무장·임실) 의원은 24일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으로 쌀 15만 7,000톤을 추가 격리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 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매한 쌀은 철하게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늦게라도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며 부족하지만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풍년과 소비감소로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실제, 2.15일자 쌀값은 145,524원/8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낮은 수준이며, 전회(2.5)보다 0.2%(340원) 하락하는 등 계속 하락하고 있다. 또한 작년 쌀 생산량이 432만7000톤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으나, 쌀 소비량은 2.5%p씩 준데다 기존 재고량(135만톤)까지 쌓여 쌀값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전라일보> 2016년 2월 25일자 3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40
언 론 사	**주식회사 울진신문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3길 17 대표이사 전병식
심의대상기사	울진신문 2016년 2월 21일자 1면 「전광삼, 강석호 맞대결 전 후보 우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 판세를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면서 두 후보간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이며 4자 대결에서는 지지율이 역전됨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전광삼, 강석호 맞대결 전 후보 우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기사의 내용에서 “전 후보가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역전됐다.”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광삼, 강석호 맞대결 전 후보 우세

양자대결 ▶ 전광삼 47.3%, 강석호 43.2%
4자대결 ▶ 강석호 42.5%, 전광삼 37.3%

전광삼, 강석호 양자대결에서 전후보가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20일 서울 여의도동 에스티아이리서치에 의뢰해 울진영덕봉화영양 선거구민 1천명을 상대로 주민여론조사를 한 결과, 양자대결에서 전광삼 후보가 47.3%, 강석호 후보가 43.2%의 지지를 받아 전 후보가 4.1%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대결에서는 영덕을 제외하고 울진, 봉화, 영양 3개군 모두에서 전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는 영덕에서만 10.7%를 이기고, 울진에서 12.5%, 봉화에서 10%, 영양에서도 2.3%를 전 후보에게서 밀리고 있다.

현재 예비후보 4명 중 3명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1명만이 무소속인데, 새누리당 공천 100% 국민여론 경선으로 가면 양재대결시 현재 지지율에서 전광삼 후보는 정치 신인 10% 가산율 4.73%를 더해 지지율 52%를 넘어서 강 후보와는 약 8.8%p의 차이를 내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강석호, 전광삼 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가 이번 조사에서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각각 지지율 6% 이하로서, 1차 새누리당 공천 경합에서 지지자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상위 2명에 대해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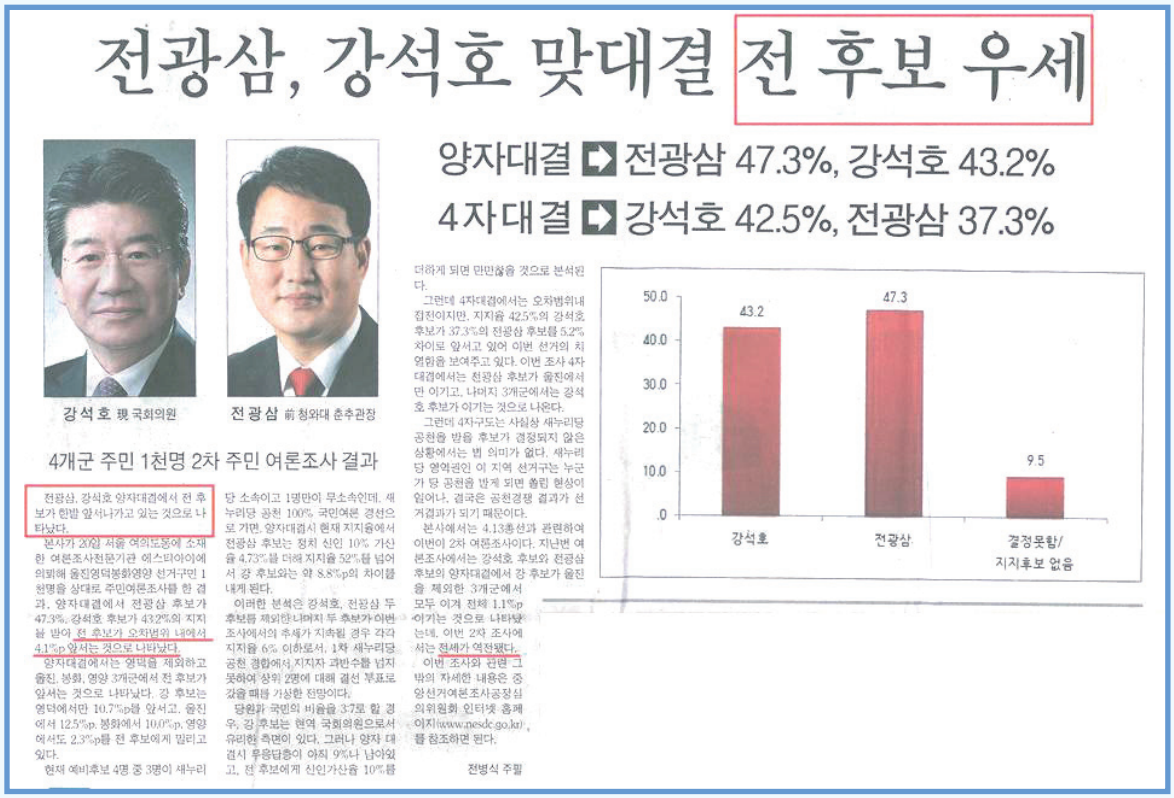
선 투표로 갔을 때를 가상한 전망이다.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3:7로 할 경우, 강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양자대결시 무응답층이 아직 9%나 남아 있고, 전 후보에게 신인가산율 10%를 더하게 되면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4자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지만 지지율 42.5%의 강석회 후보가 37.3%의 전광삼 후보를 5.2% 차이로 앞서고 있어 이번 선거의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 4자대결에서는 전광삼 후보가 울진에서만 이기고, 나머지 3개 군에서는 강석호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4자 구도는 사실상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새누리당 영역권인 이 지역 선거구는 누군가 당 공천을 받게 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 결국 공천경쟁 결과가 선거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본사에서는 이번 4.13총선과 관련하여 이번이 2차 여론조사 결과이다.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는 강석호 후보와 전광삼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강 후보가 울진을 제외한 3개군에서 모두 이겨 전체 1.1%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전세가 역전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전광삼, 강석호 맞대결 전 후보 우세

양자대결 ➡ 전광삼 47.3%, 강석호 43.2%

4자대결 ➡ 강석호 42.5%, 전광삼 37.3%

강석호 現 국회의원

전광삼 前 청와대 춘추관장

4개군 주민 1천명 2차 주민 여론조사 결과

전광삼, 강석호 양자대결에서 전 후보가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20일 서울 여의도동에 소재한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울진영덕봉화영양 선거구민 1천명을 상대로 주민여론조사를 한 결과, 양자대결에서 전광삼 후보가 47.3%, 강석호 후보가 43.2%의 지지율 반아 전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4.1%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대결에서는 영덕을 제외하고 울진, 봉화, 영양 3개군에서 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는 영덕에서만 10.7%p를 앞서고, 울진에서 12.5%p, 봉화에서 10.0%p, 영양에서도 2.3%p를 전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현재 예비후보 4명 중 3명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1명만이 무소속인데, 새누리당 공천 100% 국민여론 경선으로 가면, 양자대결시 현재 지지율에서 전광삼 후보는 정치 신인 10% 가산율 4.73%를 더해 지지율 52%를 넘어서 강 후보와는 약 8.8%p의 차이를 내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강석호, 전광삼 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가 이번 조사에서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각각 지지율 6% 이하로서, 1차 새누리당 공천 경합에서 지지자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상위 2명에 대해 결선 투표로 갈을 때를 가상한 전망이다.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3:7로 할 경우, 강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양자 대결시 무응답층이 아직 9%나 남아있고, 전 후보에게 신인가산율 10%를 더하게 되면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4자대결에서는 오차범위내 접전이지만, 지지율 42.5%의 강석호 후보가 37.3%의 전광삼 후보를 5.2% 차이로 앞서고 있어 이번 선거의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 4자대결에서는 전광삼 후보가 울진에서만 이기고, 나머지 3개군에서는 강석호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4자구도는 사실상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새누리당 영역권인 이 지역 선거구는 누군가 당 공천을 받게 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 결국은 공천경쟁 결과가 선거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본사에서는 4.13총선과 관련하여 이번이 2차 여론조사이다.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는 강석호 후보와 전광삼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강 후보가 울진을 제외한 3개군에서 모두 이겨 전체 1.1%p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전세가 역전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전병식 주필

<울진신문> 2016년 2월 21일자 1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41
언 론 사	**주식회사 뉴아시아일보(아시아일보)**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505호 대표이사 권회민
심의대상기사	아시아일보 2016년 2월 17일자 4면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의정부에 4개역은 추진되었어야 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박인균 예비후보자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의정부에 4개역은 추진되었어야 한다

우선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로 전철 7호선 양주 유치가 가시화된 데 대해 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하지만 이번 일을 예견하고 본인이 이미 지난해 11월 26일 언론을 통해 밝혔다시피 이번에 예타 통과된 사업은 명백히 양주노선이며 의정부시민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선이다.

이러한 점은 첨부 노선도를 보면 삼척동자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으로, 양주로 가는 전철이 어쩔 수 없이 의정부를 지나니 시혜 베풀 듯 역 하나 챙겨 준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본인이 오랫동안 기회 날 때마다 밝혀 왔다시피, 적어도 수도서울의 한수이북 핵심 위성도시이자 도시화가 성숙된 인구 44만의 중견도시인 의정부의 전철은 한수이남 여러 도시에서 그러하듯 철도가 아니라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2001년에 인터넷청원서명운동으로 시작되어 8년 전에는 '10만시민 서명운동'을 벌였을 만큼 의정부 지역 연장을 위해 의정부 지역에서 시발된 본 사업은 당연히 의정부 시민의 바람과 의정부 지역의 필요성을 우선시하여 적어도 4개역(장암주공4거리, 탑석, 민락2지구, 성모병원 등)은 추진되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정부을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일이 이렇게 되도록 그동안 뭘 했는지, 본인이 꾸준히 귀띔해 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

사 면제조항을 적용해 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 보았는지 정말 궁금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특례조항으로 선정된 사업은 착수도 공사도 훨씬 빨라, 본인이 지난 11월 보도자료 말미에 언급한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의 경우 당시에 바로 착공하여 벌써 완공하였고 내일 준공, 통수식을 하기로 했다가 북한의 핵도발로 22일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본인은 이번 20대 국회에 꼭 입성하여, 의정부와 양주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반드시, 더 신속하게 실현하고자 한다. 끝으로 앞으로 차차 노선을 바꾸고 역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노선과 의정부 노선은 사실상 완전히 별개로, 전례도 없고 현실을 도외시한 순진한 생각이며, 전철노선은 시외버스노선도 마을버스노선도 아니라는 점을 말해 주고 싶다. 자숙을 해야 할 사안을 놓고 나날이 부담이 될 자화자찬 현수막을 당의 이름으로 지역 곳곳에 게첩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핵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독자투고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의정부에 4개역은 추진되었어야 한다



박인균
새누리당 의정부을 예비후보

우선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로 전철 7호선 양주 유치가 가시화된 데 대해 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하지만 이번 일을 예견하고 본인이 이미 지난해 11월 26일 언론을 통해 밝혔다시피 이번에 예타 통과된 사업은 명백히 양주노선이며 의정부시민으로서는 정말 받아드리기 어려운 노선이다.

이러한 점은 첨부 노선도를 보면 삼척동자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으로, 양주로 가는 전철이 어쩔 수 없이 의정부를 지나니 시혜 베풀 듯 역 하나 챙겨 준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본인이 오랫동안 기회 날 때마다 밝혀 왔다시피, 적어도 수도서울의 한수이북 핵심 위성도시이자 도시화가 성숙된 인구 44만의 중견도시인 의정부의 전철은 한수이남 여러 도시에서 그러하듯 철도가 아니라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2001년에 인터넷청원서명운동으로 시작되어 8년 전에는 '10만시민 서명운동'을 벌였을 만큼 의정부 지역 연장을 위해 의정부 지역에서 시발된 본 사업은 당연히 의정부 시민의 바람과 의정부 지역의 필요성을 우선시하여 적어도 4개역(장암주공4거리, 탑석, 민락2지구, 성모병원 등)은 추진되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정부을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일이 이렇게 되도록 그동안 뭘 했는지, 본인이 꾸준히 귀띔해 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적용해 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 보았는지 정말 궁금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특례조항으로 선정된 사업은 착수도 공사도 훨씬 빨라, 본인이 지난 11월 보도자료 말미에 언급한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의 경우 당시에 바로 착공하여 벌써 완공하였고 내일 준공, 통수식을 하기로 했다가 북한의 핵도발로 22일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본인은 이번 20대 국회에 꼭 입성하여, 의정부와 양주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반드시, 더 신속하게 실현하고자 한다. 끝으로 앞으로 차차 노선을 바꾸고 역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노선과 의정부 노선은 사실상 완전히 별개로, 전례도 없고 현실을 도외시한 순진한 생각이며, 전철노선은 시외버스노선도 마을버스노선도 아니라는 점을 말해 주고 싶다. 자숙을 해야 할 사안을 놓고 나날이 부담이 될 자화자찬 현수막을 당의 이름으로 지역 곳곳에 게첩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핵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시아일보> 2016년 2월 17일자 4면

의결번호	2016국선-자심42
언론사	**주식회사 강남포스트**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0 경남2차상가 2층 3호 대표이사 조경혜
심의대상기사	강남포스트 2016년 2월 17일자 2면 「성명서」 제하의 성명서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윤조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성명서

국회의원 심윤조(서울 강남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DMZ 지뢰도발 등 무수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성공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올해 들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2월 7일에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고도화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극도로 위협받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국가의 가장 큰 존재이유이자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그간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비

롯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재제를 요구하면서 계속 개성공단을 유지하며 북한에 자금이 유입토록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간 긴장관계가 극도로 고조되고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의 시행시기를 개성공단에 체재 인원이 가장 적은 때인 설 연휴 마지막 날을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재재를 이끌어내며,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인 것입니다.

물론 금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된 입주 기업들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 남북협력기금 보험금 즉시 지급,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전적으로 북한에게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폭언을 가하고, 우리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추방하는 무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야기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하에서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정부의 조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작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시 우리 국민은 하나 되어 정부를 믿고 따라주었고 젊은 청년들은 전역을 연기하면서 애국심으로 뭉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골몰하는 정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헌정사상 최초로 휴일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채택한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즉각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민적 힘과 자혜를 모아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북한인권법도 야당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 하에서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원안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즉각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성명서

국회의원 심윤조 (서울 강남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DMZ 지뢰도발 등 무수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성공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올해 들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2월 7일에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고도화 된다면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극도로 위협받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국가의 가장 큰 존재이유이자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그간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비롯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재제를 요구하면서 계속 개성공단을 유지하며 북한에 자금이 유입토록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간 긴장관계가 극도로 고조되고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정면중단의 시행시기를 개성공단에 체재 인원이 가장 적은 때인 설 연휴 마지막 날을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재재를 이끌어 내며,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인 것입니다.

물론 금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게된 입주 기업들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 남북협력기금 보험금 즉시 지급,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전적으로 북한에게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폭언을 가하고, 우리기업들을 일방적으로 추방하는 무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또다른 도발을 야기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하에서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정부의 조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작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시 우리 국민은 하나되어 정부를 믿고 따라주었고 젊은 청년들은 전역을 연기하면서 애국심으로 뭉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에 골몰하는 정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헌정사상 최초로 휴일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채택한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즉각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민적 힘과 자혜를 모아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진정성를 갖고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북한인권법도 야당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 하에서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증진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임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원안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즉각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6. 2. 12.

<강남포스트> 2016년 2월 17일자 2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45
언 론 사	**영암신문 주식회사**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50-2 대표이사 문배근
심의대상기사	영암신문 2016년 2월 26일자 1면 「"태어난 곳 영암출마 권유받아"」, 3면 「"대한민국 개조하고 호남정신 재창조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2016년 3월 4일자 7면 「박준영 전 지사, 구국기도회 특별강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박준영 예비후보자에만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 및 동정기사를 부각 보도함으로써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태어난 곳 영암출마 권유받아"

박준영 전 지사, 영암포함 선거구 출마선언

민주당 공동대표인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22일 "4·13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박 전 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권유받고 있는 곳은 태어난 영암이 포함되는 선거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박 전 지사의 지역구 출마는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면서 "스스로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둔 것이다.

박 전 지사는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호남정신을 재창조하겠다"며 "도지사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낙후된 호남, 그 운명을 바꾸는데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지사는 "신당은 전국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역사 앞에 의로운 소명을 다해온 호남정신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신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국민과 지역민들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고 신당에 대한 기대는 반 토막이 났고 동력은 시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지사는 "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음모와 배신 등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추진세력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신당세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전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신당인 국민의당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러브콜이 온다"며 당적과 관련해선 무소속을 제외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지사는 야권이 통합되지 않는 한 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역구는 현재 영암·장흥·강진 지역구의 분구가 확실시되면서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영암·신안·무안으로 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윤석(무안·신안) 의원과 대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지사는 "앞으로 야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 노력이 실패한다면 선거 후라도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을 정비해야 한다"며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꾼, 정치꾼이 아니라 일꾼,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 소임을 다하면 원래의 일자리로 돌아가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는 박지원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고 호남정치 적임자에게 역할을 준다는 차원에서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태어난 곳 영암출마 권유받아"

박준영 전 지사, 영암포함 선거구 출마선언

민주당 공동대표인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22일 "4·13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박 전 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권유받고 있는 곳은 태어난 영암이 포함되는 선거구"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박 전 지사의 지역구 출마는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면서 "스스로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둔 것이다.

박 전 지사는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호남정신을 재창조하겠다"며 "도지사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낙후된 호남, 그 운명을 바꾸는데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지사는 "신당은 전국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역사 앞에 의로운 소명을 다해온 호남정신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신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국민과 지역민들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고 신당에 대한 기대는 반 토막이 났고 동력은 시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지사는 "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음모와 배신 등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추진세력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신당 세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전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신당인 국민의당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22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4.13총선에서 영암지역에 포함된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러브콜이 온다"며 당적과 관련해선 무소속을 제외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지사는 야권이 통합되지 않는 한 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역구는 현재 영암·장흥·강진 지역구의 분구가 확실시되면서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영암·신안·무안으로 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윤석(무안·신안) 의원과 대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지사는 "앞으로 야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 노력이 실패한다면 선거 후라도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을 정비해야 한다"며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꾼, 정치꾼이 아니라 일꾼,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 소임을 다하면 원래의 일자리로 돌아가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는 박지원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고 호남정치 적임자에게 역할을 준다는 차원에서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영암신문> 2016년 2월 26일자 1면

“대한민국 개조하고 호남정신 재창조하겠습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 총선출마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역과 국가와 민족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저는 수권능력을 잃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창당 작업에 나서며, 스스로는 선거에 나서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을 만드는 데 전력하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당은 중도혁신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역사 앞에 의로운 소명을 다 해온 호남정신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신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신당작업은 국민과 지역민들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전국적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해, 호남이외의 지역에서 당선자가 나오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호남인들의 염원을 담는 하나의 신당이 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 음모와 배신 등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추진세력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신당에 대한 기대는 반 토막이 났고, 동력은 시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민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척당하며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무너지는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호남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고민하다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측되는 야권의 패배를 피하기 위해선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력이 실패한다면 선거 후라도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저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큰 희생을 한 거룩한 땅, 호남의 정신을 바탕으로, 호남이 중심이 되는 야권재편의 길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할 분들이 선택된다면, 이분들과 함께, 민주당과 저는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3위(爲) 정신의 바른 정치로 정권교체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성공적으로 받들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성장과 함께 기쁨이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국민들의 창의가 들꽃처럼 피어 재능이 발휘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신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박준영은 지사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낙후된 호남, 그 운명을 바꾸는 데 충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낙후가 어디서 왔고, 무엇이 문제이며, 그 답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호남은 의로운 땅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물줄기를 바꿔 왔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언젠가 조국이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사람들은 미래한국을 위해서도 잘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길에 박준영이 앞장서겠습

니다. 호남의 운명을 바꾸라는 소명을 받들겠습니다.

저는 뜻 있는 분들과 함께 선배들의 의로운 정신을 이어받아 호남정치를 재창조하고, 낙후된 우리 지역,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대한민국, 분단으로 여전히 신음하는 민족의 운명을 개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22

민주당 공동대표 박 준 영



"대한민국 개조하고 호남정신 재창조 하겠습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 총선출마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역과 국가와 민족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저는 수권능력을 잃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창당 작업에 나서며, 스스로는 선거에 나서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을 만드는데 전력하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당은 중도혁신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역사 앞에 의로운 소명을 다 해온 호남정신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신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신당작업은 국민과 지역민들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전국적 지지를 얻는데 실패해, 호남이외의 지역에서 당선자가 나오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호남인들의 염원을 담는 하나의 신당이 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 음모와 배신 등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추진세력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신당에 대한 기대는 반토막이 났고, 동력은 사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민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척당하며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무너지는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호남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고민하다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측되는 야권의 패배를 피하기 위해선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력이 실패한다면 선거 후라도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저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큰 희생을 한 거룩한 땅, 호남의 정신을 바탕으로, 호남이 중심이 되는 야권재편의 길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할 분들이 선택된다면, 이 분들과 함께, 민주당과 저는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3위(爲) 정신의 바른 정치로 정권교체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성공적으로 받들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성장과 함께 기쁨이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국민들의 창의가 들꽃처럼 피어 재능이 발휘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신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박준영은 지사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낙후된 호남, 그 운명을 바꾸는데 총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지역의 낙후가 어디서 왔고, 무엇이 문제이며, 그 답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호남은 의로운 땅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물줄기를 바꿔 왔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언젠가 조국이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사람들은 미래한국을 위해서도 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길에 박준영이 앞장서겠습니다. 호남의 운명을 바꾸라는 소명을 받들겠습니다.

저는 뜻있는 분들과 함께 선배들의 의로운 정신을 이어받아 호남정치를 재창조하고, 낙후된 우리지역,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대한민국, 분단으로 여전히 신음하는 민족의 운명을 개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2.22

민주당 공동대표 박준영

<영암신문> 2016년 2월 26일자 3면

박준영 전 지사, 구국 기도회 특별강의

"남북한 상호 증오와 저주의 산을 넘어야 한다"

박준영 민주당 공동대표(사진)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지구촌 미래지도자 협의회가 개최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구국 기도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강의를 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미·중 강대국의 간섭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다.

며칠 전 개봉된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귀향' 영화관람 소회를 밝히면서 15살 난 우리 딸 같은 어린 소녀가 일본군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나라의 운명을 그렇게 만든 것은 나라와 국민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당파를 위해 싸운 왕과 대신들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남과 북은 증오와 저주의 산을 넘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는 후손에게 커다란 짐을 넘겨주는 잘못된 결정이며, 힘이 있고 잘 사는 남쪽이 북쪽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전 지사, 구국 기도회 특별강의

"남북한 상호 증오와 저주의 산을 넘어야 한다"

박준영 민주당 공동대표(사진)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지구촌 미래지도자 협의회가 개최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구국 기도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강의를 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가 분단된지 7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미·중 강대국의 간섭으로 우리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다.

며칠 전 개봉된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귀향' 영화관람 소회를 밝히면서 15살 난 우리 딸 같은 어린소녀가 일본군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나라의 운명을 그렇게 만든 것은 나라와 국민 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당파를 위해 싸운 왕과 대신들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 자신이 결정



해야 하는 것이며, 남과 북은 증오와 저주를 산을 넘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는 후손에게 커다란 짐을 넘겨주는 잘못된 결정이며, 힘이 있고 잘사는 남쪽이 북쪽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신문> 2016년 3월 4일자 7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46
언 론 사	**주식회사 일요서울** 서울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6F 일요서울신문사 대표이사 은기원
심의대상기사	일요서울 2016년 3월 7일자 8면 「'진박논란' 전승-전패 이번은 깨지나?」 제하의 기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대구 수성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초접전 양상",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적게는 10%p에서 많게는 20%p까지 앞서는 결과"라고 표현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판세분석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진박논란' 전승-전패 이번은 깨지나?

강원 與 싹쓸이 속 원주·춘천 박빙 구도

벌써 총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이제 선거모드로 급전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0명 공천학살설, 더민주는 10명의 현역 컷오프와 전략공천, 국민의당은 광주 공천을 둘러싸고 각각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민주의 필리버스터는 수많은 진기록을 세우고 끝을 맺었다. 이번 호는 '20대 총선 전망-대구경북, 강원, 제주'를 다룬다. 지난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이 '대구경북과 강원도'를 더민주는 제주도를 싹쓸이 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싹쓸이는 가능할까?

우선 대구경북의 공천신청자를 살펴보면 총 25개의 선거구에 108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 ▲대구는 총 12개 선거구에 49명이 등록한 가운데 야권은 더민주에서 3명이 공천 신청을 했고 ▲경북은 총 13개 선거구에 59명이 등록한 가운데 야권은 더민주가 6명이 공천 신청을 하여 여전히 새누리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구 수성갑에서 더민주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에 맞서 선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은 선거 획정 결과 2석이 줄어 새누리당 현역 간의 경쟁과 함께 신진 인사의 도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강원은 선거구 획정 결과 9석에서 1석이 줄어 8석으로 확정된 가운데 각 정당의 공천 신청자는 총 42명이 됐다. 새누리당은 26명이 더민주는 10명이 신청해 여전히 새누리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동해삼

척이 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더민주는 원주갑이 3:1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인 가운데 춘천을 제외하면 모두 단독신청이 되었다. 국민의당은 춘천과 원주에서 4명의 예비후보가 정의당은 춘천과 원주에서 각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주는 총 3개의 선거구에 21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 제주는 지난 19대 선거 결과 더민주가 싹쓸이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총 15명, 더민주는 총 6명이 공천을 신청해 새누리당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귀포는 더민주 김재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여서 더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

최근 한국갤럽 주간 조사(2월 16-18일)를 살펴보면 ▲대구경북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63%, 더민주 7%, 국민의당 3%, 정의당 2%로 새누리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과 제주는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가 없으나 강원도는 새누리당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제주는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대구는 총 12개 선거구 중 3곳만이 여야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구수성갑은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20대 총선 최고의 관심지역이 되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적게는 10%P에서 많게는 20%P까지 앞서는 결과가 나와 더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또한, 대구는 '진박 논란'이 뜨겁다. 동구을은 유승민 후보가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진박을 자처하는 이재만 후보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구남구에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8명에게 도전을 받으며 최고 경쟁 지역이 되었다. 이와 함께 동구갑, 서구, 북구갑, 달성도 '진박 논란'에 휩싸이며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북은 총 15개의 선거구에서 2개가 줄어 13개가 되었다. 이 중에서 여야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진 곳은 6개 선거구에 불과하다. 구미을은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에 맞서 8명이 도전장을 내밀어 최고의 경쟁 지역이 되었다. 경북은 여전히 새누리당이 초강세인 지역이며 6곳의 야권 후보 모두 이변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북은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경합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강원은 총 9개의 선거구에서 1개가 줄어 8개가 된 가운데 철원양구화천인제홍천은 서울 선거구 면적에 10배나 되어 '공룡 선거구'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과 면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도의 지난 19대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이 싹쓸이 했으나 ▲원주갑은 8%P, ▲ 원주을은 2%P, ▲춘천은 5%P 차이의 박빙 승부를 펼쳐 경합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는 이 세 선거구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총 3개의 선거구인데 더민주가 17, 18, 19대 연속하여 모두를 차지했다. 19대 총선 결과 ▲제주갑은 4%P, ▲서귀포가 6%P로 박빙 승부를 펼쳐 이번에도 초경합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귀포는 현역이 없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5명, 더민주 2명, 무소속 1명이 예비후보를 등록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북은 선거구 획정으로 2석이 줄었기 때문에 현역 간의 치열한 경쟁은 물론이고 강력한 도전자들이 등장하고 있어 19대 총선과 비교하여 또 다른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대구 선거는 크게 세 가지가 주목 받고 있다. 하나는 대구 수성갑에서 더민주의 김부겸 후보가 지역구도를 뚫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가 최

대의 관심사다. 만약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후보가 승리한다면 20대 총선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대구 동구을에서 유승민 후보가 '진박 논란'을 뚫고 이재만 후보와의 공천 경쟁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유승민 후보가 이재만 후보에게 새누리당 후보를 빼앗기고 승복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계속 경쟁할지도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는 '진박논란'의 향방이다. 아직은 진박을 자처하는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진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바람은 거세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20대 총선에서도 변함없이 한 정당이 한 지역을 싹쓸이하는 독점이 계속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지 오로지 대구경북, 강원, 제주 유권자의 선택이 남아 있다.



[기고] 20대 총선 전망 – 대구/경북 · 강원/제주

'진박논란' 전승 – 전패 이번은 깨지나?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

강원 與 싹쓸이 속 원주 · 춘천 박빙 구도

벌써 총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이제 선거모드로 급전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0명 공천하산념, 더민주는 10명의 현역 험오프와 전략공천, 국민의당은 광주 공천을 둘러싸고 각각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민주의 필리버스터는 수많은 전기톱을 세무고 끝을 맺었다. 이번 호는 '20대 총선 전망-대구경북, 강원, 제주'를 다룬다. 지난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이 '대구경북과 강원도'를 더민주는 제주도를 싹쓸이 했다. 이번20대 총선에서도 싹쓸이는 가능할까?"

우선 대구경북의 공천신청자를 살펴보면 총 25개의 선거구에 108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 ▲대구는 총 12개 선거구에 49명이 등록한 가운데 야권은 더민주에서 3명이 공천 신청을 했고 ▲경북은 총 13개 선거구에 59명이 등록한 가운데 야권은 더민주가 6명이 공천 신청을 하여 여전히 새누리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구 수성갑에서 더민주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에 맞서 신청을 펼치고 있다. 경북은 선거 직장 결과 24석이 걸어 새누리당 현역 간의 경쟁과 함께 신진 인사의 도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원은 선거구 획정 결과 9석에서 14석이 줄어 8석으로 확정된 가운데 각 정당의 공천 신청자는 총 42명이 됐다. 새누리당은 20명이 더민주는 10명이 신청해 여전히 새누리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동해삼척이 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더민주는 원주갑이 3:1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인 가운데 춘천을 제외하면 모두 단독신청이 되었다. 국민의당은 춘천과 원주에서 4명의 예비후보가 접의당은 춘천과 원주에서 각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주는 총 3개의 선거구에 21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 제주는 지난 19대 선거 결과 더민주가 싹쓸이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총 15명, 더민주는 총 6명이 공천을 신청해 새누리당의 도정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귀포는 더민주 김재문 의원이 의원자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

최근 한국셀럽 주간 조사(2월 16-18일)를 살펴보면 ▲대구경북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63%, 더민주 7%, 국민의당 3%, 정의당 2%로 새누리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원과 제주는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가 없으나 김원도는 새누리당이 무세한 것으로 보이며 제주는 단정적으로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대구는 총 12개 선거구 중 3곳만이 여야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구수성갑은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되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적게는 10%p에서 많게는 20%p까지 앞서는 결과가 나와 더 관심이 쏠리는 곳이다.

또한, 대구는 '진박 논란'이 뜨겁다. 동구을은 유승민 후보가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진박을 자처하는 이재만 후보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구남구에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8명에게 도전을 받으며 최고 경쟁 지역이 되었다. 이와 함께 동구갑, 서구, 북구갑, 달성도 '진박 논란'에 휩싸이며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북은 총 15개의 선거구에서 2개가 줄어 13개가 되었다. 이 중에서 여야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진 곳은 6개 선거구에 불과하다. 구미을은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에 맞서 8명이 도전장을 내밀어 최고의 경쟁 지역이 되었다. 경북은 여전히 새누리당이 초강세인 지역이며 6곳에 야권 후보 모두 이번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북은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경합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김원은 총 9개의 선거구에서 1개가 줄어 8개가 된 가운데 철원양구화천인제홍천은 서울 선거구 면적에 10배나 되어 '공룡 선거구'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과 면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원도의 지난 19대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이 싹쓸이 했으나 ▲원주갑은 8%p, ▲원주을은 2%p, ▲춘천은 5%p 차이의 박빙 승부를 펼쳐 경합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는 이 세 선거구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총 3개의 선거구인데 더민주가 17, 18, 19대 연속하여 모두를 차지했다. 19대 총선 결과 ▲제주갑은 4%p, ▲서귀포가 8%p로 박빙 승부를 펼쳐 이번에도 초경합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귀포는 현역이 없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5명, 더민주 2명, 무소속 1명이 예비후보를 등록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북은 선거구 획정으로 2석이 줄었기 때문에 현역 간의 치열한 경쟁은 물론이고 강력한 도전자들이 등장하고 있어 19대 총선과 비교하여 또 다른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대구 선거는 크게 세 가지가 주목 받고 있다. 하나는 대구 수성갑에서 더민주의 김부겸 후보가 지역구도를 뚫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만약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후보가 승리한다면 20대 총선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대구 동구을에서 유승민 후보가 '진박 논란'을 뚫고 이재만 후보와의 공천 경쟁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유승민 후보가 이재만 후보에게 새누리당 후보를 빼앗기고 승복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계속 경쟁할지도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는 '진박논란'의 향방이다. 아직은 진박을 자처하는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진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바람은 거세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20대 총선에서도 변함없이 한 정당이 한 지역을 싹쓸이하는 독점이 계속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지 오로지 대구경북, 강원, 제주 유권자의 선택이 남아 있다. 끝

<일요서울> 2016년 3월 7일자 8면

의결번호	2016국선-자심47
언론사	**주식회사 양천신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5(신정동 청솔빌딩 301호) 대표이사 장민순
심의대상기사	양천신문 2016년 2월 29일자 2면 「"조국 부름 받아 월남전 참전한 용사들 기리는 날 필요"」 제하의 기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용태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조국 부름 받아 월남전 참전한 용사들 기리는 날 필요"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측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를 소관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월남전참전자회 회원들이 저희 지역사무소 앞에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주민들께서 무슨 일인가 사무실로 많은 문의 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파병 기념일〉을 지정해 달라며 법을 통과해달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정부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김정훈 의원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9월 11일을 월남전 파병 용사의 기념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교 24주년을 맞고 있는 베트남과의 외교문제를 들어 날짜가 명기된 기념일 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베트남전쟁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의 부름을 받아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기리는 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다 정부와 야당을 설득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할 수 있다〉입니다. 이 대안을 갖고 정부와 야당과 협상하여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본회의에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적어도 정부가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할 법적 근거가 생겼기에 외교적 마찰을 피하면서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저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월남전참전자회 임원진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소상히 말씀드려왔습니다.

참전자회 회원들의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안 될 일을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참여한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보훈 문제에 대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기고

"조국 부름 받아 월남전 참전한 용사들 기리는 날 필요"



김용태 국회의원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측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를 소관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2일부터 월남전참전자회 회원들이 저희 지역 사무소 앞에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주민들께서 무슨 일인가 사무실로 많은 문의 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파병 기념일>을 지정해달라며 법을 통과해달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정부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김정훈 의원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9월 11일을 월남전 파병 용사의 기념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교 24주년을 맞고 있는 베트남과의 외교 문제를 들어 날짜가 명기된 기념일 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베트남전쟁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의 부름을 받아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기리는 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다 정부와 야당을 설득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할 수 있다>입니다. 이 대안을 갖고 정부와 야당과 협상하여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본회의에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적어도 정부가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할 법적 근거가 생겼기에 외교적 마찰을 피하면서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저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월남전참전자회 임원진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소상히 말씀드려왔습니다.

참전자회 회원들의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안 될 일을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참여한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보훈 문제에 대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신문> 2016년 2월 29일자 2면

의결번호	2016국선-자심51
언론사	**주식회사 선경일보사** 서울 종로구 당주동 3 대표이사 김학승
심의대상기사	선경일보 2016년 4월 4일자 12면 「여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출정식 열어」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병국의 출정식 관련 기사를 사진과 함께 전면 보도하였으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기사는 게재하지 아니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13총선] 현장을 가다

5선에 도전하는 여주·양평지역 선거구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여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출정식 열어

4·13 총선을 13일 앞둔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각 지역 후보들도 저마다 치열한 표심 잡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주 양평 지역에서 4선의 중진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출정식을 열었다.

오전 9시 30분 여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개최된 출정식에는 임창선 전 여주군수를 선대본부장으로 한 김규창, 원욱희 경기도의회의원,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김영자 부의장, 윤희정, 이영옥 의원 등 새누리당 여주지역 선거대책본부로 꾸려진 선거운동원과 지지자 등 300여명이 대거 참석하여 정병국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민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임창선 여주지역 선대본부장의 정병국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말로 시작되어 진행되었으며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의 후보지지 연설에 이어 10시경 정병국 의원의 본격적인 유세연설에 올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큰 박수를 받아내고 성공적인 출정식의 무대로 이끌어 나갔다.

더 큰 정치로 더 큰 여주를 가꾸어 나가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정병국의원은 이 자리에서 4선의 중진의원으로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보

여지며 실망했을 국민들에게 그동안 지지하여 만들어 준 집권여당이 야당의 발목잡기에 경제발전이 지연된다고 탓하기 이전에 집안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인 집권여당의 소통과 이해의 부재로 인한 성숙하지 못했던 자신부터 반성하는 것이 맞다며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겸손하게 내어 놓아 그곳의 참석자들로 하여금 그의 진정성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으며 5선에 당선되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중진으로서 적극적 소통과 교류에 나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여주지역발전에 가장 문제점인 각종 규제 완화에 힘쓰며 특히 지역 내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미래가 밝은 여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시민 감동의 연설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에 이 자리에서 관람하던 하동에 거주한다는 정모씨는 "은행을 가다가 우연히 정병국 의원의 연설을 듣게 되었다며 평소 하도 하는 일들이 기이할 정도로 서로 상대방 탓이나 하고 보수니 진보니 싸움질이나 하는 정치권들이 싫어서 정치에는 관심도 안 두고 살고 있지만 우연히 듣게 된 연설에서 진정성 깃든 자기반성부터 구하는 정치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듣게 되었으며 한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모든 정치인들이 저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4.13총선] 현장을 가다

5선에 도전하는 여주·양평지역 선거구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여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출정식 열어







4·13 총선을 13일 앞둔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서 전국의 각 지역 후보들도 저마다 치열한 표심 잡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주 양평 지역에서 4선의 중진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는 출정식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 여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개최된 출정식에는 임창선 전 여주군수를 선대 본부장으로 한 김규창, 원욱희 경기도의회의원,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김정자 부의장, 윤희정, 이정옥 의원등 새누리당 여주지역 선거대책본부로 꾸려진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등 3000여명이 대거 참석하여 정병국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민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임창선 여주지역 선대본부장의 정병국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인삿말로 시작되어 진행되었으며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의 후보지지 연설에 이어 10시경 정병국의원의 본격적인 유세연설에 올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며 큰 박수를 받아내고 성공적인 출정식의 무대로 이끌어 나갔다.

더 큰 정치로 더 큰 여주를 가꾸어 나가겠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운 정병국의원은 이 자리에서 4선의 중진의원으로 매일 싸움잘만 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보여지며 실망했을 국민들에게 그동안 지지하여 만들어준 집권여당이 야당의 발목잡기에 경제발전이 지연된다고 탓하기 이전에 집안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인 집권여당의 소통과 이해의 부재로 인한 성숙하지 못했던 자신부터 반성하는 것이 맞다며 통렬한 자기반성 부터 겸손하게 내어 놓아 그곳의 참석자들로 하여금 그의 진정성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으며 5선에 당선되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중진으로서 적극적 소통과 교류에 나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여주지역발전에 가장 문제점인 각종 규제 완화에 힘쓰며 특히 지역 내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미래가 밝은 여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시민 감동의 연설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에 이 자리에서 관람하던 하동에 거주한다는 정모씨는 "은행을 가다가 우연히 정병국 의원의 연설을 듣게 되었다며 평소 하도 하는 일들이 기이할 정도로 서로 상대방 탓이나 하고 보수니 진보니 싸움질이나 하는 정치권들이 싫어서 정치에는 관심도 안두고 살고 있지만 우연히 듣게 된 연설에서 진정성 깃든 자기반성부터 구하는 정치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듣게 되었으며 한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모든 정치인들이 저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고 밝히기도 했다

정기성 기자

<선경일보> 2016년 4월 4일자 12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53
언 론 사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 중구 새문안로 22 문화일보사 대표이사 이병규
심의대상기사	문화일보 2016년 3월 30일자 6면 「사상 첫 '약사〉의사' 국회 되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더민주 비례대표 20번 유영진 후보도 20대 국회에서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다",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승리가 유력", "서울 광진갑의 전혜숙 더민주 후보도 정송학 새누리당 후보와 접전" 등으로 표현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판세분석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사상 첫 '약사 〉 의사' 국회 되나

19代 국회, 의사 8명 > 약사 2명
이번엔 의사 3명·약사 6명 유력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사 출신보다 많은 '약대의소(藥大醫小)' 현상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의원은 총 8명이었다. 새누리당 안홍준·박인숙·신의진·문정림·신상진 의원 등 5명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다. 반면 약사 출신은 더민주 김상희 의원과 김미희 옛 통합진보당 의원 등 2명에 불과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약사 출신 가운데 안정권에 든 후보만 6명 정도다. 당선권의 비례대표 후보도 3명이나 된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1번 김승희 후보와 15번 김순례 후보는 당선이 유력하며, 더민주 비례대표 20번 유영진 후보도 20대 국회에서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도 3명의 약사 출신이 당선을 노리고 있다.

이미 경기 부천소사에서 한 차례 당선된 현역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승리가 유력하다. 대구 북을의 양명모 새누리당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홍의락 의원에게 뒤처지고 있지만, 대구가 새누리당의 텃밭인 만큼 막판에 1번으로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경우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광진갑의 전혜숙 더민주 후보도 정송학 새누리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최대 6명의 약사 출신 의

원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20대 총선에 출마한 의사 출신 지역구 후보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의원은 서울 노원병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서울 송파갑 박인숙 새누리당 후보, 경기 성남중원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 등 3명 정도다. 경남 김해갑의 홍태용 새누리당 후보와 광주 광산갑 이용빈 더민주 후보도 해볼 만한 싸움이란 평가다.

비례에는 김철수 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18번을 받아 당선 안정권이다.

총선 돋보기

사상 첫 '약사〉의사' 국회 되나

19代 국회, 의사 8명〉약사 2명 이번엔 의사 3명·약사 6명 유력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사 출신보다 많은 '약대의소(藥大醫小)' 현상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의원은 총 8명이었다. 새누리당 안홍준·박인숙·신의진·문정림·신상진 의원 등 5명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다. 반면 약사 출신은 더민주 김상희 의원과 김미희 옛 통합진보당 의원 등 2명에 불과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약사 출신 가운데 안정권에 든 후보만 6명 정도다. 당선권의 비례대표 후보도 3명이나 된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1번 김승희 후보와 15번 김순례 후보는 당선이 유력하며, 더민주 비례대표 20번 유영진 후보도 20대 국회에서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도 3명의 약사 출신이 당선을 노리고 있다.

이미 경기 부천소사에서 한 차례 당선된 현역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승리가 유력하다. 대구 북을의 양명모 새누리당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홍의락 의원에게 뒤처지고 있지만, 대구가 새누리당의 텃밭인 만큼 막판에 1번으로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경우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광진갑의 전혜숙 더민주 후보도 정송학 새누리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최대 6명의 약사 출신 의원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20대 총선에 출마한 의사 출신 지역구 후보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의원은 서울 노원병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서울 송파갑 박인숙 새누리당 후보, 경기 성남중원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 등 3명 정도다. 경남 김해갑의 홍태용 새누리당 후보와 광주 광산갑 이용빈 더민주 후보도 해볼 만한 싸움이란 평가다.

비례에는 김철수 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18번을 받아 당선 안정권이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

<문화일보> 2016년 3월 30일자 6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54
언 론 사	**주식회사 종로신문사** 서울 종로구 난계로 25길 84 3층 대표이사 윤선호
심의대상기사	종로신문 2016년 3월 30일자 7면 「복지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제하의 기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대한 후보의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의 게재를 금지한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복지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절대 다수인 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을까?

가장 큰 원인은 서민이 서민을 대표하여 정치에 나서려고 하면 개나 소나 다 정치하냐고 비웃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개나 소라고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도 절도 없는 김대한이 종로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니 조직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너와 뜻을 함께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사람이 있느냐, 개나 소나 다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대통령이면 내가 대통령이다고 비웃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일을 잘할 능력이 있지만 감히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보다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그 누구이든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쉰다섯 해 동안 지켜본 김대한은 지혜롭고 용기 있고, 문제 해결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김대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늘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늘 부족함을 알고 배움의 열린 생각

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때까지 질문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자신이 틀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호기심이 왕성한 자로 모든 방면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배우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오지랖을 부립니다.

저는 이런 김대한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쉰이 넘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유치하다 비웃지 마시고 여러분을 대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야 대한민국이 당당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를 포함한 그 어떤 특정인물에게 목매는 비굴한 국민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을 잘 다스려 줄 위대한 정치가를 뽑지 마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변할 참 일꾼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욕하고 비판하십시오. 그런 정도도 받지 못하는 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는 충직한 일꾼이고 허물없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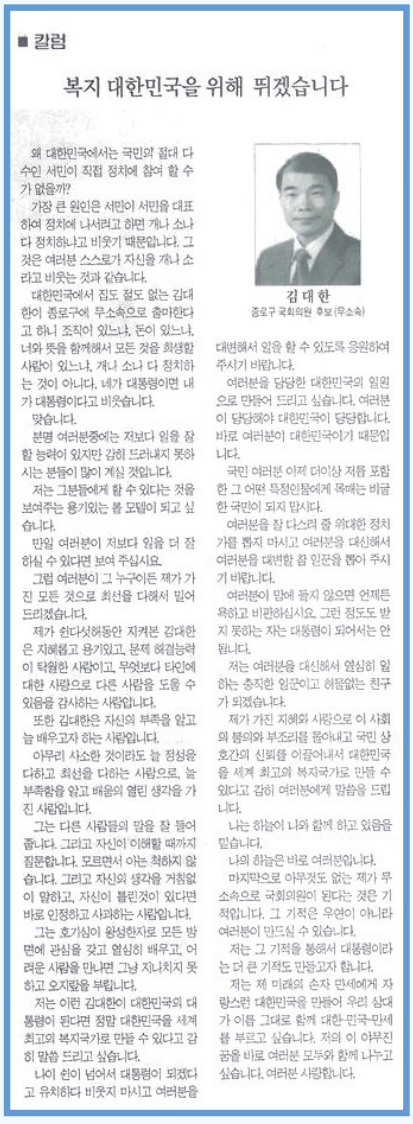
제가 가진 지혜와 사랑으로 이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몰아내고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이끌어내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하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하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제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더 큰 기적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제 미래의 손자 만세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우리 삼대가 이름 그대로 함께 대한-민국-만세를 부르고 싶습니다. 저의 이 야무진 꿈을 바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 칼럼

복지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김 대 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무소속)

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절대 다수인 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 할 수가 없을까?

가장 큰 원인은 서민이 서민을 대표하여 정치에 나서려고 하면 개나 소나 다 정치하냐고 비웃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개나 소라고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도 절도 없는 김대한이 종로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니 조직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너와 뜻을 함께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사람이 있느냐, 개나 소나 다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대통령이면 내가 대통령이다고 비웃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여러분중에는 저보다 일을 잘 할 능력이 있지만 감히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기있는 본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보다 일을 더 잘 하실 수 있다면 보여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그 누구이든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밀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다성해동안 자켜본 김대한은 지혜롭고 용기있고, 분쟈 해결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김대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늘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늘 부족함을 알고 배움의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때까지 질문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자신이 틀린것이 있다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호기심이 왕성한자로 모든 방면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배우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오지랖을 부립니다.

저는 이런 김대한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쉰이 넘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유치하다 비웃지 마시고 여러분을 대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야 대한민국이 당당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를 포함한 그 어떤 특정인물에게 목매는 비굴한 국민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을 잘 다스려 줄 위대한 정치가를 뽑지 마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변할 참 일꾼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욕하고 비판하십시오. 그런 정도도 받지 못하는 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는 충직한 일꾼이고 허물없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지혜와 사랑으로 이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몰아내고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이끌어내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하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하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제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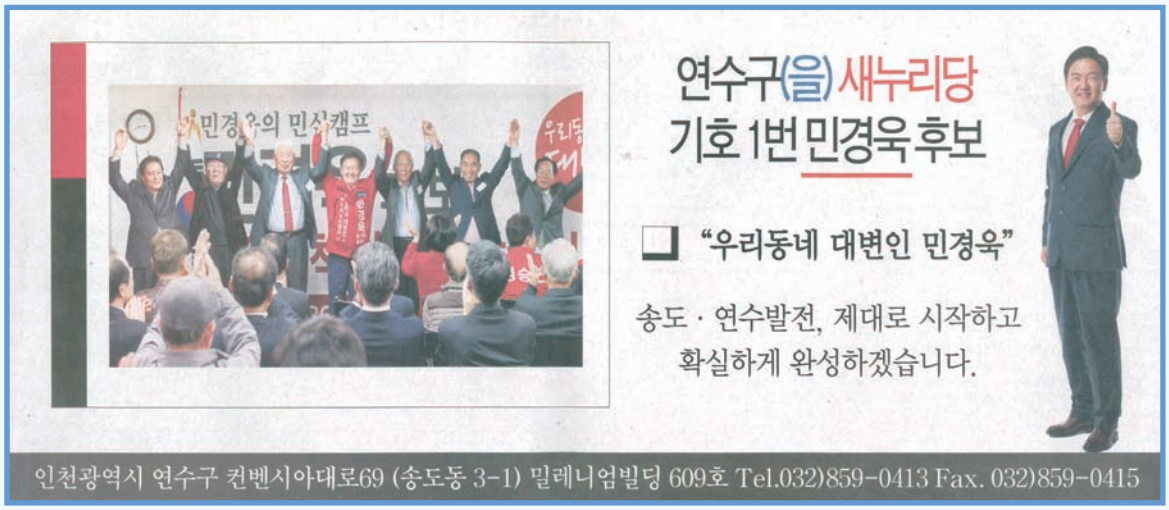
저는 그 기적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더 큰 기적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제 미래의 손자 만세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우리 삼대가 이름 그대로 함께 대한-민국-만세를 부르고 싶습니다. 저의 이 야무진 꿈을 바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종로신문> 2016년 3월 30일자 7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55
언 론 사	**주식회사 연수송도신문** 인천 연수구 용담로 125번길 41, 301(연수동, 메카리움빌딩) 대표이사 곽융창
심의대상기사	연수송도신문 2016년 3월 30일자 8면 「연수구(을) 새누리당 기호1번 민경욱 후보」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연수송도신문> 2016년 3월 30일자 8면

3. 권고

의 결 번 호	2016국선-자심52
언 론 사	**주식회사 남해시대**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61번길 53 대표이사 이정원
심의대상기사	남해시대 2016년 3월 15일자 4면 「'김두관' 국회입성 확실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김포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두관 후보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객관적 근거나 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 제목에서 "'김두관' 국회입성 확실시"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보도내용

'김두관' 국회입성 확실시

김포갑선거구 더민주당 단수공천, 4전5기 도전
1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남해에서도 버스응원

대권 도전을 위해 경남지사직까지 내려놨던 김두관 전 지사는 2년 전 치러졌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국회입성의 발판으로 삼으려했다.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대권가도의 필수코스다. 하지만 유독 국회입성만큼은 그에게 높은 벽이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그에게 국회입성을 허락할까?

김두관에 관한 중앙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는 그에게 국회입성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선거구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갑, 을로 분구됐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그의 국회입성을 가로 막았던 홍철호 의원(새누리당)이 을구를 선택함에 따라 현직의원과 맞대결을 피하게 된 그는 일찌감치 김포갑구의 더불어민주당 단수후보로 공천장을 받았다.

공천이 확정되자 그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600여 일 동안 5만km 이상을 김포발전을 위해 달린 것을 당에서도 인정하고 김포시민들의 지지율을 반영한 공천발표라고 생각한다"면서 "오직 김포발전과 선거 승리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포시갑선거구의 경우 국민의당 후보가 예비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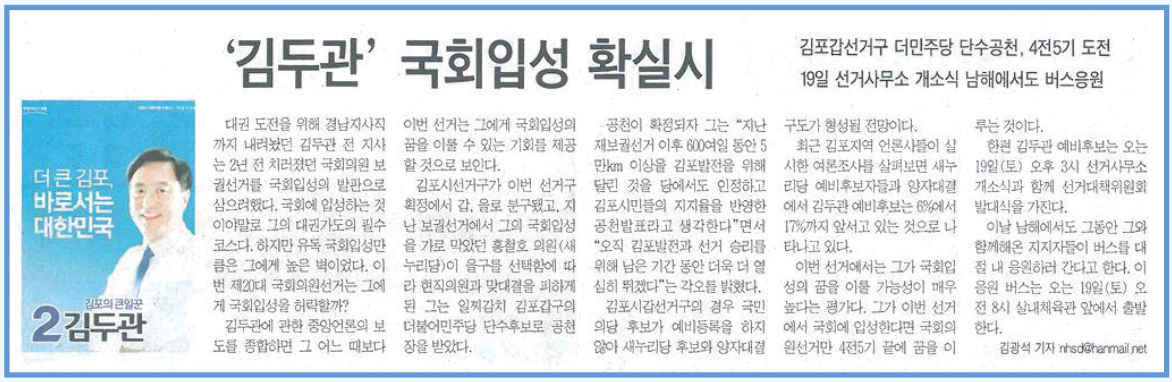
을 하지 않아 새누리당 후보와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최근 김포지역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들과 양자대결에서 김두관 예비후보는 6%에서 17%까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가 국회입성의 꿈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다면 국회의원선거만 4전5기 끝에 꿈을 이루는 것이다.

한편 김두관 예비후보는 오는 19일(토) 오후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진다.

이날 남해에서도 그동안 그와 함께해온 지지자들이 버스를 대절 내 응원하러 간다고 한다. 이 응원 버스는 오는 19일(토) 오전 8시 실내체육관 앞에서 출발한다.



'김두관' 국회입성 확실시

김포갑선거구 더민주당 단수공천, 4전5기 도전
1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남해에서도 버스응원

대권 도전을 위해 경남지사직까지 내려놨던 김두관 전 지사는 2년 전 치러졌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국회입성의 발판으로 삼으려했다.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대권가도의 필수코스다. 하지만 유독 국회입성만큼은 그에게 높은 벽이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그에게 국회입성을 허락할까?

김두관에 관한 중앙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는 그에게 국회입성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선거구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갑, 을로 분구됐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그의 국회입성을 가로 막았던 홍철호 의원(새누리당)이 을구를 선택함에 따라 현직의원과 맞대결을 피하게 된 그는 일찌감치 김포갑구의 더불어민주당 단수후보로 공천장을 받았다.

공천이 확정되자 그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600여일 동안 5만km 이상을 김포발전을 위해 달린 것을 당에서도 인정하고 김포시민들의 지지율을 반영한 공천발표라고 생각한다"면서 "오직 김포발전과 선거 승리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포시갑선거구의 경우 국민의당 후보가 예비등록을 하지 않아 새누리당 후보와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최근 김포지역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들과 양자대결에서 김두관 예비후보는 6%에서 17%까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가 국회입성의 꿈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다면 국회의원선거만 4전5기 끝에 꿈을 이루는 것이다.

한편 김두관 예비후보는 오는 19일(토) 오후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진다.

이날 남해에서도 그동안 그와 함께해온 지지자들이 버스를 대절 내 응원하러 간다고 한다. 이 응원 버스는 오는 19일(토) 오전 8시 실내체육관 앞에서 출발한다.

김광석 기자 nhsd@hanmail.net

<남해시대> 2016년 3월 15일자 4면

제2장
시정요구심의



1. 정정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17**
시 정 요 구 인	**황진하** 경기 파주시 중앙로 256 서원동문빌딩 1층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파주인(주간 파주In)** 경기 파주시 중앙로 273(금촌동, 한성빌딩) 대표이사 김순현
심의대상기사	주간 파주In 2016년 4월 8일자 1면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 파주In> 2면에 〈별지〉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주간 파주In> 2016년 4월 8일자 1면 심의대상기사 부제목(황후보 선대위원장 모 산악회에 돈 봉투 전달 드러나)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에서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라는 제목 아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황진하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과 직능본부장 등이 파주 M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해 산악회원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품을 기부하여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살피건대, 실제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은 해당 후보 본인이 아니라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직능본부장인 점에 다툼이 없는 점, 해당 후보 측의 반론을 전혀 게재하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제목 : 황진하 후보 검찰 고발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지는 2016년 4월 8일자 1면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황진하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황진하 후보는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황진하 후보 측은 “파주을 황진하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인 이들 두 사람이 지난 2일 ‘파주 M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해 산악회원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품을 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직능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모 산악회 시산제에 참가해 돼지머리에 3만원을 꽂은 것에 불과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내용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황후보 선대위원장 모 산악회에 돈 봉투 전달 드러나

4·13총선 막판 흐름을 좌우할 돌출변수가 나타났다. 새누리당 파주을 황진하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장이 모 산악회에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파주지역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황진하 선거캠프 A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B직능본부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주을 황진하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인 이들 두 사람이 지난 2일 '파주 M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해 산악회원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품을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전달할 당시에 황후보측 선거대책위원장은 황진하 후보의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고(사진), 현역 경기도의원도 동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품을 받은 산악회 관계자들은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전달한 황후보측 선거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향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신고를 받은 상태이나 검찰에 고발되어있는 상황이라 검찰의 조사를 지켜볼 것"이라며 금품을 전달받은 산악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물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LG디스플레이 앞과 금릉역 앞에서 운동원들과 동일한 옷과 표찰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지난 6일에도 파주선관위에 적발돼 고발당하기도 했다. 현재, 파주선관위는 이 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주간 월간 인터넷 파주In

지오종합건설(주)

031 942 - 2329

週刊 / www.pajuin.net 제12호 2016년 04월 08일 ~ 04월 14일 대표전화 : 946-0000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황후보 선대위원장 모 산악회에 돈 봉투 전달 드러나

<주간 파주In> 2016년 4월 8일자 1면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의 4월 8일~14일『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한다. 피시정요구인은 위의 보도에서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라는 제하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황진하 후보가 금품선거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이는 명백히 사실무근이다. 또한 시정요구인 측 캠프의 핵심관계자인 A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B직능본부장 2명이 지난 2일 '파주 M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해 산악회원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품을 기부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선대위 관계자가 후보와는 일절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하여 단돈 3만원을 돼지머리에 꽂은 것을 다른 후보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하여 마치 시정요구인 측 선대위가 금권선거라도 하는 것처럼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매우 저질적인 선거행위로서 이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비방이다. 이 밖에도 금품을 전달할 당시에 황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장은 황진하 후보의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기에 이는 명백히 사실무근이다.

결정후보도문



황진하 후보 검찰 고발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6년 4월 8일자 1면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황진하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황진하 후보는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황진하 후보측은 '파주을 황진하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인 이들 두 사람이 지난 2일 '파주 M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해 산악회원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품을 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직능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모 산악회 시산제에 참가해 돼지머리에 3만원을 꽂은 것에 불과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간 파주In> 2016년 4월 20일자 2면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21
시정요구인	**홍익표**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02 3층
피시정요구인	**성광미디어 주식회사(성동신문)**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8 원방빌딩 501호 대표이사 이원주
심의대상기사	성동신문 2016년 4월 6일자 3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성동신문〉 3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새누리당 김동성,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 답변)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신 청 취 지	성동신문 1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성동구 보훈회관 8개 단체의 질의내용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보도하면서 “새누리당의 김동성 후보와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 등 2명만이 관심을 갖고 답변을 보내왔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시정요구인 측 답변내용을 피시정요구인이 누락한 점, 보도 이전 후보자의 답변 유무를 확인해야 할 언론사의 주의의무, 잘못된 사실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해당 지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시정요구인의 사후조치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제목 : 홍익표 의원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지는 2016년 4월 6일자 3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성동구 보훈회간 8개 단체 질의에 대한 새누리당 김동성 후보,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의 답변을 게재하면서 “답변을 보내 온 후보는 중구성동갑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김동성 후보와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 등 2명만이 관심을 갖고 답변을 보내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홍익표 당선자는 “4·13 총선에 따른 국가 보훈처에 관한 공약제안에 관한 홍익표 후보의 입장”을 요청기일에 맞추어 본지가 요청한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홍익표 의원은 해당 질의에 대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국 보훈외교, 제대군인 지원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보훈가족들의 예우강화와 성동구보훈회관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내용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성동구보훈회관 8개 단체 질의
새누리당 김동성,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 답변

성동신문은 성동구 8개 보훈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4·13총선에 출마한 중구성동갑·을 후보들에게 부훈처에 관한 공약이나 후보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보내 온 후보는 중구성동갑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김동성 후보와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 등 2명만이 관심을 갖고 답변을 보내왔다.

성동구보훈회관(관장 이성호) 8개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광복회 성동구지회) 주최로 ▶국가유공자 분들이 보훈처의 위상이 곧 자신들에 대한 예우로 인식 ▶대상자의 증가와 참전국 보훈외교, 제대군인 지원 등 업무범위 확대 등에 관한 약 242만명 회원의 염원에 대한 의견을 타진한 것이다.

다음은 성동구보훈회관이 제시한 질의 목적이다.

〈보훈처 주관하에 우리 국가유공자 가족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냉전의 한 중심이 되었던 남·북상잔의 비극인 6.25참전 참여와 공산체제에 대항하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단호한 자유 수호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으며 또한 정전의 한가운데에서도 일신의 몸을 국가에 희생하며 국민에 봉사하는 소임을 자랑스럽게 행동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시장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때론 사회역군으로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위대한 부모로 건전한 국가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자로 때론 지도자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에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리고 우리사회의 체제전복을 시도하려는 좌경화 세력을 응징하는 정의의 방패로 중심적 역할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국가유공자 가족은 예우를 받아 마땅하다 여겨지며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가 성장하듯, 국가유공자들에 예우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국가유공자 위상 제고 및 복지에 대해 지방이양사업만큼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어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 김동성 후보는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켜 모든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지정병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훈회관 건립예산도 확보하겠다”고 전해왔다.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승격 필요성 있다”며 “해외 참전 용사 내방 및 참전국 방문시 의전 불균형 해소 필요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김동성, 서경선 후보의 일치되는 사안을 정리한다.

다음은 국민의 당 서경선 후보가 제출한 보훈단체 질문에 대한 가장 상세한 답변으로 이를 정리한다. 〈편집자주〉

1. 국가보훈처 보훈부로 승격에 대한 방안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승격 필요성 있음

- 해외 참전 용사 내방 및 참전국 방문 시 의전 불균형 해소 필요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

□ 다만,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 수 10개 이상 부처 중 정상추진 판정 사업 비율이 37.8%로 가장 낮음

단계적 폐지·단계적 감축·통폐합 사업 비율이 42.2%에 달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있음

특히, 나라사랑교육의 경우, 사실 관계가 틀린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업 예산을 2015년 20억 3,500만 원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된 5,464억 원을 요구하여 비판을 받았음(강기정 의원)

또한, 2014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잔인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자료를 보여주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국가보훈처 지원 대상자는 약 242만 명에 달함

-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로의 승격 역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지만,

- 이를 위해 지적됐던 사항들의 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위탁진료병원 대상자 확대

□ 보훈병원 현황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등 5개 병원

- 위탁병원수 : 전국 309개소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성동구보훈회관 8개단체 질의

새누리당 김동성,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 답변

<성동신문> 2016년 4월 6일자 3면

다만, 위탁병원의 진료대상 및 진료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상자가 고령화되고 있어 진료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3년도 의료지원실적은 5,9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원이 증가, 의료지원인원은 8,045천 명으로 전년 대비 411천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

한편, 보훈병원이 없는 경기도의 경우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9,158명으로 18.2%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보훈병원 없음(위탁병원 49개소)

장기적으로 위탁진료병원의 대상이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게까지 넓어지는 것이 옳겠으나, 의료수요 급증 및 진료대상·범위 확대 등으로 의료지원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의료접근성 확보를 위해 위탁병원의 수를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성동구 보훈회관 건립 예산 지원 방안

2013년 기준 서울시 참전용사 71,528명(성동구 2,002명)

2015년 11월 성동구 보훈회관 건립 추진 발표(총 연면적 1,290㎡ /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 2017년 완공 예정)

- 2016년 3월 21일 티브로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짐

구의 건립 계획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

-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이바지해 온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를 돕기 위한 기관으로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필요 예산을 산정·파악한 뒤 건립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특히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구내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보훈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제454호 3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라는 기사에서 중구성동갑·을 후보에게 국가보훈처에 관한 공약이나 후보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고, 새누리당의 김동성 후보와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 등 2명만이 답변을 보내왔다며 해당지면의 4/5이상을 할애해 두 후보에 대한 사진과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홍익표 후보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시정요구인 홍익표 후보는 성동신문사가 후보자에게 요청한 공문에 따라, 답변마감일인 2016년 4월 5일보다 이틀 앞선 2016년 4월 3일, "4.13 총선에 따른 국가 보훈처에 관한 공약제안에 관한 홍익표 후보의 입장"을 성동신문사가 요청한 지정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동신문사는 해당 기사에 홍익표 후보자가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보도하여 2016년 4월 6일부터 성동 지역 전역에 배포하였다.

피시정요구인인 성동신문사의 왜곡 보도는 2016년 4월 12일 현재까지 구전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홍익표 캠프의 정상적인 선거운동까지 중단되는 등 성동신문사의 허위 사실 보도는 선거의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등장하였다.

피시정요구인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홍익표 후보자와 홍익표 후보 캠프는 왜곡기사의 확대재생산을 막고, 사실 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점인 선거 이틀 전부터 약 2회에 걸쳐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성동구보훈회관을 방문하여, 사실 관계를 소명하고,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선거사무원 등이 계속되는 문의전화에 대응하는 등 해당 기사로 인해 정상적인 선거운동 및 선거전략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기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결정후보도문



홍익표의원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6년 4월 6일자 3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성동구 보훈회관 8개 단체 질의에 대한 새누리당 김동성 후보,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의 답변을 게재하면서 "답변을 보내 온 후보는 중구성동갑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김동성 후보와 국민의당 서경선 후보 등 2명만이 관심을 갖고 답변을 보내왔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홍익표 당선자는 "4.13 총선에 따른 국가보훈처에 관한 공약제안에 관한 홍익표후보의 입장"을 요청기일에 맞추어 본지가 요청한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홍익표 의원은 해당 질의에 대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국 보훈외교, 제대군인 지원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보훈가족들의 여주김화와 성동구보훈회관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성동신문> 2016년 5월 11일자 3면

2. 경고결정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1**
시정요구인	**이철우** 경북 김천시 신음동 424-1(5층)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한길뉴스** 경북 김천시 시청2길 30번지 발행인 신종식
심의대상기사	한길뉴스 2016년 1월 4일자 1면 「이철우 의원은 '대상컨설팅(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투자한 김천삼애원 시행사) 고문(顧問)' 의혹, 이제 진실을 밝혀라」 및 「제20대 국회의원 김천시선거구 4파전」, 2016년 1월 4일자 3면 「이철우 의원이 의정보고회 통해 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일삼아」 및 「이철우 국회의원 자격있나? '슈퍼 갑질' 도를 넘었다!」 각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한길뉴스〉 1면에 〈별지〉 경고 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6년 1월 4일자 1면 「제20대 국회의원 김천시선거구 4파전」 제하의 기사 부제목('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새누리당 공천이 당락 결정')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별지> 보도문을 한길뉴스 1면에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 활자 크기는 심의대상기사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3단에 걸쳐 보도하고 본문 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위 심의대상기사들을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 등을 보도하였다. 이미 과거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타 후보에 대한 보도내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문 2. 본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한위수)는 한길뉴스 2016년 1월 4일자 1면 「이철우 의원은 '대상컨설팅(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투자한 김천삼애원 시행사) 고문(顧問)' 의혹, 이제 진실을 밝혀라」 및 「제20대 국회의원 김천시선거구 4파전」 각 제하의 기사와 2016년 1월 4일자 3면 「이철우 의원이 의정보고회 통해 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일삼아」 및 「이철우 국회의원 자격있나? '슈퍼 갑질' 도를 넘었다!」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한길뉴스는 위 기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김천시)에 출마 예정인 국회의원 이철우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타 후보에 대한 보도내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재심1(원심결정 : 2016국선-시심1)
재 심 청 구 인	**주식회사 한길뉴스** 경북 김천시 시청2길 30번지 지하 발행인 신종식
재 심 청 구 대 상 기 사	한길뉴스 2016년 1월 4일자 1면 「이철우 의원은 '대상컨설팅(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투자한 김천삼애원 시행사) 고문(顧問)' 의혹, 이제 진실을 밝혀라」, 「제20대 국회의원 김천시선거구 4파전」, 3면 「이철우 의원이 의정보고회 통해 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일삼아」, 「이철우 국회의원 자격있나? '슈퍼 갑질' 도를 넘었다!」 각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2016국선-시심1)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이철우 의원이 대상컨설팅 고문을 맡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녹취록이나 확인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으며, 반복해서 이철우 의원 관련 기사를 게재한 것은 이철우 의원 측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았기 때문이고, 어떤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2016국선-시심1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이 이철우 의원이 대상컨설팅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제3자의 녹취록이나 확인서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재심청구대상기사로 인하여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녹취록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이 원심 결정을 번복할 중요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이철우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기사를 반복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수차례 게재하면서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면 이는 의도와는 관계없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으로서 원심 결정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철우 의원은 '대상컨설팅(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투자한 김천삼애원 시행사) 고문(顧問)' 의혹, 이제 진실을 밝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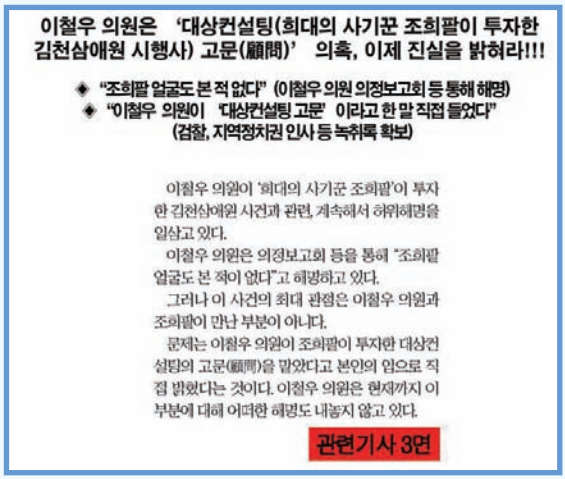
◈ "조희팔 얼굴도 본 적 없다" (이철우 의원 의정보고회 등 통해 해명)

◈ "이철우 의원이 '대상컨설팅 고문'이라고 한 말 직접 들었다"(검찰, 지역정치권 인사 등 녹취록 확보)

이철우 의원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투자한 김천삼애원 사건과 관련, 계속해서 허위해명을 일삼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조희팔 얼

굴도 본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최대 관점은 이철우 의원과 조희팔이 만난 부분이 아니다.

문제는 이철우 의원이 조희팔이 투자한 대상컨설팅의 고문(顧問)을 맡았다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는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대상컨설팅(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투자한 김천삼애원 시행사) 고문(顧問)' 의혹, 이제 진실을 밝혀라!!!

◆ "조희팔 얼굴도 본 적 없다" (이철우 의원 의정보고회 등 통해 해명)
◆ "이철우 의원이 '대상컨설팅 고문' 이라고 한 말 직접 들었다" (검찰, 지역정치권 인사 등 녹취록 확보)

이철우 의원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투자한 김천삼애원 사건과 관련, 계속해서 허위해명을 일삼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조희팔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최대 관점은 이철우 의원과 조희팔이 만난 부분이 아니다.

문제는 이철우 의원이 조희팔이 투자한 대상컨설팅의 고문(顧問)을 맡았다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는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길뉴스> 2016년 1월 4일자 1면

제20대 국회의원 김천시선거구 4파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새누리당 공천이 당락 결정

◇ 송승호 교수
"고교 동기 두 명이 20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제는 참신하고 깨끗한 새인물로 바꿔야 한다"
◇ 이철우 의원
3선 도전장을 냈지만, 선거법 위반의혹 등 곳곳에 암초와 만나 최대 위기 직면
◇ 임인배 전 의원
"4선이 되면 김천을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다"
◇ 박판수 씨
"김천에 공화당의 뿌리를 내리겠다"

드디어 결전의 해가 밝았다.

병신년 새해가 밝아 오면서,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김천시선거구 출마자들간 경쟁도 본격화됐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새누리당으로 나선 송승호 김천희망포럼 위원장 겸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 이철우 현 의원, 임인배 전 국회의원(이하 가나다순) 등 3명과 공화당 박판수 후보를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은 새누리당의 공천을 누가 받느냐 여부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새누리당 공천신청을 한 세 명의 후보들 중, 공천을 받는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공천자가 본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증폭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공천룰이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지만 후보들의 문제점이 없는 한 여론조사 결과와 가산점이 공천을 좌우 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호 김천희망포럼 위원장 겸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는 '세대교체'를 주창하고 있다. 송 교수

는 "김천고교 동기인 임임배 전 의원이 세 번(12년), 이철우 현 의원이 두 번(8년) 등 총 20년간 국회의원을 해 왔다"면서 "강산이 두 번 바뀌도록 고교 동기 두 명이 국회의원을 지낸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세대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송 교수는 특히 종합편성방송(종편) 정치평론가로서 김천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다, 참신하고 똑똑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월간조선(조선일보사)을 비롯한 중앙언론 및 중앙 정치권에서도 명성이 높아 김천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3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철우 현 국회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워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철우 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들도 많다. 우선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철우 의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될 경우,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되고, 따라서 공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철우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중앙당이 공천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 2012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철우 의원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투자한 김천 삼애원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대상컨설팅의 고문을 맡았다는 점도 청렴도 평가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임인배 전 국회의원은 4선 도전에 성공할 경우, 김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임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면서 지난해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시,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으나, 뒤늦게 새누리당에 복당이 됨에 따라 새누리당 예비후로로 정정해 등록을 한 상태이다.

공화당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판수 후보도 최근 시민들과의 접촉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김천시선거구 4파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새누리당 공천이 당락 결정

◇ 송승호 교수 – "고교 동기 두 명이 20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제는 참신하고 깨끗한 새인물로 바꿔야 한다"

◇ 이철우 의원 – 3선 도전장을 냈지만, 선거법 위반의혹 등 곳곳에 암초와 만나 최대 위기 직면

◇ 임인배 전 의원 – "4선이 되면 김천을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다"

◇ 박판수 씨 – "김천에 공화당의 뿌리를 내리겠다"

<한길뉴스> 2016년 1월 4일자 1면

이철우 의원이 의정보고회 통해 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일삼아

타임머신타고 미래로 다녀왔나?

◈TV조선(옥타곤) 방송시간 : 10월18일 오후5시

◈한길뉴스 인터넷 기사 : 10월 18일 오후9시10분 15초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철우 국회의원이 본지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어이없는 거짓해명만 일삼으며 시민들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이철우 국회의원의 거짓 해명은 거짓을 넘어서 본인의 의정보고회 자리에까지 터무니없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법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진실과 성실로서 보고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거짓투성이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철우 국회의원이 의정 보고서에 삽입한 유인물에는 '한길뉴스의 음해성 허위사실 기사 인용한 TV조선 이철우 의원에 공식 사과'했다고 써져 있다.

이는 단 0.1%의 진실도 없는 거짓이다.

TV조선 공식사과문 문구 그 어디에 한길뉴스라고 나와 있으며 그 출처가 한길뉴스라고 밝힌 사실이 있는가? TV조선이 인용했다는 지역신문이 어디인지 이철우는 출처부터 밝혀야 한다.

본지 한길뉴스는 방송에서 이철우 의원이 조희팔과 관련 있다는 ..중략.. 배모 변호사의 발언이 있은 후 4시간 뒤에 기사를 게재했다.

그 방송시간에 방송시청도 기사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길뉴스 인터넷판 기사를 인용한단 말인가?

또한 지면은 10월 22일 발행을 했는데 어떻게 한길뉴스 기사를 인용했다고 말하는가?

언론중재위에 이철우 의원이 이 문제로 제소했고 중재위에서는 본지와 그 인용기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철우 의원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 불성립 판정을 내렸다.

이철우 의원 본인은 언론중재위의 판정으로 명확히 한길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길뉴스가 허위보도 했다고, 의정보고회 석상에 버젓이 거짓 유인물을 배포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본지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본인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한길뉴스를 그 재물로 삼고자하는 것인가?

이철우 의원이 본지와 박원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검찰, 언론중재위원회,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경북도청,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 제소, 고발, 민원제기, 등등으로 한길뉴스와 박원진 기자를 괴롭혀 왔다.

박원진 기자는 그로 인해 검찰, 경찰 등과 민원제기 기관에 수십 번 불려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받으며 진술하고 답변해야 했다.

이러한 이철우 의원의 행태를 언론탄압 및 언론에 재갈 물리기 시도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철우 의원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본지와 박원진 기자를 고소했다는 시점과 방송의 사과보도와는 시기조차 일치하지 않다.

또 사과방송 이후 이철우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무차별로 살포한 보도자료에도 박원진 기자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방송의 사과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

다는 신문사가 어떻게 한길뉴스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

힘 있는 방송사에게는 아무소리 못하면서 왜 힘없는 지역 신문만 탄압하는가?

이런 무참한 비열한 짓거리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처신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미 이철우 국회의원이 조희팔 자금이 유입된 대상컨설팅의 고문이었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대상컨설팅의 장삼준 회장과 개인적인 모임의 멤버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은 안다.

또 한 가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인한 검찰조사를 언제까지 불응할 것인가.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혀라. 본인의 주장대로 혐의가 없다면 검찰 조사에 임해서 수사를 한시바삐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



이철우 의원이 의정보고회 통해 또 허위사실 유포 · 명예훼손 일삼아

타임머신타고 미래로 다녀왔나?
◆TV조선(옥타곤) 방송시간: 10월18일 오후5시
◆한길뉴스 인터넷 기사: 10월 18일 오후9시10분 15초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철우 국회의원이 본지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어이없는 거짓해명만 일삼으며 시민들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이철우 국회의원의 거짓 해명은 거짓을 덧어서 본인의 의정보고회 자리에까지 터무니 없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법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자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진실과 성실로서 보고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거짓투성이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철우 국회의원이 의정 보고서에 삽입한 유인물에는 '한길뉴스의 음해성 허위사실 기사 인용한 tv조선 이철우의원에 공식 사과했다고 써져 있다.

이는 단 0.1%의 진실도 없는 거짓이다.

TV조선 공식사과문 굳구 그어디에 한길뉴스라고 나와 있으며 그 출처가 한길뉴스라고 밝힌 사실이 있는가? TV조선이 인용했다는 지역신문이 어디인지 이철우는 출처부터 밝혀야 한다.

본지 한길뉴스는 방송에서 이철우의원이 조희팔과 관련있다는 _중략 네모변호사의 발언이 있은 후 44시간 뒤에 기사를 게재 했다.

그 방송시간에 방송시점도 기사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길뉴스 인터넷판 기사를 인용한단 말인가?

또한 지면은 10월 22일 발행을 했는데 어떻게 한길뉴스 기사를 인용했다고 말하는가?

언론중재위에 이철우 의원이 이 문제로 제소했고 중재위에서는 본지와 그 언론기자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철우 의원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 불성립 판정을 내렸다.

이철우 의원 본인은 언론중재위의 판정으로 명확히 한길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길뉴스가 허위보도 했다고, 의정보고회 석상에 버젓이 거짓유인물을 배포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본지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본인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을 깎아내기 위해 한길뉴스를 그 재물로 삼고자하는 것인가?

이철우 의원이 본지와 박원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경찰, 언론중재위원회,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경북도청,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 제소, 고발, 민원제기, 등 등으로 한길뉴스와 박원진 기자를 괴롭혀 왔다.

박원진 기자는 그로 인해 경찰, 경찰 등과 민원제기 기관에 수십 번 불려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받으며 진술하고 답변해야했다.

이러한 이철우 의원의 행태를 언론탄압 및 언론에 재갈 물리기 시도라고 아니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철우의원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본지와 박원진 기자를 고소했다는 시점과 방송의 시점보도와는 시기조차 일치 하지 않다.

또 사과방송 이후 이철우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무차별로 살포한 보도자료에도 박원진기자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방송의 사과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신문사가 어떻게 한길뉴스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

힘 있는 방송사에게는 아무소리 못하면서 힘 없는 지역 신문만 탄압하는가?

이런 무참한 비열한 짓거리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국회의원이면 답게 처신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미 이철우국회의원이 조희팔 자금이 유입된 대상컨설팅의 고문이었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대상컨설팅의 장삼준회장과 개인적인 모임의 멤버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은 안다.

또 한 가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인한 검찰조사를 언제까지 불응할 것인가.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혀라. 본인의 주장대로 혐의가 없다면 검찰 조사에 임해서 수사를 한시바삐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

▲이철우 의원이 12월30일 김문면사무소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길뉴스를 음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측이 한길뉴스와 박원진기자를 경찰과 경찰, 언론중재위, 중앙선관위, 경북도청, 경북선관위에 고발해 검찰과 중앙선관위에서 보내온 송석통보 및 결과 자료들

<한길뉴스> 2016년 1월 4일자 3면

이철우 국회의원 자격있나? '슈퍼 갑질' 도를 넘었다!

공연장 입장 막고 경찰 동원,
'끌어내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아
시민들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위법, 탈법,
초법적인 행동 자행

지난 12월 30일 이철우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송년음악회 감상을 위해 입장하려는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의 입장을 강제로 가로막아서고 또 경찰관을 출동시켜 끌어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철우 국회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어선 슈퍼 갑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국회의원자격이 있느냐는 자질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철우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공연장 입구를 막아선 것은 박원진 기자가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 이철우 의원에게 잘못된 언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어이없는 이유다.

입구를 막고서 있는 보좌관들에게 예술회관 관리 계장 및 여러 공직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에서 입구를 막아서고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의 권리침해다"며 비켜서라고 수차례 종용했으나 비켜서지 않았다.

특히, 음악을 전공하고 김천시립예술단 교향악단 단무장까지 지낸 이철우 국회의원의 특별보좌관 전대호는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경찰에게 박원진 기자를 끌어내라고 소리까지 질렀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시민을 공연장 입장을 막는 것도 부족해 무조건 끌어내서 경찰서로 끌고 가라고하는 초법, 불법, 탈법적인 이철우 의원 보좌관들 의식을 보면서 평소 이철우 의원의 사고가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철우 의원의 평소 사고가 그렇지 않다면 보좌관들이 어떻게 저런 무뢰배들도 하지 못할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할 수 있겠는가?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보좌관들의 초법적인 만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

이철우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어이없는 만행을 지켜보던 한 예술단원은 "웃기지도 않는 블랙 코미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부끄럽다" 또 다른 한 시민은 "정말 국회의원 보좌관이냐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냐"며 이철우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했다.

이철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는 평소 이철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및 측근들에게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니까 이정도 탈법, 불법, 초법적인 일을 벌여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지 않았다면 벌일 수 없는 사안이다.



이철우 국회의원 자격있나? '슈퍼 갑질' 도를 넘었다!

공연장 입장 막고 경찰 동원, '끌어내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아 시민들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위법, 탈법, 초법적인 행동 자행

▲이철우 의원 보좌관들이 시민들과 공무원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출입문 입구를 가로막고 박원진 기자의 공연장 입장을 저지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전대호 특별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끌어내라고 종용하고 있는 전대호 특별보좌관이다.

지난 12월 30일 이철우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송년음악회 감상을 위해 입장하려는 한길뉴스 박원진기자의 입장을 강제로 가로 막아서고 또 경찰관을 출동시켜 끌어내라는 망연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철우국회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어선 슈퍼 갑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는 자질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철우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공연장 입구를 막아선 것은 박원진기자가 공연장안에 들어가서 이철우의원에게 잘못된 언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어이없는 이유다.

입구를 막고서 있는 보좌관들에게 예술회관 관리 계장 및 여러 공직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에서 입구를 막아서고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의 권리침해다"며 비켜서라고 수차례 종용했으나 비켜서지 않았다.

특히, 음악을 전공하고 김천시립예술단 교향악단 단무장까지 지낸 이철우국회의원의 특별보좌관 전대호는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경찰에게 박원진 기자를 끌어내라고 소리까지 질렀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시민을 공연장 입장을 막는 것도 부족해 무조건 끌어내서 경찰서로 끌고 가라고하는 초법, 불법, 탈법적인 이철우 의원 보좌관들 의식을 보면서 평소 이철우 의원의 사고가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철우 의원의 평소 사고가 그렇지 않다면 보좌관들이 어떻게 저런 무뢰배들도 하지 못할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할 수 있겠는가?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보좌관들의 초법적인 만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

이철우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어이없는 만행을 지켜보던 한 예술단원은 "웃기지도 않는 블랙 코미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부끄럽다" 또 다른 한 시민은 "정말 국회의원 보좌관이냐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냐"며 이철우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했다.

이철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는 평소 이철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및 측근들에게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니까 이정도 탈법, 불법, 초법적인 일을 벌여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지 않았다면 벌일 수 없는 사안이다.

<한길뉴스> 2016년 1월 4일자 3면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이미 조희팔 관련, 이철우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시정요구인은 이미 지나간 기사까지 끌어내 재탕, 삼탕으로 기사를 내보내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당일자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

피시정요구인은 정치옥타곤 방송 이후에 관련 기사를 올렸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철우 의원이 조희팔과 관련이 있다는 한길뉴스 기사는 10월 17일 저녁에 인터넷판으로 올라와 있었으며, 특히, 이 기사를 TV조선에 출연한 배승희 변호사가 우연히 검색해 다음날인 18일 오후 5시 TV조선에 출연해 인용한 바 있다고 직접 증언했다. 또한 송승호 후보에 대해서는 13줄에 걸쳐 칭찬하는 글을 게시하고 시정요구인에 대해서는 17줄에 걸쳐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누가 봐도 특정인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고의로 비판기사를 싣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피시정요구인은 1월 4일자 기사에서도 '이철우 국회의원 자격있나?'라는 제목으로 이철우 의원 비난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피시정요구인 측 기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막말을 쓰고 시정요구인 측 사람들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히는 등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이철우 의원 측이 고의로 입장을 막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결정후보도문

한길뉴스는 재심 기각 결정 송달 이후 경고결정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재조치 불이행 사실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었고 이후 자체종결 처리되었음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3**
시정요구인	**안민석**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108, 302호(원동, 대광빌딩)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 경북 영주시 목민로 68번길 2(휴천동 642-561) 대표이사 김정욱
심의대상기사	오산타임뉴스 2015년 12월 29일자 3면 「안민석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및 4면 「오산시민회관 신축 400억 중 국비는 고작 30억?」 각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오산타임뉴스〉 3면 우측 상단에 〈별지〉 경고 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6년 12월 29일자 3면 「안민석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기사의 부제목인 「시민단체, "선거홍보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내역 부풀려 허위사실 게제"」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해당 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별지> 정정보도문 게재 및 경고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안민석 국회의원의 오산시 관련 사업비 확보에 대해 보도하면서, 안 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예산 400억 가운데 확보한 국비는 2016년 30억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피시정요구인은 "400억 중 고작 30억?"이라는 제목을 통해 국비 및 시 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3년치 계속사업비가 400억이고 그중 2016년 집행되는 1년치 사업비 60억원 중 국비 30억이 확정된 것임에도 총사업비 400억원 중 국비는 30억원만이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점, 안민석 의원의 반론을 전혀 게재하지 않은 점, 피시정요구인이 오산타임뉴스 2015년 12월 29일자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한 반면 타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백히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2. 본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한위수)는 오산타임뉴스 2015년 12월 29일자 3면 「안민석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및 4면 「오산시민회관 신축 400억 중 국비는 고작 30억?」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오산타임뉴스는 위 기사들을 통해 안민석 국회의원의 오산시 관련 사업비 확보에 대해 보도하면서, 안 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예산 400억 가운데 확보한 국비는 2016년 30억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위 언론사는 “400억 중 고작 30억?”이라는 제목을 통해 국비 및 시 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3년치 계속사업비가 400억이고 그중 2016년 집행되는 1년치 사업비 60억원 중 국비 30억이 확정된 것임에도 총사업비 400억원 중 국비는 30억원만이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점, 안민석 의원의 반론을 전혀 게재하지 않은 점, 오산타임뉴스 2015년 12월 29일자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한 반면 타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백히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재심3(원심결정 : 2016국선-시심3)**
재 심 청 구 인	**주식회사 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 경북 영주시 목민로 68번길 2(휴천동 642-561) 대표이사 김정욱
재 심 청 구 대 상 기 사	오산타임뉴스 2015년 12월 29일자 3면 「안민석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및 4면 「오산시민회관 신축 400억 중 국비는 고작 30억?」 각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2016국선-시심3)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대상기사의 내용 가운데 2016년 확보된 국비가 30억이라는 것은 오산시청의 답변 및 다른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허위보도가 아니며, 타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는 보도자료를 송고받아 기사화한 것이고 안민석 의원 측에서는 보도자료가 수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결정은 재심청구대상기사의 제목을 통해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민석 의원 측의 반론이 전혀 보도되지 않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보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한편 타 후보는 보도자료를 송고하였으나 안민석 의원으로부터는 보도자료가 수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후보에 대한 긍정적 내용만이 보도된 것이라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선거보도에 있어 각 후보자에 대한 논의의 균형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에 비추어 원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민석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시민단체, "선거홍보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내역 부풀려 허위사실 게재"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새정치민주연합)이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고 미디어와이가 보도했다.

미디어와이에 따르면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이달 초순부터 현재까지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선거홍보를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내역을 허위로 부풀려 공표했다며 24일 안민석 의원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안민석 의원이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재건축사업 국고보조금(국비) 액수가 내년 30억원에 불과한데도, 안 의원이 마치 총사업비 40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이달 3일 다수 시민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이달 초순부터 현재까지 오산시내 주요 거리 100여 곳에 불법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또 안 의원이 오산시 관련사업 국비 360억원(총사업비 5,767억원)을 확보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업들은 2013년부터 2018년 이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국비·도비·시비를 총 합산한 사업비



안민석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시민단체, "선거홍보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내역 부풀려 허위사실 게재"

안민석 국회의원(오산 · 새정치민주연합)이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고 미디어와이가 보도했다.

미디어와이에 따르면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이달 초순부터 현재까지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선거홍보를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내역을 허위로 부풀려 공표했다며 24일 안민석 의원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안민석 의원이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재건축사업 국고보조금(국비) 액수가 내년 30억원에 불과한데도, 안 의원이 마치 총사업비 40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이달 3일 다수 시민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이달 초순부터 현재까지 오산시내 주요 거리 100여 곳에 불법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또 안 의원이 오산시 관련사업 국비 360억원(총사업비 5767억원)을 확보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업들은 2013년부터 2018년 이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국비 · 도비 · 시비를 총 합산한 사업비가 5767억원이고 이중 시비는 21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그러나 안 의원이 관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공표했던 시점에는 아직 오산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처리하기 전이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안 의원측이 이와 관련 "오산 역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마치 안 의원이 총사업비 5767억원 전액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한 것처럼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더구나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24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오산시와는 관련 없는 사업으로,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인근 화성시 사업까지 자신의 치적인양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또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시장에게 거리에 불법 게첨된 안민석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들을 철거하라고 공문과 항의방문 등을 통해 요청했으나, 오산시가 아직까지 철거에 나서지 않고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엄격한 법의 판단으로 오산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과 시도의원 등 오산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들의 허위와 독선, 불법행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오산타임뉴스> 2015년 12월 29일자 3면

가 5,767억원이고 이중 시비는 2,1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그러나 안 의원이 관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공표했던 시점에는 아직 오산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처리하기 전이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안 의원측이 이와 관련 "오산 역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마치 안 의원이 총사업비 5,767억원 전액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한 것처럼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더구나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24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오산시와는 관련 없는 사업으로,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인근 화성시 사업까지 자신의 치적인양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또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시장에게 거리에 불법 게첨된 안민석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들을 철거하라고 공문과 항의방문 등을 통해 요청했으나, 오산시가 아직까지 철거에 나서지 않고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산행정개혁연대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엄격한 법의 판단으로 오산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과 시도의원 등 오산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들의 허위와 독선, 불법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산시민회관 신축 400억 중 국비는 고작 30억?

시민단체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사기죄 법적대응
"30억 국비확보라는 문구 대신 총사업비 400억 국비확보" 시민 혼란 야기
건립비용 오산시 2016년 14억, 2017년 132억, 2018년 54억. 총 200억 주민부담 커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에 따르면 오산시 예산이 확정도 안 된 시점에 국회의원실에서 총사업비(5,767억) 확보란 문자 및 현수막을 게첩해 허구성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실에서 지난 12월 3일 수만 명 추정되는 오산시민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총사업비 400억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국비확보! 라고 문자를 보냈다.

국회예결위에서 확보된 시민회관 건립비용은 내년 예산 30억이 고작이다.

문자내용에는 마치 400억 예산이 확정된 내용이라고 시민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계속사업비에 오산시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016년 14억, 2017년도 132억, 2018년도에는 54억, 총 오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총 200억으로 확인됐다.

안의원이 확보했다는 예산은 고작 30억으로 확인돼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시민단체에서 법적검토까지 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오산시민단체 관계자는 "안민석 의원이 확보했다는 총사업비(5,767억)는 지난 2013년 이전부터 2018년 이후까지의 총액사업비를 자신이 국비 확보한 것처럼

허위포장으로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오산시 재정상태가 최악인 지금 신규사업으로 오산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천억 원의 계속 사업비 중 시민공청회를 무시한 채 사업 타당성 용역 및 시기성, 시급성, 적정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어 안의원이 확보했다는 사업비 일부에는 오산시 2016년도 본 예산중 내시도 되지 않은 사업 및 시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것을 적시한 것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예결특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오산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에 노력한 결과, 정부안 편성 및 국회증액을 통해 국비 306억(총사업비 5,767억) 확보로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였다며 문자를 통해 오산시민에게 보냈다.



오산시민회관 신축 400억 중 국비는 고작 30억?

시민단체 선거법,허위사실유포 사기죄 법적대응
"30억 국비확보라는 문구 대신 총사업비 400억 국비확보" 시민 혼란 야기
건립비용 오산시 2016년 14억, 2017년 132억, 2018년 54억. 총 200억 주민부담 키

오산시민회관 신축 400억 중 국비는 고작 30억?

시민단체 선거법,허위사실유포 사기죄 법적대응

"30억 국비확보라는 문구 대신 총사업비 400억 국비확보" 시민 혼란 야기

건립비용 오산시 2016년 14억, 2017년 132억, 2018년 54억. 총 200억 주민부담 키

오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오산시 예산이 확정도 안된 시점에 국회의원실에서 총사업비 (5,767억)확보란 문자 및 현수막을 게첨해 허구성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실에서 지난 12월 3일 수만 명 추정되는 오산시민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총사업비 400억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국비확보! 라고 문자를 보냈다.

국회예결위에서 확보된 시민회관 건립비용은 내년 예산 30억 이 고작이다.

문자내용에는 마치 400억 예산이 확정된 내용이라고 시민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계속 사업비 에 오산시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016년 14억, 2017년도 132억, 2018년도에는 54억, 총 오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총 200억으로 확인됐다.

안의원이 확보했다는 예산은 고작 30억으로 확인돼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시민단체에서 법적검토 까지 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오산시민단체 관계자는 "안의원 의원이 확보했다는 총사업비5,767억에는 지난 2013년 이전부터 2018년 이후까지의 총액사업비를 자신이 국비 확보한 것처럼 허위포장으로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오산시 재정상태가 최악인 지금 신규사업으로 오산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천억 원의 계속 사업비 중 시민공청회를 무시한 채 사업 타당성 용역 및 시기성, 시급성, 적정성, 가능성 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어 안의원이 확보했다는 사업비 일부에는 오산시 2016년도 본 예산중 내시도 되지 않은 사업 및 시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것을 적시한 것이다. 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예결특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오산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에 노력한 결과, 정부안 편성 및 국회증액을 통해 국비 306억(총사업비 5,767억) 확보로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였다며 문자를 통해 오산시민에게 보냈다.

나정남기자 nano1772@naver.com

▲ 안민석 의원실에서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오산타임뉴스> 2015년 12월 29일자 4면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오산시민회관 신축 건물의 총사업비는 400억원이며, 해당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각 50%의 분담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및 오산시청 문화체육과를 통해 거듭 확인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안민석 의정보고서에도 총 사업비 400억 원 중 국비는 200억 원이라 기재하였다. 국비 200억 원 중 2016년도 교부금이 30억 원이며, 차액은 차년도부터 사업종료 년도까지 계속해서 교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타임뉴스 제73호에서는 오산시민회관 신축 총 사업비 400억 원 중 안민석 의원이 확보한 국비는 단 3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반복하여

기사를 게재하였다. 안민석 의원의 2016년 오산시 예산 확보 내용 중 '24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오산시와는 관련 없는 사업'이라 명하면서도, 7개 사업에 대한 적시를 하지 않고 있다. 사업명 기재를 통해 사실확인과 독자들의 판단 여부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물론이며, 7개 사업의 오산시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도 당사자인 안민석 의원 혹은 오산시청에 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다. 안민석 의원이 오산시를 위해 증액한 24개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오산시와 관계있는 예산 확보가 맞다. 오산타임뉴스 측은 근거 없이 계속해서 허위 비방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게재로 동 내용이 일반 시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악의적이라 할 것이다.

시정요구인은 오산타임뉴스 2015년 12월 29일 제73호에 게재된 진실 아닌 기사로 인해 오산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이 되었고, 이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시정요구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에 동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게재 및 지속적인 악의적 기사에 대한 경고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결정후보도문

오산타임뉴스는 재심 기각 결정 송달 이후 경고결정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재조치 불이행 사실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었고 이후 자체종결 처리되었음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4**
시정요구인	**유승민** 대구 동구 화랑로 459 테마빌딩 3층 유승민 국회의원 사무소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일요서울** 서울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6F 일요서울신문사 대표이사 은기원
심의대상기사	일요서울 2월 15일자 1면 「유승민의 수백명 유령당원 실체 드러나다」 제하의 표지 및 2면 「단독입수 유승민 대구동을 유령당원 수백명 관리 의혹」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일요서울〉 2면 하단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은 심의대상기사 중 2016년 2월 15일자 2면 「단독입수 유승민 대구동을 유령당원 수백명 관리 의혹」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해당 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및 경고조치를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유승민 국회의원이 다수의 유령당원을 관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심의대상기사의 제목에서 "유승민의 수백명 유령당원 실체 드러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등 유승민 의원이 유령당원을 관리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실제로 피시정요구인 측이 전화하여 확인한 것은 20명에 불과함에도 부제목에서 "본지, 200명에 일일이 전화해 확인"하였다고 표현한 점, 20명 가운데 3명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유령당원인 것으로 단정하여 "사실상 90%가 유령당원인 셈"이라고 과장한 점, 유승민 의원 측 반론 게재가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시정요구인은 명백히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2. 본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한위수)는 일요서울 2월 15일자 1면 「유승민의 수백명 유령당원 실체 드러나다」 제하의 표지 및 2면 「단독입수 유승민 대구동을 유령당원 수백명 관리 의혹」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일요서울은 위 기사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유승민 국회의원이 다수의 유령당원을 관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직접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표지에서 "유승민의 수백명 유령당원 실체 드러나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일요서울 측이 전화하여 확인한 것은 20명에 불과함에도 부제목에서 "본지, 200명에 일일이 전화해 확인"하였다고 과장하여 표현한 점, 유승민 의원 측 반론 게재가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백히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여론조사 의혹 이은 또 다른 파문

유승민의 수백명 유령당원의 실체

유승민 헌법정신에 '유령당원'도 있었나?



<일요서울> 2016년 2월 15일자 1면

[단독입수] 유승민 대구동을 유령당원 수백명 관리 의혹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대구동을 새누리당 일부 당원 명부 중 무작위 전화를 걸어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유령당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당원이란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경선 참여를 목적으로 특정 후보가 당원명부에 이름만 올려놓은 당원을 일컫는다. 일종의 '위장전입'으로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경선을 위해 사용하는 편법이다. 새누리당은 4.13총선과 관련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면서 국민 70%, 당원 30%를 반영할 계획이라 상당한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정치신인들은 경선에 임박해 당원명부를 받기 때문에 경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대구 지역의 유령당원 실태를 알아봤다.

본지, 200명 당원 일일이 전화해 확인

본지가 입수한 200여명의 대구동을 새누리당 당원 명부는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명단이다. 새누리당은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당 차원에서 당비대리납부, 허위기명 등 유령당원을 솎아내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본지가 이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여전히 유령 당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구동을 당원명부에 있는 30대 여성 박모씨(0109390****)의 경우 확인전화를 한 결과 이름도 달랐고 거주지는 부산이었다. 박 씨는 2월12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구동을에 산 적이 없고 작년에 번호를 바꿨다"며 "새누리당 당원도 아니다"고 밝혔다. 기자가 왜 이름이 등재돼 있느냐고 묻자 박 씨는 "나도 모르겠다"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난 전라도 순천에 살고 있는데…"

40대 여성 최모씨(0108855****)의 경우에는 남자가 받아 성도 틀리고 이름도 달랐다. 최 씨는 "나는 전

라도 순천에 살고 있다"며 "1년 전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예전에 이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이 당원이었는지 모르겠다"고 추측했다. 이 인사는 "새누리당에서 하도 문자가 와서 스팸처리했다"면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전했다. 전남 순천뿐만 아니라 광주에 거주하는 인사도 있었다.

명부에는 한모씨(0107602****)가 남성으로 돼 있었는데 거주지는 전남 광주로 돼 있고 대구에는 단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인사 역시 "이름도 내가 아니고 새누리당 당원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불쾌한 듯 전화를 끊었다. 50대 남성 박모씨(0109226****)는 전남 화순에 거주하고 휴대폰을 2G에서 3G로 바꾼 지 몇 년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와 인접한 인사들도 있었다. 20대 신모씨(0109950****)의 경우 "경산에 거주하고 있다"며 "당원도 아니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이나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동구을에 거주하지만 당원이 아니라는 인사도 있었다(박모씨, 50대 여성). 20여 명에게 전화를 건 결과 당원으로 밝혀진 인사는 달랑 두 사람뿐이었다. 박모씨(0106661****)의 경우 대구동을에 거주하고 당원에 가입한 사실도 인정했다. 또한 서모씨(0103543****)도 자신이 책임당원임을 시인했다.

반면 대구동을에 거주하다 중남구로 이사간 사람도 여전히 대구동을 당원으로 잡혀 있었다. 40대 여성 홍모씨(0102526****)의 경우 "새누리당 당원은 맞는데 중남구로 2개월 전에 이사를 왔다"며 "대구 시당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본지가 200여 명의 당원명부 중에서 무작위로 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표본조사를 한 결과 단 두 명이 대구동을에 거주하는 당원이었고 나머지는 당원도 아니고 이름과 거주지도 달랐다. 휴대 전화번호만 맞지 사실상 90%가 유령당원인 셈이다. 하지만 수상한 점도 발견됐다. 이름도 맞고 휴대폰 번호도 맞지만 거주지가 대구동을 인근 지역이고 당원도 아니라는 경우다(김모씨, 달서구 50대 남성).

결국 중앙당에서 유령당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본지 취재결과 확인된 셈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전국 240여 개 당원협의회를 통해 150만 당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작년 1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17개 시도당의 재확인 작업을 거쳐 당원 명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 시당의 경우 12개 지역 12명의 국회의원들과 출마 예정자들이 올해 2월 말에 경선이 치러진다는 가정하에 지난해 7월 말까지 책임당원 모집에 열을 올렸다. 일반 당원이 책임당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2,000원 이상 당비를 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대구시당 책임당원은 지난해 3월 9천여명에서 올 1월 3만3천여명까지 늘어났다. 12개 지역구당 평균 2,700여명의 책임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경선에 참여한다.

통상 새누리당의 경우 당원 명부를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은 볼 수 있다. 당원 명부가 중앙당과 대구시당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지만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출력이 되지 않고 특정인이 로그인하면 기록으로 남는다. 경선 일정이 확정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 예비후보들에게 일괄 전달된다. 하지만 일부 발 빠른 예비후보나 현역 의원들은 당원 명부를 확보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에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정치신인들의 경우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후보 결정?

대구에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자의 경우 “실태조사를 진행한 당협이나 시도당의 경우 해당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령당원마저 여전히 존재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에 의해 지역구 총선 후보자가 결정될 판”이라며 “이래서야 경선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본지 취재과정에서도 유령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맞다’고 거짓말을 해도 이를 검증할 수단이 없는 점이 한계로 다가왔다.

특히 대구동을은 유승민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정치생명을 건 사생결단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지역이다. 유 의원은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2005년 10월 대구동을 재보선에 출마해 지역구 의원이 됐다. 이후 18, 19대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다. 또한 2010년 7월부터 이듬해인 6월까지 대구시당 위원장을 지냈고 2015년 2월부터 그해 7월까지 원내대표직을 수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정가에서는 유 의원 측에서 상당기간 동안 지역구의 유령당원들을 관리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2월 11일 본지 기자에게 “TK 지역에는 새누리당에 대한 열정적 사랑을 담은 충성 당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령당원이라니, 유령당원에 대한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는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인사는 “유령당원은 실제 필요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옛 1990년대 당원 가운데 현재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만 후보 캠프관계자는 “유령당원에 대해 소문은 얼핏 들은 적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치는 못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유승민 캠프에서 만약 유령 당원을 관리해 왔다면 과연 유 의원이 말한 헌법정신에 유령당원도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쓴소리를 보냈다.

“유 의원 헌법정신에 유령당원도 있나”

새누리당 내 유령당원 문제는 대구동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됐다. 대전 중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예비 후보 4명은 지난 2월3일 대전시당에서 유령당원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전 중구에만 유령당원이 최대 300명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당은 예비 후보자들에게도 당원 전수조사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예비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선이 시작되는 2월 말에 가서 유령당원이 발견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에 너무 늦다며 당원 명부를 만든 중앙당 책임자들이 명부를 만든 현역이거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구나 정치신인들은 “유령당원들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경선과정에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밝히고 있는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급기야 사태의 심각성이 깊어지자 김 대표는 “당원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지역은 (당원조사를 배제하고) 100% 국민여론조사로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02 일요서울 | 정 치 제 1137 호 | 2016년 2월 15일(월요일)

단독입수 *유승민 대구동을 유령당원 수백명 관리 의혹*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대구동을 새누리당 일부 당원 명부 중 무작위 전화를 걸어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유령당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당원이란 예당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경선 참여를 목적으로 특정 후보가 당원명부에 이름만 올려놓은 당원을 말한다. 일종의 '위장전입'으로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한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경선을 위해 사용하는 편법이다. 새누리당은 4.13총선과 관련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면서 국민 70%, 당원 30%를 반영할 계획이라 상당한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정치신인들은 경선에 엄벽에 당원명부를 받기 때문에 경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대구 지역의 유령당원 실태를 알아봤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본지, 200명 당원 일일이 전화해 확인

〈일요서울 특별취재부〉
ilyoseoul@ilyoseoul.co.kr

본지가 입수한 200여명의 대구동을 새누리당 당원 명부는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명단이다. 새누리당은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당 차원에서 당비대리납부, 허위기명 등 유령당원을 솎아내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본지가 이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여전히 유령당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구동을 당원 명부에 있는 30대 여성 박모씨(0109390****)의 경우 확인 전화를 한 결과 이름도 달랐고 거주지는 부산이었다. 박씨는 2월12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구동을에 산 적이 없고 작년에 번호를 바꿨다"며 "새누리당 당원도 아니다"고 밝혔다. 기자가 왜 이름이 등재돼 있느냐고 묻자 박 씨는 "나도 모르겠다"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난 전라도 순천에 살고 있는데…"

40대 여성 최모씨(0108855****)의 경우에는 남자가 받아 성도 틀리고 이름도 달랐다. 최 씨는 "나는 전라도 순천에 살고 있다"며 "1년 전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예전에 이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이 당원이었는지 모르겠다"고 추측했다. 이 인사는 "새누리당에서 하도 문자가 와서 스팸처리했다"면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전했다. 전남 순천뿐만 아니라 광주에 거주하는 인사도 있었다.

명부에는 한모씨(0107602****)가 남성으로 돼 있었는데 거주지는 전남 광주로 돼 있고 대구에는 단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인사 역시 "이름도 내가 아니고 새누리당 당원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불쾌한 듯 전화를 끊었다. 50대 남성 박모씨(0106661****)는 전남 화순에 거주하고 휴대폰을 2G에서 3G로 바꾼 지 몇 년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와 인접한 인사들도 있었다. 20대 신모씨(0109950****)의 경우 "경산에 거주하고 있다"며 "당원도 아니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이나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동구을에 거주하지만 당원이 아니라는 인사도 있었다.(박모씨, 50대 여성) 20여 명에게 전화를 건 결과 당원으로 밝혀진 인사는 달랑 두 사람뿐이었다. 박모씨(0106661****)의 경우 대구동을에 거주하고 당원에 가입한 사실도 인정했다. 또한 서모씨(0103543****)도 자신이 책임당원임을 시인했다.

반면 대구동을에 거주하다 중남구로 이사간 사람도 여전히 대구동을 당원으로 잡혀 있었다. 40대 여성 홍모씨(0102526****)의 경우 "새누리당 당원은 맞는데 중남구로 2개월 전에 이사를 왔다"며 "대구 시당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본지가 200여 명의 당원명부 중에서 무작위로 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표본조사를 한 결과 단 두 명이 대구동을에 거주하는 당원이었고 나머지는 당원도 아니고 이름과 거주지도 달랐다. 휴대 전화 번호만 맞지 사실상 90%가 유령당원인 셈이다. 하지만 수상한 점도 발견됐다. 이름도 맞고 휴대폰 번호도 맞지만 거주지가 대구동을 인근 지역이고 당원도 아니라는 경우다.(김모씨, 달서구 50대남성)

결국 중앙당에서 유령당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본지 취재결과 확인된 셈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전국 240여 개 당원협의회를 통해 150만 당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작년 11월부터 올 1월말까지 17개 시도당의 재확인 작업을 거쳐 당원 명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 시당의 경우 12개지역 12명의 국회의원들과 출마 예정자들이 올해 2월말에 경선이 치러진다는 가정하에 지난해 7월말까지 책임당원 모집에 열을 올렸다. 일반 당원이 책임당원이 되려면 6

<일요서울> 2016년 2월 15일자 2면

시정요구이유

① 시정요구인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선관위 등록)이면서 새누리당으로부터 후보추천을 받기 위해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일요서울이 허위의 사실로 시정요구인이 유령당원을 가입시켜 관리하고 있다는 기사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파렴치하고 편법을 일삼는 후보라는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저촉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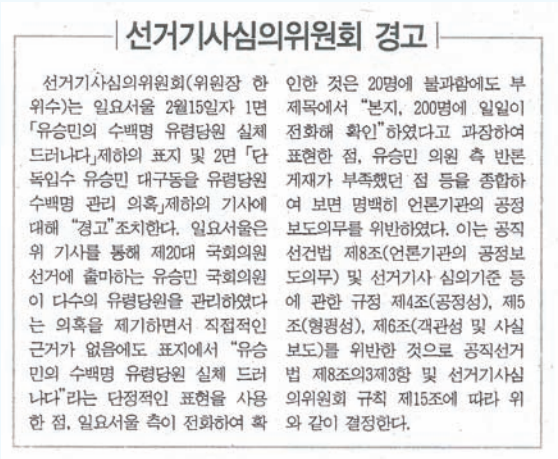
② 피시정요구인이 정체불명의 명단을 유령당원 명단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당원과 당원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국민들과 새누리당 당원들의 불신을 부추겨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게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③ 피시정요구인은 대구 동구을에 광범위한 유령당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온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와 당원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④ 유승민 국회의원의 경쟁후보인 대구 동구을 이재만 예비후보는 2월 18일 일요서울 보도를 인용 '대구 동구 을 유승민 국회의원은 수백 명의 유령당원 관리의혹을 해명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또한 이재만 예비후보의 보도자료와 일요서울의 해당 보도를 인용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매일신문, 경북일보, 경북매일신문, 대구신문 등이 유령당원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해당 보도 내용이 SNS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다. 일요서울의 근거 없는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시정요구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정요구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피시정요구인에 대한 경고 및 표지 제목의 크기와 보도된 지면의 크기와 동일한 수준의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결정후보도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한위수)는 일요서울 2월15일자 1면 「유승민의 수백명 유령당원 실체 드러나다」제하의 표지 및 2면 「단독입수 유승민 대구동을 유령당원 수백명 관리 의혹」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일요서울은 위 기사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유승민 국회의원이 다수의 유령당원을 관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직접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표지에서 "유승민의 수백명 유령당원 실체 드러나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일요서울 측이 전화하여 확인한 것은 20명에 불과함에도 부제목에서 "본지, 200명에 일일이 전화해 확인"하였다고 과장하여 표현한 점, 유승민 의원 측 반론 게재가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백히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일요서울> 2016년 3월 7일자 3면

3. 경고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11
시 정 요 구 인	**류성걸** 대구 동구 동대구로 525-1, 은종빌딩 3층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국제뉴스** 서울 송파구 중대로 156, 4층 대표이사 김영규
심의대상기사	국제뉴스 2016년 2월 4일자 「헌법학자 정종섭, 법 만드는 국회진출 첫발…사무실 개소식 3000명 참석」 제하의 기사 등 18개 기사, 2016년 3월 2일자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2016년 의정보고서 허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및 경고 조치를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정종섭 예비후보의 동정 등에 관한 기사를 연속적으로 게재한 반면, 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시정요구인에 대해서는 비판적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특정 후보자에 관해서는 우호적인 기사를 반복하여 연속보도하면서 경쟁 후보자에 관해서는 일방적 반대 성명서만을 보도하는 것은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헌법학자 정종섭, 법 만드는 국회진출 첫발... 사무실 개소식 3000명 참석

'守義不移心'으로 국민주권·국민행복 추진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두 정종섭 전 안전행정부 장관(전 서울법대 학장)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헌법 1조 2항(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도학정치로 실천키 위해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해 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종섭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守義不移心' (수의불이심: 의리를 지키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의 프랭카드 아래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 최경환·서상기·조원진·홍지만·윤재옥 국회의원과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이윤원 전 대구시의회의장, 류병선 회장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영접, 홍보영상 방영, 동영상 감상, 정종섭 국회의원 예비후보 입장 및 꽃다발 증정,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지역주민의 희망의 소리, 동지들의 협력서약, 후원회장 인사말, 후보 약력 소개, 큰 절, 인사, 축사, 퍼포먼스(희망두루마기 전달, 붓글씨 쓰기 등), 만세삼창, 인사, 환송으로 진행됐다.

지역주민희망의 소리에서 동구지역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 "동구(갑)의 중·고교 부족해소, 공부방 증설, 애국지사 52인을 기리는 호국공원 건립, 동대구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동구발전 방향, 낙후된 지역복지 발전" 등을 주문했다.

이에 참석한 정홍원 전 총리는 "(정종섭 새누리당 예비후보)품질은 내가 보증한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일)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인물이고 그 이상의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은 "정 후보에게는 더 큰 것을 부탁해라"고 한 뒤 "자신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정 후보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종섭 전 행자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이다. 대구 동구 발전을 위해 믿고 맡기면 누구보다 일을 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상기·홍지만 국회의원도 "대구 동구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오늘 이 행사는 대구시민과 동구주민이 중심이고, 오늘 이후 국민과 동구 주민, 국가 이익과 지역 발전만 생각하겠다."며 "교수로서의 정종섭, 장관으로서의 정종섭은 모두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들과 손잡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민과 동구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오랫동안 갈망해 온 변화와 혁신을 꼭 이뤄 대구의 옛 영광과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정치권을 향해 "지금 이 나라에 정치는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경제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고 강조했다.

동구의 도약을 위해서는 "동구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 동대구벤처벨리 등과 함께 다시 대구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청년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해 동대구로를 젊음의 중심으로 만들고 교육여건을 개선해 교육하기 좋은 도시, 복지회관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살기편한 동구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정책의 목표를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에 두고, 모든 정책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강조했다."며 "헌법 1조의 원리를 대통령이 직접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최경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 게 있네 없네 해도 역대 정부가 못한 거 해내고 있다. 통진당 해산을 누가 했나? 국정교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낸 대통령이 있었나? "라고 반문 하며 "국정운영을 국회에서 도와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사람이 필요하다. 정종섭 후보가 해낼 수 있다. 행자부 주무르던 실력에 그거 안 되겠나. 대구가 잘돼야 저희 경북(경산)도 떡고물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정종섭 후보는 19대 국회의원 공천 심사부의원장으로 원칙과 정도를 지켜 잘했다."며 "국회는 헌법기관인데 정종섭 후보는 헌법학자로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인물 이라"고 치켜세웠다.

퍼포먼스는 정종섭 후보자가 딸 승은씨가 대구(대구동구) 지역의 희망과 바램을 적은 희망두루마기를 전달해 입고, 대구 시목인 전나무에 붓을 달아 '守義不移心' (수의불이심)을 써 시민(동구)과의 약속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정종섭 도약하는 우리 동구 만세!", "대구혁신 이끌어가는 새누리당 만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외쳤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대 법대 교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장관직에서 퇴임하면 교수직 휴직 사유가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지난달 13일 자동으로 서울대 교수로 복직됐다."며 " 박근혜정부 성공을 위해 뛰어든 이상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뉴스> 2016년 2월 4일자



[정치] 정종섭 동갑후보, '동대구-유통단지 관통 프로젝트' 공약발표

(서울 = 국제뉴스)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동구(갑) 예비후보는 14일 건기사무소에서 동구공약 비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구와 경단을 5~6km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동대구-유통단지 관통 프로젝트'(약 3000억원 소요)공약을 발표했다.

박중진 기자 2016-02-14

[정치] 정종섭 새누리당 예비후보, 봉제 산업의 새로운 활력 방안 모색

(서울 = 국제뉴스)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동구(갑) 예비후보는 12일 대구 동구 신암동 일대 100년사의 봉제공장을 둘러보고 사업관련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지역에서 봉제 사업을 하고 있는 A사 임원 관계자 "원근에는 속련된 직원을 구하기도

박중진 기자 2016-02-12

[정치] 정종섭 예비후보, SNS를 통해 청년층, 주민 5000여명과 대화

(서울 = 국제뉴스)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동구(갑)예비후보가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층-주민 5000명과 소통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정종섭 예비후보의 페이스북은 정치적인 메시지보다 일상적 노동자와 함께 할만보도를 같은 모습과 지역의 길

박중진 기자 2016-02-12

[정치] 정종섭 예비후보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공사현장 방문

(서울=국제뉴스) 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동구(갑) 예비후보자는 11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공사현장을 방문 공사 관계자의 브리핑을 들은 후 현장에 직접 나가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진행 방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

박중진 기자 2016-02-12

[정치] 정종섭 예비후보, 노숙선교회 찾아 배식 봉사

(서울 = 국제뉴스)박중진 기자 = 정종섭 예비후보는 4일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노숙선교회를 찾아 십 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식봉사를 하고 노숙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배식봉사 이후 식사자리에서 노숙인들은 대구의 경제를 살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박중진 기자 2016-02-06

[정치] 정종섭 새누리당 동구(갑) 예비후보, 고문삼 찾아 주민에로 침허

(서울 = 국제뉴스) 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동구(갑)예비후보는 4일 대구시 동구 고문삼을 찾아 파지를 주워 생활하는 불쌍의 고충을 듣고, 마국(동구)사민들의 꿈과 희망, 내에이 학생 희망두루미기에 즐겨 적었다.정종섭 예비후보는 "대부분의 대

박중진 기자 2016-02-04

[정치] 헌법학자 정종섭, 법 만드는 국회잔술 첫발...사무실 개소식 3000명 참석

(서울 = 국제뉴스)박중진 기자 =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두 정종섭 전 안전행정부 장관(전 서울법대 학장)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헌법 1조 2항(모든 공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도학정치로 실현키 위해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박중진 기자 2016-02-04

[정치] 정종섭 예비후보, 재난안전 기원제 참석

(서울 = 국제뉴스)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4일 '도동 측백나무 숲 보존 및 재난안전 기원제'에 참석했다.이날 방사는 동부소방서와 봉로자력의용소방대 주관으로 도동 측백나무 숲 공원에서 정면기념물 제1호인 측백

박중진 기자 2016-03-06

[정치] 정종섭 후보, 3·1절 신암선열공원 참배, 제일교회 기념제현행사 참석

(서울 = 국제뉴스)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제97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독립만세운동 기념일이 태극기 달기와 나라사랑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정종섭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는 대구 동구 신암선열공원을

박중진 기자 2016-03-01



[정치] 정종섭 예비후보, '동촌유원지 생생 프로젝트' 발표

(서울=국제뉴스) 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자는 동촌유원지 생생 프로젝트인 동촌유원지 재정비 사업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이번 핵심 공약은 동촌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금호강 수변

박중진 기자 2016-02-29

[정치] 정종섭 예비후보, 맘우당공원 토요 배식 자원봉사

(서울 = 국제뉴스)박중진 기자 = 정종섭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참방북한나눔대당(회장 이만희)이 맘우당공원에서 실시하는 '토요일 점심 배식'에 자원봉사자로 참석했다.정종섭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는 이날 목거노인

박중진 기자 2016-02-27

[정치] 정종섭 예비후보, (사)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총재 등 지지

(서울=국제뉴스) 박중진 기자 = 정종섭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 건거사무소에 25일 참방국 사단법인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총재를 비롯해 해병대 전우 등 200명이 방문해 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 총재는 "먼 정부의 중요 인물이고 방정자지부 장관을 지

박중진 기자 2016-02-26

[정치] 정종섭 후보, '10대 대구혁신 공약' 발표

(서울=국제뉴스) 박중진 기자 = 정종섭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대구의 문과 미래를 담는 대구혁신 10대 공약을 24일 대구시청 앞에서 발표했다.정종섭 후보는 대구시가 당면하고 있는 시민과 미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과제 10가지를 검선해

박중진 기자 2016-02-24

[정치] 정종섭 후보, KTX 대구도심구간 26Km 지하화!

(서울 = 국제뉴스) 박중진 기자 = 정종섭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대구의 도심을 가로 지르는 KTX 통과구간 전체를 반드시 지하화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23일 밝혔다.정종섭 예비후보는 "일정만보로 다시 쓰는 대

박중진 기자 2016-02-23

[정치] 정종섭 후보, '대동구여지도' 다시 쓰겠다고 다짐!

(서울 = 국제뉴스)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는 평소의 소신대로 '주민이 주인이다', 정책은 주민에게서 나온다' 라는 기치를 내걸고, '일정만보로 다시 쓰는 대동구여지도' 라는 문구를 책에 걸고 3

박중진 기자 2016-02-23

[정치] 정종섭 예비후보, '신암, 신천, 효목 노후동네 활력 프로젝트' 발표

(서울 = 국제뉴스)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는 22일 개별적인 노후 주택과 연립주택에 공공주거관리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비전공약 3 '신암, 신천, 효목 노후동네 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이번 공약은

박중진 기자 2016-02-22

[정치] 정종섭 예비후보자,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서울=국제뉴스) 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자는 18일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주최한 '국가안보 및 나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난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강경

박중진 기자 2016-02-18

[정치] 대구 동구 전 구의회 의원 16명, 정종섭 후보 지지선언

(서울=국제뉴스) 박중진 기자 = 정종섭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18일 전 동구의회의원 16명이 정종섭 후보의 지지선언을 했다. 전 동구의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되고난 뒤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지역이라 해도 4년 내내 한 번도 얼

박중진 기자 2016-02-18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2013년 의정보고서 허구

대구 동구 신중하 구의원, 성명서에서 밝혀

대구 동구 신종하 구의원은 동구(갑) 류성걸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2016년 의정보고서는 허구라고 3월 1일 대구 동구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산전문가라는 류성걸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16년 의정보고서에서 "완성되지 않은 사업을 자랑만 하고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고, 애매모호하게 예산 투입 시점을 표기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점의 유형은 "한 덩어리 사업을 2곳 이상에서 사업한 것처럼 예산을 중복 게시했고, 끼워 맞추기식 예산으로 숫자 놀음을 했으며, 민간 투자 사업을 본인의 성과로 포장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구 동구 신종하 구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서

예산전문가의 허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라!

우리 동구 지역의 선량으로 4년을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은 동구 구의원으로서 허구를 밝혀 지역민들에게 공익을 위해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지난 2012년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달서갑 공천 유력 후보가 우리 지역 동구갑에 낙하산을 타고 뚝 떨어졌다.

영문도 모르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되어 온 후보에게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 당선시켰다.

당시 대구는 썩은 작대기만 꼽아도 당선되는 '묻지마 한나라당' 분위기였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검증 없이 당선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검증을 해서 바로 잡아 대구 동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 자칭 예산전문가로 불리우는 류성걸 예비후보의 2016년 의정보고서를 보면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류성걸 예비후보가 의정보고서에 자랑스럽게 말한 국비 부분에 대해 대구시청과 대구 동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결정 통지 내용을 받아 조목조목 비교 검토 결과, 예상대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완성되지 않은 사업을 자랑만 하고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
◆ 애매모호하게 예산 투입 시점을 표기한 사례로 분류되었다.

문제점의 유형을 보면

◆ 한 덩어리 사업을 2곳 이상에서 사업한 것처럼 예산을 중복 게시한 사례
◆ 끼워 맞추기식 예산으로 숫자 놀음한 사례
◆ 민간 투자 사업을 본인의 성과로 포장한 사례

첫 번째, 한 덩어리 사업을 2곳 이상에서 사업한 것처럼 예산을 중복 게시한 사례는

신암동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으로 1개 덩어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보고서의 지도와 구체적인 항목에서 1번(신암 1동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2013년 183억원, 2014년 50억원)과 14번(신암 4동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2013년 183억원, 2014년 50억원) 항목을 별개의 사업에서 국비를 받았다고 오인하도록 중복 기재하였다.

또한 대구시 정보공개된 자료에 보면 2015년 국비투입부분에서 대구시 자료 399억원, 류성걸 의정보고서에서는 233억원으로 165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총 399억원의 국비를 받았다는데 류성걸은 233억원밖에 못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두 번째, 끼워 맞추기식 예산으로 숫자 놀음한 사례로

1.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이다.

2013년 류성걸 후보가 말하는 국비는 정보공개보다 54억원, 2014년 164억원이 더 증가 발표되어 있다. 이것은 2012년 투입된 국비 200억을 류성걸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 총 투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숫자 놀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안이 증액된 부분 없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음으로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노력한 부분은 없다고 나와 있다. 이것은 정부안에서 국회의원이 그냥 통과만 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올해까지 아직 35.8%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았지만, 2015년까지 남은 금액 934억9,300만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8억8400만원밖에 국비를 따내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공사비는 930억300만원(64.19%) 남아 있다.

2. 성동고가교 건설공사

대구시 정보공개에는 2013년 35억400만원이었으나, 류성걸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2013년 국비는 305억원으로 정보공개보다 269억7400만원이 많이 발표되어 있다.

2014년 대구시는 148억2,600만원, 류성걸은 170억원으로 21억7,400만원 더 받아온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2016년 대구시는 212억7,000만원, 류성걸은 78억원 국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2013년 2014년 대구시보다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고 주장한 결과, 2016년은 결국 134억7,000만원 적게 받았다며 예산전문가다운 수치 놀음을 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세 번째, 민간 투자 사업을 본인의 성과로 포장한 사례로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대표적이다.

신세계, 동우EC, 덕민CD, 대농 4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 2010년 8월 신세계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당선되었다.

2012년 5월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법인 설립하여 전액을 시공사인 신세계 측에게 투자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최근 대구시에서 요청한 동대구로~센터 지하 3층 연결에 대해 300억원 추가 비용을 신세계 측이 "투자회사가 있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난색을 표하였다.

류성걸 예비후보가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네 번째, 완성되지 않은 사업을 자랑만 하고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

수협공판장 이전 사업으로 수협에서 자체 발생한 회계여서 대구시에서 알 수 없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류성걸은 2013년 수협 자체회계에 120억원을 반영하였다면서 아직까지 이전되지 않고 있다.

류성걸의 의정보고서에 120억원 수협 자체 회계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수협의 자체적인 회계반영을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고 아직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이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 한번 없이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수협공판장 조기 이전'을 말하고 있는 계속 우려먹기식 공약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공판장은 2015년 1월 수협중앙회가 대구시 동구 용계동 일원 1만3, 294㎡(4021평) 부지에 380억원을 투입 물류센터 건립 계획 발표하였고, 2015년 6월 신암동 수협공판장은 SM그룹의 (주)우방에게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153억원 낙찰되어 기존 재개발을 추진해오던 업체 '신암동 태왕아너스'의 재개발 사업에 '알박기' 문제를 야기시키며 제동을 걸며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자신이 수협예산에 120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말하며 수협에서 100억원 반영보다 이전부지의 금액 380억원을 반영했다면 속전속결로 이전문제가 처리되었으며, 지역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이 지금처럼 문제를 더 꼬이게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 류성걸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잔치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도 지역주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애매모호하게 예산 투입 시점을 표기한 사례로

신천도서관 건립 사업

대구 동구청에서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류성걸 의정보고서에는 2013년도에 집행했다고 표기를 하였지만, 실제 투입 시점은 2014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0억8,000만원과 동구청구비로 8억1,000만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실제 투입된 공사비도 정보공개에는 18억9,000만원이지만 류성걸 의정보고서에는 15억8,000만원으로 3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전문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였다는 것은 예산전문가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는 숫자를 자신 마음대로 더 추가를 하고 빼는 이상한 숫자 놀음은 국회의원으로 할 처신인가?

또한 자신이 예산을 직접 편성하지 않았으며 관여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도 아니고 순수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압력을 넣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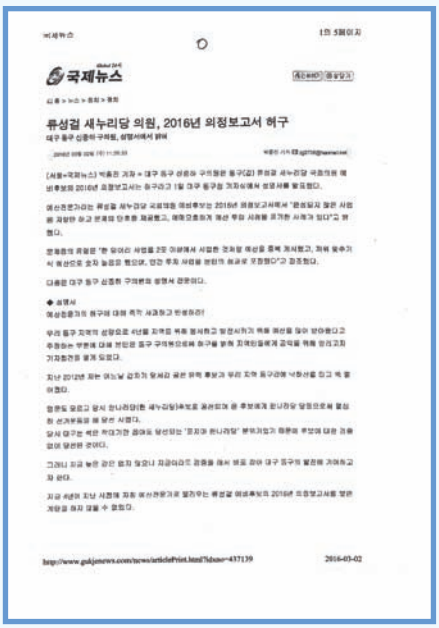
설령 이 문제는 지역을 위해 했다고 치더라도 수협공판장 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예산을 이전 부지를 매입할 금액을 받아와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120억원 때문에 사업진행이 더디다보니 공판장이 공매 처분되었고, 이 수협 주지를 (주)우방이 매입함으로 재개발 사업이 순항에 놓여 있는 지역에 '알박기식'으로 등장한 우방에게 개발부지의 30%를 내어주는 바람에 지역의 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류성걸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고개 숙여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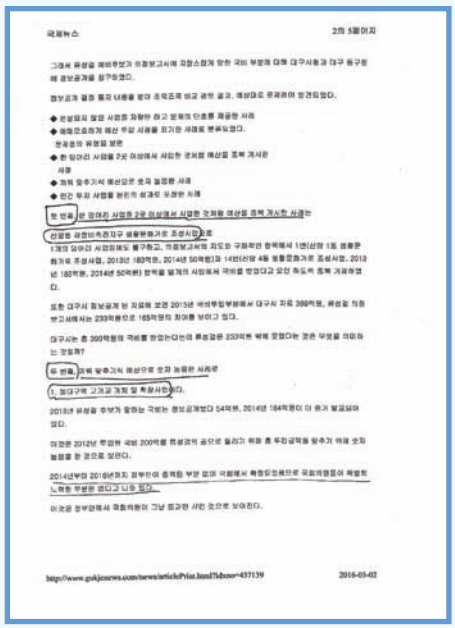
2016. 3. 1

동구 구의원 신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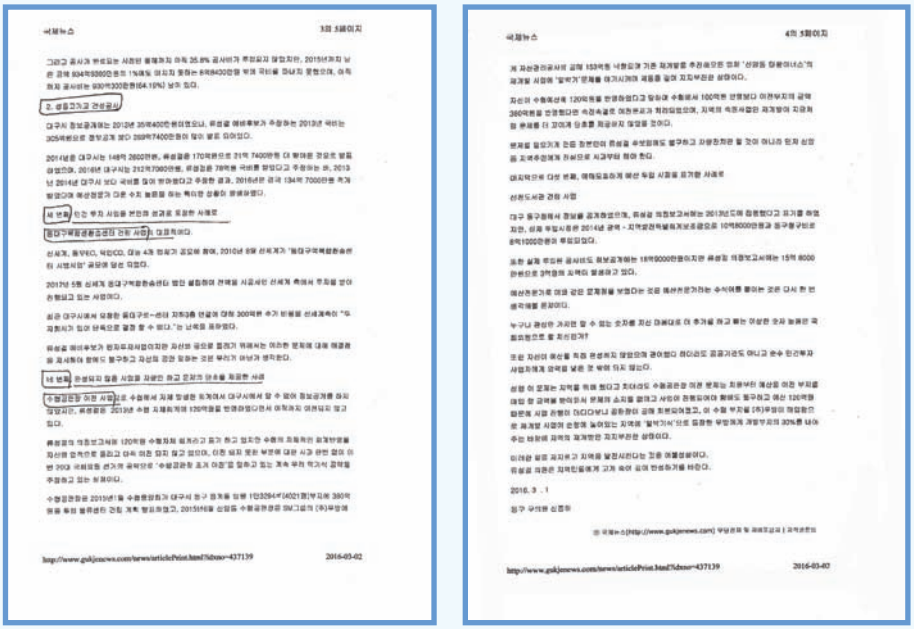


국제뉴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2016년 의정보고서 허구



<국제뉴스> 2016년 3월 2일자



<국제뉴스> 2016년 3월 2일자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 '국제뉴스'는 지난 2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한 달 사이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정종섭 후보 관련 기사를 총 18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게재하였다. 게재된 기사의 내용은 주로 정종섭 후보의 선거운동 등을 담은 단순 근황 소개가 주 내용이다.

반면 동기간 같은 예비후보자 신분인 본인의 지역활동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단 1회도 기사화하지 않았다. 이는 의도적으로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5조(형평성) 2호에 위반되는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라고 시정요구인은 판단한다.

2016년 3월 2일 피시정요구인은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2016년 의정보고서 허구'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해당지역(대구 동구) 구의원의 성명서 내용(성명서 전문 포함)을 보도하였다. 본 의원실의 국제신문에 대한 항의로 현재 동 기사는 인터넷에서 내려진 상태이다.

이는 선거기사 심의 기준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3호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을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이며, 기사의 제목 또한 동조 7호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왜곡된 기사'라고 시정요구인은 판단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해당언론사 및 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 결정해주시기 바란다.

4. 주의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2
시 정 요 구 인	**강석진** 경남 거창군 거창대로 1길 77 희성타운빌딩 2층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군민신문(거창군민신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3-1 대표이사 하정용
심의대상기사	거창군민신문 2016년 1월 4일자 1면 「강석진 전 군수 복당 심사 보류, 사실상 4•13총선 불가능」 제하의 기사 및 2016년 1월 18일자 1면 「강석진 전 군수 새누리당 복당, 총선 출마 기정사실 그러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들을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강석진 예비후보자의 복당가능성 및 해당 지역구 총선 불출마 약속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제목과 부제목에 '사실상 4·13 총선 출마 불가능', '"거창서는 선출직 출마 않겠다" 약속', '보궐선거 유발 기초단체장 20% 감산점'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내용이 제목 및 부제목에서 총선 출마 불가능 여부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보궐선거 유발 단체장의 공천 감산점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기사 내용에 취재원이나 취재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후보자 측의 반론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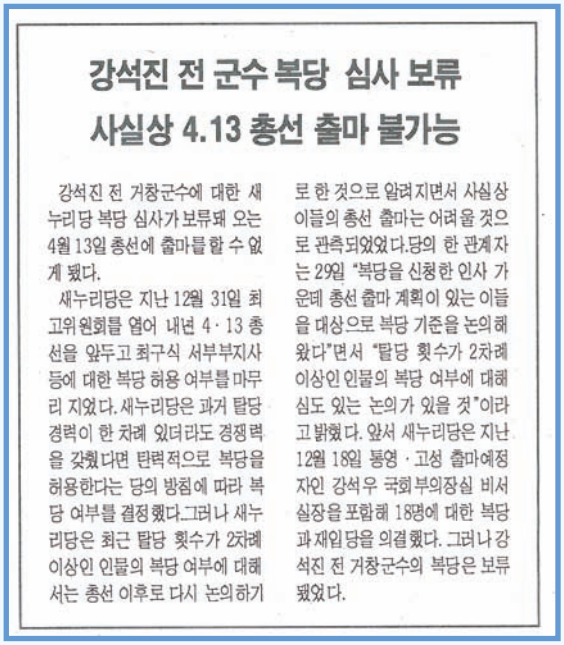
강석진 전 군수 복당 심사 보류 사실상 4.13 총선 출마 불가능

강석진 전 거창군수에 대한 새누리당 복당 심사가 보류돼 오는 4월 13일 총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월 3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내년 4.13 총선을 앞두두 최구식 서부부지사 등에 대한 복당 허용 여부를 마무리 지었다. 새누리당은 과거 탈당 경력이 한 차례 있더라도 경쟁력을 갖췄다면 탄력적으로 복당을 허용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복당 여부

를 결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근 탈당 횟수가 2차례 이상인 인물의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들의 총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었었다.

당의 한 관계자는 29일 "복당을 신청한 인사 가운데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복당 기준을 논의해 왔다"면서 "탈당 횟수가 2차례 이상인 인물의 복당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2월 18일 통영·고성 출마예정자인 강석우 국회부의장실 비서실장을 포함해 18명에 대한 복당과 재입당을 의결했다. 그러나 강석진 전 거창군수의 복당은 보류됐었다.



강석진 전 군수 복당 심사 보류
사실상 4.13 총선 출마 불가능

강석진 전 거창군수에 대한 새누리당 복당 심사가 보류돼 오는 4월 13일 총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월 3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최구식 서부부지사 등에 대한 복당 허용 여부를 마무리 지었다. 새누리당은 과거 탈당 경력이 한 차례 있더라도 경쟁력을 갖췄다면 탄력적으로 복당을 허용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복당 여부를 결정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근 탈당 횟수가 2차례 이상인 인물의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들의 총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었었다.당의 한 관계자는 29일 "복당을 신청한 인사 가운데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복당 기준을 논의해 왔다"면서 "탈당 횟수가 2차례 이상인 인물의 복당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2월 18일 통영·고성 출마예정자인 강석우 국회부의장실 비서실장을 포함해 18명에 대한 복당과 재입당을 의결했다. 그러나 강석진 전 거창군수의 복당은 보류됐었다.

<거창군민신문> 2016년 1월 4일자 1면

강석진 전 군수 복당, 총선 출마 기정사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 갈 때 신성범 의원에 "어떤 선출직에도 출마 않겠다" 약속
새누리 경선 룰 "보궐선거 유발 기초단체장 20% 감산점"

강석진 전 군수가 새누리당에 복당이 확정됐다고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은 떠들썩하다. 이는 곧 총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들떠 있는 분위기다. 본인도 복당 후 언론에 당연히 산청·함양·거창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이 모를 수 있는 강 전 군수에게는 신성범 의원에게 한 약속이 하나 있다. 2013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강 전 군수를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면서 그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다. 신성범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오라고 것이었다. 그래서 강 전 군수는 신성범 의원을 찾아가 "앞으로 거창에서는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선처했다.

신성범 의원은 강 전군수의 뜻에 따라 그를 도와주어 대표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었으며 현재의 그 자리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로 갈 수 있었다. 만약 그때 비서실장에 가는 것에 대해 신성범 의원이 '노(No)'라고 했더라면 비서실장으로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의 그 자리까지도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그때의 약

속을 저버리고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를 한다든지 경선에만 붙어보겠다든지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것에 대해 배은하고도 망덕하는 것"이라고 강 전 군수를 맹비난했다.

또 하나 새누리당의 경선룰이 정해졌는데 그중에 강석진 전 군수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감산점이 있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에서는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의 감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강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거창군수직을 던지고 나가 거창군수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력이 있다.



강석진 전 군수 새누리당 복당
총선 출마 기정사실 그러나....

2014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 갈 때
신성범 의원에 "거창서는 선출직 출마 않겠다" 약속

새누리 경선 룰 "보궐선거 유발 기초단체장 20% 감산점"

강석진 전 군수가 새누리당에 복당이 확정됐다고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은 떠들썩하다. 이는 곧 총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들떠 있는 분위기다. 본인도 복당 후 언론에 당연히 산청·함양·거창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이 모를 수 있는 강 전 군수에게는 신성범 의원에게 한 약속이 하나 있다. 2013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강 전 군수를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면서 그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다. 신성범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오라고 것이었다. 그래서 강 전 군수는 신성범 의원을 찾아가 "앞으로 거창에서는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선처했다.

신성범 의원은 강 전군수의 뜻에 따라 그를 도와주어 대표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었으며 현재의 그 자리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로 갈 수 있었다. 만약 그때 비서실장에 가는 것에 대해 신성범 의원이 '노(No)'라고 했더라면 비서실장으로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의 그 자리까지도 갈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그때의 약속을 저버리고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를 한다든지 경선에만 붙어보겠다든지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것에 대해 배은하고도 망덕 하는 것"이라고 강 전 군수를 맹비난했다.

또 하나 새누리당의 경선룰이 정해졌는데 그 중에 강석진 전 군수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감산점이 있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에서는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의 감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강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거창군수직을 던지고 나가 거창군수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력이 있다.

<거창군민신문> 2016년 1월 18일자 1면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은 2016년 1월 18일자 1면 보도에서 '강석진 전 군수 새누리당 복당, 총선 출마 기정사실 그러나…'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바 있다. 보도 내용은 "2013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강 전 군수를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면서 그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다. 신성범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오라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강 전 군수는 신성범 의원을 찾아가 '앞으로 거창에서는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선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자리는 원내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이지, 상대후보의 양해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상대후보와 약속이 있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내용은 상당히 악의적이다. 2016년 1월 4일자(365호) 보도에서 '새누리당 복당 불허로 4·13총선 출마 불가능' 이라고 보도한 뒤, 시정요구인이 2016년 1월 11일 새누리당에 복당이 되자, 뒤이어 나온 2016년 1월 18일자(366호) 보도에서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정요구인이 약속도 지키지 않은 사람처럼 교묘하게 후보자를 비난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또한 새누리당 공천룰 가운데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 감산점(광역 기초단체장 20%, 광역 기초의원 10%)에 대해 "강 전 군수는 2008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거창군수직을 던지고 나가 거창군수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력이 있다"며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총선에 해당되며 이번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피시정요구인은 상대 후보의 운동원인양 시정요구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악랄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은 2월 중순에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유언비어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며, 해당 신문에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6
시 정 요 구 인	**윤관석** 인천 남동구 만수5동 947-3 만수빌딩 2층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구 극동빌딩) 12층 대표이사 김현호
심의대상기사	뉴시스 2016년 2월 22일자 「20대 총선서 조전혁 예비후보가 윤관석 후보에 15.8% 크게 앞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인천시 남동구을 선거구 여론조사결과 새누리당 조전혁 예비후보가 시정요구인을 크게 앞섰다고 보도하면서, 기사 말미에 조전혁 예비후보의 공약 등을 게재하였다. 하지만 특정 선거구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우세한 후보자의 공약만을 소개하는 것은 후보자 간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0대 총선서 조전혁 예비후보가 윤관석 후보에 15.8% 크게 앞서

오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인천시 남동구을에 출마하는 조전혁 예비후보(18대 전 국회의원)가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4·13 총선에서 인천시 남동구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조전혁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예비후보는 19대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예비후보를 오차 범위 밖인 15.8%포인트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만약 이번 4월 13일에 실시되는 인천 남동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새누리당 후보로 조전혁 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윤관석 국회의

원이 출마해, 1대 1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질문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 예비후보를 선택한 응답비율은 47.9%,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후보를 선택한 응답비율은 32.1%, 없음·모름·무응답은 20.0%순으로 집계됐다.

조 예비후보는 인천 만수1·2·3·4·5·6동, 간석3동, 장수서창동 등 인천 남동구을 지역구의 모든 동에서 윤관석 예비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녀 성별 모두에서도 윤관석 예비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윤 두 예비후보 간 격차는 15.8%로 새누리당 조 예비후보가 더민주 윤 예비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여유 있게 앞서며 본선 경쟁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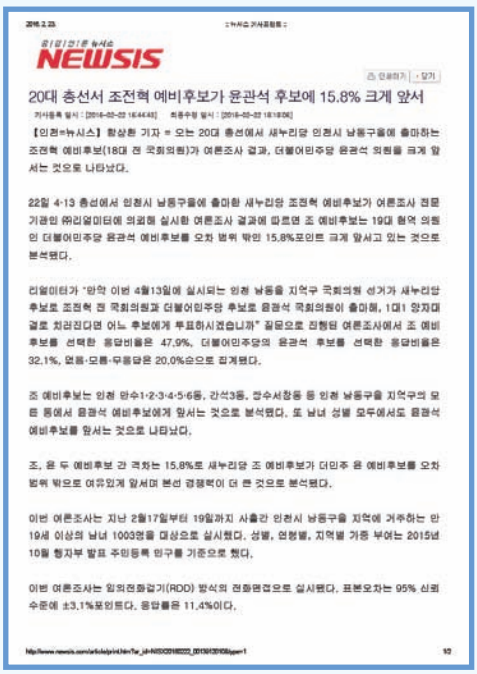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남동구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부여는 2015년 10월 행자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전화면접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4%이다.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인천시 남동구 동남권 도시철도 건설'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대공원역과 서창1지구, 서창2지구, 도림동, 수인선 논현역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인천 서창 1·2지구는 지속적인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입주하면서 현재 인구가 4만명에 육박하고, 2020년 이후에는 6만명이 넘는 소도시로 성장할 예정"이라며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선거공약을 냈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

20대 총선서 조전혁 예비후보가 윤관석 후보에 15.8% 크게 앞서

【인천=뉴시스】 황상환 기자 = 오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인천시 남동구을에 출마하는 조전혁 예비후보(18대 전 국회의원)가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4·13 총선에서 인천시 남동구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조전혁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예비후보는 19대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예비후보를 오차 범위 밖인 15.8%포인트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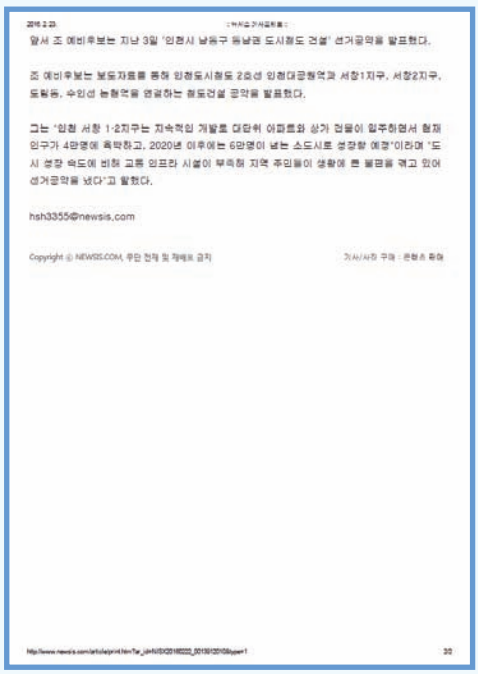
리얼미터가 "만약 이번 4월13일에 실시되는 인천 남동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새누리당 후보로 조전혁 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윤관석 국회의원이 출마해, 1대1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질문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 예비후보를 선택한 응답비율은 47.9%,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후보를 선택한 응답비율은 32.1%, 없음·모름·무응답은 20.0%순으로 집계됐다.

조 예비후보는 인천 만수1·2·3·4·5·6동, 간석3동, 장수서창동 등 인천 남동구을 지역구의 모든 동에서 윤관석 예비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녀 성별 모두에서도 윤관석 예비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윤 두 예비후보 간 격차는 15.8%로 새누리당 조 예비후보가 더민주 윤 예비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여유있게 앞서며 본선 경쟁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월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남동구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부여는 2015년 10월 행자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전화면접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4%이다.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인천시 남동구 동남권 도시철도 건설'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대공원역과 서창1지구, 서창2지구, 도림동, 수인선 논현역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인천 서창 1·2지구는 지속적인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입주하면서 현재 인구가 4만명에 육박하고, 2020년 이후에는 6만명이 넘는 소도시로 성장할 예정'이라며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선거공약을 냈다'고 말했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2016년 2월 22일자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인천시 남동구을에 출마하는 조전혁 예비후보(18대 전 국회의원)가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된 바 있다.

동 보도의 문제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새누리당의 5명의 예비후보자 중 한 명에 불과한 개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후보자의 출마의 변,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등 특정 후보의 홍보에 치우친 점이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해당 기사에 게시하거나 또는 해당 후보의 출마의 변, 공약과 함께 여타 후보의 출마의 변이나 공약, 또는 후보자 소개를 함께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인다.

이에, 시정요구인은 동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2장 제4조 공정성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8
시 정 요 구 인	**김남성**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4 신도아크라티움 7층 B호 김남성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의정부소식**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38-1 2층 (주)의정부소식 대표이사 오세욱
심의대상기사	의정부소식 2016년 2월 4일자 1면 「강세창-김경호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김남성 '허위사실 명함 유포'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일자 1면 「강세창 의정부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 개최 "강한 소신·정의로 반드시 승리"」 및 「김남성 '당명 혼동' 경력기재 유권자 혼란 야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2월 4일자 1면, 3월 3일자 1면 좌측 상단을 통해 특정후보자들의 출마소식, 개소식, 후보자 주장이 담긴 기사를 게재한 반면 우측 상단에 시정요구인의 '허위사실 명함 유포' 관련 기사를 2회에 걸쳐 반복 보도하였다. 하지만 선거보도의 편집, 기사배열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사를 같은 지면, 유사한 위치에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의정부(갑), 지역 고교출신 빅매치 이뤄질까?

강세창(의정부공고)-김경호(의정부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정부 지역 고교 출신 정치인들인 강세창 전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와 김경호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관심이 높다.

두 사람은 의정부지역 출신으로 닮은 점이 참으로 많다. 우선 이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의정부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는 점이다.

강세창 전 의정부시장 후보는 가능초와 경민중, 의정부 공고를 졸업했으며, 김경호 전의장은 중앙초와 경민중, 의정부고를 졸업했다. 김경호 전의장이 강세창 전

시장후보의 중학교 1년 선배로, 비록 소속 정당은 틀리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우리 주변에서 함께 만나고 생활하고 있는 서민 출신이란 점이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 자란 그들이기에 어느 누구보다 서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 아픔을 함께하고 나누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김경호 전의장과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기초의회 선후배 관계이다. 김경호 전의장은 의정부시의회 2·3·4대 의원을 역임했으며,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5·6대 의원에 선출됐다.

그들의 의정활동 활약상도 비슷하다. 호원동을 기반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김경호 전의장과 가능동을 기반으로 시의원에 선출된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지역민의 민원해결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섰으며,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함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역경 또한 수탄하지만은 않다.

2000년도에 정치에 입문한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시의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김남성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하고 새누리당 시장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경선에서 맞붙은 김남성 예비후보는 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정부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남성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경선결과 예상을 깨고 강세창 예비후보가 승리해 지역정가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선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한 내홍과 세월호사건 발생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상대당 후보였던 안병용 시장에게 패해 분루를 삼켜야 했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시간을 보내며 때를 기다리던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그동안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던 김상도 전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고심 끝에 총선 출마를 결정했다.

강 전 시장후보 측근에 따르면 강 전 시장후보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날까지 출마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김상도 전위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았고, 사퇴한 김 전위원장이 출마를 권유해 이번 총선에 나서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의정부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현재 선거운동에 치중하고 있다.

김경호 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995년도에 정치에 입문해 호원동을 기반으로 의정부시의회 2·3·4대 의원과 경기도의회 7·8대 의원에 당선됐으며, 경기북부 의원으로는 최초로 경기도의회 의장에 선출된 지방의회 5선 의원 출신이다.

문희상 의원의 '정치적 아들'로 불려지며 의정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유력주자 중 한사람으로 손꼽혔던 그가 지난 1월 14일 돌연 20여 년간을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역정가에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경호 전의장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탈당에 대한 진한 아쉬움과 함께 문희상 의원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의정부시장 도전을 꿈꿔왔던 김 전의장은 문희상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시장후보자 경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10여일간 단식투쟁을 하며 경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또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문 의원이 당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천명해 놓고도 안병용 시장을 단독 공천해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당시 김 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당내 유력경쟁자인 김경호를 제외시키고 단수로 공천했다"는 불만과 함께 "심사결과를 보면 경기도 시·군 선거구 중 2인 이상의 경쟁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모두 경선으로 결정하였는데 오직 의정부만 단수공천하는 기이한 결정을 했다"라며 단수추천에 대한 강한 의혹제기와 함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 당하는 등의 수모를 겪었다.

이후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마음으로 1년여 가까이 택시기사로 일하며 의정부 바닥민심을 두루 체험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 새로 창당될 가칭 국민의당으로 입당해 의정부(갑) 선거구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한 시대를 같이하며 정치적 역경을 함께 헤쳐 나가고 있는 강세창 예비후보와 김경호 전의장이 의정부의 미래와 그들의 정치적 꿈을 펼치기 위해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 국회의원 선거 역사상 최초로 지역고교 출신들 간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남성 '허위사실 명함 유포' 논란

'前 한나라당 위원장' 경력 새누리당 위원장으로 표기…"당명 혼동" 해명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남성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월 13일 새누리당 의정부(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남성 예비후보는 여러 형태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명함 일부중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인쇄된 명함이 배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인쇄된 명함과 앞면이 동일한 또 다른 명함 뒷면에는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표기된 명함도 배포되고 있다.

새누리당 당원 A씨는 "최근 김남성 예비후보가 당원 행사에 찾아와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란 이력이 인쇄된 명함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지지를 부탁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만일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예비후보는 선거법위반 의혹뿐만 아니라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전망이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7년 11월경 의정부갑 조직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2008년도에 치러진 제18대 총선 때 김상도 변호사에게 공천에 밀려 위원장 자리를 내준 바 있다. 김남성 예비후보가 잠시 위원장직을 맡았을 당시의 당명은 한나라당으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한 지역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당명을 혼동하여 잘못 만든 명함을 몇 장 배부했다"며 "지금은 한나라당이라고 수정한 명함을 돌리고 있다. 선관위에도 경력을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수정했다"고 말한 사실을 기사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당시 경력란에 '(전)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신고했다. 만일 그의 해명처럼 경력을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수정했다면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 명함을 배포했다면 선거법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 등을 배포한 경우는 선거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인지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Talk! 톡! Talk!
독자 여러분께 공간을 드립니다
의정부 소식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투고 문의: 031-855-7211
보내실 E-mail : ubosok@naver.com

U-News 지방자치 이슈를 한눈 소식

의정부소식

로컬 Local 의정부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제21호 www.usosik.com 취재관할: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파주 대표전화 031) 855-7211

의정부(갑), 지역 고교출신 빅매치 이뤄질까?

강세창-김경호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의정부공고〉 〈의정부고〉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정부지역 고교 출신 정치인들인 강세창 전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와 김경호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그 어느 선거때보다 관심이 높다.

두사람은 의정부지역 출신으로 닮은 점이 참으로 많다. 우선 이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의정부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는 점이다.

강세창 전 의정부시장 후보는 가능호와 경민중, 의정부 공고를 졸업했으며, 김경호 전 의장은 중앙초와 경민중, 의정부고를 졸업했다. 김경호 전 의장이 강세창 전 시장후보의 중학교 1년 선배로,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그들만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

특히 두사람 모두 우리 주변에서 함께 만나고 생활하고 있는 서민 출신이란 점이다.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 자란 그들이기에 어느 누구보다 서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 아픔을 함께하고 나누기 위해 정치를 다하고 있다.

또한 김경호 전 의장과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기초의회 선·후배 관계이다. 김경호 전의장은 의정부시의회 2·3·4대 의원을 역임했으며,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5·6대 의원에 선출됐다.

그들의 의정활동 활약상도 비슷하다. 호원동을 기반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김경호 전의장과 가능동을 기반으로 시의원에 선출된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지역민의 민원해결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섰으며,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함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역경 또한 somewhat 비슷하다.

2000년도에 정치에 입문한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시의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김남성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며 시장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경선에서 보복을 김남성 예비후보는 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정부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남성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경선결과 예상을 깨고 강세창 예비후보가 승리해 지역정가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선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한 내홍과 세월호사건 발생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상대 당 후보였던 안병용 시장에게 패해 분루를 삼켜야 했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시간을 보내며 패할 거다리던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그동안 자근거리에서 보필하던 김상도 전 위원장이 감정스럽게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고심 끝에 총선 출마를 결정했다.

강 전 시장후보 측근에 따르면 강 전 시장후보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날까지 출마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김상도 전 위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았고, 사퇴한 김 전위원장이 출마할 권유해 이번 총선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의정부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강세창 전 시장후보는 현재 선거운동에 치중하고 있다.

김경호 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995년도에 정치에 입문해 호원동을 기반으로 의정부시의회 2·3·4대 의원과 경기도의회 7·8대 의원에 당선됐으며, 경기부부 의원으로는 최초로 경기도의회 의장에 선출된 지방의회 5선 의원 출신이다.

본의상 의원의 '정치적 아들'로 불려지며 의정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유력주자 중 한사람으로 손꼽혔던 그가 지난 1월 14일 돌연 20여 년간을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역정가에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경호 전 의장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탈당에 대한 진한 아쉬움과 함께 본의상 의원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의정부시장 도전을 공약했던 김 전 의장은 본의상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시장후보자 경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가 당시 10여 일간 단식투쟁을 하며 경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또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본 의원이 탈락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천명을 놓고도 안병용 시장을 단독 공천해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단식 김 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당내 유력경쟁자인 김경호를 제외시키고 단수로 통산했다"는 발언과 함께 "실시결과를 보면 경기도 사·군 선거구중 20인 이상의 경쟁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모두 경선으로 결정하였는데 오직 의정부만 단수공천하는 기이한 결정을 했다"라며 단수추천에 대한 강한 의혹 제기와 함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 당하는 등의 수모를 겪었다.

이후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마음으로 1년여 가까이 택시기사로 일하며 의정부 바닥민심을 두루 체험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 새로 창당될 가칭 국민의당으로 입당해 의정부(갑) 선거구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한 시대를 감아하며 정치적 역경을 함께 헤쳐 나가고 있는 강세창 예비후보와 김경호 전 의장이 의정부의 미래와 그들의 정치적 꿈을 펼치기 위해 총선콘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 국회의원 선거 역사상 최초로 지역고교 출신들간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세욱 기자

김남성 '허위사실 명함 유포' 논란

'前 한나라당 위원장' 경력 새누리당 위원장으로 표기… "당명 혼동" 해명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남성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의정부(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남성 예비후보는 여러 형태의 선거운동을 명함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명함 일부중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인쇄된 명함이 배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인쇄된 명함과 앞면이 동일한 또 다른 명함 뒷면에는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표기된 명함도 배포되고 있다.

새누리당 당원 A씨는 "최근 김남성 예비후보가 당원 행사에 찾아와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란 이력이 인쇄된 명함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지지를 부탁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반면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예비후보는 선거법위반 의혹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될 전망이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7년 11월 경 의정부갑 조직위원장에 임명됐으나 2008년도에 치러진 제18대 총선때 김상도 변호사에게 공천에 밀려 위원장 자리를 내준 바 있다. 김남성 예비후보가 장시 위원장 직을 맡았을 당시의 당명은 한나라당으로 '새누리당 당원위원장'으로 표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한 지역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당명을 혼동해 잘못 만든 명함을 몇 장 배부했다"며 "지금은 한나라당이라고 수정한 명함을 돌리고 있다. 선관위에도 경력을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수정했다"고 말한 사실을 기사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당시 경력란에 '(전)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신고했다. 만일 그의 해명처럼 경력을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수정했다면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 명함을 배포했다면 선거법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 등을 배포한 경우는 선거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인지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세욱 기자

김남성 예비후보가 앞면이 동일한 명함에 뒷면 경력사항에는 (좌)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표기된 명함과 (우)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표기된 명함을 배포하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강세창 전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

김경호 전 경기도의회 의장

강세창 · 김경호, 의정부지역서 초 · 중 · 고교 졸업 지속 교류
기초의회 선 · 후배 관계… 정치적 역경도 닮아 대결여부 이목

강세창 의정부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개최

강한 소신·정의로 반드시 승리

김상도 전 위원장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은 나밖에 없다."

강 예비후보 '공천배제' 문희상 의원 위해 참석자들에 '박수' 부탁도 김정영 도의원 "김상도 전 위원장이 총선 출마하라고 권했다" 밝혀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의정부 토박이인 강세창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25일 오후 3시 의정부센트럴타워 6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난해 12월 16일 총선 불출마선언과 함께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한 김상도 전 위원장을 비롯해 당원로, 전현직 시·도의원, 송노원 의정부중공고 총동문회장 및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전날 의정부갑 선거구의 맹주였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가 되면서 많은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해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첫번째로 축사에 나선 김상도 전위원장은 자신의 소개와 함께 "요즘 어떤 사람이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라고 사칭하는 분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은 김상도밖에 없다"며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말로 입을 뗐다.

이는 최근 선거용 명함에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란 경력을 게재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김남성 예비후로를 겨냥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상도 전 위원장은 "의정부에서 만큼은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 아니다"며, "답답한 의정부 정치현실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시원한 청량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변에서 불출마선언을 번복하고 이번 선거에 나가라고 권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제가 8년 전에 선거에 나올 때보다 열정과 의지와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넘치는 사람이 강세창이다. 앞길에 큰 성공과 축복이 있길 기원한다"며 참석자들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호소했다.

또한 그는 "강세창 예비후보는 인간미와 진정성이 있는, 특히 정치적으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검찰 수사나 민주당의 공천배제가 아닌 의정부의 주인인 유권자의 손으로 의정부의 선거혁명을 이뤄 달라"고 역설했다.

두 번째로 축사에 나선 송노원 의정부중공고 총동문회장은 "강세창 후보는 가능초와 경민중, 의정부공고를 졸업한 훌륭하고 멋있고 근성이 있는 친구"라며, "전 시장후보였고 전 재선시의원으로 쌓은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향백리(酒香百里-잘 익은 술 냄새는 백리를 가고), 화향천리(花香千里-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인향만리(人香萬里-훌륭한 사람의 인품은 만리를 간다)라는 고사를 예로 들며 "총동문회장으로서 강세창 후보의 인간미가 보탬도 없고 뺌도 없이 만리를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말에 나선 강세창 예비후보는 "저는 의정부갑구에서 태어나 의정부갑구에 있는 초중고를 나왔으며,

의정부갑구에서 시의원을 두 번이나 하고, 시장까지 출마했던 그야말로 의정부갑구의 아들이다"고 강조해 말했다.

그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정의로운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소신과 정의가 목숨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두 번의 시의원을 할 수 있었고,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했던 여당 시장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이 강한 소신과 정의감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 강세창은 이번 4.13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다"며 "소신이 권력도 뛰어 넘는다는 것을 꼭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강세창 예비후보는 또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파벌정치, 패거리 정치꾼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만을 보장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개의원'이라고 부르고 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이제 썩은 정치인은 물러나야 한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최고의 소신과 배짱을 가진 저 강세창이 의정부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 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선거공약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거대한 구호는 외치지 않겠다. 임기 내 가시화 될 수 있는 현안사업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 25만평 규모 국제적 관광테마공원 조성, ▲반환공여지 캠프 홀링워터, 캠프 라과디아, 금오동 캠프 카일 등의 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확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기무사 이전, ▲호원 IC 진출입로 개설, ▲교외선 복선화 추진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산 노인복지관과 같은 초현대식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덧붙여 "이러한 주민 밀착형 사업들은 중앙 부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 집권여당 국회의원만이 그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번 4.13 총선에서 힘 있는 정당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선 저 강세창을 믿어 달라.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겠다"며 참석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전날 공천에서 배제된 문희상 의원과 관련해 "문희상 의원님도 의정부가 낳은 인물로, 이번 총선에서 진검승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안됐다"며 참석자들에게 "그동안 고생한 문희상 의원을 위해 박수를 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김정영 경기도의원, 구구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도 강 예비후보의 필승을 기원하는 축사의 말을 전했다.

김남성 '당명 혼동' 경력기재 유권자 혼란야기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표기)

'한나라당' 경력 '새누리당' 표기 선거법 위반… "중앙당 홈피도 오류게재 수정 조치"

오는 4월 13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자 중 일부가 '한나라당' 시절의 경력을 당명이 바뀐 '새누리당'의 경력으로 표기해 유권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중 의정부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남성(51) 전 경기도의원은 명함 뒷면 경력사항에 '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라고 표기된 명함을 제작,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당명을 혼동했다"고 해명했으나, 의정부선관위는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적용했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시절인 2007년 11월 15일 의정부갑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뒤 같은 달 24일자로 당협위원장에 선출되었으나, 2008년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상도 변호사에게 공천에서 밀려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바 있다. 공천신청 서류 접수시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김 예비후보가 당협위원장으로 재임한 것은 3~4개월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예비후보가 앞면이 똑같이 제작된 두 종류의 명함 중 하나는 '전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로, 또 다른 하나는 '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로 새겨 혼용해 배포함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 중앙당 홈페이지 게재된 지역구 공천신청자 주요 경력란에 또 다시 김남성 예비후보의 경력사항이 '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게재되어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20일 새누리당 의정부갑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여론조사 당시 여론조사기관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천신청자 명단에 게재된 후보자들의 경력사항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소개했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소개됐다.

의정부선관위는 즉시 진위파악에 나서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남성 예비후보의 경력사항을 '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에서 '전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수정토록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남성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중앙당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력사항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해, 컴퓨터 등록원이 착각해 잘못 표기된 사항이었다며 즉시 수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새누리당 중앙당 홈페이지 '지역구 공천신청자 현황표'에는 김남성 예비후보의 경력사항이 '전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수정돼 게재되어 있다.

한편,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정부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박인균 전 당협위원장은 4년 동안 당협위원장으로 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예비후보 등록시 경력란에 '전 한나라당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이라고 정확히 게재해 김남성 예비후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Talk! 톡! Talk!

U-News 의정부소식

로컬 Local 의정부

www.uposik.com

강세창 의정부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 개최

"강한 소신·정의로 반드시 승리"

함께

김남성 '당명 혼동' 경력기재 유권자 혼란야기

'한나리당' 경력 '새누리당' 표기 선거법 위반… "중앙당 홈피도 오류게재 수정 조치"

김상도 전 위원장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은 나 밖에 없다"

김정영 도의원 "김상도 전 위원장이 출신 줄아하라고 권했다" 밝혀

강 예비후보 '공천 배제' 문희상 의원 위해 참석자들에 '박수' 부딪도

<의정부소식> 2016년 3월 3일자 1면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은 2월 4일자 1면에 의정부시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세창후보와 신문발행당시 아직 출마선언도 하지 아니한 국민의당 김경호 후보의 대결구도로 작성된 기사를 1면 2/3 를 할애하여 우측에 배치하고, 그 좌측에 김남성후보의 명함관련 논란 기사를 배치함으로써 기사대비를 통하여 강세창 예비후보에게 유리하고 시정요구인 김남성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피시정요구인은 3월 3일「강세창 의정부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 개최 "강한 소신·정의로 반드시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2/3를 할애하여 우측 배치하고, 그 좌측에「김남성 '당명 혼동' 경력기재 유권자 혼란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함으로써 기사대비를 통하여 강세창 예비후보에게 유리하고 시정요구인 김남성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시정요구인은 의정부시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세창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와 시정요구인 김남성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1면에 대비되게 배치하여 이를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관내 주민센터 등에 무료배포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유력일간지에 광고 전단과 함께 삽지하여 무료배포함으로써 새누리당 당내 경선 전 강세창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시정요구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20
시 정 요 구 인	**김명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서울프라자 4층 김명연 국회의원 사무실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반월신문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1 대우빌딩 305호 대표이사 홍일호
심의대상기사	반월신문 2016년 3월 30일자 1면 「4개지역 선거구 16명 출마 4대1 경쟁」, 4월 6일자 1면 「김후보 업무추진비…법인카드부당사용 강조 / 고후보 친인척 4급 보좌관 특별채용 문제제기」, 4월 13일자 1면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측 '불법선거' 고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조치를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기사 가운데 3월 30일자 1면 「4개지역 선거구 16명 출마 4대1 경쟁」 제하의 기사에서 "야당 텃밭 지역임을 감안할 때, 김명연 후보가 고영인 후보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분석하고 있지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판세분석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관련 사실을 객관적 근거 없이 보도한 것이다. 특히, 선거 당일인 4월 13일자 1면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측 '불법선거' 고발」 제하의 기사는 선거 당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시정요구인 측에 대한 충분한 취재나 반론 기회의 제공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및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보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산 4.13총선 대진표 확정

4개 지역 선거구에 16명 출마 4대 1 경쟁

안산 상록갑 지역에서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20대 총선을 준비하던 서경선(52) 후보가 서울 중구·성동갑에 전략공천됐다.

안산단원을 지역에서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뛰던 김기완(50) 후보는 조정을 거쳐 안산단원갑으로 출마하게 됐다.

단원을에서 더민주당으로 준비하던 부좌현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당을 바꿔 출마하게 됐고 그 자리에는 경찰대학장을 지낸 손창완 전 안산경찰서장이 자리를 꿰차는 지각변동이 이뤄졌다.

이로써 안산의 모든 선거구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3개 당에서 후보를 내게 됐고 4개 선거구에 16명이 출마, 4대1의 경쟁률을 보이게 됐다. 정의당은 안산지역 4개 선거구 중 안산단원을에만 이재용(50) 후보를 공천했고, 장경수(56) 전 의원은 안산상록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민중연합당은 상록갑 지역에 홍연아(43.여) 후보를 유일하게 공천했다.

또 단원갑 지역에서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뛰던 이영근(64) 후보가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안산지역은 이로써 1여다야 구도 속에 이번 총선이 전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상록갑은 여당의 새누리당 이화수 후보에 야당인 더민주당 전해철, 국민의당 박주원, 민중연합당 홍연아, 무소속 장경수 의원이 맞붙는 형국이다. 이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박주원 후보가 연일 주가를 올리고 있다. 특히 29일 박주원 후보 선거캠프에 박선희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부터는 지역정가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가는 '투표함의 뚜껑이 열려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록을은 여당의 새누리당 홍장표 후보에 야당인 더민주당 김철민,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이 지역은 1與다野구도에다 혼탁한 선거전(選擧戰)까지 겹쳐 홍장표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가 선거일까지 이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투표율을 바라는 야당후보에게는 불리한 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원갑은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에 더민주당 고영인, 국민의당 김기완, 무소속 이영근 후보가 뛰어들었다. 이 지역은 본래 야당 강세 지역이었으나, 지난 19대 총선 때 야권후보단일화로 당시 민주통합당 백혜련 후보가 3표 차로 경선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와의 경쟁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가 승리해 16년 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오게 됐다. 야당 텃밭 지역임을 감안할 때, 김명연 후보가 고영인 후보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분석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후보로 김기완 전 시의회 의장이 뛰어들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단원을은 새누리당 박순자(여), 더민주당 손창완, 국민의당 부좌현, 정의당 이재용 후보로 압축됐다. 이 지역은 부좌현 후보가 더민주에서 컷오프 되고 손창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전략공천으로 내려온 지역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박순자 후보가 부좌현 후보에게 500여 표 차로 져 아깝게 낙선했다. 지역정가는 '1與다野구도가 점점 굳혀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뭉치지 않을 경우 박순자 후보가 비교적 여유롭게 당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산시 상록갑


이화수
새누리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박주원
국민의당



홍연아
민중연합당


장경수
무소속

안산시 상록을


홍장표
새누리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민의당

안산시 단원갑


김명연
새누리당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김기완
국민의당


이영근
무소속

안산시 단원을


박순자
새누리당


손창완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국민의당


이재용
정의당

안산 4.13총선 대진표 확정

4개지역 선거구 16명 출마 4대1 경쟁

안산단원을 지역에서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뛰던 김기완(50) 후보가 조정을 거쳐 안산단원갑으로 출마하게 됐다.

단원을에서 더민주당으로 준비하던 부좌현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당을 바꿔 출마하게 됐고 그 자리에는 경찰대 학장을 지낸 손창완 전 안산경찰서장이 자리를 꿰차는 지각변동이 이뤄졌다.

이로써 안산의 모든 선거구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3개 당에서 후보를 내게 됐고 4개 선거구에 16명이 출마, 4대1의 경쟁률을 보이게 됐다. 정의당은 안산지역 4개 선거구 중 안산단원을에만 이재용(50) 후보를 공천했고, 장경수(56) 전 의원은 안산상록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민중연합당은 상록갑 지역에 홍연아(43.여) 후보를 유일하게 공천했다.

또 단원갑 지역에서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뛰던 이영근(64) 후보가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안산지역은 이로써 10여다야 구도속에 이번 총선이 전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상록갑은 여당의 새누리당 이화수 후보에 야당인 더민주당 전해철, 국민의당 박주원, 민중연합당 홍연아, 무소속 장경수 의원이 맞붙는 형국이다. 이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박주원 후보가 연일 주가를 올리고 있다. 특히 29일 박주원 후보 선거캠프에 박선희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부터는 지역정가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가는 '투표함의 뚜껑이 열려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록을은 여당의 새누리당 홍장표 후보에 야당인 더민주당 김철민,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이 지역은 1與다野구도에다 혼탁한 선거전(選擧戰)까지 겹쳐 홍장표 후보의 어부지리 설이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가 선거일까지 이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투표율을 바라는 야당 후보에게는 불리한 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원갑은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에 더민주당 고영인, 국민의당 김기완, 무소속 이영근 후보가 뛰어들었다. 이 지역은 본래 야당 강세 지역이었으나, 지난 19대 총선 때 야권후보단일화로 당시 민주통합당 백혜련 후보가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에게 3표 차로 경선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와의 경쟁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가 승리해 16년 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오게 됐다. 야당 텃밭 지역임을 감안할 때, 김명연 후보가 고영인 후보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분석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후보로 김기완 전 시의회 의장이 뛰어들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단원을은 새누리당 박순자(여), 더민주당 손창완, 국민의당 부좌현, 정의당 이재용 후보로 압축됐다. 이 지역은 부좌현 후보가 더민주에서 컷오프 되고 손창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전략공천으로 내려온 지역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박순자 후보가 부좌현 후보에게 500여표 차로 져 아깝게 낙선했다. 지역정가는 '1與다野구도가 점점 굳혀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뭉치지 않을 경우 박순자 후보가 비교적 여유롭게 당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13총선특별취재팀

<반월신문> 2016년 3월 30일자 1면

안산단원갑,
김명연-고영인 후보 누구 말이 진실일까

김후보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부당사용 강조

고후보 친인척 4급 보좌관
특채 문제제기

4·13 총선 안산단원갑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왼쪽)의 보좌관 친인척 특별채용 및 재산 증식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후보(오른쪽)의 법인카드(클린카드) 부당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선거 막판에 터진 상호 의혹제기가 유권자의 표심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주목된다. 경합지역인 안산단원갑 지역의 여야 후보가 서로 돈 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3일 "김 후보는 2012년 국회의원 당선 뒤 손아래 동서인 P씨를 연봉 8천만원에 이르는 국회 4급 보좌관에 특별채용했다"면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또 "총체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김 후보의 재산은 국회에 입성했던 2012년 9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19억천만원으로 무려 100%나 늘었다"면서 "재산 증가분에는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안산 대부도 포도밭 등을 판 시세차익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1990년 11월 1일 창간 제1149호 대표전화 031) 415-6644 www.banwol.net

안산단원갑, 김명연-고영인 후보 누구말이 진실일까

김후보 업무추진비…법인카드부당사용 강조

고후보 친인척 4급 보좌관 특별채용 문제제기

4·13 총선 안산단원갑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왼쪽)의 보좌관 친인척 특별채용 및 재산 증식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후보(오른쪽)의 법인카드(클린카드) 부당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선거 막판에 터진 상호 의혹제기가 유권자의 표심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주목된다. 경합지역인 안산단원갑 지역의 여야 후보가 서로 돈 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3일 "김 후보는 2012년 국회의원 당선 뒤 손아래 동서인 P씨를 연봉 8천만원에 이르는 국회 4급 보좌관에 특별채용했다"면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또 "총체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김 후보의 재산은 국회에 입성했던 2012년 9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19억천만원으로 무려 100%나 늘었다"면서 "재산 증가분에는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안산 대부도 포도밭 등을 판 시세차익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그러면서 "같은 당 문대성 후보가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됐고, 주식 매매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진경준 검사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등 부적절한 재산증식의 사회적 책임을 김 후보는 직시해야 한다"며 "표를 달라기에 앞서 국회의원 후보로 자격이 있는지부터 자문하고 즉각 공개 해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다음날(4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고영인 후보는 도의회 당 대표(2010~2011년)로 13개월 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60% 정도를 거주지(지역구)에서 사용했고, 전체 사용액의 15%를 주점에서 사용한 데다 공휴일에도 쓰고 제주도 등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금액은 200여만에 달한다"고 말했다. (2면에 이어짐)

4.13총선 특별취재팀

<반월신문> 2016년 4월 6일자 1면

더민주는 그러면서 "같은 당 문대성 후보가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됐고, 주식 매매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진경준 검사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등 부적절한 재산증식의 사회적 책임을 김 후보는 직시해야 한다"며 "표를 달라기에 앞서 국회의원 후보로 자격이 있는지부터 자문하고 즉각 공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다음날(4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고영인 후보는 도의회 당 대표(2010~2011년)로 13개월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60% 정도를 거주지(지역구)에서 사용했고, 전체 사용액의 15%를 주점에서 사용한 데다 공휴일에도 쓰고 제주도 등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금액은 200여만에 달한다"고 말했다.

안산시 단원구갑, 더민주당 고영인 후보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측 '불법선거' 고발

새터민 탈북주민 12일 폭로
"투표 대가로 쌀 10kg 받았다"
사전 선거 기간때 일어난 일…
단원구 선관위 조사 착수

선거 막판에 새누리당 측이 사전투표일에 탈북자 출신인 새터민들을 차량으로 투표장까지 실어 나르며 지지를 유도하고 투표 대가로 쌀포대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안산단원구갑 선거구 선부동 소재 (구) 주공아파트 13단지에 거주하는 새터민 김모씨(여.75), 황모씨(여)로부터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사전투표를 했으며 이 대가로 쌀 1포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녹취파일과 쌀부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씨 등의 제보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께 새누리당 지지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나갔더니 스타렉스 승합차와 승용차 등 2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자신을 비롯해 10여 명의 새터민이 이들 차량에 분승해 투표장인 선부동 사무소로 이동했다. 황 씨는 차량 운전기사가 선거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밝혔으며 (기호 1번) 김명연을 찍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는 이어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가 기호 1번을 찍으라고 했고, 투표를 마친 뒤에 집에 돌아와 연락책 역할을 했던 주모 씨 집에서 쌀 1포대씩을 주었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이 받았다는 쌀은 참다울미 10kg들이 1포대로 시가는 2만 5천 원가량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집단 탈북 사건'으로 북풍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아직 남한 실정을 잘 모르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70년대 유신시대 때나 있을법한 불법 금품 선거를 획책한 사실이 탄로 난 것"이라며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이 북풍에 이어 탈북자들을 금품으로 매수해 표를 얻으려는 추악한 본질이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산시에는 탈북자 출신 새터민 약 560명이 거주하

고 있으며 이 가운데 160가구 약 300명이 단원갑구 선거구인 주공아파트 13단지에 집단 거주하고 있다. 고영인 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감시단은 이날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상 차량을 이용한 편의제공, 지지를 유도하여 투표한 대가로 쌀 등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선대본부측은 김씨와 황씨 진술과 사전투표 후 받았다는 쌀포대 사진, 13단지 놀이터 집결장면 CCTV영상 녹화물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또 새터민 주민 2명도 12일 오후 안산단원구선관위에 자진 출두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명연 측 선대위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영인 후보 측의 금품제공 고발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며 흑색선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캠프에서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을 김명연 후보가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영인 후보 측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다"고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갑, 더민주당 고영인 후보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측 '불법선거' 고발

새터민 탈북주민 12일 폭로 "투표 대가로 쌀 10kg 받았다"
사전 선거 기간때 일어난 일…단원구 선관위 조사 착수

선거 막판에 새누리당 측이 사전투표일에 탈북자 출신인 새터민들을 차량으로 투표장까지 실어 나르며 지지를 유도하고 투표 대가로 쌀포대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단원구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안산단원구갑 선거구 선부동 소재 (구) 주공아파트 13단지에 거주하는 새터민 김모씨(여,75), 황모씨(여)로부터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 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사전투표를 했으며 이 대가로 쌀 1포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녹취파일과 쌀부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씨 등의 제보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께 새누리당 지지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나갔더니 스타렉스 승합차와 승용차 등 2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자신을 비롯해 10여명의 새터민이 이들 차량에 분승해 투표장인 선부동 사무소로 이동했다. 황씨는 차량 운전기사가 선거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밝혔으며 (기호 1번) 김명연을 찍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명연 후보측이 탈북 새터민에 사전선거 후 지급했다는 10kg들이 쌀포대로, 새터민은 양심선언 후 자신들이 직접 지급받은 쌀포대를 공개했다.

김 씨는 이어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가 기호 1번을 찍으라고 했고, 투표를 마친 뒤에 집에 돌아와 연락책 역할을 했던 주 모 씨 집에서 쌀 1포대씩을 주었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이 받았다는 쌀은 참다울미 10kg들이 1포대로 시가는 2만 5천 원가량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집단 탈북 사건'으로 북풍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아직 남한 실정을 잘 모르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70년대 유신시대 때나 있을법한 불법 금품 선거를 획책한 사실이 탄로 난 것"이라며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이 북풍에 이어 탈북자들을 금품으로 매수해 표를 얻으려는 추악한 본질이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산시에는 탈북자 출신 새터민 약 5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60가구 약 300명이 단원갑구 선거구인 주공아파트 13단지에 집단 거주하고 있다. 고영인 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감시단은 이날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상 차량을 이용한 편의제공, 지지를 유도하여 투표한 대가로 쌀 등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선대본부측은 김씨와 황씨 진술과 사전투표 후 받았다는 쌀포대 사진, 13단지 놀이터 집결장면 CCTV영상 녹화물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또 새터민 주민 2명도 12일 오후 안산단원구선관위에 자진 출두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명연 측 선대위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영인 후보측의 금품제공 고발에 대해 맹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며 흑색선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캠프에서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을 김명연 후보가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영인 후보측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다"고 밝혔다.

4.13총선 특별취재팀

<반월신문> 2016년 4월 13일자 1면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안산시 단원구갑에 출마했던 국회의원 후보로서 지역주간지 반월신문의 아래와 같은 편파보도와 불공정 기사로 인한 부정선거개입에 관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를 요구한다.

1) 반월신문은 선거기간 중 발행한 3차례의 신문(제1148호~1150호)에서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기사를 2회 연속 1면 톱기사(제1149호~제1,150호)로 지면에 게재하여 시정요구인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다.

2)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상호간 벌어지는 주장을 게재하는 것이 반월신문의 일상적인 보도형태라고 한다면, 안산시 4개 선거구 중 다른 선거구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등의 치열한 공방이 적지 않았음에도 보도를 게재한 사례는 시정요구인의 선거구가 유일하므로 이는 악의적인 보도형태라고 보여진다.

3) 특히, 선거 당일인 4월 13일에 배포된 제1,150호의 1면 톱기사는 선거 전날인 저녁 5시 40분경 상대후보인 고영인측에서 시정요구인과 언론사가 사실 확인 등 충분히 대응할 시간도 없는 선거당일 전날에 전략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언론사 본연의 사실확인 절차와 임무를 무시한 채 허위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전형적인 부정선거이다.

4) 또한, 선거 당일 투표시간인 새벽부터 6시 30분경부터 오후 4시 50분경까지 발행인과 직원들이 직접 지역구 아파트단지와 상가에 신문을 배포하다가 경찰신고로 중단된 일까지 발생하였다.

피시정요구인은 반월신문의 악의적인 편파보도와 불공정보도를 이루어진 부정선거 개입으로 선거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을 겪었기에 강력한 경고조치를 통해 공정한 언론보도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5. 권고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9
시 정 요 구 인	**유동수**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7-17, 대경빌딩 5층 유동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내일신문**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55 대표이사 장명국
심의대상기사	내일신문 2016년 3월 2일자 4면 「친구에서 적으로, 송영길과 최원식 혈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보도시 후보자 간의 균형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에서 인천시 계양구갑 선거구 야권 예비후보자에 대해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 하지만 선거보도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정보 및 사진을 제외하거나 누락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심의대상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 및 제10조(사진게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보도내용

친구에서 적으로, 송영길과 최원식 혈투

FTA 전도사 김현종 주목

인천 계양을 선거가 야권 내 두 사람의 맞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다. 더민주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국민의당 최원식 의원은 비슷한 길을 걸어온 1963년생, 81학번 동기다. 두 사람은 각각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과 지역 인권운동의 길을 걸어온 점도 비슷하다.

두 사람의 악연은 당내 공천 문제에서 틀어졌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송 전 시

장의 사퇴로 치러진 그해 7월 재보선 계양을 후보를 경정하는 과정에서다.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최 의원을 계양을 후보로 사실상 낙점했지만, 송 전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른 후보가 재보선에 나서게 됐다.

결국 두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당을 달리한 채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송 전 시장은 최근 출마선언과 함께 "일부 세력이 내부 혁신과 통합노력을 포기하고 성급하게 탈당해 야권분열이 현실화하고 말았다"며 최 의원을 겨냥했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송 전 시장이 당초 광주 출마를 검토하다 결국 이 지역 출마를 선언한 것은 3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까지 한 중진으로는 격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두 사람의 동시 출마로 야권세가 강한 이 지역의 선거결과도 예측불허가 됐다. 새누리당 후보가 고정적으로 40% 이상 득표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야권표가 분산되면 어부지리로 여권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 송 전 시장은 결국 선거 막판 야권후보단일화 압력이 거세지면 지지율이 앞서는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 의원 측은 "절대로 후보단일화는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옆 지역구인 계양갑도 관심 지역구로 부상하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영입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뜨거워지고 있다.

한미FTA를 주도했고, 메가 FTA를 주창하는 김 전 본부장에 맞서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노총에서 활동한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이수봉 인천경제연구소장과 이도형 전 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친구에서 적으로, 송영길과 최원식 혈투

FTA 전도사 김현종 주목

인천 계양갑·계양을



김현종 이도형 이수봉 송영길 최원식

인천 계양을 선거가 야권내 두 사람의 맞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다. 더민주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국민의당 최원식 의원은 비슷한 길을 걸어온 1963년생, 81학번 동기다. 두 사람은 각각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과 지역 인권운동의 길을 걸어온 점도 비슷하다.

두 사람의 악연은 당내 공천 문제에서 틀어졌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송 전 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그해 7월 재보선 계양을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다.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최 의원을 계양을 후보로 사실상 낙점했지만, 송 전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른 후보가 재보선에 나서게 됐다.

결국 두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당을 달리한 채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송 전 시장은 최근 출마선언과 함께 "일부 세력이 내부 혁신과 통합노력을 포기하고 성급하게 탈당해 야권분열이 현실화하고 말았다"며 최 의원을 겨냥했다. 하지만 최 의원측은 송 전 시장이 당초 광주 출마를 검토하다 결국 이 지역 출마를 선언한 것은 3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까지 한 중진으로는 격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두 사람의 동시 출마로 야권세가 강한 이 지역의 선거결과도 예측불허가 됐다. 새누리당 후보가 고정적으로 40% 이상 득표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야권표가 분산되면 어부지리로 여권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 송 전 시장은 결국 선거 막판 야권후보단일화 압력이 거세지면 지지율이 앞서는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 의원 측은 "절대로 후보단일화는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옆 지역구인 계양갑도 관심 지역구로 부상하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영입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뜨거워지고 있다.

한미FTA를 주도했고, 메가 FTA를 주창하는 김 전 본부장에 맞서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노총에서 활동한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이수봉 인천경제연구소장과 이도형 전 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내일신문> 2016년 3월 2일자 4면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동수로서 내일신문 3월 2일자 『야권 주도권 전초전-더민주·국민의당 격돌 |③ 수도권 』악연끼리 충돌… "단일화 없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또는 해당 언론에 엄중한 경고를 요청한다.

피시정요구인이 위의 보도 중 에서 "〔인천 계양갑·계양을〕 친구에서 적으로, 송영길과 최원식 혈투, FTA 전도사 김현종 주목"이라 보도하며 마치 계양구갑 선거구에 김현종 후보만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것처럼 본인(유동수)의 예비후보로서의 활동 및 이름조차 거론하지조차 않은 점이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기에 시정을 요구한다.

"FTA 전도사 김현종 주목" 이라는 내용 또한 특정 후보의 특정경력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홍보가 될 사안이라 판단되며, 2015년 12월1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 정상적인 등록과 면접심사까지 마친, 본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기사가 나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기사내용에는 김현종 후보의 사진과 국민의당 당내경선 후보 2명의 사진만이 게재된 것도 도저히 객관적인 기사 내용이라 생각하기 힘들다.

본문 내용중에는 계양갑 지역이 김현종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표현, 유권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여야 하는 언론이 지극히 편향된 한 후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선택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특정 후보에 대한 이력 및 행보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언급되지 않은 후보인 신청인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시정요구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게재 또는 엄중한 경고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10
시 정 요 구 인	**김영우** 경기 포천시 영중면 백로주길 91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포천뉴스** 경기 포천시 군내면 포천로 1508 대표이사 이은식
심의대상기사	포천뉴스 2016년 3월 1일자 1면 「김영우 후보측과 선거운동원들은 1차 여론조사는 불리해서 불복하고 2차 여론조사는 불리해도 승복하는가」, 2016년 3월 1일자 2면 「혼탁한 포천선거 김영우 후보 책임이다」, 2016년 3월 1일자 3면 「새누리당 분열, 볼썽사나운 꼴 연출」, 2016년 3월 1일자 4면 「김영우후보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에 고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보도시 후보자 간의 균형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김영우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보도하면서 제목과 기사 본문에서 “포천시민을 온통 시끄럽게 하며 혼탁선거를 조장”, “포천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수작”, “볼썽사나운 꼴 연출” 등의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선거보도에 있어 언론이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지 못한 채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보도내용

김영우 후보측과 선거운동원들은

1차 여론조사는 불리해서 불복하고
2차 여론조사는 불리해도 승복하는가

28일 김영우 의원은 지난 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포천뉴스가 2월 3일 공표보도한 포천시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 기관 윈폴에 대하여 경기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한다는 경기도 포천시 여론조사 위법여부 심의결과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포천뉴스는 포천민의를 왜곡하고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 포천뉴스의 직원일동 명예를 걸고 대응함을 천명하며 동시에 이를 바로잡아 포천뉴스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포천시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다.

김영우 후보 측과 선거운동원들은 여론조사결과가 불리하자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민심을 헤아리지 못해 여론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지역 언론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지역주민을 무시하며 우습게 아는 행위이다.

포천뉴스에서는 1월 28일 포천시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대두된 새누리당의 경선후보자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선거전문 여론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선관위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보도했다.

여론조사는 포천선관위원회에 여론조사 실시 2일전 인지도와 지지도 내용을 신고했다. 인지도는 성명순인 가나다순으로 김영우, 이철휘, 장병윤 순으로, 지지도는 나이순으로 선거법 여론조사방법 제108조를 인용 공표용으로 신고하고 확인받아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여 공지한 후 여론조사결과를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공표를 했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각 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거 해당 선관위에 반드시 여론조사 설문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 2일 후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히며 이과정은 해당 선관위에서 승인하에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설문지는 포천뉴스의 독단으로 신고하거나 작성한 것이 아니고 포천선관위와 여러 차례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신고확정 사실을 확인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 전문기관 윈폴이 실시하고 포천뉴스가 공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의 지지도 질문에 있어 나이순으로 조사되어지는 방식은 공직선거법 188조에 의거 총선 득표 시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가 당선이 되므로 조사방식에 있어서 나이순으로 조사해도 별 무리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관계자는 "경기도 선관위와 포천선관위는 선거법 절차에 따라 신고와 등록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해놓고 뒤늦게 여론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는 선거운동원들 이의제기로 선거법 준수 촉구 같은 결정은 선관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2월 3일 보도하자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이 경기도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여 포천뉴스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1차 여론조사에 이어 제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도했다.

2월 18일과 19일 이루어진 2차 여론조사는 더욱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미하기 위하여 1차 여론조사와 같이 포천선관위와 설문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합의를 거친 후 질문의 순번에 있어서 성명 로테이션 방식을 선택했다.

2차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에 있어 김영우 41.6%로 1차 여론조사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지도에 있어서도 35.7%로 조사되어 1차 여론조사 결과 이철휘와 2차 여론조사 지지도에 있어서도 김영우 후보가 약 10퍼센트 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천시청 공무원 O모씨는 "포천뉴스에서 1차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최근 김영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은 후보자 나이가 많은 순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순서 여론조사방법이 김영우 후보 측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묻는 방식을 설명하고 나이순으로 질문한다고 설명 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조사한 것이 무슨 문제인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나이가 적은 김영우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 정모씨(신읍동·58세)는 "김영우 후보 측에서 발송된 문자 중 심의결과를 자세히 보니 이번에 내려진 조치가 여론조사 기관 윈폴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한다는 결정내용인데 마치 포천뉴스에서 위법한 양 김영우 후보 측 운동원들이 문자를 계속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뉴스에서는 여론조사기관이 2016년 1월 28일~1월 29일 실시하고 포천뉴스가 2월 3일 공표보도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여론조사에 대해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해 상급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 중에 있다.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32-2062

포천뉴스

pcnt.kr

국제토건주 TEL 031)533-1767 FAX 031)533-1198

2016년 3월 1(화) 63호

새누리당

지지도 조사

여론조사는 여론전문조사기관 윈폴이 포천시 거주지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1000명으로 RDD DB무작위 추출로 행자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6년 1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적용 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으로 시도 핸수 44,720회 응답률 2.2% 표본오차 ± 3.1%p, 95%신뢰수준 으로 조사되었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을 참조하면 된다.)

김영우 후보측과 선거운동원들은

1차 여론조사는 불리해서 불복하고 2차 여론조사는 불리해도 승복하는가

28일 김영우 의원은 지난 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포천뉴스가 2월3일 공표보도한 포천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 기관 윈폴에 대하여 경기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한다는 경기도 포천시 여론조사 위법여부 심의결과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대해 포천뉴스는 포천민의를 왜곡하고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 포천뉴스의 직원일동 명예를 걸고 다음함을 천명하며 동시에 이를 바로잡아 포천뉴스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포천시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에 대하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다.

김영우 후보측과 선거운동원들은 여론조사결과가 불리하자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민심을 헤아리지 못해 여론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지역 언론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지역주민을 무시하며 우습게 아는 행위이다.

포천뉴스에서는 1월 28일 포천시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대두된 새누리당의 경선후보자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선거전문 여론전문기관이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선관위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보도했다.

여론조사는 포천선관위원회에 여론조사 실시 2일 전 인지도와 지지도 내용을 신고 했다.

인지도는 성명 순인 가나다순으로 김영우, 이철휘, 장병윤 순으로, 지지도는 나이 순으로 선거법 여론조사방법 제108조를 인용 공표용으로 신고하고 확인받아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여 공지한 후 여론조사결과를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공표를 했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실시 할 경우 각 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거 해당 선관위에 반드시 여론조사 설문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 2일 후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히며 "이과정은 해당 선관위에서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설문지는 포천뉴스의 독단으로 신고하거나 작성한 것이 아니고 포천선관위와 여러차례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신고확정 사실을 확인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 전문기관 윈폴이 실시하고 포천뉴스가 공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의 지지도 질문에 있어 나이순으로 조사되어지는 방식은 공직선거법 188조에 의거 총선 득표 시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가 당선이 되므로 조사방식에 있어서 나이순으로 조사해도 별 무리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관계자는 "경기도 선관위와 포천선관위는 선거법 절차에 따라 신고와 등록됨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해놓고 뒤늦게 여론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는 선거운동원들 이의제기로 선거법 준수 촉구 같은 결정은 선관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2월3일 보도하자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이 경기도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여 포천뉴스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1차 여론조사에 이어 제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도했다.

2월 18일과 19일 이루어진 2차 여론조사는 더욱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미하기 위하여 1차 여론조사와 같이 포천선관위와 설문지에 관하여 심도 있는 합의를 거친 후 질문의 순번에 있어서 성명 토해이선 방식을 선택 했다.

2차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에 있어 김영우 41.6%로 1차 여론조사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지도에 있어서도 35.7%로 조사되어 1차 여론조사 결과 이철휘와 2차 여론조사 지지도에 있어서도 김영우 후보가 약10퍼센트 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도였다.

포천시청 공무원 O모씨는 "포천뉴스에서 1차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최근 김영우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은 후보자 나이가 많은 순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순서 여론조사방법이 김영우 후보측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묻는 방식을 설명하고 나이순으로 질문한다고 설명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조사한 것이 무슨 문제인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나이가 적은 김영우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 정모씨(신읍동·58세)는 "김영우 후보측에서 발송된 문자중 심의결과를 자세히 보니 이번에 내려진 조치가 여론조사 기관 윈폴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한다는 결정내용인데 마치 포천뉴스에서 위법한 양 김영우 후보 측 운동원들이 문자를 계속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뉴스에서는 여론조사기관이 1월 28~1월 29일 실시하고 포천뉴스가 2.3일 공표보도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여론조사에 대해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해 상급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 중에 있다.

고정숙 기자

<포천뉴스> 2016년 3월 1일자 1면

혼탁한 포천선거 김영우 후보 책임이다

김영우 후보는 혼탁해진 포천선거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혼탁해진 포천선거는 자신의 탓은 아니고 남의 탓이란 내용의 28일자 보도자료이다.

최근 김영우 후보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범시민연대에서는 김영우 후보 임기 중에 추진된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발전소 추진에 대해 찬성·반대 입장과 성추행범죄로 장기간 시정공백을 야기시키는 서장원 시장 사퇴 찬성·반대 간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범시민연대에서는 김영우 후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앞서 김영우 후보와 단독 만남을 갖고 포천시의 현안이고 포천시민이 궁금한 알권리를 위해 국회의원이며 예비후보의 찬성과 반대의 아주 지극히 간단한 입장을 표명을 요구했다.

김영우 후보는 포천시민 대다수인 71.3%가 서시장 사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소환 운동으로 시끄러울 때 서장원 사퇴 찬성, 반대와 석탄발전소 찬성과 반대 입장 표명은 포천이 갈등과 분열이 된다며 범시민연대 본부장을 상대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러자 포천이 시끄러워졌다.

긴 설명이 필요없고 구구절절한 이유 없이 간단한 입장표명이면 되는 질문이었다.

딱 한마디 찬성·반대 입장 표명을 못 하자 포천범시민연대에서는 김영우 후보 낙선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발표하게 된다. 각 언론사에 기자회견 성명서로 포천은 또 한번 시끄러웠다. 국회의원후보가 자신이 관여한 현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못한다며 낙선시키야 한다고 시끄러워졌다.

지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김영우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는 선거문구로 선거를 치렀다. 당선이 됐다. 진위가 궁금한 내용이지만 이명박 대통령한테 물어 볼 수 없었다.

최근 남북접경지역경제개발협의회 이각모 회장이 증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는 것은 김영우 후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포천시민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각모 회장은 포천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거짓말쟁이면 안 된다는 확신과 판단을 갖고 언론기고문을 통해 김영우 후보의 무능함과 추가 거짓말 폭로에 열정을 보인다. 현재 이각모 회장은 선관위에 조사를 받고 검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우 후보 측이 제소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이러자 또 한번 고소고발 논쟁으로 포천이 시끄럽다.

최근 또다시 포천시 선거판을 시끄럽게 만든 사건이 있다. 김영우 후보측과 선거운동원들이 이철휘 후보 사퇴성명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정체성이란 이유를 들어 문제를 삼아 새누리당 후보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반박에 반박 등 온통포천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엄청 시끄럽다. 누가 봐도 포천선거가 혼탁해 보인다. 이러는 도중 김영우 후보 측과 운동원들은 포천뉴스 여론조사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방법을 문제삼아 신뢰성을 트집 잡아 포천시민을 온통 시끄럽게 하며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김영우 후보는 답해야 한다. 포천의 선거가 혼탁하다며 남의 탓을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에 대해서 범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의 빌미도 원인은 김영우 후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 포천

이 시끄러워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철휘 후보 사퇴 성명서 기자회견을 하여 시끄러운 이유도 김영우 후보 자신의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니란 이야기다. 또한 서장원 시장 관련 입장표명을 못 한 것과 석탄발전소 등의 문제에서는 자신은 관계없는 듯 남의 탓을 하는 행태는 포천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수작이다.

포천을 위해 장학금 기부 등 미래를 포천을 위해 노력하는 이각모 회장보다 현역 국회의원이 포천을 위해 무엇을 더 잘했기에 한참 어르신네를 기만하여 고소고발로 포천을 혼탁하게 하는지 김영우 후보는 낙선운동본부에서 제의한 맞짱 토론을 하기 전에 포천뉴스와 맞짱 토론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게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포천시 체육단체의 현수막으로 포천이 또 시끄럽다. 전철도 해내겠습니다. 포천전철유치, 계획안 신규 반영 경축 현수막이 포천시 전역에 불법게시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도, 사람도 없다. 이 역시 선거운동 논쟁이 되어 시끄럽다.

새누리당 지구당 회의 때 포천뉴스를 찌라시 운운하며 성토하기 바쁘고 기사대응전략에 선거운동일정까지 차질을 빚는다는 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찌라시와 논쟁으로 온통 포천이 시끄럽다.

찌라시 지역 언론이 이제 정기적 발행이 3년 되어간다. 18대선거와 19대 선거에는 포천뉴스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2면 오피니언 2016년 3월 1일 63호 포천뉴스

기자수첩

혼탁한 포천선거 김영우 후보 책임이다

고정숙 기자

김영우 후보는 혼탁해진 포천선거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혼탁해진 포천선거는 자신의 탓은 아니고 남의 탓이란 내용의 28일자 보도자료이다.

최근 김영우 후보 국회의원 낙천 ·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범시민연대에서는 김영우 후보 임기중에 추진된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발전소 추진에 대해 찬성 · 반대 입장과 성추행 범죄로 장기간 시정공백을 야기 시키는 서장원시장 사퇴 찬성 · 반대 간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범시민연대에서는 김영우 후보 낙천 · 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앞서 김영우 후보와 단독 만남을 갖고 포천시의 현안이고 포천시민이 궁금한 알권리를 위해 국회의원이며 예비후보의 찬성과 반대의 아주 지극히 간단한 입장을 표명을 요구 했다.

김영우 후보는 포천시민 대다수인 71.3%가 서시장 사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소환 운동으로 시끄러울 때 서장원 사퇴 찬성, 반대와 석탄발전소 찬성과 반대 입장 표명은 포천이 갈등과 분열이 된다며 범시민연대 본부장을 상대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러자 포천이 시끄러워졌다.

긴 설명이 필요없고 구구절절한 이유없이 간단한 입장표명이면 되는 질문이었다.

딱 한마디 찬성 · 반대 입장표명을 못하자 포천범시민연대에서는 김영우 후보 낙선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발표하게 된다. 각 언론사에 기자회견 성명서로 포천은 또한번 시끄러웠다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 관여한 현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못한다며 낙선시키야 한다고 시끄러워졌다.

지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김영우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는 선거문구로 선거를 치렀다. 당선이 됐다. 진위가 궁금한 내용이지만 이명박 대통령한테 물어 볼 수 없었다.

최근 남북접경지역경제개발협의회 이각모 회장이 증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는 것은 김영우 후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포천시민들이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각모 회장은 포천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거짓말쟁이면 안 된다는 확신과 판단을 갖고 언론기고문을 통해 김영우 후보의 무능함과 추가 거짓말 폭로에 염정을 보인다. 현재 이각모 회장은 선관위에 조사를 받고 검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우 후보측이 제소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이러자 또 한번 고소고발 논쟁으로 포천이 시끄럽다.

최근 또다시 포천시 선거판을 시끄럽게 만든 사건이 있다. 김영우 후보측과 선거운동원들이 이철휘 후보 사퇴성명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정체성이란 이유를 들어 문제를 삼아 새누리당 후보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반박에 반박 등 온통 포천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엄청 시끄럽다. 누가봐도 포천선거가 혼탁해 보인다. 이러는 도중 김영우 후보측과 운동원들은 포천뉴스 여론조사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방법을 문제삼아 신뢰성을 트집잡아 포천시민을 온통 시끄럽게 하며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김영우 후보는 답해야 한다. 포천의 선거가 혼탁하다며 남의 탓을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에 대해서 범시민연대 낙천 · 낙선운동의 빌미도 원인은 김영우 후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 포천이 시끄러워 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철휘 후보 사퇴 성명서 기자회견을 하여 시끄러운 이유도 김영우 후보 자신의 탓이지 남이탓이 아니란 이야기다. 또한 서장원 시장 관련 입장표명을 못한 것과 석탄발전소 등의 문제에서는 자신은 관계없는 듯 남의 탓을 하는 행태는 포천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수작이다.

포천을 위해 장학금 기부등 미래를 포천을 위해 노력하는 이각모 회장 보다 현역 국회의원이 포천을 위해 무엇을 더 잘했기에 한참 어르신네를 기만하여 고소고발로 포천을 혼탁하게 하는지 김영우 후보는 낙선운동 본부에서 제의한 맞짱 토론을 하기전에 포천뉴스와 맞짱 토론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게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포천시 체육단체의 현수막으로 포천이 또 시끄럽다. 전철도 해냈습니다. 포천전철유치, 계획안 신규 반영 경축 현수막이 포천시 전역에 불법게시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도, 사람도 없다. 이 역시 선거운동 논쟁이 되어 시끄럽다

새누리당 지구당 회의 때 포천뉴스를 찌라시 운운하며 성토하기 바쁘고 기사대응전략에 선거운동일정까지 차질을 빚는다는 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찌라시와 논쟁으로 온통 포천이 시끄럽다.

찌라시 지역 언론이 이제 정기적 발행이 3년 되어간다. 18대 선거와 19대 선거에는 포천뉴스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포천뉴스> 2016년 3월 1일자 2면

새누리당 분열, 볼썽사나운 꼴 연출

허위사실 유포 고발 검토

23일 5시 새누리당 소속 포천시 시·도의원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철휘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의 경선 참여는 새누리당 당원 모두에 대한 모독이다 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우 예비 후보 측 정종근 의장, 이희승, 이명희, 서과석 윤충식 의원 및 이중효 전 의장, 김철호 사무국장 등 당직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을 반대하는 이철휘 후보 측 새누리 당원 15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춘식 경기도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철휘 예비후보의 2012년 대선당시 안철수 캠프에 참여해 안보 자문을 해준 전력에 대해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심사위원회가 정체성을 의심 받고 당원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이철휘 예비후보에 대해 총선후보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철휘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자격을 포기하고 새누리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성명서 발표 후 새누리당 공천에서 새누리당에서 신인 가산점을 주면서까지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데 후보 자격 박탈, 후보 자격 포기 등을 주장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뜻에 역행하고 기자회견문과 같이 이철휘 후보 사퇴주장이 포천시 새누리당원 모두의 뜻인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춘식 도의원은 "가산점과 함께 벌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은 포천 새누리당 당원 모두의 뜻인지에 대해서는 "진영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철휘 예비후보 캠프에 참여해 있는 새누리당 당원이 다수 참석해 기자회견에 대해 성토하는 모습이 보여 새누리 당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였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는 도중에 급히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이 요구하는 질문을 거부하고 퇴장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으려면 기자회견을 왜 하느냐는 원성을 샀다.

이어 최춘식 도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새누리당 이철휘 예비후보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인정하는 안보전문가 사퇴 운운은 금도 넘어선 것"이라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2012년 당시, 안철수의 안보관에 대하여 예비역 장군 출신들이 진심캠프에 참여해 바로잡아 주자고 이철휘 예비후보에게 제의를 하였고, 이에 이 예비후보는 정치인이 올바른 안보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前職 해·공군총장들과 함께 NLL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 민군복합항의 중요성, 군복무기간을 더 이상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등 안보자문을 해주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반박 성명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자 장성출신들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철휘 예비후보는 야당에 가입하지도 않았다."고 김영우 후보 측이 주장하는 정체성에 대해 해명했다.

이철휘 예비후보의 김인술 공보특보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가 기자 회견을 열어 분열을 조장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기자회견문에 적시된 이철휘 후보의 야당 출마 저울질, 당

원분열 조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이철휘 후보 측 김인술 특보는 시도의원들의 기자회견 원인을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최근 언론사의 여론조사 등에서 김영우 후보 측이 열세로 나타나자 급박한 마음에 궁여지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포천뉴스 2016년 3월 1일 63호 사 회 3면

새누리당 분열, 볼썽사나운 꼴 연출

허위사실 유포 고발 검토

23일 5시 새누리당 소속 포천시 시·도의원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철휘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의 경선 참여는 새누리당 당원 모두에 대한 모독이다 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 회견에는 김영우 예비 후보 측 정종근 의장, 이희승, 이명희, 서과석 윤충식의원 및 이중효 전 의장, 김철호 사무국장 등 당직자 10여명이 참석 했으며 기자회견을 반대하는 이철휘 후보측 새누리 당원 15명등 총30여명이 참석했다

최춘식 경기도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철휘 예비 후보의 2012년 대선당시 안철수 캠프에 참여해 안보 자문을 해준 전력에 대해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심사위원회가 정체성을 의심 받고 당원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이철휘 예비 후보에 대해 총선 후보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철휘 예비 후보는 예비후보 자격을 포기하고 새누리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성명서 발표후 새누리당 공천에서 새누리당에서 신인 가산점을 주면서 까지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데 후보 자격 박탈, 후보자격 포기등을 주장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뜻에 역행 하고 기자회견문과 같이 이철휘 후보 사퇴주장이 포천시 새누리당원 모두의 뜻인가를 질문했다.

이에대해 최춘식 도의원은 "가산점과 함께 벌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은 포천 새누리당 당원 모두의 뜻인지에 대해서는 "진영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철휘 예비후보 캠프에 참여해 있는 새누리당 당원이 다수 참석해 기자회견에 대해 성토하는 모습이 보여 새누리 당원간 갈등이 고조 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였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기자 회견문 발표 후에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는 도중에 급히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이 요구하는 질문을 거부하고 퇴장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으려면 기자회견을 왜 하느냐는 원성을 샀다.

이어 최춘식 도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새누리당 이철휘 예비 후보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인정하는 안보 전문가 사퇴 운운은 급도 넘어선 것"이라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 했다.

또한 "2012년 당시, 안철수의 안보관에 대하여 예비역 장군 출신들이 진심캠프에 참여해 바로잡아 주자고 이철휘 예비후보에게 제의를 하였고, 이에 이 예비후보는정치인이 올바른 안보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前職 해·공군총장들과 함께 NLL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 민군복합항의 중요성, 군복무기간을 더 이상 단축해서는 안된다는 등 안보자문을 해주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반박 성명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자 장성 출신들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철휘 예비후보는 야당에 가입하지도 않았다."고 김영우 후보측이 주장하는 정체성에 대해 해명 했다.

이철휘 예비 후보의 김인술 공보특보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가 기자 회견을 열어 분열을 조장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기자회견문에 적시된 이철휘 후보의 야당 출마 저울질, 당원분열 조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이철휘 후보측 김인술 특보는 시도의원들의 기자회견 원인을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최근 언론사의 여론조사등에서 김영우 후보측이 열세로 나타나자 급박한 마음에 궁여지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포천뉴스> 2016년 3월 1일자 3면

김영우 후보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에 고발

이각모 회장 검찰접수중 김영우 후보 선관위에 고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

남북접경지역경제개발협의회 이각모 회장은 2월 25일 새누리당 김영우 예비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에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기도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위반으로 김영우 후보를 고발조치하였다.

공직선거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회의원 당선자도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각모 회장의 고발조치 내용에 따르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2000년 경기도 정석규 건설국장이 구상하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2002년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최초 제안되었고 2007년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원안이 가결되어 2007년 가칭 서울 북부고속도로로 출발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이 된 김영우 후보가 그 이전인 2000년도부터 시작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홍보물에 마치 본인이 혼자 다한 것 같이 기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각모 회장은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되었으며 선관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언론에 기고한 내용 중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포천주민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산업단지와 그 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김영우가 유치했으니 책임지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영우 후보는 산업단지만 유치했지 그 안에 각 공장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원(시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라 부른다.)은 유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인 김영우와는 관계가 없으니 모르는 일이며 이각모 회장의 언론기고문은 허위사실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우 후보의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제18대 19대 국회 활동 중 본인만의 입신을 위해 중앙정치에만 매달리고 정식 법다운 법을 만들지 못하여 국회의원 300명 중 하위 285위(국회의원 활동조사 시민단체 자료)에 실적일 정도로 입법 활동이 미약했고 숟가락 얹어놓기라고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기고했다.

이 또한 "김영우 후보는 본인은 많은 노력을 했고 지역을 위해 온갖 힘을 기울였고 또한 대안 법안을 많이 제출했지만 수정안 1건을 제하고는 입법화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회활동이 미약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각모 회장은 김영우 후보가 2008년부터 6년 동안 김영우가 총 55회(연 9회)를 여행했다는 해외여행 건을 칼럼으로 기재를 하자 이 또한 "본인은 50개국을 여행했다고 하였다며 따라서 허위사실이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되었다.

특히 장군의 눈물 칼럼 내용 중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관·민의 화합과 일치단결하여 국가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뜻에서 썼던 내용으로 김영우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이각모가 쓴 칼럼 중 장군의 눈물은 특정후보를 칭송함으로서 편파적이다."고 주장

하여 이 역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각모 회장은 "지난 6.4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현삼식 양주시장 사례와 김영우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례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각모 회장은 상기 선관위 건은 김영우 후보 측이 제소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각모 회장에 관한 건은 변호사를 살 만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김영우후보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에 고발

이각모회장 검찰접수중 김영우후보 선관위에 고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



남북접경지역경제개발협의회 이각모 회장은 2월25일 새누리당 김영우예비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에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기도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위반으로 김영우 후보를 고발조치하였다.

공직선거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벌금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또는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 할 수 있으며 벌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회의원 당선자도 당선이 취소 될 수도 있다.

이각모 회장의 고발조치 내용에 따르면"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2000년 경기도 정석규 건설국장이 구상하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2002년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최초 제안되었고 2007년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원안이 가결되어 2007년 가칭 서울 북부고속도로로 출발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이 된 김영우후보가 그 이전인 2000년도부터 시작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홍보물에 마치 본인이 혼자 다 한 것같이 기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이각모 회장은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되었으며 선관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언론에 기고한 내용 중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포천주민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산업단지와 그 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김영우가 유치했으니 책임지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이에대해 "김영우 후보는 산업단지만 유치했지 그 안에 각 공장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원(시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라 부른다)은 유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인 김영우와는 관계가 없으니 모르는 일이며 이각모 회장의 언론기고문은 허위사실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우후보의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제18·19대 국회 활동 중 본인 만의 입신을 위해 중앙정치에만 매달리고 정식 법다운 법을 만들지 못하여 국회의원 300명 중 하위285위(국회의원 활동조사 시민단체자료)에 실적일 정도로 입법활동이 미약했고 술가락 얹어놓기라고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기고 했다.

이 또한 "김영우 후보는 본인은 많은 노력을 했고 지역을 위해 온갖 힘을 기울였고 또한 대안을 많이 제출했지만 수정안 1건을 제하고는 입법화 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회활동이 미약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각모 회장은 김영우후보가 2008년부터 6년 동안 김영우가 총 55회(연9회)를 여행했다는 해외여행 건을 칼럼으로 기재를 하자 이 또한 본인은 50개국을 여행했다고 하였다며 따라서 허위사실이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되었다.

특히 장군의 눈물 칼럼 내용 중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관·민의 화합과 일치단결하여 국가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뜻에서 썼던 내용으로 김영우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이각모가 쓴 칼럼 중 장군의 눈물은 특정후보를 칭송함으로서 편파적이다."고 주장하여 이역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각모 회장은 "지난6.4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이 확정 된 현삼식 양주시장사례와 김영우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례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각모 회장은 상기 선관위 건은 김영우후보측이 제소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각모회장에 관한 건은 변호사를 살만한 사건이 아니다 라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포천뉴스> 2016년 3월 1일자 4면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경기도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영우이며, 해당 내용은 포천뉴스 2016년 3월 1일자로 배포된 것으로 총 4면에 걸쳐 김영우 예비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보도내용은 전체 지면 4면에 걸쳐 김영우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상대 예비후보를 부각시키는 등 불공정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6. 기각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5
시 정 요 구 인	**전광삼**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06 3층 전광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포스트신문** 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76 대표이사 신계석
심의대상기사	포스트신문 2016년 2월 19일자 1면「국회의원 후보자 검증이 실종된 지역 4·13 총선」제하의 기사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에서 지역 현안인 영덕원전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가 편파적 보도이며 시정요구인을 직접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시정요구인은 2016년 3월 11일자 1면 하단에 시정요구인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이 실종된 지역 4·13 총선

책임과 약속을 실천할 진정한 국민의 대표 절실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구의 4·13 총선은 각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지지율의 변동 폭이 시시각각 변화되어 선거판은 파도타기의 형국으로 이어지고 후보자와 후보 지지자들은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는 안개 속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영덕지역은 원전 문제로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검증은 실종되고,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제시하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국회의원이 되면 하겠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지역민을 현혹하여 영덕을 또 다시 이분법으로 나눠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

려 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영덕 한농연 사무실에서는 전광삼 예비후보와 한농연 연합회 임원과 읍·면회장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영덕원전에 대해 전광삼 후보에게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개인적인 소신을 물었으나 구체적인 답변 없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일관하며 다만 국회의원이 되면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주민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작년 11월 주민투표로 영덕이 혼란할 때 지역 국회의원의 꿈이 있었다면 전 후보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만 한 후보자를 질타하자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영덕원전에 대한 전광삼 후보의 소견은 매일신문 인터뷰 내용에서 이미 밝혔다고 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참석자 중 한 사람은 "강석호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을 전광삼 후보를 통해 찾으려고 했는데 전광삼 후보 또한 원론적인 답변에 실망감을 느꼈다"면서, "영덕원전 문제는 우리 농민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라면서 말끝을 잇지 못하였다. 또한 "작년 11월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후보자의 관심을 지적한 질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솔직하게 먼저 출마를 고려한 지역구가 대구 북갑이다 보니 미처 영덕원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대답이 진실성이 있지 않았나" 하면서 아쉬움과 함께 농민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전광삼 예비후보가 매일신문, 영덕신문에서 밝힌 영덕원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인용하면, "원전 유치 신청과 지정고시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었다. 또한 지난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투표 방해 논란이 있었고 선거직들 역시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 원전 찬반 논쟁을 종식시키지 못했다"며 주민투표 재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찬성 반대 측 모두가 참여하여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는 방향으로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법적 투표냐 법외 투표냐는 중요하지 않다. 주민들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쏟아질 비난이나 공격은 내가 모두 감당하겠다"는 내용이다.

위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영덕원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미래 영덕에 대한 특별한 청사진이 없어 보인다. 또한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투표방해 논란만 언급하고 찬성 측에 주장하는 부정, 편법, 그리고 불법투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전 지역민의 동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주민투표에 대한 방법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주민투표 재논의를 언급한 점은 지역의 민심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여론에 무게감이 실린다.

하지만 전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친박을 지칭하며 선거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박근혜 정부가 작년 11월 주민투표를 불법이므로 주민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원전추진사업을 국가 에너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 신문에 기고된 내용에서 "중략" "원전문제는 현재 우리 세대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지역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에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과연 전광삼 후보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전광삼 후보자가 친

박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영덕원전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박근혜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원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덕원전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강석호 국회의원이 친박을 넘어 진박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신뢰성과 진실성 그리고 '법과 원칙'이란 큰 틀에서 영덕원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소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강석호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전광삼 후보가 영덕원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원론적인 답변과 지역의 정서를 고려한 정치적인 소신 부재에서 그 해답이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강석 영덕군의장은 정치적 동지였던 강석호 국회의원을 저버리고 전광삼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원전문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해법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그 이유로 밝혔으나, 전광삼 후보가 지금까지 밝힌 영덕원전에 대한 소신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주민투표 재논의가 전부이며 영덕원전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특별한 해답·해법이 없는 유보 상태이다. 하지만 이강석 영덕군의장은 영덕원전건설에 대한 입장은 무조건 반대다. 그렇다면 이강석 영덕군의장과 전광삼 후보 간에 형성된 영덕원전에 대한 공감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더욱 궁금해 하고 있다.

전광삼 후보가 영덕원전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단순 지지율을 의식한 소극적인 행보를 벗어나 우선 영덕군수를 만나 영덕원전건설의 추진경위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파악한 후 지역의 정서와 지역의 미래 그리고 지금 영덕군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교감을 통해 영덕원전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식하며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정치적 소신을 기초한 대책과 해결책에 영덕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영덕원전건설은 국책사업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선 결코 국가를 위해서나 지역민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그러므로 지역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회의원 개인이 곧 입법기관임으로 누구보다도 법질서 준수에 엄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민투표가 법적 투표냐 법외 투표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위험한 발상과 법적 근거가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주민투표 재논의를 언급하며 지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에도 상반되며, 또다시 지역을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갈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민의 희생을 앞세워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서도 절대 안 되지만 영덕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설득 그리고 공론화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고,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가 윈윈하여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책임과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검증된 국민의 대표가 절실하다는 것이 대다수 지역민의 여론이다.

포스트신문 The Post POST



포스트신문 이메일 postnews0029@hanmail.net 제24호(창간 2015년 8월 7일) 대표전화 054)734-0029 2016년 2월 19일 금요일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이 실종된 지역 4·13 총선

책임과 약속을 실천할 진정한 국민의 대표 절실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구의 4·13 총선은 각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 속에 지지율의 변동 폭이 시시각각 변화되어 선거판은 파도타기의 형국으로 이어지고 후보자와 후보 지지자들은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는 안개 속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영덕지역은 원전 문제로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 청렴에 대한 후보자의 검증은 실종되고,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제시하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국회의원이 되면 하겠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지역민을 현혹하여 영태를 또 다시 이분법으로 나눠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영덕 한능연 사무실에서는 전광삼 예비후보와 한능연 연합회 임원과 읍·면회장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영덕원전에 대해 전광삼 후보에게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개인적인 소신을 묻었으나 구체적인 답변 없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일관하며 다만 국회의원이 되면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주민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작년 11월 주민투표로 영덕이 흔들릴 때 지역 국회의원의 공이 있었다면 전 후보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만 한 후보자를 질타하자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영덕원전에 대한 전광삼 후보의 소견은 매일신문 인터뷰 내용에서 이미 밝혔다고 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참석자 중 한사람은 "강석호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을 전광삼 후보를 통해 찾으려고 했는데 전광삼 후보 또한 원론적인 답변에 실망감을 느꼈다"면서, "영덕원전 문제는 우리 농민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라면서 말끝을 잇지 못하였다. 또한 "작년 11월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후보자의 관심을 지적한 질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솔직하게 먼저 출마를 고려한 지역구가 대구 북갑이다 보니 미처 영덕원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대답이 진실성이 있지 않았나" 하면서 아쉬움과 함께 농민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전광삼 예비후보가 매일신문, 영덕신문에서 밝힌 영덕원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인용하면, "원전 유치 신청과 지정고시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었다. 또한 지난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투표방해 논란이 있었고 선거직을 역시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 원전 찬반 논쟁을 종식시키지 못했다"며 주민투표 재논의 불가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찬성 반대 측 모두가 참여하여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는 방향으로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법적 투표냐 법의 투표냐는 중요하지 않다. 주민들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쏟아질 비난이나 공격은 내가 모두 감당하겠다"는 내용이다.

위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영덕원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미래 영약에 대한 특별한 청사진이 없어 보인다. 또한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투표방해 논란만 언급하고 찬성 측에 주장하는 부정, 편법 그리고 불법투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전 지역민의 공의하에 집행할 수 있는 주민투표에 대한 방법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주민투표 재논의를 언급한 점은 지역의 민심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여론에 무게감이 실린다.

하지만 전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전박을 자칭하며 선거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박근혜 정부가 작년 11월 주민투표를 불법이므로 주민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원전주진사업을 국가 에너지 성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신문에 기고된 내용에서 "중략" "원전문제는 현재 우리세대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지역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에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과연 전광삼 후보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전광삼 후보자가 친박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영덕원선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박근혜 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원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말법으로 영덕원전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강석호 국회의원이 신박을 낳아 진박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신뢰성과 진실성 그리고 "법과 원칙"이란 큰 틀에서 영덕원전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소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강석호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전광삼 후보가 영덕원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원론적인 답변과 지역의 정서를 고려한 정치적인 소신 부재에서 그 해답이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강석 영덕군의장은 정치적 동지였던 강석호 국회의원을 저버리고 전광삼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원전문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해법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그 이유로 밝혔으나, 전광삼 후보가 지금까지 밝힌 영덕원전에 대한 소신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주민투표 재논의가 전부이며 영덕원전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특별한 해답, 해법이 없는 유보 상태이다. 하지만 이강석 영덕군의장은 영덕원전건설에 대한 입장은 무조건 반대다. 그렇다면 이강석 영덕군의장과 전광삼 후보간에 형성된 영덕원전에 대한 공감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역민들은 며칠 궁금해하고 있다.

전광삼 후보가 영덕원전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단순 지지율을 의식한 소극적인 행보를 벗어나 우선 영덕군수를 만나 영덕원전건설의 추진 경위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파악한 후 지역의 정서와 지역의 미래 그리고 지금 영덕군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교감을 통해 영덕원전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식하여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서 정치적 소신을 기초한 대책과 해결책에 영덕군민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영덕원전건설은 국책사업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선 결코 국가를 위해서나 지역민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그러므로 지역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회의원 개인이 곧 입법기관임으로 누구보다도 법질서 준수에 엄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민투표가 법적 투표냐 법의 투표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위험한 발상과 법적 근거가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주민투표 재논의를 언급하며 지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인 '법과 원칙'에도 상반되며, 또 다시 지역을 갈등과 분열로 몰고갈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민의 희생을 앞세워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서도 절대 안 되지만, 영덕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선택 그리고 공론화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고,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가 원윈하여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 할 수 있는 제기를 만들어 책임과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컨트롤 국민의 대표가 절실하다는 것이 대다수 지역민의 여론이다.

<포스트신문> 2016년 2월 19일자 1면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내용은 첫째, 영양·영덕·봉화·울진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한 전광삼 후보에 대해서 "감언이설로 지역민을 현혹하여 영덕을 또 다시 이분법으로 나눠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등 전광삼 후보에 대해 편파보도를 하였다.

둘째, 포스트신문은 한농연 간담회자리에 기자를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직접 취재를 통해 작성한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였다.

셋째, 전광삼후보에 대한 인터뷰나 의견청취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다.

넷째, 간담회장에서의 전광삼후보 발언에 대한 기사의 경우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소기의 목적에 맞추어 발언내용을 호도하는 등 특정후보를 폄하려는 의도성이 있다.

다섯째, 매일신문과 영덕신문에 보도에 대한 해석기사를 통해 편파보도를 하였다.

이러한 내용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언론사의 의도적인 선거개입으로 인하여 선거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2장 제4조 공정선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불공정 보도가 나온 주간지 동일면에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사가 게재한 반론보도



전광삼 예비후보, 천지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입장 표명

본지 2월 19일자 1면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이 실종된 지역 4·13총선'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전광삼 후보는 "천지원자력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화인 문제나 절차적 정당성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후보는 "천지원자력발전소 문제는 지금의 영덕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주민들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결과에 대해 존중하고 이를 대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12
시 정 요 구 인	**홍문표**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150 3층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주간홍성(홍성신문)**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2번길 26 대표이사 윤두영
심의대상기사	홍성신문 2016년 4월 4일자 1면 「홍성·예산 통합, 후보 입장차 커」, 8, 9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제하의 사진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한다.
이 유	시정요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홍성군·예산 지역 후보자들 3인의 토론회 관련 기사에서 양희권 후보의 초상 및 성명만을 노출하고 여타 후보의 초상 및 성명은 노출하지 않거나 식별이 어려운 수준으로 노출하였다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각 후보자들의 관련기사 크기·배치·형식 등이 균형있게 보도된 점, 해당 기사의 내용이 특별히 편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진의 게재로 인해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홍성신문
www.hsnews.co.kr
다비치보청기
무료 청력검사
50%
특별할인판매
다비치안경 홍성점
홍성점 ☎041-634-910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4~10면
군, 조직개편 추진 - '국' 설치 검토 2면
홍성·예산 통합, 후보 입장차 커
선거에 누가 나왔나?

<홍성신문> 2016년 4월 4일자 1면


홍성신문
선거 특집 9
양희권
홍문표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선진국
강희권 정직한 국회의원 되겠다
양희권 국민 위해 복소리 높히는 국회의원

<홍성신문> 2016년 4월 4일자 8, 9면

시정요구이유

충남 홍선군예산군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양희권후보의 경우, 1면, 9면 사진에 양희권후보의 이름과 얼굴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 다른 세 명의 후보는 이름과 기호, 정당구분이 안 되는 형태로 사진기사를 실어, 특정 후보에 유리한 편파사진기사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15**
시 정 요 구 인	**이규민** 경기 안성시 대천동 82 광신빌딩 4층 이규민 선거사무소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미디어안성(자치안성신문)** 경기 안성시 대천동 55-2번지 대표이사 최용진
심의대상기사	자치안성신문 2016년 4월 4일자 5면「주권자인 안성시민이, 이규민 후보에게 묻는다」제하의 기사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 유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게재한다는 취지하에 시정요구인에게 보낸 질문이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이라고 판단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피시정요구인은 질문만 게재하고 답변은 백지 상태로 남겨두어 이미지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질문 내용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질문이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보자별로 동일한 크기의 지면을 제공하였으며 답변의 내용이 짧은 타 후보의 경우에도 일부 공백을 두고 지면을 발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타 후보자에 비해 불공정한 보도로 보기 어렵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주권자인 안성시민이, 이규민 후보에게 묻는다

편집자 주 – 본지(자치안성신문)가 지난 달 30일, 4명의 후보자에게 본지의 선거 관련 보도준칙·사고·홈페이지 광고 등에서도 밝혔듯이 지역 주민을 대신하는 권력인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자질 검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유권자들의 제보와 의견을 공개 취합해 각 후보자별로 5가지를 질문을 만들어 서면으로 질문했다. 이는 주권자인 안성시민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투표일에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달 31일에는 질문 내용에 대해 다수의 후보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추가 서면질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본지의 질문을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궁금해 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전화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했다. 따라서 추가 질문에 대

한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에도 있듯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은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궁금증, 상대 후보 진영의 주장 등도 포함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분량을 질문당 1,000자로 정했으며, 이 분량은 신문 1개 지면에 달하는 불량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 등이 있다면 충분히 해명 또는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했다. 이번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이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유와 이전 정당 가입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 질문 1: 이규민 후보님은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진보정당으로 분류됐던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통합진보당에 가입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판결에 따라 강제 해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은 언제 하셨고, 정의당 등 다른 진보정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답변 1,000자)

답변 : 답변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이 이른바 '셀프공천'으로 불리는 등 특정인의 입김이 큰 작용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

▶ 질문 2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이른바 '셀프공천'으로 불리는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비롯해 특정인의 입김이 큰 작용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에는 정무적 판단이라며 아예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우클릭 정책으로 인해 야당의 정체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운동 과정을 보아도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방향의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종인 대표는 이번 선거를 위해 데려온 바지사장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우클릭 화장이 지워질 것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프공천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공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현재 국민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답변 1,000자)

답변 : 답변하지 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가보안법 전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 질문 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님의 자료를 보면 전과가 1건 있고 특별복권이 되

었으며, 군대는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과는 1991년 1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형량을 받았으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유는 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993년 3월 6일 특별복권이 되셨는데 당시 특별복권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현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답변 1,000자)

답변 : 답변하지 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와 배우자가 현금을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 질문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님의 자료를 보면 현금이 후보님과 배우자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는 후보님과 배우자는 현금을 1억원씩이나 가지고 있지만 예금(통장)이 없습니다.

현금 1억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한 현금이며, 1억원씩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금이 1억원이나 있으시면서 예금(통장) 신고는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답변 1,000자)

답변 : 답변하지 않음

'전국 제1의 교육도시, 교육특구 안성!'의 예산확보 방안 질문에 대해?

▶ 질문 5 : 후보님은 '전국 제1의 교육도시, 교육특구 안성!'을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걸으셨습니다. 전국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의 후보가 '교육도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 지역에 교육도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당선이 되신다면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경쟁도 예상됩니다.

이번 당선이 되신다면, 초선 국회의원이신데 과연 다른 지역의 다선 국회의원들과 경쟁해 어떻게 해서 안성을 교육특별지구로 지정을 받을 것인지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 제1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특별지구 지정, 공도IT 특성화 고교 설립, 고교 무상교육, 교육특화단지 건설 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1,000자)

답변 : 답변하지 않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주권자인 안성시민이, 이규민 후보에게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유와 이전 정당 가입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질문 1 : 이규민 후보님은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진보정당으로 분류됐던 통합진보당의 당원이었던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통합진보당에 가입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관련에 따라 정책 해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은 언제 하셨고, 정의당 등 다른 진보정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1,000자)

답변 : 답변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이 이른바 '셀프공천' 으로 불리는 등 특정인의 입김이 큰 작용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

▷질문 2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을 보면 이른바 '셀프 공천' 으로 불리는 김종민 대표의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비롯해 특정인의 입김이 큰 작용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국민들의 제기하는 의문에는 침무적 판단이라며 이에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대표의 무릎팍 정책으로 인해 야당의 정책 실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운동을 과정을 보아도 김종민 대표의 문제인 본 대표의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종민 대표는 이번 선거를 위해 비례은 비지사장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무릎팍 정책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공천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공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현재 국민들에게 정책실의 혼란을 주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답변 1,000자)

답변 : 답변하지 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가보안법 전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질문 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님의 자료를 보면 문과가 1건이 있고, 특별복권이 되었으며, 군대는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과는 1991년 1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형량을 받았으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유는 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력한 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993년 3월 6일 특별복권이 되셨는데, 당시 특별복권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후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특히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답변 1,000자)

답변 : 답변하지 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와 배우자가 현금을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질문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님의 자료를 보면 본인이 후보님과 배우자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에는 후보님과 배우자는 현금을 1억원씩이나 가지고 있지만 예금통장이 없습니다.

현금 1억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한 현금이며, 1억원씩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금이 1억원이나 있으시면서 예금통장이 신고는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답변 1,000자)

답변 : 답변하지 않음

'전국 제1의 교육도시, 교육특구 안성!' 의 예산확보 방안 질문에 대해?

▷질문 5 : 후보님은 '전국 제1의 교육도시, 교육특구 안성!' 을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걸으셨습니다. 전국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상당 수의 후보가 '교육도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가운데 상당 수가 자기 지역에 교육도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당선이 되신다면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경쟁도 예상합니다.

이번 당선이 되신다면, 초선 국회의원이신데 과연 다른 지역의 다선 국회의원들과 경쟁에 어떻게 해서 안성을 교육특별지구로 지정을 받을 것인지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 제1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특별지구 지정, 경도인 특성화 고교 설립, 고교 무상교육, 교육특화단지 건설 등을 위해서는 아는 경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답변 1,000자)

답변 : 답변하지 않음

<자치안성신문> 2016년 4월 4일자 5면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의 해당 기사는 마치 주권자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 같은 제목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시정요구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이미 공천까지 받은 후보에게 왜 다른 당이 아닌 그 정당에 가입했는지를 묻는 것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정직하게 재산 신고 한 후보에 대해 마치 의혹이 있는 돈이라는 식의 뉘앙스로 질문을 하고 있다. 또한 1991년 노태우 독재 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치르게 된 옥고를 국가보안법 전과 운운하며 이념적 낙인 효과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선거 이슈를 색깔 논쟁으로 왜곡시키려는 편파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으로 대응하고 있는 후보에게 자치안성신문은 신문 지면의 절반 정도를 백지로 남겨두어 후보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다. 예전 동아일보 광고면 백지사건이 여전히 언론계의 전설로 남아있듯이 신문 지면의 백지는 가장 강력하고 노골적인 의사표현이다.

답변을 해도 선거판의 이슈가 왜곡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신문 지면을 백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압박하는 것은 언론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이 기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불공정 선거보도로 판단된다. 올바른 선거 문화, 공정한 언론보도의 정착을 위해 자치안성신문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16
시 정 요 구 인	**김명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92 메이퀸오피스텔 2층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구 극동빌딩) 12층 대표이사 김현호
심의대상기사	뉴시스 2016년 3월 30일자 「안산단원갑 김명연 후보 '골목경제 활성화' 공약」 제하의 기사 외 20개 기사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이 유	시정요구인은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뉴시스에 게재된 일련의 기사들 가운데 시정요구인의 경쟁 후보에 대한 보도횟수가 더 많은 점, 경쟁 후보에 대한 보도는 즉각 이루어지면서 시정요구인에 대한 보도가 늦어지거나 누락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각 후보자에 대한 보도횟수, 게재 방식,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보도의 공정성, 형평성을 위배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산단원갑 김명연 후보 '골목경제 활성화' 공약

새누리당 경기 안산단원갑 김명연(52) 후보는 30일 안산시 선부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산시단원구지부 임원들을 만나 "외식업체 카드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주차공간 확보 등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 임원들은 "김명연 후보는 누구보다 서민경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후보로 안산의 골목경제를 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지입장을 전했다.



안산단원갑 김명연 후보 '골목경제 활성화' 공약

기사등록 일시 [2016-03-30 20:19:16]

【안산=뉴시스】 이종일 기자 = 새누리당 경기 안산단원갑 김명연(52) 후보는 30일 안산시 선부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산시단원구지부 임원들을 만나 "외식업체 카드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주차공간 확보 등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 임원들은 "김명연 후보는 누구보다 서민경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후보로 안산의 골목경제를 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지입장을 전했다. 2016.03.30. (사진 = 김명연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뉴시스> 2016년 3월 30일자

구분	보도일자	기사 제목
김명연 후보 관련 보도 (8건)	3월 31일	안산단원갑 김명연 후보 '골목경제 활성화'공약
	3월 31일	'세월호 도시' 안산단원갑·을, 조용한 선거운동
	3월 31일	새누리 안산단원갑 김명연 후보 "야당 심판해달라" 재선 호소
	3월 31일	새누리 안산단원갑 김명연 후보 "야당 심판해달라"
	4월 1일	안산단원갑 김명연 후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공약
	4월 4일	안산단원갑, 김명연-고영인 후보 '법인카드 부당사용'공방
	4월 6일	안산단원갑 새누리 김명연 후보 "노후 파출소 개선"등 공약
	4월 6일	안산단원갑 김명연-고영인 후보, 고소·고발전 '치열'
고영인 후보 관련 보도 (12건)	3월 30일	안산단원갑 고영인 후보 '교육·보육 복지공약' 발표
	3월 31일	더민주 고영인 후보, 공식 선거운동 돌입
	3월 31일	더민주 고영인·손창완 후보, 세월호 희생자 추모
	3월 31일	'세월호 도시' 안산단원갑·을, 조용한 선거운동
	3월 31일	안산 선관위 투표용지 앞당겨 인쇄, 더민주 반발
	3월 31일	"단일화 무력화냐?" 안산 선관위 투표용지 조기 인쇄, 더민주 후보들 반발
	4월 3일	"김명연 후보 보좌관 특채·재산 증식 해명하라"
	4월 4일	안산단원갑, 김명연-고영인 후보 '법인카드 부당사용' 공방
	4월 6일	세월호 유가족 "안산 야권후보 단일화하라"
	4월 6일	안산단원갑 김명연-고영인 후보, 고소·고발전 '치열
	4월 7일	안산단원갑 고영인 후보, 가족들과 토크콘서트
	4월 7일	안산단원갑 후보들 '가족토크·합동유세'로 표심 공략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과 상대 후보와의 홍보성 보도에서 각각 5회와 10회씩 보도함으로써 상대후보 보도가 2배에 이르는 불공정한 보도행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정요구인의 공약발표 보도자료는 보도하지 않다가 상대후보가 보도자료를 내면 끼워넣기 식으로 늑장보도 및 축소 보도로 일관해왔다. 또한 상호 고소 행위시 시정요구인의 고소가 먼저 이루어졌음에도 단독 보도가 없다가 하루 뒤인 상대 후보의 고소내용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하는 등 공공연하게 편파보도를 일삼아왔다. 이로 인해 시정요구인은 뉴시스 안산주재 기자의 불공정보도 및 편파보도, 축소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다.

의 결 번 호	2016국선-시심19
시 정 요 구 인	**박용진** 서울 강북구 도봉로 88, 3층(송중동) 국회의원 박용진 사무소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빌딩 대표이사 김재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6년 4월 6일자 31면 「후보 폭행…부동층 증가…소음 신고…'정치 혐오' 커졌다」 제하의 사설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별지>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이 동아일보 2016년 4월 6일자 사설에서 '국민의당 조구성 후보가 시정요구인 측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하여 시정요구인은, 해당 폭행사건은 시정요구인과 무관한 일이고, 경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며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폭행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요구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나아가 시정요구인이 소속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정요구인 측의 주장(반론)이 이미 원래의 보도에 게재되어 독자들이 양쪽의 주장을 비교 · 평가할 수 있는 점, 폭행 여부와 관련하여 원보도 내용이 시정요구인 측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점에 원래의 보도 내용과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래의 보도가 부당하게 시정요구인 측에게 불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후보 폭행…부동층 증가… 소음 신고…'정치 혐오' 커졌다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 2명이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국민의당은 서울 강북을 조구성 후보가 4일 저녁 유세 중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측은 "강북을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측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으나 사실이라면 더민주당은 당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여

성인 안 후보를 폭행한 범인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회의원 후보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테러'를 자행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

국민이 선거운동에 혐오감을 드러내고 투표 기피 심리가 커지는 것도 심각하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줄어야 하는데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부동층이 25%로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전국의 유세 소음 관련 신고는 2143건으로 하루 평균 535건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하루 211건의 2.5배나 된다. 마이크 유세와 로고송을 '들을 가치가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소음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다. "기분 나빠서" "정치가 싫어서" 같은 이유로 총선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묻지 마 훼손'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정치 혐오와 불신이 커졌다는 증거다.

누가 뭐래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 선거가 폭력과 혐오를 배설하는 난장판으로 변질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 신호다. 정치인과 국민 모두 선거를 반목과 대립이 아닌 갈등 해소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후보 폭행…부동층 증가…소음 신고…'정치 혐오' 커졌다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 2명이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국민의당은 서울 강북을 조구성 후보가 4일 저녁 유세 중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을 안귀옥 후보는 5일 새벽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뒤에서 밀치는 바람에 벽에 부딪쳐 입술이 찢어졌다.

더민주당 측은 "강북을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측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으나 사실이라면 더민주당은 당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여성인 안 후보를 폭행한 범인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회의원 후보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테러'를 자행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

국민이 선거운동에 혐오감을 드러내고 투표 기피 심리가 커지는 것도 심각하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줄어야 하는데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부동층이 25%로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전국의 유세 소음 관련 신고는 2143건으로 하루 평균 535건이다. 2014년 6·4지방선거 때 하루 211건의 2.5배나 된다. 마이크 유세와 로고송을 '들을 가치가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소음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다. "기분 나빠서" "정치가 싫어서" 같은 이유로 총선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묻지 마 훼손'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정치 혐오와 불신이 커졌다는 증거다.

누가 뭐래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 선거가 폭력과 혐오를 배설하는 난장판으로 변질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 신호다. 정치인과 국민 모두 선거를 반목과 대립이 아닌 갈등 해소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동아일보> 2016년 4월 6일자 31면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다. 당시 박용진 후보의 운동원 2명은 조구성 후보측 건너편에 있어서 서로 접촉한 적이 없었다. 일부 지지자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박용진 후보측과는 무관한 일이다. 피시정요구인은 조후보측의 주장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도, 편파보도를 했다. 아직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5대 일간지 어디에서도 기사화하지 않은 사건을 시정요구인측에는 취재요청도 하지 않은 채 사설에서 후보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보도를 했다. 이러한 내용은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2장제4조 공정성 기준, 제6조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정보도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인

1

선거기사심의기준

[일부 개정 2016. 5. 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선거기사심의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2. 선거기사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3.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

제3조 (심의고려사항) 위원회는 제2조의 심의기본원칙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4.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5.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4조 (공정성) 제2조제1호의 공정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방적,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

는 기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5조 (형평성) 제2조제1호의 형평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 또는 사실과 다르게 변형한 기사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6조 (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2조제2호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의무를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기사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은 기사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을 취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
4.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기사
5.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
6.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거나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기사
7.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기사
8.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기사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7조 (정치적 중립성) 제2조제3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 또는 비방하거나 미화하는 기사

2. 그 밖에 위 1호에 준하는 기사

제3장 세부 심의기준

제8조 (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9조 (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포함한 개인이나 정당을 포함한 단체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덧붙여 보도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상반된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 또는 변형시켜 편집, 게재한 경우 또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0조 (사진게재) 선거와 관련한 사진 또는 이미지 기사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1조 (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2조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4장 결정

제13조 (제재결정 등) 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부칙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2016. 3. 7. 규칙 제2016- 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 (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 (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 (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회의 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면의결에 대하여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 (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정요구)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

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또는 주의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서면의결을 위하여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제재조치의 공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제재대상 언론사명과 해당 결정내용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 (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 (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 (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첨 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직업	
	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경력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시 정 요 구 서</td></tr>
<tr><td rowspan="3">시정요구인</td><td>① 성 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3"></td></tr>
<tr><td>④ 전화번호</td><td></td><td>⑤ E-mail</td><td></td></tr>
<tr><td rowspan="3">시정요구 대상</td><td>⑥ 언론사명 (매체명)</td><td></td><td>⑦ 대표자 성명</td><td></td></tr>
<tr><td>⑧ 주소 또는 소재지</td><td></td><td>⑨ 보도일자 및 지면</td><td></td></tr>
<tr><td>⑩ 보 도 내 용 (별첨 가능)</td><td></td><td>⑪ 전화번호</td><td></td></tr>
<tr><td>시정요구 사항 (별지작성 가능)</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2. 2. 20.>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2">재 심 청 구 서</td></tr>
<tr><td rowspan="2">원 심 결 정</td><td>의 결 번 호</td><td></td></tr>
<tr><td>결 정 일 자</td><td></td></tr>
<tr><td rowspan="4">청 구 인</td><td>성 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r>
<tr><td>주 소</td><td></td></tr>
<tr><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E-mail</td><td></td></tr>
<tr><td>청구의 취지
및 사유</td><td colspan="2">별 첨</td></tr>
<tr><td colspan="3">「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2. 2. 20.>

(별지 제7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반 론 보 도 청 구 회 부 서</td><td>처리시간
48시간</td></tr>
<tr><td rowspan="3">청 구 인</td><td>① 성명 또는 단체명</td><td></td><td>② 대표자 성명</td><td></td></tr>
<tr><td>③ 생년월일</td><td></td><td>④ 주소 또는 소재지</td><td></td></tr>
<tr><td>⑤ 전화번호</td><td></td><td>⑥ E-mail</td><td></td></tr>
<tr><td rowspan="2">피 청 구 인</td><td>⑦ 성명 또는 단체명</td><td></td><td>⑧ 대표자 성명</td><td></td></tr>
<tr><td>⑨ 주소 또는 소재지</td><td></td><td>⑩ 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3">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td><td>⑪ 매 체 명</td><td colspan="3"></td></tr>
<tr><td>⑫ 보도일자 및 지면</td><td colspan="3"></td></tr>
<tr><td>⑬ 보 도 내 용 (별첨가능)</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4. 보도기사 전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일부개정 2016. 1. 15. 법률 제13755호〕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 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

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1호에 따른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

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

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⑧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⑫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 (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제108조의2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 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 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

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③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⑩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⑪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심의대상 매체현황

[2015년 12월 구독신청기준 : 총 371개]



1) 일간지 : 123개

중앙 일간지 (23)	종합일간(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6)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스포츠지(6)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지역 일간지 (96)	서울(15)	서울매일,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이투데이, 일간투데이, 매일일보, 아시아타임즈, 내외일보,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브릿지경제, 이데일리
	경기, 인천 (20)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도신문, 경양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기호일보, 수도권일보, 수도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인천일보, 일간경기, 전국매일, 전국우리일보, 중부일보, 현대일보
	충북(5)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대전, 충남(8)	금강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부산, 울산(6)	국제신문, 부산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경상일보
	대구, 경북(11)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영남매일, 경안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북도민일보, 경상매일, 대경일보
	경남(7)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창원일보, 경남일보, 뉴스경남, 한남일보, 경남신문
	광주, 전남(9)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전북(9)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새만금일보, 전민일보, 전북매일신문
	제주(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한라일보
기타 일간지(4)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농민신문, 환경일보

2) 주간지 : 235개

지역 주간지 (217)	서울(32)	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일보, 양천신문,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타임즈, 금천in, 노원신문,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영등포신문, 영등포투데이, 은평시민신문, 종로저널, 동대문신문, 마포신문, 서대문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시정신문, 은평신문, 주간 종로신문, 중랑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경기, 인천(32)	가평타임즈, 경기북부시민신문, 고양신문, 과천문화신문, 광명일보,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타운, 북경기신문, 세종신문, 시흥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산타임스, 안양광역신문, 여주신문, 연수신문, 용인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뉴스, 포천신문, 화성신문, 시사인천, 더 피플, 전국매일신문, 한북신문
	대전, 충남(18)	시사충청, 태안미래신문, 천안신문, 보령신문, 주간 온양신문, 충남신문, 서천신문, 놀뫼신문, 당진투데이, 서산타임즈, 주간 온주신문, 뉴스서천, 주간 당진시대, 주간 금산신문, 주간 예산신문, 공주신문, 홍성신문, 세종포스트
	충북(11)	영동신문, 옥천신문, 제천신문, 진천시사신문, 충주신문, 충청리뷰, 증평괴산저널, 음성뉴스, 음성신문,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강원(14)	강릉신문, 주간 설악신문, 원주투데이, 강원리뷰, 홍천신문, 강원신문, 영월신문, 삼척동해신문, 횡성신문, 강원고성신문, 강원북부신문, 강원가정복지 · 다문화신문, 철원신문사, 태백신문
	부산, 울산(6)	부산여성뉴스, 부울경인,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울주신문, 울산저널
	대구, 경북(21)	팔공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대구푸른신문, 청도신문, 군위신문, 고령신문, 칠곡신문, 성주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김천신문, 경북자치신문, 영주신문, 영주시민신문, 예천신문, 안동신문, 영덕신문, 울진신문, 울진마당, 영천시민신문, 경주신문
	경남(28)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신문, 거창韓신문, 경남여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김해뉴스, 남해시대, 남해신문, 뉴스사천,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산청시대, 새거제신문,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림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뉴스, 함양신문, 합천대야신문, The 함안신문

	광주, 전남(33)	시민의소리, 강진우리신문,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시민신문, 목포타임즈,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남해안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주간 강진신문, 주간 나주신문, 영광신문, 완도신문, 우리군민신문, 전남중앙신문, 전남희망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해남군민신문, 해남우리신문, 화순군민신문, 화순일보, 굿뉴스피플, 전라도닷컴, 고흥타임즈
	전북(20)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군민신문, 익산신문, 익산투데이, 정읍신문, 진안신문, 주간군산신문, 주간소통신문, 전북신문고, 정읍뉴스, 해피데이고창, 시사전북
	제주(2)	서귀포신문, 뉴스제주
종합 주간지(18)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21, 주간한국, 시사IN, 일요시사, 일요서울, 일요신문, 사건의 내막, 민주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워치, 기자협회보,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뉴스포스트, 미래한국

3) 월간지 : 7개

경제풍월, 서울21,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폴리피플

4) 뉴스통신 : 6개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 KNS뉴스통신, NSP뉴스통신

5

색인



1) 결정유형별

구분	결정유형	의결번호	언론사	면
자체심의(55)	경고	2016국선-자심5	경북신문	79
	경고	2016국선-자심7	중부일보	93
	경고	2016국선-자심9	대경일보	99
	경고	2016국선-자심11	경인종합일보	118
	경고	2016국선-자심13	일간경기	123
	경고	2016국선-자심14	대구신문	128
	경고	2016국선-자심15	포천신문	132
	경고	2016국선-자심26	경안일보	143
	경고	2016국선-자심27	대전투데이	149
	경고	2016국선-자심28	경북매일	164
	경고	2016국선-자심29	현대일보	170
	경고	2016국선-자심30	경인매일	175
	경고	2016국선-자심35	일간경기	181
	경고	2016국선-자심36	현대일보	188
	경고	2016국선-자심37	전국매일	194
	경고	2016국선-자심39	나주신문	200
	경고	2016국선-자심43	기호일보	206
	경고	2016국선-자심44	서울매일	211
	경고	2016국선-자심48	경인매일	222
	경고	2016국선-자심49	강진우리신문	232
	경고	2016국선-자심50	도민일보	240
	주의	2016국선-자심1	파주저널	244
	주의	2016국선-자심2	반월신문	247
	주의	2016국선-자심3	충남일보	251
	주의	2016국선-자심4	경기신문	255
	주의	2016국선-자심6	부천신문	262
	주의	2016국선-자심8	현대일보	264
	주의	2016국선-자심10	대경일보	265
	주의	2016국선-자심12	경인종합일보	267
	주의	2016국선-자심16	매일경제	269
	주의	2016국선-자심17	한겨레	271
	주의	2016국선-자심18	거창한뉴스	272
	주의	2016국선-자심19	전주일보	278
	주의	2016국선-자심20	전라일보	279
	주의	2016국선-자심21	강서양천신문	281
	주의	2016국선-자심22	철원신문	283

구분	결정유형	의결번호	언론사	면
	주의	2016국선-자심23	아시아타임즈	285
	주의	2016국선-자심24	세계일보	286
	주의	2016국선-자심25	함양신문	287
	주의	2016국선-자심31	서대문자치신문	291
	주의	2016국선-자심32	시민일보	294
	주의	2016국선-자심33	경인매일	296
	주의	2016국선-자심34	서울동부신문	298
	주의	2016국선-자심38	전라일보	300
	주의	2016국선-자심40	울진신문	306
	주의	2016국선-자심41	아시아일보	308
	주의	2016국선-자심42	강남포스트	310
	주의	2016국선-자심45	영암신문	313
	주의	2016국선-자심46	일요서울	318
	주의	2016국선-자심47	양천신문	321
	주의	2016국선-자심51	선경일보	323
	주의	2016국선-자심53	문화일보	325
	주의	2016국선-자심54	종로신문	327
	주의	2016국선-자심55	연수송도신문	329
	권고	2016국선-자심52	남해시대	330
시정요구심의(17)	정정보도문 게재	2016국선-시심17	파주in	333
	정정보도문 게재	2016국선-시심21	성동신문	336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1	한길뉴스	340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3	오산타임뉴스	348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4	일요서울	354
	경고	2016국선-시심11	국제뉴스	360
	주의	2016국선-시심2	거창군민신문	368
	주의	2016국선-시심6	뉴시스	372
	주의	2016국선-시심8	의정부소식	375
	주의	2016국선-시심20	반월신문	383
	권고	2016국선-시심9	내일신문	390
	권고	2016국선-시심10	포천뉴스	393
	기각	2016국선-시심5	포스트신문	402
	기각	2016국선-시심12	홍성신문	407
	기각	2016국선-시심15	자치안성신문	409
	기각	2016국선-시심16	뉴시스	413
	기각	2016국선-시심19	동아일보	416

2) 언론사별

구분	언론사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
자체심의(55)	강남포스트	주의	2016국선-자심42	310
	강서양천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21	281
	강진우리신문	경고	2016국선-자심49	232
	거창한뉴스	주의	2016국선-자심18	272
	경기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4	255
	경북매일	경고	2016국선-자심28	164
	경북신문	경고	2016국선-자심5	79
	경안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26	143
	경인매일	경고	2016국선-자심30	175
	경인매일	경고	2016국선-자심48	222
	경인매일	주의	2016국선-자심33	296
	경인종합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11	118
	경인종합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12	267
	기호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43	206
	나주신문	경고	2016국선-자심39	200
	남해시대	권고	2016국선-자심52	330
	대경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9	99
	대경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10	265
	대구신문	경고	2016국선-자심14	128
	대전투데이	경고	2016국선-자심27	149
	도민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50	240
	매일경제	주의	2016국선-자심16	269
	문화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53	325
	반월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2	247
	부천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6	262
	서대문자치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31	291
	서울동부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34	298
	서울매일	경고	2016국선-자심44	211
	선경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51	323
	세계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24	286
	시민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32	294
	아시아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41	308
	아시아타임즈	주의	2016국선-자심23	285
	양천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47	321
	연수송도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55	329
	영암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45	313

구분	언론사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
	울진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40	306
	일간경기	경고	2016국선-자심13	123
	일간경기	경고	2016국선-자심35	181
	일요서울	주의	2016국선-자심46	318
	전국매일	경고	2016국선-자심37	194
	전라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20	279
	전라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38	300
	전주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19	278
	종로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54	327
	중부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7	93
	철원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22	283
	충남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3	251
	파주저널	주의	2016국선-자심1	244
	포천신문	경고	2016국선-자심15	132
	한겨레	주의	2016국선-자심17	271
	함양신문	주의	2016국선-자심25	287
	현대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29	170
	현대일보	경고	2016국선-자심36	188
	현대일보	주의	2016국선-자심8	264
시정요구심의(17)	거창군민신문	주의	2016국선-시심2	368
	국제뉴스	경고	2016국선-시심11	360
	내일신문	권고	2016국선-시심9	390
	뉴시스	주의	2016국선-시심6	372
	뉴시스	기각	2016국선-시심16	413
	동아일보	기각	2016국선-시심19	416
	반월신문	주의	2016국선-시심20	383
	성동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2016국선-시심21	336
	오산타임뉴스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3	348
	의정부소식	주의	2016국선-시심8	375
	일요서울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4	354
	자치안성신문	기각	2016국선-시심15	409
	파주in	정정보도문 게재	2016국선-시심17	333
	포스트신문	기각	2016국선-시심5	402
	포천뉴스	권고	2016국선-시심10	393
	한길뉴스	경고결정문 게재	2016국선-시심1	340
	홍성신문	기각	2016국선-시심12	407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언론분쟁상담 02) 397-3000, 3010, 3100, 3110
팩스 02) 397-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051) 759 – 7083~4 | **FAX** 051)759-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53)763-0020~1 | **FAX** 053)763-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062)676-0360~1 | **FAX** 062)676-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42)525-0778~9 | **FAX** 042)525-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211-9022, 9027 | **FAX** 031)211-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255-2878~9 | **FAX** 033)255-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286-8081, 8083 | **FAX** 043)286-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72(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288-0010, 0981 | **FAX** 063)288-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263-1780, 1787 | **FAX** 055)263-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남광북 5길(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722-3328, 3352 | **FAX** 064)726-320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발행일 2016년 7월 22일
발행인 박용상
편 저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본부 기사심의팀(02-397-3154)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 FAX 02-397-3089
http://www.pac.or.kr
제 작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02-548-1008)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대표 02)397-3114 FAX : 02)397-3089

http://www.pac.or.kr